

# 사상의학 원론

이을호 저 | 다산학연구원 편 〈현암 이을호 전서〉는 이을호(1910~1998)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집대성한 책이다. 선생은 한말韓末 격동기에 출생하여, 일제의 지배를 당하던 환경에서 민족자강운동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옥중에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접하고, 다산茶山의 지혜로 시대를 구하고자 정약용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 문화와 고유한 사상에서 형성된 지혜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우리 민족이 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니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이 그것이다. 이는 단순한 저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밝힌 새로운 보고寶庫로, 현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올바른 미래 문화의 모델을 갈구하는 뜻있는 이들에게 더할 수 없는 지혜를 제공해 줄 것이다.



OLJE CLASSICS

# 사상의학 원론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원을 발행하며 4천 원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http://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와 〈현암 이을호 전서〉 무료 전자책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도서 유통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원태 님께 감사드립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올재 후원하러 가기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① www.olje.or.kr ② olje classics@olje.or.kr

📧 @olje classics 📘 www.facebook.com/olje 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사상의학원론



# 사상의학원론

18

이을호 지음 · 다산학연구원 편





## 간행사

선생이 1998년 88세를 일기로 서세하신 후, 2000년 11월 <이을호 전서> 9책 24권이 출판되었고, 2010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현암 이을호 연구』가 간행되었다. 그리고 10여 년 사이에 몇 가지 학계의 여망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초간본에서 빠트린 글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대의 독자들을 감안해서 원문 인용문 등도 쉽게 풀이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의 저술들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를 고려할 때 몇몇 주요 저술들을 단행본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을호 전서>를 <현암 이을호 전서>로 개명하고, 9책 24권 체제를 각권 27책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수정 증보판을 내놓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선생을 가리켜 다산학 연구의 개척자라 하기도 하고, 현대 한국학의 태두라 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 일면을 지적하는 것일 뿐, 그 깊이와 내용을 올바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선생의 학술적 탐구가 갖는 다양한 면모와 깊이는 전체적으로 고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선생의 학문 여정을 돌아볼 때 고보 시절에 이제마(李濟馬, 1838~1900)의 문인으로부터 『동의수세보원』을 익힘으로써, 인간의 근원에 대한 이해, 곧 그때까지 유행하고 있었던 주자의 성리설(性理說)로부터 고경(古經)의 성명론(性命論)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성약전을 졸업하고 중앙의 일간지에 「종합의학 수립의 전제」 등 여러 논설을 게재하고 『동양의학 논문집』 등의 창간을 주도하면서 ‘동서양 의학의 융합’을 주장하였던 것은 일제하에 허덕이고 있었던 민생을 구하고자 하였던 구세의식의 발로(發露)였다.

27세 때, 민족자강운동을 펴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어 영어의 몸으로서 『여유당전서』를 탐구하였던 것은 다산이 멸망하는 조선조의 운명을, 새로운 이념으로 광정(匡正)하고자 하였던 그 지혜를 배워서, 선생이 당면하였던 그 시대를 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광복과 함께 학교를 열었던 것은 평소에 꿈꾸었던 국가의 부흥을 교육입국을 통하여 현실에 실현시키고자 함이었다.

학술적으로 첫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역 『수은(睡隱) 간양록(看羊錄)』은 우리의 자존심으로서, 일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던 존엄의식의 발로였다. 마침내 다산의 경학연구로 학문적 토대를 쌓아, 육경사서(六經四書)에 대한 논문과 번역 등 『다산경학사상연구』를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긴 것은 조선조 500년을 지배한 주자학의 굴레로부터, 학문적 자주성과 개방성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올바른 문화를 열고자 하는 열망을 학술적 차원에서 이룬 것이었다.

선생의 학문은 난국의 시대에 국가의 앞날을 우려하여, 우리의 의식으로서 새로운 사상적 전환을 이룩하고, 한국학의 독자성을 밝혀,

현대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생의 학문은 깊고 원대한 이상에서 성장해 결실을 맺은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그 학문세계를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생이 가신 지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선생의 저술에 대한 기대가 학계에 여전한 것은 오롯이 선생의 가르침과 학술로 거둔 성과다. 문인으로서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선생의 학술이 그 빛을 더하고 남기신 글들이 더욱 널리 퍼지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전집의 간행을 계기로, 선생의 학문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그 자체의 독자성이 심도 있게 탐구되어 대한민국의 학술사에서 선생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전서의 상재(上梓)에 참여한 문인들의 둘도 없는 소망이다.

2013년 납월(臘月)

문인 오종일 삼가 씀

## 일러두기

- 『사상의학원론』은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을 국역한 것이다.
- 이 책은 1973년 행남사에서 처음 간행하였고, 2000년에 간행한 <이을호 전서> 7권의 『사상의학과 생명의학론』에 ‘의학론’과 함께 실린 것을 독립시켜 재간한 것이다.
- 이 책은 공역이지만 전체적 면모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두를 수록하였으며 공역자의 논문은 제외하였다.
- 교열 과정에서 어려운 문장이나 어휘들은 번역 또는 한글화하고, 각주 또는 괄호로 처리하였다.
- 이 책의 번역문에 들어 있는 한문 표기의 국역 및 교열자는 서영이다.

## 재판에 즈음하여

본서가 출판된 지 꼭 3년 만에 다시금 재판(再版)하게 된 것은 독자 제현의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은 바로서 이를 경하해 마지않는다.

사상의학(四象醫學)의 현대판 주해서로서는 효시를 이루었던 본서가 조심스럽게 세상에 선보였던 결과는 예상외로 학계의 반향은 컸었고 이를 모방한 표절문고판까지 나왔다는 사실은—피차의 명예를 위하여 표절자의 이름을 여기서 밝히고 싶지 않다—오히려 본서의 진가를 재확인해 주는 바라 너그럽게 이를 넘겨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3년이라는 세월은 짧고도 긴 것인지 모른다. 그간에 본서(本書)의 간행을 위하여 정(情)과 성(誠)을 다해 주셨던 수문사(壽文社) 사장(社長) 강수병(姜壽炳) 선생께서 홀연히 타계하시고 새로이 행림출판사(杏林出版社) 이갑섭(李甲燮) 사장(社長)께서 재판의 역을 맡아 주신 데 대하여는 실로 일희일비의 착잡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고 강수병(姜壽炳) 수문사(壽文社) 사장(社長)의 명복을 깊이 빌면서, 아울러 새로이 본서의 재판을 쾌낙해 주신 행림출판사(杏林出版社) 이갑섭(李甲

變) 사장(社長)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1976年 12月 日

편술자(編述者) 지(識)

○ 동의(東醫): 해동(海東)(조선(朝鮮)) 의학의 약칭(略稱).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의 동의(東醫)와 동일예(同一例)이다.

(해설) 중국(中國) 명조(明朝) 때 공정현(龔廷賢)이 지은 책에 『수세보원십권(壽世保元十卷)』이 있으나 그 내용은 본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본서 권말(卷末)에 “집집마다 의학을 알고, 사람마다 병을 안 연후에야 장수하게 될 것이다(家家知醫人人知病然後可以壽世保元)”란 구가 있으니 본서는 글자 그대로 ‘수세보원(壽世保元)’을 위한 동무의 독창적 저술일 따름이다.

## 서문

이동무(李東武)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이에 대한 시비(是非)의 논란이 없지도 않지만 반면에 이의 신봉자의 수는 날로 늘고 그의 행술(行術)의 보편화도 꾸준히 확대되어가고 있음은 사학(斯學)을 위하여 실로 경하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동무(東武)의 사상의학설(四象醫學說)은 그것이 한낱 의학설(醫學說)이기 이전에 철학과 윤리를 기저로 하는 창의적 신학설(新學說)이라는 점에서 풀 길 없는 난해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사상의학(四象醫學)의 임상적 응용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설(四象說)이라는 기초이론면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인류문화사는 많은 독창적 발견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본다. 그러나 그것들의 시초는 흔히 곱해나 심지어는 박해로까지 이끌어진 예가 불선(不鮮)하나 많은 시일의 경과와 이들의 옳음이 섯별처럼 빛나게 되고야 마는 것처럼 동무(東武)의 사상설(四象說)이야말로

그의 독창성은 언젠가는 인류문화사에 태양처럼 빛날 날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본 소책자가 시도하는 바는 지금까지 사상설(四象說)의 난해점으로 알려진 원리론에 대한 현대적 풀이와 아울러 임상면에 있어서도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이를 풀이함으로써 소위 사상의학(四象醫學)에 대한 초보자의 입문서 구실을 자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상의학(四象醫學)의 동호자로 굳힌 이들의 반려(伴侶)로서 또는 사상의학을 비판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올바른 자료의 구실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본 것이다.

본 책자의 상재(上梓)에 앞서 82세옹(歲翁) 차산(此山) 왕희필(王熙弼) 선생께서 필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는 뜻에서 표제(表題)를 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선뜻 맡아주신 고 강수병(姜壽炳) 사장님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감출 길이 없다.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빌면서 고인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이 책이 햇빛을 보는 데 수고해 주신 수문사(壽文社) 지우(祉友)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정(情)을 표(表)하고자 한다. (1973년 9월)



## 범례

1. 본서는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을 저본(底本)으로 한 전역본(全譯本)이다.
2. 편차(編次)도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순서를 따랐으나 의원론(醫源論)·광제설(廣濟說)·변증론(辨證論)을 한데 묶어서 일편(一編)을 만든 것만이 다르다.
3. 본서는 역주(譯註)를 주로 하였으나 해설과 총괄의 항(項)을 마련하여 더욱 깊은 해석을 시도하였다.
4.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록 수 편을 실었는데, 옥상가옥(屋上加屋)이 되지 않으면 다행일까 한다.
5. 본서(本書)의 역술(譯述)에 있어서는 성명론(性命論)·사단론(四端論)·확충론(擴充論)·장부론(臟腑論)·광제설(廣濟說) 등 사상설(四象說)의 총론부문(總論部門)은 이을호(李乙浩)가 담당하였고, 이여(爾餘)의 의약부문(醫藥部門)의 전부는 홍순용(洪淳用)의 담당으로 엮어졌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 현암 이을호 전서

- 1책 『다산경학사상연구』
- 2책 『다산역학연구 I』
- 3책 『다산역학연구 II』
- 4책 『다산의 생애와 사상』
- 5책 『다산학 입문』
- 6책 『다산학 각론』
- 7책 『다산학 강의』
- 8책 『다산학 제요』
- 9책 『목민심서』
- 10책 『한국실학사상연구』
- 11책 『한사상총론』
- 12책 『한국철학사총설』
- 13책 『개신유학각론』
- 14책 『한글 중용·대학』
- 15책 『한글 논어』
- 16책 『한글 맹자』
- 17책 『논어고금주 연구』
- 18책 『사상의학원론』
- 19책 『의학론』
- 20책 『생명론』
- 21책 『한국문화의 인식』
- 22책 『한국전통문화와 호남』
- 23책 『국역 간양록』
- 24책 『다산학 소론과 비평』
- 25책 『현암 수상록』
- 26책 『인간 이을호』
- 27책 『현암 이을호 연구』

## 사상의학원론 목 차

간행사 _	5
일러두기 _	8
재판에 즈음하여 _	9
서문 _	11
범례 _	13

### 제1편

제1장 성명론(性命論) _	21
제2장 사단론(四端論) _	65
제3장 확충론(擴充論) _	99
제4장 장부론(臟腑論) _	126

### 제2편

제5장 의원론(醫源論) _	149
제6장 광제설(廣濟說) _	177
제7장 사상인(四象人) 변증론(辨證論) _	202

## 제3편

- 제8장 소음인(少陰人) 신수열(腎受熱) 표열병론(表熱病論) \_ 221
- 제9장 소음인(少陰人) 위수한(胃受寒) 이한병론(裏寒病論) \_ 260
- 제10장 소음인(少陰人) 범론(泛論) \_ 299
- 제11장 소음인(少陰人) 처방(處方) \_ 313

## 제4편

- 제12장 소양인(少陽人) 비수한(脾受寒) 표한병론(表寒病論) \_ 361
- 제13장 소양인(少陽人) 위수열(胃受熱) 이열병론(裏熱病論) \_ 392
- 제14장 소양인(少陽人) 범론(泛論) \_ 410
- 제15장 소양인(少陽人) 처방(處方) \_ 421

## 제5편

제16장 태음인(太陰人) 위완수한(胃脘受寒) 표한병론(表寒病論) \_ 457

제17장 태음인(太陰人) 간수열(肝受熱) 이열병론(裏熱病論) \_ 470

제18장 태음인(太陰人) 처방(處方) \_ 489

## 제6편

제19장 태양인(太陽人) 외감요척병론(外感腰脊病論) \_ 523

제20장 태양인(太陽人) 내촉소장병론(內觸小腸病論) \_ 526

제21장 태양인(太陽人) 처방(處方) \_ 535

원저 발문 \_ 541

발문 \_ 543

편집후기 \_ 546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 개요 \_ 548



제 1편





## 제1장 성명론(性命論)

[주(註)] ○성명(性命): 인성(人性)과 천명(天命)의 합성어.

(해설) ‘성명(性命)’이란 단어는 본시 증용서의 “천명을 성이라고 말한다(天命之謂性)”에서 연유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새로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자(朱子)의 ‘성리설(性理說)’과는 대조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그가 지닌 철학적 의의는 적지 않다. 왜냐하면 주자의 성리설에서의 천명(天命)은 천리(天理)로 바뀌었지만 성명론(性命論)에서는 천명(天命)과 인성(人性)이 대등한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천리(天理)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성명(性命)을 대대적(對待)의 관계에서 파악한 동무(東武)의 사상설(四象說)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미 정주학적(程朱學的) 유학의 세계에서는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동무의 사상설이 비록 ‘유(儒)’란 토양에서 생성되었지만 그의 형성 양상은 어디까지나 독창적이라는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동무(東武) 사상설(四象說)에서는 천(天)·인(人)·성(性)·명(命)이 그의 사원구조(四元構造)의 사대요소(四大要素)로 되었는데, 성(性)·명(命)은 그중에서도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간(基幹) 요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性)·명(命)의 사상설적(四象說的) 개념의 파악이 곧 사상학(四象學) 이해의 입문이요 첩경이 되는 것이다.

1. 천기(天機)에 네 가지가 있으니 그 첫째는 지방(地方)이요, 둘째는 인륜(人倫)이요, 셋째는 세화(世會)요, 넷째는 천시(天時)니라.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주(註)] ○천기(天機): 천기(天機)의 ‘천(天)’은 ‘대자연의 이법(理法)’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상제(上帝)의 의지(意志)’로도 파악이 된다. ‘기(機)’는 기(機)틀이기도 하고 기밀(機密)이기도 하거나, 전자는 기틀로서의 이법(理法)이요, 후자는 기밀로서의 천제(天帝)일 것이다. 사상설적(四象說的) 천기(天機)는 ‘선천적(先天的) 구조(構造)’를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유사(有四): 사(四)는 사상(四象)을 의미하므로 이는 사상학(四象學)의 기본 숫자인 것이다. 그러나 사상(四象)이란 “상(象)이란 [象也者像也]”인 만큼 이는 허상(虛像)이므로 동무(東武)는 이를 구상화(具象化)하여 천기(天機)의 사상(四象)으로 지방(地方)·인륜(人倫)·사회(世會)·천시(天時)의 사대(四大) 구상(具象)을 표출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기(天機)의 사원구조적(四元構造的) 기간요소(基幹要素)인 것이다.

○지방(地方): 지역성(地域性). ‘동서남북(東西南北)의 방위(方位)를 갖춘 지역(地域)’으로서 평면세계(平面世界)이다. 거기에는 산야(山野) 천택(川澤)이 깔려 있는 만큼 국토(國土)나 향리(鄉里)나 하는 개념으로 이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막연한 공간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인륜(人倫): 1대1의 단수(單數)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부자(父子)·형제(兄弟)와 같은 혈연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군신(君臣)·부부(夫婦)·붕우(朋友)·사제(師弟)와 같은 비혈연(非血緣)관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에는 윤리·도덕이 존재해야 하는 세계이다.

○세회(世會): 복수(複數)로 얹히고 사회집단으로 형성된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예악형정(禮樂刑政) 등의 문화현상이 제도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세계인 것이다.

○천시(天時): 유구(悠久)한 역사현상으로서의 현실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사건이 있고 활동이 있다. “위로는 하늘의 때를 법으로 한다[上律天時]”(『중용』)고 하니 “위로는 하늘의 때를 법으로 한다[上律天時]”(『맹자』)의 천시(天時)도 ‘현실적 여건’을 의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저 막연한 시간성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해설) 이 구절은 다음 ‘인사에는 네 가지가 있다[人事有四]’의 절(節)과 대구(對句)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대구(對句)의 상응(相應)·상여(相與) 관계를 밝히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방(地方)·인륜(人倫)·세회(世會)·천시(天時)의 순위(順位)는 진화론적이다. 이는 마치 창조적 진화과정인 양 설명되는 것이다. 구약성경의 창세기에는 천지(天地)·광명(光明)을 창조하고 초목(草木)·금수(禽獸) 등 만물을 생성하게 한 연후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이브의 남녀를 탄생하게 한 설화가 있다. 이는 지방(地方)에서 인륜(人倫)이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역(周易)』에서는 “천지(天地)가 있는 연후에 만물(萬物)이 있고, 만물이 있는 연후에 남녀(男女)가 있고, 남녀가 있는 연후에 부부(夫婦)가 있고, 부부가 있는 연후에 부자(父子)가 있고, 부자가 있는 연후에 군신(君臣)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도 또한 지방(地方) 다음에 인륜(人倫)관계가 창조되었음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진화론적인 면에서 고찰한다면 동무(東武)의 사상설(四象說)은 미래지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인류의 영원한 문제요 또한 목표인 것이다. 인류는 이미 단수적(單數的) 인륜관계에서 복합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는데, 거기서는 비록 선악(善惡)이 상충하는 역사현상이 반복되는 속에서도 범인(凡人)들은 성인(聖人)이 되기를 희구하고, 성인은

하늘에 오르기를 바라고[希天] 있는 것이다. 이렇듯 동무(東武) 천기설(天機說)에는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창조적 진화]하려는 인류의 희원(希願)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2. 인사(人事)에 네 가지가 있으니 그 첫째는 거처(居處)요, 둘째는 당여(黨與)요, 셋째는 교우(交遇)요, 넷째는 사무(事務)니라.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주(註)] ○인사(人事): 인간생활의 양상과 여건. 천기(天機)와 대(對)를 이루고 있으며, 어쩌면 천기(天機)의 인간세적(人間世的) 구현(具顯)인지도 모른다.

○거처(居處): 지방(地方)과의 대(對). 지방(地方)은 산야(山野)·천변(川邊)의 보편적 양상이지만 거처(居處)는 그 안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생활의 한 거점인 것이다. 그것은 ‘한 인간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토굴(土窟)이나 움막 같은 원시적 거처에서 비롯하여 삼간거실(三間居室)이나 구중궁궐(九重宮闕)에 이르기까지 다 이를 거처(居處)라 할 수밖에 없다.

○당여(黨與): 인륜(人倫)과의 대(對).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의 도당(徒黨)이므로 혈연관계의 친족이 이에 속할 것이다.

○교우(交遇): 세회(世會)와의 대(對). 관작(官爵)이나 학덕(學德)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교우관계(交遇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사무(事務): 천시(天時)와의 대(對). 한 인간의 일상생활로, 역사적 사명[천시(天時)]의 개인적 실천사항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한 인간의 자서전적(自敘傳的) 생활 자체가 바로 사무(事務)일는지 모른다.

(해설) 이 구절은 앞서 천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天機有四]는 절과의 대구(對句)로, 이 두 절(節)은 성명론(性命論)의 이대(二大) 지주(支柱)이다.

거처(居處)·당여(黨與)·교우(交遇)·사무(事務)는 한 인간의 성장과정으로, 천기(天機)처럼 진화론적이다. 한 지점(地點)을 점거(占據)[居處]한 씨족사회(氏族社會)[黨與]는 점차로 문화공동체로

서의 국가[交遇]로 발전하여 그 일원(一員)으로서의 생활[事務]이 영위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생활의 진화론적 성장과정인 것이다.

[총괄] 천기(天機)·인사(人事)의 두 절은 천(天)·인(人)의 불가분리(不可分離)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흔히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천(天)과 인(人)이 서로 밀착된 관계에 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이는 동양철학의 전통적 사상이다—이러한 밀착된 관계는 합일(合一)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강목(綱目)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방(地方)이 강(綱)이라면 거처(居處)는 그의 목(目)이 되므로 지방(地方)과 거처(居處)의 관계가 합일이 되지만 실제로는 강목(綱目)의 관계인 것이다. 그와 똑같은 의미에서 인륜(人倫)이 강(綱)이라면 당여(黨與)는 그의 목(目)이 되고, 세화(世會)가 강(綱)이라면 교우(交遇)는 그의 목(目)이 되며, 천시(天時)가 강(綱)이라면 사무(事務)는 그의 목(目)이 될 것이다.

천인(天人)의 관계는 대강 세 가지 형태로 설명된다. 첫째, 천(天)이 상제(上帝)라는 인격신(人格神)으로 설명된다면 이 천(天)은 인간세(人間世)를 주재(主宰)하는 군사(君師)로서의 천(天)인만큼 주종적(主從的) 천인(天人)관계로 존재할 것이다. 둘째, 천(天)이 천리(天理)라는 이법(理法)의 형태로 설명된다면 이 천(天)은 음양설적(陰陽說的) 역도(易道)로서의 천(天)인 만큼 술수학적(術數學的) 천인관계(天人關係)로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천(天)이 성자(誠者)의 도(道)—“성은 하늘의 도[誠者天之道也]요 성지자는 사람의 도이다[誠之者人之道也]”(『중용』)—라는 실천윤리규범(實踐倫理規範)으로 설명된다면 이 천(天)은 성현 군자의 도(道)로서의 천(天)인 만큼 인간학적 천인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듯 천인관계는 몇 가지 형태로 간추려지지만 동무(東武)의 천인관계는 그 어느 형태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강목(綱目)으로서의 동무(東武)의 천인관계는 아마도 이를 구조적(構造的) 천인관계(天人關係)라고나 해야 할까. 같은 합일이기는 하지만 이는 아마도 구조적 합일이라고 해야 할는지 모른다.

3. 귀는 천시(天時)를 듣고, 눈은 세회(世會)를 보며, 코는 인륜(人倫)을 맡고, 입은 지방(地方)을 맛본다.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주(註)] ㅇ이(耳)·목(目)·비(鼻)·구(口): 인체의 기관(器官)은 형태와 기능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듣고, 보고, 맡고, 맛본다’는 것은 그들의 기능을 두고 이른 말임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목구비(耳目口鼻)는 감각을 가진 사대(四大) 표출(表出) 기관인 것이다.

(해설) 이 구절은 천기(天機)의 사상(四象)과 인체(人體)의 사대(四大) 표출(表出) 감각기관과의 생리적(生理的) 관계를 밝히고 있다. 천기(天機)의 사상(四象)과 이목구비(耳目口鼻)와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먼저 이들의 태생학적(胎生學的) 진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기(天機)의 사상(四象)은 이미 그것들이 진화론적임은 앞서 설명한 바 있거니와 이목구비는 과연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태아(胎兒)는 모체(母體)에서 분리-출산-되자마자 3일 내에 입[口]으로 모유(母乳)를 빨고 그 맛을 볼 줄[味] 안다. 다음은 얼마 후에 유아는 유모(乳母)의 체취(體臭)를 맡을 줄[嗅] 알게 됨으로써 냄새만으로도 유모의 존재를 인식한다. 다음은 유아가 물체, 특히 모친(母親)을 알아볼 줄[視]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어미 아닌 다른 사람과는 낯을 가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가 트인다[聽]는 것은 남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니 그것이 곧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가 말이 트일 때까지의 진화과정은 구(口)·비(鼻)·목(目)·이(耳)의 순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양자의 진화순위(進化順位)를 표시하면 저절로 다음과 같은 표가 작성될 것이다.

천기(天機)	지방(地方)	인륜(人倫)	세회(世會)	천시(天時)
기관(器官)	입[口]	코[鼻]	눈[目]	귀[耳]

이러한 형식적인 배합이 사실로써 증명될 수 있는 것일까.  
 “비후인륜(鼻嗅人倫) 구미지방(口味地方)”에 대하여는 동무(東武)  
 자신이 이미 성명론(性命論) 중에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이청천  
 시(耳聽天時) 목시세회(目視世會)”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공자는 “육십에 귀가 순해졌다[六十而耳順]”[『논어』 「위정」]라  
 하였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夕死可  
 矣]”[『이인(里仁)』]라 하였는데, 죽음과 직결한 문도(聞道)요 고희  
 (古稀) 직전의 이순(耳順)이라고 보면 이문(耳聞)의 경지는 공자에  
 게 있어서도 최고의 경지인 것이다. 이는 소크라테스(Sokrates)  
 가 다이몬(Daimon)의 소리를 들었다[聞]고 한 그것과도 견줄 만  
 하지 않을까. 귀로 천시(天時)를 듣는다는 것은 곧 한 사람의 ‘역  
 사적 사명(天行)·도(道)의 자각[문도(聞道)의 문(聞)은 깨달음이다]  
 인 것이니 공자나 소크라테스(Sokrates) 같은 현자(賢者)들의  
 자각(自覺)이 곧 이청천시(耳聽天時)가 아닐까.  
 우리말에 ‘세상(世上)을 보는 눈’이란 말과 ‘세상(世上) 맛’이라는  
 두 가지 말이 있다. 전자는 시야(視野) 또는 안계(眼界)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세태(世態)를 관찰하는 선천적 재능을 의미하고,  
 후자는 세상경험이란 뜻에서 후천적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목시세회(目視世會)는 전자를 가리킨 것이 아닐까.

4. 천시(天時)는 지극히 탕탕(蕩蕩)하고, 세회(世會)는 지극히 크며,  
 인륜(人倫)은 지극히 넓고, 지방(地方)은 지극히 아득하다.

天時極蕩也 世會極大也 人倫極廣也 地方極邈也

[주(註)] ○극(極): 무한성(無限性).

○탕(蕩): 유전모(流轉貌). 변화의 4차원세계.

○대(大): 체적(體積)의 척도. 부피의 3차원세계.

○광(廣): 면적(面積)의 척도. 넓이의 2차원세계.

○막(邈): 선(線)의 방향. 길이의 1차원세계.

(해설) 이러한 탕(蕩)·대(大)·광(廣)·막(邈)의 형용사가 천기(天  
 機)의 사상(四象)을 형용할 때는 그의 진화과정뿐만 아니라 차원

세계(次元世界)까지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地方)’이란 거기에 동서남북의 방향 또는 방위가 있을 따름이다. 남(南)·북극(北極)이나 회귀선(回歸線) 등으로 느껴지는 선(線)의 일차원세계가 지방(地方)인 것이니, 그러므로 지방극막(地方極邇)이 아닐까.

‘인륜(人倫)’이란 부자·형제·봉우·사제·부부 등 1대1의 인간관계로서의 선(線)의 단수(單數)구조이기 때문에 넓이로 파악되는 이차원(二次元)의 세계가 인륜(人倫)인 것이니 인륜극광(人倫極廣)이 아닐까.

‘사회(世會)’란 국가나 천하가 정치·경제·문화 등의 복합구조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는 체적(體積)으로 파악되는 삼차원의 세계인 것이니 사회극대(世會極大)가 아닐까.

‘천시(天時)’란 유수(流水)처럼 유전(流轉)하는 변화현상이니 “하늘의 운행은 썩썩하고 강건하여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쉬지 않음[天行健自疆不息]”(「건괘대상전(乾卦大象傳)」)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천시극탕(天時極蕩)이 아닐까.

그러므로 막(邇)·대(大)·광(廣)·탕(蕩)의 무한성[극(極)]은 차원세계관(次元世界觀)으로서 비로소 이해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폐(肺)는 사무(事務)에 통달하고, 비(脾)는 교우(交遇)를 취합하며, 간(肝)은 당여(黨與)를 정립하고, 신(腎)은 거처(居處)를 안정케 한다.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주(註)] ○폐(肺)·비(脾)·간(肝)·신(腎): 인체의 내장(內臟)으로서, 폐(肺)·간(肝)은 기액(氣液)의 호흡(呼吸)을 맡고, 비(脾)·신(腎)은 수곡(水穀)의 출납(出納)을 맡고 있다.

(해설) 이 구절은 인사(人事)의 사상(四象)과 내장기관(內臟器官)과의 기능적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인사(人事)의 사상(四象)과 폐(肺)·비(脾)·간(肝)·신(腎)과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먼저 이들의 발생학적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사(人事)의 사상(四象)은 그것이 이미 천기(天機)의 목(目)



이기 때문에 천기(天機)처럼 진화론적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거니와 폐(肺)·비(脾)·간(肝)·신(腎)은 과연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폐(肺)는 육지에서 서식하는 동물[陸棲動物]의 호흡기관으로, 전형적인 폐(肺)는 양서류(兩棲類) 이상의 고등동물만이 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폐(肺)·비(脾)·간(肝)·신(腎) 중 가장 최후로 발달된 장기(臟器)라 할 수 있다.

수곡(水穀)을 호흡(呼吸)·소도(消導)·배설(排泄)함에 있어서 비(脾)·간(肝)·신(腎)의 역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먼저 비(脾)는 그것을 전부 적출(摘出)하더라도 동물의 건강에는 별 지장이 없고, 위(胃)의 생성도 태아의 출생 후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비(脾)·위(胃)는 간(肝)·신(腎) 이후요 폐(肺) 이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간(肝)·신(腎)의 차례를 따지자면 간(肝)은 신진대사·해독·분비작용을 맡았고, 신(腎)은 배설기능의 주체인 것이다. 그런데 배설기능은 해독 등 생리작용에 선행했고 해독(解毒)의 간기능(肝機能) 없이도 배설기능만은 모든 하등동물에게까지 존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간(肝)·신(腎)의 선후관계는 자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장(內臟)의 진화순위(進化順位)는 신(腎)·간(肝)·비(脾)·폐(肺)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양자의 진화순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인사(人事)	사무(事務)	교우(交遇)	당여(黨與)	거처(居處)
네 장기(四臟)	폐(肺)	비(脾)	간(肝)	신(腎)

이러한 형식적 배합이 천기(天機)에서와 같이 사실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역시 상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명하기에는 극히 어려울는지 모른다. 그러나 폐(肺)·비(脾)·간(肝)·신(腎)의 기능을 달(達)·합(合)·입(立)·정(定)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인사(人事)의 사상(四象)과 결부될 때 거기서 상징적 의미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신정거처(腎定居處)’만 하더라도 신(腎)의 태생학적(胎生學的) 기능이 배설과 생식이니만큼 이는 거처안정(居處安定)의 제일차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까.

‘간립당여(肝立黨與)’는 혈연가족의 정립(整立)이니 이는 간(肝)의 해독(解毒)·보혈기능(保血機能)을 방불케 하는 것은 아닐는지.

‘비합교우(脾合交遇)’야말로 비혈연집단들이 복합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마치 비(脾)·위(胃)의 무분별한 혼탄(混呑)·소화(消化)의 기능을 상징한 것은 아닐까.

‘폐달사무(肺達事務)’는 마지막 기능으로, 통달사무(通達事務)야말로 폐(肺)의 활동에 의한 청혈(淸血)의 공급을 방불케 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다소 억지스런 설명보다는 차라리 진화론적 또는 음양설적 관계 상황에 유의하면서 앞으로의 설명을 더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총괄] 천기(天機)와 인사(人事)의 사상(四象)이 다 같이 인체의 생리적 기능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동무(東武) 사상설의 창의적 일면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천기(天機)와 인사(人事)의 관계는 강목(綱目)의 관계라 하였거니와 이목비구(耳目鼻口)와 폐비간신(肺脾肝腎)은 내외(內外) 혹은 표리(表裏)의 관계에서 서로 상응한다. 전자는 향외적(向外的) 기능이 표출(表出)되고, 후자는 향내적(向內的) 기능이 이장(裏藏)되어 있다. 이들은 다 같이 유형(有形) 유질(有質)한 형태를 갖추었으나 그의 무형(無形) 무질(無質)한 기능은 생리적인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소위 비생리적-천기(天機)·인사(人事)-기능에까지 간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사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6. 사무(事務)는 잘 가다듬어져야 하고, 교우(交遇)는 잘 이루어져야 하며, 당여(黨與)는 잘 정돈되어져야 하고, 처처(居處)는 잘 다스려져야 한다.

事務克修也 交遇克成也 黨與克整也 居處克治也

[주(註)] ○극(克): 극기(克己)·극욕(克欲)의 극(克)이다. 『논어』에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안연(顔淵)]이라 하였거니와 극기

(克己)야말로 극욕(克欲)에 의한 오악(惡惡)의 자율적 능력인 것이다.

○수(修): 수신(修身)·수도(修道)·수양(修養)의 수(修)이다. 극기(克己)의 종극적(終極的) 목표.

○성(成): 성립(成立)·성공(成功)·완성(完成)의 성(成)이다. 극기(克己)의 효과.

○정(整): 정돈(整頓)·정제(整齊)·정리(整理)의 정(整)이다. 극기(克己)의 작위(作爲).

○치(治): 치안(治安)·치산(治産)·치장(治裝)의 치(治)이다. 극기(克己)의 기초.

(해설) ‘수도(修道)’가 형이상적(形而上的)이라면 ‘치산(治産)’은 형이하적(形而下的)이다. ‘정제(整齊)’, ‘정돈(整頓)’이 제가(齊家)에 따른 말이라면 ‘성물(成物)’, ‘성공(成功)’은 평천하(平天下)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므로 ‘치(治)·정(整)·성(成)·수(修)’는 아래로부터 위로 달[自下上達]하는 인사행정(人事行程)이라 할 수 있다.

‘거처극치(居處克治)’란, 비록 거처(居處)는 초당(草堂)·모옥(茅屋) 일지라도 잘 치장(治裝)되어야 하고, 거기에서는 치산(治産)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안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당여극정(黨與克整)’이란, 당여(黨與)는 원근(遠近) 상하친척(上下親戚)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친소(親疏) 후박(厚薄)의 차등이 있게 마련이니 이들은 잘 정제(整齊)됨으로써 비로소 제가(齊家)될 수 있음을 가리킨 것이 아닐까.

‘교우극성(交遇克成)’이란, 교우(交遇)란 비혈연적 인간집단 내에서의 인간관계이니 친척 관계와는 달라서 밀착된 인간관계가 아니라 조건부—관작(官爵)이나 학덕(學德)에 의한—인간관계이므로 성물(成物)·성공(成功)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사무극수(事務克修)’란, 인사행정(人事行程)의 마지막 코스로서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노라[學不厭而教不倦]”[『맹자』 공손추] 하는 것이요 『중용』에서 이른바 “도를 품절해 놓음을 교라 한다[修道之謂教]”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修道)야말로 성인(聖人)의 사무(事務)로서 인사행로(人事行路)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공자(孔子)가 안연(顔淵)에게 이른 극기(克己)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非禮勿視]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非禮勿聽]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非禮勿言]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動]”는 소극적 극기이지만, 동무(東武)의 극기는 “자신을 이기고 사무를 닦는 것[克己而修事務]”이며 “자신을 이기고 교우를 이루는 것[克己而成交遇]”이며 “자신을 이기고 당여를 가지런히 하는 것[克己而整黨與]”이며 “자신을 이기고 거처를 다스리는 것[克己而治居處]”이니 적극적 극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7. 턱에는 주책(籌策)이 있고, 가슴속에는 경륜(經綸)이 들어 있으며, 배꼽에는 행검(行檢)이 있고, 아랫배에는 도량(度量)이 있다.

頷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주(註)] ○함(頷)·억(臆)·제(臍)·복(腹): 이들은 다 인체의 전면 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목비구(耳目鼻口)나 폐비간신(肺脾肝腎)처럼 어떠한 특수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턱’·‘가슴’·‘배꼽’·‘아랫배’는 오직 그 부위만이 지적되었을 따름이다.

○주책(籌策): 이해(利害) 득실(得失)만을 헤아려서 이를 가려내는 꾀.

○경륜(經綸): 일을 조직적으로 잘 짜내는 기획성.

○행검(行檢): 품행이 방정하고 절도가 있는 행동.

○도량(度量): 너그러운 포용력.

(해설) 이 구절은 천기절(天機節)과도 멀리 상응하고 있으면서 9절(節)과는 직접 대(對)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9절(節)에서는 인체의 후면부위(後面部位)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제부터 직립으로 보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다른 포복동물(匍匐動物)들과는 달리 척추를 꼳꼳이 세우고 향천립지(向天立地)하게 되자 음양(陰陽)이 뒤바뀌었던 것이니 그것은 향지(向地)했던(陰) 함억제복(頷臆臍腹)이 향일(向日)하게(陽) 뒹과 동시에 향천(向天)했던(陽) 두견요둔(頭肩腰臀)이 인체의 후면부위(陰)로 전이(轉移)하여 버린 사실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함억제복(頷臆臍腹)의 진화론적 설명은 그리 용이하지는 않으나 턱의 하악골(下顎骨) 중앙부위에 있는 소위 ‘이륭기(頤隆起)’는

인류의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고등인류일수록 더욱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함(頤)’이야말로 최종적 진화의 소산이라 해야 할 것이다.

억(臆)은 가슴이라 하지만 흉곽(胸廓) 그 자체는 아니다. 억(臆)은 형질(形質)이 없는 자이니 붙잡고 이야기할 길이 없다.

제(臍)·복(腹)은 태생동물(胎生動物)의 공유물(共有物)이지만 난생동물(卵生動物)에게는 복(腹)만 있으므로 제(臍)·복(腹)의 진화론적 선후는 자명한 것이다.

이 구절은 형태학적 상징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복(腹)’은 대해(大海)처럼 무엇이나 주입되는 대로 받아들이니 그의 거대한 포용력을 일러 ‘복유도량(腹有度量)’이라 하는 것이 아닐까. 제(臍)의 위치는 인체 중에서도 가장 중앙이 되는 정중부위(正中部位)에 위치하고 있는 품이 품행방정(品行方正)한지라 ‘제유행검(臍有行檢)’이라 하는 것이 아닐까.

자공(子貢)은 “억측하면 자주 맞았다[臆則屢中]”(『논어』「선진」)는 것이니 이는 자공의 경륜을 두고 이른 말이다. 그러므로 억유경륜(臆有經綸)이 아닐까.

이해득실을 따져서 추리고 고르며 뺄고 삼키는 자에 함이(頤頤)만 한 자가 없으니 함유주책(頤有籌策)이 아닌가.

[총괄] 함억제복(頤臆臍腹)은 천기(天機)와도 상응한다 함은 다름이 아니라 도량(度量)은 ‘지방(地方)’의 포용력을 방불케 하고, 행검(行檢)은 ‘인륜(人倫)’의 윤리적 실천이라 할 수 있고, 경륜(經綸)은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하는 ‘세회(世會)’의 일인 것이요, 주책(籌策)은 신책(神策)이라고도 하느니만큼 ‘천시(天時)’의 운주(運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함억제복(頤臆臍腹)은 천기(天機)의 인간화요 그의 구체(具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주책(籌策)은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경륜(經綸)은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하며, 행검(行檢)은 뽐내지 말아야 하고, 도량(度量)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籌策不可驕也 經綸不可矜也 行檢不可伐也 度量不可夸也

[주(註)] ○불가(不可): 옳지 않다,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교(驕): 교만은 경박한 자의 지나친 습성이다.  
○궁(矜): 잘난 체하며 우쭐거리는 자의 습성이다.  
○벌(伐): 선행을 감추는 멋을 모르고 그저 뽐내고 싶어 하는 자의 습성이다.  
○과(夸): 사실 이상으로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자의 습성이다.  
(해설) 교(驕)·궁(矜)·벌(伐)·과(夸)는 다 올바른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옳지 않게 여긴 것이니 왜냐하면 주책(籌策)은 함이작용(領顯作用)이므로 이해득실을 가려내되 마치 쌀밥에서 뉘를 가려내듯 치밀해야 할 것인데 교만하면 소탐대실(小貪大失)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륜(經綸)은 흉역(胸臆) 깊숙이 감추어져 있어야 할 것인데, 잘난 체하면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업신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행검(行檢)은 제형(臍形)같이 원만(圓滿) 유심(幽深) 중정(中正)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뽐내면 돌출(突出)하여-태(胎)줄을 잘못 다루다가 통겨진 배꼽처럼-남의 치소(嗤笑)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도량(度量)은 하해(河海)처럼 깊고 넓어야 할 것인데, 게다가 더 과장한다면 오히려 ‘차면 이지러지는 것(滿則虧)’이라 매사가 정체(停滯)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9. 머리에는 식견(識見)이 들어 있고, 어깨에는 위의(威儀)가 갖추어져 있으며, 허리에는 재간(材幹)이 있고, 볼기에는 방략(方略)이 있다.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주(註)] ○두(頭)·견(肩)·요(腰)·둔(臀): 이들은 인체의 후면부위(後面部位)에 위치하고 있다.  
○식견(識見): 지식과 견문.  
○위의(威儀): 위엄을 갖춘 의용(儀容).  
○재간(材幹): 재주로서의 활동적 능력.  
○방략(方略): 방법과 재략(才略), 꾀.

(해설) 진화론적인 면에서 보면 ‘두(頭)’는 고등동물의 특유물이며, 뇌수(腦髓)의 발달이야말로 인류의 특권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두견요둔(頭肩腰臀)은 포복(匍匐)동물에 있어서는 향양(向陽)부위이지만 직립한 인간이 향일(向日) 전진(前進)하자 이들은 부음부위(負陰部位)로 전이(轉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함익제복(頤臆臍腹)의 향일(向日)·향천(向天)에 따르는 인간의 지혜-주책(籌策)·경륜(經綸)·행검(行檢)·도량(度量)-는 날로 발전하였지만 두견요둔(頭肩腰臀) 안에 잠재(潛在)한 선천적 양동성(陽動性)-금수(禽獸)로서의 본능-마저 시들어버린 것은 아니고, 이들은 다른 형태로 인간화(人間化)하고 있다.

두견요둔(頭肩腰臀)은 형태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두(頭)는 횡와(橫臥)·침식(寢息)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향상(向上)하여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논어』「헌문(憲問)」)하는 자세에 있으므로 두유식견(頭有識見)이 되는 것이 아닐까.

위의(威儀)란, 사람에서뿐만 아니라 고등동물에 있어서도 평퍼짐한 어깨쪽지의 뚝뚝한 자세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웅크린 모습에는 위의(威儀)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유위의(肩有威儀)가 아닐까.

재간(材幹)이란, 전후좌우의 굴신(屈伸)뿐만 아니라 자유자재로운 회전에 이르기까지의 기예인 것이니 이는 오직 ‘허리’만이 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요유재간(腰有材幹)이 아닐까.

방략(方略)이란, 임기응변의 방책이므로 둔족(臀足)의 일상적 행동거지야말로 임기응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둔유방략(臀有方略)이 아닐까.

[총괄] 방략(方略)은 거처의 일상적 생활안정에 따르는 수단이기도 하며, 재간(材幹)은 당여(黨與)의 부재(不齊)를 정립(整立)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한 것이다. 또 위의(威儀)는 교우(交遇) 간의 차등을 나타내는 예용(禮容)이기도 하며, 식견(識見)은 사무에 통달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견요둔(頭肩腰臀)은 인사(人事)가 인간 내에서 구체화한 것인지도 모른다.

10. 식견(識見)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고, 위의(威儀)는 절대로 사치스러울 수 없으며, 재간(材幹)은 절대로 느릿느릿할 수 없고, 방략(方略)은 절대로 좀도둑질할 수 없다.

識見必無奪也 威儀必無侈也 材幹必無懶也 方略必無竊也

[주(註)] ○필무(必無): 절대 부정.

○탈(奪): 탈취(奪取)·약탈(略奪)의 탈(奪)이니 본래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치(侈): 사치(奢侈)의 치(侈)이니 본래 자기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나(懶): 게으름, 느릿느릿함이다.

○절(竊): 좀도둑질. 떴떴하지 못하고 남몰래 하는 것이다.

(해설) 탈(奪)·치(侈)·나(懶)·절(竊)은 다 같이 두견요둔(頭肩腰臀)의 선천적 기능을 좀먹는 것들이므로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식견(識見)은 밖에서 얻어지더라도 그것이 내 것으로 소화되어야 할 것인데 어찌 남의 식견을 내 것인 양 빼앗아 올 수 있겠으며, 위의(威儀)는 자기와 알맞게 어울려야 하는 것인데 어찌 남의 위의(威儀)가 나를 꾸며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재간(材幹)은 짬을 잘 맞추어야 할 것인데 어찌 재간(材幹)을 미룩미룩 늑장을 부릴 수 있으며, 방략(方略)은 빈틈이 없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찌 남몰래 좀도둑질하듯 할 수 있을 것인가.

[총괄] 이상으로 성명론(性命論)의 구조적(構造的) 사대(四大) 골격(骨格)이 성립된 셈이다. 이들은 동무(東武) 사상설(四象說)의 기본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를 표시하면 제1표와 같다.



제1표

천기 (天機)	천시(天時)	세회(世會)	인륜(人倫)	지방(地方)
	귀[耳]	눈[目]	코[鼻]	입[口]
인사 (人事)	사무(事務)	교우(交遇)	당여(黨與)	거처(居處)
	폐(肺)	비(脾)	간(肝)	콩팥[腎]
지(성) 知(性)	주책(籌策)	경륜(經綸)	행검(行檢)	도량(度量)
	턱[頤]	가슴[臆]	배꼽[臍]	배[腹]
행(명) 行(命)	식견(識見)	위의(威儀)	재간(材幹)	방략(方略)
	머리[頭]	어깨[肩]	허리[腰]	볼기[臀]

이 표(表)는 ‘사상표(四象表)’ 또는 ‘사원구조표(四元構造表)’라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표에 의하여 사상론(四象論)은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표 안에 숨겨진 몇 가지 원리와 할까 원칙이라 할까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천인(天人)의 관계(關係)

천기(天機)와 인사(人事)의 상응관계는 마치 강목(綱目)의 관계와 같다 함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으며, 천(天)·인(人)은 또한 선천(先天)·후천(後天)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무(東武) 자신은 대체로 천(天)은 포괄자 또는 보편자(大同)로 보았고, 인(人)은 특수 또는 개체[各立]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천인(天人)의 관계는 ‘인간(人間)은 소자주(小宇宙)’라거나 ‘성은 천인의 도[誠者天人之道]’라는 따위의 천인합일론과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동무(東武)의 천인(天人)관계는 때로는 대동(大同) 천(天)·각립(各立) 인(人)처럼 상반되거나 호선(好善)[천(天)]·오악(惡惡)[인(人)]처럼 상배(相背)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질자(同質者)의 합일이 아니라 차라리 상반(相反), 상배자(相背者)의 상응(相應)관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흑백과 같이 서로 괴리상태에서의 상응이 아니라 강목(綱目)관계의 동질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상응 관계라는 점에서 천인(天人)은 결코 상호이질자(相互異質者)는 아닌 것이다.

## 2. 사원론적(四元論的) 음양대대관계(陰陽對待關係)

사상설(四象說)의 근간은 ‘사상표(四象表)’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사원구조(四元構造)로 형성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음양(陰陽)의 상대관계(對待關係)에 의하여 서로 상응하고 있다. 천기(天機)와 인사(人事), 이목비구(耳目鼻口)와 폐비간신(肺脾肝腎), 함억제복(頤臆臍腹)과 두견요둔(頭肩腰臀)이 서로 상응하며, 복합적으로는 이목비구(耳目鼻口)와 함억제복(頤臆臍腹)이 동일계(同一系)를 형성하고 폐비간신(肺脾肝腎)과 두견요둔(頭肩腰臀)이 동일계(同一系)를 형성하여 서로 상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유추하면 사상론에서는 천기(天機)와 인사(人事)는 물론이거니와 성(性)과 명(命), 지(知)와 행(行), 호선(好善)과 오악(惡惡), 상승(上升)과 하강(下降), 경청(輕淸)과 질중(質重), 애노(哀怒)와 음악(喜樂), 상초(上焦)와 하초(下焦), 온열(溫熱)과 냉한(冷寒), 정기(淸氣)와 탁재(濁滓) 등이 음양(陰陽)의 상징적 대대관계(對待關係)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상(四象)이란 음양론적 사상(四象)인 것이다.

## 3. 사차원(四次元)의 세계(世界)

일차원(一次元)을 선(線), 이차원(二次元)을 면적(面積), 삼차원(三次元)을 입체(立體), 사차원(四次元)을 유전(流轉(時間)이라 한다면 동무(東武) 사원구조(四元構造)의 기저(基底)에는 차원세계관(次元世界觀)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차원세계관(次元世界觀)에 의한 제2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2표

차원 사원	사차원	삼차원	이차원	일차원
천기 (天機)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極蕩	極大	極廣	極邐
인사 (人事)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克修	克成	克整	克治

탕(蕩) · 대(大) · 광(廣) · 막(邐)은 이미 시간(時間) · 입체(立體) · 평면(平面) · 선(線)의 개념으로 설명되지만 달(達) · 합(合) · 입(立) ·

정(定)이나 수(修)·성(成)·정(整)·치(治)는 어떠한가. 달(達)은 달천덕(達天德)(『중용(中庸)』)의 달(達)이니 폐달사무(肺達事務)는 ‘폐는 천덕의 사무를 달하는 것[肺達天德之事務]’으로서 이청천시(耳聽天時)와 상응한다. 정(定)은 정착(定着)의 정(定)이니 토착(土着) 착근(着根)으로서 땅(地方)에 일차적(一次的)으로 뿌리를 꽂는[선(線)] 작위(作爲)이므로 신정거처(腎定居處)인 것이다. 합(合)은 육합(六合)의 합(合)이니 이미 체적개념(體積概念)으로 이해되 거니와 입(立)은 수립(樹立)의 입(立)이니 육합(六合) 이전의 선(線)의 나열(羅列)인 만큼 평면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정거처(腎定居處)[토착(土着)]하여 간립당여(肝立黨與) 씨족취락형성(氏族聚落形成)하면 비합교우(脾合交遇)[국가조직]하게 되므로 폐달사무(肺達事務)[성덕출현(聖德出現)]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치(治)는 토착(土着)의 치산(治産)이요, 정(整)은 씨족(氏族)의 정제(整齊)요, 성(成)은 국가의 성립이요, 수(修)는 성인(聖人)의 수덕(修德)이 아닐 수 없다.

#### 4. 진화(進化)의 법칙(法則)

본시 진화론이란, 다윈(Darwin C. R., 1809~1882)에 의하여 제창된 학설로서 생물계(生物界)에 있어서의 적자생존·자연도태 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사상설(四象說)에서의 진화법칙이란 오히려 이를 ‘창조적(創造的) 발전(發展) 향상(向上)의 법칙(法則)’이라고 해야 할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는 최고선(天[天])에 이르는 변화향상의 과정이 단계적 발전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윈(Darwin)의 생물학적 진화론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창조적 진화론은 그것이 ‘최고선(最高善)’이나 ‘완전(完全)’에의 지향이라는 점에서 종교적이요 철학적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천기(天機)·인사(人事)에 따르는 4단계 발전에서는 돌연변이(變異)나 우승열패(優勝劣敗)나 하는 따위의 생물학적 원칙은 아예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오직 거기에는 상달(上達)의 의지만이 공간을 이루고 있는 진화론(進化論)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5. 광의(廣義)의 기능일관능(機能－官能)

생리적(生理的) 기능(機能)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목비구(耳目鼻口)·폐비간신(肺脾肝腎)·합

역제복(頤臆臍腹)·두견요둔(頭肩腰臀) 등 인체 사원구조(四元構造)의 제(諸) 기관(器官)들의 제(諸) 기능이 생리적 관능(官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윤리·사회·철학·종교 등 문화적 제 요인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 데에 사상설의 또 하나의 특이한 일면이 있는 것이다.

#### 6. 형태(形態)－위치(位置)－순위(順位)의 상징(象徵)

인체의 각 기관은 각각 일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그가 위치한 부위가 있게 마련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한 형태와 부위가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상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목(耳目)은 상위(上位)니 형이상이요 비구(鼻口)는 하위(下位)니 형이하요 청시(聽視)는 형이상적 기능이요 후미(嗅味)는 형이하적 관능(官能)이 됨은 이 까닭인 것이다.

함억제복(頤臆臍腹)은 향양부위(向陽部位)니 지(知)요 두견요둔(頭肩腰臀)은 부음부위(負陰部位)니 행(行)임도 부위의 상징으로 설명되어 지는 것이다. 제형(臍形)은 방정(方正)하니 제유행검(臍有行檢)이요 요형(腰形)은 원전자재(圓轉自在)하므로 요유재간(腰有材幹)이니 이는 형태의 상징으로 설명되는 일례(一例)인 것이다. 이로서 동무(東武)의 사상설(四象說)은 사원구조(四元構造)의 신인간학(新人間學)이라고 해야 할는지 모른다. 이러한 그의 사상설적(四象說的) 신인간학(新人間學)은 한 ‘인간’을 신체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따른 심성적(心性的) 정의(情意)와 정신적 욕구로서의 애노(哀怒) 희락(喜樂)을 문제 삼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윤리적 생활의 근원으로서의 호선(好善) 오악(惡惡)과 우주론적 원리로서의 성명(性命)을 근간으로 하는 전체적 구조의 통일체로 간주했다는 데에서 독창적 일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1. 이목비구(耳目鼻口)는 ‘하늘’에서 관찰하게 되고, 폐비간신(肺脾肝腎)은 ‘사람’에게서 바로 서며, 함억제복(頤臆臍腹)은 그의 ‘지혜(知慧)’를 실천에 옮기고, 두견요둔(頭肩腰臀)은 그의 ‘행업(行業)’을 실행한다.

耳目鼻口觀於天也 肺脾肝腎立於人也 頷臆臍腹行其知也 頭肩腰臀行其行也

[주(註)] ○천(天): 천기(天機)의 천(天).

○인(人): 인사(人事)의 인(人).

(해설) 이목비구(耳目鼻口)의 관능(官能)은 맹자(孟子)도 이목지관(耳目之官)[고자(告子)]이라 하였다—청(聽)·시(視)·후(嗅)·미(味)인데, 그것들은 천시(天時)·세회(世會)·인륜(人倫)·지방(地方) 등의 천기(天機)에 의하여 관찰된다는 것은 이목비구(耳目鼻口)의 관능(官能)이 생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형이상적인 면까지 확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폐비간신(肺脾肝腎)의 기능은 달(達)·합(合)·입(立)·정(定)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사무(事務)·교우(交遇)·당여(黨與)·거처(居處) 등의 인사(人事)에 의하여 똑바로 세워진다는 것도 폐비간신(肺脾肝腎)의 기능이 결코 생리적인 점에 그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기지(行其知)’의 지(知)는 ‘박통자성야(博通者性也)’의 성(性)이요 ‘천생만민성이혜각(天生萬民性以慧覺)’의 혜각(慧覺)이니 함역제복(頷臆臍腹)의 주책(籌策)·경륜(經綸)·행검(行檢)·도량(度量)의 사지(四知)가 곧 혜각(慧覺)의 근원인 것이다.

‘행기행(行其行)’의 행(行)되는 ‘독행자명야(獨行者命也)’의 명(命)이요 ‘천생만민명이자업(天生萬民命以資業)’의 자업(資業)이니 두견요둔(頭肩腰臀)의 식견(識見)·위의(威儀)·재간(材幹)·방략(方略)의 사행(四行)이 곧 자업(資業)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총괄] 이 구절은 천(天)·인(人)·지(知)·행(行)의 사원구조(四元構造)로 ‘전인적(全人的) 통일체(統一體)’를 형성시키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사상설적(四象說的) 인간상(人間像)’이라고 할 수 있다.

12. 천시(天時)는 대동(大同)한 것이요 사무(事務)는 각립(各立)하는 것이고, 세회(世會)는 대동(大同)한 것이요 교우(交遇)는 각립(各立)하는 것이며, 인륜(人倫)은 대동(大同)한 것이요 당여(黨與)는 각립(各立)하는 것이고, 지방(地方)은 대동(大同)한 것이요 거처(居處)는 각립(各

立)하는 것이다.

天時大同也 事務各立也 世會大同也 交遇各立也 人倫大同也 黨與各立也 地方大同也 居處各立也

[주(註)] ○대동(大同): 공통성(共通性). 강(綱).

○각립(各立): 개체성(個體性). 목(目).

[(해설)] 『예기(禮記)』에서 “대도의 행은 천하의 공변됨[大道之行也天下爲公]: 바깥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는 것을 대동이라 한다[外戶而不閉是謂大同]”[예운(禮運)]는 것과는 구별된다. 오히려 각립(各立)과 대(對)를 이루는 대동(大同)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천기(天機)의 사원(四元)은 대동(大同)한 것이요 인사(人事)의 사원(四元)은 각립(各立)함을 서로 나누어서 설명했을 따름이다.

13. 주책(籌策)은 박통(博通)하는 것이요 식견(識見)은 독행(獨行)하는 것이고, 경륜(經綸)은 박통(博通)하는 것이요 위의(威儀)는 독행(獨行)하는 것이며, 행검(行檢)은 박통(博通)하는 것이요 재간(材幹)은 독행(獨行)하는 것이고, 도량(度量)은 박통(博通)하는 것이요 방략(方略)은 독행(獨行)하는 것이다.

壽策博通也 識見獨行也 經綸博通也 威儀獨行也 行檢博通也 材幹獨行也 度量博通也 方略獨行也

[주(註)] ○박통(博通): 보편성(普遍性).

○독행(獨行): 독자성(獨自性).

(해설) 지혜(慧覺)의 지(知)－성(性)－은 박통(博通)하고 자업(資業)의 행(行)－명(命)－은 독행(獨行)함을 지적하고 있다.

14. 대동(大同)한 자는 ‘천(天)’이요 각립(各立)하는 자는 ‘인(人)’이

고, 박통(博通)하는 자(者)는 ‘성(性)’이요 독행(獨行)하는 자는 ‘명(命)’이다.

大同者天也 各立者人也 博通者性也 獨行者命也

[주(註)] ○천(天): 천기(天機)의 천(天).

○인(人): 인사(人事)의 인(人).

○성(性): 성이혜각(性以慧覺)의 성(性).

○명(命): 명이자업(命以資業)의 명(命).

(해설) 12절(節)과 13절(節)을 합하여 이를 정리한 구절이다.

대동(大同)은 천(天)이요 박통(博通)은 성(性)이니 대동박통(大同博通)하는 것은 천성(天性)일 것이고, 각립(各立)은 인(人)이요 독행(獨行)은 명(命)이니 각립독행(各立獨行)하는 것은 인명(人命)일 것이다. 그러므로 동무(東武) 사상설(四象說)에서는 천명(天命)과 인성(人性)이 아니라 천성(天性)과 인명(人命)인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무(東武) 사상설(四象說)에는 상제설적(上帝說的) 천명(天命)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천(天)’은 ‘천(天)·인(人)·성(性)·명(命)’이라는 사원구조(四元構造)의 일원(一元)을 담당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전적(古典的) 성명(性命)－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중용』)－은 성명(性命)이 일여(一如)인 데 비해 동무(東武)의 천성(天性)·인명(人命)은 완전히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15. 귀는 선성(善聲)을 좋아하고, 눈은 선색(善色)을 좋아하며, 코는 선취(善臭)를 좋아하고, 입은 선미(善味)를 좋아한다.

耳好善聲 目好善色 鼻好善臭 口好善味

[주(註)] ○선성(善聲): ‘아름다운 음률(音律)’은 물론이거니와 ‘착한 말’이나 ‘글 읽는 소리’도 선성(善聲)일 것이다.

○선색(善色): ‘고운 빛깔’은 물론이거니와 ‘부드러운 얼굴빛’도 선색(善色)일 것이다. ‘교언영색(巧言令色)’(『논어』 「학이」)은 선성(善聲)도 선색(善色)도 아님은 물론이다.

○선취(善臭): ‘구수한 냄새’는 물론이거니와 ‘교양(教養) 있는 태도에서 풍기는 냄새’도 선취(善臭)일 것이다.

○선미(善味): ‘달콤한 맛’은 물론이거니와 ‘기름진 고장의 쌀맛’도 선미(善味)일 것이다.

(해설) 인간의 호선(好善)은 이목비구(耳目鼻口)의 기호(嗜好)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성선(性善)의 생리적 근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선의 근거를 천리에 두는 철학적 성선설과는 구별되지 않을 수 없다.

다산(茶山)도 “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호대(性者心之所嗜好也)”(『중용자잠(中庸自箴)』)라 하여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장한 점에서는 동무(東武) 인성론의 선하(先河)를 이루고 있으나 그의 성기호(性嗜好)는 동무(東武)의 그것처럼 이목비구(耳目鼻口)의 호선(好善)으로까지 구체화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16. 선성(善聲)은 귀에 순응(順應)하고, 선색(善色)은 눈에 순응(順應)하며, 선취(善臭)는 코에 순응(順應)하고, 선미(善味)는 입에 순응(順應)한다.

善聲順耳也 善色順目也 善臭順鼻也 善味順口也

[주(註)] ○순(順): 순응(順應) · 순종(順從) · 순리(順理) · 순조(順調) · 순화(順和) 등의 순(順)으로, 역(逆)의 반(反).

(해설) 이목비구(耳目鼻口)는 천기(天機)의 기관(器官)이다. 그러므로 호선(好善)은 순천(順天)하는 인간의 본연의 길이요 인성이 선험은 이 까닭인 것이다.

17. 폐(肺)는 악성(惡聲)을 싫어하고, 비(脾)는 악색(惡色)을 싫어하며, 간(肝)은 악취(惡臭)를 싫어하고, 신(腎)은 악미(惡味)를 싫어한다.



肺惡惡聲 脾惡惡色 肝惡惡臭 腎惡惡味

[주(註)] ○악성(惡聲): ‘듣기 싫은 소음(騷音)’은 물론이거니와 ‘음담패설(淫談悖說)’도 악성(惡聲)인 것이다.

○악색(惡色): ‘지저분한 추물(醜物)’은 물론이거니와 ‘교언영색(巧言令色)’의 영색(令色)’도 악색(惡色)인 것이다.

○악취(惡臭): ‘시궁창 냄새’ 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탐관오리(貪官汚吏)’의 유취(遺臭)’도 악취(惡臭)인 것이다.

○악미(惡味): ‘간이 맞지 않은 음식의 맛’은 물론이거니와 ‘해불 맛 없는 싱거운 일’도 악미(惡味)인 것이다.

(해설) 성(聲) · 색(色) · 후(臭) · 미(味)는 이목비구(耳目鼻口)의 소관(所管)인데 왜 폐비간신(肺脾肝腎)이 이에 간여(干與)하여 오악(惡惡)하는 것일까. 본시 호선(好善) 오악(惡惡)은 성선(性善)의 표리(表裏)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孔子)도 “오진 어진 자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惟仁者能好人能惡人]” (『논어』 「이인」)라 하였고, 다산(茶山)도 “선을 즐겨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본성이다[樂善而惡惡好德而耻汚斯之謂性也]” (『중용자잠(中庸自箴)』)라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목비구(耳目鼻口)와 폐비간신(肺脾肝腎)은 상호(相互) 표리(表裏)관계에 있으므로 오악(惡惡)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목비구(耳目鼻口)와 폐비간신(肺脾肝腎)의 내외(內外) 표리(表裏)관계는 장부론(臟腑論)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8. 악성(惡聲)은 폐(肺)를 거스르고, 악색(惡色)은 비(脾)를 거스르며, 악취(惡臭)는 간(肝)을 거스르고, 악미(惡味)는 신(腎)을 거스른다.

惡聲逆肺也 惡色逆脾也 惡臭逆肝也 惡味逆腎也

[주(註)] ○역(逆): 거역(拒逆) · 반역(返逆)의 역(逆)으로, 순(順)의 반(反).

(해설) 폐비간신(肺脾肝腎)은 인사(人事)를 맡은 장기(臟器)이다.

그러므로 오악(惡惡)은 수인사(修人事)하는 인간(人間) 당위(當爲)의 길인 것이요 자율적(自律的) 극기(克己)가 필요함은 이 까닭인 것이다.

[총괄] 호선(好善)이나 오악(惡惡)이나 다 같이 최고선(最高善)을 향(向)한 두 갈래의 길이지만, 호선(好善)은 천도(天道)요 오악(惡惡)은 인도(人道)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도달점은 다 같다는 점에서 “성실한 자는 하늘의 도[誠者天之道也]이고 성실하려는 자는 사람의 도이다[誠之者人之道也]”(『중용』)의 구별과도 비슷한 것이다. 성실한 자(誠者)는 ‘힘쓰지 않아도 맞는 것[不勉而中]’은 천도(天道)요 성실히 하려는 자(誠之者)는 ‘선을 택하여 굳게 잡는 것[擇善而固執之]’은 인도(人道)라는 점에서인 것이다.

19. 턱에는 교심(驕心)이 들어 있고, 가슴속에는 긍심(矜心)이 들어 있으며, 배꼽에는 벌심(伐心)이 들어 있고, 아랫배에는 과심(夸心)이 들어 있다.

頤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해설) 턱에는 주책(籌策)이 있고(제7절) 주책(籌策)은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제8절)는데 턱에 교심(驕心)이 있다면 이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이중성(二重性)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중성격(二重性格)의 요인(要因)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슴속이나 배꼽이나 아랫배나 모두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성(二重性)은 동무(東武)만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이러한 이중성(二重性) 때문에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이 있고, 본연기질양성론(本然氣質兩性論)이 있고, 또 도의금수양성론(道義禽獸兩性論)도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관념적(觀念的) 가설(假說)에 지나지 않지만 동무(東武)의 교궁벌과(驕矜伐夸)의 사심(邪心)은 함역제복(頤臆臍腹)의 혜지(慧知)와 공존(共存)한다는 점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21절과 함께 소위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의 상설적(象說的) 전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함의제복(領臆臍腹)의 혜지(慧知)는 도심(道心)의 근원(根源)이요 그의 교궁벌과(驕矜伐夸)는 인심(人心)의 구체(具體)인 것이다.

20. 교심(驕心)이란 교의(驕意)인 것이요, 긍심(矜心)이란 긍려(矜慮)인 것이요, 벌심(伐心)이란 벌조(伐操)인 것이요, 과심(夸心)이란 과지(夸志)인 것이다.

驕心驕意也 矜心矜慮也 伐心伐操也 夸心夸志也

(해설) ‘의(意)·려(慮)·조(操)·지(志)’의 사자(四字)를 글자대로 새기면 ‘뜻’ 또는 ‘생각’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사상설(四象說)의 원리를 모르는 자의 자구(字句)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술한 바 있는 음양설(陰陽說)과 상징론(象徵論)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

장부론(臟腑論)에 의하면 “진해(津海)에는 의(意)가 감추어져 있고, 고해(膏海)에는 려(慮)가 감추어져 있으며, 유해(油海)에는 조(操)가 감추어져 있고, 액해(液海)에는 지(志)가 감추어져 있다[津海藏意 膏海藏慮 油海藏操 液海藏志]”라 하였는데, 진해(津海)의 ‘상승지력(上升之力)’은 교의(驕意)의 근본이고, 고해(膏海)의 ‘정축지력(停畜之力)’은 긍려(矜慮)의 근본이며, 유해(油海)의 ‘소도지력(消導之力)’은 벌조(伐操)의 근본이며, 액해(液海)의 ‘하강지력(下降之力)’은 과지(夸志)의 근본이니 의(意)·려(慮)·조(操)·지(志)의 정상(情狀)은 ‘상승(上升)’ ‘정축(停畜)’ ‘소도(消導)’ ‘하강(下降)’의 상(象)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음양설적(陰陽說的) 상징론(象徵論)에 근거하여 설명함으로써 비로소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의(驕意)는 상승지력(上升之力)이니 경박(輕薄)하고, 긍려(矜慮)는 정축지력(停畜之力)이니 체류(滯留)되고, 벌조(伐操)는 소도지력(消導之力)이니 서완(徐緩)하고, 과지(夸志)는 하강지력(下降之力)이니 후중(厚重)한 것이다.

21. 머리에는 천심(擅心)이 있고, 어깨에는 치심(侈心)이 있으며, 허리에  
 나심(懶心)이 있고, 볼기에는 욕심(慾心)이 있다.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臀有慾心

[주(註)] ○천심(擅心): 자존(自尊)·임의(任意)의 뜻.  
 (해설) 머리에는 식견(識見)이 있고(제9절) 식견(識見)은 빼앗지  
 않아야 한다(제10절)인데 머리에 천심(擅心)이 있다면 이는 이율  
 배반적 이중성인 것이다. 이 점은 19절의 경우와 같다. 단 이 절  
 에 있어서의 천(擅)[奪]치나욕(侈懶慾)[竊]은 전절(前節)이 지(知)와  
 의 공존(共存)임에 반(反)하여 행(行)과의 병존(並存)이라는 점이  
 다를 따름이다.  
 [총괄] 19절과 합하여 송학적(宋學的)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본  
 연기질양성론(本然氣質兩性論)에 가름하는 사상설적(四象說的) 인  
 심설(人心說)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2. 천심(擅心)은 탈리(奪利)하는 것이요, 치심(侈心)은 자존(自尊)하  
 는 것이요, 나심(懶心)은 자비(自卑)하는 것이요, 욕심(慾心)은 절물(竊  
 物)하는 것이다.

擅心奪利也 侈心自尊也 懶心自卑也 慾心竊物也.

[주(註)] ○탈리(奪利)…남의 몫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는 짓.  
 ○자존(自尊): 스스로 자기를 치켜세우는 짓.  
 ○자비(自卑): 못한 체 뒤로 빠지는 짓.  
 ○절물(竊物): 남의 것을 몰래 좀도둑질하는 짓.  
 (해설) 탈리(奪利)·자존(自尊)은 양적(陽的)이고, 자비(自卑)·절물  
 (竊物)은 음적(陰的)이다. 교궁벌과(驕矜伐夸)는 지(知)의 실중(失  
 中)이요, 탈치나절(奪侈懶竊)은 행(行)의 실중(失中)이다.

23. 사람들의 이목비구(耳目鼻口)는 호선(好善)함이 더할 나위 없고, 사람들의 폐비간신(肺脾肝腎)은 오악(惡惡)함이 더할 나위 없으며, 사람들의 함역제복(頤臆臍腹)은 사심(邪心)이 더할 나위 없고, 사람들의 두견요둔(頭肩腰臀)은 태행(怠行)이 더할 나위 없다.

人之耳目鼻口好善無雙也 人之肺脾肝腎惡惡無雙也 人之頤臆臍腹邪心無雙也 人之頭肩腰臀怠行無雙也

[주(註)] ○인(人): 인사(人事)의 인(人)이 아니라 중인(衆人)의 인(人)을 범칭(凡稱)한 인(人).

○무쌍(無雙): 유일무이(唯一無二). 견줄 데 없으리만큼 뛰어남.

○사심(邪心): 정심(正心)[주책(籌策)·경륜(經綸)·행검(行檢)·도량(度量)]의 반(反). 교驕·궁(矜)·벌(伐)·과(夸)의 총칭.

○태행(怠行): 정행(正行)[식견(識見)·위의(威儀)·재간(材幹)·방략(方略)]의 반(反). 탈(奪)·치(侈)·나(懶)·절(竊)의 총칭.

(해설) 여기서 동무(東武) 사상설의 윤리적 사원구조(四元構造)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호선(好善) 오악(惡惡)은 도심(道心)의 양면상(兩面相)이요 사심(邪心) 태행(怠行)은 인심(人心)의 양면상(兩面相)인 것이다. 송학적(宋學的)인 면에서 논하면 전자는 본연지성의 근거가 되고, 후자는 기질지성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무(東武)의 윤리설은 결코 송학적(宋學的) 성론(性論)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으니 여기에 동무(東武) 사상설의 독창성이 있는 것이다.

24. 요(堯)·순(舜)이 인정(仁政)을 펴신 지 5천 년이 되었건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선(善)을 말하는 자는 모두 ‘요·순’이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호선(好善)은 과연 더할 나위 없다. 걸(桀)·주(紂)가 폭정(暴政)을 펼치기도 4천 년이나 되었건만 천하의 악(惡)을 말하는 자는 모두 ‘걸·주’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오악(惡惡)이

과연 더할 나위 없다. 공자 같은 성인에게 3천 제자가 가르침을 받았건만 오직 안자(顔子)만이 석 달 동안 사람구실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고, 다른 제자들은 하루나 한 달을 넘지 못했으며, 기꺼이 정성껏 선생을 따르던 자 겨우 72인임을 보면 사람들의 사심(邪心)은 과연 더할 나위 없다. 문왕(文王)은 덕망(德望)으로 백년토록 산 후에 붕거(崩去)하였건만 아직도 천하에 흠족하지 못했고, 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이 그를 계승한 연후에야 비로소 크게 시행되었는데, 그나마도 관숙(管叔)·채숙(蔡叔)은 지친(至親)의 몸으로 반란까지 꾀한 것을 보면 사람들의 태행(怠行)은 과연 더할 나위 없다.

堯舜之行仁 在於五千年前 而至于今天下之稱善者 皆曰堯舜則人之好善果無雙也 桀紂之行暴 在於四千年前 而至于今天下之稱惡者 皆曰桀紂則人之惡惡果無雙也 以孔子之聖 三千之徒受教 而惟顏子三月不違仁 其餘日月至焉 而心悅誠服者 只有七十二人 則人之邪心果無雙也 以文王之德 百年而後崩 未洽於天下 武王周公繼之然後大行而管叔蔡叔猶以至親作亂 則人之怠行果無雙也

[주(註)] ○요(堯)·순(舜): 중국 고대 전설적 두 성왕(聖王).

○걸(桀)·주(紂): 걸은 하말(夏末), 주는 은말(殷末)의 폭군(暴君).

○문왕(文王): 주(周)나라 서백(西伯)으로, 주왕조(周王朝)가 되자 문왕(文王)으로 추존(追尊)함.

○무왕(武王): 문왕(文王)의 아들. 은(殷)을 정벌하여 주왕조(周王朝)를 세웠다.

○주공(周公): 무왕(武王)의 아우. 주례(周禮)를 제작하여 주왕조의 기초를 닦았다.

○관숙(管叔)·채숙(蔡叔): 관숙(管叔)은 주공(周公)의 형이고 채숙(蔡叔)은 그의 아우.

(해설) 이 구절은 마치 23절(節)의 주각(註脚)처럼 되어 있는데, 호선(好善)·오악(惡惡)·사심(邪心)·태행(怠行)의 사례를 중국

고사에서 인증(引證)하고 있다.

(참고) ○大哉堯之爲君巍巍乎唯天爲大唯堯則之(『논어』 「태백」: 『맹자』 「등문공」)

○修己而安百姓堯舜其猶病諸(『논어』 「현문」)

○齊宣王問曰湯放桀武王伐紂有諸孟子對曰於傳有之曰臣弑其君可乎曰賊仁者謂之賊賊義者謂之殘殘賊之人謂之一夫聞誅一夫紂矣未聞弑君也(『맹자』 「양혜왕」)

○子曰回也其心三月不違仁其餘日月至焉而已矣(『논어』 「옹아」)

○以德服人者中心悅而誠服也如七十子之服孔子也(『맹자』 「공손추」)

○且以文王之德百年而後崩猶未洽於天下武王周公繼之然後大行(『맹자』 「공손추」)

○周公使管叔監殷管叔以殷畔(『맹자』 「공손추」)

○『書傳』 「大誥篇」 참조

25. 이목비구(耳目鼻口)는 사람마다 다 요(堯)·순(舜)이 될 수 있고, 함역제복(頤臆臍腹)은 사람마다 다 자기 스스로 요·순이 되지 못한다. 폐비간신(肺脾肝腎)은 사람마다 다 요·순이 될 수 있고, 두견요둔(頭肩腰臀)은 사람마다 다 자기 스스로 요·순이 되지 못한다.

耳目鼻口人皆可以爲堯舜 頤臆臍腹人皆自不爲堯舜 肺脾肝腎人皆可以爲堯舜 頭肩腰臀人皆自不爲堯舜

[주(註)] ○가이위(可以爲): 목표 달성의 가능성.

○자불위(自不爲): 선택의 자율성.

○요(堯)·순(舜): 대표적 성인.

(해설) 인간은 가능성 존재이므로 자율적 존재인 것이다. 요·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스스로의 자율적 책임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동무(東武)는 이목비구(耳目鼻口)의 호선(好善)과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오악(惡惡)은 가능성의 근거가 되고, 함역제복(頤臆臍腹)의 사심(邪心)과 두견요둔(頭肩腰臀)의 태행(怠行)은 자율적 극기의 대상이 됨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특히—앞으로도—그러하거니와—이목비구(耳目鼻口)·폐비간신(肺脾肝腎)·함익제복(頤臆臍腹)·두견요둔(頭肩腰臀) 등 인체의 사원구조(四元構造)를 명시한 것은—이 구(句)를 삽입하지 않더라도 문장은 성립된다—그의 윤리설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인체의 생리(生理)·조직(組織)—특히 사원구조(四元構造)—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참고) ○孟子道性善言必稱堯舜(『맹자』「등문공」)

○顏淵曰舜何人也予何人也有爲者亦若是(『맹자』「등문공」)

○孟子曰鶴鳴而起孳孳爲善者舜之徒也(『맹자』「진심」)

○曹交問曰人皆可以爲堯舜有諸孟子曰然……堯舜之道孝弟而已矣子服堯之服誦堯之言行堯之行是堯而已矣(『맹자』「고자」)

26. 사람들의 이목비구(耳目鼻口)가 호선(好善)하는 마음은 못사람들의 이목비구(耳目鼻口)를 놓고 논해본다 하더라도 요·순에게 채찍 한 개만큼도 더 나은 데가 없다. 사람들의 폐비간신(肺脾肝腎)이 오악(惡惡)하는 마음은 요·순의 폐비간신(肺脾肝腎)을 놓고 논해본다 하더라도 못사람들에게 채찍 한 개만큼도 덜한 데가 없다. 사람마다 다 요·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사람들의 함익(臍腹) 중에는 세상을 속여 보려는 마음이 늘 숨겨져 있으니 제 본심을 간직하고 제 본성을 기른 연후에야 요·순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의 두견요둔(頭肩腰臀) 밑에는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가끔 감추어져 있으니 자신을 가다듬고 정명(正命)을 바로 세운 연후에야 사람마다 다 요·순의 행실처럼 될 수 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스스로 요·순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人之耳目鼻口好善之心 以衆人耳目鼻口論之 而堯舜未爲加一鞭也 人之肺脾肝腎惡惡之心 以堯舜肺脾肝腎論之 而衆人未爲少一鞭也 人皆可以爲堯舜者以此 人之頤臆臍腹之中 誣世之心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然



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下 罔民之心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以此

(해설) 이 구절은 성범일여(聖凡一如)를 논한 구절이다. 윤리적 가능성과 자율성에 있어서 성인이나 중인(衆人)이나 조금도 다른 바 없이 균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더한 것도 없고-미위가(未爲加)-덜한 것도 없다-미위소(未爲少)-는 것이다. 동무(東武) 인간학-인성론-이 성품계설(性品階說)[한유(韓愈)의 상(上)·중(中)·하(下) 삼품설(三品說)]이나 기질청탁설(氣質淸濁說)[송유(宋儒)의 기질지성론]과 구별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무세지심(誣世之心)은 교궁벌과(驕矜伐夸)의 사심(邪心) 때문이고, 망민지심(罔民之心)은 탈치나절(奪侈懶竊)의 태행(怠行) 때문이다. 존심양성(存心養性)은 본유(本有)의 혜지(慧知)를 존양(存養)하는 것이고, 수신입명(修身立命)은 본유(本有)의 정행(正行)을 수립(修立)하는 것이다.

(참고) ○存其心養其性所以事天也妖壽不貳修身以俟之所以立命也『맹자』 「진심」

○盡其道而死者正命也『맹자』 「진심」

27. 이목비구(耳目鼻口)의 정(情)은 길 가는 사람들도 의(義)로움에 협찬(協贊)하는 데 있어서는 대동(大同)한 까닭에 호선(好善)하는 것이다. 호선(好善)의 실상(實相)은 지극히 공평(公平)하다. 지극히 공평하면 또한 지극히 사(私)가 없을 것이다.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정(情)은 같은 방 안에 있는 사람끼리도 이(利)끝을 따지는 점에 있어서는 제 각기 다른 입장에 서게 되는 까닭에 오악(惡惡)하는 것이다. 오악(惡惡)의 실상(實相)은 지극히 시(私)가 없는 것이다. 지극히 사(私)가 없다면 또한 지극히 공평할 것이다. 함역제복(頤臆臍腹) 중에는 스스로 심이 없는 지혜가 끊듯 같듯 하면서 들어 있으나 교궁벌과(驕矜伐夸)하는 사심이 갑자기 이를 무너뜨리면 스스로 그 지혜를 버리면서 박

통(博通)할 수 없게 된다. 두견요둔(頭肩腰臀) 밑에는 스스로 심이 없는 행실(行實)이 의젓이 빛나면서 들어 있으나 탈치나절(奪侈懶竊)하는 욕심(慾心)이 갑자기 이를 함정 속에 빠뜨리면 스스로 그 행실을 버리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耳目鼻口之情 行路之人大同於協義 故好善也 好善之實極公也 極公則亦極無私也 肺脾肝腎之情 同室之人各立於擅利 故惡惡也 惡惡之實極無私也 極無私則亦極公也 頷臆臍腹之中 自有不息之知 如切如磋 而驕矜伐夸之私心 卒然敗之 則自棄其知而不能博通也 頭肩腰臀之下 自有不息之行 赫兮喧兮 而奪侈懶竊之慾心 卒然陷之 則自棄其行而不能正行也

[주(註)] ○정(情): 정상(情狀)·실정(實情)의 정(情).

○협의(協義): 의(義)는 선아(善我)의 근본이요, 협(協)은 합치(合致).

○실(實): 실정(實情)의 실(實).

○극공(極公): 천하위공(天下爲公)의 공(公). 무사(無私)의 공(公).

○천리(擅利): 이(利)끝만을 탐내는 것.

○불식(不息): 항구불멸(恒久不滅).

(해설) 이목비구(耳目鼻口)의 호선(好善)과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오악(惡惡)은 다 같이 극공무사(極公無私)하지만 전자는 ‘대동어협의(大同於協義)’하고 후자는 ‘각립어천리(各立於擅利)’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함억제복(頷臆臍腹)의 혜지(慧知)나 두견요둔(頭肩腰臀)의 정행(正行)은 다 같이 절차(切磋) 혁환(赫喧)하지만 언제나 교궁벌과(驕矜伐夸)의 사심(私心)과 탈치나절(奪侈懶竊)의 욕심(慾心)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선(好善) 오악(惡惡)과 혜지(慧知) 정행(正行)은 도심(道心)의 근거가 되고, 사심(邪心) 태행(怠行)은 인심(人心)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송유(宋儒)들의 ‘도심유미 인심유위(道心惟微 人心惟危)’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혜지(慧知)는 여절여차(如切如磋)하고 정행(正行)은 혁환(赫兮喧兮)한데 어찌 유미(惟微)하겠는가.

그러나 무세지심(誣世之心)－교궁벌과지사심(驕矜伐夸之私心)－은 매매은복(每每隱伏)하여 졸연혜지(卒然慧知)를 패지패지(敗之敗之)

하며, 망민지심(罔民之心)－탈치나절지욕심(奪侈懶竊之慾心)－은 매매암장(每每暗臟)하여 졸연정행(卒然正行)을 함지(陷之)하니 이러한 윤리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므로 인심유위(人心惟危)인가?  
(참고) ○詩云 瞻彼淇澳 萋竹猗猗 有斐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 瑟兮  
僖兮 赫兮喧兮(『대학』)

28. 이목비구(耳目鼻口)는 사람마다 다 슬기롭고 함억제복(頤臆臍腹)은 사람마다 다 어리석다. 폐비간신(肺脾肝腎)은 사람마다 다 현명하고 두견요둔(頭肩腰臀)은 사람마다 다 답잖다.

耳目鼻口人皆知也 頤臆臍腹人皆愚也 肺脾肝腎人皆賢也 頭肩腰臀人皆不肖也

(해설) 지(知)와 우(愚)는 대(對)가 되고, 현(賢)과 불초(不肖)도 대(對)가 된다. 지(知)와 현(賢)은 과한 점, 우(愚)와 불초(不肖)는 불급(不及)한 점에서 다 같이 실중(失中)이 되는 것이다.

(참고) ○子曰 道之不行也 我知之矣 知者過之 愚者不及也 道之不明也 我知之矣 賢者過之 不肖者不及也(『중용』)

29. 사람들의 이목비구(耳目鼻口)는 천(天)이니 천(天)은 슬기롭고, 사람들의 폐비간신(肺脾肝腎)은 인(人)이니 인(人)은 현명하다. 나의 함억제복(頤臆臍腹)은 저절로 내 마음이 되어 있건만 어리석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어리석음을 면하기란 나 하기에 따른 것이다. 내 두견요둔(頭肩腰臀)은 저절로 내 몸이 되어 있건만 답잖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답잖음을 면하기란 나 하기에 따른 것이다.

人之耳目鼻口天也 天知也 人之肺脾肝腎人也 人賢也 我之頤臆臍腹我自爲心 而未免愚也 我之免愚在我也 我之頭肩腰臀我自爲身 而未免不肖也 我之免不肖在我也

[주(註)] ○인지(人之): 일반인(衆人).

○천지(天知): 호선(好善).

○인현(人賢): 오악(惡惡).

○아지(我之): 자아(自我).

○아자위(我自爲): 주책(籌策) · 경륜(經綸) · 행검(行檢) · 도량(度量).

○미면우(未免愚): 교(驕) · 궁(矜) · 벌(伐) · 과(夸).

○아자위신(我自爲身): 식견(識見) · 위(威儀) · 재간(材幹) · 방략(方略).

○미면불초(未免不肖): 탈(奪) · 치(侈) · 나(懶) · 절(竊).

(해설) 이 구절에서는 특히 ‘아지(我之)’, ‘재아(在我)’라 하여 아(我)－자아(自我)－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면우(免愚)’, ‘면불초(免不肖)’의 책임이 강조되고 동시에 윤리적 자율성이 강조된 셈이다. 자아의식 또는 주체의식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였다.

30. 하늘이 만민(萬民)을 내실 때에 성(性)은 혜각(慧覺)으로써 마련해 주었으니 만민이 삶에 있어서 혜각(慧覺)이 있으면 살고 혜각이 없으면 죽는다. 혜각이란 덕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天生萬民性以慧覺 萬民之生也 有慧覺則生 無慧覺則死 慧覺者德之所由生也

[주(註)] ○천성(天生): 천(天)은 소출(所出)의 근원이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생(生)은 출생이 된다.

○혜각(慧覺): 행기지(行其知)의 지(其知)이니 주책(籌策) · 경륜(經綸) · 행검(行檢) · 도량(度量)은 지(知)의 사원(四元)이다. 이들은 박통자(博通者)로서의 성(性)이기도 하다.

○덕(德): 득어심자(得於心者)로서의 인격.

(해설) 천(天)이 이미 만민에게 골고루 혜각을 마련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혜각의 유무가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이는 곧 면우(免愚) 면불초(免不肖)의 책(責)이 재아(在己)인 것처럼 유혜각(有慧覺)은 선천적이지만 무혜각(無慧覺)은 후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혜각(有慧覺)은 재천(在天)하고 무혜각(無慧覺)은 재아(在己)인 것이다.

(참고) ○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시(詩)』「대아(大雅)·탕(蕩)·증민(蒸民)」

31. 하늘이 만민을 내실 때에 명(命)은 자업(資業)으로써 마련해 주었으니 만민이 삶에 있어서 자업(資業)이 있으면 살고 자업(資業)이 없으면 죽는다. 자업(資業)이란 도(道)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天生萬民命以資業 萬民之生也 有資業則生 無資業則死 資業者 道之所由生也

[주(註)] ○자업(資業): 행기행(行其行)의 기행(其行)이니 識見·威儀·재간(材幹)·방략(方略)은 행(行)의 사원(四元)이다.

○도(道): 자생지사(自生至死)의 인생행로(人生行路).

(해설) 자업(資業)의 유무도 혜각(慧覺)의 유무(有無)처럼 이미 선천적인 자생(資生)의 업(業)이 있으나 실업자(失業者)는 후천적 요인에 의한 실로자(失路者)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업(業)이란 결코 직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를 가리킨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참고) ○夫易 聖人所以崇德而廣業也(『역(易)』「계사(繫辭)」): 덕(德)은 인격이니 높이 상달(上達)해야 하고, 업(業)은 생활이니 넓게 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총괄] 여기서 성(性)·명(命)은 인간 형성의 구조적 요소인 동시에 혜각(慧覺)과 자업(資業)을 품부(稟賦)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性)·명(命)은 품부자(稟賦者)인 동시에 구성요소라는 점에서는 마치 ‘하늘은 나를 낳고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방불케 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이다. 그것은 더욱이 천생(天生)의 천(天)이 천기(天機)의 천(天)이 아니라 근원자 또는 제일

원인으로서의 천(天)이라면 이는 상제천(上帝天)으로서 절대자의 개념과 서로 통한다. 그러나 동무(東武) 사상설에서는 어디서나 실리(實理)를 떠난 종교적 색채는 찾아볼 수 없다.

32.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 · 충(忠) · 효(孝) · 우(友) · 제(悌) 등 온갖 선행(善行)은 다 혜각(慧覺)에서 나오고, 사(士) · 농(農) · 공(工) · 상(商) · 전(田) · 택(宅) · 망(邦) · 국(國)의 모든 소용(所用)은 다 자업(資業)에서 나온다.

仁義禮智忠孝友悌 諸般百善 皆出於慧覺 士農工商田宅邦國 諸般百用 皆出於資業

[주(註)] ○인의예지(仁義禮智): 맹자(孟子)의 사단(四端).

○충효우제(忠孝友悌): 유교의 실천윤리.

○사농공상(士農工商): 봉건시대의 계급.

○전택망국(田宅邦國): 생활수단으로서의 국토.

(해설) 혜각(慧覺)에 의한 백선(百善)은 정신세계의 문제이고, 자업(資業)에 의한 백용(百用)은 물질세계의 문제인 것 같다.

혜각(慧覺)과 자업(資業)은 성(性) · 명(命) 또는 지(知) · 행(行)으로서 인간 형성에 있어서의 양각(兩脚)과도 같다. 어느 일각(一脚)도 결여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혜각(慧覺)이 지나친 사람은 자업(資業)을 경시하기 쉽고, 자업(資業)에 몰두하다보면 혜각이 흐트러지기 쉬울지 모른다. 혜각(慧覺)과 자업(資業)이 반반(班班)함으로써 빈빈군자(彬彬君子)가 될 것이다.

33. 혜각(慧覺)은 남의 몫까지 겸하고자 해야만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자업(資業)은 자신이 청렴해야만 공(功)을 세울 수 있다. 혜각(慧覺)이 사소(私少)한 자로서 비록 걸출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

조(曹操)처럼 교활하면 남을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자업(資業)을 마음대로 휘두른 자 중에는 비록 웅대(雄大)한 자가 있기는 하지만 진시황처럼 사나우면 공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慧覺欲其兼人而有教也 資業欲其廉己而有功也 慧覺私小者雖有其傑 巧如曹操而不可爲教也 資業橫濫者雖有其雄 猛如秦王而不可爲功也

[주(註)] ○겸인(兼人): 여러 사람의 몫을 겸할 수 있는 능력.  
○염기(廉己): 염(廉)은 결(潔)·청(淸). 물욕(物欲)의 반(反).  
○조조(曹操): 위(魏)의 무제(武帝). 자(字)는 맹덕(孟德). 교지(巧智) 권모(權謀)에 능하고 임협방탕(任俠放蕩)하여 후세의 지탄을 받는 자.  
○진왕(秦王): 진시황으로 갱유분서의 폭정으로 유명하다.  
(해설) 조조(曹操)나 진황(秦皇)이나 모두 윤리·도덕의 정신적 자질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물욕의 화신이 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비록 일세의 웅걸(雄傑)이라고 지목되기는 하지만 교육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지공무사(至公無私)한 윤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의 가치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이다. 동무(東武)가 특히 호현락선(好賢樂善)[광제설(廣濟說)]을 강조하는 것은 이 까닭이다.

34. 남의 선행(善行)을 좋아하면서 나도 선행할 줄 아는 것은 지극한 천성(天性)의 덕(德)이요, 남의 악행(惡行)을 미워하면서 나는 결코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천명(天命)의 도(道)인 것이다. 지(知)·행(行)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도(道)·덕(德)이요 도(道)·덕(德)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인(仁)·성(聖)이니, 도(道)·덕(德)이 다른 아니라 지(知)·행(行)이요 성(性)·명(命)이 다른 아니라 지(知)·행(行)인 것이다.

好人之善 而我亦知善者 至性之德也 惡人之惡 而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 知行積則道德也 道德成則仁聖也 道德非他知行也 性命非他知行也

(해설) 이 구절은 성명론(性命論)의 마지막 정리 절(節)이다. ‘지성지덕(至性之德)’의 성(性)은 “천생만민성이혜각(天生萬民性以慧覺: 혜각자덕지소유생야(慧覺者德之所由生也)”를 요약한 것이요, ‘정명지도(正命之道)’의 명(命)은 “천생만민 명이자업(天生萬民命以資業: 자업자 도지소유생야(資業者 道之所由生也)”를 요약한 것이니 전자는 지(知)요 후자는 행(行)이다. 그러므로 지행(知行)이 쌓이면 도덕(道德)이 되는 것이니 이는 도덕(道德)은 혜각(慧覺)의 지(知)와 자업(資業)의 행(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인성(仁聖)이란 다름이 아니라 도덕의 인격화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의 성과가 다름 아닌 인성(仁聖)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의 근원인 혜각(慧覺)의 지(知)와 자업(資業)의 행(行)이 일치하면 그것이 인성(仁聖)인 것이다.

지성지덕(至性之德)은 지(知)요 정명지도(正命之道)는 행(行)이니 지행(知行)이 또한 성명(性命)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명(性命)이 다름 아닌 지행(知行)인 것이다. 성명(性命)=도덕(道德)=지행(知行)=인성(仁聖)인 것이니 이는 성명(性命)이 도덕(道德)과 지행(知行)에 의하여 인성(仁聖)으로 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무(東武)의 실천윤리학적 인간학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되[好善惡惡]’ ‘나 또한 선을 알고[我亦知善]’ ‘나는 반드시 악을 행하지 않느[我必不行惡]’ 자아의식에 의한 자율적 주체성의 강조를 잊지 않고 있다. 동무(東武) 사상설이 ‘유(儒)’의 윤리설을 기초로 했다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시 지행론은 공맹학(孔孟學)에서 깊이 문제되고 있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송명학(宋明學)에서도 논쟁점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주자(朱子)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하여 지(知)를 지식(知識)의 지(知)로 간주한 데 반하여 왕양명(王陽明)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지만 왕자(王子)의 지(知)는 양지(良知)로서의 지(知)인 점에서 주자(朱子)의 지(知)와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무(東武)의 지행(知行)은 그들과 다르다. 함억제복(領臆



臍腹)의 사원(四元)은 지(知)인데, 그것은 박통자(博通者)－성(性)－혜각(慧覺)－덕(德)이다. 그리고 두견요둔(頭肩腰臀)의 사원(四元)은 행(行)인데, 그것은 독행자(獨行者)－명(命)－자업(資業)－도(道)인 것이다.

그러므로 동무(東武)의 지행(知行)은 성명(性命)이요 도덕(道德)인 것이다. 여기에 동무(東武)의 지행론이 멀리 주자(朱子)의 지(知)나 왕자(王子)의 지(知)와는 다른 독창적인 점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35. 어느 사람이 묻기를 “지(知)를 가지고 성(性)을 논하는 것은 옳지만 행(行)을 가지고 명(命)을 논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명(命)이란 명수(命數)이니 선행(善行)을 하면 명수(命數)는 저절로 아름답고 악행(惡行)을 하면 명수(命數)는 저절로 나빠질 것이니 점(占)쳐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옛 시에 ‘길(吉)이 태어난 천명(天命)’이라 하지만 잘 살고 못 살기는 나 하기 마련이니라” 한 것은 곧 이 뜻인 것이다.

或曰舉知而論性可也 而舉行而論命何義耶 曰命者命數也 善行則命數自美也 惡行則命數自惡也 不待卜筮而可知也 詩云永言配命自求多福 卽此義也

[주(註)] ○명수(命數): 운명(運命)·숙명(宿命). 삭(數)이란 술수(術數)의 삭(數).

(해설) 윤리적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그의 명수(命數)가 결정된다면 이는 ‘윤리적 숙명론(宿命論)’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적 행위가 그의 운명의 미악(美惡)을 결정지어 주기 때문이다.

맹자(孟子)가 이른바 “화복이란 자기로부터 구하지 않음이 없는 것[禍福無不自己求之者]”(「공손추」)이란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여기서 맹자 사상의 영향이 엿보인다.

36. 어느 사람이 묻기를 “그대는 말하기를 귀는 천시(天時)를 듣고, 눈은 세회(世會)를 보고, 코는 인륜(人倫)을 맡고, 입은 지방(地方)을 맛본다고 하였는데 귀로 천시(天時)를 듣고, 눈으로 세회(世會)를 본다는 것은 옳거니와 코로 어떻게 인륜(人倫)을 맡으며, 입으로 어떻게 지방(地方)을 맛본다는 것인가” “인륜(人倫)관계에 끼어 있으면서 사람들의 외표(外表)를 관찰하기도 하고, 각 개인들의 재주와 행실이 현명한가 답잖은가를 묵묵히 더듬어 보는 것이 곧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어느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각처의 인간들의 생활에 끼치는 이해관계를 골고루 입맛 다시듯 하는 것이 곧 맛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或曰吾子之言 曰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耳之聽天時 目之視世會則可也 而鼻何以嗅人倫 口何以味地方乎 曰處於人倫察人外表 默探各人才行之賢不肖者 此非嗅耶 處於地方均嘗各處人民生活之地利者 此非味耶

(해설) 이 구절은 제3절인 ‘이청천시(耳聽天時)’를 자주(自註)한 구절이다.  
 묵탐(默探)은 후(嗅)와 같고 균상(均嘗)은 미(味)와 같으니 다 상징적 방법인 것이다. 동무(東武)의 인간학이 상징론적이라 함은 이 까닭인 것이다.

37. 본심을 간직한 자는 그의 본심을 책망하는 것이다. 심체(心體)의 명암이 비록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를 책망하는 자는 맑고 이를 책망하지 않는 자는 탁한 것이다. 말의 깨우친 마음은 소의 그것보다 훨씬 민첩한 것은 말의 책망하는 마음이 소의 그것보다 훨씬 민첩하기 때문이다. 매의 기세가 술개의 그것보다 사나운 것은

매의 책망하는 마음이 술개의 그것보다 훨씬 사납기 때문이다. 심체(心體)의 청탁(淸濁)이나 기우(氣宇)의 강약(強弱)이 짐승이나 새들에 있어서도 이치로 따지자면 이와 같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라. 혹 서로 곱절이나 다섯 곱절이 되기도 하고, 혹 서로 천만 곱절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 나면서부터 문득 얻어지거나 명청하게 되새겨 생각할 줄도 모르면서 그대로 앓은 채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인가.

存其心者責其心也 心體之明暗 雖若自然而責之者淸 不責者濁 馬之心覺點於牛者 馬之責心點於牛也 鷹之氣勢猛於鴟者 鷹之責氣猛於鴟者 心體之淸濁 氣宇之強弱 在於牛馬鴟鷹者 以理推之而猶然 況於人乎 或相倍蓰 或相千萬者 豈其生而輒得 茫然不思 居然自至而然哉

[주(註)] ○심체(心體): 심성(心性)의 본체(本體). 본시 심성(心性)은 무형무질(無形無質)한 것이지만 형상(形象)으로 표현하자면 체(體)라 할 수밖에 없다. 체(體)는 ‘모습’이란 뜻일 것이다.

○책심(責心): 책선지심(責善之心).

(해설) ○이 구절은 성명론(性命論)의 끝 절(節)로, 책심(責心)·책기(責氣)의 자아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심체(心體)와 기우(氣宇)를 대칭함으로써 인간의 심기(心氣)를 어느 일자(一者)의 양면으로 병칭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심기(心氣)는 생동적인 심기(心氣)로, ‘적연부동(寂然不動)’하는 송학적(宋學的) 심성(心性)과는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或相倍蓰或相千萬(『맹자』「등문공」)

[총괄] 성명론(性命論)은 천기(天機)·인사(人事)의 우주론으로 시작하여 책심(責心)·책기(責氣)의 윤리론으로 끝맺고 있다. 그 안에 사원구조적(四元構造的) 신인간학(新人間學)이 연역적 방법에 의하여 서술되어 있음은 이미 보아온 바와 같다. 여기서 인간이란 ‘사원구조적(四元構造的) 일자(一者)’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동무(東武)의 사상설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假說)이다. 가설은 실증(實證)에 의하여 비로소 정설(定說)로 될 것임은 물론이다. 이는 병리(病理)와 약리론(藥理論)에서 실증되어야 하

겠지만 다음 사단(四端)·확충(擴充)·장부론(臟腑論)에서 좀 더  
이 사원구조설의 전개를 살펴보기로 하자.

## 제2장 사단론(四端論)

[주(註)] ○사단(四端): 어원(語源)은 맹자(孟子)의 사단론(四端論)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惻隱之心仁之端也)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요(羞惡之心義之端也)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요(辭讓之心禮之端也)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是非之心智之端也)”에 유래하였으나 여기서는 사상(四象)의 사단(四端)이니 대소음양(大少陰陽)을 의미한다. 단(端)은 서(緒)·수(首)·시(始)·초(初) 등의 뜻을 지녔으나 이단(異端) 또는 일단(一端)으로서 상호불상용(相互不相容)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사상불상용(四象不相容) 또는 불상잡(不相雜)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해설) 성명론(性命論)에서는 사상(四象)의 사원구조적(四元構造的) 원리(原理)가 제시되었거니와 사단론(四端論)에서는 이 원리가 사상인론(四象人論)으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사상인론(四象人論)은 장기론(臟理論)과 심성론(心性論)의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사단론(四端論)은 인물유형론(人物類型論)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그리이스의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 ~ BC 377?)의 사대체액설[四大體液說: 점액(粘液)·담즙(膽汁)·다혈(多血)·우울(憂鬱)]과 란트스타이너(Landsteiner, 1868~1943)의 사대혈액형설(四大血液型說: A·B·AB·O)이 있듯이 이는 동무(東武)의 사대인물유형론(四大人物類型論)인 것이다. 그러나 동무(東

武)의 인물유형론은 단순히 그의 체액(體液)이나 혈액(血液)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장리(臟理)로부터 심성(心性)에 이르기까지 이를 종합하여 체계화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병리(病理)나 약리(藥理)는 이 사단론의 응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 사람이 타고난 장부의 이치에 맞지 않은 것에 네 가지가 있는데, 폐(肺)가 크고 간(肝)이 작은 사람을 태양인(太陽人)이라 하고, 간(肝)이 크고 폐(肺)가 작은 사람을 태음인(太陰人)이라 하며, 비(脾)가 크고 신(腎)이 작은 사람을 소양인(少陽人)이라 하고, 신(腎)이 크고 비(脾)가 작은 사람을 소음인(少陰人)이라 한다.

人稟臟理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주(註)] ○태양(太陽) · 태음(太陰) · 소양(少陽) · 소음(少陰): 사상(四象)의 명칭.

○인품장리(人稟臟理): 인체장부조직(人體臟腑組織)의 유형.

○폐(肺): 폐지당[肺之黨: 위완(胃脘) · 설(舌) · 이(耳) · 피(皮) · 모(毛)].

○간(肝): 간지당[肝之黨: 소양(小腸) · 제(臍) · 비(鼻) · 요척(腰脊) · 육(肉)].

○비(脾): 비지당[脾之黨: 위(胃) · 양유(兩乳) · 목(目) · 배려(背脊) · 근(筋)].

○신(腎): 신지당[腎之黨: 대장(大腸) · 전음(前陰) · 구(口) · 방광(膀胱) · 골(骨)].

(해설)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으로서의 사상인(四象人)은 그의 장리(臟理)에 의한 분류인데, 소위 역리(易理)로서의 사상(四象)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본시 사상(四象)이란 兩儀[음양(兩儀) (陰陽)]에서 나왔고, 사상(四象)은 팔괘(八卦)를 낳기 때문에 사상(四象)은 음양양의(陰陽兩儀)와 팔괘(八卦)와의 중간자인 것이다. 그러나 동무(東武) 사상인론(四象人論)에서는 태극(太極)－음양(陰陽)－사상(四象)만을 논하고 팔괘(八卦)는 문제 삼지 않는 데에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사상(四象)은 소위 사원구조(四元構造)와 깊은 관련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소위 역리(易理)에서는 복희설(伏羲說)과 다산설(茶山說)이 다르다. 복희설(伏羲說)에 의하면 태양(太陽)≡이 건(乾)≡·태(兌)≡를 낳고, 소음(少陰)≡이 리(離)≡·진(震)≡을 낳고, 소양(少陽)≡이 손(巽)≡·감(坎)≡을 낳고, 태음(太陰)≡이 곤(坤)≡·간(艮)≡을 낳게 되므로 팔괘(八卦) 이전에 이미 사상(四象)이 존재하였다가 팔괘(八卦) 생성(生成)과 더불어 그 안에 몰입(沒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산설(茶山說)에 의하면 소자괘주지설(少者卦主之說)과 태양구(太陽九)·태음육(太陰六)·소양칠(少陽七)·소음팔설(少陰八說)에 의하여 태양(太陽)은 건(乾)≡이요 태음(太陰)은 곤(坤)≡인데, 소양(少陽)은 진(震)≡·감(坎)≡·간(艮)≡이요, 소음(少陰)은 손(巽)≡·리(離)≡·태(兌)≡로 되었으니 이는 팔괘(八卦) 그 자체가 그대로 사상(四象)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처럼 양설(兩說)이 근본적으로 사상(四象)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리(易理) 중에는 인체 장리(臟理)의 사상(四象)이란 도시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인체의 사상(四象)이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것은 오로지 사상(四象)이란 ‘양의가 사상을 낳음[兩儀生四象]’에서 얻어진 ‘음양설(陰陽說)’적 사상(四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음양설적(陰陽說的) 부호(符號)로 사상(四象)이라는 역학적(易學的) 부호(符號)를 차용(借用)하여 ‘인품장리(人稟臟理)’를 설명하려는 데에 동무(東武) 사상설(四象說)의 창의적 일면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인체의 사원구조(四元構造)가 음양설적(陰陽說的) 상하(上下)·한열(寒熱) 등의 대대원리(對待原理)에 의하여 성립되었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상인론(四象人論)에서는 팔괘(八卦) 이하의 역리(易理)의 발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동시에 오행설(五行說)도 끝 여지는 거의 전무한 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법칙에 의하여 사상인(四象人) 유형은 성립된다는 사실로써 이를 알 수 있다.

1. 유형불변(類型不變)의 법칙: 사상인(四象人)의 유형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후천적 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예외불허(例外不許)의 법칙: 사상인(四象人) 이외의 다른 유형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상(四象)의 분화인 팔괘(八卦)라거나 오원론적(五元論的)인 오행설(五行說)이 사상인론(四象人論)에서는 원용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2. 사람의 달리는 심욕(心慾)에 네 가지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예(禮)를 버리고 방종하게 구는 사람을 비인(鄙人)이라 하고, 의(義)를 버리고 안일을 꾀하는 사람을 나인(儒人)이라 하며, 지(智)를 버리고 남을 속이려 드는 사람을 박인(薄人)이라 하고, 인(仁)을 버리고 지극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탐인(貪人)이라 한다.

人趨心慾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名曰儒人 棄智而飾私者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名曰貪人

[주(註)] ○인추심욕(人趨心慾): 인(人)은 일반인. 추(趨)는 주(走). 심용(心慾)은 사심(邪心)·태행(怠行)·추심욕(趨心慾)은 심욕(心慾)의 동적(動的) 상태.

○방종(放縱): 구속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놀아남이다. 예(禮)란 형식을 갖추어 단속하는 것인데, 방종은 그런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다.

○비인(鄙人): 비(鄙)는 도비(都鄙)의 비(鄙)로서 시골뜨기 야인(野人). 예문(禮文)을 모르는 자.

○투일(偷逸): 눈앞의 안일(安逸)을 탐내는 것이다. 의(義)를 따르자면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안일을 탐내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나인(儒人): 나(儒)는 겁나(怯懦)의 나(懦)로서 겁쟁이. 비겁자. 공자는 “견의불위무용야(見義不爲無勇也)”(「위정(爲政)」)라 하였으니 나인(儒人)을 두고 이른 말이다.

○식사(飾私): 식사(飾詐)는 식사(飾詐)로도 통한다. 꾸며서 속이는 교언영색(巧言令色)(『논어』「학이」) 따위이다.

○박인(薄人): 경박(輕薄)한 사람이니 “약삭빠른 구변으로 남의 말을 막아서 자주 남에게 미움만 받을 뿐[御人以口給屢憎於人]”



(「공야장(公治長)」)은 박인(薄人)을 두고 이른 말이니 후중(厚重)의 반대이며, “군자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배워도 견고하지 않다[君子不重則不威學則不固]”(「학이(學而)」)는 박인(薄人)에게 주는 말일 것이다.

○극욕(極慾): 무제한의 욕기(慾氣)로서 욕심꾸러기. 물욕뿐만 아니라 권세·명예욕도 욕심꾸러기에 속하는 것이다.

○탐인(貪人): 탐욕(貪慾)하는 사람이니 구두쇠나 탐관오리(貪官汚吏) 따위를 가리킨 것이다.

(해설) 이 구절은 장리(臟理)의 사상(四象)과는 따로 인욕(人慾)의 사상(四象)을 설명하고 있다. 맹자의 인의예지의 사단(四端)에 근거를 두고 이를 돌보지 않고 버리는 자의 네 유형(四類型)을 비박탐나(鄙薄貪懦)의 사상(四象)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이들의 사상(四象)이 장리(臟理)의 사상(四象)과는 어떠한 횡적(橫的) 연관이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태소음양(太少陰陽)의 사상인(四象人)이 비박탐나(鄙薄貪懦)의 사상인(四象人)과 어떻게 관련되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동무(東武) 스스로 제시한 바 없다.

3. 오장(五臟)의 심(心)은 중앙의 태극(太極)이요, 오장(五臟)의 폐비간신(肺脾肝腎)은 사유(四維)의 사상(四象)이다. 중앙의 태극(太極)은 성인(聖人)의 태극이 높이 중인(衆人)의 태극 위에 솟아 있고, 사유(四維)의 사상(四象)은 성인의 사상(四象)이 중인의 사상(四象)과도 살살이 통해 있다.

五臟之心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四維之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旁通於衆人之四象也

[주(註)] ○오장(五臟): 폐(肺)·비(脾)·간(肝)·신(腎)·심(心)의 오장(五臟). 사상인 장부론(四象人 臟腑論)에서는 오장(五臟)은 동명의 장기만을 가리키지 않고 그의 일당(「장부론(臟腑論)」 참조)을 가리키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심(心): 오장지심(五臟之心)으로서의 심장(心臟)이라면 먼저 형

태심(形態心)으로 간주해야 하겠지만 ‘인추심욕(人趨心慾)’의 심(心)이라면 비박탐나(鄙薄貪懦) 등의 무형심(無形心)－영명심(靈明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형태가 있는 심(心)을 ‘염통’이라 한다면 형체가 없는 심(心)은 이를 ‘마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은 일신의 주재[心爲一身之主宰]’(「장부론」)의 심(心)은 이 두 ‘심(心)’이 혼용(混融)된 심(心)이 아닐까. 형상과 기능을 분리하지 않으려는 것이 동무(東武) 사상설(四象說)의 입장이라면 장리(臟理)와 심욕(心慾)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심(心)’도 형상(形相)과 심성(心性)이 일치되는 대개념(大概念)의 심(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태극(太極):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생함[易有太極是生兩儀]’(「계사전」)이니 태극(太極)은 음양양의(陰陽兩儀)의 모체(母體)인 것이다. 그러므로 태극은 음양미분화(陰陽未分化)된 태일지상(太一之象)이거나 아니면 옥극분화(屋極分化)의 태일지상(太一之象)이라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분화(分化)된 미분화(未分化)된 음양의 태일지상(太一之象)이다. 그러나 동무(東武)의 태극은 ‘중앙지태극(中央之太極)’으로서 ‘사유(四維)의 중앙지태극(中央之太極)’인 것이므로 음양의 태일지상(太一之象)인 동시에 사유(四維)의 태일지상(太一之象)이기도 한 것이다.

○사유(四維): 방위설(方位說)에 의하면 건(乾)[서북(西北)]·곤(坤)[서남(西南)]·간(艮)[동북(東北)]·손(巽)[동남(東南)]을 사유(四維)라 한다. 그러나 인체의 사유(四維)는 심(心)을 중앙지태극(中央之太極)으로 삼고 폐(肺)·비(脾)·간(肝)·신(腎)이 마치 방위설적(方位說的) 사유(四維)인 양 설정한 것이다. 굳이 폐비간신(肺脾肝腎)을 동서남북의 어느 방위에 맞출 필요는 없다.

○방통(旁通): 곡진(曲盡)함. 조리가 분명하다.

(해설) 동무(東武)의 오장설(五臟說)은 오행설(五行說)에 의한 동격(同格)의 오장(五臟)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심(心)은 중앙지태극(中央之太極)으로서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사유(四維)를 주재(主宰)하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위일신지주재(心爲一身之主宰)’라 한 것이다.

동무(東武)는 성범(聖凡)의 구별을 사유(四維)의 사상(四象)에 두지 않고 태극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상인(四象人)에는 성범(聖凡)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태극만은 사상(四象) 밖에 있으므로

성인의 태극(太極)－심(心)－은 중인의 위에 우뚝하게 뛰어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인이란 성명설(性命論)에서 ‘공자지성(孔子之聖)’이라 하였으니 공자 같은 이를 가리킨 것이거나와 ‘요순이라 할 수 있다[可以爲堯舜]’라 한 것을 보면 요·순도 성인으로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범인이 성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비록 호선(好善)이 무쌍(無雙)하더라도 사심(邪心)이 또한 무상(無雙)한 까닭이다. 비박탐나(鄙薄貪懦)한 범인이 많음은 이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요·순·공자의 태극은 범인의 태극 위에 고출(高出)하지 않을 수 없다.

4. 태소음양(太少陰陽)의 장국단장(臟局短長)에는 네 가지 같지 않은 중에도 한 가지 대동(大同)한 점이 있으니 천리(天理)의 변화라는 것이다. 성인이나 중인이나 다 같은 것이다. 비박탐나(鄙薄貪懦)의 심지 청탁(心地淸濁)에 네 가지 같지 않은 중에도 만 가지로 부동(不同)한 점이 있으니 이는 인욕(人欲)의 활협(濶狹) 때문인 것이다. 성인이나 중인이나 만 가지로 다른 것이다.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一同也 鄙薄貪懦之心地淸濁四不同中有萬不同人欲之濶狹也 聖人與衆人萬殊也

[주(註)] ○장국단장(臟局短長): 사상인(四象人)의 장부류형(臟腑類型).  
○천리지변화(天理之變化): 천리(天理)란 ‘자연의 이치’로서 천기(天機)처럼 인사(人事)를 계월(繼越)한 이법(理法)을 가리킨 것이다. 송학(宋學)－정주학－에서도 천리(天理)란 단어를 쓰고 있으나 그것은 ‘우주(宇宙)의 총원리(總原理)’란 뜻에서 기(氣)와 상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형이상적 존재’인 점에 오히려 초자연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변화란 ‘음양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상(四象)이란 곧 음양의 사분화(四分化)가 아니겠는가. 이

음양변화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므로 천리지변화(天理之變化)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이치에 따른 음양의 변화’라는 뜻이므로 송학(宋學)의 철학적 천리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심지청탁(心地淸濁): 청(淸)은 청렴결백(淸廉潔白)의 청(淸)이요, 탁(濁)은 탁예오욕(濁穢汚辱)의 탁(濁)이다. 심지(心地)란 ‘심성(心性)의 바탕’으로서 송학(宋學)에서는 이를 ‘기질의 청탁수박(氣質之淸濁粹駁)’이라 하여 기질(氣質)이라 하였다. 동무(東武)의 기(氣)는 음양의 기(陰陽之氣)일 따름이며, 청탁(淸濁)은 사심(邪心)·태행(怠行)의 심지(心地)로써 문제 삼는 점이 송학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해설) 사상인(四象人)의 유형이 천리지변화(天理之變化)라 함은 선천적임을 가리킨 것이니 ‘유형불변(類型不變)의 법칙’은 이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후천적인 변화의 여지는 전무한 것이다. 그러나 인욕(人欲)의 활협(濶狹)은 천리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유동적이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는가에 대해 동무(東武)는 ‘심지청탁유만부동(心地淸濁有萬不同)’이라 하였으나 만인에게 만수(萬殊)의 등차가 있으니 이는 가변적인 인욕지활협(人欲之濶狹)일 것이다. 여기에 東武 인간학의 자율성이 있고, 안연(顔淵)의 극기복례(克己復禮)(『논어』「안연」)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성인과 중인은 같다[聖人與衆人一同也]’는 전절(前節)에서 “사유(四維)의 사상(四象)은 성인의 사상(四象)이 중인의 사상(四象)과도 살살이 통해 있다[四維之四象聖人之四象旁通於衆人之四象也]”라고 한 구절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사상인(四象人)에게 있어서는 성범일여(聖凡一如)임을 가리킨 것이다.

5. 태소음양(太少陰陽)의 단장변화(短長變化)는 똑같은 중에서도 네 가지로 치우친 점이 있으니 성인이 하늘을 우러르는 것은 이 까닭인 것이다. 비박탐나(鄙薄貪懦)의 청탁활협(淸濁濶狹)은 만 가지 다른 중에서도 한 가지 같은 점이 있으니 중인이 성인을 우러르는 것은 이 까닭인 것이다.

太少陰陽之短長變化 一同之中有四偏 聖人所以希天也 鄙薄貪懦之清濁  
濶狹 萬殊之中有一同 衆人所以希聖也

[주(註)] ○단장변화(短長變化): 사상인(四象人) 유형의 음양변화.

○일동(一同): 성범일여(聖凡一如).

○사편(四偏): 사상(四象)의 사유형(四類型)을 사편(四偏)이라 하였으니 이는 사상인 유형(四象人 類型)이 폐비간신(肺脾肝腎)의 대소(大小)[대(大)는 소(小)의 편(偏)이요 소(小)는 대(大)의 편(偏)이다]로 결정되고 또 사상(四象)의 사유(四維)는 중앙지태극(中央之太極)에서 보면 각 일편(一偏)이기 때문이다.

○희천(希天): 천(天)은 불편불의(不偏不倚)한 정중지상(正中之象)으로서 지고선(至高善)이니 성인은 희천(希天)하는 것이다. 희천(希天)이란 지고선에 이르고자 하는-달천(達天)-성인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희성(希聖): 그러나 중인은 성인을 본보기로 삼고서야 최고선-천(天)-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인은 희성(希聖)하는 것이요 성인은 ‘높이 중인 위에 솟아 있는[高出於衆人]’ 것이다.

(해설) 여기서 동무(東武)의 윤리사상에는 ‘천(天)-성(聖)-중인(衆人)’의 삼위설(三位說)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무(東武)는 이미 맹자의 윤리설의 본을 받아 ‘사람이면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 [人皆可以爲堯舜]’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성(聖)·범(凡)[중인(衆人)]의 차등을 만들었을까. 그러나 이 차등은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님은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희천(希天)·희성(希聖)은 한 인간의 상달(上達)의 층계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범인(중인)이 희망하여 성(聖)의 경지에 도달하면 그는 다시금 희천(希天)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니 희천(希天)·희성(希聖)은 한낱 상달(上達)의 도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직 성범(聖凡)의 구별은 ‘마음의 청탁[心地清濁]’과 ‘인욕의 활협[人欲之濶狹]’에 있을 따름인 것이다.

6. 성인의 장국(臟局)도 사단(四端)이요 중인의 장국(臟局)도 사단(四端)이니, 성인의 한 사단(四端)의 장국(臟局)으로 중인의 만(萬) 사단

(四端) 중에 처하기 때문에 성인은 중인들이 즐기는 바가 되는 것이요, 성인의 마음은 무욕(無慾)하고 중인의 마음은 유욕(有慾)하니 성인의 한 무욕한 마음으로 중인의 만(萬) 유욕 한 중에 처하기 때문에 중인들은 성인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다.

聖人之臟四端也 衆人之臟亦四端也 以聖人一四端之臟 處於衆人萬四端之中 聖人者衆人之所樂也 聖人之心無慾也 衆人之心有慾也 以聖人一無慾之心 處於衆人萬有慾之中 衆人者聖人之所憂也

[주(註) ○일(一): 성인은 만인의 정상(頂上)이니 ‘일(一)’ 자인 것이다.  
○만(萬): 중인은 무한수(無限數)이니 ‘만(萬)’인 것이다.  
(해설) 성범일여론(聖凡一如論)과 성범차등론(聖凡差等論)과의 조화를 이룬 구절이다. 성범일여(聖凡一如)의 입장은 사상인(四象人) 유형의 선천성에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유무욕(有無慾)의 차등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성범(聖凡)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성인은 중인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며, 중인은 성인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일까. 성인은 중인과 더불어 동일한 사상장국(四象臟局)을 지녔다 하더라도 일자(一者)로서의 위치에서 만인의 위에 존재하므로 중인에게서는 희성(希聖)－상달(上達)－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요, 성인은 무욕하므로 유욕의 중인은 성인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다.

7. 그런즉 천하 중인들의 장리(臟理)도 또한 다 성인의 장리(臟理)로서 재능(才能)도 또한 다 성인의 재능인 것이다. 폐비간신(肺脾肝腎) 등 성인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재능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지만 어찌 재능의 죄일 것인가. 마음의 죄인 것이다.

然則天下衆人之臟理 亦皆聖人之臟理 而才能亦皆聖人之才能也 以肺脾

肝腎聖人之才能 而自言曰我無才能云者 豈才能之罪哉 心之罪也  
 (해설) 성인(聖인)과 중인(中人)은 명목상의 구분이지 인간의 선천적 차등은 아닌 것이다. 장리(臟理)가 되었거나 재능이 되었거나 다를 바 없음을 이 구절은 분명히 하고 있다.  
 심(心)은 ‘마음은 일신의 주재[心爲一身之主宰]’로서의 심(心)이지만 ‘마음의 죄[心之罪也]’의 심(心)은 오장지심(五臟之心)이니 왜냐하면 “폐비간신성인지재능(肺脾肝腎聖人之才能)”이라 하였으니 재능이란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재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심(心)은 오장지심(五臟之心)으로서 성인지심(聖人之心)은 고출어중인지심(高出於衆人之心)일 것이요, 인추심욕(人趨心慾)으로서 사심(邪心) 태행(怠行)의 근본이 되는 심(心)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재능(我無才能)’이라 하여 자기(自棄)하는 자는 자책지심(自責之心)도 부족한 자의 ‘심지죄(心之罪)’인 것이다.

8. 호연지기(浩然之氣)는 폐비간신(肺脾肝腎)에서 나오고 호연지리(浩然之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의예지(仁義禮智) 등 사장(四臟)의 기(氣)를 넓혀 충만하게 한다면 호연지기(浩然之氣)는 거기서 나올 것이요, 비박탐나(鄙薄貪懦) 등 일심(一心)의 욕(慾)을 분명하게 가려낸다면 호연지리(浩然之理)는 거기서 나올 것이다.

浩然之氣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出於心也 仁義禮智四臟之氣擴而充之 則浩然之氣出於此也 鄙薄貪懦一心之慾明而辨之 則浩然之理出於此也

[주(註)] ○호연지기(浩然之氣):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으며 바르고 강한 큰 원기(元氣)인 것이다. 도의(道義)에 뿌리를 박고 공명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울 바 없는 도덕적 용기. 사물에서 해방된 넓고도 풍성한 마음. 맹자는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吾善養浩然之氣]”(「공손추」)라 하였다.

(해설) 폐비간신(肺脾肝腎)은 재능이 간직된 곳으로서 호연지기는 거기서 나오고, 심(心)은 일신의 주재자인 만큼 호연지리(浩然之理)를 낳게 하는 것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氣)란 활동의 원천

이요, 리(理)란 시비명변(是非明辨)의 도리인 것이니 인의예지와 같은 윤리적 규범은 이를 확충하므로 호연지기와 같은 도의적 용기가 거기서 솟아날 것이요 비박탐나(鄙薄貪懦)와 같은 심욕(心慾)은 이를 명변(明辨)하여야만 호연지리(浩然之理)와 같은 공명정대한 도리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심(心)에는 주재심(主宰心)과 욕심(欲心)의 두 가지가 있으니 ‘호연지리출어심(浩然之理出於心)’의 심(心)은 전자요 ‘일심지욕(一心之慾)’의 심(心)은 후자인 것이다.

이 구절에서 쓰인 리(理)·기(氣) 두 자는 마치 정주학에서 문제 삼는 이기론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쓰인 기(氣)는 호연지기로서의 기인 만큼 생기(生氣)로서의 기(氣)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론에서 운위되는 소위 이원론적 기는 아니다. 이(理)도 마찬가지로 호연지리(浩然之理)로서의 리(理)인 만큼 명변(明辨)의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론적 천리로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호연지기는 인의예지를 낳는 도의적 기(氣)로서 폐비간신(肺脾肝腎)에서 나오는—인체 내에 충만한—생기(生氣)라는 것이다. 동시에 호연지리(浩然之理)도 비박탐나(鄙薄貪懦)와 같은 심욕(心慾)을 명변(明辨)할 수 있는 이치인 만큼 주재심 밖에 따로 존재한 자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쓰인 리(理)·기(氣) 두 자는 호연지리기(浩然之理氣)이니만큼 송학적 이기론으로 이를 천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9. 성인의 마음은 욕심(慾心)이 없다고 이르는 것은 청정(淸淨) 적멸(寂滅)하여 노자(老子)나 부처님처럼 욕심(慾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성인의 마음은 깊이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걱정하는 까닭에 단지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거들떠볼 겨를이 없는 것이다. 깊이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걱정하여 자기 자신의 욕심을 거들떠볼 겨를이 없는 자는 반드시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성인은 욕심이 없다는 것이다. 털끝만



큼이라도 자기 자신의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요·순의 마음이 아니다. 잠시라도 천하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맹의 마음이 아닌 것이다.

聖人之心無慾云者 非清淨寂滅如老佛之無慾也 聖人之心 深憂天下之不治 故非但無慾也 亦未暇及於一己之慾也 深憂天下之不治 而未暇及於一己之慾者 必學不厭而教不倦也 學不厭而教不倦者 卽聖人之無慾也 毫有一己之慾 則非堯舜之心也 暫無天下之憂則非孔孟之心也

[주(註)] ○청정적멸(淸淨寂滅): 청정무위(淸淨無爲)는 노자(老子)의 도(道)요 적멸위락(寂滅爲樂)은 불가(佛家)의 도(道)다.

○노불(老佛): 노자와 석가모니(釋迦牟尼). 노자는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석가모니는 인도의 불타.

(해설) 노자나 불타가 주장하는 무욕(無欲)은 노자의 무(無)와 불타의 공(空)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동무(東武)가 지적한 무욕은 요·순·공자를 본보기로 하는 유가의 무욕으로, 사욕을 극복함으로써 -극기- 얻어지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경지를 가리킨 것이다.

(참고) ○孔子曰 聖則吾不能 我學不厭而教不倦也(『맹자』 「공손추」)  
○堯以不得舜爲己憂 舜以不得皐陶爲己憂(『맹자』 「등문공」)

[총괄] 동무(東武) 사상인륜(四象人論)의 저변에 깔린 큰 원칙은 위에서도 누설(屢說)한 바와 같이 사상인장리(四象人臟理)는 천리지변화(天理之變化)라 비록 성범(聖凡)의 분별없이 동일불변(同一不變)하는 것이지만 비박탐나(鄙薄貪懦)의 심욕(心慾)은 인간의 자율적 극복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선악은 그의 장국(臟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의예지를 확충하고 비박탐나(鄙薄貪懦)를 명변(明辨)하는 한 인간의 혜지(慧知)의 실천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무(東武)의 사상인륜(四象人論)은 유교윤리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맹자의 사상은 그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다. 사단(四端)·확충(擴充)·호연지기(浩然之氣)·학불염이교불권(學不厭而教不倦)·인의예지(仁義禮智) 등의 단구(短句)는

모두 맹자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아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0. 태양인(太陽人)은 애성(哀性)은 원산(遠散)하지만 노정(怒情)은 촉급(促急)하니 애성(哀性)이 원산(遠散)하면 기(氣)가 폐(肺)로 주입(注入)되어 폐(肺)는 더욱 성(盛)하고 노정(怒情)이 촉급(促急)하면 기(氣)가 간(肝)을 격동(激動)시켜 간(肝)은 더욱 깎일 것이니 태양(太陽)의 장국(臟局)이 폐대(肺大) 간소(肝小)로 형성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소양인(少陽人)은 노성(怒性)은 핑포(宏抱)하지만 애정(哀情)은 촉급(促急)하니 노성(怒性)이 핑포(宏抱)하면 기(氣)가 비(脾)로 주입(注入)되어 비(脾)는 더욱 성(盛)하고 애정(哀情)이 촉급(促急)하면 기(氣)가 신(腎)을 격동(激動)시켜 신(腎)은 더욱 깎일 것이니 소양(少陽)의 장국(臟局)이 비대(脾大) 신소(腎小)로 성형(成形)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태음인(太陰人)은 희성(喜性)은 광장(廣張)하지만 낙정(樂情)은 촉급(促急)하니 희성(喜性)이 광장(廣張)하면 기(氣)가 간(肝)으로 주입(注入)되어 간(肝)은 더욱 성(盛)하고 낙정(樂情)이 촉급(促急)하면 기(氣)가 폐(肺)를 격동(激動)시켜 폐(肺)는 더욱 깎일 것이니 태음(太陰)의 장국(臟局)이 간대(肝大) 폐소(肺小)로 성형(成形)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소음인(少陰人)은 낙성(樂性)은 심확(深確)하지만 희정(喜情)은 촉급(促急)하니 낙성(樂性)이 심확(深確)하면 기(氣)가 신(腎)으로 주입(注入)되어 신(腎)은 더욱 성(盛)하고 희정(喜情)이 촉급(促急)하면 기(氣)가 비(脾)를 격동(激動)시켜 비(脾)는 더욱 깎일 것이니 소음(少陰)의 장국(臟局)이 신대(腎大) 비소(脾小)로 성형(成形)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太陽人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氣激

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주(註)] ○원산(遠散): 멀리 흩어지다.

○광포(宏抱): 넓게 얼싸안아주다.

○광장(廣張): 넓게 퍼지다.

○심확(深確): 깊게 굳어지다.

○애노희락(哀怒喜樂): 인간의 성정(性情)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

○성(性): 천부인성(天賦人性).

○정(情): 성지동(性之動). 성(性)의 활동형(活動型).

(해설) 이 구절은 사상인(四象人)의 장국(臟局)이 희노애락의 성정(性情)에 의하여 형성됨을 보여 주고 있다.

사상인(四象人)의 장부(臟腑)는 비록 천리(天理)의 변화라 하더라도 장국(臟局)의 성형(成形)은 애노희락의 성정(性情)의 작위(作爲)에 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정(性情)’이 장국성형(臟局成形)의 절대적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성정(性情)의 작위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원산(遠散)·광포(宏抱)·광장(廣張)·심확(深確)이다.

이를 다음 11절(節)과 합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폐(肺)	비(脾)	간(肝)	신(腎)
기(氣)	직이신(直而伸)	울이포(栗而包)	관이완(寬而緩)	온이축(溫而畜)
성(性)	원산(遠散)	광포(宏抱)	광장(廣張)	심확(深確)
	애(哀)	노(怒)	희(喜)	락(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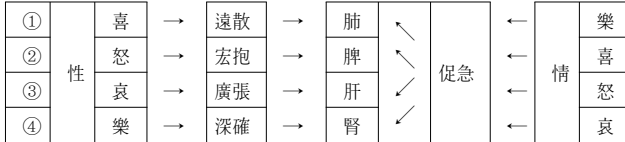
폐기(肺氣)의 ‘직이신(直而伸)’은 애성원산(哀性遠散)의 생리적(生理的) 근본이요, 비기(脾氣)의 ‘울이포(栗而包)’는 노성광포(怒性宏抱)의 생리적 근본이요, 간기(肝氣)의 ‘관이완(寬而緩)’은 희성광장(喜性廣張)의 생리적 근본이요, 신기(腎氣)의 ‘온이축(溫而畜)’은

낙성심확(樂性深確)의 생리적 근본이다.

그러므로 폐비간신지기(肺脾肝腎之氣)는 애노희락지성(哀怒喜樂之性)과 표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일러 ‘생리적(生理的) 성정론(性情論)’이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정(情)’-성(性)이 아니다-은 왜 촉진(促急)하여 폐비간신을 격동시키는 것일까? 더욱이 애성(哀性)은 폐기(肺氣)인데 애정(哀情)은 격신(激腎)하며, 노성(怒性)은 비기(脾氣)인데 노정(怒情)은 격간(激肝)하며, 희성(喜性)은 간기(肝氣)인데 희정(喜情)은 격비(激脾)하며, 낙성(樂性)은 신기(腎氣)인데 낙정(樂情)은 격폐(激肺)한다 하였으니 동무(東武)는 이 이유로서 비록 17절-빈기노(頻起怒)-에서 설명하였지만 이렇듯 애노희락의 정은 폐비간신에 대하여 서로 엇갈리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자.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성(性)은 순동지기(順動之氣)이므로 폐비간신(肺脾肝腎)의 기(氣)와 상응하여 익장(益臟)하게 되지만 애노희락의 정(情)이 촉진(促急)하면 역동지기(逆動之氣)가 되어 ‘역상(逆傷)의 원리’에 의하여 반대부위의 장기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이다. ‘역상(逆傷)의 원리’란 음기(陰氣)가 역동(逆動)하면 양장(陽臟)이 상하고 양기(陽氣)가 역동(逆動)하면 음장(陰臟)이 상한다는 원리이니 애노(哀怒)는 양기(陽氣)라 역동(逆動)하면 음장(陰臟)인 간신(肝腎)이 상하고 희락(喜樂)은 음기(陰氣)라 역동(逆動)하면 양장(陽臟)인 폐비(肺脾)가 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①에서 낙정(樂情)은 음기(陰氣)의 역동(逆動)이니 양장(陽臟)인 폐(肺)가 상하고 희정(喜情)도 음기(陰氣)라 역동(逆動)하면 양장(陽臟)인 비(脾)가 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낙정(樂情)이 음기(陰氣)의 역동(逆動)으로서 같은 양장(陽臟)인 비(脾)를 건드리지

않고 폐(肺)를 건드리며, 희정(喜情)도 마찬가지로 폐(肺)를 건드리지 않고 비(脾)를 상하게 하는 것일까. 이는 ‘역상(逆傷)의 원리’ 중에서도 ‘거리의 비례의 원리’에 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초(上焦)	중상초(中上焦)	중하초(中下焦)	하초(下焦)
폐 肺(哀)	비 脾(怒)	간 肝(喜)	신 腎(樂)

이 표에 의하면 상초(上焦)는 하초(下焦)와 대(對)가 되고 중상초(中上焦)는 중하초(中下焦)와 대(對)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정(哀情)이 촉진(促急)하면 거리(距離)의 비례(比例)에 의하여 하초(下焦)의 신(腎)이 상하고, 반대로 낙정(樂情)이 촉진(促急)하면 또한 거리(距離)의 비례에 의하여 폐(肺)가 상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상초(中上焦)와 중하초(中下焦)의 관계도 이와 같아서 노정(怒情)이 촉진(促急)하면 반대거리(反對距離)의 간(肝)이 상하고, 희정(喜情)이 촉진(促急)하면 이와 반대로 비(脾)가 상하게 마련일 것이다. 동무(東武)의 ‘생리적(生理的) 성정론(性情論)’이 음양론적인 소이가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1. 폐기(肺氣)는 곧게 뻗고, 폐기(脾氣)[비기(脾氣)]는 밤톨처럼 감싸주고, 간기(肝氣)는 너그럽되 느리며, 신기(腎氣)는 부드럽게 쌓인다.

肺氣直而伸 脾氣栗而包 肝氣寬而緩 腎氣溫而畜

(해설) 이 구절은 10절의 보완절(補完節)이다.

폐비간신(肺脾肝腎)을 기(氣)로 설명하는 것은 그의 형태보다도 기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氣)’는 ‘이기(理氣)’의 기가 아니라 ‘생기(生氣)’로서의 기인 것이다.

폐기(肺氣)의 ‘직이신(直而伸)’은 상초(上焦)의 상승지력(上升之力) 때문이요, 비기(脾氣)의 ‘울이포(栗而包)’는 중상초(中上焦)의 정축지력(停蓄之力) 때문이요, 간기(肝氣)의 ‘관이완(寬而緩)’은 중하초(中下焦)의 소도지력(消導之力) 때문이요, 신기(腎氣)의 온이축(溫

而畜)은 하초(下焦)의 하강지력(下降之力) 때문이다[장부론(臟腑論) 참조]. 이들은 동시에 애노희락지기(哀怒喜樂之氣)의 생리적 원천이기도 하다는 것은 전절(前節)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12. 폐(肺)로는 내뿜고 간(肝)으로는 빨아들이니 간(肝)·폐(肺)는 기액(氣液)을 호흡(呼吸)하는 문호(門戶)인 것이다. 또 비(脾)로는 받아들이고 신(腎)으로는 내보내니 신(腎)·비(脾)는 수곡(水穀)을 출납(出納)하는 부고(府庫)인 것이다.

肺以呼肝以吸 肝肺者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腎以出 腎脾者出納水穀之府庫也

[주(註)] ○기액(氣液): 공기와 혈액.

○수곡(水穀): 경구적(經口的) 음식물.

(해설) 폐비간신(肺脾肝腎)을 기액(氣液)의 호흡기능과 수곡(水穀)의 출납기능으로 나누었으니 이는 생물이 지닌 이대기능(二大機能)이라 할 수 있다.

사상인(四象人)은 폐비간신(肺脾肝腎)의 대소에 의하여 분류되는데, 태양·태음인은 폐(肺)·간(肝)의 대소에 의하여 나누어지므로 기액(氣液)의 호흡형이요, 소양·소음인은 비신(脾腎)의 대소에 의하여 나누어지므로 수곡(水穀)의 출납형[소화기형(消化器型)]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13. 애기(哀氣)는 곧게 오르고, 노기(怒氣)는 가로 오르며, 희기(喜氣)는 내치듯 떨어지고, 낙기(樂氣)는 툼벙 떨어진다.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주(註)] ○직승(直升): 애기(哀氣)는 애성(哀性)으로, 순동(順動)하

면 폐기(肺氣)가 되고, 폐기(肺氣)는 ‘직이신(直而伸)’하므로 애기(哀氣)는 직승(直升)하는 것이다.

○ 횡승(橫升): 노기(怒氣)는 노성(怒性)으로, 순동(順動)하면 비기(脾氣)가 되고, 비기(脾氣)는 ‘울이포(栗而包)’하므로 노기(怒氣)의 상승(上升)은 횡승(橫升)하게 되는 것이다.

○ 방강(放降): 희기(喜氣)는 희성(喜性)으로, 순동(順動)하면 간기(肝氣)가 되고, 간기(肝氣)는 ‘관이완(寬而緩)’하므로 희기(喜氣)는 좌우로 방강(放降)하는 것이다.

○ 함강(陷降): 낙기(樂氣)는 낙성(樂性)으로, 순동(順動)하면 신기(腎氣)가 되고, 신기(腎氣)는 ‘온이축(溫而畜)’하므로 낙기(樂氣)는 밑으로 함강(陷降)하는 것이다.

(해설) 사상설(四象說)에서 애노희락(哀怒喜樂)의 개념(概念)은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생리적-음양설적-기능에 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표가 성립되는 것이다.

폐 肺	기 氣	직이신 直而伸	비 脾	기 氣	울이포 栗而包	간 肝	기 氣	관이완 寬而緩	신 腎	기 氣	온이축 溫而畜
애 哀	氣	직승 直升	노 怒	氣	횡승 橫升	희 喜	氣	방강 放降	락 樂	氣	함강 陷降

이 표에 의하면 애노(哀怒)는 다 같이 상승지기(上升之氣)이며, 그의 차이는 직승(直升)과 횡승(橫升)의 차에 있는 것이다. 희락(喜樂)도 또한 다 같이 하강지기(下降之氣)인데, 희기(喜氣)는 방강(放降)하고 낙기(樂氣)는 함강(陷降)한다는 차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14절(節)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 애노(哀怒)의 기(氣)는 상승하고 희락(喜樂)의 기(氣)는 하강하니 상승하는 기가 과다하면 하초(下焦)가 상하고, 하강하는 기가 과다하면 상초(上焦)가 상한다.

哀怒之氣上升 喜樂之氣下降 上升之氣過多則下焦傷 下降之氣過多則上焦傷

[주(註)] ○상하초(上下焦): 삼초설(三焦說)에 의하면 “수곡의 길은 기의 시작과 끝이다[水穀之道路氣之所終始也]”라 하였으니 ‘초(焦)’란 특정한 장기가 아니라 분필선(分泌腺)을 가리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무(東武)가 삼초설(三焦說)을 상(上)·중상(中上)·중하(中下)·하(下)의 사초(四焦)로 했고, 상(上)·중상(中上)을 상초(上焦)로, 중하(中下)·하(下)를 하초(下焦)로 양분한 것은 그의 음양설적 사상설에 의거했기 때문일 것이다.

(해설) 이 구절에서 ‘역상(逆傷)의 원리’가 분명해진 것이다. 상승지기(上升之氣)는 애노지기(哀怒之氣)이니 애노지기(哀怒之氣)가 과다하면 간(肝)·신(腎)의 부위인 하초가 허손(虛損)하게 될 것이요, 하강지기(下降之氣)는 희락지기(喜樂之氣)이니 희락지기(喜樂之氣)가 과다하면 폐(肺)·비(脾)의 부위인 상초가 허손(虛損)될 것이니 이 원리가 다른 아닌 ‘역상의 원리’로, 이미 10절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음양설로 따진다면 상승의 양(陽)이 과다[실(實)]하면 하초(下焦)가 음허(陰虛)하게 되고 하강(下降)의 음(陰)이 과다[실(實)]하면 상초(上焦)가 양허(陽虛)할 것이니 그의 생리현상이 바로 사상인(四象人)의 장국성형(臟局成形)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음양의 상하(上下) 허실(虛實)이 병리(病理)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다현상은 반대로 허손현상(虛損現象)을 수반하여 음양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 역상의 원리인데, 그것은 하나의 병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애노희락의 촉진(促急)’[10절(節)]은 성정(性情)의 과다현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15. 애노지기(哀怒之氣)는 순동(順動)하면 밖으로 풍기면서 위로 오르고, 희락지기(喜樂之氣)는 순동(順動)하면 느릿느릿 차분히 아래로 떨어진다. 애노지기(哀怒之氣)는 양(陽)이니 순동(順動)하면 순(順)하게 상승하고, 희락지기(喜樂之氣)는 음(陰)이니 순동(順動)하면 순(順)하게



하강한다.

哀怒之氣順動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順動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陰也 順動則順而下降

[주(註)] ○순동(順動):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중절(中節)이니 “가이  
애즉애(可以哀則哀) 가이노즉노(可以怒則怒) 가이희즉희(可以喜則喜)  
가이락즉락(可以樂則樂)”은 순동지애노희락(順動之哀怒喜樂)이다.  
(해설)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중절(中節)을 순동(順動)이라 한 것은  
성지동(性之動)으로서의 성정(性情)의 활동형(活動型)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顔淵死子哭之慟從者曰子慟矣曰有慟乎非夫人之爲慟而誰爲(『논  
어』 「선진」)

○文王怒而安天下之民……武王亦怒而安天下之民(『맹자』 「양혜왕」)

○與民同樂(『맹자』 「양혜왕」)

○樂其樂而利其利(『대학』)

16. 애노지기(哀怒之氣)는 역동(逆動)하면 별안간 튀어나면서 한꺼  
번에 위로 오르고, 희락지기(喜樂之氣)는 약동(逆動)하면 물결 출렁거  
리듯 한꺼번에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상승(上升)하는 기(氣)가 역동  
(逆動)하면서 한꺼번에 위로 오르면 간(肝)·신(腎)이 상하고, 하강(下  
降)하는 기(氣)가 역동(逆動)하면서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지면 비(脾)·  
폐(肺)가 상할 것이다.

哀怒之氣逆動則暴發而並於上也 喜樂之氣逆動則浪發而並於下也 上升  
之氣逆動而並於上則肝腎傷 下降之氣逆動而並於下則脾肺傷

[주(註)] ○역동(逆動): 애노희락(哀怒喜樂)의 부중절(不中節)을 역  
동(逆動)이라 한다. 순동(順動)의 반(反).

(해설) 14절의 “上升之氣過多則下焦傷”을 이 절에서는 “上升之氣逆動而並於上則肝腎傷”이라 하였으니 다 같이 ‘역상의 원리’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다’가 ‘逆動而並於上’이 되고 ‘하초(下焦)’가 ‘간신(肝腎)’이 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하초(下焦)=간(肝)·신(腎)인 것이니 상초(上焦)란 폐(肺)·비(脾)가 될 것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총괄] “益者三樂 損者三樂 樂節禮樂 樂道人之善 樂多賢友 益矣 樂驕樂 樂佚遊樂 宴樂損矣”(『논어』「계씨」)라 하였으니 益者三樂은 順動之樂 順動之樂이요, 損者三樂은 逆動之樂 逆動之樂일 것이다.

17. 자주 성을 냈다 가라앉혔다 하면 요협(腰脅)이 자주 죄었다 풀렸다 할 것이며, 요협(腰脅)은 간(肝)이 붙어 있는 곳이니 요협(腰脅)이 죄었다 풀렸다 안정을 못 얻으므로 간(肝)이 상하지 않겠는가. 별안간 기뻐했다가 별안간 기쁨을 거두면 흉액(胸腋)이 별안간 넓혀졌다가 별안간 좁혀질 것이며, 흉액(胸腋)은 비(脾)가 붙어 있는 곳이니 흉액(胸腋)이 별안간 넓혀졌다가 별안간 좁혀져 안정을 못 얻으므로 비(脾)가 상하지 않겠는가. 문득 슬퍼했다가 문득 슬픔을 그치면 척곡(脊曲)이 문득 굽었다가 문득 펴질 것이며, 척곡(脊曲)은 신(腎)이 붙어 있는 곳이니 척곡(脊曲)이 굽었다 폈다 안정을 못 얻으므로 신(腎)이 상하지 않겠는가. 몇 번이고 즐거웠다가 몇 번이고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배(背)가 갑자기 들렸다가 갑자기 억눌릴 것이며, 배(背)는 폐(肺)가 붙어 있는 곳이니 배(背)가 들렸다가 억눌려 안정을 못 얻으므로 폐가 상하지 않겠는가.

頻起怒而頻伏怒則腰脅頻迫而頻蕩也 腰脅者肝之所住着處也 腰脅迫蕩不定則肝其不傷乎 乍發喜而乍收喜則胸腋乍闊而乍狹也 胸腋者脾之所住着處也 胸腋闊狹不定則脾其不傷乎 忽動哀而忽止哀則脊曲忽屈而忽伸也

脊曲者腎之所住着處也 脊曲屈伸不定則腎其不傷乎 屢得樂而屢失樂則背暴揚而暴抑也 背s者肺之所住着處也 背s抑揚不定則肺其不傷乎

[주(註)] ○빈(頻)·사(乍)·홀(忽)·루(屢): 다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역동지상(逆動之象)이다.

○요협(腰脅): 간(肝)의 부위(部位). ‘허리’에 있다.

○흉액(胸腋): 비(脾)의 부위는 ‘려(膂)’에 있고, 위(胃)의 부위는 ‘격(膈)’에 있으니 흉액(胸液)은 려격(膂膈)의 별칭인 듯.

○척곡(脊曲): 신(腎)의 부위는 요척하(腰脊下)에 있으니 척곡(脊曲)이란 요척하(腰脊下)인 듯.

○배어(背鰭): 폐(肺)의 부위는 배상(背上)에 있다.

(해설) 애노희락(哀怒喜樂)은 성정(性情)이지만 인체에 박탕(迫蕩)·활협(闊狹)·굴신(屈伸)·억양(抑揚) 등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생리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동무(東武) 사상인론(四象人論)은 성정생리(性情生理) 일치론(一致論)이 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애노희락의 역동(逆動)을 논하면서도 ‘역상의 원리’를 논하지 않고 곧장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사장(四臟)에 끼치는 영향만을 논하고 있다. 이것은 성정(性情)과 생리(生理)와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18. 태양인(太陽人)에게는 거친 노여움과 깊은 슬픔이 있으니 불가불 경계해야 한다. 소양인(少陽人)에게는 쏟아지는 슬픔과 깊은 노여움이 있으니 불가불 경계해야 한다. 태음인(太陰人)에게는 설레는 즐거움과 깊은 기쁨이 있으니 불가불 경계해야 한다. 소음인(少陰人)에게는 출렁거리는 기쁨과 깊은 즐거움이 있으니 불가불 경계해야 한다.

太陽人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有浪喜深樂 不可不戒

[주(註)] ○포노심애(暴怒深哀): 간소(肝小)한 까닭에 역상(逆傷)의 원리에 의하여 노정(怒情)이 촉진(促急)하게 되므로 포애(暴哀)하고, 폐대(肺大)한 까닭에 비기(脾氣)와 상응하여 애성(哀性)이 원산(遠散)하므로 심애(深哀)한다[태양인(太陽人)].

○포애심노(暴哀深怒): 신소(腎小)한 까닭에 역상의 원리에 의하여 애정(哀情)이 촉진(促急)하게 되므로 포쇠(暴衰)하고, 비대(脾大)한 까닭에 부기(脾氣)와 상응하여 노성(怒性)이 굉포(宏抱)하므로 심노(深怒)한다[소양인(少陽人)].

○낭락심희(浪樂深喜): 폐소(肺小)한 까닭에 역상의 원리에 의하여 낙정(樂情)이 촉진(促急)하게 되므로 낭락(浪樂)하고, 간대(肝大)한 까닭에 간기(肝氣)와 상응하여 희성(喜性)이 광장(廣張)하므로 심희(深喜)한다[태음인(太陰人)].

○낭희심락(浪喜深樂): 비소(脾小)한 까닭에 역상의 원리에 의하여 희정(喜情)이 촉진(促急)하게 되므로 낭희(浪喜)하고, 신대(腎大)한 까닭에 신기(腎氣)와 상응하여 낙성(樂性)이 심확(深確)하므로 심락(深樂)한다[소음인(少陰人)].

(해설) 폭노(暴怒) · 폭애(暴哀) · 낭락(浪樂) · 낭희(浪喜)는 역동(逆動)한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정(情)이니 역상(逆傷)의 원리(原理)에 의하여 태양인(太陽人)의 폭노(暴怒)는 간상(肝傷)하고, 소양인(少陽人)의 폭애(暴哀)는 신상(腎傷)하며, 태음인(太陰人)의 낭락(浪樂)은 폐상(肺傷)하고, 소음인(少陰人)의 낭희(浪喜)는 비상(脾傷)한다. 심애(深哀) · 심노(深怒) · 심희(深喜) · 심락(深樂)은 과다한 애노희락의 성(性)이니 역상의 원리에 의하여 태양인의 심애(深哀)는 수허(腎虛)하고, 소양인의 심노(深怒)는 간허(肝虛)하며, 태음인의 심희(深喜)는 비허(脾虛)하고, 소음인의 심락(深樂)은 폐허(肺虛)하다. 그러므로 태양인의 포노심애(暴怒深哀)는 간상신허(肝傷腎虛)하고, 소양인의 포애심노(暴哀深怒)는 신상간허(腎傷肝虛)하며, 태음인의 낭락심희(浪樂深喜)는 폐상비허(肺傷脾虛)하고, 소음인의 낭희심락(浪喜深樂)은 비상폐허(脾傷肺虛)할 것이다.

19. 고요(皐陶)는 말하기를 “도대체 사람을 앞에 있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함에 있습니다” 한즉 우(禹)는 말하기를 “대체로 그렇다면 임

금님께서도 이를 어렵게 여기셨으니 사람을 알면 명철(明哲)한 것이니 능히 사람에게 벼슬을 줄 것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면 은혜로운 것이라 철없는 백성들은 그를 따를 것이니 능히 명철(明哲)하고도 은혜로우면 어찌 명철(明哲)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찌 유묘(有苗)를 귀양보낼 것이며, 말재주에 낫빰 좋은 공임(孔壬)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皐陶曰都在知人在安民 禹曰吁咸若時 惟帝其難之 知人則明哲能官人 安民則惠黎民懷之 能哲而惠 何憂乎驩兜 何遷乎有苗 何畏乎巧言令色孔壬

[주(註)] ○고도(皐陶): 중국 고대 삼왕(三王)시절의 현신(賢臣).

○약시(若時): 약시(若是).

○제(帝): 요제(堯帝).

○환두(驩兜): 순임금이 내쫓은 사흉(四凶)의 하나.

○유묘(有苗): 위와 같다.

○공임(孔壬): 사흉(四凶)의 하나인 공공(共工)인 듯.

(해설) 이 구절은 『서전(書傳)』 「고요모(皐陶謨)」의 한 구절로, 다음 구절에 선행(先行)된 주(註)라고 할 수 있으며, ‘지인난(知人難)’을 설명한 구절이다.

20. 세 번 우왕(禹王)의 훈화(訓話)를 되풀이한 후 이를 우러러 받들면서 말하기를 “요(堯)임금의 희로애락이 매양 절(節)에 맞도록 하는 것은 사람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요, 우왕(禹王)의 희로애락이 매양 절(節)에 맞도록 하는 것은 감히 사람 알기를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천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거칠거나 설레는 것은 도대체 행신(行身)을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사람을 아는 데 명철(明哲)하지 못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요(堯)임금도

어렵게 여긴 것이요 우왕(禹王)도 탄식한 것이니 그 누가 경솔하게 스스로 만족할 것인가. 대체로 더욱더 자기의 정성을 돌이켜 보면서 사람을 골라 쓰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三復大禹之訓而欽仰之 曰帝堯之喜怒哀樂每每中節者 以其難於知人也 大禹之喜怒哀樂每每中節者 以其不敢輕易於知人也 天不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知人不明也 知人帝堯之所難而大禹之所吁也 則其誰沾沾自喜乎 蓋亦益反其誠 而必不可輕易取舍人也

[주(註)] ○대우지훈(大禹之訓): 전절(前節)－19절(節)－을 가리킴.  
○중절(中節): “희로애락지중절위지화(喜怒哀樂之中節謂之和)”(『중용(中庸)』)의 중절(中節)로, 애노희락의 순동지기(順動之氣).  
○지인(知人): 공자도 “樊遲問知子曰知人”(『논어』 「안연」)이라 하였는데, 공자의 지인(知人)은 인(仁)의 주체가 되는 윤리적－부자·군신·형제·붕우 등－인간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동무(東武)가 지적하고자 하는 지인(知人)은 애노희락의 주체가 되는 성정인(性情人)을 가리킨 것이다.  
○행신불성(行身不誠): “反諸身不誠”(『중용』)과 같은 뜻으로, 『중용』에서는 “誠身有道不明乎善不誠乎身矣”라 하였다.  
(해설) 애노희락(喜怒哀樂)의 폭동낭동(暴動浪動)을 경계하는 구절로, 동무(東武)는 폭동낭동(暴動浪動)의 원인을 행신불성(行身不誠)과 지인불명(知人不明)에 두고 있으니 행신불성(行身不誠)은 행(行)이고 지인불명(知人不明)은 지(知)로서 성명론(性命論)의 지행(知行)과도 상응하는 구절이며, 애노희락(喜怒哀樂)의 중절론(中節論)과 성신론(誠身論)은 중용사상과 직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절(中節)과 성신(誠身)은 윤리적 선행의 기준으로서 유교윤리 사상의 근간이 됨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21. 비록 호선(好善)하는 마음일지라도 편급(偏急)하게 호선(好善)하면 호선(好善)함이 반드시 분명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오악(惡惡)하

는 마음일지라도 편급(偏急)하게 오악(惡惡)하면 오악(惡惡)함이 반드시 두루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일은 호인(好人)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호인(好人)과 함께하지 않으면 희락(喜樂)이 반드시 번거로울 것이다. 이 세상일은 호인(好人)이 아닌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호인(好人)이 아닌 사람과 함께한다면 애노(哀怒)는 더욱 번거로울 것이다.

雖好善之心 偏急而好善則好善必不明也 雖惡惡之心 偏急而惡惡則惡惡必不周也 天下事宜與好人做也 不與好人做則喜樂必煩也 天下事不宜與不好人做也 與不好人做則哀怒益煩也

[주(註)] ○편급(偏急): 역동지상(逆動之象), 실중지상(失中之象).

○호인(好人): 호선오악지인(好善惡惡之人).

(해설) 호인(好人)과 불호인(不好人)의 구별은 호선악악지심(好善惡惡之心)의 유무(有無)에 의할 것이다. ‘불여호인주 즉희락필번야(不與好人做 則喜樂必煩也)’니 애노(哀怒)는 어찌 되며, 여불호인주 즉애노익번야(與不好人做 則哀怒益煩也)니 희락(喜樂)은 어찌 되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호언어법(互言語法)에 의한 생략이 아닐까. 필번(必煩)이나 익번(益煩)이나 다 같이 애노희락(哀怒喜樂)이 역동(逆動)한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동무(東武)는 택호중용(擇乎中庸)(“子曰 回也 擇乎中庸 拳拳服膺 弗失之矣”)보다도 택인(擇人)－택호인(擇好人)－을 더욱 중요시한 점에서 보다 더 인간적인 것 같다. 택호중용(擇乎中庸)은 안연(顔淵)의 ‘택호중용지도(擇乎中庸之道)’이지만 동무(東武)의 ‘여호인(與好人)···’은 ‘여호선지인(與好善之人)’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는 안연(顔淵)의 호선(好善)－택중용(擇中庸)－에 중점을 두었고, 후자는 안연(顔淵) 같이 호선(好善)하는 인물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앞서 동무(東武)는 그러한 이상적 인간상을 요·순이나 공자에게서 찾으려 했음을 보았던 것이다[성명론(性命論) 24절(節) 참조].

22. 애노(哀怒)는 서로 이룩하고 희락(喜樂)은 서로 돕나니 애성(哀性)이 지극하면 노정(怒情)이 동(動)하고, 노성(怒性)이 지극하면 애정(哀情)이 동(動)하며, 낙성(樂性)이 지극하면 희정(喜情)이 동(動)하고, 희성(喜性)이 지극하면 낙정(樂情)이 동(動)한다. 태양인이 애성(哀性)이 지극하여 그치지를 못하면 분노(忿怒)가 밖으로 튕겨나오고 소양인이 노성(怒性)이 지극하여 이겨내지 못하면 비애(悲哀)가 가슴 깊이 서리며, 소음인이 낙성(樂性)이 지극하되 다스려지지 못하면 희호(喜好)가 차분하지 못하고, 소음인이 희성(喜性)이 지극하여 가라앉지 않으면 치락(侈樂)이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흔들리는 자는 칼날을 세워 창자를 끊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 번 흔들리면 십 년을 두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니 이는 사생(死生)과 수夭(壽夭)가 정해지는 기관(機關)인지라 불가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樂性極則喜情動 喜性極則樂情動 太陽人哀極不濟則忿怒激外 少陽人怒極不勝則悲哀動中 少陰人樂極不成則喜好不定 太陰人喜極不服則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臍 一次大動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양(讓)] ○상성(相成): 상생(相生).

○상자(相資): 상조(相助).

○제(濟): 지(止).

○복(服): 치(治).

(해설) 애기(哀氣)는 직승(直升)하고 노기(怒氣)는 횡승(橫升)하는 상승지양기(上升之陽氣)이기 때문에 애노지기(哀怒之氣)는 상생(相生) 상성(相成)하며, 희기(喜氣)는 방강(放降)하고, 락기(樂氣)는 함강(陷降)하는 하강지음기(下降之陰氣)이기 때문에 희락지기(喜樂之氣)는 상조(相助) 상자(相資)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성(相成) 상자(相資)는 성정(性情)의 상성(相成) 상자(相



資)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애노희락지성(哀怒喜樂之性)이 극(極)에 이르자 실중(失中)－부제(不濟)·불승(不勝)·불성(不成)·불복(不服)－하게 되면 애노희락지정(哀怒喜樂之情)이 역동(逆動)－동중(動中)·격외(激外)·부정(不定)·무염(無厭)－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성극실중(性極失中)이 정생역동(情生逆動)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변조(變調)에 의한 성정(性情)의 상성(相成) 상자현상(相資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음양설에 의하면 ‘양극생음(陽極生陰) 음극생양(陰極生陽)’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동양상성(同陽相成) 동음상자(同陰相資)함이 종래의 설과 구별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태양인은 애성(哀性)이 원산(遠散)하지만 애극부제(哀極不濟)의 변조(變調)－실중(失中)－에 이르면 동양상성(同陽相成)하므로 노정(怒情)이 역동(逆動)하여 분노격외(忿怒激外)하는 것이다. 동시에 소양인은 노성(怒性)이 궤포(宏抱)하지만 노극불승(怒極不勝)의 변조(變調)에 이르면 그도 또한 동양상성(同陽相成)하므로 애정(哀情)이 역동(逆動)하여 비애동중(悲哀動中)하는 것이다. 소음인은 낙성(樂性)이 심확(深確)하지만 낙극불성(樂極不成)의 실중(失中)에 이르면 동음상자(同陰相資)하므로 희정(喜情)이 역동(逆動)하여 희호부정(喜好不定)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태음인은 희성(喜性)이 광장(廣張)하지만 희극불복(喜極不服)의 변조(變調)－실중(失中)－에 이르면 이도 또한 동음상자(同陰相資)하므로 낙정(樂情)이 역동(逆動)하여 치락무염(侈樂無厭)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 구절은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성정(性情)에 변조(變調)－실중(失中)－를 일으킴으로써 생기는 성병(成病)의 기전(機轉)을 밝힌 것이니 이런 점은 사상설(四象說)의 병리학적(病理學的) 성정론(性情論)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3. 태소음양(太少陰陽)의 장국단장(臟局短長)은 음양이 변화한 것이니 천품(天稟)에 따라 이미 결정된 바는 본시 언급(論及)할 것도 없으려니와 천품(天稟)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 외에도 또한 단장(短長)이 있어서 그렇듯 천품(天稟)이 완전하지 못한 자는 인사(人事)의 수(修)·불수(不修)에 따라 명수(命數)도 좌우될 것이니 불가불 삼가야

할 것이다.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固無可論 天稟已定之外  
又有短長而不全 其天稟者則人事之修不修而命之傾也 不可不慎也

[주(註)] ○천품(天稟): 선천적 품부(稟賦).

○인사(人事): 후천적 사실(事實).

○명(命): 명수(命數). 숙명.

(해설) 사상인(四象人)의 장부유형(臟腑類型)은 그것이 비록 음양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결정론적인 면과 비결  
정론적 면의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이다. 결정론적인 면은 새삼  
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지만 비결정론적(非決定論的)인 면은 인사  
(人事)의 자율적 수(修)·불수(不修)에 의하여 그의 명수(命數)가  
결정지어진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누차 언급한 동무(東  
武)의 윤리적 숙명론인 것이니 성명론(性命論) 35절의 ‘선행즉명  
수자미야(善行則命數自美也) 악행즉명수자악야(惡行則命數自惡也)’  
구(句)와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천품(天稟)은 어찌할 길이 없지만 음양의 변조(變調)에 따른 성  
정(性情)－애노희락(哀怒喜樂)－의 실중(失中)은 인사(人事)의 자율  
적 수신－극기－에 의하여 교정되고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다.  
사상설의 자율성은 여기서도 분명하다.

전절(前節)의 끝의 ‘불가부지야(不可不知也)’는 지(知)요, 본절(本  
節)의 ‘불가불신야(不可不慎也)’는 행(行)이니 이 두 절(節)은 또한  
지(知)·행(行)의 대(對)를 이루고 있다. ‘지행겸전(知行兼全)’, ‘지  
행반반(知行班班)’, ‘지행무과불급(知行無過不及)’이 곧 중절(中節)  
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4. 태양인(太陽人)의 노정(怒情)은 한 사람의 노정(怒情)으로도 천  
만인(千萬人)을 노(怒)하게 할 것이니 그의 노정(怒情)이 천만인을 다  
룰 방법을 모른다면 반드시 천만인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음  
인(少陰人)의 희정(喜情)은 한 사람의 희정(喜情)으로도 천만인을 기쁘

게 할 것이니 그의 희정(喜情)이 천만인을 다룰 방법을 모른다면 반드시 천만인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양인(少陽人)의 애정(哀情)은 한 사람의 애정(哀情)으로도 천만인을 슬프게 할 것이니 그의 애정(哀情)이 천만인을 다룰 방법을 모른다면 반드시 천만인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태음인(太陰人)의 낙정(樂情)은 한 사람의 낙정(樂情)으로도 천만인을 즐겁게 할 것이니 그의 낙정(樂情)이 천만인을 다룰 방법을 모른다면 반드시 천만인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太陽人怒 以一人之怒而怒千萬人 其怒無術於千萬人 則必難堪千萬人也  
 少陰人喜 以一人之喜而喜千萬人 其喜無術於千萬人 則必難堪千萬人也  
 少陽人哀 以一人之哀而哀千萬人 其哀無術於千萬人 則必難堪千萬人也  
 太陰人樂 以一人之樂而樂千萬人 其樂無術於千萬人 則必難堪千萬人也

[주(註)] ○천만인(千萬人): 계수적(計數的) 숫자가 아니라 최고 수 치라는 뜻이다.

○술(術): 방법.

(해설) 10절(節)과 22절(節) 및 본절(本節)에 의하여 사상인(四象人)의 애노희락지정(哀怒喜樂之情)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           |  |
|-----------|--|
| (1) 太陽人怒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氣激肝－怒千萬人－天稟</li> <li>・ 忿怒激外－怒無術於千萬人－人事</li> </ul> |
| (2) 少陰人喜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氣激脾－喜千萬人－天稟</li> <li>・ 喜好不定－喜無術於千萬人－人事</li> </ul> |
| (3) 少陽人哀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氣激腎－哀千萬人－天稟</li> <li>・ 悲哀動中－哀無術於千萬人－人事</li> </ul> |
| (4) 太陰人樂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氣激肺－樂千萬人－天稟</li> <li>・ 修樂無厭－樂無術於千萬人－人事</li> </ul> |

앞에서 보면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정(情)에도 두 가지 면이 있으니 천품(天稟)으로서의 정(情)은 전절(前節)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결정론적이어서 고무가론(固無可論)이지만 인사(人事)로서의 정(情)은 비결정론적이어서 ‘수불수(修不修)’에 의하여 명수(命數)가 결정지어질 것이다. 동무(東武)는 여기서도 후천적 명수(命數)가 성정(性情)의 조율에 좌우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술어천만인(無術於千萬人)’이란 ‘유술어천만인(有術於千萬人)’의 가능성 위에서의 논법임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25. 태양인(太陽人)·소양인(少陽人)은 항상 오직 애노(哀怒)의 과도함을 경계해야 하지만 억지로 희락(喜樂)을 꾸며대어 허둥지둥 뒤따르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억지로 희락(喜樂)을 꾸며대면서 뒤숭숭하게 그 일이 잦으면 희락(喜樂)이 진정(眞情)에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노(哀怒)도 더욱 편벽될 것이다. 태음인(太陰人)·소음인(少陰人)은 항상 오직 희락(喜樂)의 과도함을 경계해야 하지만 억지로 애노(哀怒)를 꾸며대어 허둥지둥 뒤따르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억지로 애노(哀怒)를 꾸며대면서 뒤숭숭하게 그 일이 잦으면 애노(哀怒)가 진정(眞情)에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희락(喜樂)도 더욱 편벽될 것이다.

太陽少陽人 但恒戒哀怒之過度 而不可強做喜樂虛動不及也 若強做喜樂而煩數之 則喜樂不出於眞情而哀怒益偏也 太陰少陰人 但恒戒喜樂之過度 而不可強做哀怒虛動不及也 若強做哀怒而煩數之 則哀怒不出於眞情而喜樂益偏也

[주(註)] ○허동(虛動): 허(虛)는 진실(眞實)의 반(反). 무실(無實)의 동(動).

(해설) 양인(陽人)－태소양인(太少陽人)－은 애노(哀怒)의 과도함을 경계한 것은 동양상성(同陽相成)하기 때문이요, 음인(陰人)－태소음인(太少陰人)－은 희락(喜樂)의 과도함을 경계한 것은 동음상자(同陰相資)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다(過多)에 따른 실중(失中)

의 경계인 것이다. 양인(陽人)은 음허(陰虛)하므로 희락(喜樂)의 허동(虛動)을 경계하였고 음인(陰人)은 양허(陽虛)하므로 애노(哀怒)의 허동(虛動)을 경계한 것이니 이는 다 같이 불급(不及)에 따른 실중(失中)을 경계한 것이다.

어쨌든 사상인(四象人)은 다 성정(性情)의 과불급(過不及)－실중(失中)－의 인(人)이다. 그러나 이의 중절행동(中節行動)은 결코 역동(逆動)이나 허동(虛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결국 폭동(暴動)·낭동(浪動)에 이르는 길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사단론(四端論)은 다음 절(節)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26.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일러 중(中)이라 하고, 드러나되 모든 절(節)에 알맞은 것을 일러 화(和)라 한다.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항상 경계하는 자는 차츰 중(中)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또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이미 드러나고서 스스로 반성하는 자는 차츰 절(節)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已發而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

[주(註)] ○중(中): 지행(知行)의 무과불급(無過不及).

○화(和): 중(中)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합일(合一)의 경지.

○절(節): 절도(節度)·예절(禮節)의 절(節). 마디, 법도(法度), 형식(形式).

(해설) ‘미발이항계(未發而恒戒)’하고 ‘이발이자반(已發而自反)’해야 한다는 것은, 희로애락은 미발시(未發時)나 이발시(已發時)나 한결같이 경계하며 반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자(朱子)는 “喜怒哀樂情也 其未發則性也 無所偏倚 故謂之中”[『중용』주(註)]이라 하였으니 이 설(說)에 따르면 희로애락 미발시(未發時)에 이미 중(中)이 되었으니 ‘미발이항계(未發而恒戒)’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산(茶山)은 “未發之中 已發之和 惟愼獨者當之”[『중용자잠(中庸自箴)』]라 하여 미발지중(未發之中)도 신독

군자존심양성지극공(愼獨君子存心養性之極功)으로 여겼으니 이는 동무(東武)의 미발론(未發論)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동무(東武) 미발론(未發說)이 주자설(朱子說)을 무시한 창의적 신설(新說)이 되는 소이가 있는 것이다.

(참고) ○喜怒哀樂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중용』)

[총괄] ○사단론(四端論)은 인품장리(人稟臟理)의 ‘사원구조적(四元構造的) 원리’가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성정(性情)에 의하여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지배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애노희락(哀怒喜樂)이 폐비간신(肺脾肝腎)과 더불어 음양론적 변화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사실은 사상설의 가장 긴요한 요체가 아닐 수 없다.

사단론(四端論)의 서술은 비록 성명론(性命論)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듯 독자적 논리의 전개를 보여 주고 있지만 그것은 다 같이 다음 확충론(擴充論)에서 하나로 종합 귀일(歸一)하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 제3장 확충론(擴充論)

[주(註)] ○확충(擴充): 본시 『맹자』의 “범유사단어아자 지개확이 충지의 약화지시연 천지시달(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공손추」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므로 확충론(擴充論)은 사단론(四端論)의 확충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명론(性命論)과의 결부에 의하여 체계화된 사상설(四象說)이 전개될 것이다.

(해설) 확충론은 성명론과 사단론에서 추출된 것이면서 동시에 다음 장부론(臟腑論)의 선도적 서설이기도 하다. 성명론과 사단론이 음·양의 양의(兩儀)라면 확충론은 그의 옥극(屋極)인 양 태극(太極)의 태일지상(太一之象)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비로소 천기(天機)·인사(人事)·지행(知行)·성정(性情) 등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인(四象人)의 전인적(全人的) 인간상이 뚜렷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상인론(四象人論)은 신인간론(新人間論)이다. 이 신인간(新人間)은 윤리적 군자나 정치적 현인(賢人)이라는 제한된 인간형이 아니다. 그것은 음양원리를 배경으로 하는 성정인(性情人)으로서의 사원구조적(四元構造的) 통일체인 것이다. 여기서는 생리(生理)와 성정(性情)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사원구조(四元構造)는 형태적 구조인 동시에 기능적 구조이기 때문에 생동적이다. 생동(生動)하는 사원구조(四元構造)이기 때문에

일자(一者)로서의 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일자(一者)에로 추향(趨向)하는 사상인(四象人)의 사원구조(四元構造)를 밝힌 것이 바로 확충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태양인(太陽人)은 애성(哀性)은 원산(遠散)하지만 노정(怒情)은 촉급(促急)한 것이니 애성(哀性)이 원산(遠散)한다는 것은 태양(太陽)의 귀가 천시(天時)를 살필 때 못사람들이 서로 속임을 애처롭게 여기는 것이니 애성(哀性)이란 다름 아니라 듣는 것이다. 노정(怒情)이 촉급(促急)하다는 것은 태양(太陽)의 비(脾)가 교우(交遇)를 맺을 때 남이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을 노여워하는 것이니 노정(怒情)이란 다름 아니라 노(怒)하는 것이다. 소양인(少陽人)은 노성(怒性)은 핑포(宏抱)하지만 애정(哀情)은 촉급(促急)한 것이니 노성(怒性)이 핑포(宏抱)하다는 것은 소양(少陽)의 눈이 세화(世會)를 살필 때 못사람들이 서로 업신여김을 노엽게 여기는 것이니 노성(怒性)이란 다름 아니라 보는 것이다. 애정(哀情)이 촉급(促急)하다는 것은 소양(少陽)의 폐(肺)가 사무(事務)를 처리할 때 남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니 애정(哀情)이란 다름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다. 태음인(太陰人)은 희성(喜性)은 광장(廣張)하지만 낙정(樂情)은 촉급(促急)한 것이니 희성(喜性)이 광장(廣張)한다는 것은 태음(太陰)의 코가 인륜(人倫)을 살필 때 못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니 희성(喜性)이란 다름 아니라 냄새를 맡는 것이다. 낙정(樂情)이 촉급(促急)하다는 것은 태음(太陰)의 신(腎)이 거처(居處)를 다스릴 때 남이 자기를 보호해 줌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낙정(樂情)이란 다름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음인(少陰人)은 낙성(樂性)은 심확(深確)하지만 희정(喜情)은 촉급(促急)한 것이니 낙성(樂性)이 심확(深確)하다는 것은 소음(少陰)의 입이 지



방(地方)을 살필 때 못사람들이 서로 보호해 줌을 즐겁게 여기는 것이니 낙성(樂性)이란 다름 아니라 맛보는 것이다. 희정(喜情)이 촉급(促急)하다는 것은 소음(少陰)의 간(肝)이 당여(黨與)에 관여할 때 남이 자기를 돕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니 희정(喜情)이란 다름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다.

太陽人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察於天時而哀衆人之相欺也 哀性非他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行於交遇而怒別人之侮己也 怒情非他怒也 少陽人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察於世會而怒衆人之相侮也 怒性非他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行於事務而哀別人之欺己也 哀情非他哀也 太陰人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察於人倫而喜衆人之相助也 喜性非他嗅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行於居處而樂別人之保己也 樂情非他樂也 少陰人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察於地方而樂衆人之相保也 樂性非他味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行於黨與而喜別人之助己也 喜情非他喜也

(해설) 성명론(性命論)의 1절[천기절(天機節)], 2절[인사절(人事節)], 3절[이청천시절(耳聽天時節)], 5절[폐달사무절(肺達事務節)]과 사단론(四端論)의 10절[태음인애성원산절(太陰人哀性遠散節)]이 합하여 이루어진 절(節)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몇 개의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제1표

太陽之耳	察於	天時	而	哀	衆人之	相	欺	
少陽之目		世會		怒			侮	
太陰之鼻		人倫		喜			助	
少陰之口		地方		樂			保	

태소음양(太少陰陽)은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의 약칭이다.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사상인(四象人)－의 이목비구(耳目鼻口)

는 본시 천기(天機)[천시(天時)·세회(世會)·인륜(人倫)·지방(地方)]을 통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왜 중인(衆人)[일반인(一般人)]들이 상기(相欺)함을 애처롭게[哀] 여기고, 중인(衆人)들이 상모(相侮)함을 노엽게 여기며 중인(衆人)들이 상조(相助)함을 기쁘게 여기고, 중인(衆人)들이 상보(相保)함을 즐겁게 여기는 것일까.

상보(相保)는 부자·형제 등 친족관계에서 있는 일이고, 상조(相助)는 비혈연적인 사회에서 요구되며, 상모(相侮)는 타족(他族)과의 세력투쟁에서 생겨나고, 상기(相欺)는 비무력적인 의장평화(擬裝平和)의 인류사에 접철된다. 그러므로 상보(相保)·상조(相助)·상모(相侮)·상기(相欺)의 순위는 인류생활의 진화론적 발전사와 병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口)[상보(相保)]·비(鼻)[상조(相助)]·목(目)[상모(相侮)]·이(耳)[상기(相欺)]의 배열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 애(哀)[상기(相欺)]·노(怒)[상모(相侮)]·희(喜)[상조(相助)]·낙(樂)[상보(相保)]의 관계는 저절로 자명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 중인(衆人)은 대동자천야(大同者天也)의 대동자(大同者)로서의 객관세계의 중인이니 다음 각립자인야(各立者人也)의 각립자(各立者)로서의 주관세계의 ‘별인(別人)-기(己)’와 대(對)가 되는 것이다.

제1표의 결과로서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성(性)을 청시후미(聽視嗅味)라 하였으니, 이는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성(性)은 다름 아닌 천기(天機)를 통찰하는 이목비구(耳目鼻口)의 기능 그 자체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중인(衆人)이 상기(相欺)·상모(相侮)·상조(相助)·상보(相保)함을 애노희락(哀怒喜樂)하는 성(性)은 이목비구(耳目鼻口)가 천기(天機)를 청시후미(聽視嗅味)하는 구체적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태양인(太陽人)의 애성(哀性)이 원산(遠散)하는 까닭은 애성(哀性)은 청(聽)하기 때문이고, 소양인(少陽人)의 노성(怒性)이 팽포(宏抱)하는 까닭은 노성(怒性)이 시(視)하기 때문이며, 태음인(太陰人)의 희성(喜性)이 광장(廣張)하는 까닭은 희(喜)성(性)이 후(嗅)하기 때문이고, 소음인(少陰人)의 낙성(樂性)이 심확(深確)한 까닭은 낙성(樂性)이 미(味)하기 때문인 것이다.

제2표

哀	性	非他	聽	也
怒			視	
喜			嗅	
樂			味	

또한 태양인(太陽人)의 애성(哀性)이 원산(遠散)하는 까닭은 ‘중인(衆人)’[소수(少數)가 아닌]의 상기(相欺)를 청(聽)하기 때문이고, 소양인(少陽人)의 노성(怒性)이 광포(宏抱)하는 까닭도 ‘중인(衆人)’의 상모(相侮)를 시(視)하기 때문이다. 태음인(太陰人)의 희성(喜性)이 광장(廣張)하는 까닭은 ‘중인(衆人)’의 상조(相助)를 후(嗅)하기 때문이고, 소음인(少陰人)의 낙성(樂性)이 심확(深確)한 까닭도 ‘중인(衆人)’의 상보(相保)를 미(味)하기 때문인 것이다.

제3표

太陽之脾	行於	交遇	而	怒	別人之	侮	己	也
少陽之肺		事務		哀		欺		
太陰之腎		居處		樂		保		
少陰之肝		黨與		喜		助		

이 표는 꽤 까다로운 문제를 안고 있다. 사단론(四端論) 10절(節)에 의하면 ‘태양인노정촉급 즉기격간이간익삭(太陽人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이라 하여 태양인노정(太陽人怒情)은 기격간(氣激肝)에 작용하는데 여기서는 ‘태양지비행어교우 이노별인지모기야(太陽之脾行於交遇 而怒別人之侮己也)’라 하였으니 태양지노(太陽之怒)가 비(脾)에 관계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본시 폐(脾)는 소양인(少陽人)의 노성광포(怒性宏抱) 시(時) 비익성(脾益盛)하고, 소음인(少陰人)의 희정촉급(喜情促急)할 때 비익삭(脾益削)하는데 왜 태양인(太陽人)이 노정촉급(怒情促急)한데 간(肝)은 불문(不問)하고 비(脾)를 문제 삼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 천착(穿鑿)이 될지 모르나 시론(試論)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태양인(太陽人)의 장국(臟局)은 폐간(肺肝)의 대소(大小)로 성형(成

形)이 되므로 비신(脾腎)은 정중지장(正中之臟)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태양인에게 정중지장(正中之臟)으로서 비신(脾腎) 중에서 왜 신(腎)을 택하지 않고 비(脾)를 택하였을까. 그것은 비(脾)가 노(怒)의 정장(正臟)이기 때문이다. 태양지노정(太陽之怒情)이 비록 촉진(促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동(逆動)하여 폭노(暴怒)가 될 경우에는 격간(激肝)하지만, 그것이 순동지노(順動之怒)일 때는 그것은 비(脾)의 정기(正氣)에 순응하게 될 것이니 ‘태양지비행어교우 이노별인지모기야(太陽之脾行於交遇而怒別人之侮己也)’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태양인의 노정(怒情)은 비록 촉진(促急)하더라도 행어교우(行於交遇)하는 정중지노(正中之怒)임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소양인(少陽人)의 장국(臟局)은 비(脾)·신(腎)의 대소(大小)로 성형(成形)이 된다. 그러므로 소양인에게에는 폐(肺)·간(肝)이 정중지장(正中之臟)이 된다. 소양인(少陽人)의 애정(哀情)이 정중지장(正中之臟)으로서 간(肝)을 택하지 않고 폐(肺)를 택한 것은 순동(順動)의 애(哀)는 폐(肺)의 정기(正氣)이기 때문이다. 태음인(太陰人)의 장국(臟局)은 폐(肺)·간(肝)의 대소(大小)로 성형(成形)이 된다. 그러므로 태음인에게는 비(脾)·신(腎)이 정중지장(正中之臟)이 된다. 태음인의 낙정(樂情)이 정중지장(正中之臟)으로서 비(脾)를 택하지 않고 신(腎)을 택한 것은 정중지락(正中之樂)은 신기(腎氣)이기 때문이다. 소음인(少陰人)의 장국(臟局)은 비신(脾腎)의 대소로서 성형이 된다. 그러므로 소음인에게에는 폐(肺)·간(肝)이 정중지장(正中之臟)이 된다. 소음인의 희정(喜情)이 정중지장(正中之臟)으로서 폐(肺)를 택하지 않고 간(肝)을 택한 것은 정중지희(正中之喜)는 간기(肝氣)이기 때문이다.

‘별인(別人)-기(己)’의 관계는 일대일(一對一)의 관계로서 각립자인야(各立者人也)의 각립자(各立者)로서의 개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인지상기모조보(衆人之相欺侮助保)는 객체적이고, 별인지모기보조기(別人之侮欺保助己)는 주체적인 것이다.

정(情)은 성(性)과는 달리 객체적인 청시후미청시후미(聽視嗅味聽視嗅味)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애노희락(哀怒喜樂) 그 자체라는 것이다. 성(性)은 원산(遠散)·굉포(宏抱)·광장(廣張)·심확(深確)의 형태로 된 청시후미(聽視嗅味)의 애노희락(哀怒喜樂)이니 이는 광의(廣義)의 논리적 애노희락(哀怒喜樂)이지만, 정(情)은 촉진(促

急)한 동자(動者)로서 애노희락(哀怒喜樂)이기 때문에 실체(實體)로서의 애노희락(哀怒喜樂)이 되는 것이다.

제4표

怒	情	非他	怒	也
哀			哀	
樂			樂	
喜			喜	

[총괄] 이상의 표들을 종합하면 사상인(四象人) 성정론의 기본 형태를 밝힌 절(節)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절들은 거의 이 구절의 주각(註脚)이 될 것이다.

2. 태양(太陽)의 귀는 천시(天時)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있지만 태양(太陽)의 코는 인륜(人倫)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없다. 태음(太陰)의 코는 인륜(人倫)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있지만 태음(太陰)의 귀는 천시(天時)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없다. 소양(少陽)의 눈은 세회(世會)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있지만 소양(少陽)의 입은 지방(地方)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없다. 소음(少陰)의 입은 지방(地方)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있지만 소음(少陰)의 눈은 세회(世會)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없다.

太陽之耳能廣博於天時 而太陽之鼻不能廣博於人倫 太陰之鼻能廣博於人倫 而太陰之耳不能廣博於天時 少陽之目能廣博於世會 而少陽之口不能廣博於地方 少陰之口能廣博於地方 而少陰之目不能廣博於世會

[주(註)] ○광박(廣博): 학문과 견식(見識)의 넓음이니, 박(博)은 박통(博通)의 박(博).

(해설) [성명론(性命論) 3절과 사단론(四端論) 10절 참조]

사상인(四象人)의 정상적 장리(臟理)에 따른 것이니, 태양인의 장국(臟局)은 폐대(肺大) 간소(肝小)한데 이(耳)는 폐지당(肺之黨)이요 비(鼻)는 간지당(肝之黨)이므로 태양지이(太陽之耳)는 천시에 넓게 통하고[廣博天時], 태양지비(太陽之鼻)는 인륜이 넓게 통할 수 없다[不能廣博人倫]. 요약하면 태양인은 ‘천시에 넓게 통하지만 인륜에 넓게 통할 수 없는[廣博天時而不能廣博人倫]’ 것이다. 태음인(太陰人)은 그와 반대로 간대(肝大) 폐소(肺小)하므로 ‘인륜에 넓게 통하지만 천시에 넓게 통할 수 없다[廣博人倫而不能廣博天時].’ 동시에 소양인(少陽人)은 비대(脾大) 신소(腎小)한데 목(目)은 비지당(脾之黨)이요 구(口)는 신지당(腎之黨)이므로 ‘세회에 넓게 통하지만, 지방에 넓게 통할 수 없을 것[廣博世會而不能廣博地方]’이다. 소음인은 그와 반대로 신대비소(腎大脾小)하므로 ‘지방에 넓게 통하지만 세회에 넓게 통할 수 없는 것[廣博地方而不能廣博世會]’이다.

四象人	臟局	廣博	不能廣博	※註 耳…肺之黨 目…脾之黨 鼻…肝之黨 口…腎之黨
太陽人	肺大肝小	天時(耳)	人倫(鼻)	
太陰人	肝大肺小	人倫(鼻)	天時(耳)	
少陽人	脾大腎小	世會(目)	地方(口)	
少陰人	腎大脾小	地方(口)	世會(目)	

3. 태양(太陽)의 비(脾)는 교우(交遇)에 대하여 용통(勇統)할 수 있지만 태양(太陽)의 간(肝)은 당여(黨與)에 대하여 아립(雅立)할 수 없다. 소음(少陰)의 간(肝)은 당여(黨與)에 대하여 아립(雅立)할 수 있지만 소음(少陰)의 비(脾)는 교우(交遇)에 대하여 용통(勇統)할 수 없다. 소양(少陽)의 폐(肺)는 사무(事務)에 대하여 민달(敏達)할 수 있지만 소양(少陽)의 신(腎)은 거처(居處)에 대하여 항상 안정될 수는 없다. 태음(太陰)의 신(腎)은 거처(居處)에 대하여 항상 안정될 수 있지만 태음(太陰)의 폐(肺)는 사무(事務)에 대하여 민달(敏達)할 수 없다.

太陽之脾能勇統於交遇 而太陽之肝不能雅立於黨與 少陰之肝能雅立於黨與 而少陰之脾不能勇統於交遇 少陽之肺能敏達於事務 而少陽之腎不能恒定於居處 太陰之腎能恒定於居處 而太陰之肺不能敏達於事務

[주(註)] ○용통(勇統): 날쌔게 통합(統合)함.

○아립(雅立): 아(雅)는 정(正)이니 ‘바르게 섬’.

(해설) 이 구절은 성명론(性命論) 5절과 확충론(擴充論) 1절 제3표를 참조하라.

本 節					1 節
太陽之脾	能	勇統	於	交遇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
少陽之肺		敏達		事務	行於事務而 哀別人之欺己也
太陰之腎		恒定		居處	行於居處而 樂別人之保己也
少陰之肝		雅立		黨與	行於黨與而 喜別人之助己也

각합교우(脚合交遇)[성명론(性命論) 제5절]이므로 태양지비(太陽之脾)의 용통교우(勇統交遇)는 그의 정중지상(正中之象)이다.

폐달사무(肺達事務)이므로 소양지폐(少陽之肺)의 민달사무(敏達事務)는 그의 정중지상(正中之象)이다.

신정거처(腎定居處)이므로 태음지신(太陰之腎)의 항정거처(恒定居處)는 정중지상(正中之象)이다.

간립당여(肝立黨與)이므로 소음지간(少陰之肝)의 아립당여(雅立黨與)는 정중지상(正中之象)이다.

정중지상(正中之象)이란 사상인(四象人)의 정장(正臟)－장국성형(臟局成形)의 대소(大小)에 의한 편장(偏臟)이 아닌－에 의하여 이루어진 순동지기(順動之氣)의 정상(正象)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상인(四象人)에는 장국성형(臟局成形)의 편장(偏臟)－대소(大小)의 장(臟)－에 의하여 ‘불능(不能)’의 경지가 있음은 사리(事理)의 당연한 소치(所致)가 아닐 수 없다.

전절(前節)은 1절에 따른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성(性)의 부분을

부연하였고 본절(本節)은 1절에 따른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정(情)’의 부분을 부연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4, 5 두 절에서는 더욱 이 점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니 4절은 2절의, 5절은 3절의 부연이 될 것이다.

太陽之肝	不能	雅立	於	黨與
少陽之腎		恒定		居處
太陰之肺		敏達		事務
少陰之脾		勇統		交遇

4. 태양인(太陽人)은 듣되 천시(天時)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있으므로 태양(太陽)의 신(神)은 두뇌(頭腦)에 충족(充足)하여 폐(肺)로 돌아가는 것이 많고, 태양인(太陽人)은 말되 인륜(人倫)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없으므로 태양(太陽)의 혈(血)은 요척(腰脊)에 충족(充足)하지 못하여 간(肝)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으니라. 태음인(太陰人)은 말되 인륜(人倫)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있으므로 태음(太陰)의 혈(血)은 요척(腰脊)에 충족(充足)하여 간(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고, 태음인(太陰人)은 듣되 천시(天時)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없으므로 태음(太陰)의 신(神)은 두뇌(頭腦)에 충족(充足)하지 못하여 폐(肺)로 돌아가는 것이 적으니라. 소양인(少陽人)은 보되 세화(世會)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있으므로 소양(少陽)의 기(氣)는 배려(背膂)에 충족(充足)하여 비(脾)로 돌아가는 것이 많고, 소양인(少陽人)은 맛보되 지방(地方)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없으므로 소양(少陽)의 정(精)은 방광(膀胱)에 충족(充足)하지 못하여 신(腎)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으니라. 소음인(少陰人)은 맛보되 지방(地方)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있으므로 소음(少陰)의 정(精)은 방광(膀胱)에 충족(充足)하여 신(腎)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고,



소음인(少陰人)은 맛보되 세화(世會)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없으므로  
 소음(少陰)의 기(氣)는 배려(背膂)에 충족(充足)하지 못하여 비(脾)로 돌  
 아가는 것이 적으니라.

太陽之聽能廣博於天時 故太陽之神充足於頭腦而歸肺者大也 太陽之嗅不  
 能廣博於人倫 故太陽之血不充足於腰脊而歸肝者小也 太陰之嗅能廣博於  
 人倫 故太陰之血充足於腰脊而歸肝者大也 太陰之聽不能廣博於天時 故  
 太陰之神不充足於頭腦而歸肺者小也 少陽之視能廣博於世會 故少陽之氣  
 充足於背膂而歸脾者大也 少陽之味不能廣博於地方 故少陽之精不充足  
 於膀胱而歸腎者小也 少陰之味能廣博於地方 故少陰之精充足於膀胱而歸  
 腎者大也 少陰之視不能廣博於世會 故少陰之氣不充足於背膂而歸脾者  
 小也

[주(註)] ○두뇌(頭腦): 두(頭).

○요척(腰脊): 요(腰).

○배려(背膂): 견(肩).

○방광(膀胱): 둔(臀).

(해설) 두뇌(頭腦) · 배려(背膂) · 요척(腰脊) · 방광(膀胱) 등은 두  
 (頭) · 견(肩) · 요(腰) · 둔(臀)의 신체구조의 별칭이다.

이 구절은 2절의 장부론적(臟腑論的) 해설로서의 장부론(臟腑論)  
 의 선행구(先行句)이다.

신기혈정(神氣血精)은 음양론적(陰陽論的)으로라야 그 의미를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神)과 기(氣)는 양(陽)인데, 신(神)은 기  
 (氣)보다도 더 경청(輕淸)한 것이고, 혈(血)과 정(精)은 음(陰)인데,  
 정(精)은 혈(血)보다도 더 질중(質重)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神)－  
 폐(肺), 기(氣)－비(脾), 혈(血)－간(肝), 정(精)－신(腎)의 관계가 성  
 립되는 것이다.

사단론(四端論) 10절에서는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성정(性情)에 의  
 한 사상인(四象人) 장부(臟腑)의 성형(成形)을 밝혔지만 본절(本節)  
 에서는 천기(天機)의 능부(能否)에 의한 사상인(四象人) 장국(臟局)  
 의 성형을 밝히는 것이므로 10절과는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  
 2절의 이목비구(耳目鼻口)가 본절(本節)에서는 청시후미(聽視嗅味)

로 되었으니 이는 호언법(互言法)의 문장으로서의 의미는 서로 같지만 굳이 따진다면 전자는 형태를 주로 했고 후자는 기능을 주로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태양인(太陽人)의 노(怒)는 교우(交遇)에 대하여 용통(勇統)할 수 있으므로 교우(交遇)는 모기(侮己)하지 않고, 태양인(太陽人)의 희(喜)는 당여(黨與)에 대하여 아립(雅立)할 수 없으므로 당여(黨與)는 모기(侮己)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태양인(太陽人)의 폭노(暴怒)는 교우(交遇)에 있지 않고 반드시 당여(黨與)에 있는 것이다. 소음인(少陰人)의 희(喜)는 당여(黨與)에 대하여 아립(雅立)할 수 있으므로 당여(黨與)는 조기(助己)하고, 소음인(少陰人)의 노(怒)는 교우(交遇)에 대하여 용통(勇統)할 수 없으므로 교우(交遇)는 조기(助己)하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소음인(少陰人)의 낭희(浪喜)는 당여(黨與)에 있지 않고 반드시 교우(交遇)에 있는 것이다. 소양인(少陽人)의 애(哀)는 사무(事務)에 대하여 민달(敏達)할 수 있으므로 사무(事務)는 기기(欺己)하지 않고, 소양인(少陽人)의 즐거움(樂)은 거처(居處)에 대하여 항상 안정하지 못하므로 거처(居處)는 기기(欺己)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소양인(少陽人)의 포애(暴哀)는 사무(事務)에 있지 않고 반드시 거처(居處)에 있는 것이다. 태음인(太陰人)의 즐거움(樂)은 거처(居處)에 대하여 항상 안정하므로 거처(居處)는 보기(保己)하고, 태음인(太陰人)의 애(哀)는 사무(事務)에 대하여 민달(敏達)하지 못하므로 사무(事務)는 보기(保己)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태음인(太陰人)의 낭락(浪樂)은 거처(居處)에 있지 않고 반드시 사무(事務)에 있는 것이다.

太陽之怒能勇統於交遇故交遇不侮也 太陽之喜不能雅立於黨與故黨與侮

也 是故太陽之暴怒不在於交遇而必在於黨與也 少陰之喜能雅立於黨與故黨與助也 少陰之怒不能勇統於交遇故交遇不助也 是故少陰之浪喜不在於黨與而必在於交遇也 少陽之哀能敏達於事務故事務不欺也 少陽之樂不能恒定於居處故居處欺也 是故少陽之暴哀不在於事務而必在於居處也 太陰之樂能恒定於居處故居處保也 太陰之哀不能敏達於事務故事務不保也 是故太陰之浪樂不在於居處而必在於事務也

(해설) 애노희락지기(哀怒喜樂之氣)에는 순동(順動)과 역동(逆動)의 상반된 두 가지 기(氣)가 있다. 1절의 주(註)에서 사상인(四象人)의 정장(正臟)에서 나온 애노희락지정(哀怒喜樂之情)은 순동지기(順動之氣)라 하였거니와 이 점은 1절과 본절(本節)을 비교한 다음의 표로써 분명해진다.

太陽之	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
	怒	能勇統於交遇故	交遇不侮也
少陽之	肺	行於事務而	哀別人之欺己也
	哀	能敏達於事務故	事務不欺也
太陰之	腎	行於居處而	樂別人之保己也
	樂	能恒定於居處故	居處保也
少陰之	肝	行於黨與而	喜別人之助己也
	喜	能雅立於黨與故	黨與助也

태양인(太陽人)의 예를 들면 1절에서는 ‘태양인의 비(脾)는 교우를 행함에 남이 자기를 업신여기는것에 분노한다[太陽之脾行於交遇而怒別人之侮己也]’라 하여 태양인(太陽人)의 노정(怒情)이 교우(交遇)의 모기(侮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본절(本節)에서는 ‘태양인의 분노는 교우에 매우 용통(勇統)함으로 교우함에 업신여기지 않는다[太陽之怒 能勇統於交遇 故交遇不侮也]’라 하였으니 이는 태양인(太陽人)은 교우(交遇)에 용통(勇統)하여 교우불모(交遇不侮)하므로 노정(怒情)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를 일러 태양지노(太陽之怒)의 순동(順動)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역동지기(逆動之氣)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太陽之	喜	不能雅立於黨與	故黨與侮也
	暴 怒	不在於交遇而	必在於黨與也
少陽之	樂	不能恒定於居處	故居處欺也
	暴 哀	不在於事務而	必在於居處也
太陰之	哀	不能敏達於事務	故事務不保也
	浪 樂	不在於居處而	必在於事務也
少陰之	怒	不能勇通於交遇	故交遇不助也
	浪 喜	不在於黨與而	必在於交遇也

이 표에 의하면 사상인(四象人)의 역동지기(逆動之氣)는 정장(正臟)에서가 아니라 편소지장(偏小之臟)에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태양인(太陽人)을 두고 보더라도 그의 노정(怒情)이 비록 교우(交遇)에서 생기더라도[비(脾)는 그의 정장(正臟)] 그의 폭노(暴怒)는 교우(交遇)에 있지 않고 당여(黨與)에 있는 것[간(肝)은 그의 편소지장(偏小之臟)]을 알 수 있다.

6. 태양인(太陽人)의 교우(交遇)는 노(怒)로 다스릴 수 있지만 당여(黨與)를 노(怒)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만일 노(怒)를 당여에 옮기면 당여에 보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肝)을 상하게 된다. 소음인(少陰人)의 당여(黨與)는 희(喜)로 다스릴 수 있지만 교우(交遇)를 희(喜)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만일 희(喜)를 교우에 옮기면 교우에 보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폐(肺)를 상하게 된다. 소양인(少陽人)의 사무(事務)는 애(哀)로 다스릴 수 있지만 거처(居處)를 애(哀)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만일 애(哀)를 거처에 옮기면 거처에 보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腎)이 상(傷)하게 된다. 태음인(太陰人)의 거처는 낙(樂)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사무(事務)를 낙(樂)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만일 낙(樂)을 사무에 옮기면 사무에 보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폐(肺)가 상하게 된다.

太陽之交遇可以怒治之 而黨與不可以怒治之也 若遷怒於黨與則無益於黨與而肝傷也 少陰之黨與可以喜治之 而交遇不可以喜治之也 若遷喜於交遇則無益於交遇而脾傷也 少陽之事務可以哀治之 而居處不可以哀治之也 若遷哀於居處則無益於居處而腎傷也 太陰之居處可以樂治之 而事務不可以樂治之也 若遷樂於事務則無益於事務而肺傷也

(해설) ‘가이치지(可以治之)’는 순동지기(順動之氣)이기 때문이고, ‘불가이치지(不可以治之)’는 역동지기(逆動之氣)이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이 구절은 인사(人事) ·性情(性情) ·장부(臟腑)가 혼연일치(渾然一致)되어 있다. 이는 인사(人事) ·性情(性情) ·장부(臟腑)가 ‘불가수유리아(不可須臾離也)’(『중용(中庸)』)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리비도야(可離非道也)’(『중용(中庸)』)라 했듯이 이들을 각기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사상인(四象人)의 인간상(人間像)’이 아닌 것이다. 사상인(四象人)은 천기(天機) ·인사(人事) ·性情(性情) ·장부(臟腑) 등이 사원구조(四元構造)에 의하여 전인적 인격의 통일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7. 태양인(太陽人)의 성기(性氣)는 항상 전진하려고 하지만 후퇴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소양인(少陽人)의 성기(性氣)는 항상 거동(舉動)하려고 하지만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다. 태음인(太陰人)의 성기(性氣)는 항상 고요하려고 하지만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소음인(少陰人)의 성기(性氣)는 항상 들어앉아 있으려고 하지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太陽之性氣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恒欲舉而不欲措 太陰之性氣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恒欲處而不欲出

[주(註)] ○성기(性氣): 태양인(太陽人)의 애성(哀性), 소양인(少陽人)의 노성(怒性), 태음인(太陰人)의 희성(喜性), 소음인(少陰人)의 낙

성(樂性) 사단론(四端論) 10절 참조.

(해설) 사상인(四象人)의 성기(性氣)는 천기(天機)를 청시후미(聽視嗅味)하는 이목비구(耳目鼻口)의 기능이다(1절 제2표), 그러므로 광박어천기(廣博於天機)하는 것이다(2, 4절).

태양인의 성기(性氣)는 ‘애중인지상기(哀衆人之相欺)’하는 애성(哀性)이다. 애성지기(哀性之氣)는 폐기(肺氣)로서 ‘직이신(直而伸)’하니 욕진이불욕퇴(欲進而不欲退)한다.

소양인의 성기(性氣)는 ‘노중인지상모(怒衆人之相侮)’하는 노성(怒性)이다. 노성지기(怒性之氣)는 비기(脾氣)로서 ‘롤이포(栗而包)’하니 욕거이불욕조(欲舉而不欲措)한다.

태음인의 성기(性氣)는 ‘희중인지상조(喜衆人之相助)’하는 희성(喜性)이다. 희성지기(喜性之氣)는 간기(肝氣)로서 ‘관이완(寬而緩)’하니 욕정이불욕동(欲靜而不欲動)한다.

소음인의 성기(性氣)는 ‘낙중인지상보(樂衆人之相保)’하는 낙성(樂性)이다. 낙성지기(樂性之氣)는 신기(腎氣)로서 ‘온이축(溫而畜)’하니 욕처이불욕출(欲處而不欲出)한다.

8. 태양인(太陽人)의 전진함은 그 역량이 가히 전진함 직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재주를 돌이켜 보되 장엄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소양인(少陽人)의 거동(舉動)은 그 역량이 가히 거동함 직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돌이켜 보되 확고하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을 것이다. 태음인(太陰人)의 고요함은 그 역량이 가히 고요함 직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돌이켜 보되 주밀(周密)하지 않으면 고요할 수 없을 것이다. 소음인(少陰人)의 들어앉았음은 그 역량이 가히 들어앉음 직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모사(謀事)를 돌이켜 보되 광대(廣大)하지 않으면 들어앉았을 수 없을 것이다.

太陽之進量可而進也 自反其材而不莊不能進也 少陽之舉量可而舉也 自反其力而不固不能舉也 太陰之靜量可而靜也 自反其知而不周不能靜也

少陰之處量可而處也 自反其謀而不弘不能處也

[주(註)] ○진(進): 전진(前進) · 잔취(進取).

○장(莊): 장엄(莊嚴) · 장경(莊敬). 경조(輕燥)의 반(反).

○고(固): 유약(柔弱)의 반(反).

○주(周): 주밀(周密). 조약(粗略)의 반(反).

○홍(弘): 확대(廣大).

(해설) 제아무리 천품(天稟)의 성기(性氣)라 하더라도 자반의식(自反意識)의 뒷받침이 없이는 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동무사상(東武思想)의 자율성을 엿볼 수 있다.

태양인의 성기(性氣)는 진취적이지만 경조(輕燥)하면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소양인의 성기(性氣)는 행동적이지만 유약하면 거동하지 못할 것이다. 태음인의 성기(性氣)는 정숙하지만 조약(粗略)하면 정밀(靜謐)을 가늠지 못할 것이다. 소음인의 성기(性氣)는 안정되지만 넓은 지모(智謀)가 없으면 처신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논어』 「학이」)

9. 태양인(太陽人)의 정기(情氣)는 항상 수컷이 되고자 하지만 암컷이 되고자 하지는 않는다. 소음인(少陰人)의 정기(情氣)는 항상 암컷이 되고자 하지만 수컷이 되고자 하지는 않는다. 소양인(少陽人)의 정기(情氣)는 항상 밖에서 뛰어나고자 하지만 안에서 지키고자 하지는 않는다. 태음인(太陰人)의 정기(情氣)는 항상 안에서 지키고자 하지만 밖에서 뛰어나고자 하지는 않는다.

太陽之情氣恒欲爲雄而不欲爲雌 少陰之情氣恒欲爲雌而不欲爲雄 少陽之情氣恒欲外勝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恒欲內守而不欲外勝

[주(註)] ○웅(雄): 남성적 · 강건 · 선두.

○자(雌): 여성적 · 유약 · 순종.

○정기(情氣): 태양인의 노정(怒情), 소양인의 애정(哀情), 태음인의 낙정(樂情), 소음인의 희정(喜情)[사단론(四端論) 10절 참조]. (해설) 사상인(四象人)의 정기(情氣)에는 순동(順動)과 역동(逆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순동(順動)의 정기(情氣)인 것이다. 태양인의 정기(情氣)는 ‘노별인지모기(怒別人之侮己)’하는 노정(怒情)이다. 순동지노정(順動之怒情)은 비기(脾氣)로, 용통어교우(勇統於交遇)할 때 욕위웅이불욕위자(欲爲雄而不欲爲雌)한다. 소양인의 정기(情氣)는 ‘애별인지기(哀別人之欺己)’하는 애정(哀情)이다. 순동지애정(順動之哀情)은 폐기(肺氣)로, 민달어사무(敏達於事務)할 때 욕외승이불욕내수(欲外勝而不欲內守)한다. 태음인의 정기(情氣)는 ‘낙별인지보기(樂別人之保己)’하는 낙정(樂情)이다. 순동지락정(順動之樂情)은 신기(腎氣)로, 항정어거처(恒定於居處)할 때 욕내수이불욕외승(欲內守而不欲外勝)한다. 소음인의 정기(情氣)는 ‘희별인지조기(喜別人之助己)’하는 희정(喜情)이다. 순동지희정(順動之喜情)은 간기(肝氣)로, 아립어당여(雅立於黨與)할 때 욕자이불욕위웅(欲雌而不欲爲雄)한다.

10. 태양인(太陽人)은 비록 수컷이 되기를 좋아하지만 더러는 암컷이 되는 것도 좋을 것이니 만일 전적으로 수컷이 되기만을 좋아한다면 방종(放縱)하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칠 것이다. 소음인(少陰人)은 비록 암컷이 되기를 좋아하지만 더러는 수컷이 되는 것도 좋을 것이니 만일 전적으로 암컷이 되기를 좋아한다면 안일(安逸)을 꾀하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칠 것이다. 소양인(少陽人)은 비록 외승(外勝)하기를 좋아하지만 또한 내수(內守)하는 것도 좋을 것이니 만일 전적으로 외승(外勝)하기만을 좋아한다면 사정(私情)에 치우치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칠 것이다. 태음인(太陰人)은 비록 내수(內守)하기를 좋아하지만 또한 외승(外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니 만일 전적으로 내수(內守)하기만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물욕(物慾)에 빠지는 마음이 지나칠 것이다.



太太陽之人雖好爲雄亦或宜雌 若全好爲雄則放縱之心必過也 少陰之人雖好爲雌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偷逸之心必過也 少陽之人雖好外勝亦宜內守 若全好外勝則偏私之心必過也 太陰之人雖好內守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物慾之心必過也

(해설) 이 구절은 전절(前節)과 사단론 2절이 합해진 구절이다. 태양인(太陽人)은 용통어교우(勇統於交遇)할 때 생기는 노정(怒情)이 곧 위웅지심(爲雄之心)이니 이때에 기례(棄禮)하면 방종지심(放縱之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인이 예(禮)를 숭상하면 중용군자(中庸君子)가 될 것이다.

소음인(少陰人)은 아립어당여(雅立於黨與)할 때 생기는 희정(喜情)이 곧 위자지심(爲雌之心)이니 이때에 기의(棄義)하면 투일지심(偷逸之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음인이 의(義)를 알면 중용군자가 될 것이다.

소양인(少陽人)은 민달어사무(敏達於事務)할 때 생기는 애정(哀情)이 곧 외승지심(外勝之心)이니 이때에 기지(棄智)하면 편사(偏私)－식사(飾私)－지심(之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양인이 지(智)를 알면 중용군자가 될 것이다.

태음인(太陰人)은 항정어거처(恒定於居處)할 때 생기는 낙정(樂情)이 곧 내수지심(內守之心)이니 이때에 기인(棄仁)하면 물욕지심(物慾之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음인이 인(仁)을 알면 중용군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태양인(太陽人)은 예를 버리고 방종〔(棄禮而放縱)〕하는 비인(鄙人)이 되기 쉽고, 소음인(少陰人)은 의를 포기하고 구차하게 여기는〔(棄義而偷逸)〕 나인(懦人)이 되기 쉬우며, 소양인(少陽人)은 지혜를 포기하고 사(私)를 꾸미는〔(棄智而飾私)〕 박인(薄人)이 되기 쉽고, 태음인(太陰人)은 인을 버리고 극단적 욕심을 부리는〔(棄仁而極慾)〕한 탐인(貪人)이 되기 쉬움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11. 태양인(太陽人)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그의 본성은 말씨가 명확하여 사람을 맞아들이는 듯하고, 비록 지극히 못났더라도 사람들의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소양인(少陽人)은 비록 지극히 어리

석더라도 그의 본성은 포용력이 넓고 커서 사람을 존경하는 법도가 있는 듯하고, 비록 지극히 못났더라도 사람들의 지우(知愚)를 분별할 줄 안다. 태음인(太陰人)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그의 본성이 사람 위에 우뚝 솟아남을 가르치며 유도해 내는 듯하고, 비록 지극히 못났더라도 사람들의 근타(勤惰)를 또한 가려낼 줄 안다. 소음인(少陰人)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그의 본성이 넓고 평탄하여 사람들을 달래며 따르도록 하는 듯하고, 비록 지극히 못났더라도 사람들의 능부(能否)를 또한 분별해 낼 줄 안다.

太陽人雖至愚其性便然猶延納也 雖至不肖人之善惡亦知之也 少陽人雖至愚其性恢恢然猶式度也 雖至不肖人之知愚亦知之也 太陰人雖至愚其性卓卓然猶教誘也 雖至不肖人之勤惰亦知之也 少陰人雖至愚其性坦坦然猶撫循也 雖至不肖人之能否亦知之也

[주(註)] ○편편연(便便然): 분명한 말슴씨.

○연납(延納): 느릿느릿 늦추어 줌.

○회회연(恢恢然): 넓고도 큰 포용력.

○식도(式度): 존경하는 법도.

○탁탁연(卓卓然): 우뚝 솟아 있는 의연한 모습.

○교유(教誘): 교회(教誨) · 교도(教導).

○탄탄연(坦坦然): 넓고도 평범한 모습.

○무순(撫循): 달래주며 따르게 함.

(해설) 본절(本節)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太陽	人	便便	然	猶	延納	知	人之	善惡	耳	哀	性	脾	怒	情
少陽		恢恢			式度			知愚	目	怒		肺	哀	
太陰		卓卓			教誘			勤惰	鼻	喜		腎	樂	
少陰		坦坦			撫循			能否	口	樂		肝	喜	

선악(善惡) 지우(知愚)는 지(知)요 근타(勤惰) 능부(能否)는 행(行)이니, 선악은 지우(知愚)의 경청자(輕淸者)요 능부(能否)는 근타(勤惰)의 질중자(質重者)이다.

탄탄(坦坦)은 평면(平面)이요, 탁탁(卓卓)은 입체(立體)요, 회회(恢恢)는 공간(空間)이요, 편편(便便)은 시간(時間)[언(言)]이다. 그러므로 탄탄(坦坦)에서 편편(便便)으로 상달(上達)하는 것이다.

태양인(太陽人)의 이(耳)는 광박어천시(廣博於天時)하므로 편편연유연납(便便然猶延納)하고, 소양인(少陽人)의 목(目)은 광박어세회(廣博於世會)하므로 회회연유식도(恢恢然猶式度)하며, 태음인(太陰人)의 비(鼻)는 광박어인륜(廣博於人倫)하므로 탁탁연유교유(卓卓然猶教誘)하고, 소음인(少陰人)의 구(口)는 광박어지방(廣博於地方)하므로 탄탄연유무순(坦坦然猶撫循)하는 것이다.

태양인의 편편연유연납(便便然猶延納)은 지예지상(知禮之象)이요, 소양인의 회회연유식도(恢恢然猶式度)는 지지지상(知智之象)이요, 태음인의 탁탁연유교유(卓卓然猶教誘)는 지인지상(知仁之象)이요, 소음인의 탄탄연유무순(坦坦然猶撫循)은 지의지상(知義之象)이다. 태양인의 비(脾)는 용통어교우(勇統於交遇)하므로 지인지선악(知人之善惡)하고, 소양인의 폐(肺)는 민달어사무(敏達於事務)하므로 지인지지우(知人之知愚)하며, 태음인의 신(腎)은 항정어거처(恒定於居處)하므로 지인지근태(知人之勤怠)하고, 소음인의 간(肝)은 아립어당여(雅立於黨與)하므로 지인지능부(知人之能否) 하는 것이다.

12. 태양인(太陽人)은 교우(交遇)는 삼가는 까닭에 항상 생소(生疎)한 교우인(交遇人)을려환(慮患)하는 노심(怒心)이 있으니 이 마음은 멧멧하게 타고난 경심(敬心)에서 나왔는지라 지극히 선(善)한 자가 아닌바 아니지만 당여(黨與)에 대해서는 경홀(輕忽)히 여기는 까닭에 매양 친숙한 당여인(黨與人) 때문에 함정에 빠져 치우친 노정(怒情)으로 장부(臟腑)를 상하는 것이니 그의 택교(擇交)하는 마음이 넓지 못하기 때문이다.

太陽人謹於交遇 故恒有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 此心出於秉彝之敬心也  
莫非至善而輕於黨與 故每爲親熟黨與人所陷而偏怒傷臟 以其擇交之心不  
廣故也

[주(註)] ○노심(怒心): 노별인지모기지정(怒別人之侮己之情).

○병이(秉彝): 『시경』의 “민지병이호시의덕(民之秉彝 好是懿德)”의  
병이(秉彝)로서의 선천적 소질.

○택교지심(擇交之心): 당여친숙인택교지심(黨與親熟人擇交之心).

(해설) ‘정(情)’자(字) 대신 ‘심(心)’자(字)를 쓴 것은 사단론(四端論)  
2절－인추심욕절(人趨心慾節)－과도 상응하려니와 16절에 선행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노심(怒心)을 노정(怒情)이라 한 것은 태양인의 행어교우(行於交  
遇)는 순동지노정(順動之怒情)이기 때문이다.

편노(偏怒)란 편소지장(偏小之臟)에 의한 폭노지정(暴怒之情)이니  
상간(傷肝)하게 되는 소이(所以)인 것이다.

13. 소음인(少陰人)은 당여(黨與)는 삼가는 까닭에 항상 친숙한 당  
여인(黨與人)과 택교(擇交)하는 희심(喜心)이 있으니 이 마음은 떳떳하  
게 타고난 경심(敬心)에서 나왔는지라 지극히 선(善)한 것이 아닌 바  
아니지만, 교우(交遇)에 대해서는 경홀(輕忽)히 여기는 까닭에 항상  
생소(生疎)한 교우인(交遇人) 때문에 속임수에 빠져 치우친 희정(喜情)  
으로 장부(臟腑)를 상(傷)하는 것이니 그의 여환(慮患)하는 마음이 두  
루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少陰人謹於黨與 故恒有黨與親熟人擇交之喜心 此心出於秉彝之敬心也  
莫非至善而輕於交遇 故每爲生疎交遇人所誣而偏喜傷臟 以其慮患之心不  
周故也

[주(註)] ○희심(喜心): 희별인지조기지정(喜別人之助己之情).

○편희(偏喜): 낭희(浪喜).

○상장(傷臟): 상비(傷脾).

○여환지심(慮患之心): 교우생소인려환지심(交遇生疎人慮患之心).

(해설) 희심(喜心)은 순동지희정(順動之喜情)이요, 편희(偏喜)는 역동지희기(逆動之喜氣)인 것이다.

14. 소양인(少陽人)은 사무(事務)는 중하게 다루는 까닭에 항상 밖으로 나아가 사무(事務)를 일으키는 애심(哀心)이 있으니, 이 마음은 뚝뚝하게 타고난 경심(敬心)에서 나왔는지라 지극히 선(善)한 것이 아닌 바 아니지만, 거처(居處)에 대해서는 삼가지 않는 까닭에 항상 안을 주장삼아 거처(居處)를 마련하는 사람의 함정에 빠져 치우친 애정(哀情)으로 장부(臟腑)를 상하는 것이니, 그가 밖을 중하게 여기고 안을 경홀(輕忽)히 여기기 때문이다.

少陽人重於事務 故恒有出外興事務之哀心 此心出於秉彝之敬心也 莫非至善而不謹於居處 故每爲主內做居處人所陷而偏哀傷臟 以其重外而輕內故也

[주(註)] ○애심(哀心): 애별인지기기지정(哀別人之欺己之情).

○편애(偏哀): 포애(暴哀).

○상장(傷臟): 신상(腎傷).

(해설) 애심(哀心)은 순동지애기(順動之哀氣)요, 편애(偏哀)는 역동지애정(逆動之哀情)이다.

15. 태음인(太陰人)은 거처(居處)는 중하게 여기는 까닭에 항상 안을 주장삼아 거처(居處)를 마련하는 낙심(樂心)이 있으니, 이 마음은 뚝뚝하게 타고난 경심(敬心)에서 나왔는지라 지극히 선(善)한 것이 아닌 바 아니지만, 사무(事務)에 대해서는 삼가지 않는 까닭에 항상 밖으로 나아가 사무(事務)를 일으키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 치우친 낙

정(樂情)으로 장부(臟腑)를 상하는 것이니, 그가 안을 중하게 여기고  
밖을 경홀(輕忽)히 여기기 때문이다.

太陰人重於居處 故恒有主內做居處之樂心 此心出於秉彞之敬心也 莫非  
至善而不謹於事務 故每爲出外興事務人所誣而偏樂傷臟 以其重內而輕外  
故也

[주(註)] ○낙심(樂心): 낙별인지보기지정(樂別人之保己之情).

○편락(偏樂): 낭락(浪樂).

○상장(傷臟): 폐상(肺傷).

(해설) 낙심(樂心)은 순동지신기(順動之腎氣)요, 편락(偏樂)은 역동  
지락정(逆動之樂情)인 것이다.

16. 태음인(太陰人)의 턱은 마땅히 교심(驕心)을 경계해야 할 것이  
니, 태음인(太陰人)의 턱에 만일 교심(驕心)이 없다면 절세(絕世)의 주  
책(籌策)이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소음인(少陰人)의 가슴은 마  
땅히 긍심(矜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니, 소음인(少陰人)의 가슴에 만  
일 긍심(矜心)이 없다면 절세(絕世)의 경륜(經綸)이 반드시 거기에 있  
을 것이다. 태양인(太陽人)의 배꼽은 마땅히 벌심(伐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니, 태양인(太陽人)의 배꼽에 만일 벌심(伐心)이 없다면 절세  
(絕世)의 행검(行檢)이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소양인(少陽人)의  
아랫배는 마땅히 과심(夸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니, 소양인(少陽人)의  
아랫배에 만일 과심(夸心)이 없다면 절세(絕世)의 도량(度量)이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太陰之頤宜戒驕心 太陰之頤若無驕心 絕世之籌策必在此也 少陰之臆宜  
戒矜心 少陰之臆若無矜心 絕世之經綸必在此也 太陽之臍宜戒伐心 太陽

之臍若無伐心 絕世之行檢必在此也 少陽之腹宜戒夸心 少陽之腹若無夸心 絕世之度量必在此也

(해설) 본절(本節)은 다음 17절과 함께 논리상 난해(難解)의 구(句)이다.

태음인(太陰人)의 함(頤)은 상초(上焦)의 폐지당(肺之黨)으로 편소지장(偏小之臟)의 부위인 것이다. 함(頤)에는 주책(籌策)[성명론(性命論) 7절]과 교심(驕心)[성명론(性命論) 6절]이 병존하기 때문에 주책불가교(籌策不可驕)[성명론(性命論) 8절]인데, 왜 태음지함(太陰之頤)에서는 특히 약무교심(若無驕心)이라는 조건부로 절세의 주책(籌策)이 있다고 했을까. 태양지함(太陽之頤)이나 소양(少陽)·소음지함(少陰之頤)은 어떻다는 것일까. 굳이 설명을 한다면 사상인(四象人)의 편소지장(偏小之臟)에 따른 교(驕)·궁(矜)·벌(伐)·과지심(夸之心)을 경계시킴에 의미가 있고, ‘약무(若無)’ 이하는 부수적 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태음인에게 는 교심(驕心)의 경계가 절대적인 것이요. 주책(籌策)의 필재(必在)는 하나의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태음인에게 만일 약무교심(若無驕心)의 경지가 허락된다면 그는 이미 절세(絕世)의 주책(籌策)을 가진 ‘성(聖)’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하 소음지역(少陰之臆)·태양지제(太陽之臍)·소양지복(少陽之腹)도 이와 같은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17. 소음인(少陰人)의 머리는 마땅히 탈심(奪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니, 소음인의 머리에 만일 탈심(奪心)이 없다면 대인(大人)의 식견이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태음인(太陰人)의 어깨는 마땅히 치심(侈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니, 태음인의 어깨에 만일 치심(侈心)이 없다면 대인(大人)의 위위가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소양인(少陽人)의 허리는 마땅히 나심(懶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니, 소양인의 허리에 만일 나심(懶心)이 없다면 대인(大人)의 재간(材幹)이 반드시 거

기에 있을 것이다. 태양인(太陽人)의 불기는 마땅히 절심(竊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니, 태양인의 불기에 만일 절심(竊心)이 없다면 대인(大人)의 방략(方略)이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少陰之頭宜戒奪心 少陰之頭若無奪心 大人之識見必在此也 太陰之肩宜戒侈心 太陰之肩若無侈心 大人之威儀必在此也 少陽之腰宜戒懶心 少陽之腰若無懶心 大人之材幹必在此也 太陽之臀宜戒竊心 太陽之臀若無竊心 大人之方略必在此也

(해설) 성명론(性命論)의 식견(識見)(9절), 필무탈(必無奪)(10절), 천심(擅心)(21절)과 상응한다.

전절(前節)이 지(知)라면 본절(本節)은 행(行)이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소음인(少陰人)의 두(頭)[상초(上焦)]는 소음인(少陰人)의 신(腎)[소음인(少陰人)은 신대(腎大)하다][하초(下焦)]과 음양론적(陰陽論的) 대위(對位)이고, 태음인(太陰人)의 견(肩)[중상초(中上焦)]은 태음인(太陰人)의 간(肝)[태음인(太陰人)은 간대(肝大)하다][중하초(中下焦)]과 대위(對位)이며, 소양인(少陽人)의 요(腰)[중하초(中下焦)]는 소양인(少陽人)의 비(脾)[소양인(少陽人)은 비대(脾大)하다][중상초(中上焦)]와 대위(對位)이고, 태양인(太陽人)의 신(腎)[하초(下焦)]은 태양인(太陽人)의 폐(肺)[태양인(太陽人)은 폐대(肺大)하다]와 대위(對位)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편소지장(偏小之臟)이 아닌 편대지장(偏大之臟)의 음양론적(陰陽論的) 대위자(對位者)를 내세운 사실이 특이한 점이다. 이러한 것은 일찍이 동무(東武)는 성명론(性命論)·사단론(四端論)·확충론(擴充論)을 전개한 무려 80절에 이르도록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대립관계(對立關係)는 역동지기(逆動之氣)의 역상(逆傷)의 원리(原理)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음양설적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이는 역상(逆傷)의 아무런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대인(大人)의 지극한 행실의 소재라 하였다. 물론 여기서도 전절(前節)과 마찬가지로 조건부-약무(若無)-의 행실인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역시 탈(奪)·치(侈)·나(懶)·절지심(竊之心)을 경계시키고자 하는 데에 본절(本節)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총괄] 16절은 사상인(四象人)의 편소지장(偏小之臟)에서 생기는 사심(邪心)을 경계하였고 17절은 사상인(四象人)의 편대지장(偏大之臟)의 대위(對位)에서 생기는 태행(怠行)을 경계하였으니 전자의 사심(邪心)은 지(知)의 불급(不及)에서 오고 후자의 행(行)은 행(行)의 과(過)에서 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까. 그 밖에 보다 더 좋은 해답은 후인(後人)을 기다릴 따름이다.

## 제4장 장부론(臟腑論)

[주(註)] 장부(臟腑): 오장(五臟)[폐(肺)·비(脾)·간(肝)·신(腎)·심(心)]과 육부(六腑)[위(胃)·대장(大腸)·소장(小腸)·담(膽)·방광(膀胱)]의 약칭. 인체의 생리적 조직과 그 기능.

(해설) 장부론(臟腑論)은 동무(東武) 사상론(四象論)이 의학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기초학(基礎學)이다. 성명론(性命論)·사단론(四端論)·확충론(擴充論)은 사상설(四象說)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원리론(原理論)이라 한다면 장부론(臟腑論)은 그 원리의 종합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부론(臟腑論)에서 비로소 사상인의 신인간상이 총체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1. 폐(肺) 부위는 이마 밑 등 위에 있고, 위완(胃脘) 부위는 턱 밑 가슴 위에 있으므로 등 위와 가슴 위 이상을 상초(上焦)라 이른다. 비(脾) 부위는 척추골에 있고, 위(胃) 부위는 흉격에 있으므로 척추골과 흉격 사이를 중상초(中上焦)라 이른다. 간(肝) 부위는 허리에 있고, 소장(小腸) 부위는 배꼽에 있으므로 허리와 배꼽 사이를 중하초(中下焦)라 이른다. 신(腎) 부위는 요추골 밑에 있고 대장(大腸) 부위는 배꼽 밑에 있으므로 요추골 밑과 배꼽 밑 이하를 하초(下焦)라 이른다.

肺部位在頤下背上 胃脘部位在頤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謂之上焦 脾部位在膂 胃部位在膈 故膂膈之間謂之中上焦 肝部位在腰 小腸部位在臍 故腰臍之間謂之中下焦 腎部位在腰脊下 大腸部位在臍腹下 故脊下臍下以下謂之下焦

[주(註)] ○부위(部位): 위치의 개연적 범위를 가리킨 것으로, 장부기능의 영향권을 의미한다.

○추하배상(頤下背上): 추(頤)는 ‘불거진 이마’인데, 아마도 ‘앞이마’인 듯. 배(背)는 ‘등’이니 어긋죽지를 감싸주는 곳.

○위완(胃脘): 위지내강야(胃之內腔也)[소문(素問)] 또는 ‘식불하자 위완야(食不下者胃脘也)’[영추(靈樞)]라 하였으나 위(胃) 이상(以上)의 부위인 만큼 식도부위(食道部位)인 듯.

(해설) 장부(臟腑)란 본시 오장육부(五臟六腑)이지만 여기서는 사장사부(四臟四腑)로 되었고, 게다가 장(臟)에서 심(心)이 분리되고 부(腑)에서 담(膽)·방광(膀胱)·삼초(三焦)가 떨어져나간 동시에 삼초(三焦)는 따로 사초설(四焦說)을 형성한 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오장이 사장(四臟)이 됨에 따라 폐(肺)·비(脾)·간(肝)·신(腎)이 사장(四臟)의 사상(四象)이 되고, 심(心)은 중앙지태극(中央之太極)으로서 일신지주재자(一身之主宰者)가 된 것이다.

육부설(六腑說)은 거의 무시된 것이니 위완(胃脘)·위(胃)·소장(小腸)·대장(大腸)이 사부(四腑)의 사상(四象)이 되었고, 삼초설(三焦說)은 상(上)·중상(中上)·중하(中下)·하초(下焦)의 사초설(四焦說)을 형성하여 사부(四腑)의 사상(四象)과 그 부위를 일치한 것만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설(四象說)의 장부론(臟腑論)에서는 육부설(六腑說)에 가름하여 사초설(四焦說)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초(焦)의 범위를 ‘○○이상(○○以上)’이니 ‘○○지간(○○之間)’이니 ‘○○이하(○○以下)’니 등으로 지적한 것은 구체적 형태보다도 어느 부위인 만큼 ‘초(焦)’란 수곡통행(水穀通行)·기액유전(氣液流轉)의 기능을 가리켰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설(四象說)에서의 사초(四焦)는 육부(六腑)의 하나인 삼초(三焦)의 소개념(小概念)에서 인체의 전 기능의 사대권(四大圈)이라는 대개념(大概念)으로 확충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四 焦		四 臟	部 位	四 腑	部 位
心	一 身 之 主 宰	上	焦	肺	佳頁下背上	胃脘	頤下胸上
		中上		脾	膺	胃	膈
		中下		肝	腰	小腸	臍
		下		腎	腰脊下	大腸	臍腹下

2. 수곡(水穀)이 위완(胃脘)에서 위(胃)로, 위(胃)에서 소장(小腸), 소장(小腸)에서 대장(大腸)으로 들어가서 대장(大腸)에서 항문(肛門)으로 나가는데, 그러한 수곡(水穀)이 온통 위(胃)에서 정축(停畜)되면 훈증(薰蒸)하여 열기(熱氣)가 되고 소장(小腸)으로 소도(消導)되면 평담(平淡)한 양기(涼氣)가 되는 것이니, 열기(熱氣)의 경청(輕淸)한 것은 위완(胃脘)으로 상승(上升)하여 온기(溫氣)가 되고 양기(涼氣)의 질중(質重)한 것은 대장(大腸)으로 하강(下降)하여 한기(寒氣)가 된다.

水穀自胃脘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腸 自小腸而入于大腸 自大腸而出于  
肛門者 水穀之都數停畜於胃 薰蒸爲熱氣 消導於小腸而平淡爲涼氣 熱氣  
之輕淸者上升於胃脘而爲溫氣 涼氣之質重者下降於大腸而爲寒氣

[주(註)] ○수곡(水穀): 음식물.

○기(氣): 인체 내의 기(氣)에는 삼종(三種)이 있는데, 호흡(呼吸)하는 공기(空氣), 폐기(廢氣)로서의 방기(放氣), 에너지로서의 생기(生氣)가 그것이다.

온열양한(溫熱涼寒)으로서의 기(氣)는 체내(體內)에 충만한 생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해설) 수곡(水穀)의 통로를 위완(胃脘)－위(胃)－소장(小腸)－대장(大腸)－항문(肛門)으로 한 것은 소화기계통(消化器系統)을 일괄(一括)한 것이어니와 이 계통을 통한 온열양한(溫熱涼寒)의 사기(四

氣) 생성과정을 논한 것은 음양론적이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陰 陽	陽		陰	
四 腑	胃 脘	胃	小 腸	大 腸
四 氣	溫	熱	涼	寒
形 態	輕 清	薰 蒸	平 淡	質 量

온열양한(溫熱涼寒)의 사기(四氣)는 체온계의 계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청(輕淸)·훈증(薰蒸)·평담(平淡)·질중(質重)의 형태로 자각되는 징후인 것이다.

애노상성(哀怒相成)하듯 온열(溫熱)은 상성(相成)하니 이는 다 같은 양기(陽氣)이기 때문이요, 희락상자(喜樂相資)하듯 양한(涼寒)은 상자(相資)하니 이도 또한 다 같은 음기(陰氣)이기 때문이다 [사단론(四端論) 22절 참조].

3. 위완(胃脘)은 입과 코로 통하는 까닭에 수곡(水穀)의 기(氣)는 상승하고, 대장(大腸)은 항문(肛門)으로 통하는 까닭에 수곡(水穀)의 기(氣)는 하강한다. 위(胃)의 모습은 광대(廣大)하여 포용할 수 있는 까닭에 수곡(水穀)의 기(氣)는 정축(停蓄)하고, 소장(小腸)의 모습은 협착(狹窄)하여 굴곡져 있는 까닭에 수곡(水穀)의 기(氣)는 소도(消導)되는 것이다.

胃脘通於口鼻 故水穀之氣上升也 大腸通於肛門 故水穀之氣下降也 胃之體廣大而包容 故水穀之氣停蓄也 小腸之體狹窄而屈曲 故水穀之氣消導也

(해설) 사부(四腑)의 형상과 거기에 따른 음양설적 기능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四機	形 相		機 能		
胃脘	通於口鼻	故	水穀之氣	上 升	也
胃	廣大而包容			停 畜	
小腸	狹窄而屈曲			消 導	
大腸	通於肛門			下 降	

발생론적(發生論的)으로는 기능이 형상을 낳게 했겠지만 생리적(生理的)으로는 형상이 기능을 낳게 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형상(形相)과 기능(機能)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사단론(四端論) 11, 13절 참조].

4. 수곡(水穀) 온기(溫氣)는 위완(胃脘)에서 진(津)으로 화(化)하여 혀 밑으로 들어가 전해(津海)가 되니 전해(津海)란 진(津)이 모여 있는 곳이다. 전해(津海)의 청기(淸氣)는 귀로 나와서 신(神)이 되고, 두뇌(頭腦)로 들어가 이해(腦海)가 될 것이니 이해(腦海)란 신(神)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해(腦海)의 이즙(腦汁)이 청(淸)한 것은 안으로 폐(肺)로 돌아가고 탁재(濁滓)는 밖으로 피모(皮毛)로 돌아가는 까닭에 위완(胃脘)·혀·귀·두뇌·피모(皮毛)는 다 폐(肺)의 무리들이다.

水穀溫氣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津之所舍也 津海之淸氣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腦海 腦海者神之所舍也 腦海之腦汁淸者內歸于肺 濁滓外歸于皮毛 故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주(註)] ○당(黨): 무리·도당(徒黨)·계열(系列).

(해설) 폐(肺)의 계열이 점유한 부위는 상초(上焦)로, 온기(溫氣)의 유통(流通) 행로(行路)인 것이다..

				津海				膩海	↗	皮毛	(濁滓)
溫氣	→	胃脘	→	舌下	→	耳	→	頭腦	↘		
		(爲津)				(爲神)				肺	(清汁)

진해(津海)는 진사(津舍)요 이해(膩海)는 신사(神舍)로, 다 같이 온기(溫氣)의 상승(上升)하는 경청자(輕淸者)인 것이다.

5. 수곡(水穀) 열기(熱氣)는 위(胃)에서 고(膏)로 화(化)하여 젖가슴 사이로 들어가 고해(膏海)가 되니, 고해(膏海)란 고(膏)가 모여 있는 곳이다. 고해(膏海)의 청기(淸氣)는 눈으로 나와서 기(氣)가 되고 척추 골로 들어가 막해(膜海)가 될 것이니, 막해(膜海)란 기(氣)가 모여 있는 곳이다. 막해(膜海)의 막즙(膜汁)이 청(淸)한 자는 안으로 비(脾)로 돌아가고 탁재(濁滓)는 밖으로 근(筋)으로 돌아가는 까닭에 위(胃)·양유(兩乳)·배려(背膂)·근(筋)은 다 비(脾)의 무리들이다.

水穀熱氣自胃而化膏 入于膺間兩乳爲膏海 膏海者膏之所舍也 膏海之淸氣出于目而爲氣 入于背膂而爲膜海 膜海者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淸者內歸于脾 濁滓外歸于筋 故胃與兩乳目背膂筋 皆脾之黨也

[주(註)] 기(氣): 신(神)과 비교한 ‘기(氣)’로, 공기(空氣)·생기(生氣)와는 구별되는 기(氣)다. 신(神)의 농축자(濃縮者)라고 할까.

○고(膏): 진(津)이 경청자(輕淸者)라면 고(膏)는 훈증농축자(薰蒸濃縮者)일 것이다.

○전(膺): 젖가슴.

○막해(膜海): 이해(膩海)보다도 더 진한 기름.

○근(筋): 육(肉) 아닌 힘줄.

(해설) 비(脾)의 계열이 점유한 부위는 중상초(中上焦)로서 열기(熱氣)의 유통 행로인 것이다.

				膏海				膜海	↗	筋	(濁滓)
熱氣	→	胃	→	膾間	→	目	→	背脊	<		
		(爲膏)		兩乳		(爲氣)			↘	脾	(清汁)

고해(膏海)는 고사(膏舍)요 막해(膜海)는 기사(氣舍)로, 다 같이 열기(熱氣)가 횡승(橫昇)하는 정축(停畜)·훈증자(薰蒸者)인 것이다.

6. 수곡(水穀) 양기(涼氣)는 소장(小腸)에서 유(油)로 화(化)하여 배꼽으로 들어가 유해(油海)가 되니, 유해(油海)란 유(油)가 모여 있는 곳이다. 유해(油海)의 청기(淸氣)는 코로 나와서 혈(血)이 되고, 요척(腰脊)으로 들어가 혈해(血海)가 되니, 혈해(血海)란 혈(血)이 모여 있는 곳이다. 혈해(血海)의 혈즙(血汁)이 청(淸)한 자는 안으로 간(肝)으로 돌아가고 탁재(濁滓)는 밖으로 육(肉)으로 돌아가는 까닭에 소장(小腸)·려(膂)·코·요척(腰脊)·육(肉)은 다 간(肝)의 무리들이다.

水穀涼氣自小腸而化油 入于膾爲油海 油海者油之所舍也 油海之淸氣出于鼻而爲血 入于腰脊而爲血海 血海者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淸者 內歸于肝 濁滓外歸于肉 故小腸與膾鼻腰脊肉 皆肝之黨也

[주(註)] ○유(油): 유동성(流動性) 소도자(消導者).

○혈(血): 유동성(流動性) 운행자(運行者).

(해설) 간(肝)의 계열이 점유한 부위는 중하초(中下焦)로, 양기(涼氣)의 유통 행로인 것이다.

				油海				血海	↗	肉	(濁滓)
涼氣	→	小腸	→	膾	→	鼻	→	腰脊	<		
		(爲油)				(爲血)			↘	肝	(清汁)



유해(油海)는 유사(油舍)요, 혈해(血海)는 혈사(血舍)로, 다 같이 양기(涼氣)가 소도지력(消導之力)으로 방강(放降)하는 것인 것이다.

7. 수곡(水穀) 한기(寒氣)는 대장(大腸)에서 액(液)으로 화(化)하여 전음부(前陰部) 모제(毛際) 안으로 들어가 액해(液海)가 되니, 액해(液海)란 액(液)이 모여 있는 곳이다. 액해(液海)의 청기(淸氣)는 입으로 나와서 정(精)이 되고, 방광(膀胱)으로 들어가 정해(精海)가 되니, 정해(精海)란 정(精)이 모여 있는 곳이다. 정해(精海)의 정즙(精汁)이 청(淸)한 자는 안으로 신(腎)으로 돌아가고 탁재(濁滓)는 밖으로 골(骨)로 돌아가는 까닭에 대장(大腸)·전음(前陰)·입·방광(膀胱)·골(骨)은 다 신(腎)의 무리들이다.

水穀寒氣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爲液海 液海者液之所舍也 液海之淸氣出于口而爲精 入于膀胱而爲精海 精海者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淸者 內歸于腎 濁滓外歸于骨 故大腸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黨也

[주(註)] ○액(液): 유(油)에 비하여 보다 더 질중(質重)한 것.

○정(精): 혈(血)보다도 더 질중(質重)한 것.

(해설) 신(腎)의 계열이 점유한 부위는 하초(下焦)로, 한기(寒氣)의 유통 행로인 것이다.

				液海				精海	↗	骨	(濁滓)
寒氣	→	大腸	→	前陰	→	口	→	膀胱	<		
		(爲液)				(爲精)			↘	腎	(淸汁)

액해(液海)는 액사(液舍)요 정해(精海)는 정사(精舍)로, 다 같이 한기(寒氣)의 하강(下降)하는 질중자(質重者)인 것이다.

[총괄] 이제 사기(四氣)의 사초(四焦)에 있어서의 장부사해구조

(臟腑四海構造)를 도시(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四氣		四焦		四官	四腑	四知	四海		四臟	四行	後四海	
溫	氣	上	焦	耳	胃脘	頤	津(神)	海	肺	頭(頭腦)	髓	海
熱		中上		目	胃	臆	膏(氣)		脾	肩(背脊)	膜	
涼		中下		鼻	小腸	臍	油(血)		肝	腰(腰脊)	血	
寒		下		口	大腸	腹	液(精)		腎	腎(膀胱)	精	

8. 귀는 광박천시(廣博天時)하는 청력으로 진해(津海)의 청기(清氣)를 끌어내어 상초(上焦)에 충만(充滿)하게 하여 신(神)이 되게 하고, 두뇌(頭腦)로 쏟아넣어 이(髓)가 되게 하니, 거들거들 쌓이면 이해(髓海)가 된다. 눈은 광박세회(廣博世會)하는 시력으로 고해(膏海)의 청기(清氣)를 끌어내어 중상초(中上焦)에 충만하게 하여 기(氣)가 되게 하고, 배려(背脊)로 쏟아 넣어 막(膜)이 되게 하니, 거들거들 쌓이면 막해(膜海)가 된다. 코는 광박인륜(廣博人倫)하는 후력(嗅力)으로 유해(油海)의 청기(清氣)를 끌어내어 중하초(中下焦)에 충만하게 하여 혈(血)이 되게 하고, 요척(腰脊)으로 쏟아 넣어 혈(血)이 엉키게 하니, 거들거들 쌓이면 혈해(血海)가 된다. 입은 광박지방(廣博地方)하는 미력(味力)으로 액해(液海)의 청기(清氣)를 끌어내어 하초(下焦)에 충만하게 하여 정(精)이 되게 하고, 방광(膀胱)으로 쏟아 넣어 엉키게 하니, 거들거들 쌓이면 정해(精海)가 된다.

耳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清氣 充滿於上焦爲神 而注之頭腦爲髓 積累爲髓海 目以廣博世會之視力 提出膏海之清氣 充滿於中上焦爲氣 而注之背脊爲膜 積累爲膜海 鼻以廣博人倫之嗅力 提出油海之清氣 充滿於中下焦爲血 而注之腰脊爲凝血 積累爲血海 口以廣博地方之味力 提出液海之清氣 充滿於下焦爲精 而注之膀胱爲凝精 積累爲精海

(해설) 성명론(性命論) 제3절인 ‘이청천시(耳聽天時)’절의 장부론적(臟腑論的) 전개이다.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장부(臟腑)의 기능은 생리적인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명론적(性命論的)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고유액(津膏油液)의 사해청기(四海淸氣)는 이목비구(耳目鼻口)의 광박천기(廣博天機)하는 청시후미지력(聽視嗅味之力)에 의하여 제출(提出)되어 사초(四焦)에 충만하여 신기혈정(神氣血精)이 되고, 신기혈정(神氣血精)이 두(頭)[두뇌(頭腦)]·견(肩)[배려(背脊)]·요(腰)[요척(腰脊)]·둔(臀)[방광(膀胱)]으로 주입되면 이막혈정(臑膜血精)의 사해(四海)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목비구(耳目鼻口)의 광박어천기(廣博於天機)하는 힘이 절대적인 구실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前四海		四官	提出力	造爲	注入處	後四海	
淸氣	津	海	耳	天時之聽力	神	頭腦(頭)	臑	海
	膏		目	世會之視力	氣	背脊(肩)	膜	
	油		鼻	人倫之嗅力	血	腰脊(腰)	血	
	液		口	地方之味力	精	膀胱(臀)	精	

9. 폐(肺)는 연달사무(鍊達事務)하는 애력(哀力)으로 이해(臑海)의 청즙(淸汁)을 빨아내어 폐(肺)에 넣어줌으로써 폐(肺)의 근원을 북돋아 주며, 안으로는 진해(津海)를 부축하여 그 기(氣)를 두들김으로써 그 진(津)을 얻겨 모이게 한다. 비(脾)는 연달교우(鍊達交遇)하는 노력(怒力)으로 막해(膜海)의 청즙(淸汁)을 빨아내어 비(脾)에 넣어줌으로써 비(脾)의 근원을 북돋아 주며, 안으로는 고해(膏海)를 부축하여 그 기(氣)를 두들김으로써 그 고(膏)를 얻겨 모이게 한다. 간(肝)은 연달당여(鍊達黨與)하는 희력(喜力)으로 혈해(血海)의 청즙(淸汁)을 빨아내어 간(肝)에 넣어줌으로써 간(肝)의 근원을 북돋아 주며, 안으로는 유해

(油海)를 부축하여 그 기(氣)를 두들김으로써 그 유(油)를 얻겨 모이게 한다. 신(腎)은 연달거처(鍊達居處)하는 낙력(樂力)으로 정해(精海)의 청즙(淸汁)을 빨아내어 신(腎)에 넣어줌으로써 신(腎)의 근원을 북돋아 주며, 안으로는 액해(液海)를 부축하여 그 기(氣)를 두들김으로써 그 액(液)을 얻겨 모이게 한다.

肺以鍊達事務之哀力 吸得臍海之淸汁 入于肺以滋肺元 而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凝聚其津 脾以鍊達交遇之怒力 吸得膜海之淸汁 入于脾以滋脾元 而內以擁護膏海 鼓動其氣凝聚其膏 肝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淸汁 入于肝以滋肝元 而內以擁護油海 鼓動其氣凝聚其油 腎以鍊達居處之樂力 吸得精海之淸汁 入于腎以滋腎元 而內以擁護液海 鼓動其氣凝聚其液

[주(註)] ○연달(鍊達): 단련과 통달. 수련과 달성.

○흡득(吸得): 청즙(淸汁)이므로 빨아들인다.

○옹호(擁護): 북돋아 보호함.

○고동(鼓動): 정기(靜氣)를 활기화(活氣化)시킴.

○응취(凝聚): 산재(散在)한 자를 모여들게 함.

(해설) 이는 성명절(性命節) 제5절인 ‘폐달사무(肺達事務)’절의 장부론적(臟腑論的) 전개인데, 동시에 전절(前節)의 사해(四海) 기능의 역류현상을 지적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절(前節)에서 이목비구지력(耳目鼻口之力)에 의해 조성된 후사해(後四海)[니막혈정(臍膜血精)]의 청즙(淸汁)을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연달인사(鍊達人事)하는 애노희락지력(哀怒喜樂之力)으로 흡득(吸得)하여 입우폐비간신(入于肺脾肝腎)하고, 전사해(前四海)[진고유액(津膏油液)]의 기(氣)를 고동(鼓動) 응취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급기야 전후사해(前後四海)가 이목비구지력(耳目鼻口之力)과 폐비간신지력(肺脾肝腎之力)에 의해 순환부절(循環不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後四海		四臟	吸得力	入以滋			前四海			凝聚
清 汁	臍	海	肺	事務之哀力	肺	元	內 以 擁 護	津	海	鼓 動 其 氣	津
	膜		脾	交遇之怒力	脾			膏			膏
	血		肝	黨與之喜力	肝			油			油
	精		腎	居處之樂力	腎			液			液

10. 진해(津海)의 탁재(濁滓)는 위완(胃脘)이 상승하는 힘으로 그의 탁재(濁滓)를 취하여 그것으로써 위완(胃脘)을 보익(補益)하고, 고해(膏海)의 탁재(濁滓)는 위(胃)가 정축(停畜)하는 힘으로 그의 탁재(濁滓)를 취하여 그것으로써 위(胃)를 보익(補益)하며, 유해(油海)의 탁재(濁滓)는 소장(小腸)이 소도(消導)하는 힘으로 그의 탁재(濁滓)를 취하여 그것으로써 소장(小腸)을 보익(補益)하고, 액해(液海)의 탁재(濁滓)는 대장(大腸)이 하강하는 힘으로 그의 탁재(濁滓)를 취하여 그것으로써 대장(大腸)을 보익(補益)한다.

津海之濁滓 則胃脘以上升之力取其濁滓 而以補益胃脘 膏海之濁滓 則胃以停畜之力取其濁滓 而以補益胃 油海之濁滓 則小腸以消導之力取其濁滓 而以補益小腸 液海之濁滓 則大腸以下降之力取其濁滓 而以補益大腸

(해설) 본절(本節)은 성명론(性命論) 제7절인 ‘함유주책(頤有籌策)’절과 상응하지만 함역제복(頤臆臍腹) 등 전면부위(前面部位)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달라져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性命論	頤	臆	臍	腹
臟腑論	胃 脘	胃	小 腸	大 腸

	前四海		四 腑	陰 陽		四 腑
濁 滓 (一)	津	海	胃 脘	上升之力	取 而 以 氣 濁 補 滓 益	胃 脘
	膏		胃	停畜之力		胃
	油		小 腸	消導之力		小 腸
	液		大 腸	下降之力		大 腸

장부론(臟腑論) 3절에 의하여 음양론적(陰陽論的) 기능만을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절도 본절과 동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1. 이해(臑海)의 탁재(濁滓)는 머리가 직신(直伸)하는 힘으로 이를 단련(鍛鍊)하여 피모(皮毛)를 생성케 하고, 막해(膜海)의 탁재(濁滓)는 손이 능수(能收)하는 힘으로 이를 단련하여 근(筋)을 생성케 하며, 혈해(血海)의 탁재(濁滓)는 허리가 관방(寬放)하는 힘으로 이를 단련하여 육(肉)을 생성케 하고, 정해(精海)의 탁재(濁滓)는 발이 굴강(屈強)하는 힘으로 이를 단련하여 골(骨)을 생성케 한다.

臑海之濁滓 則頭以直伸之力鍛鍊之而成皮毛 膜海之濁滓 則手以能收之力鍛鍊之而成筋 血海之濁滓 則腰以寬放之力鍛鍊之而成肉 精海之濁滓 則足以屈強之力鍛鍊之而成骨

(해설) 전절(前節)에 준(準)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性命論	頭	肩	腰	臀
臟腑論	頭	手	腰	足

	後四海		四 行	能 力	鍛鍊之而成	成物
濁 滓 (二)	臍	海	頭	直伸之力		皮毛
	膜		手	能收之力		筋
	血		腰	寬放之力		肉
	精		足	屈強之力		骨

[총괄] 7, 8, 9, 10의 4절은 장부론(臟腑論)의 핵심인 동시에 사상설(四象說)의 핵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로소 사원구조적(四元構造的) 인간상이 구체적으로 그 전모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성명론(性命論) 이래 여기서 결론지어진 것은 사상설(四象說)이란 결국 사해설적(四海說的) 인간설이라는 점이다. 전후(前後) 사해설(四海說)이야말로 동무(東武) 사상설적(四象說的) 인간상의 기틀이 아닐 수 없다.

‘해(海)’란 아마도 ‘초(焦)’의 별칭이요, 전후사해(前後四海)는 사초(四焦)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초(焦)’란 에너지의 연소(燃燒)요 소모인 데 반하여 ‘해(海)’는 생명력(生命力)의 발상지요 원천이요 저장처인 것이다. 인간은 ‘바다’에서 낳거니와 현재도 ‘바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동무(東武) 생명관의 진수인 것이다. 동무(東武) 사상설(四象說)이 인간학적 입장에서는 곧 사해설적(四海說的)이라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四 焦		前四海		後四海	
上	焦	津	海	臍	海
中上		膏		膜	
中下		油		血	
下		液		精	

12. 그런 까닭에 귀는 반드시 멀리 들어야 하고, 눈은 반드시 크게 보아야 하며, 코는 반드시 넓게 맡아야 하고, 입은 반드시 깊이

맛보아야 한다. 이목비구(耳目鼻口)의 작용이 심원광대(深遠廣大)하면 정(精)·신(神)·기(氣)·혈(血)이 생성하고, 천근협소(淺近狹小)하면 정(精)·신(神)·기(氣)·혈(血)이 소모될 것이다. 폐(肺)는 반드시 잘 배워야 하고, 비(脾)는 반드시 잘 물어야 하며, 간(肝)은 반드시 잘 생각해야 하고, 신(腎)은 반드시 잘 분별해야 한다.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작용이 정직중화(正直中和)하면 진(津)·액(液)·고(膏)·유(油)는 충만할 것이요, 편의과불급(偏倚過不及)하면 진(津)·액(液)·고(膏)·유(油)는 녹아버릴 것이다.

是故耳必遠聽 目必大視 鼻必廣嗅 口必深味 耳目鼻口之用深遠廣大 則精神氣血生也 淺近狹小 則精神氣血耗也 肺必善學 脾必善問 肝必善思 腎必善辨 肺脾肝腎之用正直中和 則津液膏油充也 偏倚過不及 則津液膏油燦也

[주(註)] ○원(遠)·대(大)·광(廣)·심(深): 탕(蕩)·대(大)·광(廣)·막(邈)[성명론(性命論) 제4절]의 별칭.

○천(淺)·근(近)·협(狹)·소(小): 심(深)·원(遠)·광(廣)·대(大)의 반(反).

(해설) 정신기혈(精神氣血)과 진액고유(津液膏油)는 전후사해(前後四海)를 가리킨 것으로, 호언법(互言法)을 쓴 것이다. 정신기혈생야(精神氣血生也)에도 진액고유(津液膏油)가 들어 있고, 진액고유모야(津液膏油耗也)에도 정신기혈(精神氣血)이 들어 있다. 이는 전후(前後) 사해(四海)가 다 함께 생(生)하기도 하고 모(耗)하기도 한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목비구(耳目鼻口)의 용(用)은 광박천기(廣博天機)하는 청시후미지력(聽視嗅味之力)이다.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용(用)은 연달인사(鍊達人事)하는 애노희락지력(哀怒喜樂之力)이다. 그러므로 이목비구지용(耳目鼻口之用)은 원대광심(遠大廣深)해야 하고, 폐비간신(肺脾肝腎)의 용(用)은 정직중화(正直中和)해야 할 것이다.

학문사변(學問思辨)은 “박학지 심문지 신사지 명변지(博學之 審問



之 愼思之 明辨之)”(『중용』)로서 폐비간신(肺脾肝腎)에 배합(配合)한 것은 이 구절에서 처음이다. 그것은 애(哀)－학(學), 노(怒)－문(問), 희(喜)－사(思), 락(樂)－변(辨)의 관계를 갖는다. 학문사변(學問思辨)은 곧 정직중화(正直中和)에의 침경이기 때문에 애노희락(哀怒喜樂)의 정직중화(正直中和)도 학문사변(學問思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폐필선애(肺必善哀) 비필선노(脾必善怒) 간필선희(肝必善喜) 신필선락(腎必善樂)’이라는 고식적(姑息的) 논리 전개보다는 ‘폐필선학(肺必善學) 비필선문(脾必善問) 간필선사(肝必善思) 신필선변(腎必善辨)’이라는 성정(性情) 중화(中和)를 위한 교학(敎學)의 극치를 설파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13. 이해(膩海)에는 신(神)이 감추어져 있고 막해(膜海)에는 영(靈)이 감추어져 있으며, 혈해(血海)에는 혼(魂)이 감추어져 있고, 정해(精海)에는 백(魄)이 감추어져 있다.

膩海藏神 膜海藏靈 血海藏魂 精海藏魄

[주(註)] ○이해장신(膩海藏神): 니해자 신지소사야(膩海者 神之所舍也)[장부론(臟腑論) 4절]

○막해장영(膜海藏靈): 막해자 기지소사야(膜海者 氣之所舍也)[장부론막해자기지소사야(臟腑論膜海者氣之所舍也)][장부론(臟腑論) 5절]라 하였으니 ‘영(靈)’은 ‘기(氣)’의 별칭이다.

○혈해장혼(血海藏魂): 혈해자 혈지소사야(血海者 血之所舍也)[장부론혈해자혈지소사야(臟腑論血海者血之所舍也)][장부론(臟腑論) 6절]라 하였으니 ‘혼(魂)’은 ‘응혈자(凝血者)’이다.

○정해장백(精海藏魄): 정해자 정지소사야(精海者 精之所舍也)[장부론(臟腑論) 7절]라 하였으니 ‘백(魄)’은 ‘응정자(凝精者)’이다.

(해설) 후사해(後四海)는 신기혈정(神氣血精)의 소사(所舍)인데, 신영혼백(神靈魂魄)이 소장(所藏)되었다고 하니 이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신기혈정(神氣血精)은 생리적 개념이요, 신영혼백(神靈魂魄)은 생명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음 표에 의하여 찾아보기로 하자.

	上升之陽		下降之陰	
後部位	頭・頭腦	手・肩・背脊	腰・腰脊	足・腎・膀胱
後四海	髓海	膜海	血海	精海
所藏者	神	靈(氣)	魂(血)	魄(精)

이들을 음양론(陰陽論)으로 설명한다면 신(神)과 영(靈)은 상승지양(上升之陽)인데, 신(神)은 영(靈)의 경청자(輕淸者)이다. 또 혼(魂)과 백(魄)은 다 같이 음(陰)인데, 백(魄)은 혼(魂)의 질중자(質重者)라 해야 할 것이다.

14. 진해(津海)에는 의(意)가 감추어져 있고, 고해(膏海)에는 려(慮)가 감추어져 있으며, 유해(油海)에는 조(操)가 감추어져 있고, 액해(液海)에는 지(志)가 감추어져 있다.

津海藏意 膏海藏慮 油海藏操 液海藏志

(해설) 이 구절은 성명론의 제7절인 ‘함유주책(頤有籌策)’절과 제19절인 ‘함유교심(頤有驕心)’절, 제20절인 ‘교심교의야(驕心驕意也)’절과 상응한다.  
이 구절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上升之陽		下降之陰	
前部位	頤・舌下	臆・臆間兩乳	臍	腹・前陰毛際
前四海	津海	膏海	油海	液海
所藏者	意(驕)	慮(矜)	操(伐)	志(夸)

의(意)와 려(慮)는 상승지양(上升之陽)인데, 의(意)는 려(慮)의 경청자(輕淸者)이다. 또 조(操)와 지(志)는 하강지음(下降之陰)인데, 지

(志)는 조(操)의 질중자(質重者)라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15. 두뇌(頭腦)의 이해(膩海)는 폐(肺)의 근본이고, 배려(背脊)의 막해(膜海)는 비(脾)의 근본이며, 요척(腰脊)의 혈해(血海)는 간(肝)의 근본이고, 방광(膀胱)의 정해(精海)는 신(腎)의 근본(根本)이다.

頭腦之膩海肺之根本也 背脊之膜海脾之根本也 腰脊之血海肝之根本也  
膀胱之精海腎之根本也

(해설) 후사해(後四海)[이막혈정(膩膜血精)]는 폐비간신(肺脾肝腎)의 근본이 됨을 말함으로써 사해론(四海論)으로 결론을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장부론(臟腑論) 제9절인 ‘폐이연달사무지애력흡득니해지청즙(肺以鍊達事務之哀力吸得膩海之清汁)’절의 요약이다.

16. 혀 밑 진해(津海)는 귀의 근본이고, 젖가슴의 고해(膏海)는 눈의 근본이며, 배꼽의 유해(油海)는 코의 근본이고, 아랫배의 액해(液海)는 입의 근본이다.

舌之津海耳之根本也 乳之膏海目之根本也 臍之油海鼻之根本也 前陰之液海口之根本也

(해설) 전사해(前四海)[진고유액(津膏油液)]는 이목비구(耳目鼻口)의 근본이 됨을 말함으로써 전절(前節)과 함께 사상설(四象說)이 사해론(四海論)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부론(臟腑論) 제8절인 ‘이이광박천시지청력제출진해지청기(耳以廣博天時之聽力提出津海之清氣)’절의 요약이다.

[총괄] 이상 두 절로 사상설(四象說)이란 곧 사해론(四海論)이라

는 설명이 더욱 확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팔해(八海)이지만 전후사해(前後四海)가 서로 음양대대(陰陽對待)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양대사해(兩大四海)라고 하거나 약(略)하여 그냥 사해론(四海論)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바다, 즉 ‘해(海)’는 유동체(流動體)이다. 인체는 비록 피근육골(皮筋肉骨)로 구성되고 기능을 지닌 기관으로는 이목비구(耳目鼻口)와 폐비간신(肺脾肝腎)이 있지만 이들은 다 양대사해(兩大四海) 안에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바다’는 ‘생명(生命)’의 유동(流動)’이거나 아니면 ‘생명’ 그 자체로 보는 사상설(四象說)의 근본 입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17. 심(心)은 일신(一身)의 주재자(主宰者)가 되어 네 귀통이와 마음을 등에 지고 앞가슴의 중앙을 올라로 향하면 불빛처럼 맑게 빛나고, 이목비구(耳目鼻口)는 살피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폐비간신(肺脾肝腎)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함억제복(頤臆臍腹)은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두견요둔(頭肩腰臀)은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다.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臆中 光明瑩澈 耳目鼻口無所不察 肺脾肝腎無所不付 頤臆臍腹無所不誠 頭手腰足無所不敬

[주(註)] ○심(心): 총체심(總體心).

○부우(負隅): 우(隅)는 사우(四隅)로서 폐비간신(肺脾肝腎).

○배심(背心): 심(心)은 오장지심(五臟之心).

○전중(臆中): 심(心)의 소재처(所在處).

○경(敬): 신(愼).

(해설) 주재심(主宰心)으로서의 총체심(總體心)과 오장지심(五臟之心)으로서의 일반심(一般心)은 다 같이 중앙지태극(中央之太極)으로서의 하나이지만 주재심(主宰心)만은 ‘성인지태극고출어중인지태극(聖人之太極高出於衆人之太極)’[사단론(四端論) 제3절]한 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총괄] 사상설(四象說)은 사원구조설(四元構造說)이요 또한 사해설(四海說)이기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재심설(主宰心說)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심위일신지주재(心爲一身之主宰)’란 곧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주재심(主宰心)은 곧 영명주재심(靈明主宰心)이 아닐 수 없다. ‘부우배심(負隅背心)…광명형철(光明瑩澈)’하기 때문이다.

사상인(四象人)의 장리(臟理)는 비록 편의(偏倚) 과불급(過不及)한 자이지만 심(心)은 항상 하나로서 정중(正中)해야 하는 것인 것이다. ‘부우배심정향전중(負隅背心正向臍中)’이란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그러므로 항상 부족하기 쉬운 이목비구(耳目鼻口)도 호찰천기(好察天機)하고, 폐비간신(肺脾肝腎)도 선촌인사(善忖人事)하며, 함억제복(頤臆臍腹)도 한사존성(閑邪存誠)하고, 두견요둔(頭肩腰臀)도 불태치경(不怠致敬)하게 되는 것이다.

心(主宰)	一 身	四官	耳目鼻口	無所不	察
		四臟	肺脾肝腎		忖
		四知	頤臆臍腹		誠
		四行	頭肩腰臀		敬



제 2편





## 제5장 의원론(醫源論)

1. 『서(書)』에 이르기를 “만일 약의 효능이 눈에 현기를 일으킬 정도로 아찔하지 아니하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였다. 은(殷)[상(商)]나라 고종(高宗) 때에 이미 아찔한 약의 효능을 인정한 바 있어 고종(高宗)이 이를 감탄하였은즉 의학 경험의 유래가 오래되어 이미 신농(神農)·황제(黃帝) 때로부터 전해 왔음을 가히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본초(本草)』, 『소문(素問)』이 신농·황제의 손에서 나왔다 함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 신농·황제 때에는 응당 문자가 없었을 것이요 후세에 이르러 얹게나마 발전하여 왔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周)가 쇠하고 진(秦)·한(漢) 시대에는 편작(扁鵲)이 유명하였고, 그 후에 장중경(張仲景)이 의술을 갖추어 『상한론(傷寒論)』을 저술하여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니 의학의 길이 비로소 흥하게 된 것이다. 장중경(張仲景) 이후에는 남북조(南北朝)·수(隋)·당(唐) 시대의 여러 의사들이 계승하였고, 송(宋)나라 때에는 주광(朱肱)이 모든 의술을 갖추어 『활인서(活人書)』를 저술하므로 의도(醫道)가 중흥하게 된 것

이다. 주광(朱肱) 이후에는 원(元)의 이고(李杲)·왕호고(王好古)·주진형(朱震亨)·위역림(危亦林) 같은 명의들이 계승하였고, 명(明)나라 때에 와서는 이천(李梴)·공신(龔信) 등이 모든 의술을 갖추었으며, 허준(許浚)이 경험한 바를 저술하여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내니 비로소 의학의 길이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이다.

대체로 신농(神農)·황제(黃帝) 이후 진(秦)·한(漢) 이전까지의 병증(病證)·약리는 장중경(張仲景)이 전수하였고, 위(魏)·진(晉) 이후 수(隋)·당(唐) 이전까지의 병증과 약리는 주광(朱肱)이 전수하였으며, 송(宋)·원(元) 이후 명(明) 이전까지의 병증과 약리는 이천(李梴)·공신(龔信)·허준(許浚)이 전수하였다. 만일 의가(醫家)의 공로와 업적을 따진다면 첫째로 장중경(張仲景)·주광(朱肱)·허준(許浚)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천(李梴)·공신(龔信)의 차례가 될 것이다.

書曰 若藥 不瞑眩 厥疾 不瘳 商 高宗時 已有瞑眩藥驗而 高宗 至於稱歎則 醫藥經驗 其來已久於 神農 黃帝之時 其說 可信於眞也而 本草 素問 出於 神農 黃帝之手 其說 不可信於眞也 何以言之 神農 黃帝時 文字應無 後世文字 澆漓例法故也 衰 周 秦 漢以來 扁鵲 有名而 張仲景 具備得之 始爲成家著書 醫道 始興 張仲景以後 南北朝 隋 唐醫 繼之而至于宋 朱肱 具備得之 著活人書 醫道 中興 朱肱以後 元醫 李杲 王好古 朱震亨 危亦林 繼之而 至于明 李梴 龔信 具備得之 許浚 具備傳之 著 東醫寶鑑 醫道 復興 蓋自 神農 黃帝以後 秦 漢以前 病證藥理 張仲景 傳之 魏 晉以後 隋 唐以前 病證 藥理 朱肱傳之 宋 元以後 明以前 病證 藥理 李梴 龔信 評浚 傳之 若以醫家勤勞功業 論之則 當以 張仲景 朱肱 許浚 爲首而 李梴 龔信 次之

[주(註)] ○서(書): 삼경(三經) 중의 하나로 한(漢)나라 때는 『상서(尙書)』라고 하였다. 공자(孔子)가 편찬하였다고 하며, 요(堯)·순(舜) 시대로부터 하(夏)·은(殷)·주(周)에 이르기까지 군주와 중

신(重臣)들의 훈고(訓誥)를 단편적으로 기록한 것임. 송(宋)나라 때에 주희(朱熹)가 채침(蔡沈)을 시켜서 주해(註解)한 것을 『서전(書傳)]이라 한다.

○·약불명현(藥不瞑眩)이면 궤질(厥疾)이 불추(不瘳): 『서경(書經)』 「열명편(說命篇)」에 나온다.

○상(商): 고대(古代) 중국 통일 왕조로 은(殷)이라고도 한다. 시조는 탕왕(湯王). 전설적인 하(夏) 왕조(王朝)에 이어 은허(殷墟)가 발굴되면서 존재가 확실해졌는데, 여러 차례 천도했으며, 주왕(紂王, B.C. 1122) 때에 주(周)의 무왕(武王)에게 정벌(征伐)당했다.

○고종(高宗): 은(殷)의 21대(代) 왕(王). 은의 중흥을 이룬 명군주.

○신농(神農): 중국 신화시대의 황제(皇帝). 삼황오제설(三皇五帝說)에 의하면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는 농경법(農耕法)과 약초를 발명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신룡(神龍)의 아들로, 몸은 용의 형상이요 얼굴은 사람이라 한다. 『사기』 「삼황본기설(三皇本記說)」에는 “신풍씨(神豐氏) 상백초(嘗百草) 시위의약(始爲醫藥)”이라 하여 중국 의학의 비조(鼻祖)라 칭했다.

○황제(黃帝): 중국 신화시대 삼황오제(三皇五帝)의 한 분. 성은 공손(公孫), 이름은 헌원(軒轅). 한민족(漢民族)이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루고 모든 제도를 창설하였다고 하며, 또한 의학 이론과 침구술(鍼灸術)을 이루었다.

○본초(本草): 여기서 말한 본초(本草)는 『신농본혁경(神農本草經)』이며, 중국 최초의 약서(藥書)임. 양(梁)나라 때 도홍경(陶弘景, A.D. 452)이 편록한 것이라고 함. 약(藥)을 상(上)·중(中)·하(下)의 삼품(三品)으로 구별했는데, 상(上)이라 함은 군약(君藥)을 의미하고, 중(中)은 신약(臣藥), 하(下)는 좌(佐)·사(使)로서 이는 양명(養命)·양성(養性)·치료(治療)에 그 뜻을 두었다.

○소문(素問): 『황제내경(黃帝內經)』에는 소문(素問)과 영추(靈樞)로 나누었다. 확실한 저자는 알 수 없으나 황제(皇帝) 헌원씨(軒轅氏)와 그의 신하들이 평소에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대개 진(秦)·한대(漢代)에 나온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으며 『소문(素問)』은 주로 생리(生理)·병리(病理) 등 기초의학과 양생론(養生論)을 기록한 최고 최초의 원전(原典)이다. 『예문지(藝文誌)』에는 『황제외경(黃帝外經)』이 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서주(西周, B.C. 1122~771): 문왕(文王)의 아들 무왕(武王)이 은(殷[상(商)])을 정벌하고 전 중원을 지배한 나라임. 유왕(幽王) 때에 견융(犬戎)에게 피살되고 국호를 동주(東周, B.C. 770~256)로 고쳤으며,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친 후 진(秦)에 멸망당했다.

○진(秦):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 중국 본토 18개 성(城)을 대부분 통합하고(B.C. 518), 북방 흉노족을 물리친 뒤에 만리장성을 쌓고 남방의 민월(閩越)·월남(越南)을 통합하여 48군(郡)을 세우고 시황제(始皇帝)[천자(天子)]가 위(位)에 오름. 이대(二代)에 이르러서 반란이 일어나 건국 15년 만에 멸망했다

○한(漢): 전한(前漢)·후한(後漢)으로 나눈다(B.C. 205 ~ A.D. 220). 전한(前漢)의 시조 유방(劉邦)이 초(楚)의 항우(項羽)와 더불어 진(秦)을 쳐서 멸망시키고 다시 항우(項羽)를 쳐서 천하를 통일하였다. 그러나 14대에 왕망(王莽)에게 빼앗기고 후한(後漢) 또는 동한(東漢)이라 칭했다. 이때는 중국 문화의 전성기로서 의학도 이 시대에 완성되었으며 『상한론(傷寒論)』과 외과의(外科醫)로 유명한 화타(華陀)도 이때 사람이다.

○편작(扁鵲): 춘추 전국 시대의 명의(名醫, B.C. 600)로, 혹설(或說)에는 인도에서 왔다고도 한다. 맥상(脈狀)에 의한 음양(陰陽)이 기(二氣)의 소장(消長)되는 병리를 설명했다. 저서로는 『81난경(難經)』이 있으나 한대(漢代)에 와서 그의 이름을 빌려서 저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장중경(張仲景): 후한(後漢, A.D. 200) 때 명의(名醫)로, 이름은 기(機)요 장사태수(長沙太守)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상한론(傷寒論)』, 『금궤요략(金匱要略)』이 있는데 이것은 동양의학사상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경(仲景)을 의성(醫聖)이라 일컫기도 한다.

○남북조(南北朝): 송(宋)나라 무제(武帝) 9년(年)부터 수(隋)나라 문제(文帝)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대립했던 두 왕조.

○수(隋): 육조(六朝)시대 한(漢)이 멸망하고 약 7백 년 동안 전란이 계속되다가 일어난 나라(A.D. 589~618). 북주(北周)의 외척 양견(楊堅)[문제(文帝)]이 뒤를 이어 건국하였으며, 남조(南朝)·진(陳)을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이 시대의 의학은 양제(楊帝) 5년에 칙명으로 의서를 편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원방(巢元方)의 『제병원후론(諸病源侯論)』 50권이다. 진단학(診斷

學)으로 권위 있는 저서이다.

○당(唐, A.D. 618~907): 이연(李淵)이 건국하여 290년 동안 유지하다가 주전충(朱全忠)에게 멸망당했는데, 장안(長安)에 도읍을 정하고 아들 태종(太宗)이 통일 왕조를 이룬 최강의 문명국가였다. 국가사업으로 많은 의서를 출판했는데, 『신농본초(神農本草)』, 『소문영추(素問靈樞)』, 『상한론(傷寒論)』, 『금궤요략(金匱要略)』, 『갑을경(甲乙經)』, 『맥경(脈經)』, 『천금방(千金方)』, 『천금익방(千金翼方)』, 『외대비요(外臺備要)』 등이 모두 이때에 나왔다고 하며 처방집(處方集)으로 『화제국방(和劑局方)』이 나왔고, 진무택(陳無擇)의 『삼인극일병증론(三因極一病症論)』 18권과 침구(鍼灸)에 관한 저서도 많이 출판되었다.

○송(宋, A.D. 960~1126): 도읍을 변경(汴京)에 세우고 167년간 유지한 나라.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실시했으며 숭문천무(崇文賤武)로 문운(文運)이 융성하다가 금(金)의 침입으로 멸망했는데, 그 후 남송(南宋, A.D. 1127~1279)이 임안(臨安)에 도읍을 정하고 135년간 존속하다가 원(元)에 멸망당했다.

○주광(朱肱): 송(宋)나라 때 호주인(湖州人)으로, 『남양활인서(南陽活人書)』를 저술하여 휘종조(徽宗朝)에 의학박사로 봉수받았다.

○『활인서(活人書)』: 송대(宋代) 주광(朱肱)이 저술한 것으로서 22권이 있다. 상한(傷寒)원리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임상(臨床)의학에 적응토록 편찬했다. 청(淸)나라 때 서대춘(徐大椿)은 상한서(傷寒書)로서 주광(朱肱)의 『남양활인서(南陽活人書)』를 능가할 만한 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원(元): 몽고에서 일어난 나라(A.D. 1271~1368)로 시조는 칭기스칸인데, 금(金)을 정복하고 황하(黃河) 이북을 모두 차지했다. 아시아 대부분과 유럽 동북부까지 정복하고 약 70년 동안 전성(全盛)하였다. 11대(代) 순제(順帝) 때에 이르러서 차츰 국력이 약해지면서 주원장(朱元璋)이 일어나 멸망했다. 당시의 의학은 대체로 송나라 의학을 계승한 데 지나지 않았으나 여러 계통의 치료 의학파가 대두하여 크게 발전을 가져왔다.

○이동원(李東垣): 금(金)·원(元)의 사대가(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만물의 어머니는 오행(五行)의 토(土)라는 원리를 세우고 질병도 비위(脾胃)[토(土)]에서 생긴다고 주장하고, 비위(脾胃)를 보익(補益)하는 데 중점을 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입방(立方)했다.

저서로는 『동원십서(東垣十書)』가 있다.

○왕호고(王好古): 원(元)나라의 조주인(趙州人)으로, 호(號)는 해장(海藏). 이동원(李東垣)·각하문(刻河間) 등에 사사하였고, 특히 약물학의 권위자로 『탕액본초(湯液本草)』를 편술했다. 약물을 성(性)과 미(味)로 분류했는데, 성(性)은 한(寒)·열(熱)·온(溫)·양(涼)·평(平), 미(味)는 산(酸)·함(鹹)·신(辛)·감(甘)·고(苦)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또한 약이 경락(經絡)에 의해 오장(五臟)에 작용한다고도 설명했다.

○주진형(朱震亨[단계(丹溪)]): 금(金)·원(元)의 사대가(四大家)의 한 사람. 모든 질병은 양(陽)이 유여(有餘)하고 음(陰)이 부족(不足)하여 생긴다는 이론을 펴고, 자음강화(滋陰降火)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를 자음파(滋陰派)라 한다.

○위역림(危亦林): 원(元)나라 사람으로 자(字)는 달재(達齋). 『세의득동효(世醫得動效)』 20권을 저술하였다.

○명(明): 시조는 주원장(朱元璋, A.D. 1368~1644). 남경(南京)을 빼앗고 또 북경(北京)[燕京]을 점령하여 사상 굴지의 막강한 왕조를 건설하였다. 17대(代)를 번영하다가 의종(毅宗) 때에 유적(流賊) 이자성(李自成)에게 멸망당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 청(淸)나라가 일어나서 이자성(李自成)을 추방하고(1661) 남방 지역까지 평정하였다. 명대(明代)에는 송(宋)·원(元) 의학을 전승한 데 불과하나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 52권과 양계주(楊繼洲)의 『침구대성(鍼灸大成)』, 이천(李梴)의 『의학입문(醫學入門)』 등을 편찬하였다.

○이천(李梴): 명(明)나라 때 남풍(南豐) 사람인데, 『의학입문(醫學入門)』 7권을 저술하여 처음으로 의학의 체계를 세웠다.

○공신(龔信): 명(明)나라 때 금계현(金谿縣) 사람인데, 태의원(太醫院)에 봉직했으며, 저서로는 『고금의감(古今醫鑑)』, 『운림의곡(雲林醫轍)』이 있다. 그의 아들 공정현(龔廷賢)도 태의원(太醫院)에 봉직했으며, 『만병회춘(萬病回春)』, 『운림신곡(雲林神轍)』 등의 많은 저서가 있다.

○허준(許浚):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 초에 한국이 나온 의성(醫聖)이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字)는 청원(淸源)인데, 선조(宣祖) 때에 전의(典醫)로서 어명을 받들어 의서를 편찬하였다. 『동의보감(東醫寶鑑)』, 『신찬벽방(新纂癖方)』, 『벽역신방(癖疫神方)』

등이 있다.

○『동의보감(東醫寶鑑, 1596~1612)』: 허준(許浚)이 편술한 것으로서 16년 만에 완성하였음. 백여 종의 의서를 참고하고 내경(內景)·외형(外形)·잡병(雜病)·탕액(湯液)·침구(鍼灸)편으로 분류한 대집성(大集成)이다. 역대(歷代) 의서 중에서 임상적 가치로는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능가할 만한 것이 없고, 일찍이 중국·일본·구라파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위(魏): 후한말(後漢末)에 일어난 여러 나라 중의 하나(B.C. 208)로, 서방(西方)에 군웅(群雄)이 할거하여 자웅을 겨루고 있을 때 지략이 많은 조조(曹操)는 헌제(獻帝)를 받들어 양자강(揚子江) 이북을 평정하였으나 유비(劉備)가 손권(孫權)의 구원을 받아 조조(曹操)의 대군을 적벽(赤壁)[호북성(湖北省) 가어현(嘉魚縣)]에서 크게 패퇴시킴으로써 조조(曹操)는 강북(江北)으로 패주하여 위(魏)나라를 세웠다.

○진(晉):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세워진 나라. 북방에는 위(魏)가 있고, 남방에는 오(吳), 서방에는 촉한(蜀漢)이 있어 서로 싸움이 그칠 사이가 없다가 약 40년 후에 서진(西晉)에게 멸망당하였다. (해설) 한(漢)의학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 신농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회남자(淮南子)』 ‘수무설(修務說)’에 의하면 처음 신농씨가 백성들에게 백초(百草)의 약효를 가르쳐 주었고, 하루에 70여 종의 독성을 가려내어 약을 발명했다고 하였으며, 유서(劉恕)의 ‘통감외유설(通鑑外遊說)’에는 백성들이 질병을 앓아도 약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못하므로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가 풀과 나무의 맛을 가려내어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의약이 생긴 시초에 관한 설(說)이다.

또 거금 4700년 전에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가 신하 기백(岐伯) 등과 평소에 문답한 내용에 사람의 생명에 관한 양생론(養生論)·장부론(臟腑論)·경락(經絡)·운기론(運氣論)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논의한 것이 『황제내경(黃帝內經)』이며, 오늘날까지 한(漢)의학의 원전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신농(神農) 황제(黃帝)는 거금 약 5, 6천 년 전 신화시대의 인물이니 실제로 시인하긴 어렵고 의원론(醫源論)에서 지적인 대로 의사학적(醫史學的) 확실성은 진(秦)·한(漢) 시대에 와서 체계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원전 3천 년이면 상형문자(象形文字)시대로 추상되며, 은허(殷墟)가 발굴되고 갑골문자(甲骨文)가 나오므로써 기원전 천 년을 전후로 문자가 생겼을 것으로 추측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황제내경(黃帝內經)』이 전국(戰國)시대 이후 진(秦)·한(漢) 때에 이루어졌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진(秦)·한(漢) 이전의 의학이라면 기원 2세기경에 장중경(張仲景)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수(隋)·당(唐)을 거치는 동안은 왕숙화(王叔和)·황보일(皇甫謐)·도홍경(陶弘景)·손사막(孫思邈) 같은 유명한 의사들이 계승하여 왔으며, 송대(宋代)에 이르러서는 주광(朱肱)이 의학의 임상적 가치성을 높이었으므로 크게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동무(東武)가 주광(朱肱)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 이유도 이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의학적 관찰을 세 단계로 분류하였으니 초기에 장중경(張仲景)의 ‘상한론(傷寒論)’을 들었고, 중기에는 주광(朱肱)의 임상 의학적 확실성이 후기 의학의 전환점을 마련하였고, 송대(宋代) 이후에는 금(金)·원(元)의 사대가(四大家)를 위시하여 왕호고(王好古)·위역림(危亦林), 명대(明代)에는 이천(李梴)·공신(龔信) 같은 대가들이 줄지어 나오므로써 의학 체계는 완벽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동무(東武)는 유독 허준(許浚)을 높이 든 것은, 첫째 민족 의학의 주체성을 높였음은 물론이요 나아가서는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편찬한 자체가 상한(傷寒) 후기(後期)의학의 한데 묶어서 임상의학의 기본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무(東武) 의원론(醫源論) 내용이 비록 간명한 기록에 지나지 않으나 의학 2천 년사를 압축한 것이며, 이의 투철한 사관(史觀)은 마침내 사상의학(四象醫學)이란 독자적 의학을 창조한 기초가 된 것이다.

2. 본초(本草)는 신농(神農)·황제(皇帝) 때로부터 수천 년 동안을 흘러오면서 경험한 자료로, 신농(神農)시대에 이미 본초(本草)가 있었고, 은(殷)나라 때에는 『탕액본초(湯液本草)』가 있었으며, 당(唐)나라 때에는 맹선(孟詵)의 『식료본초(食療本草)』와 진장기(陳臟器)의 『본초



습유(本草拾遺)』가 있었고, 송나라 때에는 방안상(龐安常)의 『본초보유(本草補遺)』와 『일화자본초(日華子本草)』가 있었으며, 원(元)나라 때에는 왕호고(王好古)의 『탕액본초(湯液本草)』가 있었다.

本草 自神農黃帝以來 數千年世間流來經驗而 神農時 有本草 殷時 有湯液本草 唐時 有孟詵 食療本草 陳藏器 本草拾遺 宋時 有龐安常本草補遺 日華子本草 元時 有 王好古 湯液本草

[주(註)] ○탕액본초(湯液本草): 상(商)[은(殷)]의 탕왕(湯王)의 신하 이윤(伊尹)이 지었다 하는데,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있는 약품을 탕액(湯液)으로 조제하는 탕액론(湯液論)을 말한 것이며, 이는 중국 의방(醫方)의 비조라 할 수 있다.

○맹선(孟詵): 당(唐)나라 사람으로, 평생을 본초(本草) 연구에 몸바쳐 왔고 저서로는 『보양방(補養方)』, 『필효방(必効方)』, 『식료본초(食療本草)』 각 3권이 있다.

○『식료본초(食療本草)』: 맹선(孟詵)이 선집한 것으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식료법(食療法)을 수집하고 보완하여 도합 270조를 확충하였다.

○진장기(陳藏器): 당(唐)나라 후기 개원(開元) 27년대 사람으로 『본초습유(本草拾遺)』 10권을 선집하였다.

○『본초습유(本草拾遺)』: 진장기(陳藏器)가 선집한 것으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없는 것을 모아 서례(序例) 1권과 습유(拾遺) 6권, 해석 3권 도합 10권으로 편찬하였다.

○방안상(龐安常): 안시(安時)라고도 함. 송(宋)나라 때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대단히 총명하여 의학으로 대성하였다. 저서에는 『상한총병론(傷寒總病論)』, 『방씨가장비보방(龐氏家藏秘寶方)』, 『본초보유(本草補遺)』 등이 있다.

○『본초보유(本草補遺)』: 방안상(龐安常)이 편찬하였다.

○『일화자본초(日華子本草)』: 일화자(日華子)는 송(宋)나라 사람이라 하였을 뿐 그의 성명은 미상(未祥)이다. 본초(本草)에 나온 약품들과 그 당시에 사용하던 많은 약품들을 식물성·동물성으로 나누고 성(性)[한(寒)·열(熱)·온(溫)·양(涼)]과 미(味)[산(酸)·함

(鹹)·신(辛)·감(甘)·고(苦)]를 밝혀 20권으로 엮었다.

○『탕액본초(湯液本草)』: 원의(元醫) 왕호고(王好古)가 선집한 것인데, 한지(漢志)의 탕액경방(湯液經方)의 뜻을 인용하여 상(上)·중(中)·하(下)의 3권으로 엮었다. 상권에는 이동원(李東垣)의 약상법(藥象法)·약심법(藥心法)에 오의(五宜)[오색(五色)·오미(五味)] 오상(五傷)(특히 부인병에 관한 특색)·칠방(七方)[대(大)·소(小)·급(急)·완(緩)·기(奇)·우(偶)·복(複)]·십제(+劑)[선(宣)·통(通)·보(補)·설(洩)·경(輕)·중(重)·활(滑)·삼(澀)·조(燥)·윤(潤)] 등을 기록하였다. 중·하권에는 주(主)증과 객(客)증에 따른 군(君)·신(臣)·좌(佐)·사(使)의 처방조직과 또 삼음(三陰)·삼양(三陽)[육경(六經)]에 따른 인경(引經)이론도 기록하였다.

(해설) 약물을 연구하는 학문을 본초(本草)라 한다. 이 말은 『사기(史記)』에 처음으로 기록되었고, 일찍이 중국에서 발달되었으며, 그 시조는 신농씨(神農氏)라고 전해 온다.

은(殷)나라 이윤(伊尹)이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나온 약품을 탕액(湯液)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어 이를 『탕액본초(湯液本草)』라 하였으며, 이것이 본초서(本草書)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후한(後漢) 때에 와서 장중경(張仲景)·화타(華陀)·도홍경(陶弘景) 등이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을 지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네 권으로 된 것을 365종류를 더하고 주석을 가하여 7권으로 만들었다.

당(唐)나라 때에 와서는 『신농본초경집주(神農本草經集註)』를 증수하고 114종을 더하여 『신수본초(新修本草)』 22권을 만들었으며, 또 이때에 맹선(孟詵)의 『식료본초(食療本草)』, 진장기(陳藏器)의 『본초습유(本草拾遺)』가 나오으로써 본초(本草) 연구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송(宋)나라 때에 와서는 개보(開寶)년간에는 133종을 더한 『개보본초(開寶本草)』가 나왔고, 원우(元祐)년간에는 628종을 더하여 『경사기류비급본초(經史記類備急本草)』 30권이 나왔으며, 방안상(龐安常)의 『본초보유(本草補遺)』, 『일화자본초(日華子本草)』 20권이 나오으로써 더욱 발전을 가져왔다.

원(元)나라 때에는 왕호고(王好古)의 『탕액본초(湯液本草)』가 나왔고, 명대(明代)에 와서는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 52권이 완성됨으로써 본초학(本草學)의 발전은 거의 완벽에 이

르게 되었다.

3. 소음인(少陰人)의 병증약리는 장중경(張仲景)이 거의 소상하게 발명한 것을 송(宋)·원(元)·명(明)의 여러 의사들이 완전할 정도로 자세하게 발명하였고, 소양인(少陽人)의 병증약리는 장중경(張仲景)이 절반 정도 자세히 발명한 것을 송(宋)·원(元)·명(明)의 여러 의사들이 거의 소상하게 발명하였고, 태음인(太陰人)의 병증약리는 장중경(張仲景)이 대략 그림자만 비친 것을 송·원·명의 여러 의사들이 절반쯤 소상하게 발명하였고, 태양인(太陽人)의 병증약리는 주진형(朱震亨)이 약간 그림자만 비쳤으며 또한 본초(本草)에도 약간의 약리가 나와 있다.

少陰人 病證藥理 張仲景 庶幾乎 昭詳發明而 宋 元 明 諸醫 盡乎昭詳發明 少陽人 病證藥理 張仲景 半乎昭詳發明而 宋 元 明 諸醫 庶幾乎昭詳發明 太陰人 病證藥理 張仲景 略得影子而 宋 元 明 諸醫 太半乎昭詳發明 太陽人 病證藥理 朱震亨 略得影子而 本草 略有藥理

#### (해설)

##### 1) 장중경(張仲景) 의학의 개요

장중경(張仲景)은 후한(後漢) 때 사람으로, 『상한론(傷寒論)』을 비롯하여 『금궤요약(金匱要略)』, 『상한잡병론(傷寒雜病論)』을 저술했다고 하는데, 잡병론(雜病論) 원형(原形)은 없어지고 지금은 두책만 전해지고 있다. 『상한론(傷寒論)』은 주로 급성병을 치료하는 법을 상술하였고, 『금궤요약(金匱要略)』은 만성병을 치료하는 법을 서술하였다. 그런데 상한(傷寒)의 주요 골자를 보면 내경(內經)이론의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장부경락설(臟腑經絡說)과 같은 추상적 이론을 지양하고 가장 합리적인 관찰과 구체적인 처방법을 제시하였다.

병태에 있어서도 음양(陰陽)의 상대적 인식을 제 일의로 하였고,

내경(內經)의 음양관(陰陽觀)이나 역리(易理)에서 말한 음양관(陰陽觀)과는 달리 단지 발병(發病)상태와 또한 병정(病情)에 한정된 협의의 음양(陰陽)에 지나지 않았으니 가령 양병(陽病)일 경우에는 열성병(熱性病)으로 간주하고, 음증(陰證)일 경우에는 한성병(寒性病)으로 표현하는 따위이다. 양증(陽證)은 체온이 상승하고 대사기능이 항진된 상태를 말하며, 음증(陰證)은 체온이 내리고 정력(精力)이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이 기본적 병태(病態)를 분류하고 다시 병의 진행과정에 따라 3단계로 나누었으니 양증(陽證)은 태양(太陽)·소양(少陽)·양명(陽明)이라 하고, 음증(陰證)은 태음(太陰)·소음(少陰)·厥음(厥陰)이라 하였다. 이는 비단 『상한론(傷寒論)』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고, 『소문열론편(素問熱論篇)』에서도 육경병론(六經病論)을 말한 바 있어 『상한론(傷寒論)』도 이에 준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경(內經)에서는 다시 12경락(經絡)으로 나누었으니 이는 수족(手足)에 같은 명칭으로 둘씩 나누어져 장부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경락증상이 바로 장부병을 의미하고 있어서 상한(傷寒)의 육경(六經)이론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내경(內經) 열론편(熱論篇)』에는 상한(傷寒)이 된 첫날에는 태양경(太陽經)에 병을 받고, 이튿날에는 양명경(陽明經)에 병을 받으며, 사흘이 되면 소양경(少陽經)에 병을 받고, 나흘이 되면 태음경(太陰經)에 병을 받으며, 닷새 날에는 소음경(少陰經)에 병을 받고, 엿새 날에는厥음경(厥陰經)에 병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병의 전변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태양병(太陽病): 처음부터 오한(惡寒) 발열(發熱)이 있고, 두통(頭痛)이 나며, 맥(脈)이 부(浮)하다. 이는 외감병(外感病) 초증(初症)이다.

소양병(少陽病): 태양병(太陽病) 증세가 얼마간 진행되면 한열(寒熱)이 왕래(往來)하고 입이 쓰며 목 안이 마르고 현기증이 생기며, 전혀 식욕이 없고 헛구역(嘔)을 하며 혀에는 백태(白苔)가 낀다. 또한 맥(脈)은 부(浮)하고 현(弦)하며 또 긴(緊)하다.

양명병(陽明病): 병이 더욱 진행되면 혀의 배태(黃苔)로 변하고 음식은 전혀 먹지 못한다. 발한(發汗)이 심하고 열이 지속되며 특히 일모시(日暮時)에 극(極)에 이른다. 대변불통[위가실(胃家實)]이 되고 헛소리를 하며 때로는 미친 사람 같기도 하다. 맥

(脈)은 실(實)하고 활(滑)하며 또 빠르다.

이상 대략 삼양(三陽) 병증을 설명했거니와 병의 경과에 따라 변하며 혹 약을 잘못 써서 전변(轉變)하는 경우도 있다.

태음병(太陰病): 표열(表熱)이 별로 없고 복통(腹痛)이 있으며 헛배가 부르고 토(吐)하고 설(泄)하나 입이 조(燥)하지 않다.

소음병(少陰病): 설사가 오래 지속되면 탈수증이 생겨서 조갈이 심하여 설 새 없이 물을 마신다. 수족(手足)이 차고 잠만 자려고 하며 맥(脈)이 미세하다.

궤음병(厥陰病): 최악(最惡)의 음증(陰證) 증세로 변한 것인데, 체열(體熱)이 심흉(心胸)으로 몰려서 가슴이 뜨겁고 심히 아프며, 물을 자주 찾으나 음식을 전혀 못 먹고, 먹으면 회(蛔)를 토하며 설사는 더욱 심하다. 사지(四肢)가 차고 때로는 경련이 생기며 혀가 굳고 불알이 오그라진다. 맥(脈)은 미세(微細) 무력(無力)하다. 육경(六經) 병증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를 잘못하거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와 같은 증세로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가령 음증(陰證)에 있어서 전경(轉經)되지 않고 직접 소음증(少陰證)이나 궤음증(厥陰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약을 잘못 써서 양증(陽證)이 음증(陰證)으로 전변(轉變)되기도 하고, 또 음증(陰證)이 양증(陽證)으로 변하는 수도 있다. 그 밖에 병증 전변에 있어서도 합병(合併)·양감(兩感)·괴병(壞病)이니 하는 다른 형태를 말하기도 하였다.

다음 상한(傷寒) 치료의 중요성은 우선, 병증 판단인데 기(氣)·혈(血)·수독(水毒)의 병리적 관찰은 물론이요 음양(陰陽)·표리(表裏)·한열(寒熱)·허실(虛實)의 병태에 대한 인식이 기본이 된다. 이는 비단 상한(傷寒)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기본 병리라고도 할 수 있다. 가령 실증(實證)일 경우에는 한(汗)·토(吐)·하(下) 3법(法)으로 사(瀉)를 하고, 허증(虛證)일 경우에는 화완(和緩)의 보법(補法)을 쓰는 법칙을 확립했다. 그러나 상한(傷寒)치료법의 대개는 공격 위주가 많으며, 이는 처방조치법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방과 병증이 일치되면 되는데, 가령 발병초기에 오한(惡寒) 발열(發熱)이 있고 머리가 아프며 목이 뻣뻣하고 맥(脈)이 부(浮)하면 태양증(太陽證)으로 단정하고 계지탕(桂枝湯)·마황탕(麻黃湯) 또는 갈근탕증(葛根湯證)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방(方)과 증(證)이 부합되면 치료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 2) 송(宋)·원(元)·명(明) 의학(후세 의학)의 개론

후세(後世) 의학의 발단은 멀리 내경(內經, B.C. 300)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상한(傷寒)의학이 한 대(漢代, A.D. 220)에 대성한 데 반하여 후세(後世) 의학은 수(隋)·당(唐)·송(宋)을 내려오면서 내경설(內經說)·난경설(難經說)을 기본으로 하고 또 음양(陰陽)·오행(五行)·장부(臟腑)·경락(經絡)·운기설(運氣說)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고대 중국에서는 우주와 자연을 관찰할 때에 음양(陰陽) 2기(氣)로 이루어졌다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 사람의 생체도 소우주(小宇宙)로 간주하고 음양(陰陽) 기혈(氣血)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며 음양의 균형이 곧 생리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상한론(傷寒論)에는 음양(陰陽)은 곧 한열(寒熱)의 표상이요 삼음(三陰)·삼양(三陽)은 병증 분류의 부호(符號)에 지나지 않으나 후세 의학은 음양철학에서 출발하여 인체의 생리·병리·해부를 비롯한 임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상한(傷寒)체계와 같이 이론이 집약되지 않고 지극히 복잡다단하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역대 의가들이 독자적 학설을 주창한 데서 파생된 것이나 본질적 문제는 모두 내경(內經)원리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개는 일치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본래 음양이란 태극 원리에서 출발하여 사상(四象) 오행(五行)으로 연역하였다. 그러나 엄밀히는 모든 것이 음양(陰陽) 2원(元)에 귀납한다. 예를 들면 하늘은 양(陽)이요 땅은 음(陰)이며, 낮은 양(陽)이요 밤은 음(陰)이고, 해는 양이요 달은 음이며, 봄·여름은 양이요 가을·겨울은 음이 되고, 동남(東南)은 양이요 서북(西北)은 음이며, 상(上)은 양이요 하(下)는 음이 되고, 남(男)은 양이요 여(女)는 음이 되는 것과 같이 우주·자연·사물이 모두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이치로서 인체에도 상부(上部)는 양이요 하부(下部)는 음이 되고, 배부(背部)는 양이요 복부(腹部)는 음이 되며, 부(腑)는 양이요 장(臟)은 음이 되는 것으로서 무한대로 발전하게 된다.

가. 오행(五行)의 생극관계(生克關係)

오행(五行)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만물의 기본적 속성을 규정하고 일체의 상호(相互)현상을 설명

하는 부호이다. 자고로 동양에서는 종교·철학·정치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왔으며, 특히 한(漢)·송대(宋代)에 와서는 자연 철학(自然哲學)이 융성해짐에 따라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이 모든 사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간주하고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오행(五行)의 법칙에는 상호 길항작용(拮抗作用)이 있어 이로 인해 모든 질서가 유지되게 되고 이는 상생(相生)·상극(相克) 관계로 원리를 규정하였다.

오행(五行)에는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종속 관계를 상생(相生)이라 하고, 반대로 하나씩 격하여 억제작용을 하는 것을 상극(相克)이라 하는데, 상생(相生)에는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의 순위로 항진성을 의미하고, 상극(相克)에는 목극토(木克土), 토극수(土克水), 수극화(水克火), 화극금(火克金)의 억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항진하고 한편으로는 억제하므로 모든 것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법칙이 정해져 있다. 이 원리가 의학에도 적용되어 장부(臟腑)·경락(經絡)·신체부분에도 세세히 이루어졌다.

五臟	五志	五惡	五色	五香	五味	五根	五支	五體	五聲	五液	五神
肝	怒	風	赤	臊	酸	眼	瓜	筋	呼	液	魂
心	喜	熱	青	焦	苦	舌	毛	血脈	笑	汗	神
脾	思	濕	黃	香	甘	脣	乳	肌肉	歌	涎	意
肺	憂	燥	白	腥	辛	鼻	息	皮毛	哭	涕	魄
腎	恐	寒	黑	腐	鹹	耳	髮	骨髓	呻	唾	精

이 외에도 얼마든지 가설적 공론을 설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관념적 사고로 생각할 수도 있다.

#### 나. 장부(臟腑) 관계(關係)

장부라 함은 내장기의 총칭인데, 장(臟)은 사람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간단없이 기능이 작용하고 있으며, 부(腑)는 필요에 따라 기능이 작용하는 것이다. 내장기(內臟器)의 기본이 되는 것은 오장(五臟)[간(肝)·심(心)·비(脾)·폐(肺)·신(腎)]이며 이에 종속된 것이 오부(五腑)[담(膽)·소장(小腸)·위(胃)·대장(大腸)·방광(膀

膀]이니 음양론적(陰陽論的) 표리 관계로 성립되었다. 이와 같은 법칙을 설정하고 음양(陰陽) 오행적(五行的) 사고로 표현했으며, 장부기능에도 이런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로 규정했다.

이로써 경락(經絡)이 생겨났고 십이경락(十二經絡)에 배당되는 편 의상 유장(六臟) 육부(六腑)로 분류한 것이다. 여기서 관념적이라고 함은 심(心)과 신(腎)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심포(心包)·명문(命門)·삼초(三焦) 같은 기능적인 것을 하나의 장부로 규정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본래 동양 의학의 특징은 장부의 병변을 병리와 해부학적 인식에 두지 않고 모두 기능적 인식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부란 기능적 복합체의 단위로 경락과 관련하여 취급되고, 장부의 병변을 경락변동으로 관찰하였으며, 생리적 기능보다는 병태(病態)인식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후세 의학의 병인론(病因論)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후세 의학의 병인론은 오장(五臟)을 중심으로 오행설(五行說)을 뒷받침하여 성립된 것이다. 송(宋)나라 진무택(陳無擇)(진언(陳言), 960~1279)이 삼인설(三因說)을 주창하여 내인(內因)·외인(外因)·불내외인(不內外因)으로 분류한 것을 금(金, 1115~1234)·원(元, 1279~1368) 시대에 와서는 내인(內因)·외인(外因)에 대해서만 말하였고, 병증분류에도 내상(內傷)·외감(外感)으로 대별하였다. 그러나 후세(後世) 의학의 특징이라면 내인성(內因性)에 주안을 두었고 그 미비점을 보충한 데 지나지 않는다.

내인(內因)이란, 즉 칠정소상(七情所傷)을 말함이니 희(喜)·노(怒)·우(憂)·사(思)·비(悲)·공(恐)·경(驚)에 의해서 직접 장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외인성(外因性)은 육기(六氣), 즉 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화(火)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경락에 침입하여 점차 장부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또 불내인(不內因)은 음식 섭생을 잘못하거나 과로(過勞)·외상(外傷) 등을 말한 것이다. 금(金)·원(元) 시대의 의학은 주로 송대(宋代) 의학을 계승한 데 지나지 않으며, 이 중에서도 대표적 인물을 든다면 유하간(劉河間)[완소(完素)]·장자화(張子和)[종정(從正)]·이과(李果)[동원(東垣)]·주진형(朱震亨)[단계(丹溪)] 들이다. 이들을 금(金)·원(元)의 사대가(四大家)라 일컬으며, 치료의학의 시조로까지 평가하고 있다.



각자의 특징을 말하면 이동원(李東垣)은 만물의 어머니는 오행(五行)으로 토(土)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장부의 비위(脾胃)는 토(土)에 속하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비위(脾胃)가 약함으로써 생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감(外感)·내상(內傷)을 막론하고 비위(脾胃)를 보익(補益)함을 치료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주단계(朱丹溪)는 사람의 질병은 양(陽)이 유여(有餘)하고 음(陰)이 부족함으로써 생기니 희노과정(喜怒過情)하거나 음식부조(飮食不調)·정신감동·외감(外感)·풍한(風寒)이 모두 장부에 미치게 되면 오장을 기르지 못하여 양기(陽氣) 유여(有餘)하고 음기(陰氣) 부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치료에는 음(陰)을 일으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金)·원(元)의 사대가(四大家)의 의학적 배경은 그 지역과 기후적 조건으로 파생되었기 때문에 유하간(劉河間)의 한량(寒涼) 위주와 장자화(張子和)의 공하(攻下) 위주는 추운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고, 이동원(李東垣)의 보비(補脾) 위주와 주단계(朱丹溪)의 양음(養陰) 위주는 남부의 더운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따라서 각자의 주장에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약리에 대해서도 그 개념을 장부경락의 허실(虛實)에 중점을 두어 허할 때는 보(補)하고 실(實)할 때는 사(瀉)한다는 원리를 세웠다.

약물에는 첫째로 기(氣)와 미(味)를 중요시하였는데, 이도 또한 음양(陰陽)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氣)는 한(寒)·열(熱)·온(溫)·량(涼)·평(平)으로 분류하고, 미(味)는 신(辛)·산(酸)·함(鹹)·고(苦)·감(甘)으로 구별하여 효능을 오장(五臟)에 결부하고 다시 경락을 통하여 모든 작용을 한다고 하며, 비록 추상적이긴 하나 이러한 원리에서 성립된 것이다.

4. 나는 의약경험(醫藥經驗)이 있는 지 5, 6천 년 후에 나서 예전 사람들이 저술한 의서를 통하여 우연히 사상인(四象人) 장부(臟腑) 성리(性理)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한 권의 의서를 저술하니 이름하여 『수세보원(壽世保元)』이라 하였다.

원서중(原書中)에 장중경(張仲景)이 논한바 태양병(太陽病)·소양병

(少陽病)·양명병(陽明病)·태음병(太陰病)·소음병(少陰病)·厥음병(厥陰病)이라 함은 병 증세를 이룬한 것이요, 내가 태양인(太陽人)·소양인(少陽人)·태음인(太陰人)·소음인(少陰人)이라 함은 인물(人物)을 지목하여 말한 것이니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되고, 또 번거로운 생각을 버린 연후에 뿌리와 줄기를 찾고 가지와 잎을 취해야 할 것이다.

대저 맥법(脈法)이란 병증을 아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 원리는 부(浮)·침(沈)·지(遲)·삭(數)에 있을 뿐이요 여기서 그 기묘한 이치를 찾을 필요는 없다. 또 삼양(三陽)·삼음(三陰)이란 병증의 같고 다른 것과 그 이치가 배와 등 안과 밖에 있을 따름이니 반드시 경락(經絡)의 변동을 찾고자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余 生於醫藥經驗五六千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 著得一書  
名曰壽世保元 原書中 張仲景所論太陽病 少陽病 陽明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 以病證名目而論之也 余所論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陽人 以人  
物名目而論之也 二者 不可混看 又不可厭煩然後 可以探其根株而 採其  
枝葉也 若夫脈法者 執證之一端也 其理 在於浮沈遲數而 不必究其奇妙  
之致也 三陰三陽者 辨證之同異也 其理在於腹背表裏而 不必求其經絡之  
變也

(해설)

#### 1) 맥진(脈診)

한방(漢方) 진단(診斷)에는 맥진(脈診)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맥(脈)으로 모든 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사진법(四診法)에 의하여 음(陰)·양(陽)·허(虛)·실(實)의 종합적 판별을 하게 된다.

본래 한(漢)의학에서 말하는 병리관(病理觀)은 어떤 병(病)의 명칭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 병(病)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증(證)이라 함은 모든 증후군(症候群)을 한

데 묶어서 규정한 하나의 병태관(病態觀)이다. 그런데 증(證)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상한론(傷寒論)에서 말하는 어떤 처방(處方)에 적응하는 증(證)의 의미와, 둘째로는 총체적으로 규정한 증(證)의 의미가 다르다. 가령 맥진(脈診)·설진(舌診)·복진(腹診) 등에 의하여 소시호탕(小柴胡湯), 갈근탕증(葛根湯證)이니 하는 방증(方證)에 대한 개념과 음증(陰證)·양증(陽證)·허증(虛證)·실증(實證)이니 하는 총체적 증(證)의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 체질(體質)의학적으로 보는 증(證)의 개념은 후자에 속함은 물론이요 체질적으로 가지는 특유의 병증이 있음은 병인관(病因觀)에 있어서 획기적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다시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한방진단(漢方診斷)의 윤곽만을 대략 말해 보기로 한다.

옛날로부터 전해 온 진찰법(診察法)은 망(望)·문(聞)·문(問)·맥(脈)의 네 가지 방법으로 행하여 왔다. 이는 어떤 과학적 기구를 이용한 것이 아니요 단지 경험적 토대 위에서 의사의 직관(直觀)에 의하여 인식기준을 세운 것이다.

망진(望診): 환자의 용태(容態)를 바라보고 병의 소재를 판단하게 되므로 한편 시진(視診)이라고도 하며 의사가 오랜 경험을 통하여 병상(病狀)을 알게 되고 또 치료와 예후(豫後)도 직관(直觀)할 수 있다. 망진(望診)에는 환자의 체형, 즉 몸이 비대한지 수척한지를 알고, 설태(舌苔)의 유무(有無), 피부의 색과 탄력성을 본다. 또 걸음걸이, 앉은 자세, 누워 있는 용태(容態) 등으로 병의 경중과 허실을 판단하게 된다.

대개 얼굴빛이 붉고 몸이 실(實)해 보이면 양증(陽證)이요 실증(實證)이며, 안색이 창백하고 기운이 탈진하면 음증(陰證)이요 허증(虛證)이다. 또 피부가 윤택한지 건조(乾燥)한지 부종(浮腫)·황달기(黃疸氣)가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안색과 피부색을 보고 장부의 위화(違和)를 알게 되는데, 가령 청색(靑色)은 간병(肝病), 적색(赤色)은 심병(心病), 황색(黃色)은 비병(脾病), 백색(白色)은 폐병(肺病), 흑색(黑色)은 신병(腎病)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색으로서 오장병(五臟病)을 진찰함이 한방의 특유의 관찰법이지만 이것도 음양(陰陽) 허실(虛實)의 상대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진(聞診): 환자의 음성을 들어서 오장병(五臟病)을 판단하게 되

는데, 옛 의서(醫書)에는 음성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오장에 결부시켰다. 오성(五聲)에는 호(呼)·소(笑)·가(歌)·곡(哭)·신(呻)이라 하여 장부 경락(經絡)의 위화(違和)를 판별하게 된다. 간병(肝病)은 호(呼), 심병(心病)은 소(笑), 비통(脾痛)은 가(歌), 폐병(肺病)은 곡(哭), 신병(腎病)은 신(呻)이라 한다. 또한 문진(聞診)에는 후진(嗅診)이라 할까 냄새를 맡는 것도 하나의 문진법(聞診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오향(五香)이라고 해서 폐병(肺病)에는 누린내[조(臊)], 심병(心病)에는 탄내[초(焦)], 비청(脾淸)에는 향내[향(香)], 폐병(肺病)에는 비린내[성(腥)], 신병(腎病)에는 썩은내[부(腐)]를 감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호흡상태·해수(咳嗽)·천식(喘息)·섬어(諛語)·난기(暖氣)·홀역(吃逆)·위내진수음(胃內振水音)·장뢰명(腸雷鳴) 등과 구취(口臭)·농즙(膿汁)·대하(帶下)·대소변(大小便)의 냄새도 문진(聞診)에 속한다.

문진(問診): 사진법(四診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환자의 기왕증(既往症)·자각증(自覺症)의 수소(愁訴)는 물론이요, 타각증(他覺症)에 있어서도 환자가 진술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서 현재의 병상과 장차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고, 또 오한(惡寒)·발열(發熱)·발한(發汗)으로 표리(表裏)·허실 관계를 알아야 하고, 두통(頭痛)·신통(身痛) 등의 병위(病位)를 자세히 물어야 하며, 흉부압박(胸部壓迫)과 심계항진(心悸亢進) 등으로 심(心)·폐(肺)의 허실을 알아야 한다. 식욕(食慾)·소화(消化)·목현(目眩)·이롱(耳聾)·구갈(口渴)·구토(嘔吐)·인건(咽乾)·대소변(大小便)·유정(遺精)·출혈(出血)·월경(月經)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 외에도 연령·가족 상황·생활환경도 자세히 물어야 한다.

맥진(脈診): 절진(切診)이라고 하며, 촉진(觸診)·압진(壓診)도 절진(切診)에 속한다. 신체 표부(表部) 중 동맥(動脈)이 가장 천부(淺部)에 나타나 촉지(觸知)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맥진(脈診)을 할 수 있으므로 옛 의서(醫書)에는 경동맥 부위인 인영맥(人迎脈)과 또 부골상(附骨上)에 발현(發現)하는 동맥(動脈)·태충맥(太衝脈)·충양맥(衝陽脈)과 내과(內踝) 후측(後側) 아킬레스건(腱)과의 사이에 태계맥(太谿脈) 같은 여러 곳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맥동(脈動)이 잘 나타나는 곳은 손목의 요골동맥(桡骨動脈)이라 하겠다.

맥진(脈診)의 정의(定義)라고 하면 ‘기혈(氣血)’의 순환 상태를 인지(認知)하는 것이며, 동맥(動脈)의 활동 상태를 보아 음양 허실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는 것이 본래의 주지라 하겠다. 혹 일부에서는 모든 병을 맥진으로 알 수 있다는 불문진(不問診)을 신빙하는 파도 없지 않으나 사실상 ‘난지자맥(難知者脈)’이라 하여 맥(脈)만으로 병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한방 진단에는 지나친 맥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진법(四診法)을 구사하여 병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맥진(脈診)의 부위(部位): 앞서서도 말하였거니와 일반적으로 맥(脈)을 짚는 곳은 요골(撓骨)의 경상돌기(莖狀突起) 안쪽 동맥(動脈)이 박동(搏動)하는 부위인데, 이곳을 촌구(寸口)라 하며, 경상돌기(莖狀突起)를 중심으로 중지(中指)를 가볍게 대고 이의 좌우(左右)에 시지(示指)와 약지(藥指)를 댄다. 이 촌구(寸口)를 다시 삼부(三部)로 나누어 촌구(寸口)·관상(關上)·척중(尺中)이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촌구(寸口)는 단지 시지(示指)가 닿는 곳을 지칭하는 것이다.

(2) 맥진(脈診)의 방법(方法): 처음에는 시지(示指)·중지(中指)·약지(藥指)의 손끝을 삼부(三部)에 해당되는 동맥(動脈)에 가볍게 대고 차츰 힘을 주면 동맥(動脈)을 인지(認知)하게 되는데, 맥은 반드시 좌우(左右) 손을 다 같이 보아야 한다.

(3) 삼부구후맥(三部九候脈): 맥(脈)을 삼부(三部)로 나누는 이유는 사람의 체형을 상(上)·중(中)·하(下)[천(天)·인(人)·지(地)]로 나누므로 이에 결부하여 상을 촌구(寸口), 중을 관상(關上), 하를 척중(尺中)이라 칭한 것이다. 촌구(寸口)에서는 머리와 가슴(心)·폐(肺)의 증상을 알고, 관상(關上)에서는 횡격막(橫隔膜) 아래[비(脾)·위(胃)·간(肝)·담(膽)]의 증상을 찾으며, 척중(尺中)에서는 배꼽 아래[신(腎)·대장(大腸)·소장(小腸)·방광(膀胱)] 및 요(腰)·족(足)까지 포함하여 모든 증상을 찾는다.

『내경(內經)』과 『난경(難經)』에서는 삼부(三部)를 다시 세 구분하여 부(浮)·중(中)·침(沈)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서 중(中)이라 함은 위기(胃氣)를 주관한다 하여 특별한 때 외에는 취급하지 않고 실제로는 부(浮)·침(沈)만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좌우 육부(六部)의 부(浮)는 양(陽)으로 나타나고, 침(沈)은 음(陰)으로 나타난다. 이를 육부정위(六部定位)

맥진법(脈診法)이라 칭한다.

右手: 寸口—肺·大腸, 關上—脾·胃, 尺中—心包·三焦.

左手: 寸口—心·小腸, 關上—肝·膽, 尺中—腎·膀胱.

이의 장부관계(臟腑關係)는 12경락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6장 6부로 분류한 것도 이에 준거한 것이다. 따라서 상극(相克)관계를 가지고 별차(別差)를 나타낸다고 하여 이것으로 증(證)을 결정하게 된다.

(4) 맥(脈)의 종류: 현대 의학에서도 맥상(脈狀)을 참작하고 있으나 단지 맥박수·불정맥(不整脈)·긴장도(緊張度) 등을 인지하는데 불과하지만 한(漢)의학에서 말하는 맥법(脈法)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어서 맥의 종류만도 27종(種)이나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맥(脈)의 분류만을 옮겨 보기로 한다.

왕숙화(王叔和) 『맥경(脈經)』에 의하면

칠표맥(七表脈): 부(浮)·규(芤)·활(滑)·실(實)·현(弦)·긴(緊)·홍(洪)—양진(陽脈).

팔리맥(八裡脈): 미(微)·침(沈)·완(緩)·색(濡)·지(遲)·복(伏)·유(濡)·약(弱)—음맥(陰脈).

구도맥(九道脈): 장(長)·촉(促)·동(動)·뢰(牢)—양맥(陽脈)

단(短)·허(虛)·결(結)·세(細)·대(代)—음맥(陰脈).

그런데 맥(脈)의 기본이 되는 것은 오직 부(浮)[양(陽)]·침(沈)[음(陰)]·지(遲)[음(陰)]·삭(數)[양(陽)]의 네 가지로 음양 허실을 대치하는 조맥(祖脈)으로 삼는다. 동무공(東武公)은 맥(脈)을 보는 것은 병증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나 기본 맥인 부(浮)·침(沈)·지(遲)·삭(數) 정도만 알면 되고, 여기서 기묘한 이치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 2) 경락의 의의

경락(經絡)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아무래도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고 단지 생체(生體)에 한하여 존재하는 어떤 기능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 체내에는 모든 기관을 대표하는 장부(臟腑)가 있고 체표(體表)로 연락하는 교통로와 같은 것이 있으니 이것을 곧 경락이라 한다면 좋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인체해부학이 발달되지 못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경(神經)·혈관(血管) 등을 경락이라 한 것인지는 몰라

도 의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가치기준을 평가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락(經絡)·경맥(經脈)·경근(經筋)이니 하는 세부적 설명도 나와 있으나 이도 또한 동맥(動脈)인지 정맥(靜脈)인지 또는 신경(神經)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단지 한의학적 사고에서 기(氣)·혈(血)·영(榮)·위(衛)의 순환 경로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경락(經絡)에는 12정경(正經)이 있고, 또 여덟 개의 기경(奇經)이 있으며, 정경(正經)은 6장(臟) 6부(腑)에 배당되어 있어서 각 경맥(經脈)에는 특정적 경혈(經穴)이 나열되어 신체장애·내장기(內臟器)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체표반응(體表反應)이 나타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경락선(經絡線)을 열두 개로 나눈 것은 인체를 소우주로 간주하고, 일년 열두 달에 해당시킨 것이며, 경혈(經穴)을 365개로 정한 것은 1년 365일을 상징한 것으로 되어 있다. 12경락에는 음양의 주축이 되는 두 개의 기경(奇經) 중에서 독맥(督脈)[양(陽)]과 임맥(任脈)[음(陰)]이 있어서 사실상 14경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락 원리는 무엇보다도 침구(鍼灸)의학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경락은 다시 3음(陰) 3양(陽)으로 나누었고 각 경락의 말단(末端)은 손끝·발끝으로 주행(走行)하였으며, 3음(陰)은 장(臟)에, 3양(陽)은 부(腑)에 배당되고 수족(手足)으로 나누므로 12경락(經絡)이 된다. 또한 경락작용은 생체(生體)의 에너지작용과 같아서 끊임없이 유주(流注) 순환하므로 생명력을 기른다고 한다. 이의 순환 순위와 엄밀히는 시간적 배당까지 정해져 있다.

① 수태음(手太陰) 폐경(肺經)[인시(寅時)] ② 수양명(手陽明) 대장경(大腸經)[묘(卯)] ③ 족양명(足陽明) 위경(胃經)[진(辰)] ④ 족태음(足太陰) 비경(脾經)[사(巳)] ⑤ 수소음(手少陰) 심경(心經)[오(午)] ⑥ 수태양(手太陽) 소장경(小腸經)[미(未)] ⑦ 족태양(足太陽) 방광경(膀胱經)[신(辛)] ⑧ 족소음(足少陰) 신경(腎經)[유(酉)] ⑨ 수厥음(手厥陰) 심포경(心包經)[술(戌)] ⑩ 수소양(手少陽) 삼초경(三焦經)[해(亥)] ⑪ 족소양(足少陽) 담경(膽經)[자(子)] ⑫ 족厥음(足厥陰) 간경(肝經)[축(丑)]

이와 같이 음경(陰經)에서 양경(陽經)으로, 또 동속(同屬)의 양경(陽經)이 이어받아 음경(陰經)으로 간단없이 순환하게 되며, 경(經)은 장부관계와 오행배당을 동일하게 하여 각각 표리관계를

갖고 있다. 경락 유주(流注) 관계는 내경(內經)계통에서 나온 것이고, 주로 침구술(鍼灸術)에 응용하며, 경락의 병변을 인식하고, 또 치료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한(傷寒)이나 상풍(傷風)을 치료함에 있어 반드시 육경병(六經病)으로 나누어서 치료할 필요는 없다. 비록 외감(外感)이라 할지라도 체질에 따른 치료가 다르므로 경락변동에만 치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5. 옛사람들이 병증을 육경(六經) 음양(陰陽)으로 논한 바 있기 때문에 장중경(張仲景)이 『상한론(傷寒論)』을 지을 때에도 또한 육경(六經) 음양론(陰陽論)으로 병증을 분류하였다. 두통이 있고 전신이 쭈시며 오한(惡寒) 발열(發熱)이 있고 맥(脈)이 부(浮)하면 이를 태양(太陽)병증이라 한다. 입이 쓰고 목 안이 마르며 눈에 현기가 있고 귀가 먹먹하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맥(脈)이 현세(弦細)하면 소양(少陽)병증이라 한다. 오한(惡寒)이 없이 단지 오열(惡熱)이 심하며 땀이 저절로 나고 대변이 비조한 자를 양명(陽明)병증이라 한다. 배 속이 가득하고 때때로 배가 아프나 입이 조(燥)하지는 않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없이 설사를 하면 이를 태음(太陰)병증이라 한다. 맥(脈)이 미세하고 잠만 자려고 하며 입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며 설사를 하는 것을 소음(少陰)병증이라 한다. 처음에는 복통이 없이 설사를 하다가 상한(傷寒)이 된 지 6, 7일 만에 맥(脈)이 미완(微緩)하고 손발이 얼음같이 차며 혀가 굳어지고 불알[낭(囊)]이 오그라지면 췌음(厥陰)병증이라 한다.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조항의 병증에서 삼음병증(三陰病證)은 모두 소음인(少陰人)에게 있는 병증이고, 소양병증(少陽病證)은 소양인(少陽人)에게 있는 병증이다. 태양병증(太陽病證)·양명병증(陽明病證)은 소양인(少陽人)·소음인(少陰人)·태음인(太陰人)에게 고루



있으나 이 중에서 소음인에게 가장 많다고 하겠다.

옛날로부터 의학의 법방(法方)이 널리 세상에 전해오고, 많은 경험  
이 있었으므로 장중경(張仲景)이 역시 이에서 채취하여 『상한론(傷寒  
論)』을 지은 것이다. 그러나 대개 옛날 의사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  
기는 애(愛)·오(惡)·소욕(所欲)·희(喜)·노(怒)·애(哀)·락(樂)과 같  
은 것이 편착(偏着)되어 병이 되는 줄을 모르고, 단지 음식물로 인하  
여 비위(脾胃)가 상하거나 또는 풍(風)·한(寒)·서(暑)·습(濕)의 축상  
으로 병이 생기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므로 병을 논하고 약을 논한  
것을 보면 대개 소음인(少陰人)의 비위(脾胃)가 약한 데 대한 약방을  
만들어냈고, 간혹 소양인(少陽人) 위열증(胃熱證) 약이 있으며, 태음인  
(太陰人)·태양인(太陽人)의 병증에 대해서는 완전히 몰랐던 것이다.

古人 以六經陰陽論病故 張仲景 著傷寒論 亦以六經陰陽 該病證而 以頭  
痛身疼發熱惡寒脈浮者 謂之太陽病證 以口苦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寒  
熱往來 頭痛 發熱 脈弦細者 謂之少陽病證 以不惡寒 反惡熱 汗自出 大  
便秘者 謂之陽明病證 以腹滿 時痛 口不燥 心不煩而 自利者 謂之太陰  
病證 以脈微細 但欲寐 口燥 心煩而自利者 謂之少陰病證 以初無腹痛自  
利等證而傷寒六七日 脈微緩手足厥冷舌卷囊縮者 謂之厥陰病證 六條病  
證中 三陰病證 皆少陰人病證也 少陽病證 卽少陽人病證也 太陽病證陽  
明病證 則少陽人少陰人太陰人病證 均有之而少陰人病證 居多也 古昔以  
來 醫藥法方 流行世間 經歷累驗者 仲景採摭而著述之 蓋古之醫師 不知  
心之愛惡所欲喜怒哀樂偏着者爲病而 但知脾胃水穀風寒 暑濕觸犯者 爲  
病故 其論病論藥全局 都自少陰人脾胃水穀中出來而 少陽人胃熱證藥 間  
或有焉 至於太陰人 太陽人病情則全昧也

6. 기백(岐伯)이 말하기를 상한병(傷寒病)의 첫날에는 태양경(太陽  
經)이 병을 받으므로 머리와 목이 아프고 허리와 척추가 뻣뻣해진다.

이튿날에는 양명경(陽明經)이 병을 받으므로 양명(陽明)은 육(肉)을 주관하니 그 맥(脈)이 코를 끼고 올라가서 눈에 얹히므로 몸에서 열이 나고 눈알이 쭈시며 콧속이 마르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셋째 날에는 소양경(少陽經)이 병을 받으므로 소양(少陽)은 담(膽)을 주관하니 그 맥(脈)이 옆구리를 끼고 위로 올라가서 귀에 얹히므로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고 귀가 먹먹하다. 넷째 날에는 태음경(太陰經)이 병을 받으므로 태음맥(太陰脈)은 위(胃)에 퍼져서 다시 목구멍에 얹히므로 배가 포만하고 목 안이 마른다. 다섯째 날에는 소음경(少陰經)이 병을 받으므로 소음맥(少陰脈)은 신(腎)을 꿰뚫고 폐(肺)로 올라가서 다시 혀뿌리에 얹히므로 입이 조(燥)하고 혀가 마르며 갈증(渴症)이 있다. 여섯째 날에는厥陰경(厥陰經)이 병을 받으므로厥음맥(厥陰脈)은 음기(陰器)를 좇아 간(肝)에 얹히므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알[낭(囊)]이 오그라진다. 이와 같이 3양(陽)·3음(陰)·5장(臟)·6부(腑)가 모두 병을 받아 기혈(氣血)이 돌지 못하고 5장(臟)의 기(氣)가 통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峻伯曰 傷寒一日 巨陽 受之故 頭項痛腰脊強 二日 陽明 受之 陽明 主肉 其脈 挾鼻絡於目故 身熱目疼而鼻乾不得臥也 三日 少陽 受之 少陽主膽 其脈 循脅絡於耳故 胸脇痛而耳聾 三陽經絡 皆受其病而未入於臟故 可汗而已  
四日 太陰 受之 太陰脈 布胃中絡於噎故 腹滿而噎乾 五日 少陰受之 少陰脈 貫腎絡於肺 繫舌本故 口燥舌乾而渴 六日 厥陰受之 厥陰脈 循陰器而絡於肝故 煩滿而囊縮 三陰三陽五臟六腑 皆受病 榮衛不行 五臟不通則死矣

7. 상한(傷寒)에 양감(兩感)이 되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

였으니 양감(兩感)·상한(傷寒)은 첫날에 태양병(太陽病)과 소음병(少陰病)이 합병(合病)되어 머리가 아프고 입안이 마르며 가슴이 답답하다. 이튿날에 양명병(陽明病)과 태음병(太陰病)이 합병되면 배가 만(滿)하고 신열(身熱)이 나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헛소리를 한다. 사흘이 되어 소양병(少陽病)과厥음병(厥陰病)이 합병되면 귀가 먹고 불알[낭(囊)]이 오그라지며 수족(手足)이 차고 물도 넘기지 못하며 완전히 의식을 잃는다. 대개 6일이면 죽는데, 죽는 것은 6, 7일 사이지만 치유되더라도 10일 이상이 걸리게 된다.

兩感於寒者 必不免於死 兩感於寒者 一日 巨陽 少陰 俱病則 頭痛口乾而煩滿 二日 陽明 太陰俱病腹滿身熱不飲食譫語 三日少陽 厥陰俱病 耳聾囊縮而厥 水漿不入口 不知人 六日 死 其死 皆以六七日之間 其愈 皆以十日已上

8.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영추(靈樞)』, 『소문(素問)』을 황제(黃帝)가 지었다고 거짓 핑계하는 것은 괴이한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니 방술(方術)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히 그런 것이 있으므로 굳이 나무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은 또한 옛사람들이 경험한 것으로서 5장(臟)·6부(腑)·경락(經絡)·침구(鍼灸)·병증(病證)·수양(修養)에 관하여 많이 깨우쳐 준 바 있으므로 사실상 의학하는 사람들이 격물치지(格物致知)하는 종주(宗主)가 되는 것이요, 또 묘맥(苗脈)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전체를 허망한 것으로 책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계발의 공이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는 옛날 사람들의 슬기와 문견을 넓게 알 수 있는 말들과 방사(方士)들의 수양의 연원을 기록한

것이니 그 이치는 고찰해 봄 직하지만 그 학설을 그대로 다 믿을 것은 못 된다.

論曰靈樞素問 假托黃帝 異怪幻惑 無足稱道 方術好事者之言 容或如是不必深責也 然 此書 亦是古人之經驗而 五臟六腑經絡針法病證修養之辨多有所啓發則 實是醫家 格致之宗主而 苗脈之所自出也 不可全數 其虛誕之罪而 廢其啓發之功也 蓋此書 亦古之聰慧博物之言 方士淵源修養之述也 其理 有可考而 其說 不可盡信

9. 기백(岐伯)이 말한바 태양(太陽)·소양(少陽)·소음경병(少陰經病)이라고 한 것은 모두 소양인(少陽人)의 병증이요, 양명(陽明)·태음경병(太陰經病)이라 한 것은 태음인(太陰人)의 병증이요, 궤음경병(厥陰經病)은 소음인(少陰人)의 병증이다.

岐伯所論 巨陽 少陽 少陰經病 皆少陽人病也 陽明 太陰經病 皆太陰人病也 厥陰經病 少陰人病也

## 제6장 광제설(廣濟說)

○광제(廣濟): 광제창생(廣濟蒼生) 또는 제도창생(濟度蒼生)의 뜻이 있으니 ‘널리 세상 사람을 구제함’이다.

(해설) 동무(東武) 사상설(四象說)은 의학적 인간학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학설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광제창생(廣濟蒼生)은 흔히 의료적(醫療的) 구호(救護)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종교적 구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무(東武)의 광제설(廣濟說)은 인생의 수요(壽夭)를 그의 윤리적 생활의 조율(調律)에 달려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이를 윤리적 의학설이라 하는 것이다. 그가 광제설(廣濟說)의 끝을 ‘호현락선 천하지대약야(好賢樂善 天下之大藥也)’로 맺은 것은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 한 살에서 16세까지를 유년(幼年)이라 하고, 17세에서 32세까지를 소년(少年)이라 하고, 33세에서 48세까지를 장년(壯年)이라 하고, 49세에서 64세까지를 노년(老年)이라 한다.

初一歲至十六歲曰幼 十七歲至三十二歲曰少 三十三歲至四十八歲曰壯 四十九歲至六十四歲曰老

(해설) 사람의 일생을 4기(期)로 나누었는데 그 매듭을 16, 32, 48, 64로 하였으니 그 수자도 또한 사승지(四乘之)로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6은 ‘ $4 \times 4 = 16$ ’이다. 32는 16의 곱이니 ‘ $4 \times 8 = 32$ ’인 것이다. 16의 세 곱인 48을 거쳐 64는 16의 네 곱이다. 이렇듯 16, 32, 48, 64는 사승지(四乘之)의 결과인 만큼 그 수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승지(四乘之)의 진행 과정에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역리(易理)에서 일(一)[태극]이 양의(兩儀)[이(二)]를 낳고 양의는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은 팔괘(八卦)를 낳고 팔괘가 육십사괘(六十四卦)로 전개된 그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생은 결국 유(幼)·소(少)·장(壯)·노(老)의 4기로 나눌 따름이니 16, 32, 48, 64의 수리(數理)에 금을 굿듯 하는 연령으로서의 깊은 의미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체로 인생이란 유년기에는 문견(聞見)을 좋아하면서 애경(愛敬)할 줄을 아는 것이니 마치 봄에 새싹이 돋는 것과 같고, 소년기에는 용맹을 좋아하면서 등첩(騰捷)할 줄을 아는 것이니 마치 여름에 자라는 묘목(苗木)과 같고, 장년기에는 교결(交結)하기를 좋아하면서 수칙(修飭)할 줄을 아는 것이니 마치 가을에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같고, 노년기에는 계책을 좋아하면서 비밀을 간직할 줄을 아는 것이니 마치 겨울에 감추어두는 뿌리와 같은 것이다.

凡人幼年好聞見而能愛敬 如春生之芽 少年好勇猛而能騰捷 如夏長之苗  
壯年好交結而能修飭 如秋歛之實 老年好計策而能秘密 如冬藏之根

- [주(註)] ○문견(聞見): 보고 듣는 것, 외계(外界)로부터의 지식.  
○애경(愛敬): 애친(愛親)·경장(敬長)의 약(略).  
○등첩(騰捷): 상승지기(上升之氣)로서 비등(飛騰) 전첩(戰捷)의 약(略).  
○교결(交結): 교우(交友)·결실의 약(略).  
○수칙(修飭): 수신(修身)·칙궁(飭躬)의 약(略).

(해설) 유(幼)·소(少)·장(壯)·노(老)의 인생 4기(期)를 춘생(春生)·하장(夏長)·추감(秋斂)·동장(冬藏)의 사시추이(四時推移)에 비교한 것은 동양 전래의 자연주의-역리(易理)-에 근거를 둔 분류인 것이다.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사시변천(四時變遷)은 비록 12개월을 4분(分)하여 춘(春) 3월(月), 하(夏) 3월(月), 추(秋) 3월(月), 동(冬) 3월(月)로 나누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수리(數理)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生)·장(長)·감(斂)·장(藏)에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의미는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절에서 제시된 16, 32, 48, 64의 수리(數理)는 이 절에서 이미 무시되고 다만 춘생(春生)·하장(夏長)·추감(秋斂)·동장(冬藏)에서 유(幼)·소(少)·장(壯)·노(老)의 의미를 찾아야 하게 된 것임을 다시금 지적해 두고자 한다.

3. 유년기에 문자를 좋아하는 자는 유년 중의 호걸이고, 소년기에 장로(長老)를 공경하는 자는 소년 중의 호걸이며, 장년기에 널리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자는 장년 중의 호걸이고, 노년기에 올바른 사람을 보호할 줄 아는 자는 노년 중의 호걸이다.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주 넉넉하게 좋은 마음씨를 간직한 자는 진정한 호걸이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내 아주 넉넉하게 좋은 마음씨를 간직하지 못한 자는 재능이 있을 따름이다.

幼年好文字者幼年之豪傑也 少年敬長老者少年之豪傑也 壯年能汎愛者壯年之豪傑也 老年保可人者老年之豪傑也 有好才能而又有十分快足於好心術者眞豪傑也 有好才能而終不十分快足於好心術者才能而已

[주(註)] ○호문자(好文字): 호독서(好讀書).

○호걸(豪傑): 출중(出衆)한 사람.

○장노(長老): 연장자(年長者)와 노인(老人).

○범애(汎愛): 범애중(汎愛衆).

○가인(可人):佳人(佳人). 정의지사(正義之士).

(참고) ○子曰弟子入則孝出則弟謹而信汎愛衆而親仁行有餘力則以學文(『논어』「학이」)

○然則天下衆人之臟理亦皆聖人之臟理而才能亦皆聖人之才能也以肺脾肝腎聖人之才能而自言曰我無才能云者豈才能之罪哉心之罪也(『四端論』 7節)

○人生至樂有五一日壽二曰美心術三曰好讀書四曰家產五曰行世也(東武五福論)

○孟子曰待文王而後興者凡民也若夫豪傑之士雖無文王猶興(『맹자』「진심」)

(해설) 인간 일대(一代) 유(幼)·소(少)·장(壯)·노(老)의 4기를 통하여 호걸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겨우 ‘호독서(好讀書)’·‘경장로(敬長老)’·‘범애중(汎愛衆)’·‘보가인(保可人)’에다가 ‘미심술(美心術)’을 곁들인 자일 따름이다. 거기에는 권세의 부(貴)나 재화의 귀(富)란 아랑곳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귀를 쫓는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호걸의 이름을 얻기에는 아무런 구실도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윤리적 사상설(四象說)의 저변인 것이다.

4. 유년기 7, 8세 전에 문견(聞見)이 미급(未及)하여 희로애락(喜怒哀樂)이 교착(膠着)하게 되면 병이 나는 것이니 자모(慈母)는 마땅히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소년기 24, 25세 전에 용맹이 미급(未及)하여 희로애락(喜怒哀樂)이 교착(膠着)하게 되면 병이 나는 것이니 지혜로운 아비나 유능한 형이 마땅히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장년기의 38, 39세 전에는 현명한 아우나 선량한 친우가 그를 도와주는 것인 좋을 것이다. 노년기의 56, 57세 전에는 효자나 효손(孝孫)이 그를 북돋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幼年七八歲前 聞見未及而喜怒哀樂膠着 則成病也 慈母宜保護之也 少年  
二十四五歲前 勇猛未及而喜怒哀樂膠着 則成病也 智父能兄宜保護之也



壯年三十八九歲前 則賢弟良朋可以助之也 老年五十六七歲前 則孝子孝孫可以扶之也

[주(註)] ○교착(膠着): 희로애락의 순역부조(順逆不調)의 결과로 인한 진퇴유곡(進退維谷)의 상태.

○성병(成病): 희로애락의 부조(不調)는 폐비간신(肺脾肝腎)의 병원(病源)이 된다.

(참고) ○哀怒之氣逆動則暴發而並於上也喜樂之氣逆動則浪發而並於下也 上升之氣逆動而並於上則肝腎傷下降之氣逆動而並於下則脾肺傷(四端論 16節)

(해설) 유년(幼年) 7, 8세는 1~16의 중간치(中間值)요, 소년(少年) 24, 25세는 17~32의 중간치요, 장년(壯年) 38, 39세는 33~48의 중간치요, 노년(老年) 56, 57세는 49~64의 중간치인 동시에 그 이전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논술하고 있다. 이를 춘하추동으로 논한다면 초춘(初春)·초하(初夏)·초추(初秋)·초동기(初冬期)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 춘하추동으로서는 미흡(未洽)된 시기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소년은 지부능형(智父能兄)이 보호하되 유년은 자모(慈母)만의 보호라 하였으나 이때에 자매(姊妹)의 보호도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희로애락의 교착(膠着)으로 인한 성병(成病)은 결코 심병(心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를 정신의학적이라 함 직하지 않을까. 인간은 유(幼)·소(少)·장(壯)·노(老)의 모든 시기를 통하여 결국 자모(慈母)·지부능형(智父能兄)·현제양봉(賢弟良朋)·효자효손(孝子孝孫)의 ‘애정’이 바람직한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애정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미심술(美心術)이 진호걸(眞豪傑)의 여건이 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선인(善人)의 집에는 선인이 반드시 모이고, 악인(惡人)의 집에는 악인이 반드시 모인다. 선인(善人)이 많이 모이면 선인의 장기(臟氣)가 활동하고, 악인이 많이 모이면 악인의 심기(心氣)가 역세계 왕성하는 것이니 주색재권(酒色財權)을 좋아하는 집에는 악인이 많이

모이는 까닭에 그 집의 효남(孝男)·효부(孝婦)는 병을 얻게 되는 것이다.

善人之家善人必聚 惡人之家惡人必聚 善人多聚則善人之臟氣活動 惡人多聚則惡人之心氣強旺 酒色財權之家惡人多聚 故其家孝男孝婦受病

[주(註)] ○선인(善人): 호걸지토(豪傑之士).

○악인(惡人): 비호걸지사(非豪傑之士).

○장기(臟氣): 호선악악지기(好善惡惡之氣).

○심기(心氣): 사심태행지기(邪心怠行之氣).

(참고) ○人之耳目口好善無雙也人之肺脾肝腎惡惡無雙也(性命論 23節)

○人之頤臆臍腹邪心無雙也人之頭肩腰臂怠行無雙也(性命論 23節)

○積善之家必有餘慶積不善之家必有餘殃(坤卦 文言)

(해설) 속어(俗語)에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 하였거니와 선악인(善惡人)이 끼리끼리 모이게 됨은 리(理)의 당연한 소치일 것이다. 주색재권(酒色財權)이란 인간의 기호물(嗜好物)로서 인간의 주변에서 이를 완전히 일소(一掃)할 수 없는 것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주색재권(酒色財權)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을 것이다. 앞서 악인(惡人)－사심태행지인(邪心怠行之人)－이 다취(多聚)할 정도의 주색재권지가(酒色財權之家)라면 그 안에서 사는 효남(孝男)·효부(孝婦)의 희로애락은 순역부조(順逆不調)하여 교착성병(膠着成病)하게 될 것이라는 것쯤은 어찌할 수 없는 결과일지 모른다.

6. 권술(權術)을 좋아하는 집에는 붕당(朋黨)이 비주(比周)할 것이니 그 집을 패망하게 하는 자는 붕당(朋黨)인 것이다. 재화를 좋아하는 집에는 자손(子孫)이 교우(驕愚)할 것이니 그 집을 패망하게 하는 자는 자손인 것이다.

好權之家朋黨比周 敗其家者朋黨也 好貨之家子孫驕愚 敗其家者子孫也

[주(註)] ○붕당(朋黨): 붕비(朋比)하는 도당(徒黨).

(참고) ○子曰君子周而不比小人比而不周『논어』「위정」)

(해설) 권(權)에는 권모술수(權謀術數)가 따르는 법이고, 권모술수를 일삼는 무리들 중에서는 신의(信義)를 존중하는 인간이란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신의 없는 무리들이 모여드는 집안이 어찌 망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재화(財貨)란 호사(豪奢)의 근본이므로 호사스러운 의식주는 그들 자손들에게 교심(驕心)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교심(驕心)은 우매한 소치인 것이니 자손이 그러하다면 그 재화인들 어찌 제대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호권(好權)·호화(好貨)에 따른 지극한 교훈이다.

7. 어느 사람의 집안에서든지 매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족들의 병이 잇달고 선인과 악인이 서로 맞섬으로써 그 집안이 장차 패망하게 될 무렵에는 오직 명철(明哲)한 자부(慈父)나 효자(孝子)라야 이에 선처(善處)할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다.

人家凡事不成 疾病連綿 善惡相持 其家將敗之地 惟明哲之慈父孝子 處之有術也

[주(註)] ○범사(凡事): 일용사물지사(日用事物之事), 수신제가치국평천하지사(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事).

○질병(疾病): 희노애락교착지병(喜怒哀樂膠着之病).

○선악(善惡): 선은 미심술(美心術), 악은 주색재권(酒色財權).

○자부(慈父): 자모(慈母)·지부(智父)·능형(能兄)·현제(賢弟).

○효자(孝子): 효남(孝男)·효부(孝婦).

○술(術): 방법.

(해설) 속어(俗語)에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 하였거니와 붕당(朋黨)이 비주(比周)하고 자손이 교우(驕愚)하여 가세(家勢)가 패망의 길로 기울게 될 때에는 오직 현부(賢父)·현손(賢孫)만이 이를 바로잡을 기틀을 쥐게 될 것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8. 교사(驕奢)스러우면 수(壽)를 감(減)하고, 나태(懶怠)로우면 수(壽)를 감하며, 편급(偏急)하면 수(壽)를 감하고 탐욕(貪慾)스러우면 수(壽)를 감한다.

驕奢減壽 懶怠減壽 偏急減壽 貪慾減壽

(양(讓)) ○수(壽): 천수(天壽) · 수명(壽命).

(참고) ○頤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性命論 19節)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臂有慾心(性命論 21節)

○人趨心慾有四不同棄禮而放縱者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名曰貪人(四端論 2節)

○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書經』「五福」)

(해설) 교사(驕奢) · 나태(懶怠) · 편급(偏急) · 탐욕(貪慾)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심태행(邪心怠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궁벌과(驕矜伐夸)는 사심(邪心)이요, 탈치나절(奢侈懶驕)은 태행(怠行)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 악인의 소행에 속하는 것이다.

감수(減壽)란 곧 천수(天壽)의 절감(節減)이니 주어진 수명을 다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장부론(臟腑論)에서 ‘천근협소 즉정신기혈모야(淺近狹小 則精神氣血耗也)…편의과불급 즉진액고유삭야(偏倚過不及 則津液膏油燦也)’(12절)라 하였거니와 이 원리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수(天壽)도 인위적 감점(減點)에는 어찌할 길이 없음을 지적함으로써 동무(東武)는 여기서 또다시 인간의 자율성을 과시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9. 사람됨이 교사(驕奢)스러우면 반드시 치색(侈色)에 빠지고, 사람됨이 나태(懶怠)로우면 반드시 주식(酒食)을 즐기며, 사람됨이 편급(偏急)하면 반드시 권세(權勢)를 위하여 싸우고, 사람됨이 탐욕스러우면 재화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

爲人驕奢必耽侈色 爲人懶怠必嗜酒食 爲人偏急必爭權勢 爲人貪慾必殉貨財

[주(註)] ○치색(侈色): 색(色)은 화사(華奢)하므로 치색(侈色)이다.

○기주식(嗜酒食): 식도락(食道樂).

○권세(權勢): 권(權)에는 역(力)·세(勢)·술(術)이 따르는 것이다.

(참고) ○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논어』 「학이」)

○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논어』 「술이」)

(해설) 색(色)은 여색(女色)이니 호화지가(好貨之家)의 교자(驕子)·우손(愚孫)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이 구절은 교사(驕奢)·나태(懶怠)·편급(偏急)·탐욕(貪慾)이 주색재권(酒色財權)으로 내닫는 관문임을 지적하고 있으니 감수(減壽)의 장본(張本)은 곧 주색재권(酒色財權) 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10. 간약(簡約)하면 수(壽)를 얻고, 근간(勤幹)하면 수(壽)를 얻으며,  
경계(警戒)하면 수(壽)를 얻고, 견문(聞見)이 있으면 수(壽)를 얻는다.

簡約得壽 勤幹得壽 警戒得壽 聞見得壽

[주(註)] ○간약(簡約): 간이(簡易)·절약(節約)이니 교사(驕奢)의 반(反).

○근간(勤幹): 근면(勤勉)·간사(幹事)이니 나태(懶怠)의 반(反).

○경계(警戒): 변고(變故)를 조심함이니 편급(偏急)의 반(反).

○문견(聞見): 성현의 청렴한 기풍(氣風)을 문견(聞見)함이니 탐욕(貪慾)의 반(反).

(참고)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논어』 「학이」)

(해설) 간약(簡約)·근간(勤幹)·경계(警戒)·문견(聞見)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지공무사(至公無私)한 호선오악지심(好善惡惡之心)을 바탕으로 한 자들인 것이다. 또한 득수(得壽)란 곧 천수(天壽)

에 더함을 얻음이니 장부론(臟腑論)에서 ‘심원광대(深遠廣大)하면 정신(精神)과 기혈(氣血)이 생한다[深遠廣大則精神氣血生也]…정직중화하면 진액과 고유가 확충된다[正直中和則津液膏油充也]’ (12절)라 한 원리의 구체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무(東武)의 인간자율성의 극치인 것이다.

11. 사람됨이 간약(簡約)하면 반드시 사색(奢色)을 멀리할 것이요, 사람됨이 근간(勤幹)하면 반드시 주식(酒食)에 결백(潔白)할 것이요, 사람됨이 경계(警戒)할 줄 알면 반드시 권세를 피할 것이요, 사람됨이 문견(聞見)이 있으면 반드시 청렴할 것이다.

爲人簡約必遠奢色 爲人勤幹必潔酒食 爲人警戒必避權勢 爲人聞見必清貨財

[주(註)] ○원사색(遠奢色): 사치(奢侈)와 여색(女色)을 가까이하지 않음이다.

○결주식(潔酒食): 맹자(孟子)의 ‘제인결식자(齊人乞食者)’(「이루(離婁)」)야말로 주식(酒食)에 불결(不潔)한 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화재(淸貨財): 탐관오리(貪官汚吏)는 불염화재(不廉貨財)하기 때 문이니 필순화재(必殉貨財)하게 되는 자들(9절)인 것이다

(해설) 이 구절은 간약(簡約)·근간(勤幹)·경계(警戒)·문견(聞見)이야말로 주색재권(酒色財權)과 절연(絶緣)하는 처방인 동시에 천수를 다할 뿐 아니라 수명을 보다 더 연장할 수 있는 첩경임을 지적해 주고 있다. 역시 인간 자율성의 강조인 것이다.

12. 처처(居處)가 황량(荒凉)한 것은 치색(侈色) 때문이요, 행신(行身)이 탐즙(闡茸)한 것은 주식(酒食) 때문이다. 용심(用心)이 번란(煩亂)한 것은 권세(權勢) 때문이요, 사무(事務)가 착란(錯亂)한 것은 재화(財貨) 때문이다.

居處荒涼色之故也 行身闔葺酒之故也 用心煩亂權之故也 事務錯亂貨之故也

[주(註)] ○황량(荒涼): 황(荒)은 치(治)의 반(反), 양(涼)은 온(溫)의 반(反)이니, 즉 ‘거칠고 싸늘함’이다.

○행신(行身): 수신(修身)·제가(齊家).

○탐즙(闔葺): 용렬(庸劣)하고 우둔(愚鈍)함.

○용심(用心): 치국평천하지심(治國平天下之心).

(참고)○事務克修也 交遇克成也 黨與克整也 居處克治也 (性命論 6節)  
(해설) ‘용심(用心)’을 치평지심(治平之心)이라 한 것은 ‘권세(權勢)’란 국가(國家) 천하지사(天下之事)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신(行身)은 수신(修身)이요 동시에 제가(齊家)를 위한 효제(孝弟)의 도(道)로서의 행신(行身)이 되는 것이다.

‘거처극치(居處克治)’인데 황량(荒涼)은 거처불치(居處不治)의 양상이 아닐 수 없다.

사무(事務)는 천자(天子)－목민관(牧民官)－의 사무이니 왜냐하면 다음 13절의 대구(對句)에서 ‘약보궁민화득전공(若保窮民貨得全功)’이라 했기 때문이다. ‘약보궁민(若保窮民)’은 천자(天子)의 ‘여보적자(如保赤子)’가 아닌가.

그러므로 거처(居處)·행신(行身)·용심(用心)·사무(事務) [인사절(人事節) 성명론(性命論) 2절]의 거처(居處)·당여(黨與)·교우(交遇)·사무(事務)와 상응함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다.

13. 만일 숙녀(淑女)를 존경한다면 여색(女色)도 정도(正道)에 알맞을 수 있을 것이요, 만일 양붕(良朋)을 경애한다면 주식(酒食)으로도 덕을 밝힐 수 있을 것이요, 만일 현인을 존상(尊尙)한다면 권세도 술수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궁민(窮民)을 보호해 준다면 재화도 그 공적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若敬淑女色得中道 若愛良朋酒得明德 若尙賢人權得正術 若保窮民貨得全功

[주(註)] ○숙녀(淑女): 요조숙녀군자호구(窈窕淑女君子好逑)(『시전(詩傳)』 「관저(關雎)」)라 하였으니 ‘정숙(貞淑)한 여인.’

○중도(中道): 남녀의 정상적 관계를 뜻한다. 비정상적 관계를 ‘외도(外道)’라 함은 그 까닭이다.

○명덕(明德): 주광(酒狂)은 실덕(失德)의 근원이니 유주무량불급난(唯酒無量不及亂)(『논어』 「향당」)은 명덕(明德)이 아니겠는가.

○정술(正術): 정술이란 신의에 기초를 둔 경륜을 의미한다.

○전공(全功): 재화는 교사(驕奢)의 원인이 되기 쉬우나 홀민지재(恤民之財)로 쓰면 본연의 구실을 다할 것이다.

(해설) 13절과 대(對)를 이루고 있다. 경숙녀(敬淑女)는 거처를 극치(克治)하는 길이요, 애양붕(愛良朋)은 수신하는 일이요, 상현인(尙賢人)은 치국평천하지사(治國平天下之事)요, 보궁민(保窮民)은 천자목민지사(天子牧民之事)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생일대의 행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14. 주(酒) · 색(色) · 재(財) · 권(權)을 예로부터 경계(警戒)하여 이를 일러 네 담벼락이라 하고 감옥에 비유하였으니, 비단 일신(一身)의 수요(壽夭)나 일가(一家)의 화복(禍福)이 이에 달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천하의 치란(治亂)이 또한 여기에 있으니, 만일 한 번 천하의 주색재권(酒色財權)으로 하여금 어긋난 기풍(氣風)에 쓸리지 않게 한다면 거의 요(堯) · 순(舜) · 주소남(周召南)의 세상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다.

酒色財權自古所戒 謂之四堵牆而比之牢獄 非但一身壽夭 一家禍福之所係也 天下治亂亦在於此 若使一天下酒色財權 無乖戾之氣 則庶幾近於堯舜周召南之世矣

[주(註)] ○뇌옥(牢獄): 감옥.

○괴려(乖戾): 사리(事理)에 어긋남.

○요(堯) · 순(舜): 중국 고대의 성왕(聖王).

○주소남(周召南): 주공단(周公旦)과 소공석(召公奭)이 다스리던



남방 제후지국, 덕화가 크게 미친 곳.

(해설) 주색재권(酒色財權)을 감옥의 사면 담벼락에 비유하고, 패가망신(敗家亡身)뿐만이 아니라 경국실천하(傾國失天下)의 원인도 주색재권(酒色財權)을 잘못 다루는 데 있다고 하였다. 광제설(廣濟說)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5. 대체로 인간이란 간략(簡約)하면서 근간(勤幹)하고 경계(警戒)하면서 문견(聞見)이 있어야 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온전하게 갖춘 자는 저절로 상수(上壽)하고, 간략(簡約)·근간(勤幹)하면서 경계(警戒)하거나 혹은 문견(聞見)이 있고 경계(警戒)하면서 근간(勤幹)하거나 하여 세 가지를 갖춘 자는 다음으로 수(壽)하고, 교사(驕奢)하면서 근간(勤幹)하거나 경계(警戒)하면서 탐욕(貪慾)스럽거나 혹은 간략(簡約)하면서 나태(懶怠)하거나 편급(偏急)하면서도 문견(聞見)이 있어서 두 가지를 갖춘 자는 공경(恭敬)하면 수(壽)하고 태만(怠慢)하면 요절(夭折)할 것이다.

凡人簡約而勤幹 警戒而聞見 四材圓全者自然上壽 簡約勤幹而警戒 或聞見警戒而勤幹 三材全者次壽 驕奢而勤幹 警戒而貪慾 或簡約而懶怠 偏急而聞見 二材全者 恭敬則壽 怠慢則夭

[주(註)] ○공경(恭敬): 16절을 참조하라.

○태만(怠慢): 상동(上同).

(해설) 인간의 수(壽)를 상수(上壽)·차수(次壽)·수(壽)·공경즉수(恭敬則壽)·태만즉요(怠慢則夭)의 4단계로 구분하고 모두가 자신의 자율적 행실에 의하여 그 단계가 결정됨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절은 본절의 주각(注脚)이 될 것이다.

16. 대체로 인간은 공경하면 반드시 수(壽)하고 태만하면 반드시

요절하며, 근근(謹勤)하면 반드시 수(壽)하고 허탐(虛貪)하면 반드시 요절할 것이니, 주린 자의 창자가 갑자기 음식을 얻게 되면 창자의 기운이 흐트러질 것이다. 가난한 자의 골수(骨髓)에 갑자기 재물이 생기면 골력(骨力)이 말라붙을 것이다. 주린 자도 편안히 주린다면 창자의 기운도 제대로 간직되고, 가난한 자도 마음 편히 가난하다면 골력(骨力)도 제구실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은 능히 주림을 참아낼 수 있게 하며 배부른 것을 탐내지 않는 것으로써 공경하고, 의복은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하며 따스운 것을 탐내지 않는 것으로써 공경하고, 근력(筋力)은 근로할 수 있게 하며 안일함을 탐내지 않는 것으로써 공경하고, 재물은 조심스럽게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하며 구차하게 얻는 것을 탐내지 않는 것으로써 공경해야 할 것이다.

凡人恭敬則必壽怠慢則必夭 謹勤則必壽虛貪則必夭 飢者之腸急於得食則腸氣蕩矣 貧者之骨急於得財則 骨力竭矣 飢而安飢則腸氣有守 貧而安貧則骨力有立 是故飲食以能忍飢而不貪飽爲恭敬 衣服以能耐寒而不貪溫爲恭敬 筋力以能勤勞而不食安逸爲恭敬 財物以能謹實而不貪苟得爲恭敬

[주(註)] ○공경(恭敬): 일신(一身)의 근신(謹慎)이니 대자적(對自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기(敬己)’의 공경이다.

○근근(謹勤): 근신(謹慎)[심(心)]과 근로(勤勞)[신(身)].

○허탐(虛貪): 허(虛)는 불실(不實)이니 불실지대(不實之對)의 식욕(食慾).

○장기(腸氣): 위장기능(胃腸機能).

○골(骨): 빈자(貧者)이기에 수척(瘦瘠)하여 척골(瘠骨)만 남았음을 의미한다.

○근실(謹實): 재물(財物)인 경우 실(實)은 소득(所得)을 의미한다. (해설) 소위 안빈낙도(安貧樂道) · 안심입명(安心立命) · 심일신로(心逸身勞) 등의 명구(名句)들이 연상되는 구절이다.

근세에 이르러 ‘급어득식(急於得食)’은 아마도 ‘급어영양식(急於

營養食)’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병의 원인이 되었고, 부의 축적은 ‘신일심로(身逸心勞)’의 역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현대인들에게도 박근(迫近)한 경구(警句)가 아닐 수 없다.

17. 산골짜기 사람들은 문견(聞見)이 없으면 요절(夭折)의 화(禍)를 당하고, 시정(市井) 사람들은 간략(簡約)하지 않으면 요절의 화를 당하고, 농경(農耕)하는 사람들은 근간(勤幹)하지 않으면 요절의 화를 당하고, 독서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지 않으면 요절의 화를 당한다.

山谷之人沒聞見而禍夭 市井之人沒簡約而禍夭 農畝之人沒勤幹而禍夭  
讀書之人沒警戒而禍夭

[주(註)] ○몰(沒): 없음, 아니함.

(해설) 인간을 생활환경에 따라서 산곡(山谷)·시정(市井)·농무(農畝)·독서(讀書)의 4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산곡(山谷)이란 시정(市井)·농무(農畝)를 제외한 곳이니 그러면 심산유곡(深山幽谷)으로서 인적부도처(人跡不到處)를 가리킨 것일까. 그것은 너무도 고지식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산곡지인(山谷之人)은 몰문견이화요(沒聞見而禍夭)라 하였으니 문견(聞見)은 탐욕(貪慾)과 대(對)가 되고, 식욕(食慾)은 재화(財貨)에 관계된 것이니 유곡지인(幽谷之人)은 ‘약보궁민화득전공(若保窮民貨得全功)’해야 하는 목민자(牧民者)를 가리킨 것이다.

시정지인(市井之人)은 몰간약이화요(沒簡約而禍夭)라 하였으니 간약(簡約)은 교사(驕奢)와 대(對)가 되고, 교사(驕奢)는 치색(侈色)에 관계된 것이니 시정지인(市井之人)은 현대도시의 상공인(商工人)에 해당되는 것이다.

농무지인(農畝之人)은 몰근간이화요(沒勤幹而禍夭)라 하였으니 근간(勤幹)은 나태(懶怠)와 대(對)가 되고, 나태는 주식(酒食)과 관계된 것이니 농무지인(農畝之人)은 주득명덕(酒得明德)해야 할 것이다. 독서지인(讀書之人)은 몰경계이화요(沒警戒而禍夭)라 하였으니 경계(警戒)는 편급(偏急)과 대(對)가 되고, 편급(偏急)은 권세(權勢)와

관계된 것이니 독서지인(讀書之人)은 성급한 출세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18. 산골짜기 사람들은 마땅히 문견(聞見)이 있어야 하는데 문견(聞見)이 있으면 수(壽)의 복(福)을 누리고, 시정(市井) 사람들은 마땅히 간략(簡約)해야 하는데 간약하면 수(壽)의 복을 누리며, 향야(鄉野) 사람들은 마땅히 근간(勤幹)해야 하는데 근간하면 복(壽)의 복을 누리고, 사림(士林) 사람들은 마땅히 경계(警戒)해야 하는데 경계하면 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山谷之人宜有聞見 有聞見則福壽 市井之人宜有簡約 有簡約則福壽 鄉野之人宜有勤幹 有勤幹則福壽 士林之人宜有警戒 有警戒則福壽

[주(註)] ○향야(鄉野): 농무지지(農畝之地).

○사림(士林): 유림(儒林).

(해설) 17절의 반대측면을 설명한 구절이다.

산곡지인(山谷之人)이 문견(聞見)이 있으면 ‘필청화재(必淸貨財)’ 할 것이니 복수(福壽)를 누릴 수밖에……

시정지인(市井之人)이 간약(簡約)하면 ‘필원사색(必遠奢色)’ 할 것이니 복수(福壽)를 누릴 수밖에……

향야지인(鄉野之人)이 근간(勤幹)하면 ‘필결주식(必潔酒食)’ 할 것이니 복수(福壽)를 누릴 수밖에……

토림지인(士林之人)이 경계(警戒)하면 ‘필피권세(必避權勢)’ 할 것이니 복수(福壽)를 누릴 수밖에……(11절 참조).

19. 산골짜기 사람들이 만일 문견(聞見)이 있으면 수복(壽福)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산골짜기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시정(市井) 사람들이 만일 간략(簡約)하다면 복수(福壽)를 누릴 뿐만이 아니

라 이 사람은 시정(市井)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향야(鄉野)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일 근간(勤幹)하다면 복수(福壽)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향야(鄉野)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사림(士林)에 있는 사람들이 만일 경계(警戒)한다면 복수(福壽)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림(士林)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山谷之人若有聞見 非但福壽也 此人卽山谷之傑也 市井之人若有簡約 非但福壽也 此人卽市井之傑也 鄉野之人若有勤幹 非但福壽也 此人卽鄉野之傑也 士林之人若有警戒 非但福壽也 此人卽士林之傑也

[주(註)] ○걸(傑): 호걸, 출중한 인간.

(해설) 특히 산곡(山谷)·시정(市井)·향야(鄉野)·사림(士林)의 걸자(傑者)를 말한 것은 그만큼 출곡지인(出谷之人)의 문견(聞見)[재(財)], 시정지인(市井之人)의 간약(簡約)[색(色)], 향야지인(鄉野之人)의 근간(勤幹)[주(酒)], 사림지인(士林之人)의 경계(警戒)[권(權)]는 범부(凡夫)의 미칠 바가 못 됨을 가리킨 것이다. 주색재권(酒色財權)의 뇌옥(牢獄)에서 초탈하자면 특단의 분발이 필요한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농부들은 원래 힘으로 농사를 지으니 가장 근간(勤幹)한 자들인데 왜 근간(勤幹)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사인(士人)들은 원래 독서를 하고 있으니 가장 경계하는 자들인데 왜 경계하지 않는다고 하였는가.” 대답하기를 “백 마지기의 농토를 잘 못 다스릴까 봐 그것을 제 걱정으로 삼는 것이 농부들의 임무인 것이니 농부를 사인(士人)들과 비교한다면 진정 그들은 나태한 자들이다. 사인(士人)들이란 무던히 독서를 하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헛되이 뿔내고, 농부들은 눈으로 글자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항

상 몸에 지니듯 기억을 하고 있으니 사인(士人)들은 농부들과 비교한다면 진정 그들은 경계하지 않는 자들이다. 만일 농부들이 글자 익히는 데 부지런하거나 사인(士人)들도 힘써 일하는 습성을 들인다면 재조(才操)나 성품이 조밀(調密)해지고 장기(臟氣)도 견고해질 것이다.”

或曰農夫元來最是力作 勤幹者也 而何謂沒勤幹 士人元來讀書 最是警戒者也 而何謂沒警戒耶 曰以百畝之不治爲己憂者 農夫之任也 農夫而比之 士人 則眞是懈怠者也 士人頗讀書故心恒妄矜 農夫目不識字故心恒佩銘 士人而擬之農夫 則眞不警戒者也 若農夫勤於識字 士人習於力作 則才性 調密臟氣堅固

[주(註)] ○망궁(妄矜): 망녕되게 자궁(自矜)함.

○패명(佩銘): 몸에 차고 돌에 새긴 듯 기억함.

○의(擬): 비(比).

(참고) ○堯以不得舜爲己憂 舜以不得禹皐陶爲己憂 夫以百畝之不易爲己憂者 農夫也(『맹자』 「공손추」)

(해설) 이상 여러 절(節)이 주해구(註解句)이다. 농부는 노동위주(勞動爲主)의 역작인(力作人)이요 사인(士人)은 정신위주의 독서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다른 한쪽은 허술하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족을 서로 보충하여 과부족(過不足) 없는 조화나 균형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21. 교사(驕奢)스런 자의 마음은 여염집 살림살이를 허술하게 다루며, 천하의 가정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보고 느끼는 것은 교활하고 호탕하기만 하여 산업의 어려운 고비는 까맣게 모르고, 재력을 마련하는 방략도 심히 서투르기만 하니, 매양 여색(女色)에 빠진 바 되어 종신(終身)토록 뉘우칠 줄을 모른다.

驕奢者之心 藐視閭閻生活 輕易天下室家 眼界驕豪 全昧産業之艱難 甚

劣財力之方略 每爲女色所陷 終身不悔

[주(註)] ○막시(藐視): 멸시·경시·업신여김· 깔봄.

○여염(閭閻): 촌민들이 모여 사는 곳.

○산업(產業): 생산수단.

○종신(終身): 일평생.

(해설) 인간은 나면서 이미 ‘평범한 서민’이요 ‘가정인’인지도 모른다. 그가 호사스러운 것은 후천적인 가세의 덕분이 아닐 수 없다. 생활의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난 자손들 중에 흔히 여색(女色)에 탐닉하여 전도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많다. 그는 인생의 진의(眞意)가 외화(外華)에 있지 않고 내실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소중히 여겨야 할 ‘가정’을 경시하고, 경원(敬遠)해야 할 여색에 빠지는 것은 실로 그의 생활 가치관의 전도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서민적 가정인을 소중히 여기는 동무(東武)의 가르침이 있다.

22. 나태(懶怠)한 자의 마음은 극히 거칠고 사나워서 푼푼이 쌓아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매양 헛되이 큰 꿈만을 꾸려고 하며, 대체로 그의 마음가짐은 심히 근간(勤幹)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자신은 술 세계로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니 근간(勤幹)하기를 피하려는 일시적 계획인 것이다. 대체로 나태한 자 치고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는 자는 없는 것이니 술주정뱅이만 만나보더라도 반드시 나태한 사람의 마음은 거칠고 사납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懶怠者之心 極其麤猛 不欲積工之寸累 每有虛大之囊筭 蓋其心甚憚勤幹 故欲逃其身於酒國 以姑避勤幹之計也 凡懶怠者無不縱酒 但見縱酒者則必知其爲懶怠人心麤猛也

[주(註)] ○추맹(麤猛): 거칠고 사나움.

○촌루(寸累): 잔돈 부스러기.

○옹산(壺簞): 옹기 장사 구구(九九).

○주국(酒國): 술타령하는 곳.

○주종(酒縱): 함부로 마시는 술.

(참고) 唯酒無量 不及亂(『논어』 「향당」)

(해설) 술이란 인간사회에서 없을 수 없는 필수물이다. 산 사람들의 연락(宴樂)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귀신(鬼神)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주(祭酒)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술로 인한 부도덕은 그의 무절제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요는 동간(動幹)을 피한 주종자(酒縱者)가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하기 싫은 게으름뱅이로서 술주정뱅이가 된 자가 문제인 것이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데 [조흥(助興)] 어찌 사람이 술에 먹혀 앞뒤를 못 가리는 주정뱅이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23. 술과 색(色)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술독이 창자를 마르게 하고 색노(色勞)가 정력을 말라붙게 한다”고 하지만 이는 그중의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술주정뱅이들은 일신(一身)의 수고를 싫어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고, 색(色)에 미혹된 자는 계집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칼날 같아서 만 갈래로 찢긴 구비구비 마음씨가 술독과 색노(色勞)와 함께 힘을 합하여 공격하므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酒色之殺人者 人皆曰酒毒枯腸色勞竭精云 此知其一未知其二也 縱酒者厭勤其身 憂患如山 惑色者深愛其女 憂患如刀 萬端心曲與酒毒色勞 並力攻之而殺人也

[주(註)] ○주독(酒毒): 알코올 중독.

○색노(色勞): 과색피로(過色疲勞).

○종주(縱酒): 낙정(酪酊).

○혹색(惑色): 탐닉여색(耽溺女色).

(참고) ○梁惠王曰 寡人願安承教 孟子對曰 殺人以梃 與刀有以異乎 曰



無以異也 以刀與政有以異乎 曰無以異也(『맹자』 「양혜왕」)

(해설) 소위 ‘살인’이란 직접적인 살인만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살인도 살인인 것이다. 자살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인 음독 자결·투신 등의 자살도 있지만 단식·자포자기 등의 간접적 방법도 자살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주색(酒色)’에 의한 살인행위를 ‘살인’으로 규정하려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그것은 인생향락의 극치인 양 그릇 인식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실로 ‘이주망국(以酒亡國)’·‘이색경국(以色傾國)’은 그만두고라도 한 인간이 술로 망신(亡身)하고 색(色)으로 패가(敗家)하는 예는 그리 드물지 않다. 패가망신이 어찌 간접적 살인이 아니겠는가.

‘우환여산(憂患如山)’·‘우환여도(憂患如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살인도구인 것이다. 우환의 원인이 타의(他意)에 의한 것이라면 타살도구이겠고, 그 원인이 자의(自意)에 의한 것이라면 자살도구가 되는 셈이다. 주색(酒色)에 의한 우환은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의 범위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색에 의한 자살행위는 인생 최대의 우거(愚擧)가 아닐 수 없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4. 광둥(狂童)은 반드시 음녀(淫女)를 사랑하고 음녀(淫女)는 또한 광둥(狂童)을 사랑하며, 우부(愚夫)는 반드시 투부(妬婦)를 사랑하고 투부(妬婦)는 또한 우부(愚夫)를 사랑하는 것이니, 만물의 이치로 이를 따져보더라도 음녀(淫女)는 단연코 광둥(狂童)의 배필(配匹)에 합당할 것이요, 우부(愚夫)는 또한 투부(妬婦)의 배필됨이 마땅할 것이다. 대체로 음녀(淫女)나 투부(妬婦)는 악인이나 천인(賤人)의 배필이 될 수는 있어도 군자나 귀인의 배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칠거지악(七去之惡) 중에서도 음거(淫去)·투거(妬去)가 그 으뜸되는 악이지만 세속 사람들은 투(妬) 자의 뜻을 잘 모르고 단지 많은 첩(妾)들을 미워하며 투기하는 것만을 야기한다. 귀인(貴人)이 후사(後嗣)를 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부인이 귀인(貴人)이 첩을  
 갖는 것을 미워하며 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법이다. 그러나  
 가도(家道)를 어지럽히는 근본이 미상불 많은 첩을 거느리는 데 있기  
 때문에 부인이 첩들의 사특(邪慝)한 미태(媚態)를 미워하며 투기하는  
 것은 오히려 부인의 현덕(賢德)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어찌 투(妬)자  
 의 뜻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옛 시에

복숭아나무 앓되고 예쁨이여  
 그 이파리 질게 푸르도다.  
 이 아가씨 시집감이여  
 그 집안사람들 화목케 하도다

하였으니 그 집안사람들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현인(賢人)을 좋아  
 하며 선행(善行)을 즐기면서 그 집안사람들과 화목하다는 것을 이름  
 이요, 그 집안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인(賢人)을  
 미워하며 재능(才能)을 투기하면서 그 집안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름이다. 대체로 어느 사람의 집안에서 질병이 잇달  
 고 사망이 뒤따르며 자손은 천치(天蚩) 바보가 되고 자산(資產)은 몰  
 락하여 없어지는 것은 우부(愚夫)나 투부(妬婦)가 현인(賢人)을 투기  
 (妬忌)하며 재능(才能)을 질시(嫉視)하는 데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란 없는 것이다.

狂童必愛淫女 淫女亦愛狂童 愚夫必愛妬婦 妬婦亦愛愚夫 以物理觀之  
 則淫女斷合狂童之配也 愚夫亦宜妬婦之匹也 蓋淫女妬婦可以爲惡人賤人  
 之配匹也 不可以爲君子貴人之配匹也 七去惡中淫去妬去爲首惡 而世俗  
 不知妬字之義 但以憎疾衆妾爲言 貴人之繼嗣最重 則婦人必不可憎疾 貴

人之有妾而亂家之本未嘗不在於衆妾則婦人之憎嫉衆妾之邪媚者 猶爲婦人之賢德也 何所當於妬字之義乎 詩云桃之夭夭其葉蓁蓁 之子于歸 宜其家人 宜其家人者 好賢樂善而宜於家人之謂也 不宜其家人者 妬賢嫉能而不宜於家人之謂也 凡人家疾病連綿 死亡相隨 子孫愚蟲 資產零落者 莫非愚夫妬婦妬賢嫉能之所做出也

[주(註)] ○광동(狂童): 호색광(好色狂), 색골.

○음녀(淫女): 음탕녀(淫蕩女).

○악인(惡人): 사심태행지인(邪心怠行之人), 즉 부도덕한 소인.

○천인(賤人): 무위지인(無位之人).

○군자(君子): 유덕자(有德者), 명망가(名望家).

○귀인(貴人): 유위지인(有位之人), 관작자(官爵者),

○칠거악(七去惡): 불순구고거(不順舅姑去) · 무자거(無子去) · 음거(淫去) · 투거(妬去) · 유악질거(有惡疾去) · 다언거(多言去) · 절도거(竊盜去)(『대대례(大戴禮)』).

○계사(繼嗣): 후계자(後繼者).

○도지요요(桃之夭夭): 『시경』 「주남(周南)」 · 도요삼장(桃夭三章)

○호현락선(好賢樂善): 현(賢)은 현인이요, 선(善)은 선행.

○투현질능(妬賢嫉能): 능(能)은 재능(才能).

(참고) ○子惠思我 褰裳涉溱 子不我思 豈無他人 狂童之狂也且(『시경』 「정풍」)

(해설) 이 구절에서는 유교의 가정윤리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유교의 가족주의는 계사(繼嗣)를 중시하는 점에서 대첩제도(帶妾制度)를 긍정하고 있으나—무조건 일부다처제와는 구별되며 무자(無子)[무남(無男)] 시에 한하여 부실(副室)(첩)을 인정한다—유자(有子) 시에는 축첩(蓄妾)을 단연코 항의하는 것이 오히려 부인의 현덕(賢德)이란 점에서 본절(本節)의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종내에는 소위 부가장제(父家長制)를 중심으로 하여 생겼던 일부다처제도에 의한 축첩(蓄妾)을 반대한 여인은 ‘투거(妬去)’해야 한다는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이를 합리화시켰으나 유자지시(有子之時)의 여인의 투기(妬忌)는 오히려 부인의 현덕(賢德)이라는 동무(東武)의 주장은 새로운 각도에서 흥미할 만한 것이다. 자못 유자(有子) 무자(無子)라는 조건이 현대적 요청에는 불합리하다는 사실은 동무(東武)와의 사이에는 시대적 차(差)와 아울러

유교윤리의 수용도(受容度)의 차(差) 때문에 부득이한 점이라는 것은 시인해야 할 것이다.

광동(狂童)·음녀(淫女)나 우부(愚夫)·투부(妬婦)의 관능적 행위는 군자(君子)·현부(賢婦)의 질시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거나와 ‘호현락선(好賢樂善)’의 경지에까지 인생의 가치생활은 지양(止揚)되어야 함을 제시한 데에 동무(東武) 광제설(廣濟說)의 궁극적 목표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5. 천하의 악(惡)은 투현질능(妬賢嫉能)보다도 더 많은 것은 없을 것이요, 천하의 선(善)은 호현락선(好賢樂善)보다도 더 큰 것은 없을 것이다. 투현질능(妬賢嫉能)이 아닌데도 악이라 한다면 악이라 하더라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요, 호현락선(好賢樂善)이 아닌데도 선이라 한다면 선이라 하더라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더듬더듬 더듬어서 생각해 본다면 천하의 병에 걸린다는 것은 모두 투현질능(妬賢嫉能)에서 나오는 것이요, 천하의 병을 구원한다는 것은 모두 호현락선(好賢樂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현질능(妬賢嫉能)은 천하에서도 가장 많은 병이요, 호현락선(好賢樂善)은 천하에서도 아주 큰 약이 되는 것이다.

天下之惡莫多於妬賢嫉能 天下之善莫大於好賢樂善 不妬賢嫉能而爲惡則惡必不多也 不好賢樂善而爲善則善必不大也 歷稽往牒 天下之受病都出於好賢樂善妬賢嫉能 天下之多病也 好賢樂善天下之大藥也

[주(註)] ○역계(歷稽): 역계(歷階). 차례차례로 상고함.

○왕첩(往牒): 지나간 기록.

(해설) 이 구절에서 ‘병(病)’과 ‘약(藥)’의 개념은 병리학적이거나 약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윤리학적인 것이다. ‘질병’의 병리학적 개념은 기능장해가 아니면 병균침식일 것이요, ‘약물(藥物)’의 약리학(藥理學)은 초근목피에 근거를 둔 자가 아

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란 투현질능(妬賢嫉能)이요 투현질능(妬賢嫉能)에서 오지 않은 병이란 그다지 대단치 않은 병이요, ‘약’이라 하더라도 호현락선(好賢樂善)에 덮을 대약(大藥)은 없다고 설파한 것이다.

철학·종교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정치·경제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윤리라는 인간적인 선행위(善行爲)가 문제의 핵이 되어 있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지만, 이제 윤리가 의학의 영역에까지 깊이 파고든 것이 바로 동무(東武)의 사상설(四象說)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도 사상론(四象論)이란 윤리적 의학설이라 해야 할는지 모른다.

妬賢嫉能	天下之	多病	也
好賢樂善		大藥	

이 표야말로 광제설(廣濟說)의 총결인 동시에 사상설(四象說)의 저변 구조라고 해야 할 것이다.

## 제7장 사상인(四象人) 변증론(辨證論)

1. 태소(太少) 음양인(陰陽人)을 현재 눈어림으로 한 고을의 인구를 대략 만 명으로 친다면 태음인(太陰人)이 5천이요, 소양인(少陽人)이 3천이요, 소음인(少陰人)이 2천이요, 태양인(太陽人)의 수는 극히 적어서 한 고을에 3, 4인 내지 십여 인에 불과하다.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一縣萬人數 大略論之則 太陰人 五千人也 少陽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絕少一縣中或 三四人十餘人而已

(해설) 이 통계는 적어도 7, 80년 전에 나온 것이니만큼 오늘날에 와서 그대로 부합된다고 시인하긴 어렵고, 또 사람의 체질은 지역·인종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이는 관북(關北) 지방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지방은 대륙을 접해 있는 관계상 태음인(太陰人)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서울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와 상반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음인(少陰人)이 50%, 태음인(太陰人)이 30%, 소양인(少陽人)이 20%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역시 태양인(太陽人)의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2. 태양인(太陽人)의 형체(形體)와 기상(氣像)은 뇌추(腦顚, 목덜미)의 기세(起勢)가 성장(盛壯)하고 허리둘레의 서 있는 자세가 외롭고 약하다. 소양인(少陽人)의 체형과 기상은 가슴둘레의 싸고 있는 형세가 성장(盛壯)하고 궁둥이[방광(膀胱)]의 앉은 자세가 외롭고 약하다. 태음인(太陰人)의 체형과 기상은 허리둘레의 서 있는 자세가 성장(盛壯)하고 뇌추(腦顚, 목덜미)의 기세가 외롭고 약하다. 소음인(少陰人)의 체형과 기상은 궁둥이의 앉은 자세가 성장(盛壯)하고 가슴둘레의 싸고 있는 형세가 외롭고 약하다.

太陽人 體形氣像 腦顚之起勢盛壯 而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 而 腦顚之起勢 孤弱 少陰人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 而胸襟之包勢 孤弱

[주(註)] ○체형(體形): 몸의 생긴 모습, 생김생김.

○기상(氣像): 사람이 타고난 마음씨와 겉으로 들어난 몸가짐 및 태도.

○흉금(胸襟): 가슴속, 마음을 의미한 것이나 여기서는 가슴의 외곽을 말한 것이다.

○방광(膀胱): 오줌통을 말한 것이나 여기서는 엉덩이[관골(髕骨)] 전체를 의미한 것이다.

(해설) 이는 사상인(四象人) 체질의 외형을 설명한 것이다.

(ㄱ) 태양인(太陽人)의 생긴 모습은 남이 보기에 목덜미의 기운이 왕성하고 허리의 둘레가 외롭고 약하다. 태양인은 본래 내장의 폐(肺)가 크고 간(肝)이 작기 때문에 상부 목덜미가 발달되고 간(肝) 부위인 허리가 약하다.

(ㄴ) 소양인(少陽人)의 생긴 모습은 외모로 보아 가슴둘레가 성장하고 엉덩이의 앉은 자세가 외롭고 약하다. 소양인은 본래 내장의 비(脾)가 크고 신(腎)이 작기 때문에 비부(脾部) 흉곽이 발달되고 신부(腎部) 엉덩이가 약한 것이다.

(ㄷ) 태음인(太陰人)의 생긴 모습은 외모로 보기에 허리둘레의 서 있는 자세가 왕성하고 목덜미의 기운이 약하다. 태음인은 본래 내장의 간(肝)이 크고 폐(肺)가 작기 때문에 간부(肝部) 허리가 발달되고 폐부(肺部) 목덜미가 약한 것이다.

(ㄹ) 소음인(少陰人)의 생긴 모습은 외모로 보아 엉덩이의 앉은 자세가 왕성하고 가슴둘레의 싸고 있는 기운이 외롭고 약하다. 소음인은 본래 내장의 신(腎)이 크고 비(脾)가 작기 때문에 엉덩이가 발달되고 흉곽이 협소하고 약하다.

3. 태양인(太陽人)의 성질은 소통하는 데 장점이 있고, 재간은 교우(交遇)에 유능하다. 소양인(少陽人)의 성질은 굳세고 날랜 데 장점이 있고 재간은 사무(事務)에 유능하다. 태음인(太陰人)의 성질은 성취하는 데 장점이 있고 재간은 거처(居處)에 유능하다. 소음인(少陰人)의 성질은 단정하고 침착한 데 장점이 있고 당여(黨與)에 유능하다.

太陽人性質 長於疏通而材幹 能於交遇 少陽人性質 長於剛武而材幹 能於事務 太陰人性質 長於成就而材幹 能於居處 少陰人性質 長於端重而材幹 能於黨與

[주(註)] ○소통(疏通): 막힘없이 서로 트인 것.

○재간(材幹): 재주 있고 능청스러운 것.

○교우(交遇): 벗과 만나고 사귀(성명론 참조).

○강무(剛武): 무사와 같이 단단한 것.

○사무(事務): 공직 또는 사적으로 직업을 다루는 일(성명론 참조).

○성취(成就): 생각한 일을 목적으로 이루는 것.

○거처(居處): 일정한 곳에 본거를 두고 기거를 하는 것(성명론 참조).

○단중(端重): 단정하고 경망스럽지 않은 것.

○당여(黨與): 한편이 되는 무리를 말함(성명론 참조).

(해설)

(ㄱ) 태양인(太陽人)의 성질은 무슨 일이나 막힘없이 탁 트이게



처리하고, 재간은 친구들과 사귀는 일에 유능하다.

(ㄴ) 소양인(少陽人)의 성질은 대쪽같이 곧고 단단하며, 재간은 공사 간에 이해를 초월하고 처리하는 데 유능하다.

(ㄷ) 태음인(太陰人)의 성질은 무슨 일이나 착수한 것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인내심과 지구력이 강하다. 재간은 일정한 곳에 오래 참고 견디며 거처하는 데 유능하다.

(ㄹ) 소음인(少陰人)의 성질은 단정하고 침착하며 무슨 일이나 치밀하게 생각하고 재간은 조직과 처리하는 데 유능하다.

4. 태양인(太陽人)의 체형은 본래 분간하기 어렵지 않으나 그 숫자가 적어서 가장 분별하기 어렵다. 그 신체의 상태는 뇌추(腦髓)(목덜미)가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성질은 남과 잘 소통하며 또 과단성이 있다. 그의 병(病)은 일격(噎膈) 반위증(反胃證)·해역증(解僂證)이 있어 또한 저절로 분별하기 쉬우나 이 증세가 중하고 위험하기 전에는 별로 큰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완전하고 무병 건장한 사람과 같다. 또 소음인(少陰人) 노인에게도 일증(噎證)이 있으니 태양인 병으로 잘못 알고 다스려서는 안 된다.

太陽人體形 元不難辨而 人數稀罕故 最爲難辨也 其體形腦髓之起勢 強旺性質 疏通 又有果斷 其病噎膈反胃解僂證 亦自易辨 而病未至重險之前 別無大證 完若無病 壯健人也 少陰人老人 亦有噎證 不可誤作太陽人治

5. 태양인(太陽人)의 여자가 체형이 건강하고 충실하나 간(肝)이 작고 옆구리가 협소하여 자궁이 부족하므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육축(六畜)을 놓고 이치를 따지더라도 들소나 들말이 보통 소와 말보다 크고 충실해도 새끼를 갖지 못하는 이치로 미루어 충분히 알 수 있다.

太陽女 體形 壯實而肝小脅窄 子宮 不足故鮮能生產 以六畜玩理 而太陽  
牝牛馬 體形壯實而亦鮮生產者 其理可推

[주(註)] ○육축(六畜): 여섯 가지의 가축, 즉 소·말·돼지·양·  
닭·개.

○태양빈우마(太陽牝牛馬):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소나 암말(돌  
소·돌말).

(해설) 태양인(太陽人)은 폐실간허(肺實肝虛)한 체질로 간(肝)은 음  
장(陰臟)에 속하며 생식기를 주관하므로 태양인(太陽人) 여자 중  
에는 자궁발육불전(子宮發育不全)으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 임신을 하되 다산을 하지 못하며, 소나 말에 있어서는 몸  
이 크고 충실하나 아무 이유 없이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소 또  
는 암말을 돌소·돌말이라고 한다.

6. 소양인(少陽人) 체형의 모양은 상체가 성장하고 하체가 약하며  
가슴이 충실하고 발이 가볍다. 말하는 것이나 몸가짐이 경솔하고 또  
날래며 용맹을 좋아한다. 그 수가 많으므로 사상인 중에는 가장 분  
별하기 쉽다.

少陽人體形 上盛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 而人數 亦多 四象人中 最爲  
易辨

(해설) 소양인(少陽人)은 태양인과 마찬가지로 상체가 실하고 하  
체가 약하다. 특히 가슴이 발달되고 다리가 가볍다. 항상 마음  
이 조급하고 가슴에서 열화가 끓어서 찬 것과 찬물을 좋아한다.  
걸을 때는 가슴의 열화를 발산하기 위하여 고개를 쳐들고 먼 데  
를 바라보고 걸으며 또 걸음걸이가 빠르다. 그러므로 단거리 경  
주나 등산할 때는 남보다 호흡조절을 잘 한다.

또 소양인은 애(哀)로서 감상적이긴 하나 정의에 불타 있어 불  
의를 보고 참지 못하며 해야 할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고  
야마는 날카로운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모로 보나

성격으로 보아 체질감별이 가장 용이하다.

7. 소양인(少陽人) 중에도 혹 키가 작고 단정하여 외형이 흡사 소음인(少陰人) 같은 자가 있으므로 그 병세와 한열(寒熱)을 관찰하여 자세히 집중(執證)하여 잘못 소음인으로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少陽人 或有短小靜雅 外形 恰似少陰人者 觀其病勢寒熱 仔細執證 不可誤作少陰人治

(해설) 혹 소양인(少陽人) 중에도 마치 소음인과 비슷한 데가 있어 고요하고 단정하여 소음인으로 잘못 보기 쉬우므로 병 증세를 잘 참작하고 약을 써보면 반드시 체질 판단이 되지 못할 리가 없다.

8. 태음인(太陰人)과 소음인(少陰人)도 체형이 서로 비슷한 데가 있어서 의심쩍은 점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병 증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분별하지 못할 리가 없다. 태음인(太陰人)에게 허즙(虛汁)이 있으면 완실하고 소음인(少陰人)에게 허한(虛汗)이 있으면 큰 병이다. 태음인(太陰人)이 피부가 야무지고 단단하면 큰 병이요, 소음인(少陰人)이 살갗이 야무지고 단단하면 완실한 것이다. 태음인(太陰人)에게는 가슴이 뛰고 울렁울렁거리는 증세가 있고 소음인(少陰人)에게는 손발이 떨리는 증세가 있다. 태음인(太陰人)에게는 눈꺼풀이 위로 끌어 당겨지는 증세와 또 눈망울이 쓰고 아픈 증세가 있고 소음인(少陰人)에게는 이런 증세가 없다.

소음인(少陰人)은 평상시에 호흡이 고르다가 이따금 한숨을 쉬는 일이 있고, 태음인(太陰人)에게는 긴 한숨을 쉬는 일이 없다.

태음인(太陰人)은 학질을 앓을 때에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도 냉수를 마실 수 있고 소음인(少陰人)은 학질을 앓을 때에 오들오들 떨면서 냉수를 찾는 일이 없다.

태음인(太陰人)의 맥(脈)은 길면서 긴(緊)하고, 소음인(少陰人)의 맥(脈)은 느리고 약하다.

태음인(太陰人)의 살갗은 견실하고, 소음인(少陰人)의 살갗은 부드럽다.

태음인(太陰人)의 얼굴 모양과 말썹씨 및 몸가짐은 위 의(威儀)가 있고 무슨 일에도 잘 가다듬으며 공명정대한 태도를 갖는다. 소음인(少陰人)의 용모와 말하는 솜씨 및 몸가짐은 자연스럽고 간이(簡易)하며 잔재주가 있다.

太陰少陰人體形 或略相彷彿 難辨疑似 而觀其病證則必無不辨 太陰人 虛汗則完實也 少陰人 虛汗則大病也 太陰人 陽剛堅密則大病也 少陰人 陽剛堅密則完實也 太陰人 有胸膈怔忡證也 少陰人 有手足悅亂證也 太陰人 有目眵 上引證 又有目睛內疼證也 少陰人則無此證也 少陰人 平時呼吸 平均而間有一太息呼吸也 太陰人則無此太息呼吸也 太陰人 瘡疾惡寒中 能飲冷水 少陰人 瘡疾惡寒中 不飲冷水 太陰人脈 長而緊 少陰人脈 緩而弱 太陰人肌肉 堅實 少陰人肌肉 浮軟 太陰人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少巧

[주(註)] ○정충증(怔忡證): 심계항진(心悸亢進), 즉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

○만난증(惋亂證): 수족이 떨리고 힘이 없는 증세.

(해설) 태음인(太陰人)과 소음인(少陰人)도 서로 비슷한 데가 있어서 체질을 감별하기가 곤란한 때가 있다. 이럴 때에는 그 병증을 참작해 보면 반드시 감별하지 못할 리가 없다.

(ㄱ) 태음인(太陰人)은 대개 습(濕)이 많으므로 땀을 흘려야 신진대사가 잘된다. 그러나 간혹 땀을 흘리지 않는 자도 있으니 이

런 사람은 소변을 많이 보는 것으로 대사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태음인은 항상 습(濕)을 없애는 데 힘써야 하고, 병이 생겼으면 치습(治濕)을 목적으로 발한(發汗)·이뇨(利尿)·하제(下劑)를 위주로 해야 한다. 만일 태음인이 피부에 윤기가 없어 까실까실하면 조증(燥症)으로 중증이며, 가령 학질을 앓을 때 오한(惡寒)이 나면서도 냉수를 찾는 것은 폐(肺)가 조(燥)하기 때문이다. 또 태음인은 상초(上焦)가 허하므로 다른 체질에 비하여 심장(心臟)이 약하다. 또 성격적으로 생각이 깊고 겁이 많아서 이것이 오래 되면 정충증(怔忡症)이 된다. 태음인의 정충증(怔忡症)은 중증이다. 또 태음인은 눈까풀이 위로 끌어당기는 증세가 있고 눈알이 쏘고 아픈 증세가 있다. 그러나 소음인(少陰人)은 이런 증세가 없다. 태음인(太陰人)은 보통 맥(脈)이 길고 탄력성이 있으며, 얼굴 모양, 말하는 기운, 행동하는 것이 엄숙하고 위기가 있다. (ㄴ) 소음인(少陰人) 체질은 허한(虛汗)과 도한(盜汗)을 흘리게 되면 원기를 상실한 증거다. 외감(外感) 표병(表病)에 발한제를 쓰고 땀을 많이 흘리면 망양증(亡陽證) 위가실(胃家實)이 되는 이유도 이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평시에 허한(虛汗)을 흘리면 이는 기(氣)가 허약한 것으로 보고 빨리 약을 써야 한다. 본래 소음인(少陰人)은 비(脾)가 약하다. 또 근(筋)은 비(脾)가 주관하므로 수족이 무력한 증세가 있다. 또 간간히 한숨을 쉬는 일이 있다. 경험에 비추어 두세 살 난 아이가 종종 한숨을 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소음인 아이로 본래 중초(中焦)가 허약한 연고다. 소음인의 맥박은 대개 느리고 약하며 살결은 연약하고 부드럽다. 용모와 말하는 기운, 행동하는 태도가 매우 맵시 있고 자연스러우며, 잔재주가 많고 누구에게나 불임성이 있다.

9. 소음인(少陰人)의 체형은 키가 작은 것이 보통이나 혹 8, 9척(尺)의 장대(長大)한 자도 있고, 태음인(太陰人)의 체형은 큰 것이 보통이나 혹 6척의 작은 자도 있다.

少陰人體形矮短而亦多有長大者 或有八九尺長大者 太陰人體形長大而亦或有六尺矮短者

[주(註)] ○8, 9척장대자(尺長大者): 옛날 척도법(尺度法)에는 오늘의 1尺이 곡척(曲尺)으로 7촌(寸) 6분(分) 8리(厘) 5모(毛)에 해당한다. 가령 9척(尺)은 오늘날에 6척(尺) 8촌(寸)(206cm)에, 6척(尺)은 4척(尺) 7촌(寸)(142cm)에 해당한다.

10. 태음인(太陰人)은 항상 겁심(怯心)이 있으니 겁심(怯心)이 가라앉으면 기저가 안정하고 거기에 의지하여 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겁심(怯心)이 더욱 많아지면 내친 마음에 얽매어져서 변화해 버릴 것이다. 만일 겁심(怯心)이 파심(怕心)에까지 이르게 되면 큰 병이 생겨서 정중증(怔忡症)이 될 것이니 정중증(怔忡症)은 태음인 병의 중증인 것이다.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 寧靜則居之安資之深而造於道也 怯心益多則放心 桎梏而物化之也 若怯心 至於怕心則大病 作而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

[주(註)] ○질곡(桎梏): 차고와 수갑, 곧 자유를 속박한다는 뜻. (해설) 태음인(太陰人)의 겁심(怯心)이란, 지나친 조심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만을 심각히 생각하고 외계를 경솔히 여기며 항상 탐욕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병이 되며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증세가 있다.

11. 소양인(少陽人)은 항상 구심(懼心)이 있으니 구심(懼心)이 가라앉으면 거기에 안정하고 의지하여 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구심(懼心)이 더욱 많아지면 내친 마음이 얽매여서 변화해 버릴 것이다. 만일 구심(懼心)이 공심(恐心)에까지 이르게 되면 큰 병이 생기니 건망증(健忘症)이 될 것이다. 건망증(健忘症)은 소양인의 험증인 것이다.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則居之安資之深而造於道也 懼心 益多則放心  
桎梏而物化之也 若懼心 至於恐心則大病 作而健忘也 健忘者 少陽人病  
之險證也

[주(註)] ○ 겁심(怯心) · 파심(怕心) · 구심(懼心) · 공심(恐心)은 모  
두 두려워하는 마음을 형용한 것이나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  
하기는 어렵다.

(해설) 소양인(少陽人)은 외계(外界)를 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일  
을 소홀히 여긴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그르치는 일로 인해서  
애심(哀心)을 갖게 되고 이것이 병으로 되면 건망증이 된다.

12. 소음인(少陰人)에게는 항상 안정되지 못한 마음이 있다. 그 불  
안정한 마음이 가라앉으면 비기(脾氣)는 곧장 살아날 것이다. 태양인  
(太陽人)에게는 항상 급박(急迫)한 마음이 있다. 이 급박한 마음이 가  
라앉으면 간혈(肝血)이 곧장 부드러워질 것이다.

少陰人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則脾氣即活也 太陽人恒有急迫之  
心 急迫之心寧靜則肝血即和也

[주(註)] ○ 급박지심(急迫之心): 조금도 여유가 없는 절박한 마음.  
(해설) 소음인(少陰人)은 항상 조바심하는 성질이 있다.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며 또 자기가 하지 않  
은 일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상 불안·초조한 상태에 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신경성소화불량증 같은 병이 생긴다.  
태양인(太陽人)은 무슨 일이나 앞으로 나가고자 하고 뒤로 물러  
설 줄 모르는 급박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간혈(肝血)이 모진(耗  
盡)되어 일격(噎膈) 반위증(反胃證) 같은 병이 생긴다.

13. 소음인(少陰人)에게는 인후병(咽喉病)이 있다. 이 병은 중하면서  
도 완만한 병증이다. 그대로 등한히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삼계팔물

탕(夢桂八物湯)을 쓰거나 혹 노루간[장간(獐肝)]·뱀술[금사주(金蛇酒)] 같은 것을 쓴다.

少陰人 有咽喉證 其病 太重而爲緩病也 不可等閒任置 當用夢桂八物湯 或用獐肝金蛇酒

(해설) ○인후병(咽喉病)은 대개 소음인 체질에 있는 병이다. 이는 비허(脾虛)로 오는 증세며 위(胃)의 허열(虛熱)이 떠올라 인후염(咽喉炎)·편도선염(扁桃腺炎) 같은 증세가 생긴다. 이럴 때에는 보비(補脾)를 목적으로 독삼팔물탕(獨夢八物湯)·삼계팔물탕(夢桂八物湯) 같은 약을 쓴다.

14. 태양인(太陽人)이 8, 9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는 예사로운 증세로, 의심스럽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 또한 약이 없다고 해도 안 될 것이니 미후등오가피탕(彌猴藤五加皮湯)을 써야 한다.

太陽人 有八九日大便不通證 其病 非殆證也 不必疑惑而亦不可無藥 當用彌猴藤五加皮湯

15. 태양인(太陽人)은 소변량이 많고 또 잘 나오면 완실(完實)하여 병이 없을 것이요, 태음인(太陰人)은 땀구멍이 잘 소통이 되면 완실하여 병이 없을 것이고, 소양인(少陽人)은 대변이 잘 통하면 완실하여 병이 없을 것이요, 소음인(少陰人)은 음식소화가 잘 되면 완실하여 병이 없는 것이다.

太陽人 小便 旺多則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 通暢則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 善通則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 善化則完實而無病

16. 태양인(太陽人)에 일격증(噎膈證)이 있으면 위완(胃脘)의 상초(上焦)가 넓게 열려서 마치 바람이 나오는 것 같다. 태음인(太陰人)에 이질(痢疾)이 생기면 소장(小腸)의 중초(中焦)가 꼭 막혀서 마치 안개가 낀 것 같다. 소양인(少陽人)에 대변이 불통되면 가슴이 반드시 이글 이글 타는 불과 같다.

소음인(少陰人)의 설사가 몇지 않으면 아랫배가 반드시 얼음장과 같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체질을 분명히 알고 또 증세를 분명히 안다면 약을 응용하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太陽人 噎膈則胃脘之上焦 散豁如風 太陰人 痢病則小腸之中焦 窒塞如霧  
少陽人 大便不通則胸膈 必如烈火 少陰人 泄瀉不止則臍下 必如冰冷  
明知其人而又明知其證則應用之藥 必無可疑

17. 사람의 용모를 자세히 살피고 거듭거듭 추리해 보아도 만일 의혹이 생길 때에는 병증을 참작해서 확실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에 비로소 약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경솔하게 한 첩의 약이라도 잘못 써서는 안 되며, 중병이나 험병에는 한 첩약을 잘못 써서 사람을 죽인다.

人物形容 仔細商量 再三推移 如有迷惑則 參互病證 明見無疑然後 可以用藥  
最不可輕忽 而一貼藥 誤投重病險證 一貼藥 必殺人

18. 화타(華陀)가 말하기를 “사람의 삶을 복돋아 주는 길은 매양

조금씩 노력을 하되 피로를 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한 노인은 “사람은 하루에 두 번 먹으면 죽한테 네 번 다섯 번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또 이미 먹고 난 후에 다시 첨식(添食)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걸 잘지킨다면 오래 수(壽)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華陀 曰養生之術 每欲小勞 但莫大疲 有一老人 曰人可日再食而不四五食也 又不可既食後添食 如此則必無不壽

[주(註)] ○화타(華陀): A.D. 110년에 현 중국 강서성(江西省)에서 출생함. 외과의로 유명하며 그 당시에 이미 마취술을 연구하여 개복수술(開腹手術)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기원 207년 그의 나이 97세에 조조(曹操)에게 죽었다고 하며 저서로는 『중장경(中藏經)』 외에 여러 책이 있다.

19. 나는 여기에 덧붙여 말하기를 “태음인(太陰人)은 항상 밖을 살피면서 겁심(怯心)을 안정시켜야 하고, 소양인(少陽人)은 항상 안을 살피면서 구심(懼心)을 안정시켜야 하며, 태양인(太陽人)은 한 걸음 물러서면서 급박(急迫)한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고, 소음인(少陰人)은 한 걸음 나아가면서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오래 수(壽)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余 足之曰太陰人 察於外而恒寧靜怯心 少陽人 察於內而恒寧靜懼心 太陽人 退一步而恒寧靜急迫之心 少陰人 進一步而恒寧靜不安定之心 如此則必無不壽

20. 또 말하기를 “태양인(太陽人)은 항상 노심(怒心)과 애심(哀心)을

경계해야 하고, 소양인(少陽人)은 항상 애심(哀心)과 노심(怒心)을 경계해야 하며, 태음인(太陰人)은 항상 낙심(樂心)과 희심(喜心)을 경계해야 하고 소음인(少陰人)은 항상 희심(喜心)과 낙심(樂心)을 경계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수(壽)하지 못할 리가 없다.”

又曰太陽人 恒戒怒心哀心 少陽人 恒戒哀心怒心 太陰人 恒戒樂心喜心  
少陰人 恒戒喜心樂心 如此則必無不壽

21. 옛날 순(舜)임금은 농사짓는 일, 질그릇 굽는 일, 고기 잡는 일들을 여러 사람들에게서 얻어 배우지 않는 것이 없지만 다 내 선(善)으로 여겼고, 공자(孔子)는 “세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천하의 모든 사람의 재능을 성인은 반드시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어서 이를 자기가 겸했기 때문에 크게 된 것이다.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이 식견과 재능에는 각기 장점이 있어, 글·글씨와 활쏘기·말달리기·노래·춤·예절다루기로부터 나아가서는 바둑·장기 같은 자잘한 오락을 즐기는 여러 가지 섬세한 동작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의 온갖 재주가 사람의 얼굴 따라 같지 않으며 모두 그들의 묘리를 달리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의 넓고 다양한 재능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서 전부 펼쳐 있는 것이다.

大舜 自耕稼陶漁，無非取諸人以爲善 夫子 曰三人行 必有我師 以此觀之則 天下衆人之才能 聖人 必博學審問而兼之故 大而化也 太少陰陽人 識見才局 各有所長 文筆射御歌舞揖讓 以至於博奕小技瑣瑣動作 凡百做造 面面不同 皆異其妙 儘乎衆人才能之浩多於造化中也

[주(註)] ○대순(大舜): 우순(虞舜), 옛날 중국의 전설상의 어진 임금, 이름은 중화(重華). 요(堯) 임금이 그의 두 딸을 순(舜)에게 주고 임금 자리도 물려주었던 것임.

○부자(夫子): 공자(孔子)를 칭한 것임(B.C. 551~471). 중국 노(魯)나라 때 지금의 산둥성(山東省)에서 낳음.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 인간애(仁)의 정신에 기초를 둔 실천도덕, 소위 덕치주의의 정치를 주장하였음.

22. 『영추경(靈樞經)』 중에 태소음양(太少陰陽) 오행인론(五行人論)이 있기는 하나 이는 대략 외형만을 말하였을 뿐이고 장부(臟腑)의 이치는 깨닫지 못하였다. 대개 옛날 사람들이 일찍이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에 대해서 본 바는 있지만 정밀하게 연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而略得外形 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而未盡精究也

제 3편



## 제8장 소음인(少陰人) 신수열(腎受熱) 표열병론(表熱病論)

### 머리말

갑오판(甲午版)에는 소음인(少陰人) 표병(表病)을 ‘외감려병론(外感膈病論)’이라 한 것을 경자년(庚子年)에 이르러서는 이를 개정하여 ‘신수열표열병론(腎受熱表熱病論)’이라 하였고, 이병(裏病)의 ‘내촉위병론(內觸胃病論)’이라 한 것을 ‘위수한리한론(胃受寒裡寒論)’이라 고쳤다.

이는 소음인(少陰人) 병론(病論)뿐만 아니라 소양인론(少陽人論)에 있어서도 ‘외감방광병론(外感膀胱病論)’이라 한 것을 ‘비수한표한병론(脾受寒表寒病論)’으로 내상(內傷)의 ‘내촉대장병론(內觸大腸病論)’을 ‘위수열리열병론(胃受熱裡熱病論)’으로 하였고, 태음인(太陰人)의 ‘외감뇌추병론(外感腦傾病論)’을 ‘위완수한표한병론(胃脘受寒表寒病論)’으로, ‘내촉위완병론(內觸胃脘病論)’을 ‘간수열리열병론(肝受熱裡熱病論)’으로 고쳤다. 그러나 태양인병론(太陽人病論)에 있어서는 구본(舊本)대로 간행하였다.

중경(仲景) 상한론(傷寒論)에 육경병론(六經病論)으로 분류된 것을 각 체질에 따른 표병(表病)·이병(裏病)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장중경(張仲景)이 『상한론(傷寒論)』에서 말하기를 열이 오르고 오한(惡寒)이 있으며 맥(脈)이 부(浮)하면 이는 표병(表病)에 속하였으니 즉 태양증(太陽證)인 것이다.

張仲景 傷寒論曰 發熱惡寒脈浮者 屬表 卽太陽證也

2. 태양병(太陽病)에 상풍(傷風)으로 된 맥(脈)은 양맥(陽脈)이 부(浮)하고 음맥(陰脈)이 약하다. 양맥(陽脈)이 부(浮)하면 열이 스스로 발할 것이요, 음맥(陰脈)이 약하면 땀이 스스로 날 것이다.

오슬오슬 춥고 오작오작 바람이 싫으며 후끈후끈 열이 오르고 코가 찌룩찌룩하고 구역이 나면 주로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太陽傷風脈 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齏齏惡寒 漸漸惡風 翕翕發熱 鼻鳴乾嘔 桂枝湯主之

[주(註)] ○양부이음약(陽浮而陰弱): 양맥(陽脈)은 손끝을 맥부(脈部)에 가볍게 대어도 크게 나타나는 맥상(脈狀)이고, 음맥(陰脈)은 깊이 눌러서 나타나는 맥(脈)이다.

병사(病邪)가 체표(體表)에 있을 때에는 열이 나고 맥(脈)이 부(浮)하며 또 내장이 약하고 땀이 저절로 날 때에는 음맥(陰脈)이 약하다. 이는 태양상풍증(太陽傷風證)의 대표적 맥이다.

○색색오한(齏齏惡寒) 석석오풍(漸漸惡風) 흠흠발열(翕翕發熱): 상풍증(傷風證)의 느껴지는 현상을 형용한 말이다.

○비명(鼻鳴): 감기 기운이 있을 때에 코가 막히고 콧소리가 나는 것이다.



(해설) 위에서 말한 모든 증세는 보통 감기 초기의 증상이다. 춥고 열이 나며 코가 막히는 것이 보통이나 구역이 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감기에 구역이 겹하면 비위(脾胃)가 허약한 관계며, 따라서 저절로 땀이 나게 되면 계지탕(桂枝湯)을 써야 한다.

### 3. 위역림(危亦林)의 『득효방(得効方)』에서 말하기를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온역(瘟疫)에는 향소산(香蘇散)을 써야 한다.”

危亦林 得効方曰 四時瘟疫 當用香蘇散

[주(註)] ○『득효방(得効方)』: 원(元)의 위역림(危亦林, 1260)이 지은 『세의득효방(世醫得効方)』이다. 원(元)의 고조(高祖) 때로부터 오대(五代)를 내려오며 모든 경험한 것을 모아서 20권으로 대집성(大集成)한 것이다. 내용에는 맥학(脈學)을 비롯하여 풍과(風科)·산과(産科)·부인과(婦人科)·잡병(雜病)·안(眼)·구(口)·비(鼻)·인후(咽喉)·외과(外科)·창종(瘡腫)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부록으로 양생론·침구(針灸) 등이 있다.

○사시(四時): ‘영추론질진맥론(靈樞論疾診脈論)’에는 겨울에 한기(寒氣)에 상하면 봄이 되어 장티푸스 같은 열성병이 생기고, 봄에 풍(風)에 상하면 여름에 설사 또는 이질 같은 병이 생기고, 여름에 더위에 상하면 가을이 되어 뇌염 같은 병이 생기고, 가을에 온기(溫氣)에 상하면 겨울이 되어 해수·천식 같은 병이 생긴다. 이는 사시(四時) 부정기(不正氣)로 생기는 병의 발생 원인이다.

○온역(瘟疫): 급성 전염병의 총칭인데, 처음 병이 생길 때를 온(瘟)이라 하고, 온병(瘟病)이 오래되어 감염되는 것을 역(疫)이라 한다. ‘온역론(瘟疫論)’에 사시(四時)의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온역(瘟疫)이 생기는데 거의 상한(傷寒)과 비슷하다. 그러나 상한(傷寒)은 병사가 호규(毫竅)를 통하여 맥락(脈絡)에 들어가므로 표(表)에서 리(裡)로 전경(傳經)된다. 즉 양병(陽病)이 음병(陰病)으로 깊어진다. 온역(瘟疫)은 처음에 병사가 입과 코로 들어가서 장관막(腸間膜)에 잠복하였다가 병으로 발한다 하였다.

(해설) 사시온역(四時瘟疫)이라 함은 인플루엔자·장티푸스 같은 전염성질환을 말한 것이다. 위장이 약한데 외감(外感)이 겹하게 되면 향소산(香蘇散)을 쓰라 하였다.

○향소산(香蘇散): 사시감모(四時感冒)·부인(婦人)·임신상한(妊娠傷寒)에 쓴다.

4. 공신(龔信)의 『의감(醫鑑)』에서 말하기를 “상한(傷寒)에 머리가 아프고 몸이 쭈시나 표증(表證)인지 이증(裏證)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쓰라” 하였다.

龔信醫鑑曰 傷寒頭痛身疼 不分表裡證 當用藿香正氣散

[주(註)] ○『의감(醫鑑)』: 명(明)의 공신(龔信, 1368)이 지은 『고금의감(古今醫鑑)』 16권이다. 아들 공정현(龔廷賢)이 죽은 후에 이 책이 나왔다 하여 정현(廷賢)이 지은 것이라고 전하기도 한다.

○표증(表證): 병이 피부 근육에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감기 몸살을 들 수 있는데, 이때는 소통하며 발산하는 약을 써야 한다.

○이증(裡證): 병이 내장기에 있음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탕척(蕩滌)하는 약을 써야 한다.

(해설) 상한(傷寒)에 머리가 아프고 몸이 쭈시며 표증(表證)이 있고 또 위장장애와 기타 내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표리(表裏)가 다 같이 병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양(太陽)병에서 소음(少陰)병으로 전경(傳經)된 것이며, 이때에는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써야 한다. 이 처방은 외감(外感) 내상(內傷)이 되었을 때 통용할 수 있다.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의 적응증은 외감풍한(外感風寒)·내상음식(內傷飲食)·증한장열(增寒壯熱)·두통(頭痛)·구토(嘔吐)·흉민(胸悶)·복창(腹脹)·담수(痰嗽)·기천(氣喘)·상한(傷寒)·상냉(傷冷)·상서(傷暑)·상습(傷濕)·곽난(霍亂)·토사(吐瀉)·학질(瘧疾)·산남장려(山嵐瘴癘)·수토불복(水土不服) 등이다.

5.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장중경(張仲景)이 말한 태양(太陽) 상풍증(傷風證)에 열이 나고 오한(惡寒)이 있다고 한 것은 곧 소음인(少陰人)의 신(腎)에 열을 받아 표(表)로 나타난 열병(熱病)이다. 이 증후(證候)에 발열(發熱)이 있으나 땀이 없으면 계지탕(桂枝湯)·천궁계지탕(川芎桂枝湯)·향소산(香蘇散)·궁귀향소산(芎歸香蘇散)·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 같은 것을 써야 하고 오한발열(惡寒發熱)이 있으면서 땀이 나면 망양증(亡陽證) 초증(初證)이므로 절대로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황저계지탕(黃芪桂枝湯)·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승양익기탕(升陽益氣湯)을 3일 연복시켜도 땀이 그치지 않고 병이 풀리지 않으면 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인삼계지부자탕(人蔘桂枝附子湯)·승양익기부자탕(升陽益氣附子湯)을 써야 한다.”

論曰 張仲景所論太陽傷風發熱惡寒者 卽少陰人腎受熱表熱病也 此證發熱惡寒而無汗者 當用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發熱惡寒而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 當用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주(註)] ○망양증(亡陽證): 소음인(少陰人) 병에 땀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는 것을 망양증(亡陽證)이라 한다. 이는 상초음기(上焦陰氣)가 탕(渴)하여 신장(腎臟) 수기(水氣)가 용뢰지화기(龍雷之火氣)를 쫓아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약간의 오한(惡寒)기가 있고 수족의 피부가 차지며 허한(虛汗)을 흘리되 구갈(口渴)이 없어야 하는데, 만일 더운물을 찾으며 기운이 탈진하고 맥(脈)이 부(浮)하고 삭(數)하면 이는 완전히 저항력을 상실한 증거다. (해설) 보통 감기 몸살에 오한발열(惡寒發熱)이 있고 전신이 쭈시고 머리가 몹시 아프며 맥(脈)이 부(浮)하면 이는 태양병(太陽病)이다.

소음인(少陰人)의 태양병(太陽病)은 신장에 열을 받은 병이다. 여

기에는 천궁계지탕(川芎桂枝湯)·궁귀향소산(芎歸香蘇散)·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쓰고, 인플루엔자 같은 때도 이 처방 중에서 골라 쓴다. 만일 표병(表病)인지 이병(裏病)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쓴다.

이는 모두 장중경(張仲景)·위역림(危亦林)·공신(龔信)이 말한 병리요 치료법이다. 그러나 소음인(少陰人)이 한다망양증(汗多亡陽證)이 되었으면 이의 특유한 치료법을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기 몸살 하면 땀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소음인(少陰人)의 경우는 판이하다. 비록 외감(外感)이라 해도 절대로 땀을 내서는 안 된다. 흔히 소음인(少陰人)의 감기에 발한을 시켜서 망양증(亡陽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소음인(少陰人)이 오한 발열(惡寒發熱)이 있을 때에 약간의 땀이 나면 병이 풀려야 할 터인데 땀이 나되 병이 풀리지 않으면 망양증(亡陽證)이 된 것이다. 이는 가급적 땀을 막아야 하므로 황저계지탕(黃芪桂枝湯)·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승양익기탕(升陽益氣湯)을 쓰고 며칠을 치료했는데도 땀이 그치지 않고 병이 풀리지 않으면 소음인(少陰人) 병으로서 매우 중하다.

인삼(人蔘)·부자(附子)가 든 약을 써야 하므로 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이나 인삼계지부자탕(人蔘桂枝附子湯)·승양익기부자탕(升陽益氣附子湯)을 써야 한다.

6.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태양병(太陽病)에 맥(脈)이 부(浮)하고 긴(緊)하며 열이 나고 땀이 없이 코피가 나면 병이 저절로 낫는다”고 하였다.

張仲景曰 太陽病 脈浮緊 發熱無汗而衄者 自愈也

[주(註)] ○맥부긴(脈浮緊): 손끝을 가볍게 대도 크게 나타나며, 또한 탄력성이 있어 마치 새끼줄을 당기는 것 같은 맥상(脈狀)이다. (해설) 태양병(太陽病)이 오래 계속되어 열이 풀리지 않으면 피가 열하여 불긴(浮緊)한 맥이 나온다. 이럴 때에 코피가 나면 열이 풀리고 병이 스스로 낫는다.

7. 태양병(太陽病)이 6, 7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표증(表證)이 있고 맥(脈)이 미(微)하고 침(沈)하며 도리어 명치가 딱딱하지 않고 그 사람이 미친 자같이 나대면 이는 열이 하초(下焦)에 맺혀 있는 것이다. 비록 아랫배가 단단할지라도 소변이 순조로운 자는 파혈(破血)을 시키면 병이 낫는다. 여기에는 주로 저당탕(抵當湯)을 쓴다.

太陽病 六七日 表證因在 脈微而沈反不結胸 其人如狂者以熱在下焦 小腹當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抵當湯主之

[주(註)] ○결흉(結胸): 명치 밑이 단단하고 불룩해진 것이다.

○하초(下焦): 아랫배의 속을 의미한다.

○소복(小腹): 아랫배.

○소편자리(小便自利): 소변이 순조롭게 잘 나오는 것이다.

○저당탕(抵當湯): 소복경만(小腹硬滿) · 발광(發狂) · 소편자리(小便自利)에 쓴다. 즉 파혈(破血)하는 약이다.

(해설) 태양병(太陽病)이 6, 7일이 지났어도 표증(表證)이 있으면 반드시 맥(脈)이 부(浮)해야 할 것인데, 양맥(陽脈)이 미(微)하고 음맥(陰脈)이 침(沈)함은 병사(病邪)가 깊이 맺혀 있는 증거다. 이럴 때에는 결흉증(結胸症)이 될 것이나 만일 결흉(結胸)이 없이 정신이 착란하면 열이 하초(下焦)에 맺혀서 피가 맺혀진 것이다. 아랫배가 단단하고 팽팽해도 소변이 잘 나오면 어혈(瘀血)이 된 것이다. 파혈(破血)을 목적으로 저당탕(抵當湯)을 쓴다.

8. 태양증(太陽證)에 몸이 노랗고 발광을 하며 배꼽 아래가 딱딱하고 소변이 잘 나오면 피가 하초(下焦)에 엉킨 혈증(血證)인 것이다. 여기에는 저당탕(抵當湯)을 써야 한다.

상한(傷寒)에 아랫배가 딱딱하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도리어 소변이 잘 나오면 이는 열이 아니라 피가 몰려 있기 때문

이다.

太陽證 身黃發狂 小腹硬滿 小便自利者 血證 宜抵當湯 傷寒 小腹滿 應  
小便不利 今反利者 以有血也

(해설) 태양병(太陽病)에 황달(黃疸)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기혈(氣血)이 돌지 못하는 관계다. 만일 소변이 불순하면 열이  
방광(膀胱)에 맺혀 있기 때문이요, 소변이 순조로우면 어혈(瘀血)  
이 된 것이다. 미친 자같이 나대고 아랫배가 단단하면 어혈(瘀  
血)이 된 것이니 저당탕(抵當湯)으로 파혈(破血)을 시켜야 한다.

9. 태양병(太陽病)이 풀리지 않고 열이 방방(膀胱)에 맺혀 있으면  
미친 사람같이 나대되 이럴 때에 만일 하혈(下血)을 하게 되면 병이  
스스로 낫고, 아랫배가 맺혀서 단단하면 치는 약을 써야 하므로 도  
인승기탕(桃仁承氣湯)이 좋다.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血自下者自愈 但小腹急結者 宜攻之宜  
桃仁承氣湯

[주(註)] ○방방(膀胱): 여기서 말하는 방광은 해부학적 방광이  
아니라 하초(下焦)를 말하는 것이다.

○소복급결(小腹急結): 소복(小腹)은 아랫배를 말한 것이다. 소복  
급결(小腹急結)은 아랫배에 어혈(瘀血)이 된 것이니 좌서해부(左鼠  
蹠部)를 손끝으로 눌러서 강한 압통(壓痛)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도인승기장(桃仁承氣場)을 쓴다.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 어혈(瘀血)을 치는 약으로 소복급결(小  
腹急結)·월경불순(月經不順) 등에 쓴다.

(해설) 여기서 말하는 어혈(瘀血)은 태양병(太陽病)이 오래되어  
열이 피에 맺혀 있는 것이다. 태양병(太陽病)이 풀리지 않아 열  
이 방광[하초(下焦)]에 맺혀 있으면 미친 사람같이 되는데, 이럴

때에 피를 내리게 하면 병이 스스로 낫는다. 그러다 외증(外症)이 아직 남아 있으면 먼저 외증(外症)을 치료하고 소복급결(小腹急結)을 처야 한다. 이때에는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을 쓴다.

10. 태양병(太陽病) 외증(外證)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에 설사약을 자주 쓰면 설사는 그치지 않고 결국은 명치 밑이 단단해진다. 이는 표증(表證)과 이증(裏證)이 다 같이 풀리지 않은 것이니 주로 인삼계지탕(人蔘桂枝湯)을 쓴다.

太陽病 外證 未除而數下之 遂下利不止 心下痞硬 表裡不解 人蔘桂枝湯主之

(해설) 태양병(太陽病)에 외열(外熱)이 아직 있을 때에 설사약을 써서 설사를 심하게 하면 표열(表熱)에 이냉(裏冷)이 겹하게 되므로 심하(心下)가 비경(痞硬)해진다. 이럴 때에 표리(表裏)를 함께 풀기 위하여 인삼계지탕(人蔘桂枝湯)을 쓴다.

11.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은 증세에 그 사람이 미친 자 같다고 하는 것은 즉 신(腎)에 열을 받아서 곤궁에 빠진 상태요, 아랫배가 단단함은 대장(大腸)이 한기(寒氣)에 놀란 상태다. 이 두 가지 증세가 다 같이 나타날 때에는 먼저 급한 것부터 다스려야 하며, 신(腎)에 열을 받아 곤궁에 빠져 있다고 보면 천궁계지탕(川芎桂枝湯)·황저계지탕(黃芪桂枝湯)·팔물군자탕(八物君子湯) 같은 것으로 보(補)하며 기(氣)를 끌어 올려야 하고, 대장(大腸)이 한기(寒氣)에 놀라 있다면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향사양위탕(香砂養胃湯) 같은 것으로 화해(和解)시켜야 한다. 만일 외열(外熱)이 이냉(裏冷)을 에워싸고 있으면 안에 독기(毒氣)가 맺혀서 장차 호랑이를 길러 화를 당하는 폐단

이 있을 것이므로 먼저 파두(巴豆)를 써서 한두 차례 설사를 시킨 후에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팔물군자탕(八物君子湯)으로 화해시키면서 준열하게 보(補)하는 약을 써야 한다.”

論曰此證 其人如狂者 腎陽困熱也 小腹硬滿者 大腸怕寒也 二證俱見 當先其急 腎陽困熱則 當用川芎桂枝湯 黃芪桂枝湯 八物君子湯 升補之 大腸怕寒則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和解之 若外熱包裡冷而 毒氣重結於內 或將有養虎遺患之弊則 當用巴豆丹 下利一二度 因以藿香正氣散 八物君子湯和解而 峻補之

12. 장중경(張仲景)이 말한 ‘하초혈증(下焦血症)’이란, 즉 소음인(少陰人) 비국(脾局)의 양기(陽氣)가 찬 기운에 억압되고 또 신국(腎局)의 양기(陽氣)가 사기(邪氣)의 저항을 받아서 위로 곧장 올라가 비국(脾局)과 연접하지 못하여 방광(膀胱)에 울축(鬱縮)된 증세다. 또 ‘그 사람이 미친 것 같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것이요, ‘귀신을 보았다’는 것은 헛것을 보고 중얼거리는 것이다. ‘태양증표증(太陽證表證)이 아직 있다’는 것은 신열(身熱)로 몹시 괴로워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오한증(惡寒證)이 간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병(太陽病)에 외증(外證)이 없는 자는 신열(身熱)로 괴로워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오한증(惡寒證)이 간간이 있는 증세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증후에 기운을 도우며 양기(陽氣)를 끌어올리면 상책을 얻었다 할 것이요, 파혈(破血)을 하면서 열을 푸는 것은 졸렬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태양병(太陽病)에 외증(外證)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자주 설사를 시키면 결국은 설사가 그치지 않는다’ 운운한 것은 옛사람들이 이런 증세에 승기탕(承氣湯)을 쓰면 설사가 그치지



않으므로 결국 그 방법을 고쳐서 저당탕(抵當湯)·도인탕(桃仁湯)을 썼을 따름이었던 것이다. 태양병(太陽病)에 외증(外證)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면 양기(陽氣)의 힘이 비록 억압되었다 해도 오히려 추위를 떨치고 표(表)에서 한사(寒邪)와 서로 싸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외증(外證)이 모조리 없어져 버렸다면 양기(陽氣)의 힘이 능히 추위를 떨치지 못하고 드디어 곤궁에 빠져 엎드려져 버린 형세다. 이런 경우에 공격을 하거나 설사하는 약을 쓰면 어찌 좋은 약이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양기(陽氣)가 곤궁에 빠져 엎드려져 버리기를 기다려서 써야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인삼계지탕(人蔘桂枝湯)이 늦지 않겠는가.

張仲景 所論 下焦血證 卽少陰人 脾局陽氣 爲寒邪所掩抑而 腎局陽氣 爲邪所拒 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其人如狂者 其人亂言也 如見鬼狀者 恍惚譫語也 太陽病表證 因在者 身熱煩惱而 惡寒之證 間有之也 太陽病 外證除者 身熱煩惱而 惡寒之證 都無之也 此證益氣而升陽則 得上策也 破血而解熱則 出於下計也 太陽病外證 未除而數下之 遂下利不止云云者 亦可見古人之於此證 用承氣湯則 下利不止故 遂變其方而 用抵當桃仁湯耳 太陽病外證未除則 陽氣其力雖有鬱抑 猶能振寒而與寒邪相爭於表也 若外證盡除則 陽氣其力 不能振寒而遂爲窮困 縮伏之勢也 攻下之藥 何甚好藥而 必待陽氣窮困縮伏之時而 應用耶 人蔘桂枝湯 不亦晚乎

13.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부인(婦人) 상한(傷寒)에 열이 오르고 경도가 있다 없다 하며 낮에는 정신이 반짝하다가 밤이 되면 헛소리를 하며 귀신 같은 헛것을 보는 것은 열이 혈실(血室)을 범한 관계다. 그러나 위기(胃氣)와 상이초(上二焦)에 미치지 않으면 반드시 저절로 낫는다.”

張仲景曰 婦人 傷寒發熱 經水適來斷 晝日明了 夜則譫語 如見鬼狀 此爲熱入血室 無犯胃氣及 上二焦 必自愈

[주(註)] ○어혈(血室): 고서(古書)에 포문(胞門)·자궁(子宮)·간(肝)으로 나와 있으나 피는 간(肝)이 주관하므로 여기서는 간혈(肝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여자가 경도 시기가 되었을 때에 상한(傷寒) 발열(發熱)이 있어 열이 혈실(血室)에 범하면 경도가 제대로 통하지 못한다. 혈(血)은 음(陰)에 속하여 밤이 되면 헛소리를 하고 헛것을 보게 되며, 이럴 때에 설사를 시켜서 위기(胃氣)를 상하거나 또는 땀을 내거나 토법(吐法)을 써서 상(上)·중초(中焦)를 범하지 않게 하면 저절로 병이 낫는다.

14. 양명병(陽明病)에 입이 조(燥)해도 입을 축일 정도에 그치고 삼키고자 하지 않으면 반드시 코피가 날 징조다. 절대로 설사약을 써서는 안 된다.

陽明病 口燥 嗽水 不欲嚥者 此必衄 不可下

(해설) 양명병(陽明病)은 열이 오랫동안 핏속에 맺혀 있어서 입이 마른다. 그러니 갈증이 아니므로 물을 마시지 않으며 다만 입을 축일 정도다. 이는 코피가 날 전조니 절대로 설사약을 써서는 안 된다.

15. 양명병(陽明病)에 먹지 못하는 데 열을 치면 반드시 딸꾹질을 한다. 상한(傷寒)에 구역질이 심한데 비록 양명증(陽明證)이라 해도 공격하는 약을 써서는 안 된다. 양명병(陽明病) 위가실(胃家實)에 대변을 보지 못하거나 표증(表證)이 아직 풀리지 않거나 반 정도 풀렸으면 먼저 계지(桂枝)·시호(柴胡) 등속으로 화해시킨 뒤에 설사약을 쓰

는 것이 옳다.

陽明病 不能食 攻其熱必噦傷寒嘔多雖有陽明不可攻 胃家實不大便 若表未解及有半表者先以桂枝 柴胡和解 乃可下也

[주(註)] ○위가실(胃家實): 위가(胃家)란 소화기 계통을 말한 것이다. 즉 친가(親家)니 외가(外家)니 하는 뜻과 같으며, 비(脾)·위(胃)·양(陽)에 열을 받아서 실해 있는 상태다.

(해설) (ㄱ) 양명증(陽明證)에 먹지 못하는 것은 비위(脾胃)가 허령(虛冷)한 관계다. 잘못 알고 고치고자 찬 약을 쓰면 반드시 딸꾹질을 한다.

(ㄴ) 상한(傷寒)에 구역이 나는 것은 태양증(太陽證)이 있을 때에 치료를 잘못하여 양명증(陽明證)으로 전속되는 과정이다. 공격하는 약을 써서는 안 된다.

(ㄷ) 양명증(陽明證)의 특징은 위가실(胃家實)이다. 다시 말하면 위장의 진액이 말라서 대변불통증이 된 것이다.

(ㄹ) 상한(傷寒)을 치료하는 법에 표증(表證)이 있으면 발한(發汗)을 시키고, 이증(裏證)이 있으면 설사를 시킨다. 이와 같이 치료를 해도 표증(表證)이 풀리지 않거나 반표(半表)가 되면 먼저 화해(和解)를 시킨 뒤에 공격하는 약을 써야 한다.

16.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위의 모든 증세에는 곽향정기탕(藿香正氣湯)·향사양위탕(香砂養胃湯)·팔물군자탕(八物君子湯)을 써야 한다.”

論曰 右諸證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八物君子湯

17.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양명병(陽明病)은 위가실(胃家實)이 되기 때문이다.” 문기를 “어떤 까닭으로 태양병(陽明病)을 얻게 되는가.” 대답하기를 “태양병(太陽病)이 되었을 때에 땀을 많이 내거나

설사를 심히 하거나 또 이뇨(利尿)를 많이 하여 위장 진액이 없어져서 위(胃) 속이 마르기 때문에 양명(陽明)으로 옮겨지는 것이니 대변이 불통하게 되는 것을 양명병(陽明病)이라 한다.”

張仲景曰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問曰緣何得陽明病 答曰太陽病 發汗若下若利小便者 此亡津液胃中乾燥 因轉屬陽明 不更衣內實大便難者 此名陽明病也

[주(註)] ○경의(更衣):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변소에 간다는 뜻, 즉 대변을 보고 싶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변소에 갈 때에 옷을 갈아입었다고 한다.

18. 상한(傷寒)에 양명병(陽明病)으로 전속되면 그 사람은 땀이 축축하게 난다.

傷寒轉屬陽明 其人漐然微汗出也

(해설) 양명병(陽明病)이 되는 것은 처음에는 땀이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다한망양증(多汗亡陽證)이 되며, 위가실증(胃家實證)으로 변한다.

19. 상한(傷寒)에 만일 토하고 사(瀉)한 뒤에 병이 풀리지 않고 대변을 5, 6일 내지 10여 일 불통되며, 해질 무렵에는 고열(高熱)이 오르고 추위[오한(惡寒)]는 전혀 없이 열이 심하여 허튼소리를 하며 귀신을 본 것처럼 하며 심하면 의식을 잃고 사람을 몰라본다. 옷깃을 어루만지며 이불을 더듬고 무서워 떨면서 불안해하고 바튼 기침을 하면서 눈동자를 곧추세운다. 이런 경우 맥(脈)이 현(弦)한 자는 살고

맥(脈)이 색(澁)한 자는 죽는다.

傷寒 若吐若下後 不解 不大便五六日至十餘日 日晡所發潮熱 不惡寒狂言如見鬼狀 若劇者發則不識人 循衣摸床惕而不安 微喘直視 脈弦者生 脈澁者死

[주(註)] ○순의모상(循衣摸床): 옷깃이나 이불을 더듬는다는 말이다. 열이 많고 병이 중한 자에게 흔히 있는 모습이다.

○척이불안(惕而不安): 무서워서 벌벌 떠는 불안한 상태이다.

(해설) 한(汗)·토(吐)·하법(下法)을 썼는데도 병이 풀리지 않고 5, 6일, 심하면 10여 일을 대변불통이 되며, 해 질 무렵쯤 해서 조열(潮熱)이 오르고 추운 기는 전혀 없이 정신이 착란하여 환상을 보기도 한다. 심하면 의식을 잃고, 옷깃을 어루만지며 무서워서 떨고, 바튼 기침을 하며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맥(脈)이 현(弦)한 자는 살고 맥(脈)이 색(澁)한 자는 죽는다고 하였으니, 맥(脈)이 현(弦)한 자는 태음인(太陰人) 체질을 말한 것이며, 만일 소음인(少陰人)이 이런 경우 맥(脈)이 색(澁)한 자에게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쓰게 되면 필경 죽을 수밖에 없다.

20.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진(秦)·한(漢)시대의 의학 치병하는 법에 대변이 비조한 자에게는 대황(大黃)으로 치료하는 법은 있어도 파두(巴豆)로 치료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장중경(張仲景)도 대황대승기탕(大黃大承氣湯)을 써서 소음인(少陰人) 태양증(太陽證)이 양명증(陽明證)으로 전속한 자를 다스렸는데, 그 환자는 끈끈하게 땀이 나고 위양(胃腸)이 건조하여 5, 6일 내지 10여 일을 대변불통이 되며, 해 질 무렵이면 조열(潮熱)이 오르고 추위가 없이 헛소리를 하며 헛것을 보는 경우에 이 약을 쓰면 신표하다 하였고, 병세가 심하여 의식이 없이 사람을 몰라보고 옷깃을 어루만지며 이불을 보듬고 때로는 무

서워하면서 불안하고 숨이 차고 눈동자를 곧추세우니 이런 때에 이 약을 쓰되 맥(脈)이 현(弦)하면 살고 맥(脈)이 색(濇)하면 죽는다고 하였다. 본시 이 방법은 소음인(少陰人)의 태양증(太陽證)이 양명증(陽明證)으로 전속되어 5, 6일을 대변을 보지 못하고 일모시(日暮時)에 고열(高熱)이 오를 때만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쓰지 못한다 하였으니 중경(仲景)이 가(可)히 이 처방을 쓰고 못 쓰는 경우를 잘 알았던 까닭에 소음인(少陰人) 태양증(太陽證)이 양명증(陽明證)으로 전속되는 중후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경(仲景)의 일심정력(一心精力)이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쓰는 경우를 찾아내는 데 있었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소상하게 알았던 것이다. 중경(仲景)의 태양(太陽) 양명병(陽明病) 처방 중에서 계지탕(桂枝湯)·인삼계지탕(人蔘桂枝湯) 같은 것은 근사한 약이지만 대승기탕(大承氣湯)은 사람의 생사를 끝없는 바닷가에다 내버려 두고 꼭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쓸 시기만 구하며 대변을 5, 6일 보지 못하고 일모시(日暮時)에 조열(潮熱)이 오르고 헛소리를 할 때만을 기다리려고 하니 어찌 좋은 법이겠는가. 본래 소음인(少陰人) 병증에는 땀이 저절로 나지 않으면 비(脾)가 약하지 않은 것이요, 대변이 비조(秘燥)하면 위(胃) 속이 꼭 차 있는 것이다. 소음인(少陰人) 태양증(太陽證)이 양명증(陽明證)으로 전속되었을지라도 땀이 저절로 나지 않고 비(脾)가 약하지 않으면 지극히 가벼운 증세라 비록 대변이 불통되어도 약을 쓰게 되면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황(大黃)·지실(枳實)·후박(厚朴)·망초(芒硝) 같은 약이 이때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병이 극렬하면 반은 죽고 반은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팔물군자탕(八物君子湯)·승양익기탕(升陽益氣湯)을 파두(巴豆)와 함께 쓰면 비록 병이 극렬한 자라도 맥(脈)이 현(弦)한 자

는 살고 맥(脈)이 색(濇)한 자는 죽을 이치가 없다. 또 태양병(太陽病) 표증(表證)이 아직 남아 있을 때에 어찌 하여 미리 온보(溫補) 승양(升陽)하는 약을 파두(巴豆)와 함께 써서 그 병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인데 꼭 양명병(陽明病)으로 전속되어 일모시(日暮時)에 고열(高熱)이 오르고 헛소리를 할 시후(時候)를 기다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써서 사람으로 하여금 반은 살고 반은 죽는 지경에 이르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論曰 秦漢時 醫方治法 大便秘燥者 有大黃治法 無巴豆治法故 張仲景亦用大黃大承氣湯 治少陰人 太陽病 轉屬陽明 其人澀然微汗出 胃中燥煩實 不大便五六日至十餘日 日晡發潮熱 不惡寒 狂言如見鬼狀之時而用之則神效 若劇者發則 不識人 循衣摸床 惕而不安 微喘直視 用之於此則脈弦者生 脈濇者死 蓋此方治少陰人 太陽病轉屬陽明 不大便五六日 日晡發潮熱者可用而 其他則不可用也 仲景知此方 有可用不可用之時候故亦能昭詳 少陰人 太陽陽明病證候也 蓋仲景一心精力 都在於探得大承氣湯 可用時候故 不可用之時候 亦昭詳知之也 仲景太陽陽明病藥方中 惟桂枝湯 人參桂枝湯 得其彷彿而 大承氣湯則 置人死生於茫無津涯之中 必求大承氣湯 可用之時候而 待其不大便五六日 日晡發潮熱 狂言時 是豈美法也哉 蓋少陰人病候 自汗不出則 脾不弱也 大便秘燥則 胃實也 少陰人 太陽陽明病 自汗不出脾不弱者 輕病也 大便雖硬 用藥則 易愈也 故 大黃 枳實 厚朴 芒硝之藥 亦能成功於此時而 劇者猶有半生半死 若用八物君子湯 升陽益氣湯 與巴豆丹則 雖劇者 亦無脈弦者生 脈濇者死之理也 又太陽病表證因在時 何不早用 溫補升陽之藥 與巴豆預圖其病而必待陽明病 日晡發潮熱 狂言時 用承氣湯 使人 半生半死耶

21. 허숙미(許叔微)가 『본사방(本事方)』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상한병(傷寒病)을 앓는데 대변이 불통되고 해 질 무렵에 고열이 오르며 두 손으로 옷깃을 어루만지고 두 손으로 허공을 젓기도 한다. 눈

동자가 곳곳해지며 숨이 몹시 가쁘니 의사들이 쫓아 왔으나 병세는 심히 악후(惡候)다. 비록 중경(仲景)이 이런 증세를 만났어도 별로 도리가 없었을 것ियो 다만 ‘맥(脈)이 현(弦)한 자는 살고 맥(脈)이 색(濇)한 자는 죽는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이때 속는 썸 치고 소승기탕(小承氣湯) 한 첩을 썼더니 대변이 통하고 그 병이 점차 물러갔으며 맥(脈)도 조금씩 탄력성이 보이더니 반 달 만에 완쾌되었다.”

許叔微 本事方曰一人 病傷寒 大便不利 日晡發潮熱 手循衣縫 兩手撮空 直視喘急 諸醫皆走 此誠惡候 仲景雖有證而無法 但云脈弦者生 脈濇者死 謾且救之 與小承氣湯一服而 大便利 諸疾漸退 脈且微弦 半月愈

[주(註)] ○허숙미(許叔微), 『본사방(本事方)』: 허숙미(許叔微)는 송(宋)나라 때 사람이다. 본사방(本事方)은 『유증보제본사방(類證普濟本事方)』의 약칭으로 전권(全卷)으로 되어 있다.

22. 왕호고(王好古)가 『해장서(海藏書)』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의 상한병(傷寒病) 환자가 발광증이 생겨서 달아나고자 하며 맥(脈)이 허(虛)하고 빠르다. 시호탕(柴胡湯)을 썼더니 도리어 부작용이 생기므로 즉시 인삼(人蔘)·황저(黃芪)·당귀(當歸)·창출(蒼朮)·진피(陳皮)·감초(甘草) 등속을 달여서 한 첩 먹이니 발광증이 멎고 또 한 첩을 먹이니 잠이 들면서 병이 나왔다.”

王好古 海藏書 曰一人 傷寒發狂欲走 脈虛數 用柴胡湯反劇 以蔘芪歸朮 陳皮甘草 煎湯一服 狂定 再服 安睡而愈

[주(註)] ○왕호고(王好古): 원(元)나라 조주(趙州) 사람으로, 호(號)는 해장(海藏)이다. 『탕액본초(湯液本草)』, 『중경상변(仲景詳辨)』,



『상한혹론(傷寒惑論)』 등 많은 저서가 있다.

23. 『의학강목(醫學綱目)』에서 말하기를 “일찍이 옷깃을 어루만지며 이불을 더듬는 환자를 몇 사람 치료해 본 경험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기혈(氣血)을 크게 보(補)하는 약을 썼더니 그중에 한 사람만이 눈꺼풀에 경련이 일어나고 대맥(代脈)이 보이기에 보제(補劑) 중에 계류(桂類)를 가(加)했더니 즉시 경련이 멎고 대맥(代脈)도 없어지면서 병이 나왔다.”

醫學綱目曰嘗治循衣摸床者數人 皆用大補氣血之劑 惟一人兼調振脈代  
遂於補劑中 略加桂 亦振止脈和而愈

[주(註)] ○『의학강목(醫學綱目)』: 명(明)나라 때 누영(樓英)이 지은 것으로 전 40권의 방대한 책이다.

○대맥(代脈): 맥(脈)이 뛰다가 한때 정지되는 것, 즉 부정맥(不整脈)을 말한다. 이는 탕허(陽虛)할 때 보인다.

24. 성무기(成無己)가 『명이론(明理論)』에서 말하기를 “조열(潮熱)은 양명증(陽明證)에 속한 것이니 반드시 해 질 무렵[일포(日晡)]에 오르는 고열을 조열(潮熱)이라 한다. 양명병(陽明病)의 됴됨은 위(胃) 속이 꼭 들어차는 것이다. 위가(胃家)가 실(實)하게 되면 헛소리를 하고 손발에서는 끈끈하게 땀이 난다. 이는 대변이 이미 굳어 있는 증거다. 헛소리를 하고 조열(潮熱)이 있으면 먼저 승기탕(承氣湯)으로 대변을 통하게 하고, 만일 열(熱)이 있더라도 조열(潮熱)이 없으면 승기탕(承氣湯)을 써서는 안 된다.”

成無己 明理論 曰潮熱屬陽明 必於日晡時發者 乃爲潮熱也 陽明之爲 病  
胃家實也 胃實則譫語 手足 澌然汗出者 此大便已硬也 譫語有潮熱 承  
氣湯下之 熱不潮者 勿服

[주(註)] ○성무기(成無己): 금(金)나라 사람으로, 『상한론(傷寒論)』,  
『명리론(明理論)』을 저술했다.

25. 주진형(朱震亨)은 『단계심법(丹溪心法)』에서 말하기를 “상한병(傷  
寒病) 괴증(壞證)에 전신이 가라앉아서 혼수상태에 빠진 자는 모두 위  
급한 증세이니 좋은 인삼 37.50g을, 물을 붓고 달여서 단번에 마시게  
하였더니 콧등에서 땀이 맺고 차츰 땀방울이 되어 줄줄 흐르더라.”

朱震亨 丹溪心法 曰 傷寒壞證昏沈垂死一切危急之證 好人夢一兩 水煎  
一服而盡 汗自鼻梁上出 涓涓如水

[주(註)] ○『단계심법(丹溪心法)』: 원(元)나라 주진형(朱震亨)이 지  
은 것이다. 주진형(朱震亨)은 금(金)·원(元)의 사대가(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단계심법(丹溪心法)』, 『단계의요(丹溪醫要)』, 『단계치법  
심요(丹溪治法心要)』 등을 저술했다. 단계(丹溪)는 그의 호(號)다.  
○괴증(壞證): 육경병(六經病)에는 증(證)에 따라서 치료하게 된다.  
그러나 약을 잘못 쓰면 정증(正證)이 무너져서 본 증(證)을 알기  
어렵게 되면 이것을 괴증(壞證)이라 한다.

26.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앞에서 말한 모든 사람의 논법(論法)은  
모두가 장중경(張仲景)의 승기탕(承氣湯)을 비로소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쓸 경우와 쓰지 못할 경우를 잘 알기 어려우므로 여러 가지 의  
혹이 분분하다가 비로소 중경(仲景)의 이론은 믿을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장중경(張仲景)의 대승기탕(大承氣湯)은 원래 사람을 죽이

는 약이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므로 굳이 대승기탕(大承氣湯)을 거론할 필요는 없으며, 위가실(胃家實)에 대변불통이 되고 발광증이 있으면 먼저 파두(巴豆) 온 알을 써야 하고, 혹 독삼팔물탕(獨參八物湯)을 쓰되 먼저 파두(巴豆) 한 알을 먹인 연후에 팔물군자탕(八物君子湯)으로 병을 눌러야 한다.”

論曰右論 皆以張仲景大承氣湯 始作俑而 可用不可用時候 難知故 紛紜多惑而 始知張仲景之不可信也 張仲景大承氣湯 元是殺人之藥而 非活人之藥則 大承氣湯 不必舉論 此胃家實病 不更衣發狂證 當用巴豆全粒 或用獨參八物君子湯 或先用巴豆 後用八物君子湯以壓之

(해설) 대승기탕(大承氣湯)과 소승기탕(小承氣湯)은 모두 대황(大黃)이 주약(主藥)이다. 특히 대승기탕(大承氣湯)에는 망초(芒硝)가 들어 있어 아랫배에 대변이 뭉쳐서 딱딱하면 반드시 이 약을 쓴다. 특히 열병(熱病)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소변을 많이 보면 위장(胃腸)의 진액이 말라서 대변 불통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양명병(陽明病) 위가실(胃家實)이라 하며 이럴 때에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쓰는 것이 상한치병(傷寒治法)의 대강(大綱)이다.

위가실(胃家實)이 되었을 때는 그 증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상한론(傷寒論)』에는 “脈遲 汗出 不惡寒 反惡熱 身重 腹滿而喘 手足澀然汗出者 此大便已硬也 大承氣湯主之”라 하였다. 그런데 위가실(胃家實)이란 대개 소음인(少陰人) 체질에 있는 증세로, 태양병(太陽病)으로 시작하여 양명병(陽明病)으로 전속(轉屬)되는 것이다. 5, 6일 대변을 보지 못하면 병자가 반생반사(半生半死)의 위경(危境)에 이르게 되며, 일모시(日暮時)에 고열이 오르고 정신이 혼미하고 눈을 곧추 뜬다. 이런 경우에 중경(仲景)은 대승기탕(大承氣湯)이 신효(神効)하다 하였으나 반드시 맥상(脈狀)에 의해서 생사를 판단하게 되므로 맥(脈)이 탄력성이 있으면 살 수 있고 맥(脈)이 갈갈하면 살지 못한다 하였다. 이에 대한 동무(東武)의 비판은 중경(仲景)이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쓰는 시기는 잘 알았으나 왜 환자를 이때까지 방치하여 반생반사(半生半死)의 지

경에 이르게 하고 맥(脈)이 현(弦)한 자는 살고 진(脈)이 색(濇)한 자는 죽는다고 하였느냐는 것이다.

중경(仲景)이 만든 양명병(陽明病) 약 중에 계지탕(桂枝湯)도 있고 인삼계지탕(人蔘桂枝湯)도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은 두지 않고 굳이 대승기탕증(大承氣湯證)에 대하여만 이론을 펴으니 졸렬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소음인(少陰人) 태양증(太陽證)이 양명병(陽明病)으로 전속되었다 해도 당연히 승보(溫補) 승양(升陽)함이 원칙이며, 하제(下劑)를 써서는 안 된다. 만일 대변을 통하고 자 하면 파두(巴豆)를 쓸 것이요 대황(大黃)은 불가한 것이다. 처음 양명병(陽明病) 위가실(胃家實)이 되기 전에 체질을 알아서 온보승양(溫補升陽)하는 약을 썼더라면 병자로 하여금 이러한 위경(危境)에 이르지 않게 했을 것이다.

27.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양명병(陽明病)이 외증(外證)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열(身熱)이 있고 땀이 저절로 나며 오한(惡寒)은 없으나 도리어 오열(惡熱)이 나는 것이다.”

張仲景 曰陽明病 外證 身熱汗自出 不惡寒反惡熱

[주(註)] ○오열(惡熱): 대개 태양병(太陽病)은 오한(惡寒)이 있으며 열이 나지만, 양명병(陽明病)은 오한(惡寒)기가 전혀 없고 도리어 열에 못 견디는 것이다.

(해설) 태양병(太陽病)에는 오슬오슬 춥고 열이 나며, 소양병(少陽病)에는 추웠다 더웠다 한열(寒熱)이 반복한다. 양명병(陽明病)에는 땀이 나고 대변불통이 되며 열에 못 견디어, 심하면 정신이 혼미하고 헛소리를 하며 환상을 보기도 한다.

28. 상한(傷寒) 양명증(陽明證)에 땀이 저절로 나고 소변이 잦은 것은 내장(內臟)의 진액이 고갈되어 대변이 반드시 어렵게 될 것이니 이는 비(脾)가 약해진 관계다. 주로 마자인환(麻子仁丸)을 쓴다.

傷寒陽明病 自汗出 小便數則 津液內竭大便必難 其脾爲約 麻仁丸 主之

[주(註)] ○비약(脾約): 비(脾)의 윤기(潤氣)가 마른다는 뜻이다. (해설) 양명(陽明)이란 경락(經絡)의 위경(胃經)을 말하는 것이다. 양명병(陽明病)이 되는 것은 처음 상한(傷寒)에 땀부터 보아야 한다. 땀이 저절로 나고, 또 오줌이 잦으며 양이 많아지면 반드시 내장 진액이 말라서 대변불통증이 생긴다. 특히 비장(脾臟)의 윤기가 마르는 것이니 여기에는 하제(下劑)를 써서는 안 되고 윤장(潤腸)을 목적으로 마자인환(麻子仁丸)을 써야 한다.

29. 양명병(陽明病)에 땀이 저절로 나고 소변(小便)이 잦은 것은 내장(內臟)에 진액이 말라 있기 때문이다. 비록 대변이 굳었을지라도 공격하는 약을 써서는 안 되고 관장(灌腸)하는 법을 써서 대변이 통하도록 해야 한다.

陽明病 自汗出 小便自利者 此爲津液內竭 大便雖硬 不可攻之 宜用蜜導法通之

[주(註)] ○밀도법(密導法): 꿀에 조각말(皂角末)을 약간 섞어서 불에 끓인 뒤에 좌약(坐藥)을 만들어서 항문(肛門)에 밀어 넣으면 곧 대변이 통한다. 이는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관장법이다. (해설) 앞에서 말한 양명병(陽明病) 증세는 이열(裏熱)로 온 대변 불통이 아니라 처음 발한제를 쓰거나 이뇨제(利尿劑)를 써서 내장의 수분이 말라 대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승기탕(承氣湯)으로 처서는 안 되고 관장을 하여 대변을 통하도록 해야 한다.

30. 양명병(陽明病)에 열이 있고 땀이 많으면 급히 설사를 시켜야 하니 대승기탕(大承氣湯)이 좋다.

陽明病 發熱汗多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해설) 여기서는 비록 간단하게 발열한다(發熱汗多)한 자는 급하(急下)라 하였으나 실은 이증(裏證)이 심한 것이다. 양명증(陽明證) 이증(裏證)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 즉 설태(舌苔)·복진(腹診)·섬어(譫語)·광증(狂症) 등을 참작하여 다스려야 한다.

31. 이천(李梴) 『의학입문(醫學入門)』에 말하기를 “땀이 많이 나고 그치지 않는 것을 망양증(亡陽證)이라 한다. 가슴이 조이고 명치 밑이 답답하며 얼굴빛이 푸르고 근육 경련이 생기면 다스리기 어렵고, 얼굴빛이 누르고 수족이 온(溫)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하였다. 무릇 땀이 많이 나면서 그치지 않으면 진양(眞陽)이 완전히 상실한 까닭에 이를 망양증(亡陽證)이라 하며, 몸이 얼음같이 차고 흔히 저리고 마비되며 사지가 굳어지니 주로 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을 써야 한다.”

李梴醫學入門 曰汗多不止 謂之亡陽 如心痞胸煩 面青膚潤者難治 色黃手足溫者 可治 凡汗漏不止 眞陽 脫亡故 謂之亡陽 其身必冷 多成痺寒 四肢拘急 桂枝附子湯 主之

32. 일찍이 열한 살 난 소음인(少陰人) 아이의 한다망양증(汗多亡陽證)을 치료한 일이 있었다. 이 아이는 평소에 무엇인가 골몰히 생각하고 때로는 신경성설사를 자주 하는 것이 걱정이었으며, 식사 때마다 온 얼굴에서 구슬 같은 땀을 흘린다. 하루는 돌연히 두통 발열이 있더니 더욱 땀을 많이 흘리며 대변불통이 되었다. 본래 이 아이는 설사가 잦은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두통·발열·변비·한출(汗出) 같은 열증(熱證)은 설사하는 한증(寒證)과는 반대되는 까닭에 별로 관

심을 두지 않고 심상히 취급하여 단지 황지(黃芪) · 계지(桂枝) · 백작약(白芍藥) 등속으로 발표(發表)만 해주었던 것이다. 4, 5일이 되어도 두통 · 발열이 풀리지 않으므로 옛새가 되던 날 아침에 병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대변불통이 된 지 이미 4, 5일이 되었고 소변도 붉고 텁텁한 것이 두세 순갈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그 수도 일주야에 두세 번밖에 안 된다. 추운 기는 전혀 없으면서 열은 전과 같으며 일주야에 3, 4차 불규칙하게 땀이 나는데, 인중(人中)에는 땀이 있다 없다 하며, 얼굴과 온몸에서 줄줄 흐른다. 참으로 불길한 증세가 아닐 수 없다. 그제야 이 병이 한다망양증(汗多亡陽證)으로 심히 위험한 병임을 알았다. 급히 파두(巴豆)한 알을 껍질을 까서 먹이고 이어서 황지계지부자탕(黃芪桂枝附子湯)에 부자(附子) 3.75g을 가하여 두 첵을 연복시켰다. 오후 두 시경에 대변이 통하고 소변도 약간 양이 많아지며 맑아졌다. 이튿날은 이 아이가 병이 생긴 지 한 주일이 되었으며, 그동안 부자(附子)를 과하게 쓰지나 않았는가 걱정이 되므로 황지계지(黃芪桂枝) 부자탕(附子湯) 한 첵을 이틀에 나누어 먹이도록 했다. 이틀 후에 그 아이는 망양증(亡陽證)이 다시 생겼으니 오한(惡寒)은 없고 열(熱)이 나며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변은 묽고 텁텁하며, 대변(大便)은 전과 같이 굳어져 있었다. 얼굴 전체가 푸른빛을 띠고 간간이 바쁜 기침을 한다. 병세는 전보다 훨씬 악화되었다. 이때에는 병이 생긴 지 9일째 되는 날 열한 시경이다. 급히 파두(巴豆) 한 알을 까서 먹이고 인삼계지부자탕(人蔘桂枝附子湯)에 인삼(人蔘) 18.75g, 부자(附子) 7.5g을 가하여 두 첵을 연복시켰더니 해질 무렵에는 대변이 비로소 통하고 소변도 약간 많아졌으나 소변 빛깔은 여전히 붉다. 또 인삼계지부자탕(人蔘桂枝附子湯)에 인삼(人蔘) 18.75g, 부자(附子)

7.5g을 넣어서 한 첵을 먹이니 그날 밤 중잠해서 이 아이는 모로 누웠으나 머리는 들지 못한다. 가래를 한두 손갈 뱉더니 기침도 멎고 이튿날 또 인삼계지부자탕(人蔘桂枝附子湯)에 인삼(人蔘) 18.15g, 부자(附子) 7.5g을 넣어 세 첵을 썼더니 미음을 두세 손갈 먹었다. 약을 쓸 때마다 몸이 맑고 개운해지며 땀은 멎고 소변도 많아지면서 대변은 잘 통하였다. 다음 날 또 두 첵을 썼더니 미음도 반 공기가량 먹었으며, 그다음 날도 두 첵을 썼더니 미음을 반 공기 남짓 먹었다. 몸은 맑고 개운하여 방 안에서 일어나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니 이때는 이미 병이 생긴 지 열이틀이 되는 날이다. 나중 3일 동안 몸이 맑고 개운해지며 땀이 멎고 소변이 맑으면서 많아지고 대변이 통한 것은 부자(附子) 7.5g을 가해 하루 두세 첵씩 썼기 때문이다. 열사흘째 되는 날에는 뜰에 나와서 걷기도 하였으나 머리를 잘 들지 못한다. 이는 아이에게 부자(附子)를 과하게 쓴 관계가 아닌가 생각되어 그 후에는 황芪계지부자탕(黃芪桂枝附子湯)에 부자(附子) 3.75g을 가해서 매일 두 첵씩 7, 8일을 계속 썼더니 고개는 들 수 있으나 얼굴은 쳐다보지 못하며, 얼굴에 부종이 있었다. 또 매일 두 첵씩 7, 8일을 썼더니 얼굴도 들 수 있게 되고 부종도 빠졌다. 그 후에 이 처방대로 매일 두 첵씩 썼는데 병이 생긴 날로부터 병이 풀리기까지 1개월 남짓한 동안에 부자(附子)를 쓴 것만도 300g이나 된다.

嘗治少陰人十一歲兒汗多亡陽病 此兒 勞心焦思 素證 有時以泄瀉爲憂而每飯時 汗流滿面矣 忽一日 頭痛發熱汗自出 大便秘燥以此兒素證 泄瀉爲憂故 頭痛身熱便秘汗出之熱證 以其反於泄瀉寒證而曾不關心 尋常治之 以黃芪桂枝白芍藥等屬 發表矣 至于四五日 頭痛發熱不愈 六日平明察其證候則 大便秘結 已四五日 小便赤澀二三匙而 一晝夜間 小便度



數 不過二三次 不惡寒而發熱 汗出度數則 一晝夜間 二三四次不均而 人中則 或有時有汗 或有時無汗 汗流滿面滿體 其證可惡 始覺汗多亡陽證候 真是危證也 急用巴豆一粒 仍煎黃芪桂枝附子湯用附子一錢 連服二貼以壓之 至于未刻 大便通 小便稍清而稍多 其翌日 卽得病七日也 以小兒附子太過之慮故 以黃芪桂枝附子湯一貼 分兩日服矣 兩日後 其兒亡陽證又作不惡寒發熱汗多而小便赤澀 大便秘結如前 面色帶青 間有乾咳 病勢比前太甚 其日 卽得病九日也 時則巳時末刻也 急用巴豆一粒仍煎人蔘桂枝附子湯用人蔘五錢附子二錢 連二貼以壓之 至于日晡 大便始通 小便稍多而色赤則一也 又用人蔘桂枝附子湯 人蔘五錢 附子二錢 一貼服矣 至于二更夜 其兒 側臥而頭不能舉 自吐痰一二匙而乾咳仍止 其翌日 又用人蔘桂枝附子湯 人蔘五錢 附子二錢 食粥二匙 每用藥後則身清涼無汗 小便稍多而大便必通 又翌日 用此方二貼 食粥半碗 又翌日 用此方二貼 食粥半碗有餘 身清涼 自起坐房室中 此日 卽得病十二日也 此三日內 身清涼無汗 大便通 小便清而多者 連用附子二錢日二三貼之故也 至于十三日 又起步門庭而舉頭不能仰面 徵前小兒附子太過之慮 用黃芪桂枝附子湯 用附子一錢每日二貼服至于七八日 頭面 稍得仰舉而面部 浮腫又每日二貼服 至于七八日 頭面 又得仰舉而 面部浮腫亦減 其後用此方每日二貼服 自得病初至於病解 前後一月餘用 附子凡八兩矣

33.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양명병(陽明病)에는 세 가지 증세가 있으니 첫째는 태양양명(太陽陽明), 즉 비약(脾約)이 이것이다. 둘째는 정양양명(正陽陽明), 즉 위가실(胃家實)이 이것이다. 셋째는 소양양명(少陽陽明), 즉 땀을 많이 내거나 이소변(利小便)을 많이 해서 위중(胃中)이 조변(燥煩)하고 내실(內實)되어 대변불통이 된 것이다.”

張仲景 曰陽明病 有三病 太陽陽明者 脾約 是也 正陽陽明者 胃家實 是也 少陽陽明者 發汗 利小便 胃中燥煩實 大便難 是也

34.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장중경(張仲景)이 말한바 양명병(陽明病)의 세 가지 증세 중에 첫째로 비약(脾約)이라 함은 땀이 저절로 나고

소변이 많아짐이요, 둘째로 위가실(胃家實)이라 함은 대변을 보고 싶어도 굳어서 나오지 않는 것이요, 셋째로 발한(發汗)·이소변(利小便)하고 위중(胃中)이 조변실(燥煩實)한 것은 이도 또한 위가실(胃家實)한 것이니 세 가지 증세가 아니라 두 가지 병증일 따름이다. 중경(仲景)이 비약(脾約) 운운한 것은 진액이 점차 고갈하여 비(脾)의 윤기(潤氣)가 말라 가는 것을 말함이요, 위가실(胃家實) 운운한 것은 진액이 이미 고갈되어 위(胃)의 전국(全局)이 조실(燥實)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 것이다. 옛날 중국 전국(戰國) 진한(秦漢) 시대의 의학의 단방 경험이 전해온 지 오래인데, 이 중 한(汗)·토(吐)·하(下)의 삼법(三法)이 가장 성행하였다. 태양병표병(太陽病表病)이 그대로 있을 때는 혹 마황탕(麻黃湯)으로 땀을 내게 하고, 혹 저령탕(猪苓湯)으로 이소변(利小便)을 시키며, 혹 승기탕(承氣湯)으로 설사를 시켜 왔다. 승기탕(承氣湯)으로 설사를 시키니 설사가 멎지 않는 증세가 생기고, 마황탕(麻黃湯)이나 저령탕(猪苓湯)으로 땀을 내거나 이소변(利小便)을 시킨즉 위중(胃中)이 조변(燥煩)하고 내실(內實)하여 대변이 불통되므로 중경(仲景)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비약(脾約)하여 자한출(自汗出) 자리소편(自利小便)한 것을 비(脾)의 윤기가 점차 말라서 그도 또한 장차 위중(胃中)이 조변(燥煩)하고 내실(內實)하게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비약(脾約)은 제대로 비약(脾約)인 것이요 위가실(胃家實)은 제대로 위가실(胃家實)인 것이지 어찌 그 병이 먼저 비약(脾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에 위가실(胃家實)이 될 이치가 있겠는가.”

論曰 張仲景所論陽明三病 一曰脾約者 自汗出小便利之證也 二曰胃家實者 不更衣大便難之證也 三曰發汗利小便 胃中燥煩實者 此亦胃家實也

其實非三病也 二病而已 仲景 意脾約云者 津液漸竭 脾之潤氣 漸約之謂也 胃家實云者 津液已竭 胃之全局 燥實之謂也 中古戰國秦漢之時 醫家單方經驗 其來已久 汗吐下三法 始爲盛行 太陽病表證因在者 或以麻黃湯 發汗 或以猪苓湯 利小便 或以承氣湯下之 承氣湯下之則 下利不止之證 作矣 麻黃湯猪苓湯發汗利小便則胃中 燥煩實大便難之證 作矣 仲景有見於此故 以脾約之自汗出 自利小便者 脾之潤氣漸約 亦將爲胃燥實之張本矣 然脾約自脾約也 胃家實自胃家實也 寧有其病 先自脾約 而後至於胃家實之理耶

35. 위가실(胃家實)과 비약(脾約)의 두 병증(病證)은 마치 음병(陰病)에 있어 태음병(太陰病)과 소음병(少陰病) 같아서 허(虛)하고 실(實)한 증상도 현저하게 다르다. 태음병(太陰病) 표증(表證)이 아직 있을 때에 이미 두 갈래로 갈라져서 원래 서로 합치하지 않는 것이니 태양병(太陽病) 표증(表證)이 아직 있으면서 그 사람이 미친 자와 같이 나대는 것은 울광증(鬱狂證)의 처음 증세요, 양명병(陽明病) 위가실(胃家實)에 대변이 불통되는 자는 울광증(鬱狂證)의 중간 증세요, 양명병(陽明病)에 조열(潮熱)이 오르고 헛소리를 하며 숨을 헐떡이면서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자는 울광증(鬱狂證) 말기의 증세인 것이다. 태양병(太陽病)에 발열(發熱)·오한(惡寒)이 있고 땀이 저절로 나면 망양증(亡陽證)의 처음 증세요, 양명증(陽明病)에 오한(惡寒)이 없이 도리어 오열(惡熱)이 있고 땀이 저절로 나면 망양증(亡陽證)의 중간 증세요, 양명증(陽明病)에 발열(發熱)이 있고 땀이 많은 것은 망양증(亡陽證)의 말기 증세이다. 대개 울광증(鬱狂證)은 신열(身熱)이 있되 전혀 땀이 나지 않는 것이요, 망양증(亡陽證)은 신열(身熱)이 있고 땀이 저절로 나는 것이다.

胃家實 脾約二病 如陰證之太陰少陰病 虛實證狀 顯然不同 自太陽病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岐 元不相合 太陽病表證 因在而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陽明病胃家實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陽明病潮熱狂言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太陽病發熱惡寒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陽明病不惡寒反惡熱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蓋鬱狂證 都是身熱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身熱自汗出也

36. 음증(陰證)에 입안이 부드러워지만 배가 아프며 설사를 하는 것은 태음병(太陰病)이요, 입안이 갈갈하면서 배가 아프며 설사를 하는 것은 소음병(少陰病)이다. 양증(陽證)에 땀은 나지 않고 두통(頭痛) · 신열(身熱)이 있는 것을 태양양명병(太陽陽明病) 울광증(鬱狂證)이요, 땀이 저절로 나면서 두통(頭痛) · 발열(發熱)이 있는 것은 태양양명병(太陽陽明病) 망양증(亡陽證)이다. 음증(陰證)의 태음병(太陰病)과 양증(陽證)의 울광증(鬱狂證)에는 경증(輕證)과 중증(重證)이 있고, 음증(陰證)의 소음병(少陰病)과 양증(陽證)의 망양증(亡陽證)에는 험증(險證)과 또한 위증(危證)이 있다. 망양증(亡陽證)과 소음증(少陰證)은 병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험증(險證)이 되어 이어서 위증(危證)이 되는 것이다.

陰證 口中 和而有腹痛泄瀉者 太陰病也 口中 不和而有腹痛泄瀉者 少陰病也 陽證 自汗不出而有頭痛身熱者 太陽陽明病鬱狂證也 自汗出而頭痛身熱者 太陽陽明病亡陽證也 陰病之太陰病 陽證之鬱狂病 有輕證重證也 陰證之少陰病 陽證之亡陽病 有險證危證也 亡陽少陰病 自初病已爲險證 繼而爲危證也

[주(註)] ○울광증(鬱狂證): 가슴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것이다.

37. 망양병증(亡陽病證)은 비단 땀만을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변이 많고 적은 것도 보아야 한다. 만일 소변이 많고 많으면서 땀이

저절로 나오면 비약병(脾約病)이 되는 것이니 이는 험증(險證)이다. 소변이 붉고 텅텅하게 나오면서 저절로 땀이 나게 되면 양명병(陽明病)에 발열(發熱) 다한증(多汗證)이니 이는 위증(危證)이다. 그러나 소양인(少陽人) 이열증(裏熱證)과 태음인(太陰人) 표열증(表熱證)에도 또한 땀이 많이 나오면서 오줌이 붉고 텅텅한 자가 있으니 판단하여 함부로 약을 잘못 써서는 안 된다.

亡陽病證 非但觀於汗也 必觀於小便多少也 若小便 清利而自汗出則脾約病也 此 險證也 小便 赤澁而自汗出則 陽明病發熱汗多也 此 危證也 然少陽人裏熱證 太陰人表熱證 亦有汗多而小便赤澁者 宜察之 不可誤藥

38. 위가실병(胃家實病)은 처음에는 땀이 나지 않고 오한(惡寒)도 없으며 단지 열만이 심하다가 위경(危境)에 이르면 끈끈하게 땀이 나고 조열(潮熱)이 온다. 이러한 상태는 표한(表寒)이 떨치고 나가는 힘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위중(胃中) 진액이 고갈된 상태이다. 비약병(脾約病)은 처음에는 신열(身熱)이 있고 땀이 저절로 나는데 오한증(惡寒證)은 없다가 위험한 경지에 이르면 열이 나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오한(惡寒)이 생기는 것이니, 오한(惡寒)이 생기는 것은 이열(裏熱)이 지탱할 기력이 이미 다하여 비기(脾氣)가 끊어지는 증후인 것이다.

胃家實病 其始焉汗不出 不惡寒 但惡熱 而其病垂危則 澀然微汗出潮熱也 澀然微汗出潮熱者 表寒振發之力 永竭故也 胃竭之候也 脾約病 其始焉身熱汗自出不惡寒而若其病 垂危則 發熱汗多而惡寒也 發熱汗多而惡寒者 裏熱撐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

39.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궤음증(厥陰證)은 손발이 냉(冷)하고 아랫배가 아프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알이 오르라든다. 맥(脈)이 가늘어서 끊어질 듯하면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이 좋다.”

張張張仲景曰 厥陰證 手足厥冷 小腹痛 煩滿囊縮 脈微欲絕 宜當歸四逆湯

(해설) 『소문궤론편(素問厥論篇)』 양기(陽氣)가 쇠하고 음기(陰氣)가 성한즉 궤(厥)이 된다. 즉 궤(厥)은 수족이 찬 것을 말하며 이는 이한(裏寒)으로 온 증세다. 이때에 맥(脈)이 가늘고 끊어질 듯하면 외사(外邪)가 깊이 범한 것이다. 화혈(和血)하고 통맥(通脈)하는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을 써야 한다.

40. 무릇 궤(厥)이라 함은 음기와 양기가 서로 접하지 못하여 한편으로 기울어져 궤(厥)이 된 것이다. 수족이 역냉(逆冷)한 것이 곧 이것이다.

凡厥者 陰陽氣 不相順接 便爲厥 厥者 手足逆冷 是也

(해설) 삼음삼양경맥(三陰三陽經脈)은 손가락·발가락 끝으로 주행(走行)하여 음(陰)과 양(陽)이 맥혈(絡穴)을 통하여 접(接)한다. 그러나 궤(厥)은 한사소함(寒邪所陷)하여 수족이 역냉(逆冷)한 것이다.

41. 상한이 된 지 6, 7일에 척(尺)·촌맥(寸脈)이 미완(微緩)하면 궤음경(厥陰經)에 병을 받은 것이다. 증세는 아랫배가 답답하고 불알이 오르라든다. 이때에는 대승기탕(大承氣湯)으로 설사를 시키는 것이 좋다.

傷寒 六七日 尺寸脈 微緩者 厥陰受病也 其證 小腹煩滿而囊縮 宜用承氣湯下之

(해설) 맥(脈)이 미(微)하면 꺾(厥)이 된 것이요, 맥(脈)이 완(緩)하면 한(寒)을 받은 것이다. 한꺾증(寒厥證)은 주로 꺾음경(厥陰經)에 병을 받은 것이며, 여기서 대승기탕(大承氣湯)으로 설사를 시키라고 한 것은 아랫배가 똥똥하고 또 답답하기 하기 때문이다. 먼저 숙변을 배설하고자 함이다.

42. 상한이 된 지 6, 7일에 맥(脈)은 더 크게 뛰고 가슴이 답답하며 입이 굳어져서 말을 못 하고 조바심증이 있는 자는 병이 풀리고자 하는 것이다.

六七日 脈至皆大 煩而口噤 不能言 躁擾者 必欲解也

(해설) 비록 번조증이 있고 구금불능언(口噤不能言) 조요증(躁擾證)이 있어도 맥(脈)이 부대(浮大)함은 병이 풀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43. 주굉(朱肱)이 『활인서(活人書)』에서 말하기를 “꺾(厥)이라 함은 손발이 얼음같이 찬 것이다. 손끝 발끝이 약간 찬 것을 청(淸)이라 하고 이는 경한 증세이지만, 음꺾증(陰厥證)은 처음 병을 받으면서부터 사지(四肢)가 꺾냉(厥冷)하고 맥(脈)이 침(沈)하고 미약하며 또 잦지 않다. 다리에는 흔히 경련이 생긴다.”

朱肱 活人書曰 厥者 手足逆冷 是也 手足指頭 微寒者 謂之淸 此疾爲輕 陰厥者 初得病 便四肢厥冷 脈沈微而 不數 足多攣

[주(註)] 청(淸): 양(涼)과 같은 뜻이다. 『내경(內經)』 ‘지진요대론

(至眞要大論)’의 족청(足淸)이란 말에서 나온 뜻이다.

44. 상한(傷寒) 6, 7일에 아랫배가 답답하고 또 단단하며 불알이 오므라들고 척(尺)·존맥(寸脈)이 다 함께 미완(微緩)하면 족궤음경(足厥陰經)에 병을 받은 것이다. 맥(脈)이 미(微)하고 부(浮)하면 병이 풀리고자 하는 것이요 맥(脈)이 부(浮)하지 않으면 병이 낮기 어렵다. 맥(脈)이 부(浮)하며 완(緩)한 자는 낭축(囊縮)이 되지 않을 것이요, 외증(外證)에 오한(惡寒)·발열(發熱)이 있으면 병이 풀리고자 하는 것이다. 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이 좋다. 만일 척(尺)·촌(寸)이 다 함께 침단(沈短)하면 반드시 낭축(囊縮)이 되고 독기가 배속으로 들어갈 것이니 승기탕(承氣湯)으로 설사를 시키는 것이 좋다. 빨리 승기탕(承氣湯)을 쓰면 다섯은 살고 하나가 죽는 정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상한(傷寒) 6, 7일에 맥(脈)이 미(微)하고 부(浮)하게 나타나면 비유컨대 ‘부극태내(否極泰來), 즉 부새(否塞)한 운수가 극에 이르면 태평한 운수가 돌아오는’ 격이니 수기(水氣)는 상승(上升)하고 화기(火氣)는 하강(下降)하여 한열(寒熱)이 생기며 많은 땀을 흘리고 병은 풀릴 것이다.

傷寒 六七日 煩滿囊縮 尺寸俱微緩者 足厥陰經 受病也 其脈微浮 爲欲愈 不浮爲難愈 脈浮緩者 必囊不縮 外證必發熱惡寒 爲欲愈 宜桂麻各半湯 若尺寸 俱沈短者 必囊縮 毒氣入腹 宜承氣湯下之 速用承氣湯 可保五生一死 六七日 脈微浮者 否極泰來 水升火降 寒熱作而大汗解矣

[주(註)] ○부극태내(否極泰來): 부(否)와 태(泰)는 역(易)의 괘명(卦名)이다. 즉 불운(不運)과 행운(幸運)을 뜻한 것이다.

○미맥(微脈): 가늘고 느리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



도 하며 누르면 끊어지는 맥(脈)이다. 이는 빈혈(貧血)로 허탈상태이다.

○완맥(緩脈): 지맥(遲脈)과 같으나 유력(有力)하다. 맥(脈)이 빠르지 못하고 따라서 호흡도 느리다. 대개 신경통이 심할 때에 나타난다.

○부맥(浮脈): 가볍게 누르면 위로 뜨고 깊이 누르면 없어진다. 이는 표병(表病)이 있을 때와 풍병(風病)에 나타난다.

○침맥(沈脈): 가볍게 누르면 없고 깊이 누르면 나타난다. 이는 음성양허(陰盛陽虛)한 맥(脈)이다.

○단맥(短脈): 위와 아래가 없이 중간만 나타난다. 이는 식체(食滯)에 많이 보이는데, 가령 관맥(關脈)에만 나타나고 촌맥(寸脈)과 척맥(尺脈)에 이어지지 않으면 죽는다.

(해설) ‘소문열론편(素問熱論篇)’에 궤음맥(厥陰脈)은 음기(陰器)를 돌아서 간(肝)에 얹히므로 아랫배가 번만(煩滿)하고 불알이 오므라든다. 『상한론(傷寒論)』에는 척(尺)·촌맥(寸脈)이 미(微)하고 완(緩)함은 궤음경(厥陰經)에 병을 받은 것이라 하였으며, 대개 상한(傷寒) 6, 7일에 아랫배가 번만(煩滿)하고 낭축(囊縮)이 된다고 하였다.

상한(傷寒)에 궤음(厥陰)으로 전경(轉經)되면 사열(邪熱)이 배 속에 잠복되어 밖으로 경락(經絡)에 통하지 못하므로 축급(縮急)되며, 남자(男子)는 낭축(囊縮)이 되고 부인(婦人)은 유두(乳頭)가 축소된다. 특히 이 병에는 맥(脈)을 중시하는데, 궤음병(厥陰病)은 대개 상한(傷寒) 6, 7일에 생기며 특징은 번만(煩滿)·낭축(囊縮)과 척(尺)·촌맥(寸脈)이 미완(微緩)하다. 그러나 병이 풀리고자 하면 맥(脈)이 미부(微浮)하거나 부완(浮緩)하고, 치료가 어려울 때는 불부(不浮) 또는 침단(沈短)하다.

맥(脈)이 부완(浮緩)하면 외증(外證)의 오한(惡寒) 발열(發熱)만 다 스리면 되므로 여기에는 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을 쓰고, 만일 병독이 아랫배에 들어가서 맥(脈)이 침단(沈短)하고 낭축(囊縮)이 되면 승기탕(承氣湯)으로 설사를 시킨다. 승기탕(承氣湯)을 빨리만 쓰면 가령 다섯 사람 중에 넷은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병이 극에 이르렀을지라도 맥(脈)이 미완(微緩)하면 호전될 전망이 있으므로 수승화강(水升火降)하고, 한열(寒熱)이 상반(相伴)되면 많은 땀이 난다.

45. 모든 병이 손발이 찬 것은 켄음병(厥陰病)에 속한 것이다. 땀을 내거나 설사를 시켜서는 안 되지만 약간 땀을 내거나 설사를 시켜야 할 자가 있으니 손발이 비록 찰지라도 때로 따뜻한 때가 있고 손바닥·발바닥에 더운 기운이 돌면 이는 정켄역(正厥逆)이 아니니 마땅히 잘 헤아리도록 해야 한다.

諸手足逆冷 皆屬厥陰 不可汗下 然有須汗須下者 謂手足 雖逆冷 時有溫時 手足掌心 必煖 非正厥逆 當消息之

[주(註)] ○불가한(不可汗): 상한(傷寒) 육경병(六經病)에는 반드시 맥증(脈證)을 참작하여 약을 쓰되 모든 표증(表證)이 있을 때는 발한제를 써도 좋고 모든 맥(脈)이 허손(虛損)하고 또 긴(緊)·지(遲)·미(微)·색(瀼)하면 땀을 내서는 안 된다.

○불가하(不可下): 이증(裏證)이 심할 때에는 하제(下劑)를 쓸 수 있지만 오한(惡寒)이 있거나 결흉증(結胸症) 또는 맥(脈)이 부(浮)·세(細)·허(虛)·미(微)·색(瀼)할 때에는 절대로 하제(下劑)를 써서는 안 된다.

46. 이첨(李梴)이 말하기를 “허가 굳고 사지(四肢)가 켄역(厥逆)하며 찬 기운이 팔꿈치와 무릎을 지나서 아랫배가 쥐어짜는 것같이 아프면 주로 삼미삼유탕(三味蓼莢湯)·사순탕(四順湯)이 좋고, 불알이 오므라들고 손발이 차다 덥다 하며 속이 답답하면 주로 대승기탕(大承氣湯)이 좋다.”

李梴曰 舌卷厥逆 冷過肘膝 小腹絞痛三味蓼莢湯 四順湯 主之 囊縮 手足乍冷乍溫 煩滿者 大承氣湯 主之

(해설) ‘입문표본편(入門標本篇)’에 켄음(厥陰)은 심포경(心包經)이

표(標)가 되므로 설권(舌卷) 궤역(厥逆)하며 냉(冷)이 팔꿈치와 무릎을 지나서 위로 올라오면 아랫배가 쥐어짜는 것같이 아픈데 이는 한(寒)하기 때문이다. 삼미삼유탕(三味蓼萸湯)·사순탕(四順湯)을 쓰고 간경(肝經)은 본(本)이 되므로 남자는 낭축(囊縮), 여자는 음정(陰挺) 및 유방(乳房)이 오므라든다. 혹 수족이 차다 온(溫)하다 하며, 대변이 실(實)하고 조갈증이 있으며 아랫배가 답답함은 죽열이 있기 때문이니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47.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장중경(張仲景)이 말한 궤음병(厥陰病)은 처음에는 복통·설사 같은 증상이 없다가 6, 7일 만에 돌연히 궤(厥)이 되며, 손발이 차지면 이는 음증(陰證)의 유(類)가 아니다. 이에 소음인(少陰人)의 태양(太陽) 상풍증(傷風證)에 오한(惡寒)·발열(發熱)하며 땀이 저절로 나는 증세는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여러 날을 서로 지탱하다가 풀릴 것이 풀리지 못하여 이와 같은 증세로 변한 것이다. 이 증세는 당연히 태양병(太陽病) 궤음증(厥陰證)이라 해야 하며 이 증세에는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 같은 것을 써서는 안 되고, 마땅히 삼수탕(蓼茺湯)·인삼오수유탕(人蔘吳茺萸湯)·독삼팔물탕(獨參八物湯)을 써야 하며,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써서는 안 되고 파두(巴豆)를 써야 한다.”

論曰 張仲景所論 厥陰病 初無腹痛下利等證而 六七日 猝然而厥 手足遂冷則此非陰證之類也 乃少陰人 太陽傷風 惡寒發熱汗自出之證 正邪相持日久 當解不解而變爲此證也 此證 當謂之 太陽病厥陰證也 此證不必用 當歸四逆湯 桂麻各半湯而 當用蓼茺湯 人蔘吳茺萸湯 獨參八物湯 不當用 大承氣湯而 當用巴豆

48. 무릇 소음인(少陰人) 외감병(外感病)이 6, 7일이 되어 땀을 내지

못하고 죽는 자는 모두 궤음(厥陰) 때문에 죽는 것이니 4, 5일 동안 병세를 잘 관망하여 황저계지탕(黃芪桂枝湯)·팔물군자탕(八物君子湯) 같은 약을 4, 5첩 써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凡少陰人 外感病 六七日 不得汗解而死者 皆死於厥陰也 四五日觀其病勢 用黃芪桂枝湯 八物君子湯 三四五貼 豫防可也

49. 주굉(朱肱)이 말하기를 “궤음병(厥陰病) 소갈(消渴)은 열기가 위로 심장(心臟)을 충격하여 가슴이 뜨겁고 아프며, 주려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먹으면 회(蛔)를 토(吐)한다.”

朱肱曰 厥陰病 消渴 氣上衝心 心中疼熱 飢不欲食 食則吐蛔

50. 공신(龔信)이 말하기를 “상한병(傷寒病)에 회(蛔)를 토하게 되면 비록 열이 많아도 하제(下劑)를 써서는 안 된다. 만일 찬 약이 위(胃)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위(胃) 속에 찬 기운이 있으면 회(蛔)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식도를 막아 버리니 크게 흉한 징조다. 빨리 이 중탕(理中湯)을 써야 한다.”

龔信曰 傷寒有吐蛔者 雖有大熱 忌下 涼藥犯之 必死 蓋胃中有寒則 蛔不安所而 上膈 大凶之兆也 急用理中湯

(해설) 상한(傷寒)에 회궤증(蛔厥證)이 있다. 이는 위(胃)에 한기(寒氣)를 받아서 회(蛔)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가슴으로 올라온 것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시도 편치 않으며, 이것이 반복하다가 음식 냄새를 맡거나 하면 회(蛔)를 토한다. 이를 회궤증(蛔厥證)이라 한다.

51.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세에는 반드시 이중탕(理中湯)을 하루에 세 첩 내지 네 첩을 쓰고, 또 연일복(連日服)해야 하며, 이중탕(理中湯)에 진피(陳皮) · 관계(官桂) · 백하수오(白何首烏)를 가(加)해도 좋다.”

論曰此證 當用理中湯 日三四服 又 連日服 或 理中湯 加陳皮 官桂 白何烏

52. 중병(重病)과 위증(危證)에는 하루에 세 번 혹은 네 번 약을 쓰지 않으면 약력이 뺏어나지 못하며, 또 연일복(連日服)하지 않으면 병이 조금 낫다가도 더쳐버리기도 하고 혹 병이 낫더라도 아주 쾌(快)하게 낫지 않는다. 연일복(連日服)이라 함은 하루에 두 번 혹은 한 번 혹은 세 번씩 약을 먹어야 하며, 2, 3일 계속되거나 혹은 5, 6일, 혹은 수십 일을 계속 복약하는 것이니 그 병세를 잘 관찰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重病 危證 藥不三四服則 藥力不壯也 又不連日服則 病加於少愈也 或病愈而 不快也 連日服者 或日再服 或日一服 或日三服 或二三日連日服 或五六日連服 或數十日連日服 觀其病勢圖之

## 제9장 소음인(少陰人) 위수한(胃受寒) 이한병론(裏寒病論)

소음인(少陰人) 내상병(內傷病)은 그 일체를 위(胃)에 한기(寒氣)를 받아서 생기는 것으로 본 것이다.

1.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태음증(太陰證)은 배가 더부룩하고 구토가 나며 먹은 것이 내리지 않고 설사가 더욱 심해지며 때로 배가 아프다.”

張仲景 曰太陰之證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2. 배가 더부룩하고 때때로 배가 아프며 구토·설사를 하되 조갈증이 없으면 태음증(太陰證)이 된 것이니 사역탕(四逆湯)·이중탕(理中湯)이 좋고, 배 속이 더부룩한 것이 꺼지지 않거나 꺼졌어도 배 속이 좋지 않으면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쓰는 것이 좋다.

腹滿時痛 吐利不渴者 爲太陰 宜四逆湯 理中湯 腹滿不減減不足言 宜大承氣湯

(해설) 이증탕(理中湯)은 태음병(太陰病) 약이요, 승기탕(承氣湯)은 양명병(陽明病) 위가실(胃家實)의 약이다.

태음병(太陰病)은 토(吐)하고 사(瀉)하되 구갈(口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비위(脾胃)가 허냉(虛冷)하여 수분을 흡수치 못하므로 설사를 한다. 이는 보통 식체로 인한 구토·설사증이며, 여기에는 속을 덥히는 이증탕(理中湯)·사역탕(四逆湯)을 써서 좋지만 단지 소음인(少陰人) 체질에 한하여 쓸 수 있는 약이다. 배속이 거북하고 또 단단함은 음식물이 위에 정체되어 가스가 생긴 것이므로 때로 배가 아프다. 이런 경우 대승기탕(大承氣湯)으로 설사를 시키라 하였으나 소음인 체질에는 부당한 약이므로 마땅히 파두여의단(巴豆如意丹)을 써야 한다.

3. 상한(傷寒)에 설사를 하되 구갈(口渴)이 없으면 태음병(太陰病)이다. 이는 장(臟)에 찬 기운이 있기 때문이니 마땅히 속을 덥게 해야 하므로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傷寒 自利不渴者 屬太陰 以其臟有寒故也 當溫之 宜用四逆湯

[주(註)] ○장(臟): 특히 비장(脾臟)을 말한 것이다.

(해설) 소음인(少陰人) 설사는 속이 차져서 생기는 것이다. 설사를 하되 구갈(口渴)이 없으면 탈수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니 이를 태음병(太陰病)이라 하고, 설사를 하되 구갈(口渴)이 심하면 탈수 현상이니 이를 소음병(少陰病)이라 한다.

4. 태음증(太陰證)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되 구갈(口渴)이 없다. 여기에는 이증탕(理中湯)·이증환(理中丸)이 좋고, 사순리증탕환(四順理中湯丸)도 또한 주가 된다.

太陰證 腹痛自利不渴 宜理中湯 理中丸 四順理中湯丸 亦主之

[주(註)] ○이중탕(理中湯)[환(丸)]: 주로 허한성(虛寒性) 구토·설사·복통에 쓴다.

○사순리중탕(四順理中湯)[환(丸)]: 과식으로 인하여 위(胃)를 상했거나 위가 허약하여 소화불량이 되었을 때에 쓴다.

5.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중탕(理中湯)·사역탕(四逆湯)·사순리중탕(四順理中湯)을 써야 하지만 이는 고방(古方) 초창기에 마련된 것이어서 약력이 갖추어지지 못했으므로 이 증세에는 백하오리중탕(白何烏理中湯)·백하오부자리중탕(白何烏附子理中湯)을 써야 한다. 배가 더부룩한 것이 꺼지지 않거나 꺼졌어도 속이 좋지 않으면 고냉(痼冷)이나 적체(積滯)로 인함이니 마땅히 파두(巴豆)를 써야 하고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써서는 안 된다.”

論曰 右證當用 理中湯 四順理中湯 四逆湯而 古方草創 藥力不具備 此證 當用白何烏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腹滿不減 減不足言者 有痼冷積滯也 當用巴豆而 不當用大承氣湯

(해설) 백하오리중탕(白何烏理中湯)·백하오부자리중탕(白何烏附子理中湯)은 고방(古方) 이중탕(理中湯)의 변방(變方)이다.

파두(巴豆)는 설사하는 약이나 주로 고냉(痼冷)·적체(積滯)를 뚫는 작용을 하며 또한 대승기탕(大承氣湯)의 대황(大黃)·망초(芒硝)도 설사하는 약이나 주로 이열(裏熱)을 치는 약이다. 그러므로 소음인병(少陰人病)에는 대변이 불통되어도 이열(裏熱)을 치는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써서는 안 된다.

6.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병이 생기며 음증(陰證)으로 된 것을 도리어 설사를 시킨즉 그 때문에 명치 밑이 답답해진다. 상한(傷



寒)에 구역이 나고 열이 있는 자가 만일 명치 밑이 답답하나 통증이 없으면 이는 비증(痞證)이 된 것이다.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을 주로 해야 하고, 위(胃)가 허약하여 객기(客氣)가 위로 거슬러 올라갈 때에도 이 약을 주로 써야 한다.”

張仲景曰 病發於陰而 反下之 因作痞 傷寒 嘔而發熱者 若心下滿而不痛 此爲痞 半夏瀉心湯主之 胃虛氣逆者 亦主之

(해설) 태음병(太陰病)에 배가 더부룩하고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며 설사가 심하고 때로 배가 아플 때에 만일 설사를 시키면 반드시 명치가 답답하고 또 단단해진다. 이는 치료를 잘못해서 변증이 된 것이다.

또 상한(傷寒) 6, 7일에 구역이 나고 발열(發熱)이 있을 때에 흑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쓸 경우 잘못 설사약을 써서 변증이 되면 명치가 답답하고 또 탄탄해진다. 이를 비(痞)라 하니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을 써야 하며, 위(胃)가 허약하여 기(氣)가 위로 거슬러 올라올 때에도 치담(治痰)을 목적으로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을 쓴다.

7. 설사약을 쓴 후 설사를 하루에 수십 번 하고, 음식 소화가 안 되며 배 속이 끓고 명치 밑이 더부룩하고 단단하며 구역질이 있고 가슴속이 번거로우면, 이는 열(熱)이 맺힌 것이다. 위(胃)속이 허(虛)하여 객기(客氣)가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이니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이 주가 된다.

下後 下利日數十行 穀不化 腹雷鳴 心下痞硬 乾嘔心煩 此乃結熱 乃胃中虛 客氣上逆故也 甘草瀉心湯主之

(해설) 상한(傷寒) 중풍(中風)에 표증(表證)이 있을 때에 설사를 시

키면 안 된다. 만일 잘못 설사약을 쓰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설사를 하게 되며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끓고 명치 밑이 단단해진다. 또 헛구역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 이를 치료하고자 다시 하제(下劑)를 쓰면 심하비경(心下痞硬)이 더욱 심하다. 이는 객기(客氣)가 위로 거슬러 오기 때문이니 여기에는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을 쓴다.

8. 태음증(太陰證)에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을 그대로 설사를 하는 경우 만일 땀을 내게 하면 반드시 배가 창만해진다. 땀낸 뒤에 배의 창만증이 생길 경우에는 후박반하탕(厚朴半夏湯)을 쓰는 것이 좋다.

太陰證 下利清穀 若發汗則 必脹滿 發汗後 腹脹滿 宜用厚朴半夏湯

[주(註)] ○후박반하탕(厚朴半夏湯): 후박생강반하감초인삼탕(厚朴生薑半夏甘草人蔘湯)의 약칭이다.

(해설) 설사가 심할 때에 만일 발한제를 쓰면 배가 창만해진다. 이는 위기(胃氣)가 허약하여 생기는 것이다. 언제나 발한 뒤에 창만증이 생기면 순박반하탕(厚朴半夏湯)을 쓴다.

9. 땀으로 푼 뒤에 배 속이 불편하고 명치 밑이 답답하며, 또 땀만 하며 늑골 밑에서 물소리가 나고 배가 끓고 설사를 하면 생강사심탕(生薑瀉心湯)을 쓴다.

汗解後 胃不和 心下痞硬 脇下有水氣 腹中雷鳴 下利者 生薑瀉心湯主之

(해설) 상한(傷寒) 표병(表病)에 땀을 내고 열이 풀린 뒤에 배 속이 거북하고 명치 밑이 답답하고 또 땀만하며 늑골 밑에서 물소리가 나고 배 속이 끓고 설사를 함은 본래 발한제를 강하게 써서 위(胃)를 상한 데서 온 증상이다. 이는 이상분비(異常分泌)로

담(痰)이 많이 생긴 것이니 소담(消痰)을 목적으로 생강사심탕(生薑瀉心湯)을 쓴다.

10. 상한(傷寒)에 설사를 하되 명치가 답답하고 또 땀땀하므로 사심탕(瀉心湯)을 쓴 뒤에 다른 약으로 설사를 시켰더니 설사가 그치지 않으므로 이내 이중탕(理中湯)을 썼으나 설사가 더욱 심하다. 여기에는 적석지우여량탕(赤石脂禹餘糧湯)을 주로 쓴다.

傷寒下利 心下痞硬 服瀉心湯後 以他藥下之 利不止與理中湯 利益甚 赤石脂禹餘糧湯 主之

[주(註)] ○적석지우여량탕(赤石脂禹餘糧湯)은 적석지(赤石脂) 600g과 우여량(禹餘糧) 600g을 물 10L에 달여 4L가량 되면 세 번에 나누어 마신다. 이 약은 주로 설사증에 쓰지만 용도가 그리 많지 않다. 수렴작용이 강하므로 하초(下焦)가 허약하여 설사할 때에만 쓰고, 달리 잘못 쓰면 위(胃)를 상할 우려가 있다. (해설) 상한(傷寒)에 설사시킬 증세가 있어 설사약을 먹였더니 도리어 설사가 심해지고 명치 밑이 답답하며 땀땀해진다. 그래서 사심탕(瀉心湯)을 썼으나 병이 풀리지 않으므로 음식에 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 하제(下劑)를 썼으나 설사가 그치지 않으므로 설사를 막기 위하여 이중탕(理中湯)을 썼으나 설사가 더욱 심하다. 적석지우여량탕(赤石脂禹餘糧湯)을 쓰니 설사가 그쳤다. 이는 치험례(治驗例)를 피력한 것이다.

11. 나는 이렇게 말한다. “중경(仲景)이 말한바 ‘병이 생기며 음증(陰證)이 된 것을 도리어 설사를 시키니’ 운운한 것은 병(病)이 생기며 위(胃)가 약한 데서 생긴 것이므로 마땅히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써야 할 것인데 도리어 대황(大黃)으로 설사를 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마황(麻黃)과 대황(大黃)은 태음인(太陰人) 약이요 소음

인(少陰人) 약이 아니므로 소음인병(少陰人病)에는 표증(表證)·이증(裏證)을 막론하고 마황(麻黃)이나 대황(大黃)으로 땀을 내거나 설사를 시킨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소음인병에 음식이 삭지 않은 것을 사(瀉)하는 것은 적체(積滯)가 저절로 풀리기 때문이니 태음증(太陰證)에 음식이 삭지 않은 것을 사(瀉)하면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향사양위탕(香砂養胃湯) 또는 강출관중탕(薑朮寬中湯) 같은 것을 써서 위(胃)를 덥히고 음기(陰氣)를 내리게 해야 하고 소음증(少陰證)에 음식이 삭지 않은 것을 사(瀉)하면 관계부자리중탕(官桂附子理中湯)으로 건비(健脾) 강음(降陰)해야 할 것이다.”

論曰 病發於陰而 反下之 云者 病發於胃弱 當用藿香正氣散而 反用大黃 下之謂也 麻黃 大黃 自是太陰人藥 非少陰人藥則 少陰人病 無論表裏 麻黃 大黃汗下 元非可論 少陰人病下利清穀者 積滯自解也 太陰證 下利 清穀者 當用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少陰證下 利清穀者 當用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12.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관중탕(寬中湯)·소합원(蘇合元)은 모두 장중경(張仲景) 사심탕(瀉心湯)의 변방(變方인 것이다. 이른바 쪽[藍]보다 푸른 것이 쪽에서 나온 것이니 아! 푸른 것이 비록 저절로 푸르지만 만일 그쪽이 아니었으면 푸른 것이 어찌 푸를 수 있었겠는가.

藿香正氣散 香砂六君子湯 寬中湯 蘇合元 皆張仲景 瀉心湯之變劑也 此 所謂青於藍者出於藍 噫青雖自青 若非其藍 青何得青

(해설) 여기서 말한 사심탕(瀉心湯)은 『금궤요약(金匱要略)』의 사

심탕(瀉心湯)이 아니라 『금궤상한론(金匱傷寒論)』에 나온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 · 생강사심탕(生薑瀉心湯) ·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 같은 것을 말한 것 같다.

(ㄱ)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 상한(傷寒)에 심하비(心下痞) 구이장명(嘔而腸鳴)에 쓴다 하였으니, 심하비(心下痞)는 습열(濕熱)이 위(胃)에 울체(鬱滯)되어 위로 거슬러 올라온즉 구(嘔)가 생기고 아래로 내려간즉 장명(腸鳴)이 된다.

(ㄴ) 생강사심탕(生薑瀉心湯): 상한병(傷寒病)이 풀린 뒤에 위(胃)속이 불화(不和)하고 심하비경(心下痞硬)하며 트림이 나되 구린내가 나며 옆구리가 결리며 배가 끓고 설사를 하는 경우에 쓴다.

(ㄷ)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 상한(傷寒) 중풍(中風)에 잘못 치료하여 설사를 하게 되면 심하비(心下痞)가 생기고 구(嘔)하고 리(利)하며 심번(心煩)할 때 쓴다.

(ㄹ)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 외감(外感) 상한(傷寒)에 불분표리(不分表裏)에 쓴다.

(ㄴ)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 불사욕식(不思欲食) · 식불하(食不下) · 식후도포(食後倒飽)에 쓴다.

(ㄷ) 소합향원(蘇合香元): 일체의 중기병(中氣病)에 쓴다.

(ㄴ) 청어남청어남(靑於藍靑於藍): 『순자(荀子)』의 「권학론(勸學論)」에 나온 말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다는 뜻이다. 쪽풀의 잎에 들어 있는 색소는 감색(紺色) 물감으로 쓰인다.

13.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상한(傷寒)의 음독증(陰毒證)은 열굴빛이 푸르고 몸이 쭈시기를 장대로 맞은 사람 같으니 5일이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7일이 지나면 치료가 어렵다.”

張仲景 曰傷寒陰毒之病 面靑身痛 如被杖 五日 可治 七日 不治

14. 이천(李塉)이 말하기를 “삼음병(三陰病)[태음(太陰) · 소음(少陰) ·厥음(厥陰)]이 깊어지면 반드시 음독증(陰毒證)으로 변하게 된다. 그

증세는 손발이 얼음같이 차고 토(吐)하고 사(瀉)하되 조갈이 없다. 조용히 웅크리고 누워 있기를 좋아하며, 심하면 목이 아파서 당나귀 소리를 내게 된다. 또한 두통이 있고 이마에서 땀이 흐르며, 눈알이 쏘고 아파서 불빛을 싫어한다, 얼굴과 입술·손톱이 푸르고 검으며, 몸이 장대로 맞은 자와 같다. 또 이 증세에는 얼굴빛이 푸르렀다 희다 검다 하며, 사지(四肢)가 쭈늘(厥冷)하고 잠을 많이 잔다”.

李梴 曰三陰病深 必變爲陰毒 其證 四肢厥冷 吐利不渴 靜謐而臥 甚則咽痛鄭聲 加以頭痛頭汗 眼睛 內痛 不欲見光 面唇指甲 青黑 身如被杖 又此證 面青白黑 四肢厥冷多睡

[주(註)] 신여피장(身如被杖):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음.

(해설) 『상한론(傷寒論)』에서 말한 음독(陰毒)은 음열(陽熱)이 극에 이르면 열이 속에 깊이 잠복되어 체표(體表)는 마치 음한(陰寒)한 것 같다. 이는 열독이 음경(陰經)에 침입한 소치라고 하였고, 이외는 달리 후세에 와서는 신기(腎氣)가 허냉(虛冷)한 자가 혹 범방(犯房) 후에 다시 감한(感寒)되었거나 또는 생냉(生冷)한 음식을 먹어서 내장을 상한 뒤에 범방하여 냉기가 안에서 양기(陽氣)를 막아 탈망(脫亡)이 된 증세라 하였다.

음독(陰毒)증세는 머리와 눈알이 아프고, 허리가 무겁고 배가 몹시 아프다. 몸이 노곤하고 열이 없으며, 손발이 차고 이마와 손 등에서 찬 땀이 흐른다. 또 번갈아 있고 정신이 혼미하며, 대맥(六脈)이 침세(沈細)하고 빠르다. 5, 6일 지나면 가슴과 수족에는 붉은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구역이 나며 혹 손톱이 파랗다. 배가 쥐어짜는 듯 아프고, 콧속이 타서 굴뚝 같으며, 혀에는 흑태(黑苔)가 낀다. 이럴 때는 회양퇴음(回陽退陰)하는 약을 써야 하는데, 잘못 찬약을 쓰게 되면 죽는다.

15.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세에는 인삼계피탕(人蔘桂皮湯)·인삼부자리중탕(人蔘附子理中湯)을 써야 한다.”

16.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상한(傷寒)이 곧장 음경(陰經)을 범하면 처음에는 두통·신열·조갈 같은 증세는 없고 단지 추워서 떨면 허리를 구부리고 누워서 침중한 모양으로 잠만 자려고 한다. 입술이 파랗고 손발이 차며, 맥(脈)이 가늘고 약하여 마치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혹 견맥(伏脈)이 보이기도 하니 이럴 때에는 사역탕(四逆湯)을 쓰는 것이 좋다. 사역(四逆)이라 함은 사지(四肢)가 얼음같이 찬 것을 뜻한다.”

張仲景 曰傷寒 直中陰經 初來無頭痛 無身熱 無渴 怕寒踡臥 沈重欲眠 唇青厥冷 脈微而欲絕 或脈伏 宜四逆湯 四逆者 四肢逆冷也

[주(註)] ○복맥(伏脈): 실맥(實脈)의 일종인데, 침맥(沈脈)이 강하게 촉진되는 것이다.

(해설) 본래 양기(陽氣)가 허한 사람이 처음 병이 날 때는 열이 없고 머리가 아프지 않다. 단지 오한(惡寒)만 있고 구부리고 누기를 좋아한다. 배 전체가 아프고 설사를 하며 사지(四肢)가 권역(厥逆)하고 맥(脈)이 침(沈)하면, 삼음경(三陰經)에 직접 찬 기운이 뚫고 들어간 것이니 이를 직중음경(直中陰經)이라 한다.

17. 나는 일찍이 소음인(少陰人)이 직중음경(直中陰經)되어 건괘난(乾癯亂) 관격(關格)된 병을 치료한 일이 있다. 때는 중복(中伏) 여름철이었다. 소음인(少陰人) 한 사람이 얼굴빛이 푸르다 희다 하더니 탄환(彈丸) 크기만 한 반점이 너댓 개 떼 지어 나타나 보이며 기저에는 별 이상이 없고 방 한쪽에 기대어 힘없이 늘어져서 즐기만 하고 있다. 그간의 사정을 물으니 며칠 전에 맑은 물 같은 설사를 한두 번

하다가 이내 막혔고 대변을 못 본 지가 2주야가 된다고 하며, 그 밖에 다른 이상은 없다고 한다. 음식은 보리밥을 먹었다고 한다. 급히 파두여의단(巴豆如意丹) 한 알을 썼더니 한 시간 반 쯤 되자 인중(人中)에서 땀이 나며 차츰 얼굴 전체에서 땀이 흐르고 설사를 한두 번 한다. 그날 해거름에 설사한 것을 관찰한즉 푸른 물설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찌꺼기가 섞여 나왔다. 밤새도록 설사를 십여 차 계속하였고 이튿날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십여 차 설사를 하였는데 보리 밥알이 마치 콩알만 하게 붙어 있었다. 이 병은 본래 식체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연 사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였고 날마다 먹는 것이라고는 단지 숭늉 한두 공기 마시게 했을 뿐이다. 사흘이 되는 날 새벽에 병자의 얼굴빛을 살펴보니 밝게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나 몸 전체는 얼음같이 차고 목을 땅에서 한두 치 떨어진 채 고개를 들지 못한다. 병세는 더욱 위중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다시 병자의 전신을 점검하여 보니 수족은 물론이요, 허리 아랫배가 얼음장같이 차고, 배꼽 밑은 돌같이 딱딱하며, 가슴·배 위[상원(上脘)]에는 열이 찌는 것 같아서 손을 구워낼 정도로 뜨겁다. 병세는 매우 가관이다. 닳새가 되는 날 아침에는 맑은 거품을 토하더니 거품 가운데는 보리밥 한 덩이가 섞여 나왔다. 이때부터 병세는 차차 감하기 시작하더니 미음을 몇 공기 먹고 이튿날에는 죽을 먹는다. 이 병자는 궁벽한 산골에 있었기 때문에 온위(溫胃)하는 약과 화해(和解)하는 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 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소음인(少陰人)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설사를 하다가 이내 맑은 물을 쏟으며 온 배가 부어 올라온다. 처음에는 계부곽진리중탕(桂附藿陳理中湯)을 쓰되 인삼(人蔘)·관계(官桂)



를 각 7.5g과 부자(附子) 3.75~7.5g씩 가(加)하여 하루에 네 번 썼고 며칠 후에는 하루 세 번씩 복용하여 십여 일을 계속하였다. 드디어 삭지 않은 설사를 하고, 사흘 동안에 3, 4차 하더니 부종(浮腫)이 크게 줄었다.

또 소음인(少陰人) 어린아이가 푸른 물설사를 하며 얼굴빛이 검푸르고 기운이 탈진하여 자는 것 같았다. 그래서 곧 독삼탕(獨參湯)을 쓰기로 하고 생강(生薑) 7.5g, 잔피(陳皮)·사인명(砂仁名) 3.75g을 가(加)하여 하루에 세 번 또는 네 번을 먹이니 며칠 후 십여 차 설사를 하다가 땀을 흘리더니 병이 나았다.

생각건대 소음인(少陰人) 곽난(癰亂) 관격병(關格病)에는 인중(人中)에서 땀이 나면 비로소 위험을 면하게 되고, 식체(食滯)가 뚫려서 크게 설사를 하면 다음으로 위험을 면하게 되고, 저절로 토하게 되면 꽤히 위험을 면하게 된다. 이럴 때 죽이나 밥을 먹이는 것을 금하고 좋은 숯농이나 흑 미음을 먹이는 것이 운기(元氣)를 북돋우며 사기(邪氣)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숙체(宿滯)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좋은 숯농을 따끈하게 데워서 먹이면 소화가 잘 될 뿐 아니라 다른 음식보다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비록 3, 4일 밥을 먹지 않아도 별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다.

論曰 嘗治少陰人 直中陰經 乾癰亂關格之病 時屬中伏節候 少陰人一人 面部氣色或青或白 如彈丸圈四五點成團 起居如常而坐於房室中倚壁 一身委靡無力而 但欲寐 問其這間原委則 曰數日前下利清水一二行仍爲便閉 至今爲兩晝夜 別無他故云 問所飲食則曰食麥飯云 急用巴豆如意丹一半時刻其汗自人中穴出而 達于面上 下利一二度 時當日暮 觀其下利則青水中 雜穢物而出 終夜下利十餘行 翌日平明至日暮 又十餘行下利而 清

穀麥粒皆加黃豆大 其病爲食滯故 連三日絕不穀食 日所食但進好熟冷 一二碗 至第三日平明 病人面色則 無不顯明而 一身皆冷 頭頸墜下 去地二三寸而不能仰舉 病證更重 計出無聊 仔細點檢病人一身則 手足膀胱腰腹皆如冰冷 臍下全腹 堅硬如石而 胸腹上中脘 熱氣熏騰 炙手可熱 最爲可觀 至第五日平朝 一發吐清沫而清沫中 雜米穀一朶而出 自此 病勢大減 因進米飲聯服數碗 其翌日 因爲粥食 此病 在窮村故 未暇溫胃 和解之藥 其後又有少陰人一人 日下利數次而 仍下清水 全腹浮腫 初用桂附霍陳理中湯 倍加人蔘 官桂各二錢 附子二錢或一錢日四服 數日後則日三服至十餘日 遂下利清穀 連三日三四十行而浮腫大減 又少陰人小兒一人下利青水 面色青黯 氣陷如睡 用獨蔘湯 加生薑二錢 陳皮砂仁各一錢 日三四服 數日後 下利十餘行 大汗解 蓋少陰人癰亂關格病 得人中汗者 始免危也 食滯大下者 次免危也 自然能吐者 快免危也 禁進粥食 但進好熟冷 或米飲者 扶正抑邪之良方也 宿滯之彌留者 得好熟冷乘熱溫進則消化 無異於飲食 雖絕食二三四日 不必爲慮

## 18.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소음병(少陰病)은 맥(脈)이 미세하고 단지 잠만 자려고 한다.”

張仲景 曰少陰病 脈微細但欲寐

(해설) 소음병(少陰病)의 대체적 증상을 말한 것이다. 즉 족소음(足少陰) 신경(腎經)에 병을 받은 것이니 본래 양(陽)이 허(虛)한 사람이 이 병에 걸리기 쉬우며, 체질적으로 소음인(少陰人) 특유의 병이라 할 수 있다.

19. 상한병(傷寒病)에 토(吐)하고 싶어도 토하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단지 자고 싶어만 하며 5, 6일 동안 설사를 하면서 조갈(燥渴)이 생기면 이는 소음병(少陰病)에 속한 것이니, 소변 빛이 희면 5, 6일 동안 사역탕(四逆湯)을 쓰는 것이 좋다.

傷寒 欲吐不吐 心煩但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屬少陰 小便 色白 宜四逆湯

(해설) 태음병(太陰病)과 소음병(少陰病)에 있어서 설사 증상은 같아도 갈(渴)하고 갈(渴)하지 않은 것이 다르다. 소음병(少陰病)에 갈증(渴症)이 있음은 설사를 5, 6일 하였기 때문에 탈수(脫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또 하초(下焦)가 허냉(虛冷)하여 열이 상초(上焦)에 모이면 심번(心煩)하다.

20. 소음병(少陰病)에 전신이 아프고 손발이 차며 골절이 쭈시고 맥(脈)이 침(沈)하면 부자탕(附子湯)이 주가 된다.

少陰病 身體痛 手足寒 骨節痛 脈沈者 附子湯 主之

(해설) 전신이 아프고 골절(骨節)이 쭈신다 함은 대개 표증(表證)인 것이다. 그러나 수족(手足)이 차고 맥(脈)이 침(沈)하다 하였으니 소음병(少陰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외증(外證)이 보일지라도 맥(脈)이 침(沈)하면 이한(裏寒)이므로 부자탕(附子湯)을 쓴다.

21. 설사를 하고 배가 창만(脹滿)하며 전신이 쭈시고 아프면, 먼저 속을 덥게 한 후에 표증(表證)을 다스려야 한다. 속을 덥히는 데는 사역탕(四逆湯), 표(表)를 다스리는 데는 계지탕(桂枝湯)이 좋다.

下利 腹脹滿 身體疼痛 先溫其裏 乃攻其表 溫裏 宜四逆湯 攻表 宜桂枝湯

(해설) 위(胃)가 차면 복창(腹脹)이 되고 장(腸)이 차면 장명(腸鳴)·설사를 한다. 그러므로 설사와 복창만(腹脹滿)이 있으면 허증(虛證)이다. 신체가 동통(疼痛)한 것은 체표(體表)에 열이 있는 것이니, 즉 이한(裏寒) 표열(表熱)의 증상이다. 그러므로 먼저 속을 덥

히기 위하여 사역탕(四逆湯)을 쓰고 다음 표(表)를 치기 위하여  
계지탕(桂枝湯)을 쓴다고 하였다.

22.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은 증세에는 관계부자리중탕(官  
桂附子理中湯)을 써야 한다.”

論曰 右證 當用 官桂附子理中湯

23.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소음병(少陰病)을 처음 얻었는데  
도리어 열이 나고 맥(脈)이 침(沈)한 자는 마황부자세신탕(麻黃附子細  
辛湯)이 주가 된다.”

張仲景 曰少陰病 始得之 反發熱 脈沈者 麻黃附子細辛湯 主之

(해설) 소음병(少陰病)을 처음 얻었다고 함은 다른 증세에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음병(少陰病)이 되었다는 뜻이다. 본래 소음병은 열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서 열이 있다고 함은 표병(表病)이 겸한 것이다. 따라서 표리를 다 같이 다스려야 하므로 마황부자세신탕(麻黃附子細辛湯)을 쓴 것이다. 마황(麻黃)은 표병(表病)에 발한(發汗)을 하고 부자(附子)는 이한(裏寒)에 장(陽)을 들어 올리는 약이다.

24. 소음병(少陰病)이 하루나 이틀을 지났는데 입안이 부드럽고 등이  
오싹오싹하면 부자탕(附子湯)을 쓰는 것이 좋다.

少陰病一二日 口中 和 背惡寒 宜附子湯

[주(註)] ○구중(口中) 화(和): 입이 조(燥)하지 않고 평시와 다름

이 없다는 뜻이다.

(해설) 이는 소음병(少陰病) 초기의 증상이다. 입이 조(燥)하지 않고 단지 등이 시린 것은 표증(表證)이 아니라 이한증(裏寒證)의 표상인 것이다. 여기에는 부자탕(附子湯)을 쓴다.

25. 소음병(少陰病) 2, 3일 만에 마황부자감초탕(麻黃附子甘草湯)을 써서 약간 땀을 내게 한 것은 2, 3일이 되었는데도 아무 증세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무 증세가 없다’고 함은 토하고 사(瀉)하거나 수족이 냉한 증세가 없다는 것을 이른 말이다.

少陰病二三日 用麻黃附子甘草湯 微發之 以二三日無證故 微發汗也 無證 謂無吐利厥證也

(해설) 소제병(少陰病)이 된 지 2, 3일이라 하였고 또 증세가 없다고 하였으니 마황부자세신탕(麻黃附子細辛湯)을 쓰는 경우와 같다고 보겠으나, 단지 세신훈(細辛)을 감초(甘草)로 바꾼 것은 발산을 적게 하고 완화를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약간 땀을 내야 하며, 이 병은 2, 3일이 지나도 토(吐)하거나 설사·한厥(寒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황부자감초탕(麻黃附子甘草湯)을 쓴 것이다.

26. 설사를 하는데 맥(脈)이 침(沈)하고 지(遲)하며 얼굴빛이 약간 붉고 몸에서 약간 땀이 나며 삭지 않은 설사를 하면, 반드시 어지러운 기가 있다 없다 하다가 땀이 나면서 풀릴 것이다. 이럴 때에는 병자는 반드시 약간의 쥔냉증(厥冷證)이 보일 것이다. 그 이유는 그의 얼굴에 양(陽)이 떠 있고 아래는 허(虛)하기 때문이다.

下利 脈沈而遲 其人 面小赤 身有微汗 下利清穀 必鬱冒汗出而解 病人必微厥 所以然者 其面 戴陽下虛故也

[주(註)] ○울모(鬱冒): 별안간 어지러운 기가 있다 없다 하는 증세를 말한다.

(해설) 이는 설사를 하며 맥(脈)이 침(沈)하고 지(遲)하니 음병(陰病)이긴 하나 얼굴에 약간 붉은 빛이 돌고 또 몸에서 약간 땀이 나면 양기(陽氣)가 돌아오는 현상이다. 이는 병이 풀리고자 하는 좋은 징조다.

27. 소음병(少陰病)에 맥(脈)이 가늘고 또 침삭(沈數)하면 병이 이(裏)에 있는 것이니 땀을 내서는 안 된다. 소음병에 몸이 차고 땀이 없을 때에 강제로 발한을 시킨즉 반드시 혈관을 자극하여 코와 입 또 눈에서 출혈될 우려가 있다. 이는 아래는 허하여 궤(厥)이 되고 위는 피가 고갈된 것이니 치료하기가 어렵다.

少陰病 脈細沈數 病爲在裏 不可發汗 少陰病 但厥無汗而強發之 必動其血 或從口鼻 或從目出 是爲下厥上竭 難治

(해설) 맥(脈)이 세침(細沈)함은 이한(裏寒)에서 오는 맥상이다. 삭맥(數脈)은 열이 있을 때에 보이는 것이므로 혹 열을 치기 쉬우나 이 경우에는 절대로 발한을 시켜서는 안 된다. 소음병(少陰病)에는 본래 땀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잘못 발한을 시킨즉 혈관을 자극하여 코피 또는 토혈을 일으킨다. 하초(下焦) 양기(陽氣)가 쇠하여 하궤(下厥)이 되고 상초(上焦) 음혈(陰血)이 고갈되어 상갈(上竭)이 되면 음양조화가 되지 못하므로 이는 치료가 어렵다.

28.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장중경(張仲景)이 말한바 태음병(太陰病)과 소음병(少陰病)은 다 같이 소음인(少陰人)의 위기(胃氣)가 허약하여 설사하는 증세다. 그런데 태음병(太陰病) 설사는 중증 중에서도 보통 증세이지만 소음병(少陰病) 설사는 위험한 증세 중에서도 가장 위험

한 증세다. 사람들은 설사만을 보고 같은 증세라 하여 예사로 생각하기 쉬우나 만일 소음병 설사를 예사로 보았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대개 태음병 설사는 대장(大腸)에서 생기는 설사요 소음병 설사는 위(胃)에서 생기는 설사다. 태음병 설사는 온기(溫氣)가 냉기(冷氣)를 쫓아내는 설사요 소음병 설사는 냉기(冷氣)가 온기(溫氣)를 쫓아내는 설사인 것이다.”

論曰 張仲景所論 太陰病 少陰病 俱是少陰人 胃氣虛弱泄瀉之證而 太陰病泄瀉 重證中平證也 少陰病泄瀉 危證中險證也 人但見泄瀉 同是一證而易於尋常做圖 少陰病泄瀉 尋常做圖則必不免死 蓋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也 少陰病泄瀉 胃中之泄瀉也 太陰病泄瀉 溫氣逐冷氣之泄瀉也 少陰病泄瀉 冷氣逼溫氣之泄瀉也

29. 소음병(少陰病)이 스스로 낫고자 할 때는 얼굴빛이 약간 붉어지고 몸에서 땀이 약간 나는데 어지럼기가 있다 없다 하다가 땀이 나면서 병이 풀린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이 소음병에 단지 췌(厥)하기만 하고 땀이 없는 자는 마황(麻黃)으로 억지로 땀을 내게 하여 병이 저절로 낫게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혈(血)을 자극하여 입이나 코로 피가 나오게 되는 까닭에 이에 비로소 이를 경계하며 두려워하였으니 소음병에는 감히 경솔하게 마황(麻黃)을 써서는 안 된다.

소음병이 생긴 지 하루 이틀이나 2, 3일 되는 초증(初證)에는 마황부자감초탕(麻黃附子甘草湯)으로 약간 땀을 내게 하였으나 본래 마황(麻黃)은 소음병에는 해로운 약이므로 비록 2, 3일의 초증(初證)이라도 절대로 마황(麻黃)으로 땀을 내어서는 안 된다. 이 증세는 관계부자리중탕(官桂附子理中湯)을 써야 하는데 혹 관계(官桂)를 계지(桂枝)로

바꾸기도 한다.

少陰病 欲自愈則面小赤 身有微汗 必鬱冒汗出而解故 古人 有見於此 少陰病 但厥無汗者 亦以麻黃 強發汗 欲其自愈而反動其血 從口鼻出故 於是乎始爲戒懼 凡少陰病 不敢輕易用麻黃而少陰病始得之一二日二三日初證 以麻黃附子甘草湯微發之也 然 麻黃 爲少陰病害藥則雖二三日初證 必不可用麻黃發之也 此證 當用官桂附子理中湯 或以桂枝 易官桂

30. 소음병(少陰病)은 처음부터 이미 험증(險證)이 되며 이어서 위증(危證)이 되는 것이니, 이 병증은 일찍부터 증세를 잘 판별하여 조치하지 않으면 위경(危境)에 이르게 된다. 무릇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되 구갈(口渴)이 없고 입안이 부드러우면 태음병(太陰病)이요, 복통·설사를 하되 구갈(口渴)이 있으며 입안이 깔깔하면 소음병이다. 소음병에 몸이 아프고 골절이 쭉시면 표증(表證)이니 이는 표리가 다 병을 얻었더라도 장(腸)의 한기(寒氣)가 위(胃) 속의 온기(溫氣)를 이기고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요, 태음병에는 몸이 아프고 골절이 쭉시는 표증(表證)이 없으니 이는 이(裏)에는 병이 있으나 표(表)에 병이 없는 것이니 위(胃) 속의 온기(溫氣)가 대장(大腸)의 한기(寒氣)를 이기고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少陰病 初證 因爲險證 繼而危證 此病初證 早不辨證而措置則危境也 凡腹痛自利 無口渴 口中 和者 爲太陰病 腹痛自利而有口渴 口中 不和者 爲少陰病 少陰病 有身體痛骨節痛表證 此則表裏俱病而大腸寒氣 必勝胃中溫氣而上升也 太陰病 無身體痛骨節痛表證 此則裏病表不病而胃中溫氣猶勝大腸寒氣而下降也

31.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소음병(少陰病)에 온전히 맑은 물



설사를 하고, 명치 밑이 아프며, 입이 조(燥)하고 마르는 자에게는 대승기탕(大承氣湯)이 좋다.”

張仲景 曰少陰病 自利純青水 心下痛 口燥乾者 宜大承氣湯

(해설) 찌꺼기가 없이 푸른 물만 쪽쪽 싸는 것을 자리청수(自利靑水)라 한다. 대변 찌꺼기가 장관(腸管)에 남아 있고, 단지 물만 나오는 것이다. 배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명치 밑에 반응이 오며, 이런 경우에는 심하(心下)가 반드시 아프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쓰는 목적은 장(腸) 속에 잔류한 결분(結糞)을 배설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32. 주굉(朱肱)이 말하기를 “소음병(少陰病)에 입이 조(燥)하고 목안이 마르며 갈증(渴證)이 있는 데는 급히 설사를 시키는 것이 좋다. 비록 양명병(陽明病)이 아니라도 설사를 시키면서 완화하게 하는 것이 좋다.”

朱肱 曰少陰病 口燥咽乾而渴宜急下之 非若陽明 宜下而可緩也

(해설) 소음병(少陰病)에는 구조(口燥)·인건(咽乾)이 특징이다. 자리청수(自利靑水)하여 비록 소음병이라 하더라도 하제(下劑)를 써서 장의 내용물을 완전히 배설시킨 뒤에 완화제를 쓰는 것이 좋다.

33. 이고(李杲)는 『동원서(東垣書)』에서 말하기를 “소음병은 반드시 입안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입안이 부드러운 자는 마땅히 덥히는 약을 써야 하고, 입안이 건조한 자는 설사를 시켜야 한다. 또 소음병은 설사를 보고 병을 판단해야 할 것이니 대변 빛이 푸르지 않으면 마땅히 온(溫)한 약을 써야 하고, 대변 빛이 푸른 자는 설사

시켜야 한다.”

李杲東垣書 曰少陰證 口中辨 口中 和者 當溫 口中 乾燥者 當下 少陰  
證 下利辨 色不青者 當溫 色青者 當下

(해설) 소음병 치료에 설사를 하는데 대변 빛이 누르면 온(溫)한  
약을 쓰고, 대변 빛이 푸르면 한차례 설사를 시켜서 완전히 찌  
꺼기를 배설시켜야 한다.

34. 이천(李梴)이 말하기를 “혀가 마르고 입이 조(燥)하며 또 물설  
사를 하다가 급히 막히고 헛소리를 하게 되면 소승기탕(小承氣湯)이  
좋고 입술이 파랗고 수족이 차며 손톱 빛이 검푸르면 강부탕(薑附湯)  
을 써야 한다.”

李梴 曰舌乾口燥 或下利清水 譫語便閉宜小承氣湯 唇青四肢厥冷 指甲  
青黑 宜薑附湯

(해설) 구조(口燥) · 설건(舌乾) · 하리청수(下利清水)함은 소음병이  
틀림없으나 돌연히 편폐(便閉)가 되면 섬어(譫語)가 생긴다. 대승  
기탕(大承氣湯)에는 망초(芒硝)가 들어 있어 약성(藥性)이 맹준(猛  
峻)하므로 소승기탕(小承氣湯)으로 뚫어야 한다. 소승기장(小承氣  
場)은 본래 양명병(陽明病)에 배 속이 조(燥)해서 대변불통이 될  
때에 기(氣)를 뚫는 약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편폐(便閉) 섬  
어(譫語)하는 급한 증세가 생길 것이니 불가불 쓰지 않을 수 없  
다. 입술이 푸르고 사지가 쫄냉(厥冷)하며 손톱이 푸르고 검으면  
냉독증(冷毒證)에 가까운 것이므로 강부장(薑附場)이 좋다.

35. 나는 이렇게 말한다. “푸른 물설사를 할 때에 하제(下劑)를 쓰  
고자 하면 파두(巴豆)를 써야 하고 속을 덥히고자 하면 관계부자리중

탕(官桂附子理中湯)을 써야 한다. 만일 설사를 하다가 이내 막히면 먼저 파두(巴豆)를 쓴 뒤에 강출관중탕(薑朮寬中湯)을 써야 한다.”

論曰下利清水者 欲下之則當用巴豆 欲溫之則 當用官桂附子理中湯 下利清水 仍爲便閉者 先用巴豆 後用薑朮寬中湯

36. 일찍이 열 살 된 소음인(少陰人) 아이가 평소에 근심되는 일이 있어 항상 기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복통·설사를 하므로 하루 이틀 동안은 백하오리중탕(白何烏理中湯)을 두서너 첩 썼고 심할 때는 부자리중탕(附子理中湯) 한두 첩 쓰면 반드시 치유되고 하였다.

하루는 이 아이가 다시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여러 날을 심기가 편치 않으므로 설사증이 생길까 염려되어 미리 백하오리중탕(白何烏理中湯) 두 첩을 쓰니 도리어 설사가 시작되며 푸른 물을 쏟는다. 계속해서 여섯 첩을 썼으나 그치지 않으므로 급히 부자리중탕(附子理中湯) 여섯 첩을 썼더니 푸른빛이 검은 빛으로 변하고 다시 두 첩을 썼더니 검은 빛도 없어졌다. 또 두세 첩을 써서 조리하게 하였다. 이 아이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음 푸른 물설사를 한 것은 궤난(癰亂) 관격(關格)이 된 뒤에 이와 같은 증세가 생겨났던 것이다. 여기에는 파두(巴豆)를 써서 적체(積滯) 고냉(痼冷)을 뚫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아이가 열 살 되던 해 12월에 청수하리병(靑水下利病)이 있었고 11세 되는 봄 2월에는 또다시 양명병(陽明病)을 얻었다.

嘗見少陰人十歲兒 思慮耗氣 每有憂愁 一二日則必腹痛泄瀉 一二日 用白何烏理中湯二三四貼 或甚則附子理中湯一二貼則泄瀉 必愈矣 忽一日

此兒 心有憂愁 氣度 不平數日故 預治次 用白何烏理中湯二貼則泄瀉因  
作 下利青水 連用六貼 青水 不止 急用附子理中湯六貼 青水 變爲黑水  
又二貼 黑水泄瀉 亦愈 又二三貼調理 以此觀之則下利青水者 病人有瘧  
亂關格而後 成此證也 此證 當用巴豆 破積滯癰冷 自是無疑 此兒 十歲  
冬十二月 有下利青水病 十一歲春二月 又得亡陽病

[주(註)] ○고냉(癰冷): 찬 기운이 오래 맺혀서 병이 된 것이다.  
찬물에서 일하거나 찬방에 오래 거처하면 냉(冷)이 몸속에 침투  
되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특히 소음인(少陰人) 체질은 한냉  
(寒冷)한 기운을 빨리 흡수해서 냉병(冷病)이 많다.

37. 주광(朱肱)이 말하기를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서 잠시도 편안  
하지 않고 사지(四肢)가 차지는 자를 장결증(藏厥證)이라 한다.”

朱肱 曰躁無暫定而厥者 爲藏厥

38. 이천(李梴)이 말하기를 “장결증(藏厥證)은 조바심이 잠시도 멎  
는 때가 없고, 발열(發熱)한 지 7, 8일에 맥(脈)이 미약해지고 살갗이  
차지면서 바시대며, 혹 토하거나 설사를 하여 잠시도 편안한 때가  
없다. 이는 결음경(厥陰經)에 병을 받아 선천적 장기의 기운이 끊어  
진 까닭이다. 그러므로 장결(藏厥)이라 하며, 중경(仲景)도 이에 치법  
(治法)이 없고 사역탕(四逆湯)을 차게 먹임으로써 이를 구해 보라 하  
였고, 또 소음병(少陰病)에 사지결냉(四肢厥冷)하고 토(吐)하고 사(瀉)  
하며 바시대는 자도 치료할 수 없으니 삼미삼유탕(三味參黃湯)으로  
이를 구해 볼 뿐이다.”

李梴 曰藏厥者 發燥無休息時 發熱七八日 脈微膚冷而躁 或吐或瀉 無時

暫安者 乃厥陰眞藏氣絕故 曰藏厥 仲景 無治法而四逆湯 冷飲救之 又少陰病 厥而吐利發躁者 亦不治而三味蓼莢湯 救之

(해설) 상한(傷寒) 7, 8일에 음증(陰證)이 되어 맥(脈)이 미(微)하고 수족이 냉(冷)하며, 따라서 몸도 냉(冷)하고 잠시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바시대며, 혹 설사를 하면 이른바 장결증(藏厥證)이다. 때로 회충으로 인한 경우도 있으나 장결(藏厥)은 양허음성(陽虛陰盛)하여 장부(臟腑)의 진기(眞氣)가 끊어지는 것이니 불치의 증세다. 혹 사역탕(四逆湯)을 써볼 뿐이다. 또 소음병(少陰病)에 수족결냉(手足厥冷)하고 토(吐)하고 사(瀉)하며 변조증이 심해도 불치인데, 혹 삼미삼유탕(三味蓼莢湯)을 써볼 뿐이다.

39. 나는 이렇게 말한다. “소음인(少陰人)이 희호(喜好)가 불안정하여 계책에 궁하고 힘이 꺾일 때 마음이 번거로워져서 바시대게 된다.

소음병(少陰病) 상한(傷寒)에 토하고 싶어도 토하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만 자려고 하는 것은 계책에 궁하여 힘이 꺾인 자의 증세가 아니겠는가. 대개 희호(喜好)가 안정되지 못함은 욕심 때문이니 어찌하여 계책에 궁하고 힘이 꺾이어 이와 같이 소음병을 얻었겠는가. 일찍 군자의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였는지. 그러나 상한(傷寒) 초증(初證)에 토하고자 하되 토하지 못하고 마음이 번거로워지며 다못 잠만 자려고 하는 자는 일찍이 약을 쓰면 죽음은 면할 수 있다. 그 병이 바시대고 잠시도 안정하지 못하며 사지가 차면 병세는 극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찌 가련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증세에는 삼유탕(蓼莢湯) · 사역탕(四逆湯) · 관계부자리중탕(官桂附子理中湯) · 오수유부자리중탕(烏茱萸附子理中湯)을 쓸 것이다.”

論曰 少陰人 喜好不定而計窮力屈則心煩燥也 少陰病傷寒 欲吐不吐 心

煩但欲寐者 此非計窮力屈者之病乎 蓋喜好者 所慾也 何故 至於計窮力屈而得此少陰病乎 何不早用君子寬平心乎 然 初證傷寒 欲吐不吐心煩但欲寐者 早用藥則猶可免死也 其病 至於躁無暫定而厥則勢在極危也 豈不可憐乎 此證 當用參朮湯四逆湯官桂附子理中湯吳茱萸附子理中湯

40. 주굉(朱肱)이 말하기를 “병자의 몸이 차고 맥(脈)이 침세(沈細)하고 빠르며 번조증(煩躁證)이 있으면서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음이 성하여 양을 막아버린 것이다. 그러나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는 이 증세가 아니다. 궤음병(厥陰病)에 목이 갈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조금씩 자주 먹이면 낫는다.”

朱肱 曰病人 身冷 脈沈細而疾 煩燥而不飲水者 陰盛隔陽也 若飲水者 非此證也 厥陰病 渴欲飲水者 小小與之愈

(해설) 체열(體熱)이 가슴에 모인 상태다. 가슴이 답답하고 번조증이 심하여 흙탕물이라도 뛰어들고자 하나 물을 조금도 넘기지 못하는 가슴에 열이 많기 때문이다. 즉 음성격양(陰盛隔陽)이 된 것이다. 그러나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음성격양(陰盛隔陽)이 된 것이 아니므로 물을 조금씩 자주 먹이면 음양이 조화되어 병이 스스로 낫는다.

41. 성무기(成無己)가 말하기를 “번(煩)은 가슴속이 답답한 것을 말한 것이요, 조(燥)는 기(氣)가 밖으로 열(熱)을 풍기는 것을 말한 것이니 단지 번(煩)이 있고 조증(燥證)이 없는 것과 먼저 번(煩)하고 뒤에 조증(燥證)이 생기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조(燥)하되 번(煩)하지 않거나 먼저 조증(燥證)이 있고 뒤에 번(煩)하면 모두 치료가 불가능하다. 먼저 조(燥)하고 후에 번(煩)한 것은 마치 성을 왈각 낸 후 다시 답답하여 괴로워하는 심정과 같으니 이는 음이 성하여 양이 막힌 것이

다. 비록 조증(燥證)이 심하여 흙탕물이라도 뒹굴고자 해도 실상 조금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는 기(氣)가 끊어지고자 할 때에 발악하는 상태며, 비유컨대 등잔불이 장차 꺼지고자 할 때는 반짝 밝아졌다가 꺼지는 상태와 같다.”

成無己 曰煩 謂心中鬱煩也 燥 謂氣外熱燥也 但煩不燥 及先煩後燥者 皆可治 但燥不煩 及先燥後煩者 皆不可治 先燥後煩 謂拂拂然更作燥悶 此 陰盛隔陽也 雖大燥 欲於泥水中臥 但水不得入口 是也 此 氣欲絕而 爭 譬如燈將滅而暴明

42. 이천(李梴)이 말하기를 “상한(傷寒)에 음성격양(陰盛隔陽)이 되면 그 증세가 몸은 찬데 도리어 조증(燥證)이 심해서 우물이라도 뛰어들려고 하며, 입술이 파랗고 얼굴빛이 검으며, 조갈이 심해도 물을 마시면 다시 토하며 물설사를 하되 빛이 검다. 육부(六部)[촌(寸)·관(關)·척(尺)] 맥(脈)이 침세(沈細)하고 빠르거나 혹은 맥이 나타나지 않음은 음성격양(陰盛隔陽)이니 크게 허해 있는 관계다. 여기에는 벽력산(霹靂散)을 쓰는 것이 좋고 또 궤역(厥逆)하고 번조증(煩燥症)이 있으면 치료가 어렵다.”

李梴 曰傷寒陰盛隔陽 其證 身冷反燥 欲投井中 唇青面黑 渴欲飲水復吐 大便 自利黑水 六脈 沈細而疾 或無脈 陰盛隔陽大虛證也 宜霹靂散 又曰厥逆煩燥者 不治

(해설)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게 괴로우며 토하고 싶은 상태를 번(煩)이라 하는데, 이는 심열(心熱)로 인한 것이다. 손을 떨고 발을 움직이며 눕거나 앉았거나 조바심을 하는 것을 조(燥)라 한다. 이는 신장(腎臟)이 열(熱)한 관계다.

번(煩)은 가벼운 증세지만 조(燥)는 중하며 번증(煩證)이 먼저 있고 조(燥)가 있으면 양증(陽證)이요, 다만 조증(燥證)만 있으면 음증(陰證)이다. 음성격양(陰盛隔陽)은 음양이 서로 막혀서 끊어지고자 함이니 대허증(大虛證)이다. 즉 죽는 증세다. 특징은 몸은 비록 차도 우물 속이라도 뛰어들고자 한다. 그러나 물은 한 모금도 넘기지를 못하니 이는 가열(假熱)이 가슴에 맺혀 있는 관계다.

43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위의 증세에는 관계부자리중탕(官桂附子理中湯) · 오수유부자리중탕(吳茱萸附子理中湯)을 써야 하고 흑 벽력산(霹靂散)도 쓴다.”

論曰此證 當用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或用霹靂散

44. 장궤(臟厥)과 음성격양(陰盛隔陽)의 병정(病情)은 대동소이하며 다 같이 극히 위급한 증세이다. 만일 위기에 이르게 되면 손쓰기가 어렵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런 증세가 생기기 전에 빨리 관계부자리중탕(官桂附子理中湯) · 오수유부자리중탕(吳茱萸附子理中湯)을 써야 한다.

臟厥 與陰盛隔陽病情 大同小異 俱在極危 如存一髮措手難及 若論 此病之可治 上策 莫如 此證未成之前 早用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45. 무릇 소음인병(少陰人病)에 처음 설사를 하게 되면 우선 가슴이 답답한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만일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있으면 갈증(渴證)이 있고 또 입안이 마를 것이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면 갈증(渴證)도 없고 입안이 부드러울 것이다. 소음인병의 위급한



증세를 살피자면 반드시 조증(燥證)이 안정되었는지 안정되지 않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조증(燥證)이 가라앉았는지 가라앉지 않았는지를 살피자면 마음의 범위가 안정되었는지 안정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마음의 상태가 여유 작작(綽綽)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조증(燥證)도 안정된 것이요, 마음의 상태가 불안[경경(耿耿)]하여 심지(心地)가 안정되지 않았으면 조증(燥證)도 안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심지(心地)가 비록 헤아릴 수 없이 불안하다가도 오히려 잠시 동안이라도 편안하여 여유가 생기면 그 병은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할 수 있는 자에게는 건강(乾薑)·부자(附子) 등의 약을 써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凡觀少陰人病泄瀉初證者 當觀於心煩與不煩也 心煩則口渴而口中 不和也 心不煩則口不渴而口中 和也 觀少陰人病 危證者當觀於燥之有定無定也 欲觀燥之有定無定則必占心之範圍 有定無定也 心之範圍 綽綽者 心之有定而燥之有定也 心之範圍耿耿者 心之無定而燥之無定也 心雖耿耿 忽忽 猶有一半時刻 綽綽卓卓則其病 可治 可治者 用薑附而可效也

[주(註)] ○경경홀홀(耿耿忽忽):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어찌할 줄 몰라서 허둥대는 모양.

○작작탁탁(綽綽卓卓): 침착하고 여유 있는 모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46. 무릇 소음인(少陰人)이 하루에 설사를 세 번 한다면 한두 번보다는 중하고, 네 번이나 다섯 번 한다면 매양 두세 번보다는 중하다. 하루에 설사를 네 번 하면 매우 중한 것이요, 하루 설사는 이틀보다는 경하고 이틀은 3, 4일보다는 경하다. 그러나 만일 설사를 사흘을 계속하면 매우 중한 증세인 것이다. 소음인으로서 보통 건강한 사람

이 한 달에 설사를 두세 번 하게 되면 가벼운 환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 하루에 굳은 대변이라도 3, 4차 본다면 가벼운 환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청곡(淸穀)(소화가 안 된)을 설사하는 자는 하루에 수십 번 해도 반드시 입안이 조(燥)하지 않고 냉기(冷氣)가 밖으로 풀려날 것이며, 물 설사를 죽죽하면 반드시 배 속에 푸른 물이 있을 것이다. 만일 설사 빛갈이 누르면 청수(淸水)가 아니요, 여기는 반드시 찌꺼기가 섞여 있을 것이다.

凡少陰人泄瀉 日三度 重於一二度也 四五度 重於二三度也而日四度泄瀉 則太重也 泄瀉一日 輕於二日也 二日 輕於三四日也而連三日泄瀉則太重也 少陰人平人 一月間 或泄瀉二三次則不可謂輕病人也 一日間 乾便三四度則不可謂輕病人也 下利淸穀者 雖日數十行 口中 必不燥乾而冷氣外解也 下利淸水者 腹中 必有青水也 若下利黃水則非淸水而又必雜穢物也

47.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상한(傷寒)이 된 지 7, 8일을 지나서 전신이 치자(梔子)빛같이 노랑고 소변이 잘 안 나오며 배가 약간 부르면 태음병(太陰病)에 속한 병이다. 여기에는 인진호탕(茵陳蒿湯)이 좋다. 상한(傷寒)에 머리에만 땀이 나고 다른 데는 땀이 없는데 목으로 갈라져서 땀이 나다가 돌아가며, 소변이 잘 안 나오면 반드시 황달(黃疸)이 된다.”

張仲景 曰傷寒七八日 身黃如梔子色 小便不利腹微滿 屬太陰 宜茵陳蒿湯 傷寒 但頭汗出 餘無汗劑頸而還小便不利 身必發黃

(해설) 여기서는 태음병(太陰病)으로 말하고 있지만 상한병(傷寒

論)에는 양명병조(陽明病條)로 나와 있는 것이다. 군진호탕(菌陳蒿湯)은 소변불리(小便不利)와 배가 창만한 데 쓰고 대변불통에도 응용되므로 양황(陽黃) 증세에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양명병(陽明病)에 열이 나고 발한이 있으면 체열이 발산하므로 황달(黃疸)이 되지 않지만, 열이 나고 몸에서 땀이 나지 않으며 다만 머리와 목 위에만 땀이 나고 소변이 잘 안 나오면 이(裏)에 열이 맺혀 있어 조갈이 나고 황달(黃疸)이 된다.

48. 이천(李梴)이 말하기를 “장티푸스, 기타 전염성 질환에서 황달(黃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온황(瘟黃)이라 하며 매우 급한 증세로 죽는 일이 많다. 급히 장달환(瘴疸丸)을 써라.”

李梴 曰天行疫癘 亦能發黃 謂之瘟黃 殺人最急 宜瘴疸丸

[주(註)] ○천행역려(天行疫癘): 유행성 전염병을 말함.  
○온황(瘟黃): 온역병(瘟疫病) 황달(黃疸)의 약칭이다.

49.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진굴피탕(茵陳橘皮湯) · 인진부자탕(茵陳附子湯) · 인진사역탕(茵陳四逆湯) · 장달환(瘴疸丸)을 써야 하고 혹 파두단(巴豆丹)을 쓰기도 한다.”

論曰右證 當用茵陳橘皮湯 茵陳附子湯 茵陳四逆湯 瘴疸丸 或用巴豆丹

50. 『의학강목(醫學綱目)』에 말하기를 “결흉증(結胸證)만 있고 대단한 열은 없는 자를 수결(水結)이라 하며,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을 수결흉(水結胸)이라 한다. 여기에는 소반하탕(小半夏湯)이 주가 된다.”

醫學綱目 曰但結胸 無大熱者 此爲水結 但頭汗出 名曰水結胸 小半夏湯主之

[주(註)] ○결흉(結胸): 채찍으로 맞은 것같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 이는 양병(陽病)에 하제(下劑)를 잘못 써서 열이 가슴으로 몰려서 결흉(結胸)이 된 것이다.  
○수결흉(水結胸): 결흉증(結胸證)과 거의 같으나 크게 열이 없고 가슴이 뛰며 머리에만 약간 땀이 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흉협(胸脅)에 물이 맺혀 있는 것이다.

51. 공신(龔信)이 말하기를 “한기(寒氣)가 실하여 결흉(結胸)이 되고 열이 없는 자는 삼물백산(三物白散)을 써라.”

龔信 曰寒實結胸 無熱證者 宜三物白散

[주(註)] ○한실결흉(寒實結胸): 이 증세는 설사를 한 뒤에 허(虛)하여 한기(寒氣)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명치에 맺혀서 가슴이 아픈 증세다. 갈(渴)하거나 답답한 증세는 없고 아프기만 하다.

52.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세에는 계지반하생강탕(桂枝半夏生薑湯) · 적백하오관중탕(赤白何烏寬中湯) · 삼물백산(三物白散)을 써야 하고 혹 파두단(巴豆丹)을 쓰기도 한다.”

論曰右證 當用桂枝半夏生薑湯 赤白何烏寬中湯 三物白散 或用 巴豆丹

53. 소양인병(少陽人病)에 명치 밑이 뚝뚝하고 불룩한 것은 결흉증(結胸證)이며, 이 병은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음인병(少陰人病)에 명치 밑이 뚝뚝하고 불룩한 것은 장결병(藏結病)이니 불치의 병이다.

『의학강목(醫學綱目)』 ‘공신의감(龔信醫鑑)’에서 말한 수결흉(水結胸)과 한실결흉증(寒實結胸證) 약은 모두 소음인(少陰人) 태음병(太陰病) 약으로, 장중경(張仲景) 인진호탕증(茵陳蒿湯證)과 서로 같은 유에 속한 것이니 이는 진짜 명치 밑에 결흉(結胸)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치 밑이 포만하여 답답한 증세인 것이다. 장중경(張仲景)의 사심탕증(瀉心湯證)은 상한(傷寒)에 설사를 하거나 하여 명치 밑이 답답하고 땀나는 것도 심하비만(心下痞滿)하거나 배꼽 근처에 땀나게 뭉친 것이지 진짜 명치 밑에 결정(結硬)이 생긴 것은 아니다. 만일 소음인(少陰人)이 명치 밑 오른쪽에 땀나는 것이 있으면 불치의 병인 것이다.

少陽人病 心下結硬者 名曰結胸病 其病 可治也 少陰人病 心下結硬者 名曰藏結病 其病 不治也 醫學綱目 醫鑑所論 水結胸寒實結胸證藥 俱是少陰人 太陰病而 與張仲景茵陳蒿湯證 相類則此病 想必非眞結硬於心下而卽痞滿於心下者也 張仲景瀉心湯證 傷寒下利 心下痞硬 汗解後 心不痞硬云者 亦皆痞滿於心下 或臍上近處 結硬也而非眞結硬於心下者也 若少陰人病而心下右邊 結硬則不治

[주(註)] ○결장(藏結): 결흉(結胸)은 치료가 되나 장결병(藏結病)은 불치라 하였으니, 결흉병(結胸病)은 간염(肝炎) 같은 병으로 생각할 수 있고, 장결병(藏結病)은 간경변증(肝硬變證)과 같은 증세로 생각할 수 있다.

54.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병에는 결흉(結胸)과 장결(藏結)이 있는데, 그 증세가 어떻게 다르냐’ 대답하기를 ‘누르면 아프고 촌맥(寸脈)이 부(浮), 관맥(關脈)이 침(沈)하면 이를 결흉증(結胸證)이라 한다.’ ‘장결(藏結)은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결흉(結胸)과 증상이 거의

같은 음식이 여전하고 때때로 설사를 하며 맥(脈)이 부(浮)하고 관맥(關脈)이 세소(細小)하며 또는 침견(沈緊)하다. 이때에 혀에는 백태(白苔)가 끼고 뻥질뻥질하면 치료가 어렵다. 본래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있고 이것이 배꼽 아래로 내려와서 아랫배 또는 음근(陰筋)에까지 들어가면 이는 장결병(藏結病)이니 죽는다.”

張仲景 曰病有結胸 有藏結 其狀 如何 曰按之痛 寸脈浮 關脈沈 名曰結胸也 何謂藏結 曰如結胸狀 飲食 如故 時時下利 寸脈浮 關脈 細小沈緊 名曰藏結 舌上白苔滑者 難治 病人胸中 素有痞 連在臍傍 引入小腹 入陰筋者 此名藏結 死

55. 주팔(朱肱)이 말하기를 “장결(藏結)과 결흉(結胸)은 증상이 거의 같고, 음식도 보통 때와 같으며, 때때로 설사를 하고 혀에 백태(白苔)가 낀다.” 이를 노래로 하면 “음식은 예나 다름없고 때로 설사를 하니 다시금 혀에 백태(白苔)가 끼는구나. 배꼽 아래 아픈 것이 음근(陰筋)까지 당기니, 아! 이 병은 애당초 죽고 마는 병인가 보다.”

朱肱 曰藏結 狀如結胸 飲食如故 時時下利而舌上白苔 歌曰飲食如常 時下利 更加舌 上白苔時 連臍腹痛引陰筋 此疾 元來死不醫

56. 일찍이 소음인(少陰人) 한 사람이 명치 오른쪽에 땀땀한 덩어리가 있어 많은 약을 써 보았다.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어 파두여의단(巴豆如意丹) 한 알을 먹었더니 즉시 부작용이 생기고 머리를 흔들며 풍이 동한다. 얼마 후에 그 증세는 없어졌으나 몇 달 후에 죽었다. 또 소음인 한 사람이 같은 증세가 있어 파두(巴豆)를 먹었더니 얼

굴과 전신에서 땀이 흐르나 인중(人中) 좌우에서는 땀이 나지 않는다. 이 사람도 일 년 남짓해서 죽었다. 이와 같이 소음인이 명치 밑에 탄탄한 덩어리가 있는 환자를 4, 5명 목격하였으나 혹 반년 혹 일 년 동안 침이나 뜸 또는 약을 썼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대개 회생할 희망이 없었으니 곧 장결병(藏結病)은 대개 소음인병(少陰人病)인 것이다.

論曰嘗見少陰人一人 心下右邊 結硬 百藥無效 與巴豆如意丹 反劇 搖頭動風 有頃而止 數月後 死 其後又有少陰人一人 此證者 用巴豆丹 面上身上 有汗而獨上唇人中穴左右邊 無汗 此人 一周年後 亦死 凡少陰人 心下結硬 有此證者 目睹四五人 或半年或一年 針灸醫藥 無不周至而個個無回生之望 此 卽藏結病而少陰人病也

57.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황달병(黃疸病)은 18일을 기한으로 삼는다. 10일 이상이면 차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병세가 더 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황달이 음부(陰部)에서 발하면 반드시 구역이 나고 양부(陽部)에서 발하면 추워서 떨며 열이 난다.”

張仲景 曰黃疸之病 當以十八日 爲期 十日以上宜差 反劇 爲難治 發於陰部 其人 必嘔 發於陽部 其人 振寒而發熱

[주(註)] ○음황(陰黃): 황달(黃疸)에 있어 습(濕)이 많고 열이 적은 증세다. 얼굴빛이 마치 잿빛 같다.

이는 비장(脾臟)에 한습(寒濕)을 받았거나 찬약을 써서 설사를 하여 생기는 것이다. 몸이 차고 사지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며 배가 창만하고 드러눕기를 좋아한다. 땀이 나고, 오줌이 잿고 빛이 붉으며, 또 오줌 양이 적다. 조갈은 없고 구역이 난다.

○양황(陽黃): 황달에 있어 열이 있고 습(濕)이 적은 증세다. 피

부 빛이 마치 굴빛같이 셋노랗고 몸에 열이 있으며 또 빛같이 난다. 혹 현기증이 있고 오줌이 잘 안 나오며 대변이 비조(秘燥)하다. 이는 풍습(風濕)과 주체(酒滯)로 생긴 것이다.

(해설) 오행학설(五行學說)에 경(經)은 하루에 한 번씩 주관한다 하였으니 6일 만에야 육경(六經)이 한 번 유주한다. 황달을 18일을 위기(爲期)함은 36~18로 세 번 유주한다는 뜻이다. 10일 이상은 황달은 비토(脾土)에 속한 병이므로 10은 토(土)의 성수(成數)가 되어 이와 같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58. 모든 달병(疸病)에 소변 빛이 노랗고 붉으면 습열(濕熱)로 된 것이니 이는 습열(濕熱)로 다스리면 된다. 소변 빛이 맑아서 열을 다스릴 필요가 없는 자는 열이 없는 것이다. 만일 허한증(虛寒證)이 있으면 허노(虛勞)로 다스려야 한다.

諸疸 小便 黃赤色者 爲濕熱 當作濕熱治 小便 色白 不可除熱者無熱也 若有虛寒證 當作虛勞治

[주(註)] ○허노(虛勞): 기혈(氣血)이 부족하고 정신이 피로한 상태이다.

59. 배가 창만하고, 얼굴이 빈혈상태가 되고 누르며, 조(燥)한 증(證)이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腹脹滿 面萎黃 燥不得睡

(해설) 복만(腹滿)은 이증(裏證)이다. 면위황(面萎黃)은 얼굴이 빈혈상태가 되고 누르다. 또 조증(燥證)이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함은 이열(裏熱)로 인한 황달(黃疸)이다[금궤(金匱)].



60. 황달(黃疸)은 대개 일포시(日晡時)에 열이 오르는 것인데 도리어 오한(惡寒)이 있는 것은 과색(過色)으로 얻어졌기 때문이다. 방광이 빠근하고 아랫배가 더부룩하며 온몸이 노랗고 이마에 검은 빛을 띠고 발바닥이 뜨끈뜨끈하면 흑달(黑疸)이 된 것이다. 배가 창만하여 물이 찬 것 같고 대변은 검으며 때로는 묽으면 이는 과색(過色)으로 온 것이요 수종(水腫)이 아니니 배가 창만한 자는 치료하기 어렵다.

黃家日晡時 當發熱 反惡寒 此爲女勞得之 膀胱急 小腹滿 一身盡黃 額上黑 足下熱 因作黑疸 腹脹 如水狀 大便黑或時溇 此女勞之病 非水也 腹滿者 難治

[주(註)] ○여노(女勞): 색욕과다(色欲過多)의 뜻이다.

○흑달(黑疸): 여노달(女勞疸) 혹은 주달(酒疸) 같은 데에 잘못 하제(下劑)를 쓰면 흑달(黑疸)이 된다. 이는 비달(脾臟) 기운이 끊어지고 신장(腎臟)의 기운이 습열(濕熱)에 쌓여서 생기는 증세로, 가장 위험한 병이다.

(해설) 본래 양황(陽黃)은 오후에 열이 오르는 것이 원칙이나 도리어 열이 없이 오한이 있으면 여노달(女勞疸)이다. 이는 열이 신장(腎臟)에 깊이 맺혀 있어 오한증이 생긴다. 또한 방광이 빠근하고 이마가 검으며 발바닥이 뜨겁고 대변 빛이 검은 것은 모두 신열(腎熱)에서 오는 증세이다. 배가 창만하여 물이 고인 것 같으나 실은 신기(腎氣)가 돌지 못하고, 따라서 비습(脾濕)한 소치이다. 이는 비(脾)와 신(腎)이 다 같이 허한 것이니 난치병인 것이다.

61. 주광(朱胬)이 말하기를 “음황(陰黃)에는 변조증이 있고 숨이 차며 구토가 난다. 그러나 갈증(渴證)이 없으니 인진굴피탕(茵陳橘皮湯)을 써야 한다. 한 사람이 상한병(傷寒病)에 황달이 되었는데, 맥(脈)이 미약하고 몸이 차므로 차례로 약을 쓰다가 인진사역탕(茵陳四逆湯)을

썼더니 크게 효험을 보았다. 또 한 사람이 상한(傷寒)에 황달이 되어 맥(脈)이 침세(沈細)하고 느리며 무력하므로 차례로 약을 쓰다가 인진 부자탕(茵陳附子湯)을 썼더니 크게 효험을 보았다.”

朱肱 曰陰黃 煩燥 喘嘔不渴 宜用茵陳橘皮湯 一人 傷寒發黃脈微弱 身冷 次第用藥 至茵陳四逆湯大效 一人 傷寒發黃 脈沈細遲無力 次第用藥 至茵陳附子湯大效

[주註] ○인진귤피탕(茵陳橘皮湯): 음황(陰黃) 천구불갈(喘嘔不渴)에 쓴다.

○인진사역탕(茵陳四逆湯): 음황(陰黃) 냉한불지(冷汗不止)에 쓴다.

○인진부자탕(茵陳附子湯): 음황(陰黃) 신냉(身冷)에 쓴다.

이상 세 처방은 주공(朱肱)의 『활인서(活人書)』에서 나온 것이다.

62. 『의학강목』에 말하기를 “습(濕)으로 된 황달은 빛이 어둡고 밝지 않으며, 몸이 아프지도 않다. 열로 된 황달은 유자(橘子)빛같이 섯노랑고, 또 온몸이 쭈시고 아프다.”

醫學綱目 曰濕家之黃 色暗不明 一身 不痛 熱家之黃 如橘子一身 盡痛

(해설) 대개 황달은 습(濕)과 열(熱)로 되는 것이다. 소변이 불리(不利)하고 어혈(瘀血)이 되어 황달이 발하는데, 몸이 아프지 않고 누른빛이 선명하지 않으면 습(濕)이 많은 것으로 보고, 치자빛같이 선명하고 전신이 아프면 열이 많은 것으로 본다.

63. 왕호고(王好古)가 말하기를 “모든 병에 땀을 내야 할 것을 땀을 못 내거나 이뇨(利尿)를 시킬 것을 이뇨를 시키지 않으면 황달이 된다.”

王好古 曰凡病 當汗而不汗 當利小便而不利 亦生黃

(해설) 병이 표(表)에 있고 맥(脈)이 부(浮)할 때에 땀을 내야 할 것을 풀지 못하면 황달이 될 수 있고, 또 맥(脈)이 침(沈)하고 조갈이 있으며 소변이 불리해도 황달이 된다.

64. 주진형(朱震亨)이 말하기를 “황달에 있어서 식적(食積)으로 인하여 된 것은 식적(食積)을 내리면 되고, 그 밖의 것은 오줌을 잘 누게 하면 된다. 소변이 잘 나오고 또 빛이 맑으면 자연히 황달이 물러간다.”

朱震亨 曰黃疸 因食積者 下其食積 其餘 但利小便 小便 利白 其黃 自退

(해설) 일명 곡달(穀疸)이라고도 하는데,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배가 창만하다. 시장할 때에 과식함으로써 소화가 안 되면 위(胃)에 습열(濕熱)을 받아 황달이 된다. 첫째는 체한 것을 뚫어야 하고, 다음은 이뇨를 시켜야 한다.

65. 이천(李梴)이 말하기를 “황달(黃疸)은 열흘이 넘으면 배로 들어가서 숨이 차지고 번갈(煩渴)이 나며 얼굴빛이 검어지는데, 이런 사람은 죽는다.”

李梴 曰黃疸十日以上 入腹 喘滿煩渴 面黑者 死

[주(註)] ○입복(入腹): 여노달(女勞疸)·주달(酒疸) 같은 때에 하제(下劑)를 잘못 써서 열이 신장(腎臟)에 들어감으로써 흑달(黑疸)이 된다.

66. 왕숙화(王叔和)는 『맥경(脈經)』에 말하기를 “촌구맥(寸口脈)이 수관절(手關節) 가까이 가서 없어지며, 입과 코에서 찬바람이 나오고 빛이 검으면 다 치료할 수가 없다.”

王叔和脈經 曰黃家寸口脈 近掌無脈 口鼻冷 黑色 並不可治

[주(註)] ○촌구(寸口): 기구(氣口)라고도 하며, 촌구맥(寸口脈)이 일성(一盛)하면 병재결음(病在厥陰)이라 하였다. 촌구(寸口)는 양쪽 수관절부(手關節部)의 약간 앞쪽 맥동(脈動)하는 곳이다.

67.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황(陰黃)은 소음인(少陰人)의 병이다. 주씨(朱氏) 인진골피탕(茵陳橘皮湯)·인진사역탕(茵陳四逆湯)을 써야 하고 과색(過色)으로 온 황달이나 열로 온 황달 또는 이소변(利小便)을 해야 할 황달은 생각건대 소음인 병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내가 황달 치료를 한 번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하기 어려우나 비만(痞滿)·황달(黃疸)·부종(浮腫)은 같은 증세에서 생긴 병으로 다만 경중이 있을 따름이요, 만일 이소변(利小便)을 하고자 할진대 건강(乾薑)·양강(良薑)·진피(陳皮)·청피(靑皮)·향부자(香附子)·익지인(益智仁) 등속이 모두 소음인의 소변을 잘 나오게 할 수 있고, 형개(荊芥)·방풍(防風)·강활(羌活)·독활(獨活)·복령(茯苓)·택사(澤瀉) 등속은 소양인(少陽人)의 소변을 잘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論曰陰黃 卽少陰人病也 當用朱氏茵陳橘皮湯 茵陳四逆湯 女勞之黃熱家之黃利小便之黃 想或非少陰人病而余所經驗 未嘗一遇黃疸而治之故 未得仔細裏許 然 痞滿黃疸浮腫 同出一證而有輕重 若欲利小便則乾薑良薑陳皮靑皮香附子益智仁 能利少陰人小便 荊芥防風羌活獨活茯苓澤瀉能利少陽人小便

## 제10장 소음인(少陰人) 범론(泛論)

1. 나는 이렇게 말한다. “춥고 열이 나면 태음병(太陽病)이요 열이 나고 추위가 없으면 양명병(陽明病)이다. 태양병(太陽病)과 양명병(陽明病)은 열이 나는 것이 같으나 추위가 있고 없는 것은 그 거리가 멀고 멀어서 양기(陽氣)의 진퇴와 강약은 마치 태산과 언덕[강릉(岡陵)]에 비유할 수 있다.

설사를 하되 조갈증이 없으면 태음병(太陰病)이요, 설사를 하되 조갈증이 있으면 소음병(少陰病)이다. 태음병(太陰病)과 소음병(少陰病)은 설사하는 것은 같으나 조갈증이 있고 없는 것은 그 거리가 멀고 멀어서 냉기(冷氣)가 모이고 흩어지며 경(輕)하고 중(重)한 차이는 마치 하늘의 구름과 땅의 웅덩이[滯澤]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향사양위탕(香砂養胃湯)을 쓰는 증세는 평지에서 준마(駿馬)가 달리는 형세와 같고, 독삼팔물탕(獨蓼八物湯)·계부리중탕(桂附理中湯)을 쓰는 증세는 마치 짧은 나무 지팡이를 잡고 태행산(太行山)을 넘는 형세와 같다. 만일 소음인(少陰人)

천품을 타고난 사람이 스스로 그 병이 양명병(陽明病)인지 소음병(少陰病)인지를 안다면 마치 태행산(太行山)의 험한 길을 가는 사람과 같아서 이 병을 얻으면 가히 두렵고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섭신을 잘하고 병을 치료하는 일에 삼가 조심하며, 넓은 길을 걷는 자와 같이 방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論曰發熱惡寒者 爲太陽病 發熱不惡寒者 爲陽明病 太陽陽明之發熱形證 一也而惡寒不惡寒之間 相去 遠甚而陽氣之進退強弱 泰山之比岡陵也 自利而不渴者 爲太陰病 自利而渴者 爲少陰病 太陰少陰之自利形證 一也而渴不渴之間 相去 遠甚而冷氣之聚散輕重 雲夢之比 滌澤也 是故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之證勢 平地駿馬之病勢也 獨蔘八物湯 桂附理中湯之證勢 太行短筇之病勢也 若使一天下少陰人稟賦者 自知其病之陽明 少陰證 如太行之險路 得之可畏 救之不易 攝身療病 戒懼謹慎之道 有若大路 然而不迷則其庶幾乎

[주(註)] ○저택(滌澤): 물이 괴어 있는 곳(웅덩이).

○준마(駿馬): 잘 달리는 좋은 말.

○태행산(太行山): 중국의 하남성(河南省)에서 산서성(山西省)에 이르는 산맥의 이름이다. 지세가 험하여 소위 구절양장(九折羊腸)과 같다.

○단공(短筇): 짧은 대지팡이.

2. 태양병(太陽病)에 땀이 나는 것은 열기(熱氣)가 한기(寒氣)를 물리치는 땀이요, 양명병(陽明病)에 땀이 나는 것은 한기가 열기를 범하는 땀이다. 태음병(太陰病) 설사는 온기(溫氣)가 냉기(冷氣)를 쫓아내는 설사요, 소음병(少陰病) 설사는 냉기가 온기를 밀어내는 설사다.

太陽病汗出 熱氣卻寒氣之汗出也 陽明病汗出 寒氣犯熱氣之汗出也 太陰病下利 溫氣逐冷氣之下利也 少陰病下利 冷氣逼溫氣之下利也

3. 소음인병(少陰人病)에 두 가지 길(吉)한 증세가 있으니 하나는 인중(人中)에서 땀이 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번조증(煩燥證)에 물을 능히 마실 수 있는 것이다.

少陰人病 有二吉證 人中汗 一吉證也 能飲水 一吉證也

4. 소음인병(少陰人病)에 두 가지 위급한 증세가 있으니 열이 나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하나의 급한 증세요, 설사를 하되 맑은 물을 쏟는 것이 또 하나의 급한 증세다.

少陰人病 有二急證 發熱汗多 一急證也 下利清水 一急證也

5. 소음인병(少陰人病)에는 여섯 가지의 큰 증세가 있다. 첫째 소음병(少陰病), 둘째 양명병(陽明病), 셋째 태음병(太陰病)의 음독증(陰毒證), 넷째 태양병(太陽病)의 궤음증(厥陰證), 다섯째 태음병(太陰病)의 황달증(黃疸證), 여섯째 태양병(太陽病)의 위가실증(胃家實證)이다.

少陰人病 有六大證 一曰少陰病 二曰陽明病 三曰太陰病陰毒證也 四曰太陽病厥陰證也 五曰太陰病黃疸證也 六曰太陽病胃家實證也

6. 열이 있으면서 땀이 나면 반드시 병이 풀려야 할 터인데 열이 있으면서 땀이 나도 병이 더욱 심한 것은 양명병(陽明病)이요, 체한 것이 풀리면서 설사를 하면 반드시 병이 풀려야 할 터인데 체기가 풀리면서 설사를 하되 병이 더욱 심해지면 소음병(少陰病)인 것이다. 양명병(陽明病)과 소음병(少陰病)은 다 같이 사기(邪氣)가 정기(正氣)를

범한 것이니 불가불 급히 약을 써야 하고, 오한(惡寒)이 있으면서 땀이 나면 반드시 병이 풀려야 할 터인데, 오한(惡寒)이 있으면서 땀이 나되 병이 반은 풀리고 반은 풀리지 않는다면 점차 켄음증(厥陰證)으로 되는 징조다.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면 반드시 병이 풀려야 할 터인데, 병이 반은 풀리고 반은 풀리지 않는다면 점차 음독증(陰毒證)으로 되는 징조다. 켄음증(厥陰證)과 음독증(陰毒證)은 다 같이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서로 힘을 기울이는 병이니, 불가불 미리 약을 써야 한다.

열이 나자 한 번 땀을 흘린 후 병이 풀리면 태양병(太陽病)의 가벼운 증세요, 식체로 한 번 설사한 후 병이 풀린다면 태음병(太陰病)의 가벼운 증세다. 태양병(太陽病)과 태음병(太陰病)의 가벼운 증세는 약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병이 나을 수 있지만 발열(發熱)이 있는 지 사흘이 되어도 땀으로 병이 풀리지 않으면 태양병(太陽病)의 심한 증세요, 식체가 생긴 지 사흘이 되어도 소화가 안 되어 내려가지 않는다면 태음병(太陰病)의 심한 증세다. 그러므로 태양병(太陽病)·태음병(太陰病)의 중한 증세는 이미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고 두서너 첩의 약이라도 쓰면 쉽게 나을 것이다. 열이 있는 지 엿새가 되어도 땀으로 병을 풀지 못하며, 식체가 생긴 지 엿새가 되어도 소화가 안 되어 내리지 않으면 태양(太陽)·태음(太陰)의 위가실(胃家實) 황달병(黃疸病)이다. 그러므로 태양(太陽)·태음(太陰)의 위가실(胃家實) 황달병(黃疸病)은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꼭 막힌 병이니만치 불가불 흙뻑 약을 써야 할 것이다.

發熱汗出則 病必解也而發熱汗出而病益甚者 陽明病也 通滯下利則病必



解也而通滯下利而病益甚者 少陰病也 陽明 少陰以邪犯正之病 不可不急用藥也 惡寒汗出則病必盡解也而 惡寒汗出而 其病半解半不解者厥陰之漸也 腹痛下利則 病必盡解也而腹痛下利而 其病 半解半不解者 陰毒之漸也 厥陰陰毒 正邪相傾之病 不可不預用藥也 發熱一汗而病即解者 太陽之輕病也 食滯一下而病即解者 太陰之輕病也 太陽太陰之輕病不用藥而亦自愈也 發熱三日 不得汗解者 太陽之尤病也 食滯三日 不能化下者 太陰之尤病也 太陽太陰之尤病 已不可謂輕證而用藥二三貼 亦自愈也 發熱六日 不得汗解 食滯六日 不能化下者 太陽太陰之胃家實黃疸病也 太陽太陰之胃家實黃疸 正邪壅錮之病 不可不大用藥也

7. 태양병(太陽病)·태음병(太陰病)이 6, 7일 지나면 위증(危證)이 되거나 혹은 중증(重證)이 되기도 하며, 열흘 이내에 반드시 험증(險證)으로 된다. 양명병과 소음병은 처음부터 이미 중증이 되며, 2, 3일 지나면 반드시 험증으로 된다. 그러므로 양명병과 소음병은 처음부터 증세를 잘 살펴야 하고, 태양병과 태음병은 병이 생긴 지 4, 5일 내에 반드시 증세를 잘 살펴야 한다.

太陽太陰之病 六七日 或成危證 或成重證而十日內 必有險證 陽明少陰之病 自始發 已爲重證而二三日內 亦致險證 是故 陽明少陰之病 不可不察於始發也 太陽太陰之病 不可不察於四五日間也

8. 태양병(太陽病)과 태음병(太陰病)은 병세가 서서히 진행하므로 여러 날을 끌어오면서 변증(變證)이 많이 생기고 양명병(陽明病)과 소음병(少陰病)은 처음부터 병세가 급박하여 오래 끌지 못하므로 변증이 적다. 그러므로 양명병과 소음병은 하루 지나 이틀이 되면 반드시 약을 써야 하고, 태양병과 태음병은 나흘이 지나 다섯째가 되면 반드시 약을 써야 하며, 태양병 궤음병(厥陰證)과 태음병 음독증(陰毒證)

은 대개 6, 7일이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므로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太陽太陰之病 病勢緩而能曠日持久故 變證 多也 陽明少陰之病 病勢急而不能曠日持久故 變證 少也 蓋陽明少陰病 過一日至二日則不可不用藥也 太陽太陰病 過四日而至五日則不可不用藥也 太陽太陰之厥陰陰毒 皆六七日之死境也 尤不可不謹也

9. 양명병(陽明病)과 태양병(太陽病)의 위급한 자는 독삼팔물탕(獨參八物湯)·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같은 것이라야 풀 수가 있고 병세가 위급할 때에는 하루에 3, 4복(服) 또는 연일복(連日服)하지 않으면 병을 풀기 어렵다. 소음병(少陰病)과 태음병(太陰病)의 위독한 자는 독료부자리중탕(獨參附子理中湯)·계부곽진리중탕(桂附藿陳理中湯) 같은 것이라야 급히 풀 수가 있고, 병세가 위급할 때에는 하루에 3, 4복(服) 또는 연일복(連日服)하지 않으면 병을 풀기 어렵다. 병세가 위급할 때는 하루에 네 번 약을 써야 하고, 병세가 반 정도고 감소되었으면 하루에 세 번 복용하고, 그 때에도 완전치 못할 때는 두 번 복용한다. 병세가 다소 경감되면 이틀에 세 번 복용하거나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복용해야 하고, 병세가 대감하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사흘이나 나흘에 한 번 혹은 닷새에 한 번씩 복용해야 한다. 그런데 병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약을 써야 하고, 병이 없을 때에는 약을 써서는 안 된다. 중병에는 중한 약을 써야 하지만 가벼운 병에 중한 약을 써서는 안 된다. 가벼운 병에 중한 약을 쓰거나 병이 없을 때에 약 쓰기를 좋아하면 내장의 기운이 취약해져서 더욱 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陽明太陽之危者 獨蓼八物湯 補中益氣湯 可以解之而病勢危時 若非日三四服而又連日服 則難解也 少陰太陰之危者 獨蓼附子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可以解之 而病勢危時 若非日三四服而又連日服則難解也 病勢極危時 日四服 病勢半危時 日三服 病勢不減則日二服 病勢少減則日三服而一日則一服 一日則二服 病勢大減則日一服 病勢又大減則間二三四五日一服 蓋有病者 可以服藥 無病者 不可以服藥 重病 可以重藥 輕病 不可以重藥 若輕病 好用重藥 無病者 好服藥 臟氣脆弱益招病矣

10. 고량진미가 비록 맛을 돋우어 주지만 항상 먹으면 도리어 입 맛을 잃게 하고, 양피(羊皮)로 지은 의복이 비록 추위를 막아 주지만 항상 입으면 도리어 추위를 타게 된다. 이와 같이 기름진 음식이나 양털 옷도 항상 먹고 입으면 좋지 않거늘 하물며 약이야 이보다 더 하지 않겠는가. 만일 약을 오래 쓰는 일의 해독을 논할진대 도리어 전혀 약을 쓰지 않는 불리함보다 백 배나 더한 것이다. 그러므로 병 증세를 분명히 안다면 약을 써야 하는 것이요, 만일 병이 없는 자가 비록 증세를 분명히 안다 하더라도 반드시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편이나 수은(水銀) 또는 산삼(山參)·녹용(鹿茸)을 자주 복용하면 목숨을 재촉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膏粱雖則助味 常食則損味 羊裘雖則禦寒 常着則攝寒 膏粱羊裘 猶不可以常食常着 況藥乎 若論常服藥之有害則反爲百倍於全不服藥之無利也 蓋有病者 明知其證則必不可不服藥 無病者 雖明知其證 必不可服藥 歷觀於世之服鴉片煙水銀山參鹿茸者 屢服則無不促壽者 以此占之則可知矣

[주(註)] ○고량(膏粱): 고량진미(膏粱珍味)의 준말로, 살찐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

11. 소음인(少陰人) 토혈(吐血)에는 독삼팔물탕(獨參八物湯)을 쓰고, 인후통(咽喉痛)에는 독삼관계리중탕(獨參官桂理中湯)을 써야 한다.

少陰人吐血 當用獨參八物湯 咽喉痛 當用獨參官桂理中湯

12. 일찍이 소음인(少陰人)이 입맛이 달아서 음식을 보통 때보다 배를 더 먹더니 불과 1개월이 못되어 부종이 생겨서 죽는 것을 보았다. 소음인(少陰人) 허기증[식소증(食消證)]은 부종에 속한 것이므로 매우 위험한 증세다. 불가불 급히 다스려야 하니 궁귀충소리중탕(芩歸葱蘇理中湯)을 써야 한다.

嘗見少陰人 飲食 倍常 口味 甚甘 不過一月 其人 浮腫而死 少陰人食消 卽浮腫之屬而危證也 不可不急治 當用芩歸葱蘇理中湯

13. 일찍이 소음인(少陰人)의 부종에 노루간을 썰어서 한 부를 회로 만들어 한 번에 먹이고, 또 이어서 다섯 부를 먹이니 부종이 낫는 것을 보았다. 또 소음인 한 사람이 노루간을 한 부를 먹더니 안력(眼力)이 배로 좋아지고 기운이 솟아났다고 하며, 소양인(少陽人)이 허노병(虛勞病)에 노루간을 먹더니 피를 토하고 죽었다.

嘗見少陰人浮腫 獐肝一部 切片作膾 一服盡 連用五部 其病 卽效 又有少陰人 服獐肝一部 眼力 倍常 眞氣 湧出 少湯人虛勞病 服獐肝一部 其人 吐血而死

14. 일찍이 소음인(少陰人) 부종에 어떤 의사가 간수를 매일 반 손

갈씩 먹으라 하므로 이를 4, 5일 계속 복용했더니 부종이 크게 감하였고, 그 후 한 달을 계속하니 영원히 완쾌되고 재발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嘗見少陰人浮腫 有醫 教以服海鹽自然汁日半匙 四五日服 浮腫 大減 一月服 永爲完健 病不再發

15. 일찍이 소음인(少陰人)이 인후통(咽喉痛)이 있어 여러 해를 낫지 않더니 어떤 의사가 금사주(金蛇酒)를 복용하라 하여 이를 먹고 병이 나았음을 보았다. 금사주(金蛇酒)는 금빛 무늬가 있는 구렁이를 술에 담근 것이다.

嘗見少陰人咽喉痛 經年不愈 有醫 教以服金蛇酒即效 金蛇酒 卽金色黃章蛇釀酒者也

16. 일찍이 소음인(少陰人) 이질(痢疾)에 어떤 의사가 항적사(項赤蛇)를 달여서 먹으라 하므로 이를 먹고 이질이 나았음을 보았다. 항적사(項赤蛇)의 머리와 꼬리는 잘라버리고 두 겹 명주주머니에 넣어서 항아리 안에 나무를 가로 걸치고 거기에 달아 놓은 뒤에 물을 다섯 사발가량 붓고 달여서 한 사발 정도로 되면 이를 마신다. 두 겹 명주주머니에 넣는 것은 뱀의 뼈가 걸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뱀 뼈에는 독이 있는 것이다.

嘗見少陰人痢疾 有醫 教以服項赤蛇煎湯即效 項赤蛇 去頭斷尾 納二疊紬囊中 藥 缸內 別設橫木 懸空掛之 用水五碗 煎取一碗服 二疊紬囊 懸

空掛煎者 恐犯蛇骨故也 蛇骨 有毒

[주(註)] ○항적사(項赤蛇): 올모기[遊蛇利] 종류인 독이 없는 뱀.  
온몸에 빨간 얼룩점이 있다.

17. 일찍이 소음인(少陰人) 이질에 어떤 의사가 큰 마늘 세 통과  
꿀 반 손가락을 한데 달여서 먹으라 하므로 이를 사흘 동안 먹으니 곧  
나았음을 보았다.

嘗見少陰人痢疾 有醫 教以大蒜三顆 清蜜半匙 同煎三日服即效

18. 일찍이 소음인(少陰人)이 유방 근처 늑골 밑에 종기가 나서 7,  
8개월이 되었는데도 합창이 안 되고 고름이 줄줄 흐르기만 하였는  
데, 어떤 의사가 산삼(山蔘)·웅담말(熊膽末)을 0.375g씩 개어 붙이게  
했더니 곧장 나았음을 보았다. 또 소음인 한 사람이 온몸에 부스럼  
이 났는데, 인삼말(人蔘末)을 바르게 했더니 곧장 나았다.

嘗見少陰人乳房近脅 有漏瘡 歷七八月 瘡口 不合 惡汁 嘗流 有醫 教以  
山蔘熊膽末各一分 傅之即效 又少陰人一人 滿身有瘡 以人蔘末 塗傅即效

[주(註)] ○산삼(山蔘): 산에서 저절로 여러 해 동안 자란 인삼으  
로, 약효가 가삼(家蔘)보다 월등하다.  
○웅담(熊膽): 곰의 쓸개로, 성질이 차며 맛이 쓰고 독이 없다.  
열병·중기·타박상·눈병 등에 쓴다.

19. 일찍이 소음인(少陰人)의 유방 근처에 내용(內癰)이 생겨서 안  
으로 끓어 있으므로 어떤 의사가 화침(火針)으로 고름을 뽑아내도록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의사는 “내옹(內癰)은 바깥 증세가 오한(惡寒) 발열(發熱)하는 것이 마치 상한(傷寒)과 같으면서 일정한 곳에 심한 통증이 있을 것이다. 그 아픈 곳을 잘 살펴서 고름이 있음을 분명히 안다면 화침(火針)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嘗見少陰人乳房近脅 發內癰 有醫 教以火針取膿 醫曰肉癰 外證 惡寒發熱似傷寒而有痛處也 察其痛處 明知有膿則不可不用火針

[주(註)] ○내옹(內癰): 폐옹(肺癰)·장옹(腸癰), 즉 흉막염·맹장염 같은 것을 말한다.

○화침(火針): 종기를 딸 때에 침을 뜨겁게 달구어서 사용하는 침법이다.

20. 일찍이 소음인(少陰人)의 등창(背癰)에 어떤 의사가 화도(火刀)로 그 종기를 꺾도록 한 것을 보았다. 의사에 말에 “화도(火刀)로 등창을 꺾는 것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하며, 만일 의심하여 때를 놓치면 온 등이 탄탄하게 굳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嘗見少陰人背癰 有醫 教以火刀裂瘡 醫曰火刀裂瘡 宜早也 若疑訝而緩不及事則全背堅硬 悔之無及

21. 일찍이 소음인(少陰人) 반신불수에 어떤 의사가 철액수(鐵液水)를 먹으라 하였는데, 효험이 있음을 보았다.

嘗見少陰人半身不遂病 有醫 教以服鐵液水得效

[주(註)] ○철액수(鐵液水): 잡철이 섞이지 않은 순 무쇠·무쇠 술 같은 것을 잘게 부수어서 적당한 웅기그릇에 담고 정화수(井華水)를 가득 부어 두면 녹물은 갈아 앗고 물 위에 기름이 뜨는데, 이것을 적당히 떠서 먹으면 중풍·심장병이 낫는다.

22. 일찍이 소음인(少陰人) 어린아이가 복학(腹瘕)을 앓는데, 어느 의사가 학(瘕)이 발하는 아침에 화단(火煨)한 금정비(金頂砒)를 곱게 갈아서 0.35g을 감초 달인 물에 먹도록 하였더니 곧 나았다. 의사는 말하기를 “비상(砒霜)은 반드시 금정비(金頂砒)를 만들어서 써야 하고, 이것은 화단(火煨)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분량은 0.35g보다 많아도 적어도 안 된다. 그것은 많으면 약독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적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 이 약은 여러 번 경험한 것이며, 한 번 복용하여 나은 후에 다시 재발하는 자에게 또다시 사용하면 병이 더욱 심하게 될 뿐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게 되므로 한 번 복용할 수는 있어도 두 번 다시 쓸 수는 없는 약이다.”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이치를 생각해보니, 한 번 복용한 후 병이 낫고 다시 재발되지 않은 것은 모두 소음인 아이이고, 병이 재발하는 자는 모두 소음인 아이가 아닌 것이다. 오직 소음인 아이로서 복학병(腹瘕病)의 난치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보통 학질에는 이런 약은 쓸 필요가 없다. 소음인의 하루거리에는 오한(惡寒)이 있을 그 때에 천궁계지탕(川芎桂枝湯) 두세 첩만 쓴다면 낫지 않을 리 없고, 또 배 속이 가득 차서 대변이 굳으면 비록 학질이라도 파두(巴豆)를 쓸 수 있는 것이다.

嘗見少陰人小兒腹瘕病 有醫 教以瘕病將發之早朝 用火煨金頂砒 極細末六厘 生甘草湯 調下卽效 醫曰砒藥 必金頂砒然後 可用而又火煨然後



可用也 必不可過六厘而又不可不及六厘也 過六厘則藥毒 太過也 不及六厘則 瘡不愈也 此藥 屢試屢驗而有一服愈後 瘡又再發者 又用之則其病益甚而危 蓋此藥可以一服 不可再服云 聽醫言而究其理則一服愈而瘡不再發者 皆少陰人兒也 一服愈而瘡又再發者 皆非少陰人兒也 惟少陰人兒腹瘡病難治者 用此藥 尋常瘡 不必用此不祥之藥 少陰人尋常間日瘡 惡寒時 用川芎桂枝湯二三貼則亦無不愈 又服中 實滿而大便硬 瘡發者 亦可用巴豆

[주(註)] ○복학(腹瘡): 소아 비장염(脾臟炎).

○금정비(金頂砒): 연(鉛)(재납) 600g을 도가니에 넣고 끓인 후 백비상(白砒霜) 75g을 다시 납에 섞어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달구어 식은 후에 꺼내면 납 위에 있다.

23. 모든 약 치고 좋지 않은 약이란 없지만 오직 소음인(少陰人)의 비상(砒霜)과 태음인(太陰人)의 고체(蒺藜)만은 가장 나쁜 약이다. 왜냐하면 소음인(少陰人)의 신비석(信砒石)은 모든 병에 쓰면 모두 위험하되 오직 한 가지 학질만을 다스리는 재능을 지니고 있으니 이야말로 유명무실하며 위태로워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계지(桂枝) · 인삼(人蔘) · 백작약(白芍藥) 등속을 3, 4일 복용하여 학질을 치료하는 것만 못하다. 이는 천하에 만 가지 해가 있는 무용한 약이 아니겠는가. 태음인(太陰人)의 과체약(瓜蒂藥)도 모든 병에 위험하되 오직 치담(治痰)하는 약으로서만 가래가 막힌 것을 뚫는 한 가지 재능만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도 유명무실하며 위태로워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길경(桔梗) · 맥문동(麥門冬) · 오미자(五味子) 등속을 3, 4첩 복용하여 담을 치고 가래의 막힌 것을 뚫어 주는 것보다 못하다. 이는 천하에 만 가지 허만 있는 무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두 가지 약은 외치(外治)에는 쓸 수 있지만 내복(內服)에는 사

용할 수 없는 것이다.

百藥 莫非善藥而惟少陰人信砒藥 太陰人蒺藜藥 最爲惡藥也 何哉 少陰人信砒藥 百病 用之皆殆而祇有治瘡之一能者 亦有名無實 不無危慮 萬不如桂枝人蔘白芍藥三四服之治瘡則此非天下萬害無用之藥乎 太陰人蒺藜藥 百病 用之皆殆而祇有治痰涎壅塞之一能者 亦有名無實 不無危慮 萬不如桔梗麥門冬五味子三四服之 治痰涎壅塞則此非天下萬害無用之藥乎 此二藥 外治 可用 內服 不可用

24. 일찍이 소음(少陰) 증풍병(中風病)에 혀가 굳어서 말을 못 하는데 어떤 의사가 합곡혈(合谷穴)에 침을 놓으니 그 병이 신통하게 나았다. 기타 모든 병이 약으로 효를 거두지 못한 것을 침으로 능히 속효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침혈(鍼穴)에도 태소음양(太少陰陽) 사상인(四象人)에 따라 응용되는 혈(穴)이 있어 거기에는 반드시 승강완속(升降緩速)의 묘(妙)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삼가 뒤에 근후(謹厚)하면서도 활인(活人)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자 한다.

嘗見少陰人中氣病 舌卷不語 有醫 針合谷穴而其效如神 其他諸病之藥不能速效者 針能速效者 有之 蓋針穴 亦有太少陰陽四象人應用之穴而必有升降緩速之妙 繫是不可不察 敬俟後之謹厚而好活人者

[주(註)] ○합곡(合谷): 침혈명(針穴名).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원혈(原穴)이며, 제일장골(第一掌骨)과 제이장골간(第二掌骨間)의 배면함요부(背面陷凹部)에 있음. 보통 사관혈(四關穴)이라 한다.

## 제11장 소음인(少陰人) 처방(處方)

一. 장중경(張仲景)의 『상한론(傷寒論)』 중에서 소음인병(少陰人病)에 대한 경험방(經驗方)으로 설정된 이십삼방(二十三方)

### 1) 계지탕(桂枝湯)

계지(桂枝) 11.25, 백작약(白芍藥) 7.50, 감초(甘草) 3.75,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個)

(적용) 태양병(太陽病) 표증(表證)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자한(自汗)과 악풍(惡風)이 있고, 맥(脈)이 부(浮)한 자에 사용한다.

(참고) 감기 · 몸살 · 신경통 · 류머티스에 쓴다.

### 2) 이중탕(理中湯)

인삼(人蔘) · 백출(白朮) · 건강(乾薑) 각 7.50, 감초(甘草) 3.75

(적용) 이한(裏寒)으로 오는 설사에 사용한다. 위무력(胃無力) · 위확장(胃擴張)에도 쓸 수 있다.

### 3) 건강부자탕(乾薑附子湯)

건강포(乾薑炮) 37.50, 부자포(附子炮) 18.75

부자(附子)를 생(生)으로 쓰면 백통탕(白通湯)이라 한다.

(적용) 『상한론(傷寒論)』에는 “하제(下劑)를 쓴 뒤에 발한(發汗)을 시킨즉 낮에는 번조(煩燥)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밤이면 안정되고 따라서 구토(嘔吐)·번갈(煩渴)이 없이 맥(脈)이 침미(沈微)하며 대열(大熱)이 없을 때에 이 약을 쓴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소음병(少陰病)에 응용하는 약이다.

### 4) 사순리중탕(四順理中湯)

인삼(人蔘)·백출(白朮)·건강(乾薑)·감초구(甘草灸) 각 7.50

(적용) 허한성(虛寒性) 구토·하리(下利)·복통·심하비경(心下痞硬)에 사용한다.

『상한론(傷寒論)』에는 “이중환(理中丸) 또는 인삼탕(人蔘湯)과 내용이 같으며, 천금방(千金方)·증치준승방(證治準繩方)에는 해산 뒤에 기혈(氣血)이 함께 상하여 비위(脾胃)가 허약할 때에 쓴다”고 하였다.

만일 환(丸)으로 만들 때는 꿀에 반죽하여 오자대(梧子大)로 하고, 매복(每服) 50환(丸)씩 공복시(空腹時)에 미음(米飮)에 송하(送下)한다.

### 5) 인삼계지탕(人蔘桂枝湯)

감초구(甘草灸)·계지(桂枝) 각 6.75, 백출(白朮)·인삼(人蔘)·건강(乾薑) 각 5.63

(적용) 외감증(外感證)이 8, 9일 경과했는데도 간간이 열이 있고 겸하여 설사가 그치지 않으며 명치가 답답한 것은 표증(表證)과 이중

(裏證)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증거니 이때에 사용한다.

6) 사역탕(四逆湯)

감초구(甘草灸) 22.50, 건강포(乾薑炮) 18.75, 생부자(生附子) 4.00

달여서 두 번에 나누어 먹는다.

(적용) 이한증(裏寒證)에서 오는 설사 또는 수족(手足) 쫄냉(厥冷), 맥(脈)이 침미무력(沈微無力)한 자에게 사용한다.

7) 후박반하탕(厚朴半夏湯)[일명, 후박생강반하감초인삼탕(厚朴生薑半夏甘草人蔘湯)]

후박(厚朴) 11.25, 인삼(人蔘) · 반하(半夏) 각 5.63, 감초(甘草) 2.81, 생강(生薑) 7편(片)

(적용) 발한(發汗) 후에 위(胃)가 허약하여 배가 창만(脹滿)하고 소화(消化)가 안 되며 구역(嘔逆)이 있을 때에 사용한다.

(참고) 위하수(胃下垂) · 위확장(胃擴張) · 고창(鼓脹) · 비만(痞滿) · 구역(嘔逆) · 희기(噫氣) · 탄산(吞酸)에 쓴다.

8) 반하산(半夏散)

반하제(半夏製) · 감초구(甘草灸) · 계지(桂枝) 각 7.50

(적용) 소음병(少陰病)에 인후(咽喉)가 아픈 데 사용한다.

9) 적석지우여량탕(赤石脂禹餘糧湯)

적석지(赤石脂) · 우여량(禹餘糧) 각 9.38

(적용) 탕약(湯藥)을 써도 설사가 그치지 않고 명치 밑이 답답하며

병이 더욱 심해질 때에 사용한다.

10) 부자탕(附子湯)

백출(白朮) 15.00, 백작약(白芍藥) · 백복령(白茯苓) 각 11.25, 부자포(附子炮) · 인삼(人蔘) 각 7.50

(적용) 경련이 생기고, 소변(小便) 불리(不利), 명치가 단단하고, 허배가 아플 때에 사용한다.

11) 마황부자세신탕(麻黃附子細辛湯)

마황(麻黃) · 세신(細辛) 각(各) 7.50, 부자포(附子炮) 3.75

(적용) 소음병(少陰病) 처음에 오한(惡寒) 발열(發熱)하고, 몸이 쭉시고 아프며, 맥(脈)이 침(沈)한 자에 사용한다.

12) 마황부자감초탕(麻黃附子甘草湯)

마황(麻黃) · 감초(甘草) 각 11.25, 부자포(附子炮) 3.75

(적용) 소음병(少陰病)이 된 지 2, 3일에 약간 땀을 내야 할 때에 쓴다.

[금궤요략(金匱要略)] 무수허창자(無水虛脹者)를 기수(氣水)라 하며, 발한(發汗)을 시키면 병이 낫는다. 맥(脈)이 침(沈)한 자는 반드시 이 약을 써야 한다.

13)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

백작약(白芍藥) · 당귀(當歸) 각 7.50, 계교(桂枝) 5.63, 세신(細辛) · 통초(通草) · 감초(甘草) 각 3.75

(적용) 수족이 궤냉(厥冷)하고, 맥(脈)이 세(細)하며, 평소에 복내(腹

內)가 한냉(寒冷)하여 수독증(水毒證)이 있는 자에게 쓴다.

14)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

반하제(半夏製) 7.50 인삼(人蔘) · 감초(甘草) · 황금(黃芩) 각 5.63, 건강(乾薑) 3.75, 황연(黃連) 1.88, 황연(黃連) 3편(片), 대조(大棗) 2개(個)  
(적용) 명치 밑이 답답하고 누르면 단단하지만 아프지 않으며, 배 속에서 꿀꿀 소리가 나고. 혹 설사를 할 때에 사용한다.

15) 생강사심탕(生薑瀉心湯)

생강(生薑) · 반하(半夏) 각 7.50, 인삼(人蔘) 0 · 건강(乾薑) 각 5.63, 황연(黃連) · 감초(甘草) 각 3.75, 황금(黃芩) 1.88, 대조(大棗) 2개  
(적용)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과 거의 같다. 탄산(呑酸) · 조잡(嘈雜) · 애기(噯氣) · 구토(嘔吐) 등을 치료한다.  
(상한론(傷寒論)) 땀을 내어 병이 풀렸으나 배 속이 거북하고, 명치 밑이 답답하며, 장뇌오(腸雷烏)와 설사를 하는 데 사용한다.

16)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

감초(甘草) 7.50, 건강(乾薑) · 황금(黃芩) 각 5.63, 반하제(半夏製) · 인삼(人蔘) 각 3.75, 대조(大棗) 3개  
본방(本方)은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에 감초를 가미한 것이다.  
(적용) 모든 위장병 · 신경쇠약 · 불면증 등 광범위하게 응용한다.

17) 인진호탕(茵陳蒿湯)

인진(茵陳) 37.50, 대황(大黃) 18.75, 치자(梔子) 7.50

먼저 인진(茵陳)을 달여서 반으로 줄인 후에 두 가지 약을 넣어서 달이되 다시 반으로 줄여서 하루에 두 번 복용한다.

(적용) 주로 실증(實證)으로 된 황달을 치료한다. 열이 있고, 소변이 불리(不利)하며, 구갈(口渴)과 두한(頭汗)·복창만(腹脹滿)·변비(便秘)·현훈(眩暈) 등을 치료한다.

#### 18) 지당탕(抵當湯)

수질(水蛭) 4.00, 맹충(蟪蟲) 5.00, 도인류첨(桃仁留尖) 19매(枚), 대황(大黃) 11.25

(적용) 아랫배가 단단하고 소변이 자리(自利)하면 어혈(瘀血)이 생긴 것이다. 이럴 때 이 약을 사용한다.

#### 19)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

대황(大黃) 11.25, 계심(桂心)·망초(芒硝) 각 7.50, 감초(甘草) 3.75, 도인유첨(桃仁留尖) 10매(枚)

(적용) 태양병(太陽病) 표사(表邪)가 풀리지 않고 부(臍)에 입(入)하여 하초(下焦)에 범하여 아랫배가 급결(急結)되면 대개는 좌측 서혜부(鼠蹊部)에 동통(疼痛)이 온다. 이럴 때에 이 약을 쓴다.

#### 20) 마인환(麻仁丸)

대황증(大黃蒸) 150.00, 지실(枳實)·후박(厚朴)·적작약(赤芍藥) 각 75.00, 마자인(麻子仁) 56.25, 행인(杏仁) 46.88 위말(爲末) 밀환(蜜丸)으로 하여 오자대(梧子大)로 50환(丸)을 공복(空腹)에 온수로 복용한다.



(적용) 대변불리(大便不利) · 변비(便秘)에 사용한다.

21) 밀도법(蜜導法)

노인과 허약한 자에 있어서 약을 쓸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데, 벌꿀을 끓이면서 조각말(皂角末)을 조금씩 넣어서 환(丸)을 만들어 이것을 항문 안에 넣으면 곧 대변이 통한다.

22) 대승기탕(大承氣湯)

대황(大黃) 15.00, 후박(厚朴) · 지실(枳實) · 망초(芒硝) 각 7.50

물 500cc에 약을 넣고 달여서 180cc 정도로 만들어 망초말(芒硝末)을 넣어 다시 한번 끓인 후에 온(溫)한 대로 복용한다.

(적용) 양명병(陽明病)에 맥(脈)이 느리고 대변이 불통되며, 해질 무렵에 고열(高熱)이 오르고 헛소리를 하며, 땀이 저절로 나고 배가 창만한 데 쓴다.

23) 소승기탕(小承氣湯)

대황(大黃) 15.00, 후박(厚朴) · 지실(枳實) 각 5.63

한 첩으로 만들어 물에 달여서 먹는다.

(적용) 대승기탕증(大承氣湯證)과 거의 같다. 양명병(陽明病) 조열(潮熱)이 있고 약간 대변이 굳을 때에 사용한다.

二. 송(宋) · 원(元) · 명(明) 삼대(三代) 한의(醫家)들이 저술한 중에서 소음인병(少陰人病)에 경험한 요약(要藥) 십삼방(十三方)과 파두약(巴豆藥) 육방(六方)

### 1)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인삼(人蔘) · 백출(白朮) · 백작약(白芍藥) · 감초구(甘草灸) · 황저(黃芪) · 육계(肉桂) · 당귀(當歸) · 천궁(川芎) · 백복령(白茯苓) · 숙지황(熟地黃) 각 3.75,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왕호고(王好古)의 『해장서(海藏書)』 중에 나온 허노증(虛勞證)을 다스린다.

(적용) 기(氣)와 혈(血)이 다 함께 허(虛)하여 도한(盜汗) · 자한(自汗)이 있고, 전신권태(全身倦怠) · 오노칠상(五勞七傷) · 구병(久病) 후에 허손(虛損)을 치료한다.

이제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한다면 백복령(白茯苓) · 숙지황(熟地黃)을 버리고 사인(砂仁) · 장피(障皮)를 써야 할 것이다.

### 2)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황저(黃芪) 5.63, 감초구(甘草灸) · 인삼(人蔘) · 백출(白朮) 각 3.75, 당귀(當歸) · 진피(陳皮) 각 3.62, 승마(升麻) · 시호(柴胡) 각(各) 1.13,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이고(李杲)의 『동원서(東垣書)』 중에 나온 노권(勞倦) · 허약 · 신열(身熱) · 번조(煩燥)와 땀이 저절로 나는 권태증을 다스린다.

이제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한다면 황저(黃芪)는 11.25로 하고, 또 승마(升麻) · 시호(柴胡)를 버리고 곽향(藿香) · 자소엽(紫蘇葉)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

향부자(香附子) · 백출(白朮) · 백복령(白茯苓) · 반하(半夏) · 진피(陳

皮) · 후박(厚朴) · 백두구(白豆蔻) 각 3.75, 인삼(人蔘) · 감초(甘草) · 목향(木香) · 축사(縮砂) · 익지인(益智仁) 각 1.88,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이 처방은 공신(龔信)의 『의감서(醫鑑書)』에서 나온 것인데, 불사음식(不思飲食) · 식불하(食不下) · 식후도포(食後倒飽)를 다스린다.

이제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백복령(白茯苓)을 버리고 백하수오(白何首烏)를 사용한다.

#### 4) 목향순기산(木香順氣散)

오약(烏藥) · 향부자(香附子) · 청피(靑皮) · 진피(陳皮) · 후박(厚朴) · 지각(枳殼) · 반하(半夏) 각 3.75, 목향(木香) · 축사(縮砂) 각 1.88, 계피(桂皮) · 건강(乾薑) · 감초구(甘草灸) 각 1.13,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이 처방은 공신(龔信)의 『만병회춘서(萬病回春書)』에서 나온 것으로, 중기병(中氣病)을 치료한다. 중기(中氣)라는 것은 남과 서로 싸우다가 제 노기로 인해 쓰러지는 것이다.

먼저 생강을 달여서 먹이고, 정신이 회복된 후에 이 약을 쓴다.

#### 5) 소합향원(蘇合香元)

백출(白朮) · 목향(木香) · 침향(沈香) · 사향(麝香) · 정향(丁香) · 안식향(安息香) · 백단향(白檀香) · 가자피(訶子皮) · 향부자(香附子) · 필발(華撥) · 서각(犀角) · 주사(朱砂) 각 75.00

먼저 주사(朱砂)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을 안식향고(安息香膏)에 소합유(蘇合油)를 개어 유향(乳香) · 용뇌(龍腦) 각 37.50과 다른 약의 세

말(細末)한 것을 안식향고(安息香膏)와 꿀에 반죽하되 천 번을 절구에 쪼는다. 그래서 매 37.50을 40개로 환(丸)을 만들되 남은 주사(朱砂)로 위의(爲衣)해서 한 번에 두세 개씩 정화수(井華水)나 또는 더운물에 먹는다.

(적용) 이 처방은 ‘태평혜민화제국(太平惠民和劑局)’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기질(氣疾), 즉 중기(中氣) · 상기(上氣) · 기역(氣逆) · 기울(氣鬱) · 기통(氣痛)을 다스린다.

허숙미(許叔微)는 『본사방(本事方)』에서 말하기를 “무릇 사람이 포희(暴喜)하면 장(陽)을 해치고, 포노(暴怒)하면 음(陰)을 해치며, 근심 걱정을 하면 의지가 답답하고, 기(氣)가 많으면 궤역(厥逆)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약을 써야 하고, 만일 중풍으로 잘못 알고 치료하면 살인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위역림(危亦林)은 『득효방(得效方)』에서 말하기를 “중풍은 맥(脈)이 부(浮)하고 몸이 따뜻하며 입에 담과 가래가 많고, 중기(中氣)는 맥(脈)이 침(沈)하고 몸이 서늘하며 입 안에 담이나 가래가 없다”고 하였다.

이제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사향(麝香) · 서각(犀角) · 주사(朱砂) · 용뇌(龍腦) · 유향(乳香)을 버리고 곽향(藿香) · 회향(茴香) · 계피(桂皮) · 오영지(五靈脂) · 현호색(玄胡索)을 사용하여야 한다.

#### 6)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

곽향(藿香) 5.63, 자소엽(紫蘇葉) 3.75, 후박(厚朴) · 대복피(大腹皮) · 백출(白朮) · 진피(陳皮) · 반하(半夏) · 감초(甘草) · 길경(桔梗) · 백지(白芷) · 백복령(白茯苓) 각 1.88,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이 처방은 공신(龔信)의 『의감서(醫鑑書)』에서 나온 것으로, 상한(傷寒)을 치료한다.

(적용) 차방(此方)은 외감(外感)과 내상(內傷)을 겸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감기로 인한 두통·발열이 있고 무한(無汗)한 데 쓰며, 또한 식독(食毒)으로 인한 복통·하리(下痢)·구토·심하비(心下痞)에도 적용한다.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길경(桔梗)·백지(白芷)·백복령(白茯苓)을 버리고 계피(桂皮)·건강(乾薑)·익지인(益智仁)을 써야 한다.

#### 7) 향소산(香蘇散)

향부자(香附子) 11.25, 자소엽(紫蘇葉) 9.38, 진피(陳皮) 5.63, 창출(蒼朮)·감초(甘草) 각 3.75, 생강(生薑) 3편(片), 총백(葱白) 2

이는 위역림(危亦林)의 『득효방(得效方)』에서 나온 것으로, 사시온역(四時瘟疫)을 치료한다.

‘태평혜민화제국(太平惠民和劑局)’에서는 “옛날 어떤 노인이 때마침 성중에 온역(瘟疫)이 크게 만연되어 이 처방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주면서 함께 쓰도록 하였는데, 이 처방을 복용한 자는 모두 병을 고쳤다”고 한다.

#### 8) 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

부자포(附子炮)·계지(桂枝) 각 11.25, 백작약(白芍藥) 7.50, 감초(甘草) 3.75,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이 처방은 이천(李樾)의 『의학입문(醫學入門)』에서 나온 것으로, 땀이 그치지 않고 흐르며, 수족에 경련이 생겨서 굴신(屈伸)하기 어려

운 것을 다스린다.

(적용) 신경통·마비·류머티스.

9) 인진사역탕(茵陳四逆湯)

인진(茵陳) 37.50, 부자(附子)·건강구(乾薑灸)·감초구(甘草灸) 각 3.75

(적용(適用)) 이는 음증(陰證) 황달(黃疸)에 식은땀이 그치지 않는 것을 다스린다.

10) 균진부자탕(茵陳附子湯)

인진(茵陳) 37.50, 부자구(附子灸)·감초구(甘草灸) 각 3.75

(적용) 음증(陰證) 황달에 몸이 찰 때에 쓴다.

11) 인진귤피탕(茵陳橘皮湯)

인진(茵陳) 37.50, 백출(白朮)·반하(半夏)·생강(生薑) 각 3.75

(적용) 음증(陰證) 황달에 숨이 차고 구역이 나며 갈증이 없을 때에 쓴다.

약의 세 가지 방문(方文)은 주광(朱肱)의 『활인서(活人書)』 중에서 나온 것이다.

12) 삼미삼유탕(三味蓼莢湯)

오수유(吳茱萸) 11.25, 인삼(人蔘) 7.50, 생강(生薑) 4편(片), 대조(大棗) 2개(個)

(적용) 윗음증(厥陰證)·구토(嘔吐), 입에 침이 많을 때, 소음증(少陰證)에 사지궤냉(四肢厥冷)하고 번조(煩燥)하며, 또 양명증(陽明證)에 음

식이 입에 들어가면 즉시 토하는 것을 다스리는 데 묘(妙)가 있다.

### 13) 벽력산(霹靂散)

부자(附子) 한 개를 불에 충분히 구워서 찬 재 속에 반시간쯤 묻었다가 꺼내어 반으로 쪼개서 가늘게 썰어 오래 묵은 다(茶)[납다(臘茶)] 3.75g과 물 한 잔을 부어서 달이되 6할쯤 되면 찌꺼기는 버리고 더운 꿀 한 순갈을 타서 식혀 마신다. 얼마 후에 번조(煩燥)가 그치고 잠이 들며 땀이 나면 병이 풀린다. 이는 음성격양증(陰盛隔陽證)을 다스린다.

이상 두 가지 처방은 이천(李樾)의 『의학입문(醫學入門)』에서 나온 것이다.

### 14) 온백원(溫白元)

천오폭(川烏炮) 93.75, 오수유(吳茱萸) · 길경(桔梗) · 시호(柴胡) · 석창포(石菖蒲) · 자울(紫苑) · 황련(黃連) · 건강포(乾薑炮) · 육계(肉桂) · 천초초(川椒炒) · 적복령(赤茯苓) · 조각구(皂角灸) · 후박(厚朴) · 인삼(人蔘) · 파두상(巴豆霜) 각 18.75

우약(右藥)을 세말(細末)하여 꿀을 끓여서 반죽하고 오자대(梧子大)로 환(丸)을 지어 생강 달인 물로 먹되 한 번에 3~5환 또는 7환을 복용한다.

(적용) 이 처방은 국방(局方)에서 나온 것으로, 적취(積聚) · 징벽(癥癖) · 황달(黃疸) · 고창(鼓脹) · 10종수기(種水氣) · 9종심통(種心痛) · 8종비새(種痞塞) · 5종임질(種淋疾) · 원년(遠年) 학질(瘧疾)을 다스린다.

공신(龔信) 『의감(醫鑑)』에서는 “부인(婦人)이 배 속에 적취(積聚)가

생겨 마치 잉태한 것 같고, 몸이 수척하며 늘 피곤을 느끼고, 때로는 노래도 하고 울기도 하여 마치 귀신들린 자와 같은 데 이 약을 쓰면 저절로 낫는다”고 하였다.

오래된 병에 이 약을 쓰게 되면 배 속의 모든 것을 사(瀉)하는데 별레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한 더러운 것을 모두 쏟아낸다 한다.

#### 15) 장달환(瘴瘧丸)

인진(茵陳) · 치자(梔子) · 대황(大黃) · 망초(芒硝) 각(各) 37.50, 행인(杏仁) 22.50, 상산(常山) · 별갑(鱉甲) · 파두상(巴豆霜) 각 15.00, 두고(豆豉) 7.50

모두 가루로 만들어서 찢은 떡에 반죽하여 오자대(梧子大)로 환(丸)을 지어 한 번에 세 알 내지 다섯씩 따뜻한 물에 먹는다.

이 방문(方文)은 위역림(危亦林)의 『득효방(得效方)』에서 나왔는데, 일명 인진환(茵陳丸)이라고도 한다. 유행성 온역(瘟疫) 및 장학(瘴瘧) · 황달 등 습열병(濕熱病)을 다스린다.

#### 16) 삼릉소적환(三稜消積丸)

삼릉(三稜) · 봉출(蓬朮) · 신국(神麴) 각 26.75, 파두(巴豆)를 껍질 채 쌀과 함께 검게 초(炒)하여 쌀은 버리고, 청피(靑皮) · 진피(陳皮) · 회향(茴香) 각 18.75, 정향(丁香) · 익지인(益智仁) 각 11.25

모두 가루로 만들어서 식초로 풀을 쑤어 이를 반죽하여 오자대(梧子大)로 환(丸)을 짓는다. 그리고 생강 달인 물에 30~40환(丸)씩 복용한다.

이 처방은 이고(李杲)의 『동원서(東垣書)』에서 나온 것인데, 생냉(生冷)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되며 배 속이 가득하고 답답한 것



을 다스린다.

17) 비방화체환(秘方化滯丸)

삼능(三稜) · 봉출병외(蓬朮並煨) 각 18.00, 반하(半夏) · 신곡(神曲) · 목향(木香) · 정향(丁香) · 청피(靑皮) · 진피병거백(陳皮並去白) · 황연(黃連) 각 9.38, 파두육(巴豆肉)을 초침(醋浸)하여 하룻밤을 재운 뒤에 볶아서 말린 것 22.50

(적용) 모두 위말(爲末)하여 오매말(烏梅末)에 밀가루를 약간 섞어서 풀을 쭈어 환(丸)을 만들되 쌀알만 하게 만들어서 매번 5~7환(丸) 또는 10환(丸)을 복용한다. 복용할 때는 대변이 묽으면 뜨거운 물로 복용한다. 적(積)을 녹여 없이 하려고 하면 진피탕(陳皮湯)에 먹고, 설사를 막으려고 하면 냉수에 복용한다.

이 처방은 주진형(朱震亨)의 『단계심법(丹溪心法)』에서 나온 것인데, 모든 기(氣)를 다스리고 적(積)을 없애며, 오래 굳고 깊이 잠긴 덩어리를 갈아 스스로 녹게 한다.

별안간 생긴 적(積)이나 잠시 생긴 것을 막론하고 소도(消導)하여 그 자리에서 제거하는데, 이는 조화(造化)를 빼서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공(功)이 있고, 음양을 고르게 하며 보(補)하고 사(瀉)하는 묘(妙)가 있기 때문이다.

18) 삼물백산(三物白散)

길경(桔梗) · 패모(貝母) 각 11.25, 파두거피심(巴豆去皮心)한 것은 볶고 갈아서 기름이 있는 채로 3.75g을 한데 섞어서 가루를 만들어 1.88을 백탕(白湯)에 타서 먹되 약한 사람은 이에 반으로 해야 할 것

이다. 혹 토하거나 설사를 시키고자 하되 설사가 안 나오면 뜨거운 죽을 한 그릇 먹일 것이요,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찬 죽을 한 그릇 먹이면 된다.

19) 여의단(如意丹)

천오포(川烏炮) 30.00, 빈랑(檳榔) · 인삼(人蔘) · 시호(柴胡) · 오수유(吳茱萸) · 천초(川椒) · 백복령(白茯苓) · 백강(白薑) · 황련(黃連) · 자을(紫菀) · 후박(厚朴) · 육계(肉桂) · 당귀(當歸) · 길경(桔梗) · 조각(皂角) · 석창포(石菖蒲) 각 18.75, 파두상(巴豆霜) 9.38

이것을 위말(爲末) 연밀(煉蜜)로 화환(和丸)하여 오자대(梧子大)로 하고 주사위의(朱砂爲衣) 매(每) 5환(丸) 혹은 7환(丸)을 더운물로 먹는다.  
(적용) 이는 오로지 온역(瘟疫)과 모든 귀수(鬼祟)를 다스린다.

이상 두 처방은 이천(李橧)의 『의학입문(醫學入門)』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앞의 파두(巴豆)가 든 여섯 개의 처방은 옛날 사람들이 각자 경험해서 만든 것으로, 이 처방들은 똑같이 파두(巴豆)의 힘이며 그 용도도 다를 바 없다. 대개 파두(巴豆)는 소음인병(少陰人病)에 반드시 쓰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경솔하게 쓸 수도 없고, 쓰기를 꺼릴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이 여섯 가지 처방을 줄줄이 기록하여 그의 경험을 서술함은 그 이치를 밝히 아는 자는 이를 사용하되 반드시 효과를 얻을 것이나 경솔하게 써서는 안 될 것이다.”

論曰右巴豆六方 卽古人之各自置方 各自經驗而此六方 同是一巴豆之力

則所用 亦無異而同歸於一也 蓋巴豆 少陰人病之必不可不用而又不可輕  
用 必不可浪用而又不可疑用之藥故 聯錄六方 備述經驗 昭明其理者 欲  
其用之必中而不敢輕忽也

### 三. 새로 설정한 소음인병(少陰人病)에 응용하는 요약(要藥) 이십사방(二十四方)

#### 1) 황저계지부자탕(黃芪桂枝附子湯)

계지(桂枝) · 황저(黃芪) 각 11.22, 백작약(白芍藥) 7.50, 당귀(當歸) · 감초구(甘草灸) 각 3.75, 부자포(附子炮) 3.75~7.50,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 2) 인삼계지부자탕(人蔘桂枝附子湯)

인삼(人蔘) 15.00, 계지(桂枝) 11.25, 백작약(白芍藥) · 황저(黃芪) 각 7.50, 당귀(當歸) · 감초구(甘草灸) 각 3.75, 부자포(附子炮) 3.75~7.50,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 3) 승양익기부자탕(升陽益氣附子湯)

인삼(人蔘) · 계지(桂枝) · 백작약(白芍藥) · 황저(黃芪) 각 7.50, 백하수오(白何首烏) · 관계(官桂) · 당귀(當歸) · 감초구(甘草灸) 각 3.75, 부자포(附子炮) 3.75~7.50,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 4) 인삼관계부자탕(人蔘官桂附子湯)

인삼(人蔘) 18.75~37.50, 관계(官桂) · 황저(黃芪) 각 2.00, 백작약(白芍藥) 11.25, 당귀(當歸) · 감초구(甘草灸) 각 3.75, 부자포(附子炮)

7.50~9.38,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이상 네 개의 처방은 모두 망양증(亡陽證)이 되어 병이 위험할 때에 쓰는 약이다. 망양증에 걸린 사람이 오줌 빛이 맑고 양이 많으면 위험해도 아직 여지가 있는 것이니 부자(附子)를 3.75g 넣어서 하루에 두 첩씩 쓸 것ियो, 오줌 빛이 붉고 양이 적으며 병이 위험하여 여지가 없을 때에는 부자(附子)를 7.50g 가하여 하루에 두 첩 내지 세 첩씩 써야 한다. 병이 장차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부자(附子)를 3.75g 쓸 것ियो, 위험을 면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써야 할 것이다. 또한 병을 조리할 때에도 3.75g을 넣어서 하루에 두 첩씩 써야 한다.

(해설) 망양증(亡陽證)이란 땀이 그치지 않고 나는 것을 말한다. 외감증(外感證)이 있을 때에 발한제(發汗劑)를 과하게 사용하였거나 찬약을 많이 써서 진양(眞陽)이 탈망(脫亡)된 상태다. 이는 체질적으로 소음인에 많은 것이며 매우 위급한 증세다. 상한(傷寒)에서 태양병(太陽病)이 양명증(陽明證)으로 전속(轉屬)된다고 함은 대개 한다망양증(汗多亡陽證)을 말한 것이다. 위장의 진액이 말라서 대변불통이 되고, 찬 땀을 흘리며, 오한(惡寒)이 심하고, 온몸과 수족이 차고, 입이 조(燥)하지 않아도 더운물을 찾는 때에 찬약을 쓰게 되면 위험 상태에 이른다.

##### 5) 승양익기탕(升陽益氣湯)

인삼(人蔘) · 계지(桂枝) · 황지(黃芪) · 백작약(白芍藥) 각 7.50, 백하수오(白何首烏) · 관계(官桂) · 당귀(當歸) · 감초구(甘草灸) 각 3.75,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적용) 태양병(太陽病)에 발한(發汗)이 심하여 망양증(亡陽證)이 될 우려가 있을 때와 위양(胃腸)의 진액이 말라서 대변불통이 되어 발광을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쓴다.

(참고) 이상의 처방은 『의학입문(醫學入門)』에서 나온 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 『상한론(傷寒論)』에서 나온 인삼계지탕(人蔘桂枝湯)을 변방(變方)한 것으로 생각된다.

#### 6)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인삼(人蔘) · 황저(黃芪) 각 11.25, 백출(白朮) · 당귀(當歸) · 진피(陳皮) · 감초(甘草) 각 3.75, 소엽(蘇葉) · 곽향(藿香) 각 1.13~1.88,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적용) 태양병(太陽病) 한다망양병(汗多亡陽病)이 될 우려가 있을 때에 쓰고, 원기(元氣)가 허약한 때 쓴다.

『동원서(東垣書)』에는 내상(內傷) · 노권상(勞倦傷) · 음허증(陰虛證) · 발열(發熱) · 두통(頭痛) · 구갈(口渴) · 표열(表熱) · 자한(自汗) · 외풍(畏風) · 오한(惡寒) · 식소(食少) · 무미(無味) · 심번(心煩) · 허노(虛勞) · 노림(勞淋) · 유정(遺精) · 유뇨(遺尿) · 교장(交腸) · 비위허약(脾胃虛弱) · 원기불족(元氣不足) 등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비고) 이는 이동원(李東垣)의 대표적인 처방으로 소음인병(少陰人病)에는 가장 적합한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변방(變方)한 것이다.

#### 7) 황저계지탕(黃芪桂枝湯)

계지(桂枝) 11.25, 백작약(白芍藥) · 황저(黃芪) 각 7.50, 백하수오(白何首烏) · 당귀(當歸) · 감초구(甘草灸) 각 3.75, 생강(生薑) 3편(片), 대조

(大棗) 2개

(적용) 이 처방도 한다망양증(汗多亡陽證) 초증(初證)에 쓴다. 보통 감기·독감 등에 소음인으로서 오한(惡寒)·발열(發熱)이 있으면서 땀이 있으면 이 처방을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인의 열성(熱性)질환에는 절대 발한(發汗)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 8) 천궁계지탕(川芎桂枝湯)

계지(桂枝) 11.25, 백작영(白芍藥) 7.50, 천궁(川芎)·창출(蒼朮)·진피(陳皮)·감초구(甘草灸) 각 3.75,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적용) 감기 몸살에 오한(惡寒)·발열(發熱)이 있고 지절통(肢節痛)이 있는데 땀기가 없을 때에 쓴다. 학질이나 경(輕)한 중이염·결막염에도 매우 잘 듣는다. 만일 이마나 몸 전체에 약간이라도 땀기가 보이면 망양증(亡陽證) 초증(初證)으로 보고 가급적이면 황저계지탕(黃芪桂枝湯)·황저계지부자탕(黃芪桂枝附子湯)을 써서 원기의 저항력을 부조(扶助)해야 한다.

#### 9) 궁귀향소산(芎歸香蘇散)

향부자(香附子) 7.50, 자소엽(紫蘇葉)·천궁(川芎)·당귀(當歸)·창출(蒼朮)·진피(陳皮)·감초구(甘草灸) 각 3.75, 총백(葱白) 오경(五莖),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적용) 상한(傷寒)·상풍(傷風)·상습(傷濕)으로 생긴 시행성(時行性) 온역(瘟疫)에 쓴다. 임신부의 상한(傷寒)으로 오는 오한(惡寒)·두통에도 쓴다.

(참고) 위역림(危亦林)의 『득효방(得効方)』에서 나온 향소산(香蘇散)의 변방(變方)이다.

#### 10) 나향정기산(蘿香正氣散)

곽향(藿香) 5.63, 자소엽(紫蘇葉) 3.75, 창출(蒼朮) · 백출(白朮) · 반하(半夏) · 진피(陳皮) · 청피(靑皮) · 대복피(大腹皮) · 계피(桂皮) · 건강(乾薑) · 익지인(益智仁) · 감초구(甘草灸) 각 1.88,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적용) 외감(外感)과 내상(內傷)을 겸하여 치료한다.

공신(龔信)의 『의감서(醫鑑書)』 중에 나온 것인데, 외감(外感) · 풍한(風寒)으로 생긴 병이나 음식으로 인한 내상(內傷), 오한(惡寒)이 심하고 높은 열이 오르며 두통(頭痛) · 구역(嘔逆) · 흉민(胸悶) · 복창(腹脹) · 담수(痰嗽) · 토사(吐瀉) 격난(瘧亂) 및 그 외에도 널리 쓰인다.

#### 11) 팔물군자탕(八物君子湯)

인삼(人蔘) 7.50, 황지(黃芪) · 백출(白朮) · 백작약(白芍藥) · 당귀(當歸) · 천궁(川芎) · 진피(陳皮) · 감초구(甘草灸) 각 3.75,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적용) 양명증(陽明證)에 망양(亡陽) · 울광증(鬱狂證)과 위가실(胃家實)에 쓴다고 하였으나 사실 이 처방과 같이 소음인(少陰人)에게 많이 쓰이는 약은 없다.

여기서 인삼(人蔘)을 빼고 백하수오(白何首烏)로 바꾸면 백하오군자탕(白何首烏君子湯)이 되고, 또 인삼(人蔘) · 황지(黃芪)를 각 3.75g으로 하고 백하수오(白何首烏) · 관계(官桂) 각 3.75g을 가하면 십전대보탕

(十全大補湯)이 되며, 또 본방(本方)에 인삼(人蔘) 37.50, 황저(黃芪) 3.75g을 가하면 독삼팔물탕(獨蔘八物湯)이 된다. 팔물군자탕(八物君子湯)과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은 그 용도가 비슷하며 다 같이 음양을 고르게 하고 허약을 보(補)한다.

왕호고(王好古)의 『해장서(海藏書)』에는 모든 허손(虛損)을 치료하고 두통(頭痛) · 현훈(眩暈) · 구설창생(口舌瘡生) · 치통(齒痛) · 빈혈(貧血) · 천수(喘嗽) · 회역(噦逆) · 이수(羸瘦) · 몽설(夢泄) · 변혈(便血) · 퇴각무력(腿脚無力) · 한열(寒熱) · 라력(瘰癧) · 변독(便毒) · 옹창(癰瘡) 등에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처방들은 소음인에게 전용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고 또 모든 부인병에도 가장 많이 쓴다.

## 12) 향부자팔물탕(香附子八物湯)

향부자(香附子) · 당귀(當歸) · 백작약(白芍藥) 각 7.50g, 백출(白朮) · 백하수오(白何首烏) · 천궁(川芎) · 진피(陳皮) · 감초구(甘草灸) 각 3.75,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적용) 부인들이 노심초사를 많이 하여 비장(脾臟)의 기운을 상하게 되면 목구멍이 마르고 혀가 조(燥)하며 은근하게 머리가 아플 때 신효(神效)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경성으로 온 두통 · 현훈(眩暈) 또는 심장질환에 효(效)가 있으며, 모든 부인병에도 매우 좋다.

(비고) 여암(如菴) 최린(崔麟)에게 준 처방은 향부자(香附子) · 백하수오(白何首烏)[백하수오(白何首烏)를 빼고 대신 인삼(人蔘)을 넣었다] · 백출(白朮) · 백작약(白芍藥) · 천궁(川芎) · 진피(陳皮) · 감초구(甘草灸) 각 3.75,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관계(官桂)를 가미하기도 하



였음]인데, 여암(如菴) 자서전에 보면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21세 때에 신병으로 신음, 고통하던 중 이 처방으로 살아난 일이 있다고 하였다.

### 13) 계지반하생강탕(桂枝半夏生薑湯)

생강(生薑) 11.25, 계지(桂枝) · 반하(半夏) 각 7.50, 백작약(白芍藥) · 백출(白朮) · 진피(陳皮) · 감초구(甘草灸) 각 3.75

(적용) 소음인(少陰人)이 비위(脾胃)가 허한(虛寒)하여 구토가 나거나 소양인(少陽人)의 수결흉증(水結胸證)과 같이 열이 없이, 이마에서 축축이 땀이 나고 가슴이 뛰면서 몹시 아프면 이는 흉협(胸脅)에 담(痰)이 맺혀 있는 관계니 이럴 때에는 매우 신효(神效)하다.

### 14) 향사양위탕(香砂養胃湯)

인삼(人蔘) · 백출(白朮) · 백작약(白芍藥) · 감초구(甘草灸) · 반하(半夏) · 향부자(香附子) · 진피(陳皮) · 건강(乾薑) · 산사육(山查肉) · 사인(砂仁) · 백두구(白豆蔻) 각 3.75,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적용) 비위(脾胃)가 허약하여 음식소화가 안 될 때에 쓰는 대표적인 처방이다. 급만성위염 · 만성대장염 · 위무력(胃無力) · 위산과다 · 위궤양 · 구미(口味)가 없을 때와 폐결핵 초기에도 좋다. 또 천수(喘嗽)에도 쓰며, 상한(傷寒) 양명증상한(陽明證傷寒) 양명증(陽明證)에 장액(腸液)분비가 안 되어서 대변을 보지 못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소음인(少陰人) 위장병 약의 대표적 처방이며 여기에 가미하여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참고) 후 인삼(人蔘)을 백하수오(白何首烏)로 대신해도 좋다. 본방

(本方)은 공신(龔信)의 『의감서(醫鑑書)』에 나오는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의 변방(變方)이며, 이와 비슷한 처방이 많이 나와 있다.

15) 적백하오관중탕(赤白何烏寬中湯)

백하수오(白何首烏) · 적하수오(赤何首烏) · 양강(良薑) · 건강(乾薑) · 청피(靑皮) · 진피(陳皮) · 향부자(香附子) · 익지인(益智仁) 각 3.75, 대조(大棗) 2개

(적용) 사지가 노곤하고, 소변이 불쾌하며, 양기가 없고, 장차 부종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 쓴다.

본방(本方)에 후박(厚朴) · 지실(枳實) · 목향(木香) · 대복피(大腹皮) 각 1.88g씩 가미하면 기맥(氣脈)을 통하게 하는 공효(功效)가 더욱 크다. 비록 부종(浮腫)이 생긴 자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3, 4개월 약을 쓰되 하루에 두 첩씩 복용하면 효과가 없을 리가 없다.

본방(本方)에서 적하수오(赤何首烏)를 인삼(人蔘)으로 바꾸면 인삼백하수오관중탕(人蔘白何首烏寬中湯)이라 하고, 또 적하수오(赤何首烏)를 당귀(當歸)로 바꾸면 당귀백하수오관중탕(當歸白何首烏寬中湯)이라고 한다.

고방(古方)에서도 건강(乾薑) · 양강(良薑) · 청피(靑皮) · 진피(陳皮)를 각 등분(等分)하여 탕(湯)으로 하거나 환(丸)으로 하는 관중탕관중탕(寬中湯寬中湯)이 있었다.

일찍이 소음인(少陰人)이 소변이 불쾌하고 양기가 없으며 사지가 권태(倦怠)하고 무력한 데 썼더니 효과가 백발백중이었다. 관중환(寬中丸) 본방(本方)에 오령지(五靈脂) · 익지인(益智仁) 각 3.75g을 가미하면 복통에도 신효(神效)하다.

관중탕(寬中湯)은 신진대사작용을 촉진시키며, 만성(慢性)으로 된 비장성부종(腎臟性浮腫)에는 매우 좋은 약이다. 소음인(少陰人) 체질에는 유일무이한 처방이니 가령 흉막염(胸膜炎)·간장염·복막염·맹장염·염증성 질환에는 더욱 좋고, 한편 신경성 질환에도 널리 이용된다.

#### 16) 산밀탕(蒜蜜湯)

백하수오(白何首烏)·백출(白朮)·백작약(白芍藥)·계지(桂枝)·인진(茵陳)·익모초(益母草)·적석지(赤石脂)·앵속각(鶯粟殼) 각 3.75,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대신(大蒜) 오근(五根), 청밀(淸蜜) 반 숟갈  
(적용) 세균성 및 아메바성을 막론하고 이질(赤痢)·백리(白痢)의 명약이다. 불과 2, 3첩에 신효(神效)가 있다.

#### 17) 계삼고(鷄蓼膏)

인삼(人蔘) 37.50, 계피(桂皮) 3.75, 계(鷄) 1수(首)

함께 달여서 먹는데, 맛을 돋우기 위하여는 호초(胡椒)와 꿀을 타서 먹어도 좋다.

(적용) 이 처방은 옛날로부터 전해온 것인데 학질·이질에 신효(神效)하다.

일찍이 오래된 학질을 치료하였는데 먼저 파두(巴豆)로 대변을 통하게 한 뒤에 계삼고(鷄蓼膏)를 3일 동안 계속 사용했더니 쾌차가 있었다.

계피(桂皮)를 계심(桂心)으로 바꾸기도 한다.

### 18) 파두단(巴豆丹)

파두(巴豆) 한 알 껍질을 까서 알갱이를 따뜻한 물로 한 개 또는 반 개씩 먹고, 이내 탕약(湯藥)을 달인다. 약을 달이는 동안에 파두(巴豆)는 위장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며 거의 약력이 쓰인 후에 탕약(湯藥)을 먹으면 파두(巴豆)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 위장 내의 내용물을 쾌(快)하게 통하게 되고 기(氣)를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다. 다시 약을 달여서 대변이 통한 후에 복용하여야 한다. 파두(巴豆)의 온 알은 통변시키고 반 알은 적(積)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본래 파두(巴豆)는 소음인병에는 절대 필요한 약이다. 성분이 매우 열(熱)하고 이것의 기름에는 독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반 알만 먹어서 파적(破積)한다고 함은 온 알보다 기름기가 많기 때문이다.

(적용) 본고(本草)에는 퇴귀(退癘)·도기(導氣)·파적(破積)·축수(逐水)·배농(排膿)·살충(殺蟲)·태타(胎墮)·통리(通利) 등으로 나와 있다.

○음독증(陰毒證): 파두(巴豆) 열 알 정도를 찢어서 밀가루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배꼽 위에 놓고 땀을 뜬다.

○구안괘사(口眼喎斜): 파두(巴豆)를 찢어서 빼뜯어진 쪽 얼굴 위에 놓고 더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한다.

○악성피부병(惡性皮膚病): 파두유(巴豆油)를 탈지면에 찍어서 조금씩 바르면 신효(神效)하다.

그 밖에도 파두(巴豆)의 이용도는 광범위하다.

### 19) 인삼진피탕(人蔘陳皮湯)

인삼(人蔘) 37.50, 생강(生薑)·사인(砂仁)·진피(陳皮) 각 3.75, 대조(大棗) 2개

본방(本方)에 생강을 포건강(炮乾薑)으로 바꾸고 또 계피(桂皮) 3.75g을 가미하면 위(胃)를 덥게 하고 냉(冷)을 쫓아내는 힘이 강하다.

일찍이 돌이 못 된 아기가 만경풍(慢驚風)이 된 것을 이 약을 수일 동안 썼더니 완전히 나왔다. 그러나 병이 나은 뒤에 더 계속하지 않았더니 재발되어 치료할 수 없었다.

20) 인삼오수유탕(人蔘吳茱萸湯)

인삼(人蔘) 37.50, 오수유(吳茱萸) · 생강(生薑) 각 11.25, 백작약(白芍藥) · 당귀(當歸) · 관계(官桂) 각 3.75

(적용) 태음증(太陰證)에 설사를 심히 하고, 소음증(少陰證) · 궤음증(厥陰證)으로 전변되어 탈수증이 심할 때에 쓴다.

21) 관계부자리중탕(官桂附子理中湯)

인료(人蔘) 11.25, 백출(白朮) · 건강포(乾薑炮) · 관계(官桂) 각 7.50, 백작약(白芍藥) · 진피(陳皮) · 감초구(甘草灸) 각 3.75, 부자포(附子炮) 3.75~7.50

(적용) 인삼오수유탕(人蔘吳茱萸湯) 이하 4방(方)은 모두 상한(傷寒) 음증(陰證)에 쓰는 처방이다. 병의 경중에 따라 선택할 것이며, 때로는 가감 변방(變方)해도 무방하다.

소음인(少陰人)의 음실증(陰實證), 즉 사지가 역냉(逆冷)하거나 온몸이 차며 만성대장염 · 상한(傷寒) · 음독증(陰毒證) · 대음병(太陰病) · 소음병(少陰病)의 위독할 때에 쓴다.

22) 오수유부자리중탕(吳茱萸附子理中湯)

인삼(人蔘) · 백출(白朮) · 건강포(乾薑炮) · 관계(官桂) 각 7.50, 백작약(白芍藥) · 진피(陳皮) · 감초구(甘草灸) · 오수유(吳茱萸) · 소회향(小茴香) · 파고지(破故紙) 각 3.75, 부자포(附子炮) 3.75~7.50

(적용) 관계부자리중탕(官桂附子理中湯)과 거의 같다.

23) 백하오부자리중탕(白何烏附子理中湯)

백하오(白何烏) · 백출초(白朮炒) · 백작약미초(白芍藥微炒) · 계지(桂枝) · 건강(乾薑) 각 7.50, 진피(陳皮) · 감초구(甘草灸) · 부자포(附子炮) 각 3.75

(적용) 태음증(太陰證) 설사에 배가 아픈 데 쓰며, 위경련에도 매우 좋다. 배 속이 차고 회(蛔)배가 시리고 아플 때, 무릎이 시리고 아플 때도 좋다.

24) 백하오리중탕(白何烏理中湯)

백하오(白何烏) · 백출(白朮) · 백작약(白芍藥) · 계지(桂枝) · 건강포(乾薑炮) 각 7.50, 진피(陳皮) · 감초구(甘草灸) 각 3.75

(적용) 복통 · 설사 · 복냉(腹冷) · 소화불량에 신효(神效)하다.

인삼이 있으면 인삼을 쓰고, 인삼이 없으면 백하수오(白何首烏)를 대신 써도 좋다. 백하수오(白何首烏)와 인삼은 그 성분과 맛이 서로 비슷하지만 기운을 맑게 하고 널리 퍼지게 하는 힘은 부족하고 온보(溫補)하는 힘은 백하수오(白何首烏)가 지나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험증(險證)과 위증(危證)에 인삼 7.50g 이상을 쓰기 어려울 때에는 백하수오(白何首烏)를 대용해도 좋다. 고방(古方)에는 경험이 많지 않

으므로 이 약재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약만은 보약 중에서 빼 수 없는 것이다. 옛 처방의 하인음(何人飮)은 백하수오(白何首烏) 18.75g을 사용하여 학질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상(以上)의 소음인(少陰人)의 여러 가지 약재 중에서 부자(附子)는 포(炮)를 해서 써야 하고, 감초(甘草)는 구(炙)를 하며, 건강(乾薑)은 포(炮)하거나 생(生)으로 쓰며, 황저(黃芪)는 구(炙)하거나 생(生)으로 쓴다.

궁벽한 산간벽지에서 별안간 병이 났을 때, 속수무책하여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단방약이라도 쓰는 것이 좋다. 가령 양명증(陽明證)에 황저(黃芪) · 계피(桂皮) · 인삼(人蔘) · 작약(芍藥) 같은 것을 단방(單方)으로 써도 좋고, 소음병(少陰病)에는 부자(附子) · 작약(芍藥) · 인삼(人蔘) · 감초(甘草) 같은 것을 쓰며, 태양병(太陽病)에는 소엽(蘇葉) · 총백(葱白) · 황저(黃芪) · 계지(桂枝)를 쓰고, 태음병(太陰病)에는 백출(白朮) · 건강(乾薑) · 진피(陳皮) · 곽향(藿香)과 같은 단방을 쓴다. 우선 단방을 쓰는 한편 온전하게 약을 구하여 쓴다면 병을 고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약을 쓸 때에는 처방 중에 들어 있는 약만을 써야 하며 처방에 없는 것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 소음인(少陰人)의 약성(藥性)[동무유고(東武遺稿)]

人蔘	補脾和脾	비장의 기운을 도우며 온화하게 한다.
白朮	健脾直脾	비장의 기운을 튼튼하게 하고 바르게 한다.
甘草	固脾立脾	비장의 기운을 굳히고 바로 세운다.
當歸	壯脾而有內守之力	비장의 기운을 성하게 하고 안을 지키는 힘이 있다.
川芎	壯壯脾而有外攘之勢	비장의 기운을 튼튼하게 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다.
官桂	壯脾而有充足 內外之力	비장의 힘을 튼튼하게 하고 안팎을 충족시키는 힘이 있다.
陳皮	錯綜脾氣之參伍 勻調	『易經』參伍爲變에서 나온 말이다. 비장의 기운이 뒤섞여 있는 것을 이리저리 고르게 한다.
白朮藥	收斂脾元	비장의 원기를 견어들인다.
藿香	定氣定魂	기운과 넋을 편케 한다.
砂仁	〃	〃
乾薑	溫肉理	근육을 따스게 하고 다스린다.
肉豆蔻	〃	〃
半夏製	消脾痰	비장의 담을 없앤다.
南星炮	〃	〃
蘇葉	解肌之表邪	피부의 표사를 푼다.
葱白	〃	〃
桃仁	醒脾之真氣	비장의 진기를 깨워 일으킨다.
杏花	〃	〃
蓬朮	滌脾之穢氣	비장의 더러운 기운을 깨끗하게 씻는다.
三稜	〃	〃
炮附子	爲脾元帥之藥而 不能除外冷冷氣 侮脾周匝凌侵於 胃之四圍者	비장의 기운을 주장하는 으뜸가는 약이다. 밖의 찬 기운을 억제하지 못하여 냉기가 없인여겨 제멋대 로 돌면서 위기의 둘레를 침입하는 데 쓴다.
木香	開脾之胃氣 而消息進食	비와 위의 기운을 열어주어 음식을 소화시키고 또 입맛을 나게 한다.
丁香	〃	〃
香附子	〃	〃
紫河車	能除脾之久病	비장의 오랜 병을 없이 한다.



※ 소음인(少陰人)의 요약(要藥)[본초강목(本草綱目)]

감초(甘草)[다년생 풀인 감초의 근경(根莖)]

산지-만주·몽고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완화(緩和)·자윤(滋潤)·해독하는 대표적 약이다. 생감(生甘)은 사화(瀉火)하고 구감(炙甘)은 건위(健胃)한다. 양혈(養血)·하기(下氣)·소종(消腫)한다.

건강(乾薑)[생강을 법제(法製)하여 말린 것]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치담(治痰)하며, 구토(嘔吐)·해수(咳嗽)·현훈(眩暈)·비위허냉(脾胃虛冷)·식욕부진·복냉(腹冷)·설사·적백리(赤白痢)·토혈(吐血)·하혈(下血)·요통(腰痛)·흉통(胸痛)에 쓴다.

계지(桂枝)[계수(桂樹)의 가지]

산지-동남아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감(甘)하다.

주치(主治)-지한(止汗)·진통(鎮痛)·진경(鎮痙)·건위(健胃)·보중(補中)·거풍습(祛風濕)·통풍(痛風)·모세혈관을 확장(擴張)하며, 사지관절통에도 쓴다.

계피(桂皮)[계수(桂樹)의 껍질]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상기(上氣)·해역(咳逆)·보중(補中)·보양(補陽)·한습(寒濕)·설사·경폐(經閉)·심복통(心腹痛)·역절풍(歷節風)에 쓴다.

곽향(藿香)(곽향의 잎)

산지(產地)－중국

성미(性味)－성(性)은 미온(微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토사(吐瀉)·곽난(瘧亂)·심복통(心腹痛)·토역(吐逆)·건위(健胃)·흉열(胸熱)·악심(惡心)에 쓴다.

관계(官桂)[육계(肉桂), 계수(桂樹)의 간피(幹皮)]

성미(性味)－성(性)은 열(熱)하고 무독(無毒)하며,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복냉(腹冷)·지한(止汗)·번조(煩燥)·양정(養精)·행혈(行血)·허냉(虛冷)·설사(泄瀉)에 쓴다.

남성(南星)[천남성의 구근(球根)]

성미(性味)－성(性)은 열(熱)하고, 미(味)는 고(苦)·신(辛)하다.

주치(主治)－풍담(風痰)·경풍(驚風)·경련(痙攣)·아관긴급(牙關緊急)·마비(麻痺)·창종(瘡腫)·해수(咳嗽)·어혈(瘀血)·파적(破積)에 쓴다.

당귀(當歸)(승검초의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미(味)는 감(甘)·신(辛)하며 약간 쓴다.

주치(主治)－당귀 두(頭)는 지혈(止血)하고, 미(尾)는 파혈(破血)하며, 신(身)은 생혈(生血)한다. 풍(風)·기(氣)·노(勞)·혈병(血病) 일체를 다 스린다.

해역(咳逆)·상기(上氣)·한열(寒熱)·두통(頭痛)·구역(嘔逆)·피노(疲勞)·설리(泄痢)·복통(腹痛)·요통(腰痛)·치통(齒痛)·배농(排膿)·옹저(癰疽)·부인병(婦人病)에 쓴다.

대복피(大腹皮)(빙랑 껍질)

산지－동남아

성미(性味)－성(性)은 미온(微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하기(下氣)·건비(健脾)·개위(開胃)·곽난(霍亂)·부종(浮腫)·각기(脚氣)·임신악조(妊娠惡阻)에 쓴다.

대산(大蒜)(마늘)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유독(有毒)하며,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건위(健胃)·옹독(癰毒)·서독(暑毒)·복통(腹痛)·이질(痢疾)에 쓰는데, 매일 많이 먹으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한다.

대조(大棗)(대추나무 열매)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보중익기(補中益氣)하며, 비위(脾胃)를 온화하게 하고, 생진액(生津液) 화백약생진액(和百藥生津液) 화백약(和百藥)한다.

목향(木香)(목향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고(苦)하며, 방향성(芳香性)이 있다.

주치(主治)－건비위(健脾胃)·적체(積滯)·곽난(霍亂)·이질(痢疾)·흉복(胸腹)의 기를 너그럽게 하고, 폐중체기(肺中滯氣)를 없애며, 산증사간(痙證瀉肝)을 한다.

봉밀(蜂蜜)(벌꿀)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자양성(滋養性)이 많아 모든 부족한 것을 보익(補益)한다. 또 진정작용·신경안정·해독·소염작용을 하며, 이질(痢疾)·심번(心煩)·소갈(消渴)·안적(眼赤)·구치(口齒)의 모든 병을 치료한다.

반하(半夏)(개 무릇)

성미(性味)－성(性)은 평(平)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습담(濕痰)을 제하고, 비위(脾胃)를 튼튼하게 하며, 상한(傷寒)·구토(嘔吐)·인후염(咽喉炎)·흉만(胸滿)·두통(頭痛)·현훈(眩暈)에 쓴다.

백출(白朮)(삼취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미(味)는 감(甘)·미고(微苦)하다.

주치(主治)－한습(寒濕)·열습(熱濕)을 다 치료하고, 화중(和中) 익기(益氣)한다. 습담(濕痰)·이뇨(利尿)·생진(生津)·지갈(止渴)·안태(安胎)·지설(止泄)에 쓴다.

백작약(白芍藥)(함박꽃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산(酸)하다.

주치(主治)－수렴작용(收斂作用)을 한다. 혈허통(血虛痛)·적긴(積緊)·설리(泄痢)·습열(濕熱)에 쓴다.

백두구(白豆蔻)[백두구의 과(果)]

산지－동남아

성미(性味)－성(性)은 대온(大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향(香)·미고(微苦)하다.

주치(主治)－적냉기(積冷氣)·구역(嘔逆)·반위(反胃)·하기(下氣)·소화작용(消化作用)을 촉진시킨다.

백하수오(白何首烏)(새박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미온(微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색(苦澁)하다.

주치(主治)－화기(和氣)하고, 간(肝)·신(腎)을 보(補)한다. 학질(瘡疾)·장근골(長筋骨)·익정수(益精髓)·색정기(養精氣)·악창(惡瘡)·옹달(癰疽)·대하(帶下)를 치료한다. 특히 모발(毛髮)이 검어지는 약이다.

부자(附子)[다년생초인 바깥의 구근(球根)]

산지－중국 사천성(四川省)

성미(性味)－성(性)은 대열(大熱) 대독(大毒)하고, 미(味)는 신(辛)·미랄(微辣)하다.

주치(主治)－한(寒)·풍(風)·습병(濕病)에 신속하다. 상한(傷寒)·음

증(陰證) · 사지궤냉(四肢厥冷) · 복통(腹痛) · 곽난(霍亂) · 설리(泄痢) · 경련(痙攣) 또는 마비(痲痺) · 산증(疝證) · 담궤(痰厥) · 회양(回陽) · 보화(補火)의 주약(主藥)이다.

사인(砂仁)[축사(縮砂)의 열매]

산지-동남아

성미(性味)-성(性)은 온(溫) · 섹(瀉)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방향성(芳香性) 건위제(健胃劑)로 대표적 약이다. 속을 덥히고 급성위염(急性胃炎) · 장염(腸炎) · 지해(止咳) · 임신악조(妊娠惡阻) · 식욕불진(食慾不振)에 쓴다.

소회(小茴)(다년생초인 회향의 씨)

성미(性味)-성(性)은 온(溫)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조양(助陽) · 개위(開胃) · 지통(止痛) · 냉기(冷氣) · 산기(疝氣) · 요통(腰痛) · 각기(脚氣) · 곽난(霍亂)에 쓴다. 경(瘕)은 웅창(癰瘡)에 효(效)가 있다.

산사육(山査肉)(아가위 나무 열매)

성미(性味)-성(性)은 온(溫)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산(酸) · 감(甘)하다.

주치(主治)-위(胃)의 소화효소를 촉진시킨다. 육체(肉滯)에 효(效)가 있으며, 담궤(痰厥) · 탄산(吞酸) · 혈적(血積) · 어혈(瘀血) · 요통(腰痛) · 산증(疝證)에 쓴다.

생강(生薑)(생강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기(氣)를 들어 올리고 발산하는 힘이 강하다. 발표(發表)·산한(散寒)·지구(止嘔)·행기(行氣)·소담(消痰)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흥분작용도 한다. 또 건위(健胃)·위한(胃寒)·설사(泄瀉)·해수천식(咳嗽喘息)·근골완통(筋骨緩痛)·감모(感冒)·풍한(風寒)에도 쓴다.

소엽(蘇葉)(차조기 잎)

성미(性味)－기(氣)는 온(溫)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하기(下氣)·제한열(除寒熱)·발한(發汗)·해기(解肌)·거담(祛痰)·이요(利尿)·진해(鎮咳)·온중(溫中)·이기(理氣)·안태(安胎)·건위(健胃)·화혈(和血)·심복창(心腹脹) 및 해독작용(解毒作用)도 한다.

소합향(蘇合香)[소합향나무의 내피(內皮)를 달인 것]

성미(性味)－교질(膠質)로 된 액체(液體)인데, 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신(辛)하다.

주치(主治)－혼수상태가 되었을 때 쓰고, 거담(祛痰)·살충(殺蟲)·간질(癇疾)·기관지천식(氣管支喘息)에도 쓴다.

애엽(艾葉)(약쭉)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향(香)하다.

주치(主治)－지혈(止血)·해열(解熱)·진통(鎮痛)·소염(消炎)·조경(調經)·강장작용(強壯作用)이 있고, 모든 한습(寒濕)으로 인한 병을 치료한다. 붕대(崩帶)·복통(腹痛)·냉리(冷痢)·곽난(霍亂)·전근(轉筋)·요통(腰痛)·기울(氣鬱)·월경불순(月經不順)·장출혈(腸出血)·토혈(吐血)·늑혈(衄血)·치혈(痔血)·개창(疥瘡)에 쓴다.

앵속곡(罌粟穀)(양귀비 꽃송이)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미(味)는 산(酸)·습(澁)하다.

주치(主治)－진통(鎮痛)·진경(鎮痙)·진해(鎮咳)·수렴(收斂)·지사제(止瀉劑)로 쓰고 한편 마취작용도 한다. 사리(瀉痢)·유정(遺精)·탈항(脫肛)·심복통(心腹痛)·근골통(筋骨痛)·구해(久咳)에 쓴다.

오영지(五靈脂)[산박쥐<한호충(寒號蟲)>의 똥]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고(苦)·함(鹹)하다. 약간 개비린내가 난다.

주치(主治)－파어혈(破瘀血)·진통작용(鎮痛作用)이 있다. 월경통(月經痛)과 가슴·옆구리·배가 아플 때에 진통작용을 하고, 산후복통(産後腹痛)·타박상(打撲傷)·위경련(胃痙攣)·위궤양(胃潰瘍)에도 쓴다.

오약(烏藥)[상녹관목(常綠灌木)]

산지－중국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향(香)하다.

주치(主治)－모든 기체(氣滯)를 소산(疎散)하고 순기(順氣)한다. 방향



성(芳香性)이 있어 건위제(健胃劑)로도 쓰이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며, 구토(嘔吐) · 곽란(霍亂) · 반위(反胃) · 사리(瀉痢) · 방광냉기(膀胱冷氣) · 소변백탁(小便白濁) · 각기(脚氣)에도 쓴다.

오수유(吳茱萸)[낙엽교목(落葉喬木)인 오수유나무 열매]

산지-중국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소독(小毒)이 있으며, 미(味)는 고(苦) · 신(辛) · 산(酸)하다.

주치(主治)-위(胃) 및 장경련(腸痙攣), 자궁수축(子宮收縮) · 위장염(胃腸炎) · 구토(嘔吐) · 비만(痞滿) · 수족궤냉(手足厥冷) · 설사(泄瀉) · 탄산(呑酸) · 토산(吐酸) · 살충(殺蟲) · 건위(健胃) · 진통(鎮痛)하는 데 쓴다.

익모초(益母草)[경(莖) · 엽(葉) · 화(花)를 다 쓴다]

성미(性味)-경(莖) · 엽(葉)의 성(性)은 미한(微寒)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 · 신(辛)하다.

주치(主治)-활혈(活血) · 파혈(破血) · 조경(調經) · 해독(解毒) · 태루(胎漏) · 난산(難産) · 태의불하(胎衣不下) · 혈훈(血暈) · 붕루(崩漏) · 요혈(尿血) · 이질(痢疾) · 치질(痔疾)에 쓴다.

익지인(益智仁)[다년생초인 익지(益智)의 씨앗]

산지-중국

성미(性味)-성(性)은 온(溫)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 · 향(香) · 고(苦) · 습(澁)하다.

주치(主治)-강장제(強壯劑)도 되고 방향성(芳香性) 건위제(健胃劑)도

된다. 위장쇠약(胃腸衰弱) · 소화불양(消化不良) · 대변당설(大便溏泄) · 한냉복통(寒冷腹痛) · 구리(久痢) · 유정(遺精) · 건요(遺尿) · 소변불금(小便不禁)에 쓴다.

#### 인삼(人蔘)

성미(性味)－미온(微溫)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미고(微苦)하다.

주치(主治)－오장을 보(補)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체온조절을 한다. 특히 비(脾) · 위(胃)의 약이며, 진액(津液)을 생(生)한다.

#### 인진호(茵陳蒿)(사철쭉)

성미(性味)－성(性)은 평(平) · 미한(微寒)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습열(濕熱)로 생긴 황달(黃疸)의 주약(主藥)이다. 소변불리(小便不利) · 상서(傷暑) · 두열(頭熱)에 쓴다.

#### 자단향(紫檀香)(향나무)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함(鹹)하다.

주치(主治)－풍독(風毒)을 치고, 지혈(止血) · 지통(止痛) · 임질(淋疾)에 쓴다.

#### 적하수오(赤何首烏)

산지－중국

성미(性味)－백하수오(白何首烏)는 보기(補氣)하고, 적하수오(赤何首烏)는 보혈(補血)한다.

주치(主治)－백하수오(白何首烏)와 거의 같다.

적석지(赤石脂)(찰흙의 일종)

성미(性味)－성(性)은 대온(大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신(辛)·산(酸)·습(澁)하다.

주치(主治)－심기(心氣)를 기르고, 명목(明目)·익정(益精)·복통(腹痛)·장출혈(腸出血)·적백리(赤白痢)·옹저(癰疽)·치질(痔疾)·붕루(崩漏)를 치료하는데, 생복용(生服用)한다.

지각(枳殼)(탱자)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하고, 미(味)는 고(苦)·산(酸)하다.

주치(主治)－축수(逐水)·소담(消痰)·지구(止嘔)·사리(瀉痢)·거풍(祛風)·파적(破積)한다.

지실(枳實)(탱자)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지각(枳殼)보다 성(性)이 강(強)하다.

주치(主治)－소화(消化)·어혈(瘀血)·적취(積聚)를 치료하고, 당설(滯泄)·협통(脇痛)·복통(腹痛)에 쓴다.

자하거(紫河車)[초산아(初産兒)의 태반(胎盤)]

성미(性味)－태반(胎盤) 호르몬을 함유하였다. 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함(鹹)하다.

주치(主治)－허손(虛損)·간질(癲疾)·안신(安神)·양혈(養血)·양위

(陽痿) · 결핵(結核) · 신경쇠약(神經衰弱)에 쓴다.

진피(陳皮)[귤감 껍질, 귤피(橘皮)]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미(味)는 신(辛) · 감(甘)하다.

주치(主治)－화비습(和脾習) · 거담(祛痰) · 기역(氣逆) · 이요(利尿) · 소식(消食) · 구토(嘔吐) · 설리(泄痢) · 해열(解熱) · 발한(發汗)한다.

창출(蒼朮)(삼주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발한(發汗) · 이요(利尿) · 건위(健胃) · 지사(止瀉) · 산풍한(散風寒) · 조온담(燥溫痰) · 해울(解鬱)한다.

천궁(川芎)[궁궁이 뿌리, 구근(球根)]

성미(性味)－성(性)은 온(溫)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 · 고(苦) · 향(香)하다.

주치(主治)－흥분(興奮) · 화혈(和血) · 조경(調經)한다. 신경쇠약(神經衰弱) · 혈행장애(血行障礙) · 빈혈성(貧血性) 두통(頭痛) · 현운(眩暈)의 치료 및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어혈(瘀血)을 푼다. 부인(婦人) 경도 조절(經度調節) 및 산후출혈(産後出血)을 막으며, 진경작용(鎮痙作用)도 한다.

청피(靑皮)(익지 않은 귤 껍질)

성미(性味)－성(性)은 온(溫)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 · 신(辛) · 향(香)하다.

주치(主治)－진피(陳皮)는 기운을 돋우고 청피(靑皮)는 기운을 해친다. 소화(消炎)·발한작용(發汗作用)을 하고, 소간(疏肝)·사폐(瀉肺)를 하며, 소장(小腸) 산기(疝氣)에도 쓴다.

충백(葱白)(파 줄기)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한기(寒氣)를 발산(發散)하고, 두통(頭痛)·복통(腹痛)·관절통(關節痛)·곽난(霍亂)·전근(轉筋)을 치료하며, 발한(發汗)·해독작용(解毒作用)도 한다.

파고지(破故紙)[일년생초인 보골지(補骨脂)의 씨앗]

산지－동남아

성미(性味)－성(性)은 대온(大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요통(腰痛)·슬냉(膝冷)·낭습(囊濕)·냉(冷)·양기부족(陽氣不足)에 쓴다.

파두(巴豆)[상록수(常綠樹)인 파두나무 씨앗]

산지－중국

성미(性味)－성(性)은 대열(大熱)·대독(大毒)하고, 미(味)는 신(辛)·미고(微苦)하다.

주치(主治)－담적(痰積)·살충(殺蟲)·수종(水腫)·악창(惡瘡)·농혈(膿血)에 쓴다.

향부자향부지(香附子香附子)[방동사니과(科)에 속한 향부자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고(苦)하다.

주치(主治)－소식(消食)·곽난(霍亂)·심복통(心腹痛)·조경(調經)·한울(寒鬱)에 쓴다.

향유(香薷)(노야기)

성미(性味)－성(性)은 미온(微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발한(發汗)·조습(燥濕)·서풍(暑風)·수종(水腫)·변열(煩熱)·이요(利尿)·곽난(霍亂)에 쓴다.

현호색(玄胡索)(땅구슬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미고(微苦)하다.

주치(主治)－파혈(破血)·월경불조(月經不調)·복중괴결(腹中傀結), 산후(産後)의 모든 혈병(血病) 및 소복통(小腹痛)에 쓴다.

황저(黃芪)(단너삼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미온(微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옹저(癰疽)·배농(排膿)·지통(止痛)·보허(補虛)·허천(虛喘)·자한(自汗)·보폐기(補肺氣)한다.

후박(厚朴)(후박나무 껍질)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고(苦)·향(香)하다.

주치(主治)－치담(治痰)·심복창(心腹脹)·곽난(霍亂)·적(積)·이(痢)·  
두통(頭痛)·어혈(瘀血)을 치료한다.





제 4편



## 제12장 소양인(少陽人) 비수한(脾受寒) 표한병론(表寒病論)

1.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소양병(少陽病)은 맥(脈)이 부(浮)하고 긴(緊)하며 열이 나고 오한(惡寒)이 있으며 온몸이 쭈시고 땀을 내게 해도 땀이 없이 번조(煩躁)한 것이니, 주로 대청룡탕(大靑龍湯)을 쓴다.”

張仲景 曰太陽病 脈浮緊 發熱惡寒 身痛不汗出而煩躁者 大靑龍湯 主之

[주(註)] ○불한증(不汗出): 땀을 나게 해도 땀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해설) 태양병(太陽病) 맥(脈)은 부(浮)한 것이 본맥(本脈)이다. 만일 열이 있고 땀이 나지 않으며 바람기가 싫고 맥(脈)이 부완(浮緩)하면 상풍(傷風)으로 된 병이다. 그런데 몸이 쭈시고 번조(煩躁)가 있으며 맥(脈)이 부완(浮緩)함은 태양병(太陽病) 중에서도 가장 악증이다. 번조증(煩躁證)은 본래 소음병(少陰病)에 있는 증세다. 만일 맥(脈)이 부(浮)하고 오한(惡寒)·발열(發熱)이 있으며 몸이 아프고 번조(煩躁)하면 표리(表裏)가 다 같이 열(熱)이 실(實)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지탕(桂枝湯)으로 발산을 하거나 마황탕(麻黃湯)으로 땀을 내어서는 안 되고 이(裏)를 맑히는 석고

(石膏)가 든 대청룡탕(大靑龍湯)을 써야 한다.

이미 소음인(少陰人) 병론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번(煩)은 열에 부대끼는 현상이요, 조(躁)는 손발을 움직이며 조바심을 하는 것이다. 즉 모두 열로 고민하는 양태다. 이 경우에는 맥(脈)이 부긴(浮緊)하고 번조(煩躁)가 심할 것이니 이는 표리(表裏)가 다 같이 열실(熱實)한 것이므로 대청룡탕(大靑龍湯)을 쓴다.

2. 나는 이렇게 말한다. “발열(發熱)·오한(惡寒)이 있고 맥(脈)이 부긴(浮緊)하며 온몸이 아프고 땀을 내지 못하며 번조증(煩躁證)이 있는 자는 소양인(少陽人)의 비(脾)에 한기(寒氣)를 받아서 표한병(表寒病)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대청룡탕(大靑龍湯)이 마땅치 않고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을 써야 한다.”

論曰發熱惡寒 脈浮緊 身痛不汗出而煩躁者 卽少陽人脾受寒表寒病也 此證不當用大靑龍湯 當用荊防敗毒散

3.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소양경(少陽經)에 병을 받으면 입이 쓰고 목안이 마르며 눈에서 현기를 일으킨다.”

張仲景 曰少陽之爲病 口苦咽乾目眩

4. 눈이 아찔하고 입이 쓰며 혀가 마르는 자는 소양병(少陽病)에 속한다.

眩而口苦舌乾者 屬少陽

(해설) 소양병(少陽病)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소양병은 표병(表病)

과 이병(裏病)의 중간 증세를 말한다. 즉 태양(太陽) 표병(表病)에서 양명(陽明) 이병(裏病)으로 전경(轉經)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표증(表證)도 이증(裏證)도 아닌 반표반리(半表半裏)라 할 수 있다. 소양병은 주로 구고(口苦)·인건(咽乾)[설건(舌乾)]·목현(目眩)을 들 수 있는데 태양병에는 이런 증세가 없다.

5. 입이 쓰고 귀가 먹고 가슴이 답답한 자는 소양상풍증(少陽傷風證)이다.

口苦耳聾胸滿者 少陽傷風證也

6. 입이 쓰고 목안이 마르고 눈이 아찔하며 귀가 먹먹하고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며 추웠다 더웠다 하고 구역질이 나는 것은 소음경(少陰經)에 속한 병이다. 이때에는 토하고 설사하는 약을 써서는 안 되며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

口苦咽乾目眩耳聾胸脅滿 或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주(註)] ○흉협만(胸脇滿): 양쪽 늑골 밑이 뽕뽕하고 부은 것 같다. 이는 복증(腹證)에 있어서 소시호탕증(小柴胡湯證)에 해당한다. (해설) 태양병(太陽病)에서 소양병(少陽病)으로 변하게 되면 늑골 밑이 뽕뽕하고 붓는다. 또 구역이 나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세가 반복하니 이런 경우에는 맥(脈)이 침간(沈緊)하다. 이 경우에는 토(吐)를 하거나 사(瀉)를 하는 약을 써서는 안 된다.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

7.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은 증세에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쓰는 것은 옳지 않고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이나 형방도적산(荊防導赤散)·형방사백산(荊防瀉白散)을 써야 한다.”

論曰此證 不當用小柴胡湯 當用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해설)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약성(藥性)으로 보아 찬약과 더운약을 혼합하였기 때문이다. 소양인 약으로 는 단지 시호(柴胡) 한 가지뿐이다.

8. 장중경(張仲景)이 말한바 소양병(少陽病)에 입이 쓰고 목 안이 마르고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때로 추웠다 더웠다 함은 소양인의 긴장음기(腎臟陰氣)가 열사(熱邪)에 몰려 있고, 또 긴장음기(脾臟陰氣)가 열사(熱邪)에 막혀서 아래로 신기(腎氣)와 연결하지 못하므로 옆구리에 몰려서 교체(膠滯)된 병증이다. 이 증세에 구역이 나는 것은 외한(外寒)이 이열(裏熱)을 에워싸고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이요, 추웠다 더웠다 함은 비장(脾臟) 음기(陰氣)가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되 내려가지 못하다가 더러 내려가게 되는 까닭에 한열(寒熱)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입이 쓰고 목안이 마르고 눈에 현기를 일으키고 귀가 먹먹한 것은 음기(陰氣)가 협간(脅間)에 수체(囚滯)되어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되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까닭에 단지 추위만 있고 열이 없다가 귀가 먹먹하게 되는 것이다. 입이 쓰고 목안이 마르고 현기증이 있는 것은 예사로운 증세지만, 만일 귀가 먹먹하게 되면 중증이다.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한 증세가 있으면 장차 결흉증(結胸證)이 될 징조니, 옆구리만 답답하면 가벼운 증세지만 만일 가슴이 답답하면 중증으로 보아야 한다. 옛사람들이 이런 증세에 땀을 내거나 혹 토(吐)를

시키거나 혹 설사를 시키는 법을 쓰면 그 병증이 문득 헛소리를 하는 괴증(壞證)으로 나타나므로 중경(仲景)이 이를 변통한 것이 소시호탕(小柴胡湯)이다. 따라서 담(痰)을 맑게 하고 또 말리게 하기 위하여 찬약과 더운약을 섞어서 골고루 화해시킴으로써 병의 전변을 막아 스스로 병이 낫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은 한(汗)·토(吐)·하(下)의 삼법(三法)으로 논한다면 좋고도 교묘하지만 소시호탕(小柴胡湯)도 화해(和解)를 시키어 병의 전변을 막아내는 약은 아니다. 그러므로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이 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다면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롱(耳聾)·흉만(胸滿)·상풍(傷風)의 병에 어찌 소시호탕(小柴胡湯)을 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겠는가. 비록 후세에 나온 것이나 공신(龔信)이 만든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이야말로 소양인표한병(少陽人表寒病)에는 삼신산(三神山) 불사약이 아닐 수 없다. 이 증세는 이열(裏熱)을 맑히고 표음(表陰)을 내리게 하면 자연히 담음(痰飲)이 없어지고 결흉(結胸)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청담(淸痰) 조담(燥痰)하기보다는 강음(降陰)·담산(痰散)하는 법이 더 좋을 것인데 공연히 병을 끌어오다가 결흉증(結胸證)이 되거나 다른 기증(奇證)이 생길까 두렵다.

張仲景所論少陽病 口苦咽乾胸脅滿 或往來寒熱之證 卽少陽人腎局陰氣爲熱邪所陷而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而凝聚膈間 膠固囚滯之病也 此證 嘔者 外寒 包裹熱而挾疾上逆也 寒熱 往來者 脾局陰氣欲降未降而或降故 寒熱 或往或來也 口苦咽乾目眩耳聾者 陰氣 囚滯膈間 欲降未降故 但寒無熱而至於耳聾也 口苦咽乾目眩者 例證也 耳聾者 重證也 胸脅滿者 結胸之漸也 脅滿者 猶輕也 胸滿者 重證也 古人之於此證 用汗吐下三法則其病 輒生譫語壞證 病益危險故 仲景變通之而用小柴胡湯 淸痰燥痰 溫冷相雜 平均和解 欲其病 不轉變而自愈 此法

以汗吐下三法 論之則可謂近善而巧矣 然 此小柴胡湯 亦非平均和解病不轉變之藥 則從古斯今 得此病者真是寒心矣 耳聾胸滿傷風之病 豈可以小柴胡湯擬之乎 噫 後來龔信所製荊防敗毒散 豈非少陽人表寒病三神山不死藥乎 此證 清裏熱而降表陰則痰飲 自散而結胸之證 預防不成也 清痰而燥痰則無益於陰降痰散 延拖結胸 將成而或別生奇證也

9. 주굉(朱肱)이 말하기를 “무릎 땀이 나되 허리 이상은 비록 줄줄 흐르더라도 허리 아래 발끝까지 축축하게 젖지 않는다면 병은 끝내 풀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朱肱 曰凡發汗 腰以上 雖淋漓 而腰以下 至足微潤則病終不解

(해설) 무릎 땀을 낼 때에는 허리 이상은 이불을 덮어야 하고, 허리 아래는 두꺼운 옷을 입혀야 한다. 허리 이상에 땀이 흐르되 허리에서 발까지 축축하게 땀이 나지 않으면 전신 혈액순환이 안 되므로 끝내 병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10. 나는 이렇게 말한다. “소양인(少陽人) 병에는 표증(表證)·이증(裏證)을 막론하고 손바닥·발바닥에 땀이 나야 병이 풀린다. 만일 손바닥·발바닥에 땀이 나지 않으면 비록 전신에서 땀이 나더라도 병은 풀리지 않는다.”

論曰少陽人病 無論表裏病 手足掌心 有汗則病解 手足掌心 不汗則雖全體 皆汗而病不解

(해설) 소양인은 본래 이열(裏熱)이 많고 표열(表熱)이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표한증(表寒證)에 있어서는 가급적으로 이열(裏熱)을 맑히면 수족장심(手足掌心)에 땀이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잘되면 병이 풀린다.



11. 소양인(少陽人) 상한(傷寒)에는 재통(再痛)하거나 삼통(三痛)하여 발한(發汗)한 후에 병이 낫는 자가 있으니 이 병은 재(再)·삼풍한(三風寒)에 감(感)하여 재통발한(再痛發汗)·삼통발한(三痛發汗)하는 것이 아니다. 소양인이 머리가 쓰시고 목이 뻣뻣하여 한열(寒熱)이 오락가락하고 귀는 먹먹하며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몹시 심하면 원래가 이와 같은 것이다. 표사(表邪)가 깊이 맺혀 있으면 삼통(三痛)이 있는 연 후에야 비로소 병이 풀리는 것이다. 초통(初痛)·재통(再痛)·삼통(三痛)을 막론하고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형방도적산(荊防導赤散)·형방사백산(荊防瀉白散)을 하루에 두 첩씩 병이 나을 때까지 써야 한다. 또 병이 나은 뒤에도 십여 첩을 더 써주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저절로 후환이 없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少陽人傷寒病 有再痛三痛發汗而愈者 此病 非再三感風寒而再痛發汗三痛發汗也 少陽人頭痛腦強寒熱往來耳聾胸滿尤甚之病 元來如此 表邪深結 至於三痛然後 方解也 無論初痛再痛三痛 用荊防敗毒散或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每日二貼式至病解而用之 病解後 又用十餘貼 如此則自無後病而完健

(해설) 재통발한(再痛發汗)·삼통발한(三痛發汗)하는 것은 정기(正氣)가 사기(邪氣)를 물리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2.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소양증(少陽證)에 끈끈하게 땀이 나고, 명치가 답답하며 땀만하고, 옆구리 밑이 켕기고 아프며, 헛구역이 나고 숨이 차되 오한증이 없는 것은 표증(表證)이 풀렸는데도 아직 이증(裏證)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십조탕(十棗湯)을 써야 하지만 만일 모든 것이 합하여 아래로 내려가지 못할 때에

는 배가 창만(脹滿)하고 온몸이 붓는다.”

張仲景 曰少陽證 濺濺汗出 心下痞硬滿 引脅下痛 乾嘔短氣不惡寒 表解裏未和也 宜十棗湯 若合下不下 令人脹滿 遍身浮腫

(해설) 이는 단순히 소양병(少陽病)을 말한 것이 아니라 태양(太陽) 중풍증(中風證)에 있는 증세를 말한 것이다. 외사(外邪)로 인한 수독(水毒)[담음(痰飲)]이 생겼을 때에 심하비경(心下痞硬)하고, 옆구리가 켕기고 아프며, 습찬 증세와 마른 기침을 하되 추운 기가 없을 때에 십조탕(十棗湯)을 쓴다. 즉 표증(表證)은 다 없어지고 이증(裏證)에 수독(水毒)만 남아 있는 것이다. 십조탕(十棗湯)은 이뇨작용(利尿作用)과 심한 사하작용(瀉下作用)을 하므로 수독(水毒)을 치는 데는 묘(妙)가 있으나 노인이나 허약한 자에게는 함부로 쓸 약이 못된다.

13. 상한(傷寒)에 표증(表證)이 풀리지 않았는데 하제(下劑)를 쓰게 되면 가슴에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답답하며 또 땀땀하다. 이는 결흉증(結胸證)이 된 것이니 대함흉탕(大陷胸湯)을 써야 한다.

傷寒表未解 醫反下之 膈內 拒痛 手不可近 心下 滿而硬痛 此爲結胸 宜大陷胸湯

[주(註)] ○격내거통(膈內拒痛):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것이다. 즉 담이 괴어 동통을 일으킨 것이다.

(해설) 상한병(傷寒病)에 맥(脈)이 부(浮)하고 박동이 빠르며, 두통·발열이 있고, 약간의 도한(盜汗)이 있으면서 도리어 오한(惡寒)이 있으면 표증(表證)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다. 이럴 때에 잘못 하제(下劑)를 쓰면 맥박수가 느려지고 가슴이 손을 대지 못하게 아프며 숨이 가쁘고 변조증이 생기며 마음이 우울해진다. 따라서 명치가 땀땀해지면 이는 결흉(結胸)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대함흉탕(大陷胸湯)을 쓴다. 이는 태양병(太陽病)과 소양병(少陽病)

이 겹친 증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합병병(合併病)은 치료를 잘못함으로써 초래되는 것이다.

14. 조갈이 나서 물을 마시고자 하되 마시면 즉시 토하게 됨을 수역증(水逆證)이라 하며, 여기에는 우령산(又苓散)을 주로 쓴다.

渴欲飲水入即吐 名曰水逆 五苓散 主之

(해설) 이는 태양(太陽) 중풍(中風)에 있어서 발열 6, 7일에 병이 풀리지 않고 소탕병(少湯病)으로 전변한 것이다. 즉 표증(表證)에 이증(裏證)이 겸한 것이니 만일 표증(表證)만 있으면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되지만 이증(裏證)이 겸하였으면 오령산(五苓散)을 써야 한다. 이는 조(煩)하고 구갈(口渴)·구토(嘔吐)가 있기 때문이다.

15. 두임(杜壬)이 말하기를 “이증(裏證)이 아직 풀리지 않음은 담(痰)과 조(燥)한 기운이 중초(中焦)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통이 나고 헛구역을 하며 땀이 나는 것은 담(痰)이 막힌 것이니 십조탕(十棗湯)을 쓰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는다.”

杜壬 曰裏未和者 蓋痰與燥氣壅於中焦 故頭痛乾嘔 汗出痰隔也 非十棗湯 不治

[주(註)] ○두임(杜壬): 어느 때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 대문은 『의학강목(醫學綱目)』에 나온 것을 인용한 것이다.

(해설) 십조탕증(十棗湯證)은 물이 흉협(胸脅)에 맺혀 있어서 심하(心下)가 비경(痞硬)하고 옆구리가 결리는 데 응용한다. 결흉증(結胸證)과 비슷하나 증세를 잘 가려서 써야 한다. 십조탕(十棗湯)은 완화(莞花)·감수(甘遂)·대극(大戟)의 삼미(三昧)로서 대(大) 극약이다.

16. 공신(龔信)이 말하기를 “명치가 탄탄하고 아파서 손을 가까이 대지 못하고, 조갈증이 있고 헛소리를 하며, 또 변비가 심하고 맥(脈)이 침(沈)·실(實)·유력(有力)함은 대결흉(大結胸)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대함흉탕(大陷胸湯)으로 사하(瀉下)를 시켜야 하되 도리어 번조증(煩燥證)이 더하게 되면 죽는다. 소결흉(小結胸)은 바로 명치 밑 복판에 있으니 누르면 아프다. 소함흉탕(小陷胸湯)을 써야 한다.”

龔信 曰心下硬痛 手不可近 燥渴譫語大便實 脈沈實有力 爲大結胸 大陷胸湯下之 反加煩燥者 死 小結胸 正在心下 按之則痛 宜小陷胸湯

(해설) 처음 병이 양(陽)으로 시작된 것을 약을 잘못 써서 설사를 시킴으로써 열이 가슴으로 몰려서 결흉(結胸)이 되는 것이다. 상한(傷寒) 5, 6일에 구역이 나고 발열(發熱)이 있을 때에 소시호탕(小柴胡湯) 같은 약을 쓸 것을 잘못 하제(下劑)를 써서 설사를 시킨즉 심하(心下)가 경만(硬滿)하고 아프다. 이를 결흉(結胸)이라 하며 맥(脈)이 부대(浮大)하면 절대 하제(下劑)를 써서는 안 된다. 만일 잘못 하제(下劑)를 쓰면 죽는다. 또 결흉증(結胸證)에 번조(煩燥)가 있어도 죽는다. 처음 사기(邪氣)가 표(表)에 있을 때에 땀을 내야 할 것을 잘못 하제(下劑)를 써서 속에 있는 정기(正氣)가 아래로 떨어져 사열(邪熱)이 허(虛)를 타고 심하(心下)로 몰리게 된다. 따라서 심하경만(心下硬滿)이 되고 단기(短氣)·번조(煩燥)·심하오뇌(心下懊惱) 등 많은 증세가 속출한다. 이를 대결흉(大結胸)이라 하며 축수(蓄水)를 칠 목적으로 대함흉탕(大陷胸湯)을 쓴다.

그러나 심하결경(心下結硬)하고 단기천민(短氣喘悶)하며 맥(脈)이 부활(浮滑)하면 소결흉(小結胸)이다. 이는 위중(胃中)이 불화(不和)하여 담(痰)이 맺힌 것이니, 소함흉탕(小陷胸湯)을 쓴다.

17.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위의 장중경(張仲景)이 말한 세 가지 증세는 모두 결흉병(結胸病)을 말한 것이다. 가슴이 막히고 아파서 손

을 대지 못할 지경이며 조갈이 심하고 헛소리를 하는 것은 결흉병(結胸病)의 가장 심한 증세이다. 물을 마시면 즉시 토하고 명치 밑이 답답하고 또 땀만하며 헛구역을 하고 숨이 찬 것은 다음으로 심한 증세다. 무릇 결흉병(結胸病)은 약이나 물을 마시면 즉시 토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 감수말(甘遂末)을 입에 넣고 침으로 녹여서 넘기고 더운물로 양치를 한 뒤에 약물을 마시면 토하지 않는다. 일찍이 결흉병(結胸病)을 치료해 본 경험이 있다. 감수말(甘遂末)을 따뜻한 물에 풀어서 먹이니 다섯 번이나 토하다가 여섯 번째에 토하지 않고서 한 차례 설사를 했다. 이튿날 또 물을 먹인즉 즉시 토하므로 감수말(甘遂末)을 먹였더니 설사를 한차례 하고 병이 나았다. 무릇 결흉병(結胸病)은 음증(陰證)이 아닌 것은 아니나 먼저 감수(甘遂)를 먹여야 하고 곧 형방도적산(荊防導赤散)을 달여 먹여서 병을 눌러야 한다. 헛구역과 숨찬 증세가 있을지라도 토하는 증세가 없으면 굳이 감수(甘遂)를 쓸 필요는 없고, 형방(荊防) 도적산(導赤散)에 복령(茯苓) 택석(澤瀉)를 각 3.75g씩 가해서 두 첩이나 세 첩을 연일복(連日服)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병에 조갈(燥渴)이 있고 헛소리를 하면 더욱 위험한 증세이니 이럴 때는 급히 감수(甘遂)를 쓰고 이어서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 3, 4첩으로 눌러놓고 또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을 연일복(連日服)해야 한다.”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상한(傷寒) 표증(表證)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도리어 설사 운운한 것은 대승기탕(大承氣湯)을 말한 것이요, 십조탕(十棗湯)이나 함흉탕(陷胸湯)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십조탕(十棗湯)과 함흉탕(陷胸湯)이 다만 감수단방(甘遂單方)을 쓰는 것보다 못하며, 혹(或) 감수천일환(甘遂天一丸)을 쓸 수도 있다. 결흉

병(結胸病)에 감수(甘遂)를 쓸 경우 보통은 1.13g이요, 대결흉(大結胸)의 경우는 1.88g이면 된다.”

공신(龔信)이 말하기를 “조갈(燥渴)이 있고 헛소리를 하며 번조(煩燥)하여 죽을 지경에 이를 지라도 십조탕(十棗湯)으로 설사를 시킨 뒤에 섬어증(譫語證)을 다스리고 이어서 백호탕(白虎湯)을 쓰면 비록 번조증(煩躁證)이 심한 자라도 낫지 않을 리 없다.”

論曰右張仲景所論三證 皆結胸病 而膈內拒痛 手不可近 燥渴譫語者 結胸之最尤甚證也 飲水水入即吐 心下痞硬滿 乾嘔短氣者 次證也 凡結胸病 皆藥湯入口 輒還吐 惟甘遂末 入口 口涎含下 因以溫水 嗽口而下則藥不還吐 嘗治結胸 用甘遂散溫水調下 五次輒還吐 至六次 不還吐而下利一度 其翌日又水還吐 又用甘遂 一次快通利而病愈 凡結胸無非險證 當先用甘遂 仍煎荊防導赤散以壓之 乾嘔短氣而藥不還吐者 不用甘遂 但用荊防導赤散 加茯苓澤瀉各一錢 二三服又連日服而亦病愈 燥渴譫語者 尤極險證也 急用甘遂仍煎地黃白虎湯三四貼以壓之 又連日服地黃白虎湯 張仲景 曰傷寒表未解 醫反下之云者 以大承氣湯下之之謂也 非十棗陷胸下之之謂也 然 十棗陷胸不如單用甘遂 或用甘遂天一丸 結胸 甘遂末 例用三分 大結胸用五分 龔信所論燥渴譫語煩燥死者 若十棗湯下後 因以譫語證 治之 連用白虎湯則煩燥者 必無不治之理

18. 감수(甘遂)는 표한병(表寒病)에 수결흉(水結胸)을 치는 약이요, 석고(石膏)는 이열병(裏熱病)에 대경(大便)을 통하게 하는 약이다. 그러므로 표병(表病)에는 반드시 감수를 써야 하고 석고를 써서는 안 되며, 이병(裏病)에는 석고를 써야 하고 감수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손을 내젓고 발을 내던지며 물을 들이켜고 설사를 하면 석고를 쓰고, 풍(風)으로 팔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시리면 감수를 써야 한다.

甘遂 表寒病 破水結之藥也 石膏 裏熱病 通大便之藥也 表病 可用甘遂  
而不可用石膏 裏病 可用石膏而不可用甘遂 然 揚手擲足引飲泄瀉證 用  
石膏 痺風膝寒大便不通證 用甘遂

19. 소음인(少陰人) 상한병(傷寒病)에 아랫배가 단단한 증세가 있고,  
소양인(少陽人) 상한병(傷寒病)에 명치 밑에 결흉증(結胸證)이 있다. 이  
두 가지 증세는 다 같이 표기음양(表氣陰陽)이 허약하여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서로 다투어 여러 날을 끌어오는 중 이기(裏氣)가 또한  
비삽(秘澁)하여 고르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증세로 변한 것이다.

少陰人傷寒病 有小腹硬滿之證 少陽人傷寒病 有心下結胸之證 此二證俱  
是表氣陰陽 虛弱 正邪相爭 累日不決之中 裏氣 亦秘澁不和而變生此證也

20. 이자건(李子建) 『상한십권론(傷寒十勸論)』에 “상한(傷寒)으로 온  
복통에는 열로 된 것도 있으니 함부로 온난(溫煖)한 약을 써서는 안  
된다. 또 상한(傷寒)으로 온 설사에도 음증(陰證)인지 양증(陽證)인지  
를 잘 알아서 쓰고 예사로이 온난(溫煖)한 약과 하제(下劑)를 써서는  
안 된다.”

李子建傷寒十勸論 曰傷寒腹痛 亦有熱證 不可輕服溫煖藥 又曰傷寒自利  
當觀陰陽證不可例服溫煖及止瀉藥

21. 주진형(朱震亨)이 말하기를 “상한(傷寒) 양증(陽證)에 몸이 덥고  
맥(脈)이 빠르며 조갈이 있어 물을 찾고 설사를 하게 되면 시령탕(柴  
苓湯)을 쓰라.”

朱震亨 曰傷寒陽證 身熱脈數 煩渴引飲大便自利 宜柴苓湯

(해설) 시령탕(柴苓湯)은 대개 양명학(陽明瘡)에 쓰는 약이다.

22. 반용산(盤龍山) 노인은 이렇게 말한다. “소양인(少陽人)이 몸이 뜨겁고 두통·설사가 있으면 저령차전자탕(猪苓車前子湯)·형방사백산(荊防瀉白散)을 써야 하고, 몸이 차고 복통·설사가 있으면, 활석고삼탕(滑石苦蓼湯)·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을 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증세를 망음병(亡陰病)이라 한다.”

盤龍山老人 論曰少陽人身熱頭痛泄瀉 當用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腹痛泄瀉 當用滑石苦蓼湯 荊防地黃湯 此病 名謂之亡陰病

[주(註)] 반용산(盤龍山): 함흥(咸興) 시내(市內)에 있는 작은 산이다. 마치 서울의 남산과 같아 시가지를 관망하기 좋다. 반룡산 노인(盤龍山老人)은 함흥 태생인 저자의 자호(自號)다.

23. 소양인(少陽人)이 신열(身熱)과 두통(頭痛)·설사가 있다가 무단히 하루나 이틀 또는 3, 4일 후에 설사가 까닭 없이 멎고 신열(身熱)·두통(頭痛)이 낫지 않으며, 도리어 변비가 생기면 이는 위험한 증세이니 머지않아 헛소리를 할 것이다.

少陽人 身熱頭痛泄瀉 一二日或三四日而泄瀉 無故自止 身熱頭痛 不愈 大便反秘者 此 危證也 距譚語 不遠

24. 설사를 한 뒤에 일주야간 간신히 대변을 한 번 보고 이어 3~5차 조금씩 활변(滑便)을 보다가 열과 두통이 그대로 있으면 변비



가 될 징조다. 헛소리를 하기 전에 이런 증세가 있으즉 며칠 사이에 헛소리를 할 것이요, 섬어(讖語)가 있는 후에 이 증세가 생긴즉 반드시 금방 풍(風)이 동할 것이다.

泄瀉後 大便 一晝夜間艱辛一次滑利 或三四五次小小滑利 身熱頭痛 因  
存者此便秘之兆也 讖語前 有此證則讖語 當在數日 讖語後 有此證則動  
風 必在咫尺

25. 소양인(少陽人)이 돌연히 토하는 증세가 있으면 반드시 기증(奇證)이 생길 것이다. 속히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을 써야 하고, 동정을 살펴서 신열(身熱)·두통(頭痛)·설사가 있으면 의심의 여지없이 석고(石膏)를 써야 하고, 만일 몸이 차고 두통·설사가 있으면 의심의 여지없이 황련(黃連)·고삼(苦參)을 써야 한다.

少陽人 忽然有吐者 必生奇證也 當用荊防敗毒散 以觀動靜而身熱頭痛泄  
瀉者 用石膏 無疑 身寒頭痛泄瀉者 用黃連苦參 無疑

26. 일찍이 돌이 채 못 된 소양인(少陽人) 아기가 갑자기 구토를 하다가 설사를 하며 몸이 불같이 뜨겁고 두통이 있으며 손을 휘저으며 발을 내던지고 몸을 굴리며 물을 찾고 설사를 대여섯 번 계속했는데, 형방사백산(荊防瀉白散)을 하루에 세 첵씩 이틀 동안에 여섯 첵을 먹인 연후에야 설사가 멎고 신열(身熱)·두통(頭痛)도 깨끗이 없어진 것을 보았다. 그 후 5, 6첩을 더 먹여 안정시키었다.

嘗見少陽人兒 生未一周年 忽先一吐而後泄瀉 身熱頭痛 揚手擲足 轉輾

其身 引飲泄瀉四五六次無度數者 用荊防瀉白散日三貼 兩日六貼然後 泄瀉方止 身熱頭痛 清淨 又五六貼而安

27. 소양인(少陽人)이 신열(身熱)·두통(頭痛)이 있고 손을 휘저으며 발을 내던지고 물을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한 증세다. 비록 설사를 할 지라도 석고(石膏)를 써야 하며, 설사가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형방사백산(荊防瀉白散)에 황련(黃連)·과루인(瓜蒌仁)을 각 3.75g씩 가(加)하여 쓰거나 혹은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을 써야 한다.

少陽人 身熱頭痛 揚手擲足引飲者 此險證也 雖泄瀉 必用石膏 無論泄瀉 有無當用荊防瀉白散 加黃連瓜蒌各一錢 或地黃白虎湯

28. 무릇 소양인(少陽人)은 신열(身熱)·두병(頭病)이 있으면 이미 경증이 아니다. 반드시 형방사백산(荊防瀉白散)을 하루에 두 첩 내지 세 첩, 또는 연일복(連日服)하여 신열(身熱)·두통(頭痛)이 깨끗이 없어져야 비로소 위험을 면할 수 있다.

凡少陽人 有身熱頭痛則已非輕證而兼有泄瀉則危險證也 必用荊防瀉白散 日二三服又連日服 身熱頭痛 清淨然後 可免危險

29. 소양인(少陽人)이 몸이 차고 배가 아프며 설사를 하되 일주야에 4~5차 하는 자는 활석고삼탕(滑石苦參湯)을 써야 하고, 몸이 차고 배가 아프며 2, 3주야간 설사가 없거나 혹 한차례 설사를 하는 자는 활석고삼탕(滑石苦參湯)을 쓰거나 혹은 숙지황고삼탕(熟地黃苦參湯)을 쓰기도 한다.

少陽人 身寒腹痛泄瀉 一晝夜間 三四五次者 當用滑石苦蔘湯 身寒腹痛 二  
三晝夜間無泄瀉 或艱辛一次泄瀉者 當用滑石苦蔘湯 或用熟地黃苦蔘湯

30. 일찍이 소양인(少陽人)이 복통(腹痛)으로 항상 고생하다가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60첩을 쓰니 병이 나았다. 또 소양인이 십여 년 복통으로 고생하는데 한 번 아픈 기가 일어나면 5, 6개월 혹은 3, 4개월이요, 보통은 1, 2개월씩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항상 복통이 일어날 때마다 골석고삼탕(滑石苦蔘湯)을 십여 첩씩 쓰고 통증이 없을 때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애심(哀心)과 노심(怒心)을 경계하였다. 이렇게 한 일 년 동안을 근근이 끌어오다가 완전히 낫는 것을 보았다.

또 소양인(少陽人) 소년이 항상 체증으로 속이 답답하고 때때로 배가 아프며 허리도 아프다가 나중에는 가벼운 구안과사(口眼喎斜) 초증(初證)이 생겼는데, 백 일 동안에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 200여 첩을 썼고 한편으로는 마음을 편히 가지며 애심(哀心)과 노심(怒心)을 경계하니 백 일 만에 병이 완쾌되었다.

嘗見少陽人恒有腹痛患者 用六味地黃湯六十貼而病愈 又見少陽人 十餘年腹痛患 若苦一次起痛則或五六個月或三四個月一二個月叫苦者 每起痛臨時急用滑石苦蔘湯十餘貼 不痛時 平心靜慮恒戒哀心怒心 如此延拖一周年而病愈 又見少陽人少年兒 恒有滯證痞滿 間有腹痛腰痛 又有口眼喎斜初證者 用獨活地黃湯 一百日內二百貼服 使之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 一百日而身健病愈

31. 옛날 의사의 말에 “찬 머리 아픈 일이 없고, 더운 배 아픈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 말은 옳지 않은 줄 안다. 왜냐하면 소음인

(少陰人)은 본래 냉(冷)이 승(勝)한 자인즉 두통(頭痛)도 열로 온 것이 아니라 냉(冷)으로 온 것이요, 소양인(少陽人)은 본래 열(熱)이 승(勝)한 자인즉 복통(腹痛)도 냉(冷)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열로 온 것이다.

또 옛날 의사의 말에 “땀을 많이 흘리면 망양증(亡陽證)이 되고, 설사를 심히 하면 망양증(亡陽證)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진실로 옳다. 왜냐하면 소음인(少陰人)이 비록 냉(冷)이 승(勝)하나 ‘음성격양(陰盛格陽)’이 되어 패양(敗陽)이 밖으로 쫓기면 번열(煩熱)이 나면서 땀을 많이 흘리므로 이를 일러 망양(亡陽)이라 하고, 또 소양인(少陽人)이 비록 열(熱)이 승(勝)하지만 ‘양성격음(陽盛格陰)’이 되어 패음(敗陰)이 안으로 쫓기어 외한(畏寒)하면서 설사를 하게 되므로 이를 일러 망음병(亡陰病)이라 한다. 망양(亡陽)·망음(亡陰)은 다 같이 약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또한 급히 다스리지 않아도 죽는다.

古醫 有言頭無冷痛 腹無熱痛 此言 非也 何謂然耶 少陰人 元來冷勝則其頭痛 亦自非熱痛而卽冷痛也 少陽人 元來熱勝則其腹痛 亦自非冷痛而卽熱痛也 古醫 又言汗多亡陽 下多亡陰 此言 是也 何謂然耶 少陰人 雖則冷勝 然陰盛格陽 敗陽外遁則煩熱 而汗多也 此之謂亡陽病也 少陽人 雖則熱勝 然陽盛格陰 敗陰內遁則畏寒而泄下也 此之謂亡陰病也 亡陽亡陰病 非用藥 必死也 不急治 必死也

32. 망양(亡陽)이란 양(陽)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아래로 내려오면 망양(亡陽)이 되는 것이요, 망음(亡陰)이란 음(陰)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도리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망음(亡陰)이 되는 것이다. 위로 ‘음성격양(陰盛格陽)’이 되면 양(陽)이 음(陰)에게 억눌리게 되어 흉격(胸膈)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의 대장(大腸)으로 내려와

방광(膀胱) 밖으로 외통(外通)하는 까닭에 배표(背表)에 번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것은 양(陽)이 성한 것이 아니라 소위 ‘내빙외탄(內氷外炭)’  
 이 된 것이니 장차 양(陽)이 없어질 징조다.

아래로 ‘양성격음(陽盛格陰)’이 되어 음(陰)이 장(陽)에게 가로막혀  
 서 아래의 방광(膀胱)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위로 배려(背脊)로 거슬러  
 올라가 흉격(胸膈) 안으로 내통(內通)하는 까닭에 위(胃)와 장(腸)이 외  
 한(畏寒)이 되어 설사를 한다. 외한(畏寒)으로 설사를 하는 것은 음(陰)  
 이 성해서가 아니라 소위 ‘내탄외빙(內炭外氷)’이 된 것이니 장차 음  
 (陰)이 없어지는 징조다.

亡陽者 陽不上升而反爲不降則亡陽也 亡陰者 陰不下降而反爲上升則亡  
 陰也 陰盛格陽於上則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而外通膀胱故  
 背表煩熱而汗出也 煩熱而汗出者 非陽盛也 此所謂內氷外炭 陽將亡之兆  
 也 陽盛格陰於下則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脊而內通膈裏故 腸  
 胃畏寒而泄下也 畏寒而泄下者 非陰盛也 此所謂內炭外氷 陰將亡之兆也

33. 소음인병(少陰人病)이 첫날에 땀이 나고 양기(陽氣)가 위로 올  
 라가서 인중혈(人中穴)에 먼저 땀이 난즉 병이 풀려야 할 터인데, 이  
 틀 사흘이 되는데도 땀이 그치지 않고 병이 낫지 않으면 양(陽)은 위  
 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양(陽)만 도망치는 망양(亡陽)임에 틀림없다.  
 소양인병(少陽人病)이 첫날에 설사를 하고 음기(陰氣)가 아래로 내려  
 가서 손바닥·발바닥에 먼저 땀이 난즉 병이 풀려야 할 터인데, 이  
 틀 사흘이 되어도 설사가 그치지 않고 병이 낫지 않으면 음기(陰氣)  
 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음(陰)만 도망치는 망음(亡陰)임에 틀림  
 없다. 무릇 망양(亡陽)·망음증(亡陰證)은 의학의 이치를 아는 자라면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증세를 알아낼 수 있을 것ियो, 병이 난 지 2, 3일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사흘이 지나면 아무리 우둔한 자라도 증세를 알아내기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듯 쉬울 것이다. 약은 반드시 2, 3일 안에 써야 하고, 만일 나흘이 지나게 되면 때는 이미 늦으며, 닷새가 지나면 위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少陰人病 一日發汗 陽氣上升 人中穴 先汗則病必愈也而二日三日汗不止 病不愈則陽不上升而亡陽 無疑也 少陽人病 一日滑利 陰氣下降 手足掌心 先汗則病必愈也而 二日三日泄不止病不愈 則陰不下降而亡陰 無疑也 凡亡陽亡陰證 明知醫理者 得病前 可以預執證也 得病一二日 明白易見也 至于三日則雖愚者 執證 亦明若觀火矣 用藥 必無過二三日矣 四日則晚矣 五日則臨危也

34. 소음인(少陰人)이 평상시에 속이 답답하고 땀이 많은 자가 병이 생기면 반드시 망양증(亡陽證)이 되고 소양인(少陽人)이 평상시에 몸이 차고 설사를 하던 자가 병이 생기면 반드시 망음증(亡陰證)이 된다. 망양(亡陽)·망음증(亡陰證)의 염려가 있는 자는 평상시에 미리 보음(補陰)·보양(補陽)하는 약을 쓰는 것이 좋고, 망음(亡陰)·망양증(亡陽證)이 생겨 위험상태에 이른 연후에 비로소 병을 구하고자 해서 는 안 될 것이다.

少陰人 平居 裏煩汗多者 得病則必成亡陽也 少陽人 平居 表寒下多者 得病則必成亡陰也 亡陽亡陰人 平居 預治補陰補陽 可也 不可至於亡陽亡陰 得病臨危然後 救病也

35. 소음인(少陰人)의 병이 낫고자 할 때는 먼저 인중(人中)에서 한

차례 땀이 나면 흉격(胸膈)이 장쾌(壯快)하고 활발하나 망양증(亡陽證)의 땀은 인중(人中)에서 혹 땀이 나다 말다 하며 여러 차례 발한(發汗)이 있다가 가슴이 답답하면서 기운이 가라앉아 버린다. 소양인(少陽人)의 병이 낫고자 할 때는 손바닥·발바닥에서 먼저 땀이 나고 한 번 설사를 한 후에 몸이 편안하고 정신이 상쾌해지며, 망양증(亡陰證) 설사는 손발바닥에서 땀이 나지 않고 여러 번 설사를 하되 표기(表氣)에 추위가 들면서 정신이 아득하고 캄캄해진다.

少陰人 病愈之汗 人中 先汗而一次發汗 胸膈 壯快而活潑 亡陽之汗 人中 或汗或不汗 屢次發汗 胸膈悶燥而下陷也 少陽人病愈之泄 手足掌心 先汗而一次滑泄表氣 清寧而精神 爽明 亡陰之泄 手足掌心 不汗 屢次泄利 表氣溯寒而 精神鬱冒

36. 소음인(少陰人)의 위가실(胃家實)과 소양인(少陽人)의 결흉병(結胸病)은 정기(正氣)와 사기(邪氣), 음(陰)과 양(陽)이 서로 적대하면서 싸우므로 여러 날 후에 위증(危證)이 비로소 보이고, 소음인의 망양증(亡陽證)과 소양인의 망음증(亡陰證)은 정기와 사기, 음과 양이 적대되지 않았는데도 서로 싸우므로 처음부터 이미 험증(險證)이 되었다가 그로 인하여 위증(危證)이 되는 것이다. 비유컨대 군사가 적과 싸울 때에 첫날 교전에서 정병(正兵)이 사병(邪兵)에게 패하여 정병(正兵)의 수가 얼마만큼 줄고 이튿날 싸우다가 또 패하여 얼마만큼의 병력(兵力)을 잃고 사흘 되는 날에 전세를 살펴본즉 싸울수록 더 패할 것이요 병력은 더 꺾일 것이니 만일 4일째 다시 싸우고 5일째 때에 다시 싸우면 전 병력이 완전히 전멸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약을 쓰되 반드시 사흘을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少陰人 胃家實病 少陽人 結胸病 正邪陰陽 相敵而相格故 日久而後 危證始見也 少陰人 亡陽病 少陽人 亡陰病 正邪陰陽不敵而相格故 初證已爲險證繼而因爲危證矣 譬如用兵 合戰交鋒 初一日合戰正兵 爲邪兵所敗 折正兵幾許兵數 二日 又戰又敗 又折幾許數 三日又戰又敗 又折幾許數 以三日交鋒觀之則 將愈益戰而 愈益敗 愈益折矣 若四日復戰 五日復戰 則 正兵之全軍覆沒 可知矣 所以用藥 必無過三日也

37. 반룡산(盤龍山) 노인이라고 함은 내가[李翁] 살고 있는 곳에 반룡산이 있으므로 나 스스로 반룡산 노인이라 한 것이다. 이 책 중에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함은 모두 반룡산 노인의 말이며, 이 장에서 특히 반룡산 노인이라고 한 뜻은 본래 망양증(亡陽證)과 망음증(亡陰證)은 가장 위험한 병인데 사람들이 심상하게 생각하고 예사롭게 다스리기 때문에 따로 반룡산 노인이라 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盤龍山老人者 李翁所居地 有盤龍山故 李翁 自謂盤龍山老人也 此書中論曰二字 無非盤龍山老人之論而 此章 特舉盤龍山老人者 蓋亡陽亡陰最是險病而人必尋常視之 易於例治故 別以盤龍山老人 提舉驚呼而警覺之也

38. 망음증(亡陰證)은 옛 의사들이 경험하고 약을 썼다는 말이 별로 없고, 오직 이자건(李子建)·주진형(朱震亨)이 쓴 책 중에서 약간 언급하였으나 명확한 경험은 없다. 대개 이 병은 예로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맹랑하게도 신속한 까닭에 이를 경험하여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亡陰證 古醫 別無經驗用藥頭話而 李子建 朱震亨書中 若干論及之 然自



無明的快驗 蓋此病 從古以來 殺人 孟浪甚遠 未暇經驗獲得裏許故也

39.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태양병(太陽病)이 풀리지 않고 소양병(少陽病)으로 전입되면 늑골 밑이 뻣뻣하고 헛구역이 나며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자 중에서 아직 토하거나 사(瀉)하지 않았는데도 맥(脈)이 침긴(沈緊)한 자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쓰면 되지만, 만일 이미 토하고 사(瀉)하여 땀이 나고 헛소리를 하면 시호제(柴胡劑)를 쓸 증(證)은 없어졌고 괴병(壞病)이 된 것이니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張仲景曰 太陽病 不解 轉入少陽者 脅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者 尚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若已吐下 發汗譫語 柴胡證證罷 此爲壞病 依壞法治之

[주(註)] ○괴증(壞證): 육경병증(六經病證)의 정증(正證)이 무너진 것이다.

(해설) 태양병(太陽病)이 풀리지 않고 소양병(少陽病)으로 전입되어 협하(脇下)가 뻣뻣하고 구역이 나서 음식을 먹지 못하며, 한열(寒熱)이 있다 없다 하고, 아직 토(吐)하거나 사(瀉)하지 않았는데도 맥(脈)이 침긴(沈緊)하면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만일 이미 토(吐)하고 사(瀉)하며 발한(發汗)을 하였는데도 헛소리를 하면 시호(柴胡)를 쓰는 증(證)은 없어진 것이니 정증(正證)이 깨진 것이다. 이를 괴증(壞證)이라 하는 것이니 괴증(壞證)치료를 해야 한다.

40. 상한(傷寒)에 맥(脈)이 현(弦)·세(細)하고, 두통(頭痛)·발열(發熱)이 있으면 소양경(少陽經)에 속한 병이다. 절대로 땀을 내어서는 안 되고, 만일 땀을 내게 되면 반드시 헛소리를 한다.

傷寒 脈弦細 頭痛發熱者 屬少陽 不可發汗 發汗則譫語

(해설) 현(弦)·세(細)는 소양병(少陽病)의 맥(脈)이요 두통(頭痛)·발열(發熱)은 태양병(太陽病)의 증후다. 그러므로 태양병에서 소양병으로 전속됨을 알 수 있다. 절대로 땀 내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되고, 만일 발한을 시키면 헛소리를 하게 된다. 여기서 헛소리를 한다 함은 병이 이(裏)로 들어가서 양명병(陽明病)으로 전변된 것이니 위(胃)를 고르게 다스리면 치료가 된다.

41. 일찍이 소양인(少陽人) 상한병(傷寒病)에 발광을 하고 헛소리를 하는 환자를 치료한 일이 있다. 때는 을해년(乙亥年) 4월이었다. 소양인 한 사람이 상한(傷寒)에 한기(寒氣)가 심하고 열이 적은 병을 얻었는데, 4, 5일이 지난 후 오후(2, 3시)에는 숨이 가쁘고 기운이 빠진다. 이때에 경험이 없어서 단지 소양인 약으로는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이 가장 좋은 줄만 알았을 뿐 다른 약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육미탕(六味湯) 한 첩을 달여 먹이니 숨찬 증세가 멎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다시 발광을 하며 헛소리를 하고 숨찬 증세가 나타났다. 다시 육미탕(六味湯) 한 첩을 달여 먹이니 숨찬 증세는 비록 약간 가졌으나 전과 같이 진정되지는 않았다. 연 사흘간을 발광증이 계속하더니 하루는 오후에 숨찬 기가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또 육미탕(六味湯)을 썼다. 그러나 숨찬 기는 조금도 덜리지 않고 잠깐 동안에 혀가 굳고 풍이 동하여 이를 악물고 말을 못 한다. 그제서야 육미탕(六味湯)이 무력한 것을 알고 급히 백호탕(白虎湯) 한 첩을 달여서 대통으로 환자의 코 속으로 넣어 목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니 혀가 굳고 이를 악문 것은 풀리지 않으나 배 속에서 꾸룩꾸룩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렸다. 풍로 둘로 한꺼번에 약을 달여 코 속으로 서

너 침을 넣은 후에야 배 속에서 크게 소리가 나고 방귀가 터져 나왔다. 세 사람이 환자를 부축하고 계속 약을 넣어 주니 환자는 더욱 힘이 세져서 세 사람이 부축하는 힘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코 속으로 약을 흘려 넣기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하였는데, 그동안 석고(石膏)를 먹인 것이 반 근이나 되었다. 나중에는 배가 크게 창만하고 목이 뻣뻣해지더니 얼마 후에 땀이 축축히 나고 잠이 들었다. 이튿날 새벽에 또 백호탕(白虎湯)을 먹었다. 해가 뜬 후 환자는 활변(滑便)을 한 차례 보더니 병이 꽤유되었다. 그 후에 눈병이 생겨 석고(石膏)·황백말(黃栢末) 각 3.75g을 하루에 두 번씩 7, 8일 계속 주었더니 눈병도 나았다. 이때는 대변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대변이 막힌 지 며칠이나 되었는지 살피지 못했으니 생각건대 이 환자는 처음 표한병(表寒病)을 얻은 후에 대변이 막히자 이 증세가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嘗治少陽人傷寒發狂譫語證 時則乙亥年清明節候也 少陽人一人 得傷寒寒多熱少之病 四五日後午未辰刻 喘促短氣 伊時 經驗未熟 但知少陽人應用藥六味湯最好之理故 不敢用他藥而祇用六味湯一貼 病人喘促 即時頓定 又數日後 病人 發狂譫語 喘促又發 又用六味湯一貼則喘促 雖少定而不如前日之頓定矣 病人 發狂連三日 午後喘促 又發 又用六味湯 喘促略不少定 有頃舌卷動風 口噤不語 於是而始知六味湯之無能爲也 急煎白虎湯一貼 以竹管吹入病人鼻中下咽而察其動靜則舌卷口噤之證 不解而病人腹中 微鳴 仍以兩爐煎藥荏苒灌鼻 數三貼後 病人腹中 大鳴 放氣出焉 三人 扶持病人 竹管吹鼻灌藥 而病人氣力 益屈強 三人扶持之力 幾不能支當矣 又荏苒灌鼻 自未申時 至亥子時 凡用石膏八兩 未境病人腹中 大脹 角弓反張之證出焉 角弓反張後少頃 得汗而睡 翌日平明 病人又服白虎湯一貼 日出後 滑便一次而病快愈愈後 有眼病 用石膏黃栢末各一錢日再服 七八日後 眼病 亦愈 伊時 未知大便驗法故 不察大便之秘閉幾日然想必此病人 先自表寒病 得病後有大便秘閉而發此證矣

42. 그 후에 또 소양인(少陽人) 한 사람이 상한(傷寒)에 열이 많고 추운 기가 별로 없는 병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이 꿩고기탕을 먹으라 하여 이를 고아 먹었더니 이내 양독(陽毒)으로 발반증(發斑證)이 생겼다. 나는 백호탕(白虎湯) 세 첩을 주고 계속 달여 먹이도록 하였으나 그 환자는 겨우 반 첩만 먹었다. 며칠 후에 환자는 헛소리를 하면서 병세가 매우 중태에 이르니 환자의 집에서는 놀라 급히 와달라고 하므로 달려가 보았더니 환자는 걸보기에 이미 혼수상태에 빠졌고 풍이 동할 기미가 보였다. 귀가 먹고 헛소리를 하며 혀에 태(苔)가 하얗게 끼어 있다. 돌아와서 약봉지를 찾아보니 마침 석고(石膏) 600g과 골석(滑石) 37.50g뿐이고 다른 약은 없어서 급히 석고(石膏) 37.50g과 활석(滑石) 3.75g을 달여 단번에 먹이고 다음 날도 같은 양을 먹였더니 병자가 이를 동안에 대변을 못 본 지 하루밖에 안 되며, 사흘이 되는 날은 환자의 집에서 석고(石膏)를 과하게 쓰는 것을 꺼리는 까닭에 석고(石膏)를 쓰지 않았더니 나흘째 되는 날은 병자의 집에서 또 달려왔으므로 가서 보니 병자가 대변을 못 본 지가 거의 이를 밤 하루 낮이 되고, 말소리는 분명치 않으며, 이를 악물고 물도 마시지 못한다. 급히 석고(石膏) 75.00g을 달여서 간신히 입을 벌리고 먹였더니 반은 토해버리고 반은 흘러 들어갔다. 조금 후에 턱은 움직이나 말소리가 불분명한 것은 여전하다. 계속해서 석고(石膏) 37.50g을 써주고 이튿날 오후에 풍이 동하여 약을 넘기지 못할 염려가 있는 까닭에 오전에 미리 약을 써서 동풍(動風)에 예비하였다. 이렇게 5, 6일을 먹이니 병을 전후하여 쓴 석고(石膏)는 525.00g이나 되었다. 나중 며칠 동안은 발광을 하고 점차 말소리가 웅장하더니 병이 나았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 비로소 집안 뜰로 나올 수 있었다.

其後 又有少陽人一人 得傷寒熱多寒少之病 有人教服雉肉湯 仍成陽毒發斑余教服白虎湯連三貼 而其人 只服半貼 數日後譫語而病重 病家慙急顛倒往觀 則病人外證 昏愢 已有動風之漸 而耳聾譫語 舌上白苔 藥囊祇有石膏一斤滑石一兩而無他藥故 急煎石膏一兩滑石一錢頓服 而其翌日又服石膏一兩滑石一錢 此兩日則大便 皆不過一晝夜 至于第三日 病家以過用石膏歸咎故 一日不用石膏矣 至于第四日 病家慙急顛倒往觀 則病人大便秘閉 兩夜一晝而語韻不分明 牙關緊急 水飲不入 急煎石膏二兩艱辛下咽而半吐下咽 少頃 牙關開而語韻則不分明如前 又連用石膏一兩其翌日則以午後動風藥不下咽之慮故 預爲午前用藥 以備動風 而又五六日用之 前後用石膏凡十四兩 而未境 發狂數日 語韻宏壯而病愈 數月然後 方出門庭

[주(註)] ○양독발반(陽毒發斑): 양독(陽毒)은 열독(熱毒)이란 말이며, 발반(發斑)은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것이다. 이 증세는 신열발한(辛熱發汗)하거나 혹 토하고 토(瀉)할 경우에 잘못 치료를 해서 열독이 장부 혈관에 침입하여 생기는 것이다. 상한(傷寒)에도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양독증(陽毒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증세는 얼굴에 마치 비단 무늬 같은 반점이 생기며, 심하면 혀가 굳고 꺼멥게 탄다. 목이 붓고 아프며 코속이 꺼멥게 타며 맥(脈)이 홍대(洪大)하고 빠르다. 양독증(陽毒證)은 심히 급하고 위험한 증세다.

43. 그 후에 또 소양인(少陽人) 한 사람이 처음 머리가 아프고 몸에 열이 나며 표한병(表寒病)을 얻은 지 8, 9일이 되었다. 그간에 황연(黃連)·과루인(瓜蒌仁)·강활(羌活)·방풍(防風) 등숙을 써서 약간의 경과는 좋았으나 완쾌되지 않더니 다시 발광증이 생겨 사흘이 되었다. 병가에서는 보통 병증세인 양 심상히 여기고 단지 황연(黃連)·과루인(瓜蒌仁) 등숙만을 써오다가 헛소리를 한 지 며칠이 지나서야 비로소 백호탕(白虎湯) 한 첩을 썼다. 이튿날 오후에 풍이 동하므로 급히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 세 첩을 연복(連服)시키어 구급하고자

간신히 약을 목으로 넘기었다. 그 이튿날에도 풍이 동할 것을 대비하여 백호탕(白虎湯)에 석고(石膏) 37.50g을 가해서 오전 중에 썼다. 연 사흘을 계속하니 병자가 혼자 일어나 앉기도 하고 또 능히 대소변을 볼 수 있었다. 병세가 매우 호전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병세가 조금 낫다가 더치더니 완쾌를 보지 못할까 걱정하던 차에 이 사람은 필경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서 한이 되는 것은 풍이 동할 것만 대비하여 겨우 오전에 백호탕(白虎湯) 두 첵을 썼을 뿐 오후에는 한 첵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 이 세 사람의 병을 가지고 관찰해 본다면 발광(發狂)·섬어증(譫語證)에 백호탕(白虎湯)을 오전에만 써서 풍이 동할 것을 대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날마다 5, 6첩 내지 7, 8첩 또는 10여 첵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굳이 헛소리를 할 시기를 기다려서 약을 쓸 것이 아니라 발광시에 약을 쓰는 것이 좋고, 또 발광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약을 쓸 것이 아니라 발광 전에 발광증이 생길 조짐이 있나 없나를 일찍 살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其後 又有少陽人一人 初得頭痛身熱表寒病八九日 其間 用黃連芩蘘活防風等屬 病勢少愈而永不快祛矣 仍爲發狂三日 病家以尋常例證 視之而祇用黃連芩蘘等屬 又譫語數日 始用地黃白虎湯一貼 其翌日午後 動風急煎地黃白虎湯 連三貼救急 而艱辛下咽 其翌日則白虎湯 加石膏一兩午前用之 以備動風而連三日用之 病人自起坐立 能大小便 病勢比前快蘇快壯矣 不幸病加於少愈 慮不周於完治 此人竟不救 恨不午前 祇用白虎湯二貼 以備動風而午後 全不用藥以繼之也 以此三人病觀之 則發狂譫語證白虎湯 非但午前用藥以備動風而已矣 日用五六貼七八貼十餘貼 以晝繼夜則好矣 不必待譫語後而用藥 發狂時當用藥可也 不必待發狂後而用藥 發狂前早察發狂之漸可也

44. 그 후에 또 소양인(少陽人) 17세 소녀가 간혹 패기(悖氣)가 있었고, 또 식체와 복통이 있었다. 하루는 갑자기 두통이 나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또 식체가 있더니 어떤 의사가 소합원(蘇合元) 세 개를 주며 생강 끓인 물에 먹으라 함으로 먹었더니 이내 설사를 하게 되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십여 일을 못지 않고 설사없이 물을 찾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간간히 헛소리를 한다. 때는 기해년(己亥年) 동짓달 스무사흘이었다. 그날 밤에 생지황(生地黃)·석고(石膏) 각 225g과 지모(知母) 112.5g을 썼더니 설사 횟수는 반으로 줄고, 이튿날에는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에 석고(石膏) 150g을 가하여 두 첩을 연복시켰더니 편히 잠들고 소변도 잘 통한다.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 두 첩의 약력이 지모백황탕(知母白黃湯)보다도 열 배나 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날마다 이 약 네 첩을 낮에 두 첩, 밤에 두 첩씩 며칠 동안 먹었더니 완전히 설사가 그치고 양쪽 귀밑에서 약간 땀이 나더니 갑자기 아이가 헛소리 증세가 발광증으로 변하였다. 병가에서는 놀라 의심하여 이주야를 복약하지 않았다. 드디어 병세는 더욱 위경에 이르렀고 전혀 땀이 나지 않으며 소변은 불통되고 입에서는 얼음 조각을 씹는 것처럼 차고 인사불성이 되어 효상(爻象)이 매우 불길하다. 이와 같은 형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할 수 없이 그날 밤 사이에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에 석고(石膏) 37.50g을 가하여 열 첩을 입 안에 부어넣어 주었다. 밤중에 소변을 세 공기가량 누었고, 광증은 여전하나 아는 사람 얼굴을 조금씩 알아본다. 그 이튿날 또 여섯 첩을 썼고 연 5일 날마다 네 첩 또는 대여섯 첩씩 계속하였다. 비로소 발광증이 멎고 잠깐씩 잠을 이루나 오래 자지 못하고 이내 깬다. 또 날마다 3, 4첩씩 5일 동안 계속 먹이니 머리와

이마 및 귀밑에서 땀이 나고 반나절씩 잠을 자며 약간의 죽을 먹게 되었다. 매일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에 석고(石膏) 3.75g씩 가하여 하루에 두 첵씩 계속하되 대변이 하루를 건너면 석고(石膏) 15.00g을 가하여 썼다. 12월 23일에야 근근이 위기를 면하게 되었고 차츰 방에서 일어나 앉기도 하며 서기도 한다. 한 달 동안에 석고(石膏)를 쓴 것이 무려 1,687.5g가량이나 된다. 이듬해 정월 15일에 1리(里) 정도 되는 나의 집을 찾아왔고 그 후에도 또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에 석고(石膏) 3.75g을 가하여 3월까지 계속하였다.

其後 又有一少陽人十七歲女兒 素證間有悖氣 食滯腹痛矣 忽一日頭痛寒熱食滯 有醫用蘇合元三箇 薑湯 調下仍爲泄瀉日數十行十餘日不止 引飲不眠 間有譫語證 時則己亥年冬十一月二十三日也 卽夜 用生地黃石膏各六兩知母三兩 其夜 泄瀉度數 減半 其翌日 用荊防地黃湯 加石膏四錢二貼連服 安睡而能通小便 荊防地黃湯二貼 藥力十倍於知母白黃湯可知矣 於是每日用此藥四貼 晝二貼連服 夜二貼連服 數日用之 泄瀉永止 頭部兩鬢 有汗而病兒譫語證 變爲發狂證 病家驚惑 二晝夜 疑不用藥 病勢遂危 頭汗不出 小便秘結 口齧冰片 不省人事 爻象 可惡矣 勢無奈何 以不得已之計 一夜間 用荊防地黃湯 加石膏一兩連十貼灌口 其夜小便通三碗 狂證不止 然知人看面 稍有知覺 其翌日 又用六貼 連五日 日用四五六貼 發狂始止 夜間 或霎時就睡 然不能久睡便覺 又日用三四貼 連五日 頭頂兩鬢 有汗而能半時刻就睡稍進粥飲少許 其後 每日荊防地黃湯加石膏一錢 日二貼用之 大便過一日則加四錢 至于十二月二十三日 始得免危 能起立房中 一朔內凡用石膏四十五兩 新年正月十五日 能行步一里地而來見我 其後 又連用荊防地黃湯加石膏一錢 至于新年三月

45.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소양인(少陽人)의 병은 화(火)와 열(熱)로 되는 까닭에 변동이 심히 빠르므로 비록 초증(初證)이라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릇 소양인 표병(表病)에 머리가 아픈 것



과 이병(裏病)에 변비(便秘)가 생기면 모두 증증임을 알아야 한다. 중한 병에는 체질과 병에 맞지 않는 약을 한 두서너 첩 잘못 쓰더라도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고 험한 병과 위험한 증후에는 꼭 써야 할 약을 한 두서너 첩 모자라게 써도 생명을 건지지 못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

論曰少陽人病 以火熱爲證故 變動甚速 初證 不可輕易視之也 凡少陽人  
表病 有頭痛 裏病 有便秘 則已爲重病也 重病 不當用之藥 一二三貼 誤  
投則必殺人 險病危證 當用之藥 一二三貼不及則亦不救命

## 제13장 소양인(少陽人) 위수열(胃受熱) 이열병론(裏熱病論)

1.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태양병(太陽病)이 8, 9일이 되어서 학질증세와 같이 발열(發熱)·오한(惡寒)이 있되 열이 더 많고 한기(寒氣)가 적으며 맥(脈)이 미약하면서 오한(惡寒)이 있으면 음양이 다 같이 허한 것이다. 땀을 내거나 설사를 시키거나 토(吐)를 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얼굴에 열기가 보이는 자는 아직 병이 풀리는 것이 아니므로 조금이라도 땀을 내지 못하면 반드시 가려움증이 생길 것이니 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을 쓴다.”

張仲景曰 太陽病 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而惡寒者 此陰陽俱虛 不可更發汗 更下 更吐 面色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不龍得小汗出 身必痒宜桂麻各半湯

(해설) 태양병(太陽病)이 8, 9일 지나면 대개는 소양병(少陽病)이 아니면 양명병(陽明病) 또는 음병(陰病)으로 전경(轉經)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병은 완만하여 아직까지 태양병(太陽病)으로 지속하고 있는 경우이다. 발열(發熱)·오한(惡寒)이 마치 소양병(小陽病)과 같아서 추웠다 더웠다 하며 학질 증세와 같아도 열이 나

는 기간이 길고 오한(惡寒)하는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럴 때에 잘못 소양병(少陽病)으로 알고 소시호탕(少柴胡湯)을 쓰는 일이 많다. 그러나 여기에는 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을 써야 하는데 그것은 발열 시간이 길고 오한(惡寒)하는 시간은 짧고 하루에 두세 번씩 반복하며, 땀이 나지 않고 몸이 가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약을 썼는데도 맥(脈)이 약하고 오한(惡寒)이 있으면 표리(表裏)가 다 같이 허한 것이므로 한(汗)·토(吐)·하(下)하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되고, 아직 얼굴에 열기가 보이면 치료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2. 태양병(太陽病)에 학질 증상과 같아서 발열(發熱)·오한(惡寒)이 있으나 열이 더하고 추위가 적으며 맥(脈)이 미약한 자는 망양병(亡陽病)이니 몸에 가려운 증세가 없으면 절대로 땀을 내어서는 안 된다. 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이 좋다.

太陽病 似瘧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弱者 此亡陽也 身不痒 不可發汗 宜桂麻各半湯

[주(註)] ○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과 같은 약이다.

3.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은 증세에 대변이 일주야를 지나지 않고 통하는 자는 형방사백산(荊防瀉白散)을 써야 하고 일주야가 지나도 불통하는 자는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을 써야 한다.”

論曰此證 大便不過一晝夜而通者 當用荊防瀉白散 大便 過一晝夜而不通者 當用地黃白虎湯

4.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양명증(陽明證)에 소변이 불리하고 맥(脈)이 부(浮)하며 조갈증이 있으면 저령탕(豬苓湯)을 주로 쓴다.”

張仲景曰 陽明證 小便不利 脈浮而渴 豬苓湯 主之

(해설) 여기서는 단순히 소변불리(小便不利) · 맥부이갈(脈浮而渴) 하는 데만 저령탕(豬苓湯)을 쓰라 하였으나 실은 삼양(三陽) 합병증(合併證)을 치료하는 한 부분만을 말한 것이다. 단지 조갈이 있고 물을 마시되 소변이 불리하고 맥(脈)이 부(浮)하면 저령탕(豬苓湯)을 쓴다.

5. 삼양증(三陽證)이 합병되면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때가 낀 것 같으며 헛소리를 하고 오줌이 저절로 나온다. 이는 속과 겉이 다 같이 열이 있는 까닭이다. 땀이 저절로 나고 갈증이 있으며 배가 아프고 몸이 무거우면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三陽合病 頭痛面垢 譫語遺尿 中外俱熱 自汗煩渴 腹痛身重 白虎湯 主之

[주(註)] ○삼양합병(三陽合病): 태양(太陽) · 양명(陽明) · 소양(少陽)이 합병된 것이다. 삼양합병(三陽合併)이 되면 세 가지 병증의 일부가 나타난다.

○면구(面垢): 얼굴에 때가 낀 것 같다는 뜻이다. 병자가 얼굴에 때가 낀 것 같으면 치료가 가능하나 도리어 병자의 얼굴빛이 화기가 돌면 치료가 어렵다.

(해설) 삼양합병증(三陽合併證)은 병사(病邪)가 겉과 속에 다 같이 침입하여 혈액순환이 안 되므로 배가 창만하고 몸이 무겁다. 여기에 땀을 내게 되면 헛소리를 하고 유뇨(遺尿)가 되며 잘못된 설사를 시키면 자한변갈(自汗煩渴)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 백호탕(白虎湯)을 쓰는 것이다.

6.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양명증(陽明證)은 단지 열이 많고 추운 기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삼양병(三陽病)이 합병되었다 함은, 즉 태양(太陽)·소양(少陽)·양명증(陽明證)이 합병되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증세에는 저령탕(猪苓湯)·백호탕(白虎湯)을 써야 하지만 고방(古方) 저령탕(猪苓湯)은 신방(新方) 저령차전자탕(猪苓車前子湯)이 구비하고 있는 것보다 못하고 고방(古方) 백호탕(白虎湯)은 신방(新方)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이 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보다 못하다. 만일 양명병(陽明病)에 소변이 불리하고 겸하여 대변이 비조하면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을 써야 한다.”

論曰 陽明證者 但熱無寒之謂也 三陽合病者 太陽 少陽 陽明證 俱有之謂也 此證當用猪苓湯 白虎湯 然 古方 猪苓湯 不如新方 猪苓車前子湯之俱備 古方白虎湯 不如新方 地黃白虎湯之全美矣 若陽明證 小便不利者兼大便秘燥則當用地黃白虎湯

(해설) 저령탕(猪苓湯)은 주로 소변불리(小便不利)에 쓴다. 양명병(陽明病) 또는 소음병(少陰病)의 하리(下利)·구갈(口渴)·구토(嘔吐)·불면(不眠)에도 쓴다. 백호탕(白虎湯)은 삼양합병(三陽合病)이 되어 이(裏)에 열이 심할 때에 쓰며, 특히 맥(脈)이 부(浮)하고 활(滑)하면 꼭 써야 한다. 표(表)에 한(寒)이 있으며 맥(脈)이 부(浮)하고 이(裏)에 열(熱)이 심하면 맥(脈)이 활(滑)하다. 소양인(少陽人) 설사는 열(熱)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령차(猪苓車) 전자탕(前子湯)이 성약(聖藥)이요, 이열(裏熱)을 맑히는 데는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이 성약(聖藥)이다.

7. 주굉(朱肱)이 말하기를 “양궐(陽厥)이라 함은 처음 병을 얻으면 반드시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길으로는 마치 양증(陽證)과 같다가 4, 5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궐증(厥證)이 나타난다. 궐(厥)하기

를 한나절쯤 되면 갑자기 몸에 열이 나는데, 대개는 열기가 깊어짐으로써 궤증(厥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궤(厥)이 아니고 갑자기 열이 나게 되면 이는 열이 심하기 때문이다. 맥(脈)이 비록 깊이 잠겼어도 누르면 매끄러운 것은 속에 열이 있기 때문이요, 혹 물을 찾기도 하고 혹 손을 젖고 발을 내던지기도 하며, 혹 번조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또 대변이 비조하고 소변이 붉으며 바깥 증세가 혼수상태로 되면 백호탕(白虎湯)을 써야 한다.”

朱肱曰 陽厥者 初得病 必身熱頭痛 外有陽證 至四五日方發厥 厥至半日 却身熱 蓋熱氣深 方能發厥 若微厥却發熱者 熱甚故也 其脈 雖伏 按之滑者 爲裏熱或飲水或揚手擲足 或煩燥不得眠 大便秘小便赤 外證多昏愢 用白虎湯

[주(註)] ○양궤(陽厥): 즉 열궤(熱厥)이다. 이는 음기(陰氣)가 아래로 떨어진 상태로 사지가 차고 몸에는 열이 있으며 얼굴이 붉고 입술이 마른다. 혀에 백태가 끼고 눈을 감기도 하며 소변이 삼(澀)하고 대변은 조(燥)하다. 때로 인사불성이 되며 맥(脈)은 활(滑)하고 삭(數)하다.

8. 나는 이렇게 말한다. “소양인(少陽人) 이열병(裏熱病)에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이 성약(聖藥)이긴 하나 이를 쓰는 자는 반드시 대변이 통하나 통하지 않나를 보고 써야 한다. 만일 대변이 일주야(一晝夜) 남짓 불통하면 약을 써야 하고, 이주야(二晝夜)나 불통한다면 반드시 약을 써야 한다. 무릇 소양인(少陽人)이 일주야 동안 대변이 불통되면 이는 위(胃)에 열이 이미 맺혀 있는 것이요, 이주야 불통한다면 이열(裏熱)이 심한 것이요, 만일 삼주야 불통한다면 위험한 것이다. 일주야가 훨씬 지났거나 이주야쯤 되면 약을 쓰기에 알맞은 시기지

만 삼주야가 되어 위험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헛소리를 하는 증세에 대변마저 비조한다면 일주야를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論曰 少陽人裏熱病 地黃白虎湯 爲聖藥 而用之者 必觀於大便之通不通也 大便一晝夜有餘而不通則可用也 二晝夜不通則必用也 凡少陽人大便一晝夜不通則胃熱已結也 二晝夜不通則熱重也 三晝夜不通則危險也 一晝夜八九辰刻 二晝夜 恰好用之 無至三晝夜之危險 若譫語證 便秘則不可過一晝夜

9. 소양인(少陽人)이 위(胃)에 열을 받으면 대변이 비조해지고 비(脾)에 한기(寒氣)를 받으면 설사를 한다. 그러므로 망음증(亡陰證)은 2, 3일 설사를 하다가 대변이 비조해지며, 일주야가 되면 음(陰)의 맑은 기운이 점차 없어져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위열증(胃熱證)은 대변이 삼주야 불통되면서 땀이 나는데, 이는 양(陽)의 맑은 기운이 점차 없어져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少陽人 胃受熱則大便燥也 脾受寒則泄瀉也 故 亡陰證 泄瀉二三日 而大便秘一晝夜則清陰 將亡而危境也 胃熱證大便 三晝夜不通而汗出 則清陽將渴而危境也

10. 소양인(少陽人) 대변불통에 백호탕(白虎湯)을 3, 4첩 썼는데도 그 날로 대변이 통하지 않는 것은 장차 완전히 녹아서 관통될 것이므로 좋은 징조인 것이다. 의심할 필요 없이 이튿날 또 2, 3첩 복용하면 대변이 통하지 않을 리 없다.

少陽人大便不通病 用白虎湯三四服 當日大便不通者 將爲融會貫通 大吉  
之兆也 不必疑惑而翌日 又服二三貼則必無不通

11. 소양인병(少陽人病)은 표병(表病)이건 이병(裏病)이건 또 병이  
맺히거나 풀리거나 반드시 대변을 보아야 한다. 소양인 대변은 처음  
에 조(燥)하다가 나중에는 활(滑)하고 또 잘 소통되면 평상시에 병이  
없는 자의 대변이요, 다음은 묽은 대변을 한두 차례, 꽤하게 많은 양  
을 보게 되면 병자가 병이 더하지 않는 대변이요, 한두 차례 보통 활  
변(滑便)을 보게 되면 병자가 병이 더하지 않는 대변이요, 일주야 남  
짓 불통하거나 혹 일주야에 3~5차례 조금씩 설사를 하는 것은 장차  
대변이 막힐 징조다. 좋지 못한 대변이니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少陽人表裏病結解 必觀於大便 而少陽人大便 頭燥尾滑 體大而疏通者  
平時無病者之大便也 其次大滑便一二次快滑泄 廣多而止者 有病者之病  
快解之大便也 其次一二次尋常滑便者 有病者 病勢不加之大便也 其次或  
過一晝夜有餘不通 或一晝夜間三四五次小小滑利者 將瀉之候也 非好便  
也 宜預防

12. 소음인(少陰人) 이한병(裏寒病)에 아랫배가 냉(冷)한 증세는 병  
을 받았을 때에 이미 배가 끓고 설사를 할 기미가 보여 쉽게 집증(執  
證)할 수 있으므로 빨리 약을 쓸 수 있고, 소양인 이열병(裏熱病)에  
흉격열증(胸膈熱證)은 병을 받은 처음부터 가슴이 번거롭고 조(燥)한  
기미가 있지만 그 기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집증(執證)하  
기 어려워 약을 쓰는 일이 늦어진다. 만일 소양인병(少陽人病)에 흥번  
민조(胸煩悶躁)의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나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면  
그 병은 이미 험증(險證)이기 때문에 손을 쓰기 어렵다. 무릇 소양인



표병(表病)에 머리가 아프면 대뜸 표병(表病)임을 알 수 있고, 만일 물이 쓰이거나 소변 빛이 붉으면 매우 두려운 증세다. 소양인 이병(裏病)에 대변이 일주야 남짓 불통되면 이병(裏病)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첫 증후요, 만일 3주야가 지나도록 대변이 불통되면 위험한 것이다. 배옹(背癰)·뇌저(腦疽)·진중(唇瘡)·전후풍(纏喉風)·인후병(咽喉病)과 같은 것은 병을 받는 첫날에 이미 위험하며, 양독발반(陽毒發斑)·유주단독(流注丹毒)·황달(黃疸)은 병을 받는 날에 이미 험증인 것이요, 얼굴과 눈·코·입·치아의 병은 병이 생긴 그 날에 이미 중증인 것이다. 무릇 소양인 표병(表病)에 두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을 써야 하고, 이병(裏病)에 대변이 일주야가 지나도록 불통되면 백호탕(白虎湯)을 써야 한다.

少陰人裏寒病臍腹冷證 受病之初 已有腹鳴泄瀉之機驗而 其機 甚顯則其病執證易見而用藥 可早也 少陽人裏熱病胸膈熱證 受病之初 雖有胸煩悶燥之機驗 而其機不甚顯則執證難見而用藥 太晚也 若使少陽人病 胸煩悶燥之驗顯然露出 使人可覺 則其病 已驗而難爲措手矣 凡少陽人表病 有頭痛則自是表病明白易見之初證也 若復引飲 小便 赤則可畏也 泄瀉揚手擲足則大畏也 少陽人裏病 大便 過一晝夜有餘而不通則自是裏病明白易見之初證也 若復大便 過三晝夜不通則危險矣 背癰 腦疽 唇瘡纏喉風 咽喉等病 受病之日 已爲危險證也 陽毒發斑 流注丹毒 黃疸等病 受病之日 已爲險證也 面 目 口 鼻 牙齒之病 成病之日 皆爲重證也 凡少陽人 表病 有頭痛證則必用荊防敗毒散 裏病 有大便 過一晝夜不通證則用白虎湯

[주(註)] ○배옹(背癰: 등창)·뇌저(腦疽: 후발저)·진중(唇瘡: 입술 위에 나는 종기, 뽀루지)·전후풍(纏喉風: 디프테리아)·양독발반(陽毒發斑: 발진티푸스 같은 것).

### 13. 왕호고(王好古)가 말하기를 “갈병(渴病)에는 세 가지 증세가 있

으니 소갈(消渴)·소증(消中)·소신(消腎)이라 한다.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 가슴이 번조하며 혀가 빨갛고 입술이 붉다. 이 갈(渴)은 입이 조하여 물을 많이 마시되 오줌이 짙고 양이 적다. 이 병은 상초(上焦)에 속한 것으로 소갈(消渴)이라 이른다. 열이 중초(中焦)에 축적되면 먹는 대로 삭여서 시장기를 느끼고 음식은 보통 때보다 곱은 더 먹되 살이 붙지 않는다. 또한 번조는 심하지 않고 소변이 짙으며 맛이 달콤하다. 이 병은 중초(中焦)에 속한 것으로 이를 중소(中消)라 이른다. 열기가 하초(下焦)에 잠복하면 다리가 가늘어지고 골절이 쭈시며 물은 많이 마시지 않으나 소변 양이 많고 탁하다. 이는 하초(下焦)에 속한 병으로 이를 일러 소신(消腎)이라 한다. 또 오석(五石)을 과도하게 써서 몸의 진기(眞氣)가 빠졌는데도 다만 금석(金石)의 열기만 홀로 남아서 양도(陽道)가 역세게 일어나며 교접하지 않아도 정설(精泄)이 되는 것을 일러 강증(強中)이라 한다. 소갈(消渴)은 경한 증세요, 소증(消中)은 심한 증세요, 소신(消腎)은 더욱 심한 증세니 강증(強中)은 그의 죽음을 가히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인 것이다.

王好古曰渴病 有三 曰消渴 曰消中 曰消腎 熱氣上騰 胸中煩燥 舌赤唇紅 此渴引飲 常多 小便數而少 病屬上焦 謂之消渴 熱蓄於中 消穀善飢 飲食倍常不生肌肉 此渴 亦不甚煩 小便數而澀 病屬中焦 謂之消中 熱伏於下 腿膝枯細 骨節 痠疼 飲水不多 隨即尿下 小便多而濁 病屬下焦 謂之消腎 又有五石過度之人眞氣既盡 石勢獨留 陽道興強 不交精泄 謂之強中 消渴 輕也 消中 甚焉 消腎尤甚焉 若強中則其斃 可立而待也

[주(註)] ○오석(五石): 양기석(陽起石)·중류석(鍾乳石)·자석(磁石)·영몽석(靈礪石)·금강석(金剛石)을 말한다.

(ㄱ) 양기석(陽起石): 규산(珪酸)·마그네슘·철분(鐵分)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성(性)은 약간 온(溫)하고 무독(無毒)하다. 주로 신

허요통(腎虛腰痛) · 양기불족(陽起不足)[음위(陰痿)] · 부인자궁병(婦人子宮病)에 쓴다.

(ㄴ) 중유석(鍾乳石): 탄산(炭酸)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며, 성(性)은 온(溫)하고 무독(無毒)하다. 주로 각약동한(脚弱疼寒) · 정설(精泄) · 오노칠상(五勞七傷)에 쓴다.

(ㄷ) 모자석(毛磁石): 산화철분(酸化鐵分)을 함유하고 있으며, 성(性)은 한(寒)하고 무독(無毒)하다. 주로 위허(胃虛) · 요각동(腰脚疼) · 소변수(小便數) 등에 쓴다.

(ㄹ) 영몽석(靈礞石): 성(性)은 감한(甘寒) 무독(無毒)하다. 정신을 양(養)하고 명목(明目) · 통혈맥(通血脈) · 보간(補肝)하며,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볍고 장수한다고 한다.

(ㄴ) 금강석(金剛石): 해독작용을 하며 탕화상(湯火傷)을 치료한다. ○강중(強中): 무시(無時)로 음경(陰莖)이 발기되고 정액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이는 성욕이 과하여 금석지제(金石之劑)가 든 보약을 많이 쓰면 신기(腎氣)가 쇠약한데 금석(金石)의 기운만 남아 있어서 성교를 하지 않아도 정액이 배설되는 것이다.

14. 주진형(朱震亨)이 말하기를 “상소(上消)는 혀가 빨갛게 갈라지고 갈증이 심하여 물을 많이 마시니 주로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중소(中消)는 음식은 잘 먹으나 몸이 마르고 땀이 절로 나며 대변이 굳고 소변이 잦으니 주로 황련저두환(黃連猪肚丸)을 쓴다. 하소(下消)는 번조증이 있고 물을 많이 마시되 오줌은 마치 기름 같고 무릎과 다리가 마르니 주로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을 쓴다.

朱震亨曰 上消者 舌上赤裂 大渴引飲 白虎湯 主之 中消者 善食而瘦 自汗大便秘 小便數 黃連猪肚丸 主之 下消者 煩燥引飲 小便 如膏腿膝 枯細 六味地黃湯 主之

15. 『의학강목(醫學綱目)』에서 말하기를 “갈(渴)하여 물을 많이 마

시는 것을 상소(上消)라 하고, 먹는 대로 삭여서 시장기를 느끼는 것을 중소(中消)라 하고, 갈증(渴證)이 있으면서 오줌이 잦으며 기름기가 있으면 하소(下消)라 한다.”

醫學綱目 日渴而多飲 爲上消 消穀善飢 爲中消 渴而尿數 有膏油 爲下消

16. 위역림(危亦林)이 말하기를 “색욕을 탐내는 자가 혹 금석지제(金石之劑)[단석(丹石)]를 복용하여 진기(眞氣)가 이미 빠진 데다가 열사(熱邪)만 홀로 왕성하여 음식은 마치 끓는 물에 눈 녹 듯하며, 살은 날로 빠지고 소변은 기름과 같고, 양기(陽氣)가 역세게 강하여 교접하지 않아도 정세(精泄)가 된다. 이는 삼소(三消) 중에 가장 난치에 속한다.”

危亦林曰 因耽嗜色慾 或服丹石 眞氣既脫 熱邪獨盛 飲食 如湯消雪 肌膚日削 小便 如膏油 陽強興盛 不交精泄 三消之中 最爲難治

17. 나는 이렇게 말한다. “소갈병(消渴病)이란 병자의 가슴속이 너그럽고 활달하지 못한 데서 생긴다. 마음이 굳어지고 소견이 얇으며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급하고 계책이 골똥하나 생각이 돌지 않으므로 대장(大腸)의 맑은 양기(陽氣)가 흡족하게 상승하지 못하므로 날이 갈수록 소모되어 이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위부(胃部)의 맑은 양기가 위로 올라가 머리와 얼굴 및 사지에 충족하지 못하면 상소병(上消病)이 되고, 대장부(大腸部)의 맑은 양기가 위로 올라가서 위부(胃部)에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병(中消病)이 된다. 본래 상소병(上消病)이 중증이지만 중소병(中消病)은 이보다 배나 더 중한 증세요, 중소

병(中消病)이 험증이지만 하소병(下消病)은 이보다 배나 더 험한 증세인 것이다. 상소(上消)에는 마땅히 양격산화탕(涼膈散火湯)을 써야 하고, 중소(中消)에는 인동등지골피탕(忍冬藤地骨皮湯)을 써야 하며, 하소(下消)에는 숙지황고삼탕(熟地黃苦參湯)을 써야 한다.

또한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절대 옹졸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는 일은 하고자 하는 일을 완만하게 생각하는 일 이요, 그래야만 맑은 양기가 위로 통달할 것이다. 만일 마음이 옹졸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금하면 맑은 양기가 아래에서 소모되고 말 것이다.”

論曰消渴者 病人胸次 不能寬遠闊達而 陋固膠小 所見者淺 所欲者速 計策鵲突 意思艱乏則大腸清陽上升之氣 自不快足 日月耗困而生此病也 胃局清陽 上升而不快足於頭面四肢則成上消病 大腸局清陽 上升而不快足於胃局則成中消病 上消自爲重證而中消 倍重於上消 中消 自爲險證而下消 倍險於中消 上消 宜用涼膈散火湯 中消 宜用忍冬藤地骨皮湯 下消 宜用熟地黃苦參湯 尤宜寬闊其心 不宜膠小其心 宜闊則所欲必緩 清陽上達 膠小則所欲 必速 清陽下耗

18. 마음을 편하게 갖고 생각을 고요하게 하면 양기(陽氣)가 맑고 가볍게 위로 올라가서 머리 얼굴 및 사지에 충족할 것이니, 이것이 곧 원기(元氣)요 맑은 양기이다. 노심초사(勞心焦思)를 하면 양기가 아래로 떨어져서 중탁(重濁)하여지면 머리·얼굴 및 사지에 울열(鬱熱)이 되어 이것이 곧 화기(火氣)요, 양기가 모손되는 것이다.

平心靜思則陽氣 上升輕清而充足於頭面四肢也 此 元氣也 清陽也 勞心焦思則陽氣 下陷重濁而鬱熱於頭面四肢也 此 火氣也 耗陽也

(해설) 소갈병은 현대 의학적으로 당뇨병과 같다. 이 병은 40~50대에 가장 많고 20세 이하에 간혹 발생하는데, 유전·비만체·미식가(美食家)·정신 노력자에게 생기며, 임신·간질환·내분비장애에서도 온다.

내경(內經)에는 소갈병은 주로 위경(胃經)과 대장경(大腸經)의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위(胃)에 열을 받음으로써 피 속에 있는 복화(伏火)가 혈불족(血不足)을 일으켜서 소곡선기(消穀善飢)하고, 대장(大腸)은 노과작용(瀟過作用)을 하므로 만일 열을 받으면 진액이 모손(耗損)되어 대갈인음(大渴引飲)한다 하였다.

(ㄱ) 상초증(上消證): 열기가 상초(上焦)로 올라가서 심장(心臟)이 허해지면, 심화(心火)가 산만하여 번조증이 심하고, 열이 심폐간(心肺間)에 체류하여 설적진홍(舌赤唇紅)하며 조갈이 심하여 물을 많이 마신다. 따라서 소변량이 많다.

(ㄴ) 중소증(中消證): 중초(中焦)에 열이 축적되면 비허(脾虛)하여 복화(伏火)가 위(胃)를 훈증(薰蒸)하므로 음식이 당기고 허기증이 심하다. 그러나 흉번(胸煩)은 없고 소변이 잦으며 오줌 맛이 달다.

(ㄷ) 하소증(下消證): 소갈병의 말기가 되거나 혹은 색욕과다로 하초(下焦)에 열기가 축적되면 신장기능이 약해져서 하지무력(下肢無力) 골절이 아프고 마른다. 소변이 잦고 탁하며 마치 기름과 같다.

19. 위역림(危亦林)이 말하기를 “소갈병(消渴病)은 모름지기 옹저(癰疽)를 예방해야 하니, 인동등(忍冬藤)의 뿌리·줄기·잎·꽃의 어느 것이나 관계없이 달여서 먹는 것이 좋다.”

危亦林 曰消渴 須防發癰疽 忍冬藤 不拘多少 根 莖 花 葉 皆可服

[주(註)] ○인동등(忍冬藤): 속칭 ‘겨우살이넝쿨’이다. 꽃은 금은화(金銀花)이며, 주로 중기 약으로 쓴다. 부인유종(婦人乳腫)·흉막염(胸膜炎)·악성종양(惡性腫瘤)에 쓴다.

(해설) 소갈병(消渴病) 말기에는 뇌저(腦疽)·등창 같은 중기가 생기며,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백혈구가 감소되어 여러 가지 병

발증이 생긴다. 따라서 외상(外傷)·옹저(癰疽)가 생기면 치료가 매우 어렵다.

20. 이고(李杲)가 말하기를 “소갈병(消渴病)을 앓는 자가 음식이 당기면 말기에는 반드시 옹저(癰疽)·등창 같은 것이 생기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배가 붓거나 고창(鼓脹)이 생긴다.”

李杲 曰消渴之疾 能食者 未傳 必發腦疽背瘡 不能食者 必傳中滿鼓脹

[주(註)] ○고창(鼓脹): 복막염.

(해설) 소갈병에 음식을 잘 먹는 자가 말기가 되면 반드시 열화상염(熱火上炎)하여 옹저(癰疽)가 생기거나 실명(失明)이 되며, 상소(上消)·중소증(中消證)에 한약(寒藥)을 잘못 써서 위(胃)를 상하면 음식소화가 안 되고 중만고창(中滿鼓脹)이 되는 수가 있다.

21. 『동의방류취(東醫醫方類聚)』에서 말하기를 “소갈병(消渴病)이 병변되면 종기가 생기거나 혹은 수종병(水腫病)이 생기며, 두 눈이 실명되는 수도 있다.”

東醫醫方類聚曰消渴之病 變成發癰疽 或成水病 或雙目失明

[주(註)] ○『동의방류취(東醫醫方類聚)』: 세종 27년에 집현전 의관(醫官)들에게 명하여 모든 의학을 수집하여 만든 대집성(大集成)이다. 266권 264책으로 된 방대한 책이며, 우리나라 삼대(三大) 의서 중의 하나이다. 삼대(三大) 의서는 『의방류취(醫方類聚)』,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동의보감(東醫寶鑑)』이다.

22. 나는 이렇게 말한다. “종기가 나거나 눈병이 생기는 것은 모

두 중소증(中消證)의 변증이다. 중소(中消)는 본래 험한 증세이므로 이미 상소(上消) 때에 미리 치료해야 하고, 만일 중소증(中消證)으로 되었으면 빨리 고쳐야 한다. 하소증(下消證)은 이미 죽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論曰 癰疽眼病 皆是中消之變證也 中消自爲險證則上消 當早治也 中消 必急治也 下消則瀕死

23. 왕호고(王好古)가 말하기를 “한 소년이 갓 나서부터 도한(盜汗)을 흘리기를 7년이 되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약을 써 왔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양격산(涼膈散)을 사흘 쓰고 곧 병이 나았다.”

王好古 曰一童子 自嬰至童 盜汗七年 諸藥不効 服涼膈散三日 病已

[주(註)] ○도한(盜汗): 신허(腎虛)에서 오는 증세로, 잠잘 때만 나는 땀을 말한다.

(해설) 이 소년이 도한(盜汗)을 흘린 지가 7년이 되었다고 하니 이는 상화(相火)가 결핍되어 신장(腎臟) 수기(水氣)를 끌고 심장(心臟)에 올라가지 못하므로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이 화염(火炎)되어 도한(盜汗)이 생긴 것이니 심장(心臟)의 불을 끄기 위하여 양격산화탕(涼膈散火湯)을 썼을 것이다.

24. 나는 이렇게 말한다. “소양인(少陽人)이 대장(大腸)의 맑은 양기(陽氣)가 위(胃)에 충족하여 이것이 머리·얼굴·사지에 넘치게 되면 땀이 날 리가 없다. 소양인의 땀은 본래 양기가 허약하여 나는 것이니 여기에서 양격산(涼膈散)을 쓰고 병이 낫다고 함은 이 병은 곧 상소증(上消證)으로 가벼운 증세인 것이다.”



論曰 少陽人大腸清陽 快足於胃 充溢於頭面四肢則汗必不出也 少陽人汗者自是陽弱也 而服涼膈散病已則此病 卽上消而其病輕也

25. 『동의의방류취(東醫醫方類聚)』에서 말하기를 “무릇 소갈병(消渴病)이 된 자는 물을 자주 마시며, 반드시 머리가 어지럽고 등이 시리며 구역이 날 것이니 이는 심히 허(虛)한 까닭이다.”

東醫醫方類聚 曰夫渴者 數飲水 其人必頭面眩 背寒而嘔 因虛故也

26. 공신(龔信)이 말하기를 “무릇 음허증(陰虛證)에는 날마다 오후가 되면 오한(惡寒)이 있고 열이 나며 느지막하게 땀이 약간 나다가 열이 풀린다. 이를 잘못 학질로 알고 치료하다가 크게 낭패를 당한다”.

龔信 曰凡陰虛證 每日午後 惡寒發熱至晚 亦得微汗而解 誤作瘧治多致不救

27. 손사막(孫思邈)이 『천금방(千金方)』에서 말하기를 “소갈병(消渴病)에는 세 가지 삼가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술이요, 둘째는 색욕(色慾)이요, 셋째는 짠 음식과 면류(麵類)이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약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병이 나을 수 있다.”

孫思邈 千金方書 曰消渴 宜慎者 有三 一飲酒 二房勞 三鹹食及麵 能慎此三者 雖不服藥 亦可自愈

[주(註)] ○손사막(孫思邈): 수(隋)·당(唐) 때 사람으로 음양술수

(陰陽術數)에 능할 뿐 아니라 의학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어 당시 수문제(隋文帝)가 벼슬을 주고자 불렀으나 사양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저술로 생애를 마쳤다 한다. 『천금방(千金方)』 30권도 이 때에 나온 것이라 한다.

28. 나는 이렇게 말한다. “상소(上消)·중소(中消)는 이(裏)의 양기(陽氣)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비록 허손되었어도 표(表)의 음기(陰氣)가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 아직 완장(完壯)하기 때문에 그 병이 비록 험증이지만 오히려 오래 지탱할 수 있다. 음기(陰氣)가 허하여 오후에 열이 오르고 물을 많이 마시며 등이 시리고 구역이 나면 표리(表裏) 음양(陰陽)이 다 허손된 것이니 그 병 됨이 더욱 험하여 하소증(下消證)과 그 경증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마음과 몸의 섭생을 잘 하고 약을 쓰게 되면 열에 6, 7은 살 수 있지만, 만일 마음과 몸의 섭생을 안 하고 약만 쓰면 백이면 백 다 죽는다. 여기에는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십이미지황탕(十二味地黃湯)을 써야 한다.”

論曰上消中消 裏陽升氣雖則虛損 表陰降氣猶恃完壯故 其病 雖險 猶能歲月支撐者 以此也 若夫陰虛午熱飲水背寒而嘔者 表裏陰陽 俱爲虛損 所以爲病尤險 與下消 略相輕重 然 能善攝身心服藥則十之六七 尚可生也 不善攝身心服藥則百之百必死也 此證 當用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

29. 『역경(易經)』 수(需) 구삼효사(九三爻辭)에 말하기를 “진흙 밭에서 기다림이니, 도적 이름을 이루리라 하고, 상에 말하기를 (수우니)는 재앙이 밖에 있음이라. 나로부터 말미암아 도적이 이르게 하니, 공경하고 삼가면 패하지 않으리라.”라 했으니 이 뜻을 모방하여 말한다면 “음(陰)이 허하여 낮에 열이 나고 등이 시리며 구역이 나는

것은 비록 그 병이 험하여도 죽음은 오히려 밖에 있는 것이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며 경계하고 몸을 잘 공경하면서 또 좋은 약을 쓰면 절대로 죽을 리가 없다.”

易之需九三爻辭 曰需于泥 致寇至 象曰需于泥 災在外也 自我致寇 敬慎不敗也 以此意而倣之曰陰虛午熱背寒而嘔 其病 雖險 然死尙在外也 能齋戒其心 恭敬其身 又服好藥 不死也

[주(註)] ○역(易): 수천수(水天需) ☵(坎) · ☰(乾) · 수(需) 구삼효사(九三爻辭)

○수(需): 수(須)와 같은 뜻이니, 즉 기다린다는 뜻이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지혜 있는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이길 만한 힘을 기르기 위하여 때를 기다린다.

○수우니(需于泥): 물가의 진흙 속에 서서 물 건널 것을 기다리는 상태다. 적이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제14장 소양인(少陽人) 범론(泛論)

1. 소양인병(少陽人病)에 있어서 중풍·토혈·구토·복통·식체비만(食滯痞滿) 등의 다섯 가지는 같은 데서 나온 한 족속이나 스스로 경중(輕重)이 있으며, 부중·천촉(喘促)·결흉(結胸)·이질·한열왕래(寒熱往來)·흉협만(胸脅滿) 등의 다섯 가지도 같은 데서 나온 한 족속이나 이에도 경중이 있는 것이다.

少陽人病 中風吐血嘔吐腹痛食滯痞滿五證 同出一屬而自有輕重 浮腫喘促結胸痢疾寒熱往來胸脅滿五證 同出一屬而自有輕重

(해설) 소양인병(少陽人病)에 중풍·토혈·구토·복통·식체비만 등 다섯 가지 증세는 같은 데서 나온 한 족속이라 함은 병리적 원인이 다를지라도 체질적으로 보면 모두 소양인(少陽人) 위수열(胃受熱)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치료는 모두 보음(補陰)을 위주하면 된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처방이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으로 되어 있고, 또 부중·천촉·결흉·이질·한열왕래(寒熱往來)·흉협만(胸脅滿) 등도 실증에 속한 이른바 비수한(脾受寒)에서 온 병이니만치 이열(裏熱)을 밝히고 표음(表陰)을 하강케 하면 치료가 가능하므로 대표적 처방이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이

다. 이에 변방(變方)하여 형방도적산(荊防導赤散)·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황련청장탕(黃連淸腸湯)·목통대안탕(木通大安湯)과 같은 처방이 나와 있다.

2. 소양인(少陽人) 중풍(中風)에 반신불수(半身不遂)와 혹 한쪽 팔을 못 쓰는 데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중한 자는 죽고 경한 자는 살 수도 있지만 간간히 약을 쓰며 마음을 편히 갖도록 하고 스스로 병이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반드시 치료해서 낫는다고 보장하긴 어려운 병이다.

少陽人中風半身不遂一臂不遂 末如何之疾也 重者 必死 輕者 猶生 間以服藥 安而復之 待其自愈而不可期必治法之疾也

3. 소양인(少陽人) 토혈(吐血)에는 반드시 강박하고 편급한 마음을 버려야 하고, 또 사람과 다투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하며, 담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약을 쓰되 석가모니의 도를 닦는 사람같이 수양을 하면, 백 일쯤 지나야 약간 병이 나을 것ियो, 2백 일이 지나면 많이 나을 것ियो, 1년이 지나면 완전할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나야 가히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무릇 토혈중에 섭생과 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될 우려가 있다. 만일 재발된다면 앞서의 공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 만일 재발되면 다시 재발된 날짜로부터 계산하여 백 일이 되어야 약간 나을 것ियो, 1년이 지나면 완쾌될 것이다. 이와 같이 10년, 20년을 조양(調養)을 잘하면 반드시 오래 수(壽)할 수 있다.

少陽人吐血者 必蕩滌剛愎偏急與人並驅爭塗之 淡食服藥 修養如釋道 一百日則可以少愈 二百日則可以大愈 一週年則可以快愈 三周年則可保其壽 凡吐血 調養 失道則必再發 再發則前功 皆歸於虛地 若再發者則 又自再發日計數 一百日少愈 一週年快愈 若十年二十年調養則必得高壽

4. 무릇 소양인(少陽人)이 간간이 코피가 조금씩 나고 혹 침이나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면 비록 소량이라도 이는 토혈(吐血)에 속한 것이다. 또 입안에서 차가운 군침이 거슬러 올라오면 비록 구토(嘔吐)가 아니더라도 이는 구토에 속한 증세인 것이다. 만일 연소한 자가 이런 증세가 있으면 대개는 요절하는 일이 많다. 이는 등한히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증세는 반드시 중병(重病) 험병(險病)에 속한 것이니 불가불 약을 써서 예방해야 한다. 그래서 영원히 병의 뿌리를 제거한 연후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凡少陽人 間有鼻血少許 或口鼻間痰涎中 有血 雖細微 皆吐血之屬也 又口中 暗有冷涎 逆上者 雖不嘔吐 亦嘔吐之屬也 少年 有此證者 多致夭折 以其等閑任置故也 此二證 必在重病險病之列 不可不預防服藥 永除病根然後可保無虞

5. 중풍은 병을 얻으면서부터 중한 병이므로 치료법에 기대를 걸 수가 없지만 토혈(吐血)은 그 증상이 이보다 가벼운 까닭에 치료법에 기대할 수 있다. 중풍과 토혈은 다 같이 조양(調養)을 위주로 해야 하고 복약은 그다음이다. 그러나 구토 이하 복통·식체비만증(食滯痞滿證)은 약을 쓰면서 조양(調養)을 잘하면 쉽게 나올 수 있다.

中風 受病 太重故 治法 不可期必 吐血 受病 猶輕故治法 可以期必 中

風吐血 調養爲主 服藥次之 嘔吐以下腹痛食滯痞滿 服藥調養則其病易愈

6. 중풍 구토에는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을 쓰는 것이 좋고, 토혈에는 십이미지황탕(十二味地黃湯)을 쓰는 것이 좋다.

中風嘔吐 宜用獨活地黃湯 吐血 宜用十二味地黃湯

7. 부종(浮腫)은 그 병상이 급히 다스리면 살고 급히 다스리지 않으면 위험하다. 약을 빨리 쓰면 쉽게 낫고 약을 빨리 쓰지 않으면 죽는다. 이 병은 겉으로는 완만하게 보여서 빨리 죽을 것 같지 않으므로 흔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병은 위급한 증세다. 반드시 4, 5일 이내에 다스려야 할 병이요 늦어도 열흘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부종이 처음 생겼으면 목통대안탕(木通大安湯)이나 혹은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에 목통(木通)을 가하여 하루에 두 첵씩 6, 7일 계속하면 부종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나은 뒤에도 백 일 동안은 반드시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에 목통(木通) 7.50g 혹은 11.25g을 가하여 하루에 한두 첵씩 써야 한다. 이리하여 오줌을 맑게 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니 재발되면 치료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종이 처음 풀렸을 때에 음식은 시장기를 참아야 할 정도로 적게 먹어야 하며, 만일 보통 때처럼 많이 먹으면 재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병은 오줌이 붉으면 크게 두려운 증세이다. 즉 오줌 빛이 맑아지면 부종이 풀리고 오줌 빛이 붉어지면 부종이 맺히는 증세이다.

浮腫爲病 急治則生 不急治則危 用藥早則容易愈也 用藥不早則孟浪死也  
此病 外勢平緩 似不速死故 人必易之 此病 實是急證 四五日內必治之疾

謾不可以十日論之也 浮腫 初發 當用木通大安湯 或荊防地黃湯 加木通  
日再服則六七日内 浮腫 必解 浮腫解後百日内 必用荊防地黃湯 加木通  
二三錢 每日一二貼用之以清小便 以防再發 再發 難治 浮腫 初解 飲食  
尤宜忍飢而小食 若如平人大食則必不免再發 大畏小便赤也 小便清則浮  
腫解 小便赤則浮腫結

8. 소양인(少陽人) 중소증(中消證)에 배가 부르면 반드시 고창(鼓脹)  
이 될 것이니 고창은 불치의 병이다. 소양인의 고창병(鼓脹病)은 소  
음인(少陰人)의 장결병(藏結病)과 같아서 다 5, 6개월 혹은 7, 8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죽는다. 대개 소음인 장결병은 표양(表陽)  
의 온기(溫氣)가 비록 거의 끊어질 지경에 이르러도 속의 음기(陰氣)  
가 아직 완강히 버티고 소양인 고창은 이양(裡陽)의 청기(淸氣)가 비  
록 거의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어도 겉의 맑은 음기(陰氣)가 아직 완  
강히 버티므로 다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죽는 것이다.

少陽人中消者 腹脹則必成鼓脹 鼓脹 不治 少陽人鼓脹病 如少陰人藏結  
病 皆經歷五六七八月 或周年而竟死 蓋少陰人藏結 表陽溫氣 雖在幾絕  
裡陰溫氣 猶恃完壯 少陽人鼓脹 裡陽淸氣 雖在幾絕 表陰淸氣 猶恃完壯  
故 皆經歷久 遠而死也

9. 소양인(少陽人) 상한(傷寒)에 숨이 차면 먼저 영사(靈砂) 0.375g  
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이고, 이내 형개(荊芥)·방풍(防風)·고루인(苳  
藁仁) 등을 둘러쓰는데, 이는 약을 달이는 시간을 지체함이 없이 병  
을 구하기 위함이다.

少陽人 傷寒喘促 宜先用靈砂一分 溫水調下 因煎荊防苳藁等葯用之則  
必無煎藥時刻遲滯救病



10. 영사(靈砂)의 약력은 매우 급박하니 한두 번 정도 쓸 것이요, 여러 번 써서는 안 된다. 대개 구급약은 급할 때만 민첩하게 쓸 따름이다. 그리고 약은 반드시 탕약으로 복용한 후 위장(胃腸)이 충만해야만 능히 보음(補陰)·보양(補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靈砂藥力 急迫 可以一再而用而不可屢用 蓋救急之藥 敏於救急而已 藥必湯服然後 充滿腸胃 能爲補陰補陽

11. 이질(痢疾)은 결흉증(結胸證)에 비하면 이질은 순(順)한 증세라 하겠으나 이질을 중증으로 생각함은 부종과의 거리가 가까운 까닭이요, 구토가 복통에 비하면 구토는 역증(逆證)이라 하겠으나 구토를 악증(惡證)이라 함은 중풍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痢疾之比結胸則痢疾 爲順證也而 痢疾之謂重證者 以其與浮腫相近也 嘔吐之比腹痛則嘔吐 爲逆證也而 嘔吐之謂惡證者 以其距中風 不遠也

12. 소양인(少陽人) 이질에는 황연청장탕(黃連淸腸湯)을 써야 한다.

少陽人痢疾 宜用黃連淸腸湯

13. 소양인(少陽人) 학질에 이틀을 거르는 학질이 있으니, 즉 노학(勞瘡)이라 한다. 이는 서서히 다스려야 하고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 증세는 학(瘡)이 발하지 않는 날에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 두 첩을 아침·저녁으로 쓰고, 학(瘡)이 발하는 날에는 미리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두 첩을 달여 두었다가 악한(惡寒)이 발할 때에 연복시킨

다. 이와 같이 한 달 동안에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 40첩과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20첩을 표준으로 삼으면 학질이 물러가지 않을 리 없다.

少陽人瘡病 有間兩日發者 卽勞瘡也 可以緩治 不可急治 此證 瘡不發日 用獨活地黃湯二貼 朝暮服 瘡發日 預煎荊防敗毒散二貼 待惡寒發作時 二貼連服 一月之內 以獨活地黃湯四十貼 荊防敗毒散二十貼 爲準的 則其瘡 必無不退之理

14. 소양인(少陽人)이 목 안이 붓고 밖으로 목과 귀밑에 종기가 생기면 이를 전후풍(纏喉風)이라 하며 3일 안에 죽는 급증이다. 또 입술 위 인중혈(人中穴) 근처에 종기가 나면 진종(唇腫)이라 하는데, 인중혈(人中穴) 좌우 손마디 하나쯤 거리에 비록 좁쌀알만 한 뿔루지가 났어도 또한 위험한 증세인 것이다. 이상 두 가지 증세는 처음 경할 때에는 양격산화탕(涼膈散火湯)·양독백호탕(陽毒白虎湯)을 써야 하고, 중증일 때는 수은훈비방(水銀熏鼻方)을 써야 한다. 훈비(熏鼻)를 한 후에 목과 귀밑에서 땀이 흐르면 그 병이 낫는 것이다. 갑자기 훈비(熏鼻)약이 없을 때에는 경분말(輕粉末) 0.56g, 유향(乳香)·몰약(沒藥)·감수(甘遂) 각 1.85g을 곱게 갈아서 풀로 환(丸)을 만들어 단번에 먹이도록 하라.

少陽人 內發咽喉 外腫項頰者 謂之纏喉風 二三日內 殺人 最急 又上唇人中穴瘡 謂之唇瘡 凡人中左右遍返處一指許 發瘡 雖微如粟粒 亦危證也 此二證 始發而輕者 當用涼膈散火湯 陽毒白虎湯 重者 當用水銀熏鼻方 一炷熏鼻而項頰 汗出則愈 若倉卒 無熏鼻藥則輕粉末一分五厘 乳香沒藥 甘遂末各五分 和勻糊丸 一服盡

15. 소양인(少陽人) 어린아이가 먹기는 잘해도 몸이 점점 마르면 노회비아환(蘆薈肥兒丸) · 인동등지골피탕(忍冬藤地骨皮湯)을 써야 한다.

少陽人小兒食多肌瘦 宜用蘆薈肥兒丸 忍冬藤地骨皮湯

16. 일찍이 소양인(少陽人) 어깨 위에 독종(毒腫)이 생겨서 향유(香油)를 끓여 창구(瘡口)에 부으니 살과 살갓이 까맣게 탔는데도 전혀 뜨거운 줄을 모른다. 어떤 의사가 쇠뿔 한 조각을 숯불 위에 놓고 태우면서 그 연기를 쏘이라 하므로 연기가 창구(瘡口)로 들어가게 하니 독즙(毒汁)이 흘러내려 그 종기가 금방 낫는 것을 보았다.

嘗見少陽人肩上有毒腫 火熬香油灌瘡 肌肉焦爛而不知其熱 有醫教以牛角片 置火炭上 燒而熏之 煙入瘡口 毒汁自流 其腫立愈

17. 일찍이 소양인(少陽人) 70노인이 목 뒤[髮際]에 종기가 생겼는데 어떤 의사가 복알[河豚卵]을 가루로 만들어서 붙이라 일러주므로 그대로 했더니 곧 낫는 것을 보았다. 복알은 독성(毒性)이 대단하여 돼지나 개가 먹으면 즉시 죽고, 또 숲 사이에 걸어 놓아도 까마귀 · 까치들도 감히 먹지 못한다.

嘗見少陽人七十老人 發腦疽 有醫教以河豚卵 作末傅之 其疽立愈 河豚卵至毒 餓犬食之則立死 掛於林木間 烏鵲不敢食

18. 일찍이 소양인(少陽人) 생안손[蛇頭瘡]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 복알을 가루를 만들어서 고약(膏藥) 위에 조금씩 놓고 하루 한 번씩

갈아 붙였더니 약을 붙인 지 5, 6일 만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군살[妬肉]이 솟아 나왔으므로 숯돌가루를 붙였더니 군살도 없어지고 깨끗이 나왔다. 또 연주창[癰瘡]에 복알을 여러 날 갈아 붙였더니 효과가 있었고, 불에 덴 데, 개에 물린 데, 벌레에 물린 데도 모두 효험을 보지 않은 것이 없다.

嘗治少陽人蛇頭瘡 河豚卵 作末少許 點膏藥上傳之而一日一次易以新末  
傳藥五六日病效 而新肉 急生而有妬肉 因以磨刀砥末傳之 妬肉 立消而  
病愈 又用之於連珠痰 多日傳之者 必效 用之於爲炭火所傷與狗咬蟲咬  
無不得效

19. 일찍이 소양인(少陽人) 60노인을 치료하였는데 중풍으로 한쪽 팔을 못 쓰므로 경분말(輕粉末) 0.19g을 먹였더니 갑자기 병이 더하였고, 또 소양인 20세 소년이 한쪽 다리를 조금 못 쓰는 비풍(痺風)에 경분감수용호단(輕粉甘遂龍虎丹)을 썼더니 두세 번에 효험을 보았다.

嘗治少陽人六十老人中風一臂不遂病 用輕粉五厘 其病 輒加 少陽人二十  
歲少年 一脚微不仁痺風 用輕粉甘遂龍虎丹 二三次用之得效

20. 일찍이 소양인(少陽人) 인후병(咽喉病)을 치료한 일이 있다. 물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대변을 못 본 지가 사흘이 되었으니 병세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감수천일환(甘遂天一丸)을 썼더니 즉시 효험을 보았다.

嘗治少陽人咽喉 水嚥不入 大便不通三日 病至危境用甘遂天一丸卽效

21. 일찍이 소양인(少陽人) 70노인을 치료하였는데 대변을 4, 5일 또는 5, 6일 불통하되 음식은 보통 때와 같고, 양쪽 무릎이 시리고 다리에 힘이 없다. 그래서 경분감수룡호단(輕粉甘遂龍虎丹)을 썼더니 대변이 즉시 통하고, 며칠 후에 다시 변비가 생기므로 이 약을 또 써 주었고, 누차 써주었더니 나중에는 대변 횟수가 하루에 한 번씩으로 되면서 병이 나았다. 이 노인은 80의 장수를 하였다.

嘗治少陽人七十老人 大便四五日不通 或六七日不通 飲食 如常 兩脚 膝寒無力 用輕粉甘遂龍虎丹 大便 卽通 後數日 大便 又秘則又用 屢次用之 竟以大便 一日一度爲準而病愈 此老 竟得八十壽

22. 일찍이 소양인 한 사람이 앞니 두 개의 잇몸에서 피가 나더니 삼시간에 두어 공기 정도를 쏟는다. 심히 위험한 지경에 이를 즈음에 어떤 의사가 참기름을 끓여서 탈지면에 묻혀 지지라고 일러주므로 그대로 했더니 이내 지혈(止血)되는 것을 보았다.

嘗見少陽人 當門二齒齦縫 血出 頃刻間 數碗 將至危境 有醫 教以火熬香油以新綿點油 乘熱灼齒縫 仍爲血止

23. 일찍이 소양인 한 사람이 매일 한 번씩 머리를 빗더니 몇 달 후에 입과 눈이 비뚤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또 다른 소양인에게서 이런 현상을 보았다. 대개 소양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어떤 태음인(太陰人) 80노인이 매일 머리를 빗는 것을 보았는데, 이 노인은 말하기를 “매일 머리를 빗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나는 이렇게 매일 머리를 빗은 지가 거의 40

년이 된다”고 한다.

嘗見少陽人一人 每日一次梳頭 數月後 得口眼喎斜病 其後 又見少陽人  
日梳 得喎斜病者 凡三人 蓋日梳 少陽人禁忌也 嘗見太陰人八十老人日  
梳者 老人 自言曰 日梳極好 我之日梳 已爲四十年云

## 제15장 소양인(少陽人) 처방(處方)

一. 장중경(張仲景) 『상한론(傷寒論)』 중에서 소양인병(少陽人病)에 경험한 처방으로 설정된 십방(十方)

### 1) 백호탕(白虎湯)

석고(石膏) 18.75, 지모(知母) 7.50, 감초(甘草) 2.62, 갱미(粳米) 반합(半合)

(적용) 『상한론(傷寒論)』에 표열(表熱)이 있으면 맥(脈)이 부(浮)하고, 이열(裏熱)이 있으면 맥(脈)이 활(滑)하다. 맥(脈)이 부활(浮滑)할 때에는 백호탕(白虎湯)을 쓰라 하였고, 그 밖에 독감(毒感)·발진성전염병(發疹性傳染病)·마진(麻疹)·뇌막염(腦膜炎)에도 쓰라 하였다.

### 2) 저령탕(猪苓湯)

저령(猪苓)·적복령(赤茯苓)·택사(澤瀉)·활석(滑石)·아교(阿膠) 각 3.75

(적용) 본방(本方)은 주로 소변불리(小便不利)에 쓰며, 요의빈삭(尿意頻數)·혈요(血尿)·부종(浮腫)·임력(淋瀝)·방광염(膀胱炎) 등에도 쓴다.

### 3) 오령산(五苓散)

택사(澤瀉) 19.38, 적복령(赤茯苓)·저금(猪苓)·백출(白朮) 각 5.63, 육계

(육계(肉桂)) 1.88

(적용) 구갈(口渴)이 있고 뇨삽(尿澀)·부종(浮腫)·설사·두통·신장염·방광염 등 주로 이뇨(利尿)를 목표로 할 때에 사용한다.

### 4) 소시호탕(小柴胡湯)

시호(柴胡) 19.38, 황금(黃芩) 7.50, 인삼(人蔘)·반하(半夏) 각 5.63, 감초(甘草) 1.88

(적용) 상한(傷寒) 4, 5일에 신열악풍(身熱惡風)하고, 한열(寒熱)이 왕래하며, 흉협고만(胸脇苦滿) 및 수족이 온(溫)하며 갈(渴)하는 자에 주치(主治)라 하였다.

감기·폐염·학질·간염·담석증·담낭염(膽囊炎)·중이염·황달 등 광범위하게 응용한다.

### 5) 대청룡탕(大靑龍湯)

석고(石膏) 15.00, 마황(麻黃) 11.25, 계지(桂枝) 7.50, 행인(杏仁) 5.63, 감초(甘草) 3.75, 생薑(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적용) 『상한론(傷寒論)』에 중풍(中風) 맥(脈)은 부건(浮緊)하고 발열(發熱)·오한(惡寒)·신체동통(身體疼痛)이 있으며 땀이 나지 않고 변조(煩燥)한 자에게는 대청룡탕(大靑龍湯)을 쓰라 하였다.

열성병(熱性病)·복수(腹水)·단독(丹毒)·천식·관절염 등에도 증(證)에 맞추어 사용한다.

#### 6) 계비각반탕(桂婢各半湯)

석고(石膏) 7.50, 마황(麻黃)·계지(桂枝)·백작약(白芍藥) 각 3.75, 감초(甘草) 1.13,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

(적용) 『상한론(傷寒論)』에는 계지탕(桂枝湯) 2, 월비탕(越婢湯) 1의 비율로 구성된 처방이므로 계지이월비일탕(桂枝二越婢一湯)이라고 하였다.

태양병(太陽病)에 발열악한(發熱惡寒)이 있되 열(熱)이 한(寒)보다 많을 때에 쓴다고 하였다. 간혹 두통·신체동통(身體疼痛)·류머티스·신경통에 쓰는 경우도 있다.

#### 7) 소함흉탕(小陷胸湯)

반하제(半夏製) 18.75, 황연(黃連) 9.38, 고루대자(蒞藎大者) 1/4

(적용) 명치 밑을 누르면 아프고, 맥(脈)이 부(浮)하고 활(滑)한 자(者)에 쓴다. 위통·위산과다·담석증·흉막염 등 증세에 따라 쓴다. 소시호탕(小柴胡湯)과 소함흉탕(小陷胸湯)을 합방(合方)하면 시함탕(柴陷湯)이 되는데, 측간신경통(肋間神經痛)·결핵성 복막염에도 쓸 수 있다.

#### 8) 대함흉탕(大陷胸湯)

대황(大黃) 11.25, 망초(芒硝) 7.50, 감수말(甘遂末) 1.88

(적용) 상한(傷寒) 6, 7일에 실열(實熱)이 있고, 심하(心下)가 단단하며 아프고, 맥(脈)이 부(浮)하며 긴(緊)하고, 신체장실(身體壯實)한 자에 쓴다. 심장신경증(心臟神經症)·충심성각기(衝心性脚氣)에도 쓴다.

#### 9) 십조탕(十棗湯)

완화미초(莞花微炒)·감수(甘遂)·대극초(大戟炒) 각 등분(等分)

위말(爲末)하여 따로 대조(大棗) 10개를 물 120cc 달여서 반 정도가 되면 대조(大棗)를 건져 버리고 그 물에 전기(前記) 분말(粉末)을 복용하되 튼튼한 사람은 3.75g을, 약한 사람은 이의 반 정도를 복용한다.

설사를 한 뒤에는 끓인 죽을 먹여 체력을 돋우어 줄 것이다.

(적용) 습성흉막염(濕性胸膜炎)·수종성각기(水腫性脚氣)·복막염.

#### 10) 신기환(腎氣丸)[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에 오미자(五味子)를 가한 것]

숙지황(熟地黃) 15.00, 산약(山藥)·산수유(山茱萸) 각 7.50, 택사(澤瀉)·목단피(牡丹皮)·백복령(白茯苓) 각 5.63, 오미자(五味子) 3.75

(적용) 허노(虛勞)·두통·급만성신장염·음위증(陰萎證)·조루·당뇨병·야뇨증·고혈압·부인잡병(婦人雜病)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二. 원(元)·명(明) 이대(二代)에 걸쳐서 의가(醫家)들이 저술한 의서(醫書) 중에 소양인병(少陽人病)에 경험한 것을 뽑은 구방(九方)

1) 양격산(涼膈散)

연교(連翹) 7.50, 대황(大黃)·망초(芒硝)·감초(甘草) 각 3.75, 박하(薄荷)·황금(黃芩)·치자(梔子) 각 1.88

(적용) 화제국(和劑局)에서 나온 처방으로, 적열(積熱)로 인한 번조증(煩躁證)과 입안이 헐고 혀가 갈라지며 눈이 붉고 머리가 어지러운 데 사용하며, 급성열병(急性熱病)·구내염(口內炎)·두창(頭瘡)·피부병·비혈(鼻血) 등에도 쓰인다.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대황(大黃)·황금(黃芩)·감초(甘草)를 빼야 한다.

2) 황연저두환(黃連猪肚丸)

웅저두(雄猪肚) 1개, 황연(黃連)·소맥분초(小麥粉炒) 각 187.50, 천화분(天花粉)·백복령(白茯苓) 각 150.00, 맥문동(麥門冬) 75.00

전부 가루를 만들어서 돼지 밥통에 집어넣고 봉한 뒤에 시루에 찌서 절구에 찼은 뒤에 오자대(梧子大)로 환(丸)을 만든다. 매 백 개씩 미음(米飮)에 먹는다.

(적용) 위역림(危亦林)의 『득효방(得効方)』에서 나온 강중증(強中證)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맥문동(麥門冬) 한 가지는 폐(肺)의 약이다. 폐(肺)와 신(腎)은 하나는 들어 올리고 하나는 내리는 작용을 하여 상하로 관통하게 된다.

신장약(腎臟藥) 다섯 가지 중에 폐약(肺藥) 한 가지가 들어 있으니 비록 굳어지기 같기는 하나 무방하다고 보며 책할 필요는 없다.

[주(註)] 웅저두(雄豬肚)는 수돼지의 밥통이고, 강중(強中)이란 음경(陰莖)이 발기되어 정액이 유출되는 것이다.

이는 색욕(色慾)에 탐닉하는 자가 광물성(礦物性)[금석지제(金石之劑)]의 약을 오래 써서 원기(元氣)가 소모되었는데도 금석(金石) 기운만 남아 있어 허양(虛陽)이 떠오르므로 성교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정액이 흘러나온다. 증세로는 소변이 잦고 입이 마르며 입술이 꺼멥게 타고, 정액이 흐르다가 나중에는 피로 변한다. 만일 조갈증이 있고 또 종기가 생기면 죽는다. 완전히 음(陰)이 고갈된 상태이니 치료가 어렵다.

### 3)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숙지황(熟地黃) 15.00, 산약(山藥) · 산수유(山茱萸) 각 7.50, 택사(澤瀉) · 목단피(牡丹皮) · 백복령(白茯苓) 각 5.63

우박(虞博) 『의학정전(醫學正傳)』에서 나온 허노증(虛勞證)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적용) 신허(腎虛)로 인한 피로, 정력 부족 · 유정(遺精) · 요통 · 이명(耳鳴) · 구갈(口渴) · 약시(弱視) · 치조염(齒槽炎), 기타 신장염 · 고혈압 · 당뇨병 등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산약(山藥) 한 가지는 폐약(肺藥)이다.

### 4) 생숙지황환(生熟地黃丸)

생지황(生地黃) · 숙지황(熟地黃) · 현삼(玄蔘) · 석고(石膏) 각 37.50

풀로 오자대(梧子大)로 환(丸)을 만들어서 빈속에 50~70개를 엽차에 복용한다.

(적용) 이천(李梴)의 『의학입문(醫學入門)』에서 나온 것인데 주로 눈이 침침한 데 쓴다. 감면(疳眠)·내유몽무(內有朦霧)에도 사용한다.

#### 5) 도적탕(導赤湯)

목통(木通)·활석(滑石)·황백(黃柏)·적복령(赤茯苓)·생지황(生地黃)·산치자(山梔子)·감초초(甘草梢) 각 3.75, 지각(枳殼)·백출(白朮) 각 1.88

(적용) 공신(龔信)의 『만병회춘(萬病回春)』에서 나온 것으로, 오줌 빛이 쌀뜨물 같을 때에 불과 한두 첵만 먹어도 낫는다.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지곡(枳穀)·백출(白朮)·감초(甘草)는 빼야 한다.

#### 6)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강활(羌活)·독활(獨活)·시호(柴胡)·전호(前胡)·적복령(赤茯苓)·형개수(荊芥穗)·방풍(防風)·지각(枳殼)·길경(桔梗)·천궁(川芎)·인삼(人蔘)·감초(甘草) 각 3.75, 박하소허(薄荷少許)

(적용) 공신(龔信)의 『의감(醫鑑)』에서 나온 것이다. 상한(傷寒)이나 유행성감기로 인한 발열(發熱)·두통(頭痛)·항강(項強)·지체번통(肢體煩痛)에 사용한다.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이 처방에서 지각(枳殼)·길경(桔梗)·천궁(川芎)·인삼(人蔘)·감초(甘草)는 마땅히 버려야 한다.

### 7) 비아환(肥兒丸)

호황연(胡黃連) 18.75, 사군자육(使君子肉) 6.88, 인삼(人蔘) · 황연(黃連) · 신국(神麴) · 맥아(麥芽) · 산사육(山査肉) 각 13.13, 백복령(白茯苓) · 백출(白朮) · 감초구(甘草灸) 각 11.25, 노회단(蘆薈煨) 9.38

위말(爲末)하여 차좁쌀로 풀을 쑤어 녹두알만 한 크기로 환(丸)을 만들어서 한 번에 20~30환(丸)씩 미음에 복용한다.

(적용) 이 처방은 ‘태평혜민(太平惠民) 화제국방(和劑局方)’에서 나온 것으로, 소아(小兒)의 감병(疳病)이나 식적(食積)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또 소충(消蟲) · 진식(進食) · 소아(小兒) 식적(食積) · 오감증(五疳證)을 치료한다.

이제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인삼(人蔘) · 백출(白朮) · 산사육(山査肉) · 감초(甘草)는 빼야 하고 사군자(使君子) 한 가지는 아직 경험이 없어 약성(藥性)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감히 가벼이 말할 수 없다.

### 8) 소독음(消毒飲)

우방자(牛蒡子) 7.50, 형개수(荊芥穗) 3.75, 생감초(生甘草) · 방풍(防風) 각 1.88

(적용) 이 처방은 공신(龔信)의 『의감(醫鑑)』에서 나온 것으로, 마증(癰證)에 발반(發斑)이 잘 안 되거나 가슴에 조밀하게 보일 때에 3, 4복 하면 쾌하게 나오고 독이 풀리며 신표하게 낫는다.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이 처방에서 감초(甘草)는 빼야 한다.

### 9) 수은훈비방(水銀熏鼻方)

흑연(黑鉛) · 수은(水銀) 각 3.75, 주사(朱砂) · 유향(乳香) · 몰약(沒藥)

각 1.88, 혈갈(血蝟) · 웅황(雄黃) · 침향(沈香) 각 1.13

위말(爲末)하여 종이에 말아서 일곱 대의 훈비(熏鼻)를 만든다. 이것을 한제이며, 한 객씩 불에 태우되 향유(香油)에 등불을 켜서 상 위에 놓고 병자로 하여금 두 다리를 뻗게 하고 흠이불을 뒤집어씌운 뒤에 자주 냉수를 물어 뱉으며 혼을 해야 입을 상하지 않는다. 첫날에는 세 대를 피우고 다음은 매일 한 대씩 훈비(熏鼻)를 계속한다.

(적용) 이 처방은 주진형(朱震亨)의 『단계심법(丹溪心法)』에서 나온 것으로, 양매창(楊梅瘡)(매독) · 천포창(天疱瘡) · 두창(痘瘡) 등에 매우 신효하다.

1. 나는 이렇게 말한다. “수은(水銀)은 적열(積熱)을 치고 두(頭) · 목(目)을 맑게 하며, 장(陽)을 억제하여 음(陰)을 하초(下焦)에 돌아오게 하는 약이니 소양인(少陽人)에게 장(陽)을 억제하고 음(陰)을 북돋아 주는 약 중에 이를 대적할 만한 약이 없다. 그러나 단지 당일로 구급(救急)하는 데만 쓸 것이요, 여러 날 계속하여 보음(補陰)하는 약으로 쓸 수 없다. 비유컨대 태산을 뽑아 들고 가마솥을 둘러메는 힘으로 한 번 들어서 대적(大敵)의 소굴을 두들겨 칠 것이요, 두 번 다시 치게 되면 적(敵)은 이미 분산된 뒤라 도리어 창을 거꾸로 들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전후풍(纏喉風) 같은 데는 반드시 써야 할 약이다.”

論論曰水銀 破積熱 清頭目 制陽回陰於下焦 爲少陽人 抑陽扶陰藥中 無敵之藥 而祇可用之於當日救急之用 不可用之於連日補陰之用者 以其拔山扛鼎之力 一舉而直搗大敵之巢穴 再舉則敵已解散 反有倒戈之患故也 纏喉風必用之藥

[주(註)] ○전후풍(纏喉風): 인후가 크게 붓는 병이다. 목안이 빨  
 경게 붓고 실갈이 엉키어 호흡이 곤란해지며, 고열이 있다. 빨  
 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데, 이 병은 현대 의학의 디프테리아에  
 해당한다.

2. 소양인(少陽人)의 한쪽 다리 또는 양쪽 다리를 못 쓰는 병에는  
 경분말(輕粉末)을 0.19g 혹은 0.38g을 사흘 동안 계속하되 병이 낫든  
 지 낫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3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또 하루에  
 0.19g이나 0.38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또 약을 쓸 때에는 절대로 바  
 람을 찌거나 냉하게 해서는 안되며, 금기(禁忌)는 삼가야 한다. 한 팔  
 을 못 쓰거나 반신불수(半身不遂)·구안와사(口眼喎斜)에는 절대로 써  
 서는 안 되며, 쓰면 반드시 위험할 것이다.

少陽人 一脚不遂 兩脚不遂者 輕粉末五厘或一分 連三日服 無論病之瘥  
 不瘥 必不過三日服 又不過日服五厘或一分 謹風冷慎禁忌 一臂不遂 半  
 身不遂 口眼喎斜不可用 用之必危

3. 급한 병에는 급히 다스려야 하지만 완만한 병을 급히 다스려서  
 는 안 된다. 경분(輕粉)은 위험한 약이므로 재빨리 써서 속효(速効)를  
 바라서는 안 된다. 완만한 병은 점진적으로 나아가 완전히 낫는 것  
 이다. 만일 완만한 병에 속효(速効)를 거두면 반드시 재발될 것이요  
 재발되면 치료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흘 동안 써야 하는 자가 있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며 연 세 차례 써야 하  
 는 자가 있다.

急病 可以急治 緩病 不可以急治 輕粉 劫藥不可銳意用之 以望速效 緩



病 緩愈然後 可謂眞愈 緩病 速效則終必更病 難治 有連三日用之者 有  
間一二三日服 連三次用之者

4. 일찍이 소양인(少陽人) 인후병(咽喉病)·눈병·코병 및 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에 수은(水銀)을 3, 4일간 썼는데, 훈비(熏鼻)를 하기도 하고 내복(內服) 하기도 하여 병이 나은 자가 있었다. 그런데 병이 낫고 한 달 동안은 반드시 찬 곳에 거처하거나 찬바람을 쐬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멋대로 세면을 하거나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머리를 빗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특히 찬방에서 거처하지 말아야 하니, 찬방에서는 냉기(冷氣)를 쐬어 죽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더운 방에 거처해도 안 되니 너무 더운 방에서는 번열(煩熱)이 나서 창문을 열어 놓고 찬바람을 쐬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이다. 이는 모두 목격한 일들이다. 즉 어떤 사람이 병이 나은지 십여 일 만에 새 옷을 갈아입다가 갑자기 죽었고, 다른 한 사람도 병이 나은 지 20일 만에 머리를 빗다가 죽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목병에 훈비(熏鼻)를 하는데 첫날 두 대, 다음 날에는 한 대씩 피웠다. 그런데 그날 밤에 더운 방에서 찬바람을 쐬더니 갑자기 죽었다.

전하는 말에 수은(水銀)을 쓰는 자는 간장을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간장은 매주로 만들었으므로 수은(水銀) 독을 풀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한 약은 약간의 독을 풀어 주는 것도 무방하니 구태여 간장을 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嘗見少陽人 咽喉病 眼鼻病 脚痺病 用水銀連三四日 或熏鼻 或內服病愈  
者 病愈後一月之內 必不可內處冷外觸風 尤不可任意洗手洗面 更着新衣

梳頭也 犯此禁者 必死 又不可冷室 冷室則觸冷而猝死 又不可燠室 燠室則煩熱開闢 觸風而亦猝死 此皆目擊者也 一人病愈十餘日 更着新衣而猝死 一人病愈二十日後 梳頭而猝死 一人 咽喉病熏鼻 初日二條翌日一條 當夜燠室觸風而猝死 時俗服水銀者 忌鹽醬者 以醬中 有豆鼓 能解水銀毒故也 然 毒藥解毒 容或無妨則不必苛忌鹽醬

### 三. 새로 설정한 소양인병(少陽人病)에 응용하는 요약(要藥) 십칠방(十七方)

#### 1)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강활(羌活) · 독활(獨活) · 시호(柴胡) · 전호(前胡) · 형개(荊芥) · 방풍(防風) · 적복령(赤茯苓) · 생지황(生地黃) · 지골피(地骨皮) · 차전자(車前子) 각 3.75

(적용) 『증치준승방(證治準繩方)』에는 풍(風)과 열(熱)이 상박(相搏)하여 병사(病邪)가 표(表)에 있을 때에 쓴다고 하였다. 소양증(少陽證)으로 머리가 아프고 목 안이 마르며 눈알이 쭈시고 콧속이 조(燥)하며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귀가 먹먹한 데에 쓴다. 특히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세에 특효가 있으며, 그 밖에 두통 · 불거리 · 치통 · 편도선염 · 종기 등 그 용도가 매우 광범위하다. 소양인 몸살 · 감기 · 학질에는 대표적 처방이다.

#### 2) 형방도적산(荊防導赤散)

생지황(生地黃) 11.25, 목통(木通) 7.50, 현삼(玄蓼) · 과루인(瓜蒌仁) 각 5.63, 전호(前胡) · 강활(羌活) · 독활(獨活) · 형개(荊芥) · 방풍(防風) 각 3.75

(적용)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뜨거운 데에 쓴다. 감기·몸살이 오래되어 약간 한열(寒熱)이 있다 없다 하며 번조증(煩燥證)이 있을 때 쓴다.

### 3) 형방사백산(荊防瀉白散)

생지황(生地黃) 11.25, 복령(茯苓)·택사(澤瀉) 각 7.50, 석고(石膏)·지모(知母)·강활(羌活)·독활(獨活)·형개(荊芥)·방풍(防風) 각 3.75

(적용) 외감증(外感證)으로 한열(寒熱)이 왕래하고 두통·번조(煩燥)하며 볼두덩 위가 빠근하고 소변이 적습(赤澁)한 데, 또는 망음증(亡陰證) 설사에 쓴다.

### 4) 저령차전자탕(猪苓車前子湯)

택사(澤瀉)·복령(茯苓) 각 7.50, 저령(猪苓)·차전자(車前子) 각 5.63, 지모(知母)·석고(石膏)·강활(羌活)·독활(獨活)·형개(荊芥)·방풍(防風) 각 3.75

(적용) 두통이 있고 배가 아프며 신열(身熱)이 나면서 설사를 하는 데에 신호(神効)하다.

### 5) 골석고삼탕(滑石苦參湯)

택사(澤瀉)·복령(茯苓)·활석(滑石)·고삼(苦參) 각 7.50, 천황련(川黃連)·황백(黃柏)·강활(羌活)·독활(獨活)·형개(荊芥)·방풍(防風) 각 3.75

(적용) 설사는 없고 배만 아픈 데 쓴다. 하루에 4, 5차씩 간헐적으로 복통을 일으키고 이것이 여러 날 지속할 때 유효하다.

6) 독활지황탕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獨活地黃湯)

숙지황(熟地黃) 15.00, 산수유(山茱萸) 7.50, 복령(茯苓) · 택사(澤瀉) 각 5.50, 목단피(牡丹皮) · 방풍(防風) · 독활(獨活) 각 3.75

본방(本方)은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의 변방(變方)이며, 산약(山藥)을 빼고 방풍(防風) · 독활(獨活)을 가한 것이다.

(적용) 우박(虞博)의 『의학정전(醫學正傳)』에는 허노(虛勞)를 치료한다 하였다. 또 음식에 체(滯)하여 속이 가득하거나 음허(陰虛)하여 오후에 미열(微熱)이 오르며 중풍 · 고혈압 · 당뇨병 · 폐결핵 · 구한과사(口限喎斜) · 학질 · 퇴각무력(腿脚無力) · 야뇨증 · 유정(遺精) · 신장질환 등 소양인 음허증(陰虛證)에서 오는 일체의 병에 쓰는 대표적 처방이다.

7)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

숙지황(熟地黃) · 산수유(山茱萸) · 복령(茯苓) · 택사(澤瀉) 각 7.50, 차전자(車前子) · 강활(羌活) · 독활(獨活) · 형개(荊芥) · 방풍(防風) 각 3.75

본방(本方) 역시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의 변방(變方)이다. 설사를 오래하여 망음증(亡陰證)이 된 데 가장 유효하며, 본방(本方)에 가감하면 다각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수(咳嗽)에는 전호(前胡)를 가하고, 어혈병(瘀血病)에는 현삼(玄蔘) · 목단피(牡丹皮)를 가하며, 편두통에는 황련(黃連) · 우방자(牛蒡子)를 가하고, 식체(食滯)로 가슴이 답답할 때에는 목단피(牡丹皮)를 가하고, 화(火)가 떠오를 때에는 석고(石膏)를 가해야 한다. 만일 두통이 있고 번열(煩熱)이 나며 객혈(咯血) · 토혈(吐血)이 있을 때에는 숙지황(熟地黃)을 생지황(生地黃)으로 바꾸어야 하고, 석고(石膏)를 가

미할 때에는 산수유(山茱萸)를 빼야 한다. 형개(荊芥)·방풍(防風)·강활(羌活)·독활(獨活) 등의 약재는 소양인 처방에는 어디에나 들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는 본래가 보음(補陰)하는 공이 크기 때문이다.

형개(荊芥)·방풍(防風)은 흉격(胸膈)을 맑게 하고 바람을 흩어버리며, 강활(羌活)·독활(獨活)은 상초(上焦)의 진음(眞陰)을 크게 보(補)한다. 무릇 두통·복통·식체비만(食滯痞滿)·설사를 막론하고 허약한 자에게 수백 첩을 써준다면 반드시 효력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러 번 시험하여 효험을 본 일이 있다.

#### 8) 십이미지황탕(十二味地黃湯)

숙지황(熟地黃) 15.00, 산수유(山茱萸) 7.50, 백복령(白茯苓)·택사(澤瀉) 각 5.63, 목란피(牡丹皮)·지골피(地骨皮)·현삼(玄蓼)·구기자(枸杞子)·복분자(覆盆子)·차전자(車前子)·형개(荊芥)·방풍(防風) 각 3.75

(적용) 폐(肺)·기관지(氣管支)에서 나오는 객혈(咯血) 또는 위출혈(胃出血)·비출혈(鼻出血)에도 쓴다. 형방지황탕(荊防地黃湯)을 쓰는 병증과 같으며, 혈증(血證)에는 매우 신효(神效)하다.

#### 9)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

석고(石膏) 18.75~37.50, 생지황(生地黃) 15.00, 지모(知母) 7.50, 방풍(防風)·독활(獨活) 각 3.75

(적용) 고도의 열이 오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헛소리를 하거나 대변이 불통한 데에 쓴다. 또한 열성병(熱性病)에 번조증(煩燥證)이 생겨서 손발을 내던지고 조갈이 심하여 물을 찾고 때로는 발광증을 일

으킬 때에 쓰며, 혀가 말리고 전신 경련을 일으킬 경우에 급히 쓰는 약이다.

본방(本方)은 『상한론(傷寒論)』의 백호탕(白虎湯) 변방(變方)인데, 오한(惡寒)은 없고 복만(腹滿)·한출(汗出)·구갈(口渴) 혹은 섬어(譫語)·발광(發狂)·대갈인음(大渴引飲)·번조자(煩燥者)에 쓴다고 하였다.

#### 10) 양독백호탕(陽毒白虎湯)

석고(石膏) 18.75~37.50, 생지황(生地黃) 15.00, 지모(知母) 7.50, 형개(荊芥)·방풍(防風)·우방자(牛蒡子) 각 3.75

(적용)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의 용도와 거의 같으며 특히 유행성 질환에 열독(熱毒)으로 말미암아 발반(發斑)·발진(發疹)이 될 경우에는 매우 신효(神効)하다. 소양인의 인후병·디프테리아[전후풍(纏喉風)]와 진중(唇腫)·면중(面腫) 등은 매우 위급한 병이므로 반드시 본방(本方)을 써야 한다.

주약(主藥)은 석고(石膏)이며 청열(淸熱)·강화(降火)하는 작용을 하고, 발반(發斑)·발진(發疹)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약이다.

#### 11) 양격산화탕(涼膈散火湯)

생지황(生地黃)·인동등(忍冬藤)·연교(連翹) 각 7.50, 산치자(山梔子)·박하(薄荷)·지모(知母)·석고(石膏)·방풍(防風)·형개(荊芥) 각 3.75

(적용) 당뇨병 초기에 쓰고, 디프테리아·진중(唇腫) 등 초증(初症)에 쓴다. 상초(上焦)·심(心)·폐(肺)에 열이 있어 얼굴이 붉고 두통·구갈(口渴)·설태(舌苔)가 있을 때에 쓴다.

본방(本方)은 ‘화제국방(和劑局方)’의 변방(變方)이며, 실열(實熱)이

있고 심화(心火)가 상성(上盛)하거나 중초(中焦)에 조실(燥實)하여 다갈(多渴)·두혼(頭昏)·목적(目赤)·면발독열(面發毒熱)·설종(舌腫)·후폐(喉閉)·토혈(吐血)·녹혈(衄血)·협종(頰腫)·대소편비(大小便秘)·발반(發斑)·섬어(譫語)·발광(發狂) 등에 쓴다고 하였다.

#### 12) 인동등지골피탕(忍冬藤地骨皮湯)

인동등(忍冬藤) 15.00, 산수유(山茱萸)·지골피(地骨皮) 각 7.50, 천황연(川黃連)·황백(黃柏)·현삼(玄蔘)·고삼(苦蔘)·생지황(生地黃)·지모(知母)·산치자(山梔子)·구기자(枸杞子)·복분자(覆盆子)·형개(荊芥)·방풍(防風)·금은화(金銀花) 각 3.75

(적용) 소갈증(消渴證) 중기에 쓴다. 중소증(中消證)은 아무리 먹어도 시장기가 드는 것을 말한다. 오줌 빛이 붉고, 구갈(口渴)도 또한 심하다.

#### 13) 숙지황고삼탕(熟地黃苦蔘湯)

숙지황(熟地黃) 15.00, 산수유(山茱萸) 7.50, 백복령(白茯苓)·택사(澤瀉) 각 5.63, 지모(知母)·황백(黃柏)·고삼(苦蔘) 각 3.75

(적용) 소갈증(消渴症) 말기에 쓴다. 하소증(下消證)은 색욕이 과도하여 위로 심장과 아래로 신장의 기(氣)가 승강작용을 하지 못하므로 심화(心火)가 상염(上炎)하고 신허수화(腎虛水涸)하여 이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또 태반(胎盤)이 나오지 않는 데도 쓴다.

#### 14) 목통대안탕(木通大安湯)

목통(木通)·생지황(生地黃) 각 18.75, 적복령(赤茯苓) 7.50, 택석(澤

瀉) · 차전자(車前子) · 천황연(川黃連) · 강활(羌活) · 방풍(防風) · 형개(荊芥) 각 3.75

(적용) 본방(本方)은 소양인의 부종(浮腫)을 다스리는 데 가장 유효한 처방이다. 소양인의 부종은 본래가 음증(陰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적어도 백 첩은 써야 한다.

혹 천황연(川黃連)은 비싼 약재이기 때문에 빼고 써도 좋다.

#### 15) 황연청장탕(黃連淸腸湯)

생지황(生地黃) 15.50, 목통(木通) · 복령(茯苓) ·택석(澤瀉) 각 7.50, 지령(豬苓) · 차전자(車前子) · 천황연(川黃連) · 강활(羌活) · 방풍(防風) 각 3.75

(적용) 목방(木方)은 이질(痢疾)에 신효(神効)하다. 여기서 목통(木通)을 빼고 형개(荊芥) 3.75g을 가하면 임질(淋疾)에도 쓸 수 있다.

#### 16) 주사익원산(朱砂益元散)

활석(滑石) 7.50, 택석(擇瀉) 3.75, 감수(甘遂) 1.88, 주사(朱砂) 0.375  
곱게 가루를 만들어서 온수(溫水)나 정화수(井華水)로 먹는다.

(적용) 여름철에 더위를 씻는 매우 좋은 약이다.

본방(本方)은 유하간방(劉河澗方)에서 나온 익원산(益元散)의 변방(變方)이다. 일명 육일산(六一散)이라고도 하며 더위를 먹고 토사(吐瀉)를 하는 데 쓰며, 모든 약독(藥毒)과 주독(酒毒) 또는 식중독(食中毒)에도 매우 좋다.



17) 감수천일환(甘遂天一丸)

수말(遂末) 3.75, 경분말(輕粉末) 0.375

이 두 가지 약을 풀로 환(丸)을 짓되 열 개로 만들고 주사(朱砂)로 겹을 입힌다. 만일 만들어 둔 것이 오래되어 딱딱하면 종이로 두세 겹을 싸고 방망이로 뺨아서 거친 채 덩어리로 만들어 입에 넣고 정화수(井華水)로 넘긴다. 그 후 3, 4시간 기다려서 설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두 알을 쓴다. 설사를 서너 차례 하면 알맞고 5, 6차면 지나치게 되니 미리 미음을 끓여 두었다가 2, 3차 설사를 하거든 이내 미음을 먹인다. 그렇지 않으면 기운이 빠져서 견디어 내기가 어렵다.

(적용) 결흉증(結胸證)이 되어 물을 마시면 즉시 토하는 데는 감수(甘遂)가 위주(爲主)된다. 결흉(結胸)이란 명치 밑이 답답하고 단단하며 아프고 물을 마셔도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담(痰)이 차 있는 관계로 생각된다. 혹자는 수결흉(水結胸)은 장액성흉막염(醬液性胸膜炎)이라고도 하였다. 이런 경우 소양인 체질에는 감수위군(甘遂爲君)하는 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감수(甘遂) 3.75g, 경분(輕粉) 1.88g으로 열 개의 환약(丸藥)으로 만들면 이것을 경분감수룡호란(輕粉甘遂龍虎丹)이라 하고, 경분(輕粉)·감수(甘遂)를 같은 양으로 열 개를 만들면 경분감수자웅단(輕粉甘遂雌雄丹)이라 하며, 경분(輕粉) 3.75g, 유향(乳香)·몰약(沒藥)·감수(甘遂) 각 1.88g으로 30환(丸)으로 만들면 유향몰약경분환(乳香沒藥輕粉丸)이라 한다.

경분(輕粉)은 땀을 내고 감수(甘遂)는 하수(下水)를 시킨다. 경분(輕粉)의 약력(藥力)은 0.375g이면 쾌속하고 0.19g이면 미치지 못할 리 없다.

감수(甘遂)는 약력(藥力)이 0.56g이면 쾌족하고 0.26g이나 0.30g이면 부족하지 않다. 경분(輕粉)과 감수(甘遂)는 모두 독약이기 때문에 0.375g이라도 경솔하게 초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중을 짐작하여 써야 한다.

두뇌에 화기(火氣)가 있는 것을 씻고자 할 때는 경분(輕粉)을 위군(爲君)해야 하고, 흉격(胸膈) 밑에 있는 수기(水氣)를 내리고자 할 때는 감수(甘遂)를 위군(爲君)해야 한다.

이상 소양인(少陽人) 약의 모든 종류는 포(炮)·구(灸)·초(炒)·외(煨)를 해서는 안 된다.

※ 소양인(少陽人)의 약성(藥性)[동무유고(東武遺稿)]

藥名	藥性	解說
熟地黄	補腎和腎	신장의 기운을 돋우며 온화하게 한다.
山茱萸	健腎直腎	신장의 기운을 튼튼하게 하고 바르게 한다.
茯苓	固腎立腎	신장의 기운을 굳히고 바로 세운다.
知母	壯腎而有內守之力	신장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안을 지키는 힘이 있다.
澤瀉	壯腎而有外攘之力	신장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다.
木通	壯腎而有充足 內外之力	신장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안팎을 충족시키는 힘이 있다.
牡丹皮	錯綜腎氣之 參伍勻調	신장의 기운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것을 고르게 한다.
黃柏	壯斂腎元	신장의 원기를 견우어 들인다.
桑椹	安精定志	정기와 의지를 안정시킨다.
枸杞子	〃	〃
石花	溢骨髓	골수를 차고 넘치게 한다.
童便	〃	〃
菰蕒仁	豁腎痰	신장의 담을 풀리게 한다.
竹瀝	〃	〃
羌活	解腎氣之表邪 而羌活優力	신장의 기운에 표사를 풀어 주는 데는 강활이 강한 힘이 있다.

防風	解腎氣之表邪	신장의 기운에 표사를 풀어 준다.
黃連	醒腎之眞氣	신장의 진기를 깨우쳐 준다.
梔子	〃	〃
滑石	滌腎之穢氣	신장의 더러운 기를 씻는다.
豬苓	〃	〃
麥芽	開胃之胃氣 而消食進食	신장의 위기를 열어주어 음식 소화를 잘 시키고 입맛을 돋 우어 준다.
生薑	〃	〃
地骨皮	〃	〃
竹茹	〃	〃
石膏	爲腎元帥之藥能驅逐 腎元氣弱而不能除外 熱熱氣侮腎周一廻凌 浸於胃之四圍府	신장의 으뜸가는 약이다. 신장 원기가 약하여 외열을 쫓아 내지 못하므로 열기가 제멋대로 돌면서 위기를 범할 때에 쓴다.
輕粉	除腎之久病	신장의 오랜 병을 없애 한다.
甘遂	通腎之結胸	신장의 기운을 통하고 결흉을 치료한다.

※ 소양인(少陽人)의 요약(要藥)[본초강목(本草綱目)].

감수(甘遂)[다년생 유독초(有毒草)인 개삼수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한(寒)·유독(有毒)하고, 미(味)는 고(苦)·감(甘)하다.

주치(主治)－부종(浮腫)·산하(疝瘕)·적취(積聚)·대소변(大小便) 불  
통(不通)에 쓰고, 거담(祛痰)·축수(逐水)·방광열(膀胱熱)을 치며, 음  
낭종창(陰囊腫瘡)·간질(癰疾)에도 쓴다.

강활(羌活)(다년생초인 강활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미온(微溫)·무독(無毒)하며, 미(味)는 신(辛)·  
고(苦)하다.

주치－풍(風)을 발산하는 주약(主藥)이다. 열풍(風熱)·담통(痰痛)·  
골절통(骨節痛)·중풍(中風)·반신불수(半身不遂)·구안괘사(口眼喎斜)·

옹종(癰腫) · 배농(排膿) · 발한(發汗) · 발한(發汗)한다.

경분(輕粉)[수은(水銀)을 법제(法製)해서 만든 것]

성미(性味)－성(性)은 냉(冷)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개선(疥癬) · 풍양(風痒) · 나력(癰瀝) · 주사(酒皰) · 소아(小兒)의 감병(疔病) · 양매창(楊梅瘡) 및 살충약(殺蟲藥)으로 쓴다.

고삼(苦蓼)[속명(俗名) 도독놈의 지팡이]

성미(性味)－성(性)은 대한(大寒)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 · 미색(微澀)하다.

주치－고미(苦味) 건위제(健胃劑)이며, 또 신장(腎臟)의 군약(君藥)이다. 위열(胃熱) · 번조(煩燥)를 사(瀉)하며, 해독작용을 하고, 청열(淸熱) · 습열(濕熱)을 친다. 옹저(癰疽) · 개창(疥瘡) · 악창(惡瘡) · 대풍창(大風瘡) · 마창(麻瘡) · 양매창(楊梅瘡) · 라력(癰癰) · 이질(痢疾) · 장풍하혈(腸風下血) · 출혈(出血) · 대하(帶下) · 심복결기(心腹結氣) · 징하(癥瘕) · 적취(積聚)를 치료한다.

과루인(瓜蒌仁)(하눌타리 씨)

성미(性味)－성(性)은 한(寒)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거(苦) · 감(甘)하다.

주치(主治)－기천(氣喘) · 결흉(結胸) · 담수(痰嗽) · 옹종(癰腫) · 소갈(消渴)에 쓴다. 윤심폐(潤心肺) · 윤장(潤腸) · 유즙(乳汁) 부족(不足)에도 쓴다.

구기자(枸杞子)(구기자나무 열매)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고(苦)하다.

주치(主治)－거풍(祛風)·명목(明目)·보정(補精)·강음(強陰)·장양(壯陽)·자신(滋腎)·윤폐(潤肺)·익간(益肝)·강근육(強筋肉)·제풍습비(除風濕痺)·치소갈(治消渴)·대허로(大虛勞) 및 대소장(大小腸)을 윤택하게 한다.

금은화(金銀花)(인동덩굴 꽃)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습(濕)을 맑히고 열독(熱毒)을 치며, 또 소염(消炎)·이뇨(利尿)·살균작용(殺菌作用)을 한다. 열성병(熱性病)·화농성질환(化膿性疾患)·급만성(急慢性) 임질(淋疾)·매독(梅毒)·이질(痢疾)·농창(膿瘡)·옹저(癰疽)·개선(疥癬)·악종(惡腫)·인후병(咽喉病)에 쓴다.

독활(獨活)(두릅나무과에 속한 다년생초인 독활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평(平)·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고(苦)하고 약간 신(辛)하다.

주치(主治)－제습(除濕)·거풍(祛風)·행혈(行血)·서근(舒筋)한다. 신장(腎臟)에 풍(風)을 받아서 일어나는 두통(頭痛)·경항통(頸項痛)·요배강직(腰背強直)과 둔퇴동통(臀腿疼痛)·양족습비(兩足濕痺)를 치료한다. 강활(羌活)은 표기(表氣)를 발산(發散)하고, 독활(獨活)은 이기(裏氣)·조표(助表)하므로 양자는 반드시 조화되어야 한다.

목단피(牧丹皮)(모란 뿌리의 껍질)

성미(性味)－성(性)은 한(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복화(伏火)를 치고 신기부족(神氣不足)을 양(養)하며, 기(氣)와 혈(血)을 함께 친다. 무한(無汗)·골증(骨蒸)에도 쓴다.

목통(木通)(으름덩굴)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청량성(淸涼性) 소염(消炎)·이뇨제(利尿劑)이다. 열폐(熱閉)로 소변불리(小便不利)한 데 주약(主藥)이며, 신장염(腎臟炎)·급성(急性) 요도염(尿道炎)·요삼(尿澀)·대갈인음(大渴引飲)·심번불면(心煩不眠)·경계(驚悸)·옹저(癰疽)·악창(惡瘡)에 쓴다.

몰약(沒藥)[아프리카산 관목(灌木)인 몰약나무의 지(脂)]

성미(性味)－성(性)은 평온(平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파혈(破血)·지통(止痛) 및 연장에 다친 데, 악창(惡瘡)·치루(痔瘻)에 쓰며, 진통작용도 강하다.

박하(薄荷)(박하 잎)

성미(性味)－성(性)은 양(涼)·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고 미고(微苦)하다.

주치(主治)－신양성(辛涼性) 발한해독제(發汗解毒劑)이다. 위장의 이상발효(異常發酵)를 억제하고, 모세혈관을 확장하여 한선(汗腺) 분비를 촉진한다.

산풍열(散風熱)·청두목(淸頭目)·이관절(利關節)·지녹혈(止衄血)·

치중풍실음(治中風失音) · 구치제병(口齒諸病)을 치료하고, 충독상(蟲毒傷) · 발한(發汗) · 해울(解鬱) · 토담(吐痰) · 파혈(破血) · 하기(下氣) · 건위(健胃)에 쓴다.

방풍(防風)(방풍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 · 신(辛)하다. 기(氣)가 경(輕)하여 장(陽)에 속한 약이다.

주치(主治)－구풍(驅風) · 해독(解毒) · 발한(發汗) · 진통(鎮痛) · 수간(搜肝) · 사폐(瀉肺)하고, 기표(肌表)의 제풍열(諸風熱)을 친다. 척강(脊強) · 두통 · 골절통(骨節疼痛) · 사지런급(四肢攣急) · 중풍 · 반신불수 · 악한발열(惡寒發熱) · 비습설사(脾濕泄瀉) · 열창(熱瘡)을 치료한다.

백복령(白茯苓)[솔뿌리에 기생하는 균체(菌體)]

성미(性味)－성(性)은 평(平)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 · 담(淡)하며 약간 삼(澁)하다. 기미구(氣味俱)하여 양(陽)에 속한다.

주치(主治)－건비화습(健脾化濕) · 행담(行痰) · 이뇨(利尿) · 지갈(止渴) · 치수종(治水腫) · 제허열(除虛熱) · 안심신(安心神)한다.

복분자(覆盆子)(복분자 딸기의 과실)

성미(性味)－성(性)은 평(平)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 · 산(酸)하다.

주치(主治)－보허(補虛) · 강음(強陰) · 건양(健陽) · 명목(明目) · 보신보신(補腎補腎) · 익기익기(益氣益氣)한다.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얼굴빛이 고와지며, 소아유요(小兒遺尿) · 음위증(陰痿症) · 불임증(不妊症)

에 쓴다.

산수유(山茱萸)(산수유나무의 과실)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미온(微溫)하고 무독(無毒)하며, 미(味)는 산(酸)하다.

주치(主治)－빈혈·신경쇠약·심장쇠약·천식·소기(少氣)·양도불흥(陽道不興)·조루·유정백탁(遺精白濁) 및 요슬(腰膝)이 연약(軟弱)한 데 쓴다.

생지황(生地黃)[지황의 근피(根莖)]

성미(性味)－성(性)은 대한(大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미고(微苦)하다.

주치(主治)－양혈(涼血)·사화(瀉火)·생혈(生血)·지혈(止血)·소종(消腫)·해독·이뇨작용을 한다.

석고(石膏)[황산(黃酸)칼슘을 함유한 광물성(鑛物性) 연석고(軟石膏)]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신(辛)하다.

주주치(主主治)－위화(胃火)를 사(瀉)하고 발진(發疹)·발반(發斑)의 신약(神藥)이다. 각종 열성병(熱性病)에 고열(高熱)이 계류(稽留)하거나 불오한(不惡寒)·단악열(但惡熱)·번조(煩燥)·두창(頭脹)·목적(目赤)·섬어(譫語)·발광·치통·기관지염·한다대갈(汗多大渴)·구건(口乾)·설초(舌焦) 등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숙지황(熟地黃)[생지황(生地黃)을 술에 축여서 구증구폭(九蒸九曝)한다]  
성미(性味)－성(性)은 대한(大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  
미고(微苦)하다.

주주치(主主治)－생진(生津)·자음(滋陰)의 대표적 약이며, 양혈(涼  
血)·사화(瀉火)·지혈(止血)·거어(祛瘀)·소종(消腫)·이노작용을 한다.

시호(柴胡)(미나리과에 속한 다년생초인 시호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간화(肝火)를 사(瀉)하는 주약(主藥)이다. 『상한론(傷寒  
論)』에 한열왕내(寒熱往來)·흉협고만(胸脇苦滿)·구고(口苦)·인건(咽  
乾)·목현(目眩)·이농(耳聾)에 시호제(柴胡劑)를 쓰라 하였다. 간(肝)·  
담(膽)에서 오는 병에는 반드시 시호(柴胡)를 써야 하며, 학질(瘧疾)도  
한열(寒熱) 왕래가 있기 때문에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신곡(神曲)(밀을 분말하여 만든 약누룩)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신  
(辛)하다.

주치(主治)－소화효소로,健위(健胃)하는 약이다. 소화불량·숙식  
(宿食)·적체(積滯)·곽난(霍亂)·설리(泄痢)에 쓰며, 건비위(健脾胃)·  
난위(暖胃)·제담(除痰)한다.

연교(連翹)(개나리의 열매)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해열·소염작용을 한다. 심장의 화(火)를 사(瀉)하고,

비(脾)·위(胃)의 습열(濕熱)을 없앤다. 배농(排膿)·소종(消腫)·월경통에도 쓴다.

영사(靈砂)[수은을 구단(九煅) 법제(法製)한 것]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통혈맥(通血脈)하고, 고냉(痼冷)·정중(怔忡)·살충(殺蟲) 등 백병(百病)에 쓸 수 있으며, 정신안정에도 좋다.

우방자(牛蒡子)(우엉 씨)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고(苦)하다.

주치(主治)－해담(解痰)·해담(解痰)·소염(消炎)한다. 두창(痘瘡)·마진(麻疹)·인종(咽腫)·목적(目赤)·편도선염·이하선염(耳下腺炎)·은진(癰疹)·개선(疥癬), 사(蛇) 및 충독(蟲毒)에 쓴다.

유향(乳香)[아프리카산 유향나무의 지(脂)]

성미(性味)－성(性)은 미온(微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신(辛)하다.

주치(主治)－진통·진경제(鎮痙劑)로 쓰고, 옹저(癰疽)·궤양(潰瘍)·암(癌) 같은 외과(外科)약으로도 쓴다. 또 곽난(霍亂)·복통(腹痛)·난산(難産)에 쓰며, 생기(生肌)도 한다.

인동등(忍冬藤)(인동덩굴)

성미(性味)－성(性)은 한(寒)하고 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해독(解毒)·소종(消腫)·배농(排膿)·이뇨·살균한다.

전호(前胡)(바디나물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풍사(風邪)·폐열(肺熱)·해수(咳嗽)·구역(嘔逆)에 쓰고,  
안태(安胎)·하기(下氣)·파어결(破瘀結)도 한다.

저령(豬苓)(떡갈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류)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삼(澁)하고  
미감(微甘)하다.

주주치(主主治)－행수(行水)·행수(行水)·통림(通淋)·이뇨(利尿)·소  
종(消腫)·해독(解毒)·지사(止瀉)·방광열(膀胱熱)을 사(瀉)하는 데 쓴다.

주사(朱砂)

성미(性味)－성(性)은 양(凉)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정혼(定魂)·진심(鎮心)·양신(養神)·귀사벽(鬼邪辟)

지골피(地骨皮)(구기자 뿌리의 껍질)

성미(性味)－성(性)은 한(寒)하고 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신화(腎火)를 사(瀉)하고, 해열(解熱)·유한(有汗)·골증  
(骨蒸)에 특효하다.

지모(知母)(지모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고

(苦)하다.

주치(主治)－심(心)·폐(肺)를 윤택하게 하고, 허번(虛煩)을 풀며, 천수(喘嗽)·토혈(吐血)·녹혈(衄血)·골증(骨蒸)에 쓴다. 해갈(解渴)·청열(淸熱)·소염(消炎)·거담(祛痰)·윤장(潤腸)·살균작용을 한다.

지유(地榆)(오이풀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하고 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고색(苦澁)하다.

주치(主治)－대하(帶下)·지통(止痛)·악육(惡肉)·농혈(膿血)·치루(痔瘻)·악창(惡瘡)·냉(冷)·열리(熱痢)·토혈(吐血)·녹혈(衄血)·장풍(腸風)·습열(濕熱)·하혈(下血)·혈붕(血崩)을 치료한다.

차전자(車前子)(질경이 씨)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이뇨(利尿)·삼습열(滲濕熱)·통림력(通淋瀝)을 한다.

치자(梔子)(치자나무 열매)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폐화(肺火)를 사(瀉)하고, 위열(胃熱)을 치며, 흉민(胸悶)을 없앤다. 또 안적(眼赤)·비늑(鼻衄)·황달·이질·임질(淋疾)·담핵(痰核)을 치료한다.

택홍(澤鴻)[택사의 괴근(塊根)]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담

(淡)·미함(微鹹)하다.

주치(主治)－삼습(滲濕)·이뇨(利尿)·소종(消腫)·통림(通淋)·지사(止瀉)·지정설(止精泄)한다.

형개(荊芥)(형개의 줄기·잎·꽃을 모두 쓴다)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발한(發汗)·거풍열(祛風熱)·이혈맥(理血脈)·인후종창(咽喉腫痛)·목현(目眩)·토혈(吐血)·녹혈(衄血)·하혈(下血)·붕루(崩漏)에 쓴다.

현삼(玄蓼)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하고, 미(味)는 함(鹹)하며 약간 쓰다.

주치(主治)－무근지화(無根之火)를 사(瀉)하고, 신기(神氣)를 맑히며, 풍한(風寒)·신열(身熱)·골증(骨蒸)·학질(瘡疾)·신상(腎傷)·복괴(腹塊)·나력(癰癰)에 쓴다.

호황련(胡黃連)

성미(性味)－성(性)은 평(平)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상한(傷寒)·해수(咳嗽)·학질(瘡疾)·골증(骨蒸)·보간(補肝)·명목(明目) 및 요(腰)·신(腎)을 다스린다.

활석(滑石)(곱돌가루)

성미(性味)－성(性)은 한(寒)하고 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습열(濕熱)을 없애고 수설(水泄)·번조(煩燥)·임질(淋

疾) · 토혈(吐血) · 황달(黃疸) 및 연장에 다친 데도 쓰고, 수종(水腫)과 모든 중독(腫毒)에도 쓴다.

황백(黃柏)(황백나무 껍질)

성미(性味)－성(性)은 한(寒)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모든 화(火)를 내리고, 습열(濕熱)을 없애며, 음허골증(陰虛骨蒸) · 하혈(下血)을 치료한다.

황련(黃連)(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한 황련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한(寒)하고 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청심(淸心) · 혈압강하(血壓降下) · 목적종통(目赤腫痛) · 구비(口鼻) · 창생(瘡生) · 순설종통(脣舌腫痛) · 탄산(吞酸) · 토산(吐酸) · 심복비만(心腹痞滿) · 열리(熱痢) · 열독(熱毒) · 음종통(陰腫痛)에 쓴다.

## 제 5편





## 제16장 태음인(太陰人) 위완수한(胃脘受寒) 표한병론(表寒病論)

[주(註)] 위완(胃脘)은 위(胃)의 내강(內腔)을 말한 것이나 내경(內經)에는 위(胃)의 분문부(噴門部)의 위쪽 식도를 위완(胃脘)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특정적 부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심폐지간(心肺之間) 또는 상초(上焦)를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태음인(太陰人)은 항상 상초(上焦)가 허한 상태로 나타난다.

1.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태양병(太陽病) 상한(傷寒)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전신이 아프고 허리와 골절이 쭉시며 오한(惡寒)이 있되 땀이 나지 않고, 기침을 하게 되면 마황탕(麻黃湯)을 쓰라” 하였다. ○주(註) - 상한(傷寒)에 두통이 나고 몸과 허리가 아픈 증세를 오래 끌어오다가 골절이 쭉시고 아프면 이는 태양병(太陽病) 상한(傷寒)이 된 것이다. 영혈(榮血)이 고르지 못한 연고다.

張仲景曰 太陽傷寒 頭痛發熱 身疼 腰痛 骨節皆痛 惡寒無汗而喘 麻黃湯主之 ○註曰 傷寒 頭痛 身疼腰痛 以至牽連 百骨節俱痛者 此太陽傷寒 榮血不利故也

[주(註)] 영혈(榮血): 옛 책에 맥중(脈中)에는 영(榮)이 돌고 맥외(脈外)에는 위(衛)가 돈다고 하였다. 영(榮)은 후천적 혈(血), 위(衛)는 선천적 기(氣)를 말하는데, 혈(血)은 기(氣)를 따라 순환한다. 따라서 순환의 원동력은 기(氣)라 할 수 있고 기(氣)가 움직임에 따라 혈(血)이 유동한다.

(해설) 태양병(太陽病) 표병(表病)에 마황탕(麻黃湯)을 쓰는 경우는 여기서는 맥(脈)에 대한 말이 없지만 부견(浮緊)한 것이 원칙이다. 계지탕(桂枝湯)은 표허(表虛)로 맥(脈)이 부약(浮弱)하고 땀이 저절로 날 때에 쓰지만 마황탕(麻黃湯)은 표실(表實)로 맥(脈)이 부견(浮緊)하고 땀이 없을 때에 쓴다. 그러나 두통·발열이 있고 바람이 싫고 땀이 없이 기침을 하거나 두통·발열이 있고, 몸이 아프고, 허리 골절이 쏘시며, 땀이 없으면 맥이 비록 부약(浮弱)할지라도 마황탕(麻黃湯)을 쓸 수 있다.

2.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병은 태음인(太陰人)이 한기(寒氣)에 상한 배추표표병(背頤表表病)이다. 이는 지극히 가벼운 증세로서 마황탕(麻黃湯)을 쓸 수 있지만 이 처방 중에 계지(桂枝)·감초(甘草)는 쓸데없는 약이므로 마황발표탕(麻黃發表湯)을 써야 한다.”

論曰 此即太陰人傷寒背s表病輕證也 此證 麻黃湯 非不當用而桂枝 甘草 皆爲蠱材 此證 當用麻黃發表湯

[주(註)] ○배추(背頤): 추(頤)는 추골(椎骨)·척골(脊骨)과 통한다. 배추(背頤)는 경추(頸椎) 아래 흉추(胸椎)의 상부를 말한 것이다. 경혈(經穴)으로는 독맥경(督脈經)·대추(大椎)·도도(陶道)·신주(身柱)·방광경(膀胱經)의 대저(大杼)·풍문혈(風門穴) 부위를 칭한다. 대개 태음인(太陰人) 외감병(外感病)은 폐허(肺虛)로 오며 그 반응이 안으로는 위완부(胃脘部)에, 밖으로는 배부(背部)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목덜미가 시리고 가슴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다. 갑오본(甲午本)에는 ‘외감뇌추병(外感腦頤病)’이라 한 것을 신본(新本)에는 ‘위완수한병(胃脘受寒病)’으로 고쳤다.

○두재(蠱材): 좀먹은 재료라는 뜻이다. 즉 쓰지 못할 약재라는 말이다.

3.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상한(傷寒)이 된 지 4, 5일에 켜(厥)이 되는 자는 반드시 열이 발한다. 켜(厥)이 깊으면 열이 또한 깊고, 켜(厥)이 적은 자는 열도 또한 적다. 상한(傷寒)에 켜(厥)이 된 지 4일 만에 다시 열이 생기고 3일에 다시 켜(厥)이 되며 5일에는 켜(厥)이 많고 열이 적으면 그 병은 진행되는 것이요, 상한(傷寒)에 열이 있는 지 4일에 다시 켜(厥)로 돌아오고 3일에는 켜(厥)이 적고 열이 많으면 그 병은 저절로 낫는 것이다.”

張仲景曰 傷寒四五日而厥者 必發熱 厥深者 熱亦深 厥微者 熱亦微 傷寒厥四日 熱反 三日 復厥 五日 厥多熱少 其病 爲進 傷寒發熱四日 厥反 三日 厥少熱多 其病 當自愈

(해설) 상한론(傷寒論) 켜음병조(厥陰病條)에 있는 조항을 말한 것이다. 속에는 열이 많으나 겉으로는 켜(厥)이 되는 증세다. 켜(厥)이라 함은 열이 없이 단지 추워서 못 견디는 것을 말한다. 대개 상한(傷寒)이 있을 때에 하루나 이틀 혹은 4, 5일 사이에 켜증(厥證)이 생긴다.

켜(厥)이 있기 바로 전에는 반드시 열이 있다가 켜(厥)로 변한다. 그러나 열이 전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깊은 속에 잠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켜(厥)과 열은 같은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켜(厥)이 깊을수록 열도 깊고, 켜(厥)이 적을수록 열도 또한 적은 것이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사(瀉)를 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발한을 시키면 상초(上焦)의 기운을 치게 되므로 입이 헐고 빨갛게 된다. 또 상한론(傷寒論)에는 켜(厥)과 열(熱)의 반복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발열하는 기간이 길고 켜(厥)하는 기간이 짧으면 병이 나가는 과정이요, 켜(厥)하는 기간이 길고 열이 나는 기간이 짧으면 그 병은 진행되는 것이다.

4.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른바 궤(厥)이라 함은 단지 오한(惡寒)만 있고 발열이 없음을 말한 것이요, 수족의 궤역(厥逆)을 말한 것이 아니다. 태음인(太陰人) 상한(傷寒) 표증(表證)에 있어서 한궤(寒厥)이 된지 4, 5일 후에 열이 나는 것은 중증이다. 이 증세에 열이 오르고 땀이 날 때에는 반드시 발계(髮際)에서 시작하여 이마로 통하고 며칠 후에 다시 열이 오르다가 눈썹가에 땀이 통하고 또 며칠 후에는 열이 오르다가 뺨에서 땀이 나고 다시 며칠 후에는 열이 오르다가 가슴에서 땀이 통한다. 이와 같이 이마에 땀이 몇 차례 난 뒤에는 눈썹가에 이르고 눈썹가에 땀이 몇 차례 난 뒤에는 뺨에 이르고, 뺨의 땀이 몇 차례 난 뒤에는 입술과 턱에 이르러서 불과 한 차례 땀이 난 다음에 곧바로 가슴으로 통한다. 이 병증세가 처음 시작해서 병이 낫기까지는 근 20일이 걸려 한궤(寒厥)이 6, 7차 반복한 뒤에 풀리는데, 이를 사람들은 장감병(長感病)이라고 한다. 대체로 태음인 병은 먼저 이마 위와 눈썹가에서 땀이 나는데, 한 번 땀이 났는데도 병은 풀리지 않고 여러 번 땀을 낸 후 비로소 풀리는 것은 장감병(長感病)이라고 하는 것이다.”

論曰 此謂之厥者 但惡寒不發熱之謂也 非手足厥逆之謂也 太陰人傷寒表證寒厥四五日後 發熱者 重證也 此證 發熱 其汗 必自髮際而 始通於額上 又數日後發熱而 眉稜 通汗 又數日後發熱而額上 通汗 又數日後發熱而 脣頤通汗 又數日後發熱而 胸臆 通汗也 而額上之汗 數次而後 達於眉稜 眉稜之汗 數次而後 達於額上 額上之汗 數次而後 達於脣頤 脣頤之汗 不過一次而直達於胸臆矣 此證 首尾幾近二十日 凡寒厥六七次而後 病解也 此證 俗謂之長感病 凡太陰人病 先額上眉稜 有汗而一汗病不解 屢汗病解者 名曰長感病

5. 태음인(太陰人) 병에 있어서 한궐(寒厥)이 된 지 6, 7일에 열이 나지 않고 땀도 나지 않으면 죽는다. 한궐이 된 지 2, 3일에 열이 나고 땀이 나면 가벼운 증세며, 또 한궐이 된 지 4, 5일에 열이 오르고 이마에만 약간 땀이 보이면 이는 이른바 장감병이니 그 병은 중증이다.

이 증세는 본래 노심초사 끝에 위완(胃脘)이 쇠약해지고 체표(體表)가 허약하며 한기(寒氣)를 이기지 못하는 데다가 한사(寒邪)에 에워싸인 바 되어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서로 다투는 형세다. 마치 객이 세고 주인이 약한 것과 같으니 비유컨대 한 덩이 외로운 군대가 궁지에 몰려서 전군이 거의 몰락의 위기에 있다가 요행히 선봉 일대가 포위를 뚫고 겨우 활로를 찾았으나 후군 전대는 아직도 궁지에 몰려 있으니 장차 여러 차례 역전을 거듭한 연후에 활로를 찾아 나온다면 그 효상이 늑름한 기세인 것이다. 즉 이마에서 땀이 솟아나는 것은 바로 선봉 일대가 포위를 뚫고 뛰어나오는 기상이요, 눈썹가에서 땀이 솟아나는 것은 전군의 전대가 전면을 뚫고 나오는 용감한 기상이요, 뺨에서 땀이 솟아나는 것은 중군반대(中軍半隊)가 포위를 뚫고 나오는 기상이니 이 병에서 눈썹가에서 땀이 나오면 꽤히 위험을 면한 것이고, 땀이 뺨에서 나오면 절대로 위험은 없을 것이다.

太陰人病 寒厥六七日而 不發熱不汗出則死也 寒厥二三日而發熱汗出則輕證也 寒厥四五日而 發熱 得微汗於額上者 此之謂長感病 其病 爲重證也 此證原委 勞心焦思之餘 胃脘 衰弱而表局 虛薄不勝寒而 外被寒邪所圍 正邪相爭之形勢 客勝主弱 譬如一團孤軍 困在垓心幾於全軍覆沒之境 先鋒一隊倖而跳出 決圍一面 僅得開路 後軍全隊 尚在垓心 將又屢次力戰然後 方爲出來 則爻象 正是凜凜之勢也 額上通汗者 卽先鋒一隊決圍

跳出之象也 眉稜通汗者 卽前軍全隊 決圍全面 氣勢勇敢之象也 顴上通汗者 中軍半隊 緩緩出圍之象也 此病 汗出眉稜則 快免危也 汗出顴上則 必無危也

6. 태음인(太陰人)의 땀은 이마·눈썹·뺨의 어느 곳에서 나오든지 땀방울이 가장알같이 굵어야 하며, 또 열이 약간 오래 있다가 들어 가면 정기(正氣)가 강하고 사기(邪氣)가 약한 것이니 상쾌한 땀이지만, 만일 땀방울이 적고 또 방울이 없이 잠시 후에 들어가면 정기가 약하고 사기가 강한 것이니 상쾌하지 못한 땀이다.

太陰人汗 無論額上眉稜上 顴上 汗出如黍粒 發熱稍久而還入者 正強邪弱快汗也 汗出如微粒 或淋漓無粒 乍時而還入者 正弱邪強 非快汗也

7. 태음인(太陰人)이 등에서 목덜미까지 땀이 나고 안면 발제(髮際) 아래로 땀이 없으면 흉한 증세다. 또 얼굴 전체에 땀이 있어도 콧문 좌우에 땀이 없으면 죽는 증세다. 대체로 태음인의 땀은 귀 뒤 높은 뼈와 안면 발제에서 시작하여 젖가슴에서 크게 통하면 이는 병이 풀리는 과정이다. 발제에서 땀이 나면 비로소 죽음을 면할 수 있고, 이마에서 땀이 나면 위험을 면할 수 있으며, 눈썹가에서 나는 땀은 완전히 위험을 면하는 땀이요, 뺨에서 나는 땀은 완전히 살길이 툭 트인 땀이다. 그리고 입술과 턱에서 나는 땀은 병이 이미 풀린 땀이요, 젖가슴에서 나는 땀은 병이 완전히 풀린 땀이다.

일찍이 이런 증세를 보았다. 이마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여 차츰 눈두덩 위로 통할 때는 별로 한결(寒厥)증이 심하지 않다가 뺨 위의 땀이 턱과 입술의 땀으로 될 때에는 한결 증세가 몹시 맹렬하여 마

치 풍이 통하는 것같이 한전(寒戰)을 하고 턱을 떨며, 그 땀이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곧장 도달한다. 장중경(張仲景)이 말한바 “꺄(厥)이 깊으면 열도 깊고, 꺄(厥)이 적으면 열도 또한 적다”고 한 뜻이 이것이다. 이 증세에 한꺄의 세력이 여러 날 계속하면 병이 중한 형세요, 한꺄이 맹렬한 것은 병이 중한 병세가 아니다.

太陰人 背部後面 自腦以下 有汗而面部髮際以下 不汗者 衞證也 全面皆有汗而 耳門左右 不汗者 死證也 大凡 太陰人汗 始自耳後高骨 面部髮際 大通於胸臆間而病解也 髮際之汗 始免死也 額上之汗 僅免危也 眉稜之汗 快免危也 觀上之汗 生路寬闊也 脣頤之汗 病已解也 胸臆之汗 病大解也 嘗見此證 額上汗 欲作眉稜汗者 寒厥之勢 不甚猛也 額上汗 欲作脣頤汗者 寒厥之勢 甚猛 至於寒戰叩齒 完若動風而 其汗 直達兩腋 張仲景所云 厥深者 熱亦深 厥微者 熱亦微 蓋謂此也 此證 寒厥之勢 多日者 病重之勢也 寒厥之勢猛峻者 非病重之勢也

8. 이런 증세를 경기도 사람은 장감병이라 하고, 함경도 사람은 40일통이라 하며, 또 땀이 없는 건병(乾病)이라고도 한다. 이 병에는 흔히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같은 것을 썼는데 대개가 다 잘못 써왔으나 오직 웅담(熊膽)을 쓴 것만은 비록 장님이 곧바로 문으로 들어간 격이 되겠으나 다른 약을 계속하며 쓰게 되면 병세가 다시 변하므로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약이 능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였으니 또한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병이 더하고 덜한 형세는 보통 안목으로는 추측하기 어렵거든, 하물며 이 증세야말로 더욱 심한 것이다. 이 병증에 있어서 땀이 눈두덩 위와 뺨에서 날 때에는 약을 쓰지 않더라도 스스로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데, 병자

가 의사를 불러다가 잘못 약을 쓴다면 땀에서 나던 땀이 건하고 이  
 마로 올라가면서 외증(外症)·한결(寒厥) 증세는 약간 누그러진다. 그  
 러면 의사는 스스로 약의 효험이라 믿게 되고 또 병자 자신도 약의  
 효험을 얻은 줄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또 이 그릇된 약을 며칠 더 계  
 속하면 나중에는 이마의 땀마저 불통되고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이다.  
 이 증세는 땀이 나고 안 나는 것으로 병의 경중을 짐치야 하고 또  
 한결(寒厥)이 심하거나 누그러진 것으로 병의 경중을 짐쳐서는 안 된  
 다.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그 병이 마땅히 스스로 낫는다”고  
 한 것은 어찌 진중하고도 거짓 없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장감  
 병에 역기(疫氣)가 없는 자는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만  
 온병(瘟病)에 역기(疫氣)가 중한 자는 만일 명확히 증세를 알고 약에  
 대하여 의심이 없다면 심상히 버려두고 약을 쓰지 않고 저절로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다. 기이(奇異)한 증세가 생길까 두려운  
 것이다.

此證 京畿道人 謂之長感病 咸鏡道人 謂之四十日痛 或謂之無汗乾病 時  
 俗所用 荊防敗毒散 藿香正氣散 補中益氣湯 個個誤治 惟熊膽 雖或盲人  
 直門然又連用他藥 病勢更變 古人所云 病不能殺人 藥能殺人者 不亦信  
 乎 百病加減之勢 以凡眼目觀之 固難推測而此證 又有甚焉 此證之汗 在  
 眉稜額上時 雖不服藥 亦自愈矣 而病人招醫 妄投誤藥則 額上之汗 還爲  
 額上之汗而 外證寒厥之勢則 稍減矣 於是焉醫師 自以爲信藥效 病人 亦  
 自以爲得藥効 又數日誤藥則 額上之汗 又不通而死矣 此證 當以汗之進  
 退 占病之輕重 不可以寒之寬猛 占病之輕重 張仲景曰 其病 當自愈云者  
 豈非珍重無妄之論乎 然長感病 無疫氣者 待其自愈則 好也而 瘟病 疫氣  
 重者 若明知證藥無疑則 不可尋常眞之 待其勿藥自愈恐生 奇證

(해설) 장감병(長感病)은 감기가 오래된 것을 말한 것이다. 요즘



말로 인플루엔자 같은 것인데 이것이 폐렴이 되거나 장티푸스 같은 것으로 전변하면 매우 중하다. 여기서 ‘온병(瘟病)에 역기(疫氣)가 중한 자’라고 한 것은 독감이 장티푸스가 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9. 나는 이렇게 말한다. “태음인병(太陰人病)에 한결(寒厥)이 나흘이 지나도록 땀이 나지 않으면 중증이다. 한결이 닷새가 지나도 땀이 나지 않으면 위험한 증세이다. 마땅히 웅담산(熊膽散)을 써야 하고 혹 한다열소탕(寒多熱少湯)에 굴벵이[제조(蟾蜍)] 5~9개를 가해서 쓰되, 대변이 묽으면 반드시 건율(乾栗)·의이인(薏苡仁) 등속을 써야 하고, 대변이 조(燥)하면 갈근(葛根)·대황(大黃) 등속을 써야 한다. 만일 이마·눈두덩 위에서 땀이 보이면 스스로 병이 낫기를 기다리며 병이 나은 뒤에도 약을 써서 조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유증이 생길 우려가 있다.”

論曰 太陰人病 寒厥四日而無汗者 重證也 寒厥五日而 無汗者 險證也 當用熊膽散 或寒多熱少湯 加蟾蜍 五七九個 大便 滑者 必用乾栗 薏苡仁等屬 大便 燥者 必用葛根 大黃等屬 若額上 眉顴上 有汗則待其自愈 而病解後 用藥調理 否則恐生後病

[주(註)] 웅담(熊膽): 주로 평간(平肝)하는 약이다. 살균·살충·해열·진경(鎮痙)·충혈성염증·소아경풍(小兒驚風)·황달·악창(惡瘡)·목적예장(目赤腎障) 등에도 쓴다.

10. 일찍이 태음인(太陰人) 위완한증(胃脘寒證)의 온병(瘟病)을 치료한 일이 있다. 태음인 한 사람이 평소에 정충증(怔忡症)이 있었고 땀이 없이 기단(氣短)하고 결해(結咳)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또 한 가지

증세가 겹치니 설사가 수십 일 동안 그치지 않는다. 이는 표병(表病) 중에 가장 중한 증세다.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에 저근피(樗根皮) 3.75g을 가해 하루에 두 첵씩 열흘을 계속하니 설사가 그치고, 이어 한 달을 계속하니 매일 얼굴에서 땀이 흐르며 본래의 병증도 많이 나았다. 그런데 그 집안 식구 5, 6명이 일시에 온병(瘟病)에 걸렸는데 이를 간호하기 위하여 여러 날 복약을 중단하였다. 이 사람마저 온병(瘟病)이 전염되어 입맛을 잃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다. 이어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에 승마(升麻)·황금(黃芩)을 3.75g씩 가하여 열흘을 써주었더니 얼굴에서 땀이 흐르고 역기(疫氣)가 약간 감해진다. 그런데 이를 동안 대변을 못 봄으로 갈근승기탕(葛根承氣湯)을 닷새를 계속하니 닷새 동안 미음도 곱으로 먹고 역기(疫氣)도 크게 덜리며 병이 풀렸다. 또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에 승마(升麻)·황금(黃芩)을 가하여 40일 조리하니 역기(疫氣)는 이미 풀렸고 기왕의 병 증세도 모두 없어졌다.

嘗治 太陰人 胃脘寒證 瘟病 有一太陰人 素有怔忡 無汗氣短結咳矣 忽焉又添出一證 泄瀉數十日不止 卽表病之重者也 用太陰調胃湯 加樗根皮一錢 日再服十日 泄瀉方止 連用三十日 每日流汗滿面 素證 亦減而 忽其家五六人一時瘟疫 此人 緣於救病 數日不服藥矣 此人 又染 瘟病 瘟證 粥食 無味全不入口 仍以太陰調胃湯 加升麻黃芩各一錢 連用十日 汗流滿面 疫氣少減而有二日大便不通之證 仍用葛根承氣湯 五日而 五日內粥食 大倍 疫氣大減而病解 又用太陰調胃湯加升麻黃芩 四十日調理 疫氣既減 素病亦完

11. 결해(結咳)라 함은 억지로 기침을 하되 담(痰)을 토하고자 하되 나오지 않거나 혹 떨어져 나오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소음

인(少陰人)의 결해(結咳)는 흉결해(胸結咳)라 하고, 태음인(太陰人)의 결해(結咳)는 함결해(頤結咳)라 한다.

結咳者 勉強發咳 痰欲出不出而或出曰 結咳 少陰人結咳 謂之胸結咳 太陰人結咳 謂之頤結咳

12. 무릇 온역(瘟疫)에는 먼저 그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병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표리(表裡) 허실을 알 수 있다. 본시 한증(寒證)의 병이 있는 자는 온병(瘟病)을 얻어도 또한 한증(寒證)이 되고, 열증(熱證)의 병이 있는 자는 온병(瘟病)을 얻어도 또한 열증(熱證)이 된다. 본래의 병이 가볍던 사람이 온병에 걸리면 중증이 되고, 본래의 병이 중하던 사람이 온병에 걸리면 험증이 된다.

大凡 瘟疫 先察其人素病如何 則表裡虛實可知已 素病寒者 得瘟病 則亦寒證也 素病熱者 得瘟病則 亦熱證也 素病輕者 得瘟病則 重證也 素病重者 得 瘟病 則險證也

13. 태음인(太陰人) 한 사람이 본래 목 안이 마르고 얼굴빛이 청백(靑白)하며 몸이 차고 설사를 하는 증세가 있었다. 목 안이 건조한 것은 간(肝)에 열이 있기 때문이요, 얼굴빛이 청백하고 몸이 차며 설사를 하는 것은 위완(胃脘)이 차기 때문이다. 이는 표리(表裏)가 다 함께 병을 받은 것이니 태음인병으로는 매우 중한 증세다. 이 사람이 또 온병(瘟病)을 얻었는데, 병이 시작하여 병이 풀리기까지 근 20일이 걸렸다. 대변이 처음에는 활하다가 혹 설사를 하기도 하며, 중간은 활하고 끝에 가서 조(燥)하기도 하며, 매일 대변을 두서너 번씩 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처음에는 한다열소탕(寒多熱少湯)을 썼고 병이 풀린 뒤에는 조리폐원탕(調理肺元湯)을 써서 40여 일 조리하니 근근이 살아났다.

有一太陰人素病 咽噤乾燥而面色 青白 表寒或泄 蓋咽噤乾燥者 肝熱也  
面色 青白 表寒或泄者 胃脘 寒也 此病 表裡俱病 素病之太重者也 此人  
得瘧病 其證 自始發日至于病解 二十日 大便 初滑或泄 中滑末乾 每日  
二三四次無日不通 初用寒多熱少湯 病解後 用調理肺元湯 四十日調理  
僅僅獲生

14. 이 병이 시작되면서 대변이 흑 물기도 하고 흑 설사를 하기도 하며, 땀이 이마·눈두덩·뺨에서 났으며, 음식과 기거는 보통 때와 다름이 없었다. 병이 생긴 지 엿새가 되는 날에야 비로소 약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7일에는 얼굴 전체와 이마·발제 이하 턱에 이르기까지 땀이 줄줄 흐른다. 땀이 흡족하게 뚝뚝 떨어진 뒤에는 얼굴빛이 청백(靑白)해지고 말을 더듬게 되며, 8, 9일이 되어서는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귀까지 먹었다. 턱에서 나던 땀이 뺨에서 나고 다시 뺨에서 나던 땀이 눈두덩 위에서 난다. 또 땀방울이 때로는 있다 없다 하더니 이마에만 약간 땀이 보이고 숨이 몹시 차다. 열흘이 되던 날 밤에는 이마의 땀마저 없어지고 말더듬이나 귀먹은 증세는 더욱 심해지고 가래가 목구멍을 막고 있어 뱉어 내지를 못한다. 병자 스스로 손가락으로 가래를 후벼내기도 하더니 12일 되던 날에는 홀연히 죽을 두어 공기 먹는다. 이때에 만일 약을 쓴다면 웅담산(熊膽散)이 매우 좋을 줄 아나 웅담은 원래 진귀한 약이라 구할 길이 없어 이 사람은 이 밤을 넘길 수 없을 거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는 숨찬 증세가 약간 경감되고 13일 새벽에는 발제에서 땀이 나더니 14일, 15일 연 사흘 동안 계속하며 죽을 두서너 공기를 먹고, 이마와 눈썹 위와 뺨에서 땀이 차차 통하며 얼굴의 푸른빛도 없어진다. 16일에야 젓가슴에서 비로소 땀이 나고 목 안의 가래도 조금씩 뱉으며 말더듬이도 또한 풀렸다. 20일이 되던 날에는 가슴에서 구슬 같은 땀이 몇 차례 나더니 드디어 차츰 방 안에서 걷기도 하고 모든 증세가 없어졌는데, 다만 귀먹은 증세만은 그대로 있다. 병이 풀린 후에 약을 써서 40일 동안 조리시켰더니 이롱(耳聾)·현기증도 저절로 없어졌다.

此病始發 大便或滑或泄 而六日內 有額汗眉稜汗顴汗 飲食起居有時如常 六日後 始用藥 七日 全體面部髮際以下 至于脣頤 汗流滿面 淋漓洽足而汗後 面色帶青 有語訥證 八日九日 語訥耳聾而唇汗 還爲顴汗顴汗 還爲眉稜汗 汗出微粒 乍出乍入而只有額汗 呼吸 短喘矣 至于十日夜 額汗還入而語訥耳聾 尤甚 痰涎 壅喉 口不能咯 病人 自以手指 探口拭之而出 十一日 呼吸短喘 尤甚 至于十二日 忽然食粥二碗 斯時 若論其藥則熊膽散 或者可也 而熊膽闕材 自念此人 今夜必死矣 當日初昏 呼吸 暫時少定 十三日鷄鳴時 髮際有汗 十四日十五日連三日 食粥二三碗 額汗眉稜汗顴汗 次次發出面色 脫青 十六日 臆汗 始通 稍能咯痰 語訥亦愈 至于二十日 臆汗 數次大通 遂能起立房中 諸證皆安而耳聾證則自如也 病解後 用藥調理四十日 耳聾目迷 自祛

## 제17장 태음인(太陰人) 간수열(肝受熱) 이열병론(裏熱病論)

1. 주광(朱肱)이 말하기를 “양독(陽毒)이라 함은 얼굴에 붉은 반점이 마치 비단 무늬같이 나타나고 인후(咽喉)가 아프며 피가래를 뱉는 것이다. 이럴 때는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흑노환(黑奴丸)을 쓴다. 양독(陽毒) 및 괴상한(壞傷寒)은 본래 치료가 어렵지만 정신·기백이 갈(渴)해 있어도 아직 명치 밑이 따뜻하면 병자의 입을 벌리고 흑노환(黑奴丸)을 먹이되 억지로 목에 넘기기만 하면 즉시 살아난다.”

朱肱曰 陽毒 面赤斑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宜葛根解肌湯黑奴丸 陽毒及壞傷寒 醫所不治 精魄已渴 心下尚暖 斡開其口 灌黑奴丸 藥下咽 卽活

[주(註)] ○괴상한(壞傷寒): 상한괴병(傷寒壞病)을 말한 것이다.

○정백(精魄): 정신과 원기를 뜻한 것이다.

(해설) 상한(傷寒)에 신열(辛熱)한 약을 쓰거나 발한 또는 토하고 설사를 시켜서 열독이 속으로 들어가면 양독(陽毒)이 된다. 대개 상한(傷寒) 2, 3일에 이런 증세로 변하기 쉬운데, 심한 열이 오르고 머리가 몹시 아프며 가슴이 번조하여 미친 것같이 헛소리를 하고 피가래를 뱉으며 얼굴에는 붉은 반점이 비단 무늬같이 나

타난다. 이 병은 5일이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7일이 지나면 불치이다. 괴상한(壞傷寒)도 치료를 잘못하여 육경병(六經病)의 본증이 무너져서 증(證)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말함이니 양독(陽毒) 발반(發斑)이나 상한(傷寒) 괴증(壞證)에는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흑노환(黑奴丸)을 쓴다. 이는 간(肝)의 해독 작용을 하는 약이다.

2. 이천(李塉)이 말하기를 “약간의 오한(惡寒)·발열(發熱)이 있으면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을 쓰고 눈알이 아프고 콧속이 마르며 땀이 쏟아지다가 막히고 조갈이 심하며 미친 사람같이 헛소리를 하면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쓰는 것이 좋다. 열이 겉에 있으면 눈이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때는 해기탕(解肌湯)을 쓰는 것이 좋다. 또 열이 속으로 들어가면 미친 사람같이 헛소리를 한다. 이때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쓰는 것이 좋다.”

李塉曰 微惡寒發熱 宜葛根解肌湯 目疼鼻乾 潮汗閉澀 滿渴狂譫 宜調胃承氣湯 熱在表則目疼不眠 宜解肌湯 熱入裡則狂譫 宜調胃承氣湯

(해설) 양명병(陽明病)에는 경병(經病)과 부병(腑病)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한다. 수양명대장(手陽明大腸)은 표(標)가 되므로 약간의 오한(惡寒)·발열(發熱)이 있다가 족양명위(足陽明胃)에 병을 받으면 눈망울이 아프고 코가 마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땀을 많이 흘린다. 이는 병사(病邪)가 기육(肌肉) 사이에 있으므로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으로 해기(解肌)하면 되지만 열사(熱邪)가 속으로 들어가면 발광을 하고 헛소리를 하므로 이열(裡熱)을 사(瀉)하기 위하여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쓴다.

3. 공신(龔信)이 말하기를 “양명병(陽明病)에 눈알이 쏘고 아프며 콧속이 마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을 써야 한다.”

龔信曰 陽明病 目疼鼻乾不得臥 宜葛根解肌湯

4. 삼양병(三陽病)이 깊어지면 양독(陽毒)으로 변한다. 얼굴이 붉고 눈알이 빨가며 몸에는 누런 반점이 생기고 간혹 설사를 하되 노랑고 붉은 대변을 보며, 6맥(脈)이 홍대(洪大)하다. 흑노환(黑奴丸)을 쓰는 것이 좋다.

三陽病 淺 變爲陽毒 面赤眼紅 身發斑黃 或下利黃赤 六脈洪大 宜黑奴丸

(해설) 삼양병(三陽病)이 깊으면 양독증(陽毒證)으로 변한다 하였으니 본래 상한병(傷寒病)이 진행되는 과정이 태양경(太陽經)에서 소양(少陽) 양명(陽明)으로 전경(轉經)되며, 여기서 양독(陽毒)이라 함은 즉 양명부병(陽明腑病)에 열독(熱毒)으로 인한 병변이다. 양명병(陽明病)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 같은 것을 쓰는 경우가 있다.

5.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위의 증세에는 마땅히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흑노환(黑奴丸)을 써야 한다.”

論曰 右諸證 當用葛根解肌湯 黑奴丸

(해설) 양명병(陽明病)에 불오한(不惡寒)·반오열(反惡熱)·한자출(汗自出)·대변비(大便秘) 등이 정증(正證)이나 이는 대개 소음인병(少陰人病)에 나타나는 증세이며, 목동(目疼)·비건(鼻乾)·불면(不眠)·한조출이삽폐(汗潮出而滯閉)·양독발반(陽毒發斑) 등증은 대개 태음인에게 많다. 체질을 분류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나 있는 증세로 보지만 여기 치료 경험에서 약을 쓰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태음인 증세로 볼 수 있으며, 사실 태음인 열병에서 경험한 바 있다.



6. 『영추경(靈樞經)』에서 말하기를 “척맥(尺脈) 부위 피부에 열이 깊어서 신(脈)이 성하고 조증(燥證)에 있는 자는 온병(瘟病)이다.”

靈樞曰 尺膚 熱深 脈 盛燥者 病瘟也

(해설) 척(尺)은 맥(脈)의 부위(部位)로, 요골경상돌기(橈骨莖狀突起)에서 위로 1촌(寸)이 척맥(尺脈)이며 좌척(左尺)은 신(腎)·방광맥(膀胱脈)이요, 우척(右尺)은 명문(命門)·삼초맥(三焦脈)으로 정한다.

『영추진진척편(靈樞診尺篇)』에는 척부(尺膚)에 열이 많고 맥(脈)이 성하며 조증(燥證)이 있으면 온병(瘟病)이요, 척부(尺膚)가 차고 진(脈)이 가늘면 설사를 해서 기운이 빠진 것이요, 척부가 뜨거웠다가 차지면 한열(寒熱)이 있음이요, 척부가 차다가 얼마 후에 더워지면 열이라 하였다.

7. 왕숙화(王叔和)가 말하기를 “온병맥(瘟病脈)은 음양맥(陰陽脈)이 다 같이 성하다. 병의 열(熱)이 극도에 이르면 맥이 부(浮)하고 활(滑)하며, 혹 침(沈)하고 산삽(散澁)하다.”

王叔和曰 瘟病脈 陰陽俱盛 病熱之極 浮之而滑 沈之散澁

[주(註)] ○왕숙화(王叔和): 3세기 진(晉)나라 고평인(高平人)으로, 고대 맥학(脈學)에 유명하며, 『맥경(脈經)』 10권, 『맥결(脈訣)』 4권, 『맥결도요(脈訣圖要)』 6권, 『맥부(脈賦)』 1권을 지었다.

○골맥(滑脈): 맥상(脈狀)이 마치 소반에 구슬을 굴리는 것같이 일정치 않다.

○산삽(散澁): 산(散)은 부(浮)하고 허(虛)하여 누르면 손끝에서 흩어지고 가고 오는 것이 분명치 않으며 산만해서 알 수 없는 맥이다. 삽(澁)은 맥이 오고 가는 것이 지극히 어렵게 보이는 것이니 맥이 산삽(散澁)함은 기혈이 모두 허손한 것이다.

8. 『맥법(脈法)』에 온병(瘟病)이 된 지 2, 3일에 몸에 열이 나고 배가 부르며 머리가 아프고 음식은 전과 다름없이 맥이 곧고 빠르면 8일이면 죽고, 또 온병(瘟病)이 된 지 4, 5일에 두통이 나고 배가 부르며 토(吐)하고 맥(脈)이 가늘고도 굳세면 12일이면 죽고, 또 온병(瘟病)이 된 지 8, 9일에 머리와 몸이 아프지 않고 눈알이 붉거나 얼굴 빛이 변하지 않고 설사를 하며, 맥(脈)이 삼(澁)해도 누르면 없어지고 들면 크게 나타나며, 명치 밑이 단단하면 17일이면 죽는다.

脈法曰 瘟病二三日 體熱腹滿頭痛 食飲如故 脈直而疾 八日死 瘟病 四五日頭痛腹滿而吐 脈來細而強 十二日 死 八九日 頭身不痛 目不赤 色不變而反利 脈來澁 按之不足 舉時大 心下堅 十七日 死

[주(註)] ○맥법(脈法): 누구의 맥법(脈法)인지 확실치 않으나 왕숙화(王叔和) 맥결(脈訣)이 아닌가 생각한다.

(해설) 온병(瘟病)에 점병사후(占病死候)를 말한 것이다. 8일, 12일, 17일에 죽는다는 계산은 확실하지 않고 맥상(脈狀)이 ‘쫘뻑하고 빠르며’ ‘가늘고 굳세며’ ‘갈갈하고 누르면 없어지고 들면 크다’ 함은 모두 괴맥(怪脈)에 속하는 것이다.

9. 공신(龔信)이 말하기를 “온병(瘟病)에 열이 몹시 성하나 맥(脈)이 뛰는 것이 가늘고 짧으면 죽는다. 또 온병(瘟病)에 설사가 심하고 배가 몹시 아프면 죽는다.”

龔信曰 瘟病 穰穰大熱 脈 細小者死 瘟病 下利痛甚死

10. 만력(萬曆) 병술(丙戌)년에 내가 대양(大梁)에 살고 있을 때에 온역(瘟疫)이 크게 유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병 증세를 말하

면 추위가 심하고 열도 또한 대단하며 머리·얼굴·목·뺨이 모두  
 벌겋게 붓고 목구멍이 붓고 아프며 혼수상태가 된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비방을 발명하였으니 이름하여 이성구고환(二聖救苦丸)이라  
 하였다. 대황(大黃) 150.00g과 저아조각(猪牙皂角) 75.00g을 가루로  
 만들어 폴로 환(丸)을 짓되 녹두알 크기로 하고 한 번에 50~70환(丸)  
 을 먹였다. 한번 복용에 즉시 땀이 나고 병이 풀리니 이는 천품이 건  
 장한 사람은 백발백중이었다. 조각(皂角)은 땀구멍을 열어서 표기(表  
 氣)를 발산시키고 대황(大黃)은 화(火)를 사(瀉)하여 속의 열을 통하게  
 한다.

萬曆丙戌 余寓大梁 瘟疫大作 士民多斃 其證 增寒壯熱 頭面頰赤腫  
 咽喉腫痛 昏愎 余發一秘方 名二聖救苦丸 大黃四兩猪牙皂角二兩 麵糊  
 丸棗豆大五七十丸 一服 卽汗 一汗卽愈 稟壯者 百發百中 牙皂 開關竅  
 發其表 大黃 瀉諸火通其裡

[주(註)] ○만력병술(萬曆丙戌): 명(明)나라 신종(神宗) 황제(皇帝)  
 때 연호(年號). 공정현(龔廷賢)이 지은 『만병회춘(萬病回春)』에 있  
 는 연대이다.

11. 사시(四時)의 기후가 고르지 못하면 병자로 하여금 가래가 성  
 하고 번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고 전신이 쑤신다. 음식·기거(起居)는  
 보통 때와 다름없으며, 병이 심해지면 목이 쉬고 눈이 붉어지며 입  
 안이 험고 볼에는 크고 작은 멍울이 생긴다. 혹 목구멍이 아프고 기  
 침을 할 때는 끈끈한 가래가 나오고 재채기를 자주 한다.

感四時不正之氣 使人痰涎 壅盛 煩熱 頭疼身痛 增寒壯熱 項強睛疼 或

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聲啞 或赤眼口瘡 大小腮腫 喉痺咳嗽稠粘噴嚏

12.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위의 모든 증세에 추운 기운이 심하고 또 열이 썩씩하며 땀이 나지 않고 조하고 갈갈한 자는 조각대황탕(皂角大黃湯)·갈근승기탕(葛根承氣湯)을 써야 하고 머리·얼굴·목이 빨갛게 부은 자도 조각대황탕(皂角大黃湯)·갈근승기탕(葛根承氣湯)을 써야 한다. 열이 있고 배가 창만하며 설사를 하는 자가 만일 열이 성하면 이는 이증(裏證)이니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을 써야 하고, 한기(寒氣)가 더 성하면 표증(表證)이 중한 것이니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에 승마(升麻)·황금(黃芩)을 가해서 써야 한다.”

論曰 右諸證 增寒壯熱燥澀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頭面項頰赤腫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體熱腹滿自利者 熱勝則裡證也 當用葛根解肌湯 寒勝則表證而太重證也 當用太陰調胃湯加升麻黃芩

13. 일찍이 태음인(太陰人)이 간(肝)에 열을 받아서 열성(熱性)인 온병(瘟病)을 치료한 일이 있다. 본래 이 사람이 눈병이 있었는데, 여러 해를 나았다 더했다 하더니 또 온병(瘟病)이 걸렸다. 따라서 병이 난 첫날부터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을 3~5일 썼더니 대변이 묽어지다가 혹 설사를 한다. 옛새가 되던 날에는 대변이 하루를 건너므로 이내 갈근승기탕(葛根承氣湯)을 연 3일 썼더니 죽을 곱절이나 먹고, 또 3일을 썼더니 역기(疫氣)가 크게 덜리고 병이 풀렸다. 병이 풀린 후에도 다시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을 썼다. 대변이 조하고 굳으면 대황(大黃) 3.75g을 가하고, 설사가 심하면 대황(大黃)을 빼었다. 이와 같이 20일을 조리하니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병이 처음 날 때는 구

역이 나고 토하기도 하며 한때에는 혼수상태가 되며 병이 중해지고  
아픈 것이 심하더니 나중에는 차차 가벼워지며 12일 만에 병이 풀렸다.

嘗治太陰人肝熱熱證癰病 有一太陰人素病 數年來 眼病 時作時止矣 此人 得癰病 自始發日 用熱多寒少湯三四五日 大便或滑或泄 至六日 有大便 一日不通之證 仍用葛根承氣湯 連三日 粥食大倍 又用三日 疫氣大減 病解後 復用熱多寒少湯 大便燥澀則加大黃一錢 滑泄太多則去大黃 如此 調理二十日 其人完健 此病始發 嘔逆口吐 昏憤不省 重痛矣 末境 反爲 輕證 十二日 而病解

14. 열 살 먹은 태음인(太陰人) 아이가 이열병(裡熱病)인 온병(癰病)에 걸렸는데, 마음도 약물도 넘기지 못하고 다만 열만 성하여 약간의 냉수만을 마실 뿐이다. 이렇게 열하루가 되는 날에는 대변을 못 본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한다. 무서워서 떨고 헛소리를 하면서 말하기를 “온갖 벌레가 방 안에 가득하다”, 또 “내 품안에 쥐가 들어온다”고 하며 황급하게 기고 또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한다. 열이 극도에 이르면 풍이 생겨 도리어 손발이 차지고 무릎을 편 채 구부리지를 못한다. 급히 갈근승기탕(葛根承氣湯)을 달여서 역지로 입 안에 부어 넣었더니 그날로 마음을 곱절이나 먹게 되고 역기(疫氣)도 크게 풀려 다행히 살아나게 되었다. 이 병이 생긴 지 4, 5일 동안은 음식 먹는 것이나 기거하는 것이 보통 때와 다름없다가 나중에 도리어 병이 중해졌는데 17일 만에 병이 풀렸다.

一太陰人十歲兒 得裡熱癰病 粥食 全不入口 藥亦不入口 壯熱穰穰有時 飲冷水 至于十一日則大便不通 已四日矣 惟怯譫語曰有百蟲 滿室 又有鼠入懷云奔遑匍匐 驚呼啼泣 有時熱極生風 兩手厥冷 兩膝伸而不屈 急

用葛根承氣湯 不憚啼泣 強灌口中卽日 粥食大倍 疫氣大解 倖而得生 此  
病始發四五日 飲食起居如常 無異平人矣 末境 反爲重證 十七日而病解

15. 『내경(內經)』에서 말하기를 “까실까실하고 마르고 물기가 없  
고 쭈글쭈글한 것은 모두 조(燥)에 속한다”고 하였다.

內經曰 諸澁 枯 涸 皴 揭 皆屬於燥

[주(註)] ○조(燥): 조(燥)가 더한 것이 건(乾)이다. 오행(五行)에 있  
어서의 금(金)에 속하며 금기(金氣)가 울결(鬱結)되면 조(燥)가 된  
다. 장부에 있어서는 폐(肺)에 속하며, 운기(運氣)로 금기(金氣)가  
태과(太過)하면 조병(燥病)이 생긴다고 한다. 조(燥)는 진액이 소  
모되어 몸이 마르고 피부가 까실까실해지는 것이니 조(燥)는 폐  
(肺)가 주관한다.

16. 나는 이렇게 말한다. “태음인(太陰人)이 얼굴빛이 푸르고 희면  
대개는 조증(燥證)이 없는 것이요, 얼굴빛이 누르거나 붉고 검으면  
조증(燥證)이 많은 것이다. 이는 간(肝)이 열(熱)하고 폐(肺)가 조(燥)  
한 까닭이다. 일찍이 태음인 조열증(燥熱證)을 치료한 일이 있다. 손  
가락이 검게 타고 또 반창(癰瘡)이 생겼다.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검  
게 타고 힘이 없더니 2년이 채 못 되어서 한 손가락이 검은 피가 탄  
듯 엉겨서 손바닥을 지나 위로 손등까지 부었다. 칼로 손가락을 자  
르니 1년이 채 못 되어 전신에 반창(癰瘡)이 퍼졌다. 큰 것은 큰 동  
전만 하고 작은 것은 작은 동전만 하다. 이미 3년이 되었는데 젊은  
사람의 손힘으로도 힘드는 일은 하지 못하고 또 다리에 힘이 없어  
하루에 30리도 걷지 못하였다.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에 고본(藁本)  
7.5g, 대황(大黃) 3.75g을 가하여 28첩을 썼더니 대변이 비로소 묽어지

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 다시 굳어져 또 20첩을 썼더니 대변은 그다지 심히 묽어지지 않는으나 반창(癰瘡)이 약간 작아지며 팔다리의 힘이 약간 좋아졌다. 계속해서 20첩을 썼더니 완전히 병이 나았다.”

論曰 太陰人 面色青白者 多無燥證 面色黃赤黑者 多有燥證 蓋肝熱肺燥而然也 嘗治太陰人燥熱證手持焦黑癰瘡病 自左手中指 焦黑無力 二年內一持黑血 焦凝過掌心而掌背浮腫 以刀斷指矣 又一年內 癰瘡 遍滿全體 大者如大錢 小者如小錢 得病 已爲三年而以壯年人 手力 不能役 勞一半刻 足力 不能日行步三十里 以熱多寒少湯 用藁本二錢加大黃一錢 二十八貼用之 大便始滑 不過一二日 又 秘燥 又用二十貼 大便 不甚滑泄而面部癰瘡少差 手力足力稍快有效矣 又用二十貼 其病快差

[주(註)] ○조열증(燥熱證): 폐(肺)가 조(燥)하고 간(肝)이 열해서 생긴 병이다. 여기서 말한 것은 탈저증(脫疽症)과 근사한 병이며 말초혈관(末梢血管) 연화(軟化)로 생기거나 혈관이 막혀서 되는 것이다.

17. 『영경(靈經)』에서 말하기를 “이양(二陽)이 맺힌 것을 소갈(消渴)이라 한다. 물 한 사발을 마시고 오줌 두 사발을 누게 되면 죽으며 고치지 못한다.” 주(註)에 “이양(二陽)이 맺혔다는 것은 위(胃)와 대양(大腸)에 열이 맺혔다는 뜻이다.”

靈樞曰 二陽結 謂之消 飲一溲二 死不治 註曰 二陽結 謂胃及大腸 熱結也

(해설) 주(註)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양(二陽)이라 함은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을 말한 것이다. 경락유주(經絡流注)에 대장경(大腸經)에서 위경(胃經)으로 위(衛)가 돌게 마련이니 서로 맺혀서 유주(流注)하지 못하면 소갈증(消渴證)이 생기며 소(消)는 몸의 진액이 소모되는 것이므로 자연히 갈

증이 심하다.

18. 편작(扁鵲)의 『난경(難經)』에서 말하기를 “소갈병(消渴病) 맥(脈)은 긴실(緊實)하고 또 삭(數)해야 하는데 침색(沈瀼)하고 미(微)하면 죽는다.”

扁鵲難經 曰消渴脈 當得緊實而數 反得沈瀼而微者 死

(해설) 소갈맥(消渴脈)은 양맥(陽脈)이 나와야 하고 음맥(陰脈)이 보이면 불치다. 긴(緊)·삭(數)은 양맥(陽脈)이요, 침(沈)·미(微)는 음맥(陰脈)이다. 맥경(脈經)에는 소갈맥(消渴脈)이 삭대(數大)하면 살고 침소(沈小)하면 죽는다고 하였다. 삼소(三消)에 음맥(陰脈)이 보임은 대개 하소증(下消證)을 말한 것이다.

19. 장중경(張仲景)이 말하기를 “소갈병(消渴病)은 소변이 도리어 많고 물 한 말을 마시면 오줌도 한 말을 눈다. 주로 신기환(腎氣丸)을 쓴다.”

張仲景曰 消渴病 小便反多 如飲水一斗 小便亦一斗 腎氣丸 主之

(해설) 『금궤요약(金匱要略)』에는 신기환(腎氣丸)을 쓰는 소갈증(消渴證)은 주로 남자에 한한 병으로 말하였다. 대개 대갈인음(大渴引飲)에는 백호탕(白虎湯)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번조인음(煩燥引飲)을 말한 것은 하소(下消)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태음인(太陰人) 증세에 있어서는 폐조간열(肺燥肝熱)에서 온 것으로 본다.

20.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병은 소양인(少陽人)의 소갈병(消渴病)



이 아니라 태음인(太陰人)의 조열병(燥熱病)인 것이다. 이 증세에는 신기환(腎氣丸)을 써서는 안 되고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에 고본(藁本)·대황(大黃)을 가해 써야 한다.”

論曰此病 非少陽人消渴也 卽太陰人燥熱也 此證 不當用腎氣丸 當用熱多寒少湯加藁本 大黃

21. 일찍이 태음인(太陰人) 50세 가까운 사람의 조열병(燥熱病)을 치료한 일이 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의 양도 많으며 대변이 비조하므로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에 고본(藁本) 7.50g, 대황(大黃) 3.75g을 가하여 20첩을 썼더니 효과를 보았다. 한 달가량 후에 다른 약 다섯 첩을 쓰더니 병이 재발되므로 다시 전과 같이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에 고본(藁本)·대황(大黃)을 가하여 5, 60첩 썼다. 약 쓰는 동안에는 근근이 연명해 오다가 마침내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또 태음인(太陰人) 젊은 사람이 조열병(燥熱病)에 걸려 이를 치료하였는데, 전의 처방으로 300첩을 썼으나 근근이 일주년을 지탱하다가 이 병도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 이 사람이 병이 생긴 지 일 년이 되었으니 간혹 다른 의사의 약을 썼는지도 알 수 없다. 대개 조열병(燥熱病)은 물 한 사발 마시면 오줌 두 사발을 누며 병이 극에 이르면 고치기 어렵다. 무릇 태음인이 대변이 비조하고 오줌이 많다고 생각되며 물이 많이 먹히거든 빨리 약을 써서 미리 예방해야 한다.

嘗治太陰人年五十近衰者燥熱病 引飲 小便多便秘者 用熱多寒少湯 用藁本二錢加大黃一錢 二十貼得効矣 後一月餘用他醫藥五貼 此人更病 復用熱多寒少湯 加藁本大黃 五六十貼 用藥時間 其病僅僅支撐 後終不免

死 又嘗治太陰人年少者 燥熱病 用此方三百貼 得支撐一週年 此病亦不免死 此人得病一周年 或間用他醫方 未知緣何故也 蓋燥熱 至於飲一溲二而病劇則難治 凡太陰人大便秘燥 小便覺多而引飲者 不可不早治豫防

22. 이 병은 반드시 불치의 병은 아니다. 이 청년이 병을 얻고 약을 쓰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죽었으니 이 병의 원인은 사치와 향락으로 욕화(慾火)가 밖으로 달려서 간열(肝熱)이 크게 성하고 폐(肺)가 조(燥)하여 크게 이를 말려버린 까닭이다. 만일 이 청년이 마음을 편안히 갖고 욕심을 씻으면서 백 일 동안 약을 쓰게 되면 어찌 고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대개 병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불같은 욕심이 달리지 않는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속담에 “선조의 덕택은 비록 낱알이 갯을 수가 없지만 공경하는 덕택은 반드시 하나하나 갯음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 말이 있으며 무릇 어떤 환자를 막론하고 그 마음을 공경하며 욕화를 깨끗이 씻고 착한 마음씨로 안정하기를 백 일이면 그 병이 낫지 않을 리 없고, 2백 일이면 그 사망이 완전치 않을 리가 없다. 공경하는 덕택의 갯음을 낱알이 받는 것은 모든 일이 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병에 있어서야 더욱 그러할 것이다.

此病 非必不治之病也 此少年 得病用藥一周年後 方死 蓋此病原委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 大盛 肺燥太枯之故也 若此少年 安心滌慾一百日而用藥則 焉有不治之理乎 蓋自始病日 至于終死日 慾火 無日不馳故也 諺曰先祖德澤 雖或不得一一個報而恭敬德澤 必無一一不受報 凡無論某病人 恭敬其心 蕩滌慾火 安靜善心 一百日則其病無不愈 二百日則 其人無不完 恭敬德澤之個個受報 百事皆然而疾病 尤甚

23. 위역림(危亦林)이 말하기를 “음혈(陰血)이 모갈(耗渴)되면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지며 다리가 약하고 허리가 아프다. 여기에는 흑원단(黑元丹)을 써야 한다.”

危亦林曰 陰血 耗渴 耳聾目暗 脚弱腰痛 宜用黑元丹

[주(註)] ○음혈(陰血): 기(氣)는 양(陽)이요, 혈(血)은 음(陰)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음혈(陰血)이라 함은 사람의 생식기를 의미한 것이다. 즉 정기(精氣)와도 같다.

24. 무릇 남자가 성년인데도 진기(眞氣)가 허약함은 천품이 약한 것이지 후천적 허약은 아니다. 보익(補益)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약이 있으나 모두 약력이 부족하여 그 효력을 보기 어려우며 다만 선천적 원기를 도와 수기(水氣)를 들어 올리고 화기(火氣)를 내리면 스스로 오장(五臟)이 고루어져서 모든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공진단(拱辰丹)을 써야 한다.

凡男子 方當壯年而眞氣 猶怯 此乃稟賦素弱 非虛而然 滋益之方 羣品稍衆 藥力細微 難見功效 但固天元一氣使水升火降則五臟 自和 百病 不生 宜用拱辰丹

[주(註)] ○수승화강(水升火降): 신장수기(腎臟水氣)가 위로 올라가고 심장화기(心臟火氣)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다. 즉 음양조화를 말하는 것이다.

25.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세에는 마땅히 흑원단(黑元丹)·공진단(拱辰丹)이 좋기는 하지만 이 중에 당귀(當歸)·산수유(山茱萸)는

쓸데없는 약이므로 약력이 완전치 못하니 완전한 효력을 거두고 싶  
거든 공진흑원단(拱辰黑元丹)·녹용대보탕(鹿茸大補湯)을 써야 한다.”

論曰此證 當用黑元與拱辰丹 當歸山茱萸皆爲蠱材 藥力 未全 欲收全力  
宜用拱辰黑元丹 鹿茸大補湯

26. 태음인(太陰人) 증세에 식후에 비만증(痞滿證)과 다리에 힘이  
없는 증세가 있다. 여기에는 공진흑원단(拱辰黑元丹)·녹용대보탕(鹿茸  
大補湯)·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조위승청탕(調胃升淸湯)을 써야 한다.

太陰人證 有食後痞滿 腿脚無力病 宜用拱辰黑元丹 鹿茸大補湯 太陰調  
胃湯 調胃升淸湯

[주(註)] ○식후비만(食後痞滿): 음식을 먹은 뒤에 배 속이 더부룩  
한 증세가 있는 것.

27. 태음인(太陰人) 증세에 설사하는 병이 있다. 표한증(表寒證) 설  
사에는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을 쓰고 표열증(表熱證) 설사에는 갈근  
나복자탕(葛根蘿菥子湯)을 써야 한다.

太陰人證 有泄瀉病 表寒證泄瀉 當用太陰調胃湯 表熱證泄瀉 當用葛根  
蘿菥子湯

(해설) 설사증에 있어서도 음증(陰證)·양증(陽證)을 판단하여 치  
료해야 한다. 열이 없이 설사를 하면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을  
쓰고, 열이 있으면서 설사를 하게 되면 갈근나복자탕(葛根蘿菥子  
湯)을 쓴다.

28. 태음인(太陰人) 증세에 해수병이 있다. 이때는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 · 녹용대보탕(鹿茸大補湯) · 공진흑원단(拱辰黑元丹)을 써야 한다.

太陰人證 有咳嗽病 宜用太陰調胃湯 鹿茸大補湯 拱辰黑元丹

[주(註)] ○해수(咳嗽): 만성기관지염.

29. 태음인(太陰人) 증세에 효천병(哮喘病)이 있는데, 이는 매우 중한 증세다. 마땅히 마황정천탕(麻黃定喘湯)을 써야 한다.

太陰人證 有哮喘病 重證也 當用麻黃定喘湯

30. 태음인(太陰人) 증세에 흉복병(胸腹病)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증세다. 마땅히 마황정통탕(麻黃定痛湯)을 써야 한다.

太陰人證 有胸腹病 危險證也 當用麻黃定痛湯

[주(註)] ○흉복병(胸腹病): 협심증(狹心症)이나 환통(蟲痛).

31. 태양인(太陰人) 어린아이가 십여 차례나 설사를 하면 반드시 만경풍(慢驚風)이 생긴다. 빨리 보폐원탕(補肺元湯)을 써서 풍을 예방해야 한다.

太陰人小兒 有泄瀉十餘次無度者 必發慢驚風 宜用補肺元湯 豫備慢風

[주(註)] ○만경풍(慢驚風): 설사를 오래 하면 탈기현상(脫氣現象)을 일으킨다. 즉 뇌증세를 일으키는 것이다.

32. 태음인(太陰人)이 배가 창만하고 부종이 생기는 증세가 있다. 여기에는 마땅히 건울제조탕(乾栗蟬蛩湯)을 써야 한다. 이 병은 극히 위험한 증세이니 열의 아홉은 죽는다. 비록 약을 써서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3년 안에 재발되지 않아야 비로소 살았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사치와 향락을 경계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과 욕심을 버려야 하며, 3년 안에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공경해야 하니 섭생하고 조심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 자신에 달려 있다. 대체로 태음인은 부종이 이미 발한 후에 이를 다스리면 열 중 아홉은 죽는 병이다. 그러므로 이 병은 병으로 논해서는 안 되고 죽음으로 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체로 태음인이 노심초사하여 자주 도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혹 오랜 설사가 이질로 되거나 임질로 인해 소변이 불리하게 되거나 식후 비만증에 다리가 무력한 병들이 모두 부종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니 이 병은 매우 중하고 험한 증세이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부종으로 논해야 하며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공경하며 약을 쓰면서 다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太陰人 有腹脹浮腫病 當用乾栗蟬蛩湯 此病 極危險證而十生九死之病也 雖用藥病愈 三年內 不再發然後 方可論生 戒侈樂禁嗜慾 三年內 宜恭敬心身 調養慎攝必在其人矣 凡太陰人病 若待浮腫已發而治之則十病九死也 此病 不可以病論之而以死論之可也 然則如之何其可也 凡太陰人 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或淋病小便不利 食後痞滿腿脚無力 病 皆浮腫之漸 已爲重險病 而此時 已浮腫論而蕩滌慾火 恭敬其心 用藥治之可也

33. 태음인(太陰人) 증세에 몽설(夢泄)하는 병이 있는데, 한 달에 3, 4번 하게 되면 허노증(虛勞證)의 증증이다. 대변이 하루를 비조하면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에 대황(大黃)을 3.75g 가하여 쓰고, 대변이 매일 비조하지 않으면 대황(大黃)을 빼고 용골(龍骨)을 가한다. 혹 공진 흑원단(拱辰黑元丹)·녹용대보탕(鹿茸大補湯)을 써도 좋다. 이 병은 계획하는 일이 너무 많고 생각하는 것이 무궁하기 때문에 생긴다.

太陰人證 有夢泄病 一月內 三四發者虛勞 重證也 大便 秘一日則宜用熱多寒少湯 加大黃一錢 大便 每日不秘則加龍骨減大黃 或用拱辰黑元丹 鹿茸大補湯 此病 出於謀慮太多 思想無窮

(해설) 기혈(氣血)이 부족하고 정신이 곤비한 상태를 허노증(虛勞證)이라 한다. 대개 남자에게 한한 병인데, 주색(酒色)·정신감동·음식상(飮食傷)·과로 등으로 인해서 온다. 몽설(夢泄)도 신경쇠약으로 인해 오는 증세인데, 태음인 병에는 중증이다.

34. 태음인병(太陰人病)에 졸중풍(卒中風)이 있다. 가슴에서 ‘각각’하는 숨 막히는 소리가 나고 눈을 똑바로 뜨는 자에게는 고채산(茱萸散)을 써야 하고, 수족 경련이 생기고 눈을 감는 자는 우황청심환(牛黃清心丸)을 써야 한다. 본시 얼굴빛이 누르고 붉고 검은 자는 대개 눈을 똑바로 뜨게 되고, 본시 얼굴빛이 푸르고 흰 자는 대개 눈을 감는다. 얼굴빛이 푸르고 희며 눈을 감는 자가 수족 경련이 생기면 그 병은 위급한 증세다. 경련이 생기기 전에 급히 청심환(淸心丸)을 써야 하며 고방(古方) 청심환(淸心丸)도 마찬가지로 신효하다. 눈을 똑바로 뜨는 자는 병이 급하게 발하긴 해도 죽는 것은 약간 늦으며, 눈을 감은 자는 병이 급히 발해서 또 급히 죽는다. 그러나 눈을 똑바로 뜨는 자도 늦게 서둘러서는 안 되며 빨리 다스려야 한다.

太陰人證 有卒中風病 胸臆 格格有窒塞聲而目瞪者 必用菰蒂散 手足拘攣眼合者 當用牛黃清心丸 素面色 黃赤黑者 多有目瞪者 素面色 青白者 多有眼合者 面色青白而眼合者 手足 拘攣則其病 危急也 不必待拘攣 但見眼合而素面色 青白者 必急用清心丸 古方清心丸 每每神效 目瞪者 亦急發而稍緩死 眼合者 急發急死 然目瞪者 亦不可以緩論而急治之

35. 우황청심환(牛黃清心丸)은 집집마다 있는 약이 아니므로 단지 원지(遠志)·석창포(石菖蒲)를 가루로 하여 각 3.75g씩 입 안에 넣어 주고 이어서 조각말(皂角末) 1.125g을 코에다 붙여 넣는다. 이 증세에 수족경련이 생기고 목이 뻣뻣해지면 위험하며 사람들이 병자의 두 팔목을 잡고 두 어깨를 좌우로 운동시켜야 하며, 혹 병자의 발목을 잡고 두 무릎을 굴신시켜야 한다. 태음인 증풍에는 환자의 어깨나 다리를 요동시키는 것은 매우 좋지만 소양인의 증풍에는 환자의 손이나 발을 요동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며, 또 껴안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소음인의 증풍에는 환자를 껴안아 일으키는 정도는 좋으나 두 어깨를 요동시키는 것은 좋지 않고 서서히 수족을 안마하는 것은 좋다.

牛黃清心丸 非家家必有之物 宜用遠志石菖蒲末各一錢灌口 因以皂角末三分吹鼻 此證手足 拘攣而項直則危也 傍人 以兩手 執病人兩手腕 左右撓動兩肩 或執病人足腕 屈伸兩脚 太陰人中風 撓動病人 肩脚 好也 少陽人中風 大忌撓動病人手足 又不可抱人起坐 少陰人中風 傍人 抱病人起坐則可也而不可撓動兩肩 可以徐徐按摩手足

36. 중독(中毒)이나 토사가 생겼을 때에는 사향(麝香)을 쓰는 것이 좋다.

中毒 吐瀉 宜用麝香



## 제18장 태음인(太陰人) 처방(處方)

一. 장중경(張仲景) 『상한론(傷寒論)』 중에서 태음인(太陰人) 처방으로 설정한 사방(四方)

### 1) 마황탕(麻黃湯)

마황(麻黃) 11.25, 주지(桂枝) 7.50, 감초(甘草) 2.25, 행인(杏仁) 10개(個),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個)

본방(本方)의 군약(君藥)은 마황(麻黃)이다. 그러므로 마황탕이라 하였다.

[적용(適用)] 태양병(太陽病) 표증(表證)에 실열(實熱)이 있을 때에 쓴다. 즉 맥(脈)이 부(浮)하고 두통·발열·오한(惡寒)·무한(無汗)·지절통(肢節痛)·천해(喘咳) 등에 쓴다.

### 2) 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

마황(麻黃) 5.63, 백작약(白芍藥)·계지(桂枝)·행인(杏仁) 각 3.75,

감초(甘草) 2.50, 생강(生薑) 3편(片), 대조(大棗) 2개(個)

본방(本方)은 계지탕(桂枝湯)과 마황탕(麻黃湯)을 합방한 것이다.

(적용) 『상한론(傷寒論)』에 태양병(太陽病) 표증(表證)이 8, 9일이 지나서 학질과 같은 증상, 즉 열이 많고 한기(寒氣)가 적으며 땀이 없고 몸이 가려운 데 쓴다. 피부병·두드러기·식중독·마비에도 쓴다.

### 3)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

대황(大黃) 15.00, 망초(芒硝) 7.50, 감초(甘草) 3.75

(적용) 주로 위열(胃熱)로 인하여 가슴이 조이고 답답한 데 쓴다. 또 상한(傷寒)·번조(煩燥)에 발광을 하고 얼굴이 붉으며 대변불통(大便秘通)·인후종통(咽喉腫痛)·구설창생(口舌瘡生)에 쓴다.

이 처방은 대승기탕(大承氣湯)에 지실(枳實)·후박(厚朴)을 빼고 감초(甘草)를 가한 것이다.

### 4) 대시호탕(大柴胡湯)

시호(柴胡) 15.00, 황금(黃芩)·백작약(白芍藥) 9.38, 대황(大黃) 7.50, 지실(枳實) 5.63

(적용) 소양증(少陽證)에서 양명병(陽明病)으로 전변(轉變)될 때, 신열(身熱)이 나며 오한(惡寒)은 없고 도리어 오열(惡熱)하며 대변이 견조(堅燥)하고 소변은 붉으며 헛소리를 하면서 배가 부르고 조열(潮熱)이 나는 증세를 다스린다. 또 급성간염·열성황달(熱性黃疸)·고혈압·담석증·담낭염에 쓰며, 혹 중풍에도 쓴다.

二. 당(唐)·송(宋)·명대(明代)의 의가(醫家)들이 저술한 중에서 경

## 험한 태음인병(太陰人病)의 요약(要藥) 구방(九方)

### 1) 석창포원지산(石菖蒲遠志散)

석창포(石菖蒲) · 원지(遠志)

이 두 가지 약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한 번에 3.75g을 하루에 세 번씩 술로 먹는다.

(적용) 이 처방은 손사막(孫思邈)의 『천금방(千金方)』에서 나온 것으로, 이목(耳目)을 총명하게 한다.

동무(東武)의 『수세보원(壽世保元)』에는 태음인(太陰人) 졸중풍(卒中風)에 청심환(淸心丸)을 쓸 증후에 원지(遠志) · 석창포말(石菖蒲末) 3.75g을 먹이고, 조각말(皂角末) 1.13g을 코에 붙어 넣어 구급(救急)한다고 하였다.

### 2) 조중탕(調中湯)

대황(大黃) 5.63, 황금(黃芩) · 길경(桔梗) · 갈근(葛根) · 백출(白朮) · 백작약(白芍藥) · 적복령(赤茯苓) · 고본(藁本) · 감초(甘草) 각 3.75

(적용) 주굉(朱肱)의 『활인서(活人書)』 중에 나온 것으로, 여름철에 조(燥)로 생긴 전염성 질환[역(疫)] 중에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막힌 데 쓴다.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해 보면 백출(白朮) · 백작약(白芍藥) · 복령(茯苓) · 감초(甘草)는 빼야 한다.

### 3) 흑노환(黑奴丸)

마황(麻黃) · 대황(大黃) 각 75.00, 황금(黃芩) · 부저매(釜底煤) · 망초

(芒硝) · 조돌묵(竈突墨) · 양상진(樑上塵) · 소맥노(小麥奴) 각 37.50

이 처방(處方)은 주굉(朱肱)의 『활인서(活人書)』 중에서 나온 것으로, 곱게 가루를 하여 꿀로 환(丸)을 만들어서 탄알만 한 크기로 하고, 한 번에 한 알씩 샘물에 먹는다. 잠깐동안 부들부들 떨다가 땀이 난 후에 풀린다.

(적용) 양독증(陽毒證)이나 괴상한(壞傷寒)에 치료가 안 되어 정신 · 기백이 혼미하나 아직은 명치 밑이 온난(溫煖)한 기운이 있으면 입을 벌리고 약을 떠 넣어 삼키게 하면 곧 낫는다.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여기서 망초(芒硝)는 빼야 한다.

[주(註)] ○부저매(釜底煤): 가마솥 밑에서 굽은 검정.

○조돌묵(竈突墨): 잡초와 잡목으로 불 땀 아궁이에 있는 부드러운 재[백초상(百草霜)].

○양상진(樑上塵): 대들보 위에 쌓인 먼지.

○소맥노(小麥奴): 밀밭에 생긴 갸부기.

#### 4) 생맥산(生脈散)

맥문동(麥門冬) 7.50, 인삼(人蔘) · 오미자(五味子) 각 3.75

(적용) 이천(李梴)의 『의학입문(醫學入門)』에서 나온 것인데, 여름철에 승냥을 대신하여 마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력이 솟아나게 한다.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이 중에서 인삼(人蔘)을 빼야 한다.

#### 5) 저근피환(櫟根皮丸)

저근백피(櫟根白皮)를 곱게 가루로 만들어 풀로 환(丸)을 만든다.

(적용) 이 처방은 이천(李梴)의 『의학입문(醫學入門)』에서 나온 것

으로, 몽설(夢泄)을 치료한다.

이 약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조(燥)할 때는 단복(單服)으로 써서는 안 된다.

#### 6) 이성구고환(二聖救苦丸)

대황(大黃) 150.00, 저아조각(猪牙皂角) 75.00.

함께 가루로 만들어 폴로 환(丸)을 짓되 녹두알만 한 크기로 하고, 한 번에 50~70환(丸)을 복용한다. 한 번 먹으면 땀이 나고, 땀이 나면 병이 풀린다.

(적용) 공신(龔信)의 『만병회춘(萬病回春)』에서 나온 유행성 온역(瘟疫)을 다스린다.

#### 7)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

갈근(葛根) · 승마(升麻) · 황금(黃芩) · 길경(桔梗) · 백지(白芷) · 시호(柴胡) · 백작약(白芍藥) · 강활(羌活) · 석고(石膏) 각 3.75, 감초(甘草) 1.88

(적용) 공신(龔信)의 『의감서(醫鑑書)』 중에서 나온 것으로 양명병(陽明病)에 눈알이 쏘고 코가 마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데 쓴다.

이제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시호(柴胡) · 작약(芍藥) · 강활(羌活) · 석고(石膏) · 감초(甘草)는 빼야 한다.

#### 8) 우황청심환(牛黃清心丸)

산약(山藥) 26.25, 감초초(甘草炒) 18.75, 인삼(人蔘) · 포황초(蒲黃炒) · 신국초(神麴炒) 각 9.38, 서각(犀角) 7.50, 대두황권초(大豆黃卷炒) · 육

계(肉桂) · 아교초(阿膠炒) 각 6.38, 백작약(白芍藥) · 맥문동(麥門冬) · 황금(黃芩) · 당귀(當歸) · 백출(白朮) · 방풍(防風) · 주사수비(朱砂水飛) 각 5.63, 시호(柴胡) · 길경(桔梗) · 행인(杏仁) · 백복령(白茯苓) 천궁(川芎) 각 4.88, 우황(牛黃) 4.50, 영양각(羚羊角) · 룡뇌(龍腦) · 사향(麝香) 각 3.75, 옹황(雄黃) 3.00, 백감(白歛) · 건강포(乾薑炮) 각 2.63, 금박(金箔) 140박(箔), 대조(大棗) 20개(個)

이 중에서 금박(金箔) 40박(箔)은 곁에 입히는 데 쓰고, 대조(大棗) 20개는 찌서 씨를 빼고 살을 갈아서 고(膏)를 만들고 다른 약들은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대조고(大棗膏)와 좋은 꿀로 반죽을 하여 환(丸)을 만들되 37.50g을 10개로 하고 금박(金箔)을 입혀서 한 번에 한 개씩 따뜻한 물에 먹는다.

(적용) 이 처방은 공신(龔信)의 『의감서(醫鑑書)』 중에서 나온 것으로, 인사불성이 되며 목구멍에 가래가 끓고 막혀서 정신이 혼미하고 말이 얼얼하며 입과 눈이 빠져어지고 손발이 마비되는 등 여러 가지 증세에 쓴다.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해보면 백출(白朮) · 인삼(人蔘) · 감초(甘草) · 신국(神麴) · 육계(肉桂) · 아교(阿膠) · 백작약(白芍藥) · 당귀(當歸) · 천궁(川芎) · 건강(乾薑) · 대조(大棗) · 청밀(淸蜜) · 시호(柴胡) · 백복령(白茯苓) · 옹황(雄黃) · 주사(朱砂)는 빼야 한다.

#### 9) 마황정천탕(麻黃定喘湯)

마황(麻黃) 11.25, 행인(杏仁) 5.63, 황금(黃芩) · 반하(半夏) · 상백피(桑白皮) · 소자(蘇子) · 관동화(款冬花) · 감초(甘草) 각 3.75, 백과(白果) 21개(個)

먼저 백과(白果, 은행)를 껍질을 까서 노랗게 불에 볶는다.

약성가(藥性歌)에 이런 노래가 있다.

모든 병에는 원래가 약방(藥方)이 있을 것이다. 코 골고 숨찬 증이 가장 어려우니 병자가 이 같은 선약(仙藥)을 만난다면 먹은 후 바야흐로 정천탕(定喘湯)인 줄 알 것이다.

(적용) 공신(龔信)의 『만병회춘(萬病回春)』 중에 나온 효천증(哮喘證)을 다스리는 신약(神方)이다.

이 처방을 다시 고찰하면 반하(半夏) · 소자(蘇子) · 감초(甘草)는 빼야 한다.

三. 새로 설정(設定)한 태음인병(太陰人病)에 응용(應用)하는 요약(要藥) 이십사방(二十四方)

#### 1)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

의이인(薏苡仁) · 건율(乾栗) 각 11.25, 나복자(蘿菥子) 7.50, 오미자(五味子) · 맥문동(麥門冬) · 석창포(石菖蒲) · 갈경(桔梗) · 마황(麻黃) 각 3.75

동무공(東武公)의 독창적 처방이며 또한 태음인의 대표적인 처방이다. 주로 의이인(薏苡仁) · 건율(乾栗)을 위군(爲君)하였으며, 이에 준한 처방들이 많다.

기성 처방 중에도 치습(治濕)을 목적으로 하는 행습류기음(行濕流氣飲), 고창(鼓脹)에 쓰는 조중건비환(調中健脾丸), 사지마비(四肢麻痺)에 쓰는 의이인탕(薏苡仁湯), 상한방(傷寒方) 흉비(胸痺)에 쓰는 의이인부자탕(薏苡仁附子湯), 장옹(腸癰)에 쓰는 의이인부자패장산(薏苡仁附子敗醬散)이 모두 의이인(薏苡仁)을 주재로 한 처방들이다. 그러나 건율

(乾栗)을 주재로 한 처방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본초학(本草學)에 신장약으로 나와 있을 뿐이다. 마른 밤은 보익(補益)하고 삶은 밤이나 생밤은 탈기(脫氣)한다고 하였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많이 먹이면 좋지 않으며, 삶은 밤이나 생밤을 막론하고 소화에 지장을 일으킨다. 그러나 체질적으로 밤은 태음인 소화제의 주약이 되고 있다. 허약한 태음인 아기에게 밤을 삶아서 먹이면 살이 찌는 것을 보았다. 소음인, 기타 체질에는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건울(乾栗)은 하기(下氣)·보익(補益)함은 물론이요, 식체비만(食滯痞滿)의 주약(主藥)이다. 의이인(薏苡仁)이 치습(治濕)하고 건울(乾栗)이 하기(下氣)하므로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이 태음인 허증(虛證) 약(藥)으로 대표적인 처방이다.

(적용) 식체비만(食滯痞滿)·복통·설사·등한(滕寒)·퇴각무력(腿脚無力)·황달·천식·온역(瘟疫)·부인대하(婦人帶下)·하혈, 그 밖에도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허증(虛證)을 다스린다.

## 2)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

갈근(葛根) 11.25, 황금(黃芩)·고본(藁本) 각 5.63, 길경(桔梗)·승마(升麻)·백지(白芷) 각 3.75

본방(本方)은 『고금의감(古今醫鑑)』에서 나온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의 변방(變方)이다. 『만병회춘(萬病回春)』의 시갈해기탕(柴葛解肌湯)과도 같다.

(적용) 삼양병(三陽病)이 합병되어 일어나는 두통·발열·심번(心煩)·불면·목동(目疼)·비조(鼻燥)·인건(咽乾)·이롱(耳聾)·오한(惡寒)·무한(無汗) 등을 치료한다. 열독(熱毒)으로 얼굴이 붉고 피부에



반점이 생긴 것과 신열(身熱) · 섬어(諛語) · 발광증(發狂證)을 치료한다.

### 3) 조위승청탕(調胃升淸湯)

의이인(薏苡仁) · 건율(乾栗) 각 111.25, 라복자(蘿菥子) 5.63, 마황(麻黃) · 길경(桔梗) · 맥문동(麥門冬) · 오미자(五味子) · 석창포(石菖蒲) · 원지(遠志) · 천문동(天門冬) · 산조인(酸棗仁) · 용안육(龍眼肉) 각 3.75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에 가미한 것이다.

(적용) 식후비만(食後痞滿) · 당뇨병 · 퇴각무력(腿脚無力)에 쓰고, 중풍 · 구안과사(口眼喎斜)에도 유효하다. 대개 허증(虛證)에 많이 쓰게 된다.

### 4) 청심연자탕(淸心蓮子湯)

연자육(蓮子肉) · 산약(山藥) 각 7.50, 천문동(天門冬) · 맥문동(麥門冬) · 원지(遠志) · 석창포(石菖蒲) · 산조인(酸棗仁) · 용안육(龍眼肉) · 백자인(栝子仁) · 황금(黃芩) · 나복자(蘿菥子) 각 3.75, 감국(甘菊) 1.13

본방(本方)은 『화제국방(和劑局方)』의 청심연자음(淸心蓮子飲), 『의학입문(醫學入門)』의 귀비탕(歸脾湯)과 비슷하다.

(적용) 심장병 · 신경성 질환에 쓴다. 정충증(怔忡症) · 건망증(健忘症) · 허노(虛勞) · 몽설(夢泄) · 유정(遺精) · 고혈압 · 중풍에도 쓴다.

### 5) 마황정천탕(麻黃定喘湯)

마황(麻黃) 11.25, 행인(杏仁) 5.63, 황금(黃芩) · 나복자(蘿菥子) · 상백피(桑白皮) · 길경(桔梗) · 맥문동(麥門冬) · 관동화(款冬花) 각 3.75, 백과초황(白果炒黃) 21개(個)

장씨(張氏) 『의통방(醫通方)』, 공신(龔信)의 『만병회춘(萬病回春)』의

마황정천탕(麻黃定喘湯)의 변방(變方)이다.

(적용) 기관지염·효천증(哮喘證)의 신방(神方)이다.

#### 6) 마황정통탕(麻黃定痛湯)

의이인(薏苡仁) 11.25, 마황(麻黃)·나복자(蘿菥子) 각 7.50, 행인(杏仁)·석창포(石菖蒲)·길경(桔梗)·맥문동(麥門冬)·오미자(五味子)·사군자(使君子)·용안육(龍眼肉)·백자인(栢子仁) 각 3.75, 건율(乾栗) 7개(個)

(적용) 흉비증(胸痺證)에 쓴다. 이는 협심증·식도경련과 같은 증세를 말하는 것이다. 음양교차(陰陽交叉)가 잘 안 되어 담(痰)이 흉격(胸膈)에 울체(鬱滯)되었을 때에 생기는 흉복통(胸腹痛)의 신약(神方)이다.

#### 7)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

갈근(葛根) 15.00, 황금(黃芩)·고본(藁本) 각 7.50, 나복자(蘿菥子)·길경(桔梗)·승마(升麻)·백지(白芷) 각 3.75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의 변방(變方)으로, 태음인 이병(裏病)에 대표적인 처방이다.

(적용) 간염·담낭염(膽囊炎)·황달·견배신경통(肩背神經痛)·상한(傷寒) 양명증(陽明症)의 주약(主藥)이며, 유행성 감모(感冒)에도 좋다. 두통·비건(鼻乾)·열통(咽痛)·목적(目赤)·이농증(耳膿症)에 쓰며, 축농증·허노(虛勞)·몽설(夢泄) 등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 8) 한다열소탕(寒多熱少湯)

의이인(薏苡仁) 11.25, 나복자(蘿菥子) 7.50, 맥문동(麥門冬)·길경

(桔梗)·황금(黃芩)·행인(杏仁)·마황(麻黃) 각 3.75, 건율(乾栗) 7개(個)

(적용) 한결증(寒厥證)에 쓴다. 열병(熱病)이 4, 5일 지났는데도 땀이 없고 오한(惡寒)이 심할 때 쓴다.

9) 갈근승기탕(葛根承氣湯)

갈근(葛根) 15.00, 황금(黃芩)·대황(大黃) 각 7.50, 승마(升麻)·길경(桔梗)·백지(白芷) 각 3.75

본방(本方)에 대황(大黃) 7.50g을 가하면 갈근대승기탕(葛根大承氣湯)이 되고, 대황(大黃) 3.75g을 감(減)하면 갈근소승기탕(葛根小承氣湯)이 된다.

이 처방은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에 고본(藁本)을 빼고 대황(大黃)을 가한 것이다.

(적용) 온역(瘟疫)에 열로 인하여 몸이 까실까실하고 머리·얼굴·목·볼 등에 열독(熱毒)이 생긴 데 쓴다.

또한 이열(裏熱)이 성하여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며 헛소리를 하고, 심하면 발광증(發狂症)과 풍(風)이 동하며, 손발은 차고 무릎을 굴신하지 못하며, 대변이 불통되는 데 쓴다.

10) 조리폐원탕(調理肺元湯)

맥문동(麥門冬)·길경(桔梗)·의이인(薏苡仁) 각 7.50, 황금(黃芩)·라복자(蘿菥子) 각 3.75

(적용) 본방(本方)은 중병을 앓고 난 뒤에 조리(調理)를 목적으로 쓴다.

11) 마황발표탕(麻黃發表湯)

길경(桔梗) 11.25, 마황(麻黃) 5.63, 맥문동(麥門冬) · 황금(黃芩) · 행인(杏仁) 각 3.75

(적용) 유행성 감모(感冒)에 땀이 나지 않고 기침이 심할 때에 쓴다. 기관지염, 또는 감모(感冒)의 대표적 처방이다.

12) 보폐원탕(補肺元湯)

맥문동(麥門冬) 11.25, 길경(桔梗) 7.50, 오미자(五味子) 3.75

『의학입문(醫學入門)』 중에 있는 생맥산(生脈散)의 변방(變方)이다.

여름철에 차대용으로 마시면 오장이 튼튼해지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

(적용) 어린아이가 오래 설사를 하여 만경풍(慢驚風)으로 되었을 때에 쓰고, 또 폐결핵 · 기관지염에도 쓰며, 객혈(咯血) · 토혈(吐血) · 녹혈(衄血)에 신효(神効)하다.

본방(本方)에 산약(山藥) · 의이인(薏苡仁) · 나복자(蘿藦子)를 각 3.75g 씩 가하면 더욱 효능이 좋다.

13) 녹용대보탕(鹿茸大補湯)

녹용(鹿茸) 7.50, 11.25, 15.00, 맥문동(麥門冬) · 의이인(薏苡仁) 각 5.63, 산약(山藥) · 천문동(天門冬) · 오미자(五味子) · 행인(杏仁) · 마황(麻黃) 각 3.75

『의학입문(醫學入門)』에 있는 녹용대보탕(鹿茸大補湯)과는 녹용(鹿茸)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그 내용이 다르다.

(적용) 모든 허약한 사람의 보혈제(補血劑)로 쓰며, 태음인 의한증

(表寒證)에 허노(虛勞)·소기(少氣)한 자에게 특효약이다. 또한 녹용(鹿茸)은 자음(滋陰)·생정(生精)·양혈(養血)하므로 모든 부인병에도 매우 좋다.

#### 14) 공진흑원단(拱辰黑元丹)

녹용(鹿茸) 150.00, 187.50, 225.00, 산약(山藥)·천문동(天門冬) 각 150.00, 제조(蟻螯) 37.50~75.00, 사향(麝香) 18.75

곰개 가루로 만들어 다시 오매(烏梅)를 삶아 살을 발려서 고(膏)를 만든다. 약 가루와 반죽하여 환(丸)을 만들되 오자(梧子) 크기로 하고, 한 번에 50~70환(丸)을 따뜻한 물이나 소주(燒酒)로 복용한다.

(적용) 위역림(危亦林)의 『득효방(得効方)』 중에서 나온 공진단(拱辰丹)의 변방(變方)이며, 수승화강(水升火降)하므로 백병(百病)이 불생(不生)한다 하였다.

태음인의 허약자에게 쓴다. 특히 이증(裏證)에 간(肝)이 실(實)한 자의 특효약이다.

#### 15) 조각대황탕(皂角大黃湯)

승마(升麻)·갈근(葛根) 각 11.25, 대황(大黃)·조각(皂角) 각 3.75

적용((適)用) 이는 『만병회춘(萬病回春)』에서 나온 이성구고환(二聖救苦丸)의 변방(變方)으로, 고열(高熱)이 있고 추우며, 머리·얼굴·목·볼이 벌겋게 붓는 데 유효하다.

천행(天行) 온역(瘟疫)에 특효가 있으며 한 번 먹고 땀을 내면 곧 병이 풀린다. 이 약은 3, 4첩 이상을 쓸 수 없고 특히 승마(升麻) 11.25g 이상과 대황(大黃)·조각(皂角)은 모두 관부(官部)의 약이므로

약력(藥力)이 준맹(峻猛)하다.

16) 갈근부평탕(葛根浮萍湯)

갈근(葛根) 11.25, 나복자(蘿菥子)·황금(黃芩) 각 7.50, 자배부평(紫背浮萍)·대황(大黃) 각 3.75, 제조(蟾蜍) 10개(個)

(적용) 본방(本方)은 부종(浮腫)의 이병(裏病)을 다스리는 데, 열이 많은 자에 쓴다.

17) 건울제조탕(乾栗蟾蜍湯)

건울(乾栗) 100개(個), 제조(蟾蜍) 10개(個)

달여서 먹되 혹 구워서 먹기도 하며, 황율(黃栗)과 굴벵이를 가루를 만들어서 황율(黃栗) 달인 물에 조복(調服)한다.

(적용) 부종병(浮腫病) 표증(表證)을 다스리는 데, 한기(寒氣)가 많은 자에게 쓴다.

18) 건울저근피탕(乾栗樗根皮湯)

건울(乾栗) 37.50, 저근백피(樗根白皮) 11.25, 15.00, 18.75

(적용) 이병(痢疾)을 다스린다.

탕(湯)을 하거나 혹은 환(丸)을 만들어서 먹는다. 환(丸)으로 복용하는 자는 단방(單方)으로 저근백피(樗根白皮) 18.75g을 복용한다.

19) 고채산(苳薹散)

참외꼭지[고채(苳薹)]를 약간 노랗게 초(炒)를 하고 가루를 만들어서 1.13~1.88g 정도를 따뜻한 물에 복용한다. 혹 마른 참외꼭지

3.75g을 급히 달여서 먹기도 한다.

(적용) 졸중풍(卒中風)을 다스린다. 가슴에서 ‘끼걱’ 하고 막힌 소리가 나거나 눈을 똑바로 뜨거나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써야 한다.

이 약은 이 병과 이 증세에만 쓸 수 있어도 다른 병이나 다른 증세에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흉복통(胸腹痛)이나 한해천(寒咳喘)에는 더욱 쓸 수 없다. 비록 음식물에 체했더라도 이 약은 쓸 수 없고 다른 약을 써야 한다.

얼굴빛이 푸르고 희면서 본래 한증표허(寒證表虛)한 자가 졸중풍(卒中風)이 되었으면 웅담산(熊膽散)·우황청심환(牛黃清心丸)·석창포원지산(石菖蒲遠志散)을 써야 하고 고체산(茺蔚散)을 써서는 안 된다.

#### 20) 웅담산(熊膽散)

능담(能膽) 1.13~1.88

온수(溫水)에 타서 마신다.

(적용) 열병(熱病)이 5, 6일이 되어도 땀이 없고 한결증(寒厥證)이 심하면 매우 위험한 증세이며. 이런 경우에 웅담(熊膽)을 쓴다. 졸중풍(卒中風)·인사불성(人事不省)에도 쓴다.

#### 21) 사향산(麝香散)

사향(麝香) 1.13~1.88

온수(溫水)나 혹은 온주(溫酒)에 타서 마신다.

(적용) 식중독으로 복통·설사·구토가 심할 때, 또는 졸중풍(卒中風)으로 혼수상태가 되었을 때 쓴다.

22) 석창포원지산(石菖蒲遠志散)

원지(遠志) · 석창포(石菖蒲) 각 3.75 저아조각(猪牙皂角) 1.13

곱게 가루로 만들어 한 번에 1g씩 따뜻한 물에 먹는다. 혹 원지(遠志) · 석창포말(石菖蒲末)을 온수에 먹고 조각말(皂角末)을 코에 붙여 넣는다.

(적용) 졸중풍(卒中風)으로 아관긴급(牙關緊急)이 되었을 때와 수족 경련(手足痙攣)과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 쓴다.

23) 맥문동원지산(麥門冬遠志散)

맥문동(麥門冬) 11.25, 원지(遠志) · 석창포(石菖蒲) 각 3.75, 오미자(五味子) 1.88

(적용) 오래 복용하면 이목(耳目)이 밝아진다.

24) 우황청심원(牛黃清心元)

산약(山藥) 26.25, 포황초(蒲黃炒) 9.38, 서각(犀角) 7.50, 대두황권초(大豆黃卷炒) 6.38, 맥문동(麥門冬) · 황금(黃芩) 각 5.63, 길경(桔梗) · 행인(杏仁) 각(各) 4.89, 우황(牛黃) 4.50, 영양각(羚羊角) · 용뇌(龍腦) · 사향(麝香) 각 3.75, 백갑(白鯁) 2.63, 금박(金箔) 70박(箔)

금박(金箔) 20박(箔)은 환(丸)의 겉을 입히는 데 쓴다.

오매(烏梅) 20개를 삶아서 살을 발라내어 고(膏)를 만든다. 위의 모든 약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오죽(烏梅)와 함께 반죽을 하여 37.50g을 20개의 환(丸)으로 만들되 금박(金箔)으로 겉을 입힌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개씩 온수에 씹어 먹는다.

(적용) 뇌일혈(腦溢血)로 혼수상태가 되어 목에서 가래가 끓을 때



나, 또는 정신이 혼미하고 목소리가 얼얼하며 반신불수(半身不遂) · 구안괘사(口眼喎斜)에 유효하다.

중풍전조증(中風前兆證), 즉 고혈압에도 특효가 있다.

이 처방은 공신(龔信)의 『의감서(醫鑑書)』 중에서 나온 우황청심환(牛黃淸心丸)의 변방(變方)이다.

※ 태음인(太陰人)의 약성(藥性)[동무유고(東武遺稿)]

藥 名	藥 性	解 說
麥門冬	補肺和肺	폐를 보하고 폐기운을 온화하게 한다.
五味子	健肺直肺	폐기운을 튼튼하게 하고 또 바르게 한다.
砂 糖	固肺立肺	폐기운을 굳게 하고 바로 세운다.
山 藥	壯肺而 有內守之力	폐기운을 튼튼하게 하고 안을 지키는 힘이 있다.
桔 梗	壯肺而有 外攘之力	폐기운을 튼튼하게 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다.
牛 黃	壯肺而有 充足內外之力	폐기운을 튼튼하게 하고 안팎을 충족케 하는 힘이 있다.
石菖蒲	錯綜肺氣之 參伍均調	폐기운이 이리저리 얹혀 있는 것을 고르게 해준다.
黃 芩	收斂肺元	폐의 원기를 견어 들인다.
山棗仁	安神安意	정신과 뜻을 안정시킨다.
龍眼肉	〃	〃
天門冬	開皮毛	모피를 열어 준다.
甘 菊	〃	〃
桑白皮	潤肺痰	폐의 가래를 부드럽게 한다.
杏 仁	〃	〃
麻 黃	解肺之表邪	폐의 사기를 푼다.
款冬花	〃	〃
石蓮 肉	開肺之胃氣 而消食進食	폐기운을 열어 위기로 하여금 음식 소화를 잘하게 한다.
薏苡仁	〃	〃
白 果	〃	〃
黃 栗	〃	〃
熊 膽	爲肺元帥之藥能 驅逐肺之邪氣而 其功如脾之炮附 子腎之石膏也	폐의 원수가 되는 약이며 폐의 사기를 없애는 공이 크다. 비장의 포부자와 신장의 석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遠 志	醒肺之眞氣	폐의 진기를 깨우친다.
栲 櫟 根 白 皮	〃	〃
鬱 金	滌肺之穢氣	폐의 더러운 기운을 씻는다.
朱 砂	〃	〃
麝 香	能除肺之久病	폐의 오랜 병을 없앤다.
大 黃	通肺之痢疾	폐를 통하게 하여 이질을 치료한다.

※ 태음인(太陰人)의 요약(要藥)[본초강령(本草綱目)]

갈근(葛根)(참뿌리)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고(苦)하다.

주치(主治)－상한(傷寒)·오한(惡寒)·발열·두통·구갈(口渴)·고혈압 초기에 쓰고, 특히 간(肝)의 주약(主藥)이며, 주독(酒毒)에도 효과가 있다.

건울(乾栗)(마른 밤)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미(味)는 함감(鹹甘)하다.

주치(主治)－마른 밤은 기(氣)를 보(補)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하였으며, 날밤을 오래 먹으면 기운이 빠진다고 하였다. 날밤을 씹어서 상처(傷處)에 붙이면 해독작용을 하며, 식체비만(食滯痞滿)·설사(泄瀉)·요각통(腰脚痛)에 쓴다.

고본(藁本)(다년생초인 고본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미(味)는 신고(辛苦)하다. 고본(藁本)은 휘발성(揮發性) 정유(精油)를 함유(含有)하고 있다.

주치(主治)－풍(風)·한(寒)·습(濕)을 치료하며, 머리·이마·피부  
일체의 울혈성(鬱血性) 동통(疼痛)을 치료한다. 감기로 악한(惡寒)·발  
열(發熱)·무한(無汗)한 데와 두통(頭痛)·신통(身痛)·지절통(肢節痛)에  
도 쓴다.

고체(蒺藜)(참외 꼭지)

성미(性味)－성(性)은 한(寒)·유독(有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토담제(吐痰劑)로 쓰고, 황달(黃疸)·수종(水腫)에 쓴다.

관동화(款冬花)(국화과에 속한 다년초인 머위의 꽃봉오리)

산지－중국

성미(性味)－폐(肺)의 표사(表邪)를 없애고 윤택하게 하므로 지해(止  
咳)·화담(化痰)·만성 기관지천식에 주약(主藥)이며, 폐위(肺痿)·번  
갈(煩渴)에도 쓴다.

국화(菊花)(국화꽃)

성미(性味)－성(性)은 약간 차고, 미(味)는 감(甘)·미고(微苦)하다.

주치(主治)－풍기(風氣)로 어지럽고 얼굴이 붓고 아픈 데 쓴다. 오  
래 복용하면 피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진다.

금박(金箔)

성미(性味)－성(性)은 평(平)하고 유독(有毒)하다 하였으나 연금(鍊  
金)한 것은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하다.

주치(主治)－정신 신경을 안정시키고 강신제(強心劑)로 쓰며, 소이

노간(小兒驚癇)에 쓴다.

나복자(蘿菥子)(무 씨)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감(甘)하다.

주치(主治)－소화 작용을 하고, 복창적취(腹脹積聚)·대소변불통(大小便不通)·풍치(風痔)에 쓴다.

녹용(鹿茸)(사슴뿔)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함(鹹)하다. 단백질·아교질(阿膠質)·탄산(炭酸)암모늄·호르몬 등을 함유하고 있다.

주치(主治)－보혈강장제(補血強壯劑)의 대표적인 약이다. 허노(虛勞)·요신한냉(腰腎寒冷)·유정(遺精)·요혈(尿血)·각등무력(脚膝無力), 부인(婦人)의 붕루(崩漏)·대하(帶下)에 쓴다.

녹각교(鹿角膠)[녹각(鹿角)을 고아서 아교를 만든 것]

성미(性味)－약간 온(溫)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토혈(吐血)·육혈(衄血)·하혈(下血)과 유정(遺精)·안태(安胎)·강장(強壯)·신경쇠약 등에 쓴다.

대황(大黃)(장군풀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대한(大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향(香)하며, 하제(下劑)의 대표적 약이다.

주치(主治)－이열(裏熱)을 사(瀉)하고 어혈(瘀血)을 풀며, 하초습열(下焦濕熱)·적백리질(赤白痢疾)·소변불리(小便不利)·임질(淋疾)·수종(水腫)에 쓴다.

대두황권(大豆黃卷)(갯완두 질균)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청열(淸熱)·행수(行水)·치습(治濕)·근육경련(筋肉痙攣)·등통(膝痛)에 쓴다.

마황(麻黃)[마황과(麻黃科)에 속한 다년생 초목인 마황의 줄기]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무독(無毒)하며, 미(味)는 신(辛)·고(苦)하다.

주치(主治)－해표(解表)·한출(汗出)하고, 폐허담수(肺虛痰嗽)·상기(上氣)에 쓴다. 교감신경 기능을 촉진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며, 한맥(汗脈)을 열어서 발한(發汗)·해열(解熱)하고, 기관지경련을 완화시키며 천급(喘急)에 유효하다.

맥문동(麥門冬)[백합과에 속한 맥문동의 괴근(塊根)]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폐(肺)의 주약(主藥)이다. 청폐(淸肺)·안신(安神)·양음(養陰)·통맥(通脈)한다.

백지(白朮)(구리대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감(甘)·신

(辛)·고(苦)하다.

주치(主治)－풍사(風邪)를 치고, 배농(排膿)·부인혈붕(婦人血崩)·대하(帶下)에 쓰며, 축농증·중이염·두통·치통에도 쓴다.

백과(白果)(은행)

성미(性味)－성(性)은 한(寒)·유독(有毒)하며,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폐(肺)의 탁기(濁氣)를 맑게 하고, 담(痰)을 없애며 기침을 멎게 한다.

백자인(栢子仁)(측백나무 씨)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미감(微甘)하다. 정유(精油)·지방유(脂肪油)를 함유하고 있다.

주치(主治)－심계(心悸)·불면·변갈(煩渴)을 치료하고, 윤장(潤腸)·신경안정제로 쓴다.

백반(白礬)[화단(火煨)하여 수분을 제하여 쓴다]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섹(澇)하고 산(酸)하다.

주치(主治)－나력(癰癤)·비창(鼻瘡)·종기·구치통(口齒痛)에 쓰고, 위장염·객혈·토혈에도 쓴다.

백련(白蘚)(가위톱)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고(苦)하다.

주치(主治)－옹저(癰疽)·발배(發背)·나력(瘰癧)·탕화상(湯火傷)·타상(打傷) 등에 외용약(外用藥)으로 많이 쓴다.

부평(浮萍)[개구리밥과에 속한 다년생 수초(水草)]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고(苦)·미감(微甘)하다.

주치(主治)－발한(發汗)·거풍(祛風)·이뇨·소염·해독·소양증(癢症)에 쓴다.

산약(山藥)(마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주로 보폐(補肺)·안신(安神)하고, 몽설(夢泄)·요통(腰痛)에 쓰며, 치습(治濕)·생진액(生津液)·장기육(長肌肉)한다.

사향(麝香)(사향노루의 배꼽)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며, 미(味)는 신(辛)·미고(微苦)다.

주치(主治)－홍분작용이 강하고 또 신진대사작용을 촉진시킨다. 또 강심제로도 쓰이고 살충·살균·심복통(心腹痛)·경간(驚癇)에도 신호하다.

사군자(使君子)

성미(性味)－성(性)은 약간 온(溫)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소아오감병(小兒五疳病)을 치료하고, 지사(止瀉)·지리

(止痢)·소변탁(小便濁)에도 쓰며, 살충제로도 쓴다.

산조인(酸棗仁)[자주색의 비후(肥厚)한 것을 쓴다]

산지-중국

성미(性味)-성(性)은 평(平)하고, 미(味)는 산(酸)하다.

주치(主治)-피를 비장(脾臟)으로 보내어 잠을 자게 한다. 신경안정제로 불면(不眠)·다면(多眠)에 쓴다.

상백피(桑白皮)(산뽕나무 뿌리의 껍질)

성미(性味)-성(性)은 항(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주로 폐열(肺熱)을 사(瀉)하는 약이다. 해열·진해(鎮咳)·거담(祛痰)·소염(消炎)·이뇨에 쓴다. 해수(咳嗽)·폐염·기관지염·폐수종(肺水腫)·구혈(嘔血)·습성흉막염(濕性胸膜炎)·소변불리(小便不利)·면부부종(面部浮腫)에 쓴다.

서각(犀角)

성미(性味)-성(性)은 한(寒)하고, 미(味)는 고(苦)·함(鹹)·산(酸)하다.

주치(主治)-심신(心神)을 안정시키고, 풍독(風毒)을 치며, 진간명목(鎮肝明目)·악창(惡瘡)을 다스린다.

석창포(石菖蒲)(석창포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미(味)는 신(辛)·고(苦)하며 방향성(芳香性)이 강하다.

주치(主治)-위장의 발효를 억제하고 위 근육을 이완시킨다. 또 신



기(神氣)를 돕고 안혼(眼昏)·건망(健忘)·이롱(耳聾)·거담(祛痰)에도 쓴다.

승마(升麻)[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한 승마(升麻)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평온(平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감(甘)하다.

주치(主治)－발한(發汗)·승양(升陽)·산풍(散風)·해열(解熱)·제백독(除百毒)·반진(斑疹)·옹저(癰疽)·어혈(瘀血)·두통(頭痛)에도 쓴다.

아교(阿膠)(소가죽이나 노새가죽을 고아서 아교를 만든 것)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폐기(肺氣)를 보(補)하고 노수(勞嗽) 및 구리(久痢)·토혈(吐血)·태루(胎漏)에 쓴다.

오미자(五味子)(오미자나무의 열매)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강산(強酸)하고 약간 감(甘)하다.

주치(主治)－진해(鎮咳)·거담(祛痰)·생진지갈(生津止渴)·감한(歛汗)·명목(明目)·보신(補腎)·허노(虛勞)·폐열(肺熱)에 쓴다.

용뇌(龍腦)[용뇌수(龍腦樹)의 수교(樹膠)]

산지－중국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신(辛)·고(苦)하다.

주치(主治)－청량성(清涼性) 강심 흥분제로 쓴다. 방향제로 으뜸가

는 약이다.

급성열병(急性熱病) · 심장쇠약 · 뇌신경쇠약 · 혼미 · 부인난산(婦人難産) · 식상(食傷) · 곽란(霍亂) · 중서(中暑) · 흉복통(胸腹痛) · 경간(驚癇) · 비염(鼻炎) · 안병(眼病) · 구내염(口內炎) · 후비(喉痺) · 내외치질(內外痔疾) 등 외과(外科)약으로도 많이 쓰인다.

오매(烏梅)[매화(梅花)나무의 익지 않은 열매]

성미(性味)－성(性)은 평온(平溫)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산(酸)하다.

주치(主治)－폐(肺)의 기운을 수렴(收斂)하고 지갈(止渴) · 제번(除煩) · 허노(虛勞) · 거담(祛痰) · 사리(瀉利) 및 해독작용을 한다.

영양각(羚羊角)

성미(性味)－성(性)은 한(寒)하고, 미(味)는 함(鹹)하다.

주치(主治)－명목(明目) · 청간(淸肝) · 해독(解毒) · 경증(驚症)에 쓴다.

연자육(蓮子肉)(연 씨, 연밥)

성미(性味)－성(性)은 평(平) · 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 · 습(澁)하다.

주치(主治)－정신을 양(養)하고, 중기(中氣)를 보(補)하며, 비허설사(脾虛泄瀉) · 몽설(夢泄) · 유정(遺精) · 요통(腰痛) · 불면(不眠) · 심계(心悸) · 붕루(崩漏) · 대하(帶下)에 쓴다.

용안육(龍眼肉)[용안(龍眼)의 종피(種皮)]

산지－중국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미온(微溫)·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하다.

주치(主治)－안신(安神)·정지(定志)·충명(聰明)·보심(補心)·살충(殺蟲)·건망(健忘)·정충(怔忡)에 쓴다.

우황(牛黃)[소의 쓸개에서 나온 담석(膽石)]

성미(性味)－성(性)은 평양(平涼)·소독(小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풍간(風癇)·간질(癇疾)·온역(瘟疫)·난산(難産)에 쓴다.

웅담(熊膽)(곰의 쓸개)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열이 심한데 해열제로 쓰고, 살충·소아경간(小兒驚癇)·청심(淸心)·평간(平肝)·명목(明目)·악창(惡瘡)·황달(黃疸)·타박(打撲)·어혈(瘀血)·해독(解毒)에 쓴다.

원지(遠志)(애기풀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경계(驚悸)·안신(安神)·진심(鎮心)·충명(聰明)에 쓴다.

용골(龍骨)(코끼리·들소·사슴, 기타 야생동물의 뼈가 석화(石化)된 것)

산지－중국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무독(無毒)·미(味)는 감(甘)·함(鹹)·삽(澁)하고 칼슘을 함유하고 있다.

주치(主治)－수렴·진정작용을 하고, 구리(久痢)·농혈(膿血)·도한(盜汗)·지혈(止血)·몽설(夢泄)·토혈(吐血)·뇨혈(尿血)·하혈(下血)·혈붕(血崩) 등에 쓴다.

저근백피(樗根白皮)[가죽나무의 근피(根皮)]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치습(治濕)·청열(淸熱)·고장(固腸)·회충(蛔蟲)·산후출혈(産後出血)·대탁(帶濁)·혈리(血痢)·구리(久痢)·몽설(夢泄)에 쓴다.

제조(蟾蜍)(곰뱀이, 뽕나무 곰뱀이)

성미(性味)－성(性)은 온(溫)하고, 미(味)는 함(鹹)하다.

주치(主治)－소염제로 쓰고, 부종(浮腫)·어혈(瘀血)·외상(外傷)에도 찌워서 붙이고, 눈병에 즙(汁)을 넣기도 한다.

조각(皂角)[쥐엄나무 열매. 중국산의 저아조각(猪牙皂角)이 있음]

성미(性味)－성(性)은 온(溫)·유독(有毒)하며, 미(味)는 신(辛)·산(酸)하다.

주치(主治)－구규(九竅)를 통하고, 담연(痰涎)·적취(積聚)·중풍(中風)·구안과사(口眼喎斜)·악창(惡瘡)·옹저(癰疽)에 쓴다.

천문동(天門冬)[천문동(天門冬)의 괴근(塊根)]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감(甘)·고(苦)하다.

주치(主治)－청량자양제(淸涼滋養劑)로서 폐열(肺熱)·폐조(肺燥)·폐

결핵·만성기관지염에 쓴다.

측백엽(側柏葉)(측백나무 잎)

성미(性味)－성(性)은 미한(微寒)·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감(甘)·고(苦)·색(澀)하다.

주치(主治)－주로 혈해(血咳)에 수렴(收斂)·지혈작용(止血作用)을 한다. 토혈(吐血)·녹혈(衄血)·해혈(咳血)·뇨혈(尿血)·혈리(血痢)·편혈(便血)·생기역절풍(生肌歷節風)·탕화상(湯火傷)·동상(凍傷) 등에 쓴다.

포황(蒲黃)[다년생초인 애기부들의 화분(花粉)]

성미(性味)－성(性)은 평(平)·무독(無毒)하고, 미(味)는 감(甘)·신(辛)하다.

주치(主治)－지혈·소염·이뇨·통경(通經)에 쓴다.

황금(黃芩)[다년생초인 황금(黃芩)의 뿌리]

성미(性味)－성(性)은 한(寒)·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청열(淸熱)·해열(解熱)·소염작용(消炎作用)을 한다. 두통(頭痛)·구갈(嘔渴)·학리(瘡痢)·주독(酒毒), 특히 폐열(肺熱)을 사(瀉)한다.

행인(杏仁)(살구 씨)

성미(性味)－성(性)은 온(溫)·무독(無毒)하며, 미(味)는 고(苦)하다.

주치(主治)－윤폐(潤肺)·지수(止嗽)·통기(通氣)·소식(消食)·종창(腫瘡)·거풍(祛風)·발한(發汗) 또는 성음(聲音)에 쓴다.

(비고) 태음인(太陰人)의 여러 가지 약 중에 행인(杏仁)은 씨가 두 개 있는 것은 버리고 속껍질도 벗겨야 하며, 맥문동(麥門冬)·원지(遠志)는 심(心)을 빼고, 백과(白果)·황률(黃栗)은 겉껍질을 까서 쓰며, 대황(大黃)은 술에 찌서 쓰거나 생으로 쓰기도 한다. 녹용(鹿茸)과 조각(皂角)은 술이나 초에 담가 구(灸)해 쓰고, 산조인(酸棗仁)·행인(杏仁)·백과(白果)는 초(炒)해서 쓴다.

## 제 6편





## 제19장 태양인(太陽人)

### 외감요척병론(外感腰脊病論)

1. 『내경(內經)』에 “척맥(尺脈)이 완(緩)하고 삼(澁)하면 해역증(解僂證)이라 이른다.”

이 뜻을 해석하면 ‘척맥(尺脈)은 음부(陰部)가 되니 간신(肝腎)이 이를 주관하고, 맥(脈)이 완(緩)하면 열중(熱中)이 되고, 맥(脈)이 삼(澁)하면 피가 마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역증(解僂證)이라 한다. 해역(解僂)이란 것은 한(寒) 같아도 한증(寒證)이 아니요 열(熱) 같아도 열증(熱證)이 아니며, 약한 것 같아도 약하지 않고 씩씩한 것 같아도 씩씩하지 않으며 꼬집어서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니 이를 일러 해역증(解僂證)이라 한다.

內經 曰尺脈 緩澁 謂之解僂 釋曰尺爲陰部 肝腎 主之 緩爲熱中 澁爲亡血故 謂之解僂 解僂者 寒不寒熱不熱弱不弱壯不壯 寧不可名 謂之解僂也

2. 『영추경(靈樞經)』에 “골수(骨髓)가 상하면 소삭(消爍)하여 정강이가 저리고 몸이 해역(解僂)해져서 가지를 못한다.” 가지를 못하는 것

은 즉 견지를 못한다는 뜻이다.

靈樞 曰髓傷則消燼 筋痿體解 然不去矣 不去 謂不能行去也.

[주(註)] ○ 소삭(消燼): 녹아 없어진다는 뜻이다.

3.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증세는 태양인(太陽人) 요척병(腰脊病)으로서 매우 중한 증세다. 깊이 슬퍼함을 경계해야 하고 분노를 멀리하며 맑은 마음을 간직하여 안정을 되찾도록 해야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증세에는 오가피장척탕(五加皮壯脊湯)을 써야 한다.”

論曰此證 卽太陽人腰脊病太重證也 必戒淡哀遠嗔怒 修清定然後 其病可愈此證 當用五加皮壯脊湯

4. 해역(解佚)이라 함은 상체는完건하나 하체가 풀려서 다리에 힘이 없어 행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리가 마비되었거나 붓고 아픈 것이 아니며 또 다리 힘이 그다지 약한 것도 아니다. 약한 것 같아도 약하지 않고 씩씩한 것 같아도 씩씩하지 않으며, 한(寒) 같아도 한증(寒證)이 아니요 열(熱) 같아도 열증(熱證)이 아닌데, 이 병은 요척(腰脊)에서 생긴 병이기 때문이다. 해역증(解佚證)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한(惡寒)·발열(發熱)과 몸이 쭈시고 아픈 증세가 별로 없는 것이다. 만일 태양인(太陽人)에게 크게 오한(惡寒)·발열(發熱)·신체동통(身體疼痛)같은 증세가 있으면 도리어 요척(腰脊)의 표기(表氣)가 충실한 것이니 이는 치료하기 쉽고 그 사람은 또한完건한 것이다.

解僂者 上體完健而下體解僂 然 脚力 不能行去也而其脚 自無麻痺腫痛之證 脚力 亦不甚弱 此 所以弱不弱壯不壯寒不寒熱不熱而其病 爲腰脊病也 有解僂證者 必無大惡寒發熱身體疼痛之證也 太陽人 若有大惡寒發熱身體疼痛之證 則腰脊表氣 充實也其病 易治 其人 亦完健

## 제20장 태양인(太陽人)

### 내촉소장병론(內觸小腸病論)

1. 주운정(朱震亨)이 말하기를 “일격(噎膈)·반위(反胃)의 병증(病證)은 혈액이 모손(耗損)되어 위완(胃脘)이 건조해지는 증세다. 목구멍 위가 건조한즉 물은 넘길 수 있어도 음식은 넘기기 어려우며, 혹 넘여간다 해도 많지 못하다. 이를 일(噎)이라 하고, 또 식도 아래 위(胃)의 가까이가 건조하면 음식이 넘어간다 해도 위로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얼마 후에 도로 토하게 되니, 이를 격(膈) 또는 반위(反胃)라 한다. 대변이 비소(秘少)하여 마치 염소 똥 같다. 그러나 명칭은 비록 달라도 병의 원인은 한 군데에서 나온 것이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상초(上焦)의 일격(噎膈)은 음식이 내려가면 위완(胃脘)의 심하부(心下部)가 아프다가 얼마 후에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즉시로 아픈 것이 가신다. 또 중초(中焦)의 일격(噎膈)은 음식이 내려가도 위(胃)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 후에 도로 토하게 되며 하초(下焦)의 일격(噎膈)은 아침에 먹는 것을 저녁에 토하고 저녁에 먹은 것을 아침에 토하게 되니, 기혈(氣血)이 모두 허한 자는 입

에서 많은 거품을 토하며, 많은 거품을 토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대변이 염소 똥 같아도 치료가 어렵고, 담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자도 치료하기 어렵다.”

朱震亨 曰噎膈反胃之病 血液 俱耗 胃脘 乾枯 其枯在上近咽則水飲 可行食物難入 入亦不多 名之曰噎 其枯 在下近胃則食雖可入 難盡入胃 良久復出 名之曰膈 亦曰反胃 大便 秘少 若羊屎然 名雖不同 病出一體 又曰上焦噎膈 食下則胃脘 當心而痛 須臾 吐出 食出痛乃止 中焦噎膈 食物 可下 難盡入胃 良久 復出 下焦噎膈 朝食暮吐 暮食朝吐 氣血 俱虛 者 口中 多出沫但見沫多出者 必死 大便 如羊屎者 難治 不淡飲食者 難治

2. 장계봉(張鷟峰)이 말하기를 “일(噎)은 본시 신경성으로 온 것이니 오직 스스로 자신을 살피면서 본마음을 길러야 능히 고칠 수 있다.”

張鷟峰 曰噎 當是神思間病 惟內觀自養 可以治之

[주(註)] ○장계봉(張鷟峰):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단계심법(丹溪心法)』에 나와 있고, 『동의보감(東醫寶鑑)』 일격반위문(噎膈反胃門)에 그의 학설을 인용한 바 있다.

3. 공신(龔信)의 『고금보감(古今醫鑑)』에서 말하기를 “반위(反胃) · 격(膈) 또는 일(噎)은 다 원인이 같다. 일(噎) · 격(膈) 증세는 허(虛)에 속하지도 않고 실(實)에 속하지도 않으며, 한(寒)에 속하지도 않고 또 열(熱)에 속하지도 않는다. 다만 신기(神氣)에 속한 하나의 병일 따름이다.”

龔信醫鑑 曰反胃也膈也噎也 受病 皆同噎膈之證 不屬虛不屬實不屬冷

不屬熱 乃神氣中一點病耳

4.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세는 태양인(太陽人) 소양병(小陽病) 중에 가장 중한 증세로 본다. 반드시 성내는 일을 멀리해야 하고, 또 기름진 음식을 금해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병증에는 미후등식장탕(彌猴藤植腸湯)을 써야 한다.”

論曰此證 卽太陽人小陽病太重證也 必遠嗔怒斷厚味然後 其病 可愈 此證當用彌猴藤植腸湯.

5. 음식물이 밖에서 들어갈 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일(噎)이라 하고, 안에서 받아 가지고 거부하는 것이 있으면 격(膈)이라 하며, 아침에 먹은 것을 저녁에 토하거나 저녁에 먹은 것을 아침에 토하는 것을 반위(反胃)라 한다. 그러나 아침에 먹은 것을 저녁에 토하고 저녁에 먹은 것은 아침에 토하는 자는 먹은 것을 전부 토하는 것이 아니다. 방해하는 것이 위(胃)의 상구(上口)에 있어서 이를 거부하는 자는 하룻밤이 지나자 저절로 토하는 것이니 반위(反胃)라도 또한 일격(噎膈)인 것이다. 대개 일격(噎膈)은 위완(胃脘)에서 생기는 일격(噎膈)이요, 반위(反胃)는 위구(胃口)에서 생기는 일격(噎膈)이니 모두 같은 증세인 것이다. 일격(噎膈) 증세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배가 아프거나 속이 끓고 설사·이질 같은 증세는 전혀 없다. 만일 태양인에게 배가 아프거나 속이 끓고 설사하거나 이질 같은 증세가 있다면 소장(小腸)의 이기(裏氣)가 충실한 것이니 그 병은 쉽게 치료가 되고 또 그 사람은 완전한 것이다.

食物 自外入而有所妨碍曰噎 自内受而有所拒格曰膈 朝食暮吐 暮食朝吐 曰反胃 然朝食而暮吐 暮食而朝吐者 非全食皆吐也 有所妨碍而拒格於胃之上口者 經宿而自吐也則反胃 亦噎膈也 蓋噎膈者 胃脘之噎膈也 反胃者胃口之噎膈也 同是一證也 有噎膈證者 必無腹痛腸鳴泄瀉痢疾之證也 太陽人 若有腹痛腸鳴泄瀉痢疾之證則小腸裏氣 充實也 其病易治 其人亦完健

6. 해역(解飢)과 일격(噎膈)은 다 같이 중하긴 하나 중한 중에도 경증의 등급이 있다. 해역(解飢)이 있으나 일격(噎膈)이 없으면 해역(解飢)의 경증(輕證)이요 일격(噎膈)이 있으나 해역(解飢)이 없으면 일격(噎膈)의 경증(輕證)이다. 만일 해역(解飢)에 일격(噎膈)을 겸하거나 일격(噎膈)에 해역(解飢)을 겸하면 중중이요 험증임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중하고 험한 증세 중에서도 또한 경증이 있으니 태양인(太陽人)의 해역(解飢)과 일격(噎膈)이 사경에 이르기 전에는 기거나 음식이 보통 때와 다름없으므로 사람들이 예사롭게 생각하여 보통 병증으로 간주하는 까닭에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 만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 태양인의 장부를 타고나서 일찍이 이 병을 앓은 일이 있었다.

6, 7년 동안 구역질을 하며 입에서 맑은 거품을 토하다가 그 후 수십 년 동안 섭생하므로 다행히 요사(夭死)를 면하였다. 그래서 이를 기록하여 만일 태양인이 되어 이런 병을 앓는 자가 있다면 경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치료법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분노를 멀리해야 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解飢噎膈俱是重證 而重證之中 有輕重之等級焉 解飢而無噎膈則解飢之輕證也 噎膈而無解飢則噎膈之輕證也 若解飢 兼噎膈 噎膈 兼解飢則

其爲重險之證 不可勝言 而重險中 又有輕重也 太陽人解休噎膈 不至死境之前 起居飲食 如常 人必易之 視以例病故 入於危境而莫可挽回也 余稟賦太陽人 嘗得此病 六七年嘔吐涎沫 數十年攝身 倖而免天 錄此以爲太陽人有病者戒 若論治法 一言弊曰遠嗔怒而已矣

7. 태양인(太陽人)은 본래 의지가 강하고 지조가 약하다. 의지가 강하면 위완(胃脘)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호산(呼散)하는 기가 태과(太過)하므로 넘어서게 되고, 지조가 약하면 소장(小腸)의 기운이 중초(中焦)에서 붙잡혀서 흡기(吸氣)의 모여드는 것이 지탱하지 못하여 주리게 되니 그 병이 일격(噎膈)·반위증(反胃證)이 되는 것이다.

太陽人 意強而操弱 意強則胃脘之氣 上達而呼散者 太過而越也 操弱則小腸之氣 中執 而吸聚者 不支而 餒也 所以其病 爲噎膈反胃也

8. 어느 사람이 묻기를 “주진형(朱震亨)이 이르기를 ‘일격(噎膈) 반위(反胃)는 모두 혈액이 모손(耗損)되고 위완(胃脘)이 건조하여 음식물이 목 안에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의 학설이 어떠한가”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음식물이 위(胃)에 들어간즉 비(脾)가 이를 영위하고 다시 대장(大腸)에 내려간즉 신(腎)이 영위하니 비(脾)와 신(腎)은 음식을 출납하는 부고(府庫)로서 서로 보충하며 사하(瀉下)하는 자인 것이다. 기액(氣液)이 위완(胃脘)에서 호산(呼散)하면 폐(肺)가 이를 영위하고, 소장(小腸)에서 흡입(吸入)되면 간(肝)이 이를 영위하므로 폐(肺)와 간(肝)은 기액(氣液)을 호흡하는 문호로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진퇴하는 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양인의 대장(大腸)은 음식물의 음한(陰寒)한 기를 내보내는 힘이 부족한즉 위(胃) 속에 들어 있는 음



식물의 양열(陽熱)의 기가 반드시 성할 것이다. 태양인의 소장(小腸)은 기액(氣液)의 음양(陰涼)한 기를 흡입하는 힘이 부족하면 위완(胃脘)에서 호산(呼散)하는 기액(氣液)의 양온(陽溫)한 기가 반드시 성할 것이다. 위완(胃脘)의 양온(陽溫)한 기가 성하면 위완(胃脘)의 혈액이 마른다는 것은 그 형세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단 건조(乾枯)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 호산(呼散)하는 기가 태과(太過)하고 중초(中焦)에서 흡입하는 기가 지나치게 지탱하지 못하므로 음식이 흡수되지 못하고 도리어 호출(呼出)하게 되는 것이다.”

問朱震亨 論噎膈反胃曰血液 俱耗 胃脘 乾槁 食物 難入 其說 如何 曰 水穀納於胃而脾 衛之 出於大腸而腎 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而迭爲補瀉者也 氣液 呼於胃脘而肺 衛之 吸於小腸而肝 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而迭爲進退者也 是故 少陽人大腸出水穀陰寒之氣 不足則胃中納水穀陽熱之氣必盛也 太陽人小腸吸氣液陰涼之氣 不足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 必盛也 胃脘陽溫之氣 太盛則胃脘血液 乾槁 其勢固然也 然非但乾槁而然也 上呼之氣太過而 中吸之氣 太不支故 食物 不吸入而還呼出也

9. 어떤 사람이 문기를 “주진형(朱震亨)이 말한바 ‘일격(噎膈)과 반위(反胃)는 어찌 소양(少陽)·소음(少陰)·태음인병(太陰人病)이 아님을 알았고 그대는 반드시 태양인병(太陽人病)이라 단정하였으며’ 『내경(內經)』에서 이른바 ‘해역(解體)은 어찌 소음(少陰)·소양(少陽)·태음인(太陰人)의 병이 아님을 알았고 그대는 반드시 태양인병(太陽人病)이라’ 단정하였으니 역지로 꾸며진 이론이 아닐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만일 소양인이 구토가 있으면 반드시 열이 많을 것이요, 소음인이 구토가 있으면 반드시 한기

(寒氣)가 심할 것이요, 태음인이 구토가 있으면 반드시 병이 풀릴 것이다. 그런데 일격(噎膈)·반위증(反胃證)은 한기도 없고 열기도 없으며, 실하지도 않고 허하지도 않으니 이 어찌 태양인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해역(解飢)이라 함은 상체가 완건(完健)하고 하체가 해역(解飢)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정강이가 저리고 행거(行去)를 못 하는 것을 이룬 것이니 소양·소음·태음인에게 이런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다른 증세가 겹칠 것이요, 한(寒) 같아도 한증(寒證)이 아니요 열(熱) 같아도 열증(熱證)이 아니며, 약한 것 같아도 약하지 않고 씩씩한 것 같아도 씩씩하지 않을 이치가 없을 것이다.”

或曰朱震亨所論噎膈反胃者 安知非少陰少陽太陰人病 而吾子 必名目曰太陽人病 內經所論解飢者 安知非少陰少陽太陰人病 而吾子 必名目曰太陽人病莫非牽強附會耶 願聞其說 曰少陽人 有嘔吐則必有大熱也 少陰人 有嘔吐則必有大寒也 太陰人 有嘔吐則必病愈也 今此噎膈反胃 不寒不熱非實非虛則此非太陽人病而何也 解飢者 上體完健而下體 解飢然筋痿不能行去之謂也 少陰少陽太陰人 有此證則他證 疊出而亦必無寒不寒熱不熱弱不弱壯不壯之理矣

10.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가 태양인 해역병(解飢病)을 다스리는 법에 ‘깊이 슬퍼함을 경계해야 하고 분노를 멀리하며 마음을 맑게 닦아야 한다’고 하였고, 또 일격(噎膈)을 치료하는 법에 ‘노기를 멀리하고 기름진 음식을 금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생각건대 태양인의 해역병(解飢病)이 일격병(噎膈病)보다 중한 것 같으니 애(哀)로 마음이 상한 것이 노심(怒心)으로 상한 것보다 중한가”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태양인의 일격병(噎膈病)이 해역증(解飢證)보

다 중하기에 노심(怒心) 때문에 상한 것이 애심(哀心)으로 상한 것보다 중한 것이다. 태양인의 애심(哀心)이 깊어지면 표기(表氣)를 상하고 노심(怒心)이 폭발하면 이기(裏氣)를 상한다. 그러므로 해역(解佚)은 표증(表證)이니 만치 애심(哀心)을 경계하고 노심(怒心)을 멀리할 것을 아울러 말해둔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 소양인의 노성(怒性)은 입·방광의 기를 상하고 애정(哀情)은 신(腎)·대장(大腸)의 기를 상하며, 소음인의 낙법(樂法)은 눈·등마루[배려(背脊)]의 기를 상하고, 희정(喜情)은 폐(肺)·위(胃)의 기를 상하며, 태음인의 희성(喜性)은 귀·목덜미[뇌추(腦顙)]의 기를 상하고, 낙정(樂情)은 폐(肺)·위완(胃脘)의 기를 상하는가” 하기에 “그러하다”고 하였다.

或曰吾子 論太陽人解佚病治法曰戒深哀 遠嗔怒修清定 論噎膈病治法曰遠嗔怒斷厚味 意者太陽人解佚病 重於噎膈病 而哀心所傷者 重於怒心所傷乎 曰否 太陽人噎膈病 太重於解佚病 而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哀心 深着則傷表氣 怒心 暴發則傷裏氣故 解佚表證 以戒哀遠怒 兼言之也 曰然則少陽人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樂性 傷目膂氣 喜情傷脾胃氣 太陰人喜性 傷耳腦氣 樂情 傷肺胃脘氣乎 曰然

11. 태양인(太陽人)의 대변은, 첫째 매끄럽게 나와야 하고, 둘째로 덩어리가 크고 양이 많아야 하며, 소변은, 첫째 양이 많아야 하고, 둘째로 자주 보아야 한다. 얼굴빛은 희어야 하고 검어서는 안 되며, 살갗은 말라야 하고 살이 찌서는 안 되며, 명치[구미(鳩尾)] 밑이 판판한 덩어리가 있어도 안 된다. 덩어리가 작으면 병이 가볍고 그 덩어리는 곧 풀릴 것이요, 덩어리가 크면 병이 중하고 그 덩어리는 풀리기 어렵다.

太陽人大便 一則宜滑也 二則宜體大而多也 小便 一則宜多也 二則宜數也 面色 宜白不宜黑 肌肉 宜瘦不宜肥 鳩尾下 不宜有塊 塊小則病輕而其塊 易消 塊大則病重而其塊 難消

## 제21장 태양인(太陽人) 처방(處方)

一. 본초(本草)에 실려 있는 태양인(太陽人) 병에 경험한 요약(要藥) 중에서 단방(單方) 열 가지와 이천(李杲), 공신(龔信)이 경험한 요약(要藥) 중에서 단방약(單方藥) 두 가지

### 1. 본초(本草)에 실린 단방(單方)

#### 1) 오가피(五加皮)

다리가 저리고 아프며 골절이 오그라져서 앉은뱅이가 된 데에 쓴다.  
치험(治驗)－세 살 난 어린아이가 걷지를 못하므로 이 약을 복용하게 했더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 2) 절송(松節)(소나무 마디)

다리가 연약하여 힘이 없는 데 쓴다.

3) 목고(木苺)

구역(嘔逆)을 멎게 한다. 달여서 먹거나 즙을 내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4) 포도근(葡萄根)

딸꾹질을 멎게 한다. 진하게 달여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다.

5) 미후도(獼猴桃)(다래)

열이 막혀서 반위증(反胃證)이 된 데 쓴다.

혹 덩굴을 쓸 수도 있는데, 반드시 달여서 먹어야 한다. 생즙으로 먹으면 속이 느긋거려서 도리어 구역(嘔逆)이 더 한다.

6) 노근(蘆根)

건구(乾嘔)와 목이 막힌 것을 열어 주는 작용을 한다. 또 오일(五噎) 번민(煩悶)을 다스린다.

노근(蘆根) 187.5g을 달여서 물 한 되가량 되면 단번에 마신다. 서너 되 정도면 꽤히 나올 수 있다.

[주(註)] ○오일(五噎): 기혈허손(氣血虧損) · 우사비에(憂思悲恚) · 비위수상(脾胃受傷) · 혈액고고(血液枯槁) · 기울생담(氣鬱生痰).

이는 신경성으로 된 일격증(噎膈證)을 말하는 것이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신 안정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약을 써야 한다.

7) 방합(蚌蛤)(합조개)

주로 반위(反胃) · 토식(吐食)을 치료한다.

8) 즉어(鰵魚)(붕어)

반위증(反胃證)을 치료한다.

9) 순(蓴)(순나물)

즉어(鰵魚)(붕어)와 국을 끓여서 먹는다.

반위증(反胃證)과 소화가 안 되는 데 쓰며 구역(嘔逆)을 멎게 한다.

10) 교맥(蕎麥)(모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도와준다.

2. 이천(李橪)이 말한바 단방(單方) 요령(要藥)

방아깽이에 묻은 겨[저두강(杵頭糠)]

곱게 가루로 하여 37.50g씩 흰죽에 타서 먹는다.

일격증(噎膈證)을 다스린다. 소화가 안 되고 목구멍이 막힌 데 쓴다.

3. 공신(龔信)이 말한 단방(單方) 요령(要藥)

방합(蚌蛤)(합조개)

반위증(反胃證)을 치료한다.

二. 새로 설정(設定)한 태양인병(太陽人病)에 응용(應用)하는 두 가지의 처방(處方)

1) 오가피장척탕(五加皮壯脊湯)

오가피(五加皮) 15.00, 목고(木苾) · 청송절(靑松節) 각 7.50, 포도근(葡萄根) · 노근(蘆根) · 앵도육(櫻桃肉) 각 3.75, 교맥미(蕎麥米) 반 술갈, 청송절(靑松節)은 구하기 어려우므로 솔잎의 새순을 대용(代用)해도 좋다. 이 처방은 태양인 표증(表證)에 쓴다.

2) 미후등식장탕(彌猴藤植腸湯)

미후등(彌猴藤) 15.00, 목고(木苾) · 포도근(葡萄根) 각 7.50, 노근(蘆根) · 앵도육(櫻桃肉) · 오가피(五加皮) · 송화(松花) 각 3.75, 저두강(柞頭糠) 반 술갈

미후등(彌猴藤)은 구하기 어려우므로 덩굴을 대용(代用)해도 좋다. 이 처방은 태양인 이증(裏證)에 쓴다.

1. 무릇 채소나 과실은 신선하고 담박하므로 모두 간(肝)의 약이다. 또한 조개류도 간을 보(補)하는 약이다.

凡菜果之屬 清平疏散之藥 皆爲肝藥 蛤屬 亦補肝

2.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약의 경험이 넓지 못함은 병의 경험이 넓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양인(太陽人)은 예로부터 숫자가 적어서 옛 의서에도 이에 대한 증세와 약을 실은 것이 별로 많지 않다. 이제 오



가피장척탕(五加皮壯脊湯) · 미후등식장탕(彌猴藤植腸湯)의 두 가지 처방을 만들었으나 너무 간략하고 충분하지 못한 줄 안다. 그러나 태양인이 만일 병이 생겼을 때 이 처방을 가지고 그 이치를 자세히 생각하고 변통하여 새로운 처방을 만들 수 있다면 어찌 좋은 약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論曰 藥驗 不廣者 病驗不廣故也 太陽人數 從古稀少故 古方書中所載 證藥 亦稀少也 今此五加皮壯脊湯彌猴藤植腸湯 立方 草草 雖欠不博而 若使太陽人有病者 因是二方 詳究其理而又變通置方則何患乎無好藥哉



## 원저 발문

1. 이 책은 1893년[계사(癸巳)] 7월 13일에 시작하여 밤낮으로 생각하고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연구하여 다음 해[갑오(甲午)] 4월 13일에 이르러서 ‘소양인(少陰人)·소양인론(少陽人論)’을 대략 갖추었고, ‘태양인(太陽人)·태음인론(太陰人論)’은 간략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경험미 미비하고 정신이 곤비하였기 때문이다. 옛 기록에 “열어도 통달하지 못하면 생각을 하라”고 하였으니 만일 태음인(太陰人)·태양인(太陽人)에 대하여 생각하여 얻을 수만 있다면 간략하다고 해서 무엇이 손해될 것이 있겠는가.

此書 自癸巳七月十三日始作 晝思夜度 無頃刻休息 至于翌年甲午四月十三日 少陰少陽人論則略得詳備 太陰太陽人論則僅成簡約 蓋經驗未遍 而精力已憊故也 記曰 開而不達則思 若太陰太陽人 思而得之則亦何損乎 簡約哉

2. 가령 만호(萬戶)나 사는 고을에 한 사람의 질그릇 굽는 사람이 있다면 그릇이 부족할 것이요, 백호(百戶)가 사는 마을에 한 사람의

의사가 있으면 사람 살려내는 일에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널리 의학을 밝혀서 집집마다 의학을 알고 사람마다 병을 알게 된 연후에 가히 세인(世人)은 장수하고 원기(元氣)는 보존될 것이다.

萬室之邑 一人陶則器不足也 百家之村 一人醫則活人 不足也 必廣明醫學 家家知醫 人人知病然後 可以壽世保元

3. 광서(光緒) 갑오(甲午) 4월 13일 함흥(咸興) 이제마(李濟馬)는 한남산중(漢南山中)에서 이 글을 필(畢)하였음.

[부기(付記)] 갑오(甲午)년에 이 글을 마친 뒤에 을미(乙未)년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경자(庚子)년에 다시 이 원고를 정리하여 ‘의원론(醫源論)’으로부터 ‘태음인론(太陰人論)’까지 모든 것을 더하고 깎고 하여 정정하였지만 나머지 논문은 정정하지 못하고 그전의 원고를 그대로 간행한 것이다.

光緒甲午四月十三日 咸興李濟馬畢書于漢南山中 甲午畢書後乙未下鄉至于庚子 因本改抄 自醫源論 至太陰人諸論 各有增刪 而其餘諸論 未有增刪故 並依新舊本刊行

## 발문

이 책을 발행하게 된 것은 <이을호 전서> 초간본이 품절되어 찾는 독자들이 많았고, 전서의 증보와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망에 따른 것입니다. 전서가 발행된 이후에도 특히 번역본에 대한 일반 독자의 수요가 많아서 『간양록』을 출간하였으며, 『한글 사서』(한글 중용·대학, 한글 맹자, 한글 논어)는 비영리 출판사 ‘올재 클래식스’가 고전 읽기 운동의 교재로 보급하였고, 인터넷에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논어』는 교수신문에서 ‘최고의 고전번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간 선친의 학문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생전의 행적을 기리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서세(逝世) 이듬해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선친께서는 생전에 자신의 항일활동을 굳이 내세우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영광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옥고를 치렀던 일들을 사후에 추증한 것입니다.

항리 영광군에서도 현창사업이 있었습니다.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사적비(事績碑)가 영광읍 우산공원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금석(金石)의 기록 또한 바라지 않으신 것을 알기에 영광군에서 주관한 사적비의 건립 역시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세 5주년 때는 ‘선각자 현암 이을호 선생의 내면세계’를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이 영광문화원 주최로 영광군에서 열렸습니다. 그의 학문이 “한국의 사상과 역사를 새롭게 연구하고, 우리 문화의 미래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음이 알려지자,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남지회’에서는 『현암 이을호』라는 책을 간행하여 여러 곳에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영광군에서는 전국 도로명주소 전환 사업 시 고택(故宅) 앞 길을 ‘현암길’로 명명하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전남대학교가 ‘이을호 기념 강의실’을 옛 문리대 건물에 개설하여 그곳에 저서를 전시하고, 동양학을 주제로 하는 강의와 학술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친의 학문 활동은 일제시대 중앙일간지와 『동양의학』 논문지 등에 기고한 논설들이 그 효시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학문의 천착은 일생 동안 몸담으셨던 전남대학교에서 이루어졌음을 기린 것입니다. 지금은 생전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셨던 ‘호남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연구도 뿌리를 내리게 되어 ‘호남학’을 정립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자학회에서 논문집 『현암 이을호 연구』를 간행하였고, 최근 출간한 윤사순 교수의 『한국유학사』에서 그 학문적 특징을 ‘한국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업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 학문이 하나의 논리와 체계를 갖춘 ‘현암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출간이 ‘책을 통하여 그 학

문과 삶이 남기'를 소망하셨던 선친의 뜻에 다소나마 보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이 전집이 간행되기까지 원문의 번역과 교열에 힘써 준 편집위원 제위와 이 책을 출간하여준 한국학술정보(주)에도 사의를 드립니다.

2014년 첫 봄  
장자 원태 삼가 씀

## 편집 후기

2000년에 간행된 <이을호 전서>는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편찬하였었다. 따라서 다산의 경학을 출발로, 그 외연으로서 다산학 그리고 실학과 한국 사상을 차례로 하고, 실학적 관점으로 서술된 한국 철학과 국역 『다산사서(茶山四書)』, 『다산학제요』 등을 실었던 것은, 다산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적 사유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그 밖의 『사상의학』과 『생명론』은, 선생이 한때 몸담았던 의학에 관계된 저술이었다.

지금은 초간본이 간행된 지 14년의 세월이 흘러, 젊은 세대들은 원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논문의 서술방식 또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집의 간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아 이번에 <현암 이을호 전서>를 복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편차는 대체적으로 선생의 학문적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간행되었던 <이을호 전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각 책을 따로 독립시켜 각자의 특색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원문의 번역과 문장의 교열을 통하



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원문의 국역이었다. 저자는 문장의 서술과정에서 그 논증의 근거를 모두 원문으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인용문은 모두 국역하고 원문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또한 그 글의 출처와 인명들도 모두 검색하여 부기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전의 책은 그 주제에 따라 분책(分冊)하였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한 책으로 엮였으나 이번 새로 간행된 전집은 다채로운 사상들이 모두 그 특색을 나타내도록 분리한 것이다. 이는 사상적 이해뿐 아니라 독자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서세 후에 발견된 여러 글들을 보완하고 추모의 글도 함께 실어서 그 학문세계뿐 아니라 선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이제 이와 같이 번역·증보·교열된 <현암 이을호 전서>는 선생의 학문이 한국사상연구의 현대적 기반과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한국 문화의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 손색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갑오년(甲午年) 맹춘(孟春)

증보·교열 <현암 이을호 전서>북간위원회

안진오 오종일 최대우 백은기 류근성 장복동 이향준 조우진  
김경훈 박해장 서영이 최영희 정상엽 노평규 이형성 배옥영

##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 개요

### 1. 『다산 경학사상 연구』

처음으로 다산 정약용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저서이다. 공자 사상의 연원을 밝히고 유학의 근본정신이 어디에서 발원하였는가 하는 것을 구명한 내용으로서, 유학의 본령에 접근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신국판 346쪽).

### 2. 『다산 역학 연구』(上)

### 3. 『다산 역학 연구』(下)

다산의 역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책으로서 다산이 밝힌 역학의 성립과 발전적 특징을 시대적으로 제시하고 다산이 인용한 모든 내용을 국역하였다(신국판 上, 下 632쪽).

### 4. 『다산의 생애와 사상』

다산 사상을 그 학문적 특징에 따라서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사상으로 재해석한 책이다(신국판 260쪽).

#### 5. 『다산학 입문』

다산의 시대 배경과 저술의 특징을 밝히고, 다산의 『사서오경(四書五經)』에 대한 해석이 그 이전의 학문, 특히 정주학(程朱學)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주제별로 서술하여 일표이서(一表: 經世遺表 / 二書: 牧民心書, 欽欽新書)의 정신으로 결실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책이다(신국판 259쪽).

#### 6. 『다산학 각론』

다산학의 구조와 경학적 특징, 그리고 그 철학 사상이 현대정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 상세하게 논한 저서이다(신국판 691쪽).

#### 7. 『다산학 강의』

다산학의 세계를 목민론, 경학론, 인간론, 정경학(政經學), 『목민심서』 등으로 분류하여 다채롭게 조명하여 설명한 책이다(신국판 274쪽).

#### 8. 『다산학 제요』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論語)』, 『맹자(孟子)』의 사서(四書)는 물론 『주역』, 『시경』, 『악경』 등 모든 경서에 대한 다산의 이해를 그 특징에 따라 주제별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특징을 서술한 방대한 책이다(신국판 660쪽).

### 9. 『목민심서』

다산의 『목민심서』를 현대정신에 맞도록 해석하고, 그 가르침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수용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구성한 책이다(신국판 340쪽).

### 10. 『한국 실학사상 연구』

조선조 실학의 특징을, 실학의 개념, 실학사상에 나타난 경학(經學)에 대한 이해, 조선조 실학사상의 발전에 따른 그 인물과 사상 등의 차례로 서술한 것이다.(신국판 392쪽)

### 11. 『한 사상 총론』

단군 사상에 나타난 ‘한’ 사상을 연구한 것이다. 단군사상으로부터 ‘한’ 사상의 내용과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근대 민족종교의 특성에 나타난 ‘한’의 정신까지, 민족 사상을 근원적으로 밝힌 책이다(신국판 546쪽).

### 12. 『한국철학사 총설』

중국의 사상이 아닌 한국의 정신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철학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의 정신, 특히 조선조 실학사상에 나타난 자주정신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이는 중국의 의식이 아닌 우리의 철학 사상의 특징을 밝혔다(신국판 611쪽).

### 13. 『개신유학 각론』

조선조 실학자들의 사상적 특징, 즉 윤희, 박세당, 정약용, 김정희

등의 사상을 서술하고 실학자들의 저서에 대한 해제 등을 모은 책이다(신국판 517쪽).

#### 14. 『한글 중용·대학』

『중용』과 『대학』을 다산의 해석에 따라 국역한 것이며, 그 번역 또한 한글의 해석만으로서 깊은 내용까지 알 수 있도록 완역한 책이다(신국판 148쪽).

#### 15. 『한글 논어』

다산이 주석한 『논어고금주』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어』를 한글화한 책이며 해방 후 가장 잘된 번역서로 선정된바 있다(신국판 264쪽).

#### 16. 『한글 맹자』

『맹자』를 다산의 『맹자요의』에 나타난 주석으로서 한글화하여 번역한 책이다(신국판 357쪽).

#### 17. 『논어고금주 연구』

『여유당전서』에 있는 『논어고금주』의 전체 내용을 모두 국역하고, 그 사상적 특징을 보충 설명한 것이다. 각 원문에 나오는 내용과 용어들을 한(漢)나라로부터 모든 옛 주석에 따라 소개하고 다산 자신의 견해를 모두 국역하여, 『논어』에 대한 사상적 본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신국판 665쪽).

18. 『사상의학 원론』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1838~1900)가 쓴 『동의수세보원』의 원문과 번역, 그리고 그 사상에 대한 본의를 밝힌 것으로서 『동의수세보원』의 번역과 그 내용을 원론적으로 서술한 책이다(신국판 548쪽).

19. 『의학론』

저자가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당시의 질병과 그 처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의학에 대한 서술이다(신국판 261쪽).

20. 『생명론』

저자가 만년에 우주에 대한 사색을 통하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의 유기체적 관계로서 형성되고 소멸된다는 사상을 밝힌 수상록이다(신국판 207쪽).

21. 『한국문화의 인식』

한국의 전통문화에 나타난 특징들을 각 주제에 따라서 선정하고 그것들이 지니는 의미를 서술하였으며 또한, 우리 문화를 서술한 문헌들에 대한 해제를 곁들인 책이다(신국판 435쪽).

22. 『한국 전통문화와 호남』

호남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리 풍속 의식과 저술들을 주제별로 논한 것이다(신국판 415쪽).

23. 『국역 간양록』

정유재란 때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의 스승이 되어 일본의 근대 문화를 열게 한 강항(姜沆)의 저서 『간양록』을 번역한 것이다(신국판 217쪽).

24. 『다산학 소론과 비평』

다산의 사상을 논한 내용으로서, 논문이 아닌 조그마한 주제들로서 서술한 내용과 그 밖의 평론들을 모은 책이다(신국판 341쪽).

25. 『현암 수상록』

저자가 일생 동안 여러 일간지 및 잡지에 발표한 수상문을 가려 모은 것이다(신국판 427쪽).

26. 『인간 이을호』

저자에 대한 인품과 그 학문을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여 여러 책에 실린 글들을 모은 책이다(신국판 354쪽).

27. 『현암 이을호 연구』

현암 이을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집으로서 그 학문과 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업적이 앞으로 한국사상을 연구하는 기반을 닦았다는 것을 밝힌 책이다(신국판 579쪽).

지은이 소개 | 현암玄庵 이을호李乙浩(1910~1998)

전남 영광에서 출생했다. 중앙고보 시절에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1837~1900)의 제자, 해초海初 최승달崔承達로부터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전수받고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동의수세보원>을 번역하여 사상의학의 현대적 개척자가 됐다. 영광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민족자강운동에 앞장섰다가 체포되어 옥중에서 <여유당전서>를 접하고, 출옥 후 한국 사상과 문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광복과 함께 사재를 염출하여 영광민립중학교를 세우고 교육 운동에 진력했다.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부임해 다산 경학 사상 연구를 기초로 조선조 사상을 탐구하고, 민족 고유의 정신으로 한국 문화의 자주성을 발견하여 한국학의 개척자가 됐다. 이러한 업적으로 “한국 사상 연구의 현대적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생의 학문은 <현암 이을호 연구>를 비롯,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고 있으며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은 광복 후 개인 문집 중 가장 많은 양과 깊이를 인정받고 있다.

## 사상의학 원론

©사단법인 올재

초판 발행 | 2018년 10월 31일

지은이 | 이을호

펴낸이 | 홍정욱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http://www.olje.or.kr)

ISBN | 979-11-5993-083-6 05150